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사람과기술, 부산  
문화로 융합하는

부산구술문화총서 6

# 서부산 문화권 설화(II)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편

박경수 · 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7



# 일 러 두 기

##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자료와 민요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로 서부산 문화권에 해당하는 북구·사상구·사하구의 설화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I. 현장조사 설화,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 III. 문헌 소재 설화로 편성하고, 각 장의 설화를 동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I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설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 (5) II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설화의 자료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 (6) III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설화를 엮은 것으로, 동일한 설화의 경우 먼저 출판된 설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설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각주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 2. 표기 원칙

-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①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 (3) I부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구연 상황은 대괄호 [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 (4) II부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 (5) III부 문헌 소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 ● ● ● ● ● 각 권 별 편 제

-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I)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예정]
-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I)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예정]
-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 - 금정구·동래구·연제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I) -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4권 부산광역시 설화·민요 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 목 차

일러두기 .....	i
I. 현장조사 설화 .....	1
1. 복구 설화 .....	3
2. 사상구 설화 .....	157
3. 사하구 설화 .....	297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 -박경수의 현장조사 설화- .....	495
1. 복구 설화 .....	497
2. 사상구 설화 .....	499
3. 사하구 설화 .....	508
III. 문헌 소재 설화 .....	529
1. 복구 설화 .....	531
2. 사상구 설화 .....	611
3. 사하구 설화 .....	623
※ 참고문헌 .....	636
※ 제보자 색인 .....	637
※ 설화 제목 색인 .....	641



# I. 현장조사 설화

1. 복구 설화
2. 사상구 설화
3. 사하구 설화



## 1. 복구 설화

[복구 설화 1]

### 꼬부랑 이야기

김무순(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꼬부랑 할매가예. 짝대기로 짚고 꼬부랑 해가 꼬부랑 길로 가는데, 그래 꼬부랑 개가 와서 해필에(하필이면) 꼬부랑 할매 똥을 눈게네, 똥을 묵다가 그래 마 거한께네 할매가 짝대기로 썰리 준께네, 그래가,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일동 웃음]

[복구 설화 2]

### 저승 가서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 사람

김무순(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옛날에 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을 갔어. 저 뭐고 저승을 다 가이꺼네,

“나는 좋은 일로 몬 해서 몬 온다.”

카모 후차내가지고(쫓아내서) 산질겉이(산 것같이) 놓었으이, 또 그 우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을 다 가이꺼네, 산질겉이(산 것같이) 놓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아이(아직) 올 때 안 됐다.”

후터기(쫓겨서) 구름다리 넘어가 오이꺼네, 후차내이 그 친구가 산질겉이 놓어가지고,

“나는 우째서 가노? 나는 젊을 때 좋은 일로 몬 했다고 몬 오구로 해가 밥도 몬 얻어묵고 후터기(쫓겨) 나와가 있다. 저 우리 집에 가거들랑 부디.”

마누래한테 이름을 갈차면서,

“마누래한테 날로 굿을 한 서너 번 잘해 주면은 이걸 조금 벗어나가 내 밥을 얻어먹을 성하다. 부탁 좀 해두고.”

이카이꺼네, 그래 이 사람이 살아와가주고, 저 뭐고 저 죽은 그 사람 집을 찾아가가지고서는, “그래야 가우야 카고 내가 죽어가지고 가이꺼네, 아무개가 그래 나는 좋은 일로 몬 해가지고 산질같이 늙어가지고 밥도 몬 얻어묵고, 허무하게 늙어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가거들라 부디 그래 날로 큰 곳을 한 서너 번 해주면은 내가 쪼금 벗어나가 거하겠다고 부디 좀 부탁해 달라.”

카이꺼네,

“이-이! 도둑놈이 어데서 오났고(오느냐고)?”

그 집에서 간지깡이캉(긴 작대기로) 막 후차내고 짹대기로 가 다 후차내거든. 에이 카고 마 뛰시오뿌이(뛰어오니),

“에이 너거 낸중에 봐라.”

카고 뛰어가가 집에 있으이까네 한 열흘 한 달쯤 있으이 삽적거리 비잡도록(비좁도록) 들오거든. 삽작걸에 비잡도록 와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이.

인자 가고 나서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 곳을 해보고 점도 해보고 오만 짓을 다 하이꺼네, 참 부모가 좋은 데 몬 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 그런 기 자꾸 나이꺼네, 그래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이 사람을 집을 찾아가가 잘문했다고 굴복을 하민서는(하면서) 갈차(가르쳐) 돌라고. 바리(바로) 갈차돌라고 하도 그래 싸서(해서) 갈차주가지고, 그래 갈차주이 그 집에서 참 큰 곳을 밋(몇) 번 하고, 그래가 좋은 데 갔는가 우엿는고. 그래 꿈에,

“내가 잘 거거 해가 잘 묵고 잘 거거 해가 좋은 데 갔다.”

고 해가지고, 그래 꿈에 나타나고 곳을 하고 거 해가 하이꺼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참 굴복을 하고, 우리가 잘 몬 댘다고. 잘 몬 했다고 그래 거 했다고 그래 싸가지고, 그래 사람이 참말로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저 저 사람이라 카더라.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래 꿈에 나타나가지고 참 잘댘다고 거 카더라.

[북구 설화 3]

## 사람 다리를 삶아 먹여 남편 살린 부인

김무순(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옛날에예 자기 인자 남편이 역수로 아픈데, 폐암에 걸리가 아푸는데예, 그래 참 이래 어데 거거 하이꺼네,

“사람 다리로 하나 삶아 먹으면 이 남자를 나순다(낫게 한다) 카는, 폐암을 나순다.”

캐서예, 그래 이 사람이 참 밤에 캄캄 어둡운데 아무도 안 볼 때 인자 무섭은께네, 자기도 술을 한 잔 딱 묵고예, 깽이로(깽이로) 하나 메고 이래 갔는데, 가가 이래 본께네, 애장터에 이래 사람이 꼭 있는데 옛날에는 마 이래 다 몬 묻고 꺼죽이로(거적으로) 이래 덮어 났는데 이 사람이 우째 꺼낸다고 꺼내다 보이 사람 다리로 하나 짤라가 왔다 카예. 그래 그거로 마 똥치가(흙쳐서) 내라 오는데 마 귀신이 따라 오민서,

“내 다리 내 놔라!”

고 괄을(고함을) 지르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마 끝까지 이 사람이 안 내빼고(내어 버리고) 집에 오가 살아주이, 낸중에(나중에) 거기 참 동삼(童叟)이라예. 그래 그 남편을 살렸답니다. 그거로 살아주고.

[북구 설화 4]

### 아기 죽어 썩은 물로 남편 병 고친 부인

김무순(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저 강 건너 저리 저 이씨, 이가들 집안엔데 강 건너로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그거 뭇고 폐암 말고 똥이고 이거? [조사자: 간암인가? (웃음)] 아니 간암도 아이고 와 요시(요사이), 폐는 마 폐, 펜기라예.

펜데, 그래 이 사람은 진짜로 그래 아푸는데, 누가 저저 그거로 사람 죽은, 옛날에는 아들 물어문 단지 거 구멍을 뚫고 묻은 것도 있고 안 뚫고 묻은 것도 있고. 너더랑에 이래예 돌로 열어간 갖다 단지 채로 열어갖고(넣어서) 아로 죽으면 그 안에 열어가 이래 헨 걸 밑구정(밑구멍) 안 빠진 거는 물이 있고. 그래 이 사람이 밤에 참 아무도 모르게 마 거 인자 그릇 하나 갖고 인자, 거 남자 살릴라고예. 그래 가가지고 두 개로 파인께네 밑에 빵꾸 나서 물도 없고, 세 개채 판께네(파니까) 물이 풍덩하이 깽히가(고여서) 있더라대. 그래 그 물을 떠다가 남자 주는데, 남자가 진짜 살렸어 그거로.

살리가, 살아갖고 이래 일도 하고 이런데, 그래 옛날에는 가뭇이 역수로 많았다 아입니까? 그래 인자 잘 낮았는데(나았는데), 이 사람이 인자 낮았은께네 이래 쟁끼이로 가지고 소 부리모, 요래 대가지고 이리 부리싸인께네(부리니까), 이기 마 탁탁탁 이래 가뭇에 이래 그거 해싸인께네에 가슴에다 대가 해싸인께네 거기 재발로 해갖고 죽었지. 처음에는 잘 낮았는데, 그래가 몇 년 더 살다가 재발해가 죽었다 카대. [조사자: 아하. (웃음)] 여자가 진짜 그 여자도 보통 여자가 넘어.

[복구 설화 5]

### 느린 충청도 말 때문에 죽은 아버지

김영숙(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산에서, 산에서 아버지가 저저 나무 하러 갔는 기라. [청중: 그거 충청도 사람이네.] 나무 하러 가가지고 쓱쓱 끊어냈는데 아들이 또 올라갔는 기라. 저거 아버지 나무를 하니까. 아들이 올라가서 우에 가서 끊어께네, 돌이 구불어 안 내려오나? 쓱쓱 끊은게 두구통 두구통 인자, 아버지 그 우에서, ‘아부-지-’ 불러봐야, 저 우에 있고 밑에 있은께 들리나? 들리도 안 하고, “아부-지! 도올 굴러가-유-.”

쿵께, 글개도(그렇게 해도) 이 돌 맞는, 구불어져 자꾸 내려오는 기라. 아버지가 치이 죽는가 우짜는가 그것도 모르고. 지 입만 씨부리다가 그래 저가부지(자기 아버지) 돌에 맞아 죽었다 쿠대. [조사자 웃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 쿠모, 그것도 짧게 [빠르게] “아버지 돌 굴러갑니다!” 쿠문 좀 비끼라 켜으몬 될 낀데, 이기 충청도 말이 되논께,

“도올 굴러-가-유-.”

고라인까네(그렇게 하니까), 고마 저거 아버지 ‘퍽!’ 카고 죽어, ‘퍽!’ 카고 죽었어. [일동 웃음] [청중: 그라인께네 안죽(아직) 구불러가요.]

[복구 설화 6]

###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손차조(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뭐 그래 샅대. 저승 가니까, 인자 안죽(아직) 나는 올 때가 멀었다 책장을 드다(들여다) 보고, “안죽 나는 멀었다.”

이래 된께네,

“그래 어짜몬 됩니까?”

그께네,

“니는 가라. 아직 멀었다. 할 일이 남았다.”

카면서 가라고 내보냈어. 내보내이카네 또랑이(도랑이) 있는데, 지럽대이로(겨릅대로, 즉, 껍질을 벗긴 삼대로), 우리는 저럽대로 카거든. 저럽대로 두 개를 나냈어. 내놓고 그래,

“건너가라. 저 질로 건너가라.”

카이까네, 가다 반쯤 가다가 탁 고마 뿌라졌뽀다. 지럽대이 그거 약하다 아이가? 탁 빨라졌어. 그 질로 돌아왔다고 얘기 하더라네. 살아났어.

[복구 설화 7]

## 제삿밥 먹지 못한 혼령

정재임(여, 192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잇날에(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소 장사를 하는데, 그래 인자 소 장시를 저 거창장매로(거창 장처럼) 가서 소를 팔고 온께 마 날이 저문 기라. 날이 저물라서, 그래 이래 저쪽에도 이십 리 이쪽에도 이십 린데, 아이 올라 카이 마 무섭아서 몬 니려 오겠더라 안 카나. 그래 질섞에(길섞에, 질 가장자리에) 소가 와 저게 어데 도망가도 미(묘) 짚에(결에) 누우(누워) 잔다 카거든.

그런께 이 사람이 질 가에 이래 오는데 미가 이래 있는데 미 짚에 거게 이래 누우 있는 기라. [조사자: 소가?] 아니. [조사자: 그 사람이.] 이이, 그 사람이. 잠이 샅포시 들라 칸께네 인자 비몽사몽간에 그 미에 거다 문을 열고 척 나오는데로 글티만. 그래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가,

“니는 그래 오늘 저녁에 그래 저 가면(가면) 니 잘 묵고 올긴데, 그래 오거들랑 마이(많이) 좀 싸가지고 오이라.”

이카더라 카는 기라. 그런께 인자, 그래 인자 갔는데, 그래 갔다 인자 오는 기라. 그래 오는데, 친구가,

“야 뭘 마이 싸가 오나.”

칸께네,

“나는 못 싸가 온다. 그래 저게 마 채리(차려) 놓기는 마이 잘 채리 났는데, 간께네, 구령 이를 척 걸치(걸쳐) 놓고 그래 놔서, 그래 몬 묵고 마 그양(그냥) 나왔다 배는 고파도. 그래 나오다가 어띠이(어떻게나) 보굴이(화가) 나던지 고마 저거 집에 손자로 갖다가 고만, 잇날에는 집에 모도 방앗간 있었거든, 디덜빠아(디덜방아), 디덜방에 마 밀어 영뽀디만은 그래 왔다. 밀어 열고 왔다.”

이카거든. 그런께 퍼떡 깐게 꿈이라. 그래 아이구 인자 그 사람이 인자 저거 집예를 인자 니러온다고 니러온께네, 거 와 잇날에는 사랑방이 마, 큰 부잣집(부잣집) 사랑방이 있거든, ‘거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그 집으로 떡 들어간께네로 그래 마-약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더라 캐. 그래 인자 그 정지땀 사람 하는 사람이 밥을 채리갖고 방을 여니 자기 있는 테로 가지고 오는데,

“그래 와 그래 저래 우는 소리가 듣기느냐고. 그래 오늘 지녁 지사를 지내는데 그래 와 그래 어른들하고 울어셨나?”

한께,

“오늘 지녁에 지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고마 디딜방아 거다가 고마 아가 처백히갖고(처박혀서) 마 칭기서(끼어서) 죽어뻘다.”

이카미, 그래 그 사람 거 미(묘) 앞에 자는 그 말이 전부 딱 맞는 기라 그래. 그래 인자 그 카더란다. ‘하아 이 참말로 내가 이거 꿈이 아이고 진실이다.’ 싶어서 그래 인자 밥을 배가 고파서 묵고 주인네 할아버지로 불렀는 기라. 부르민성,

“그래 간밤에 그래 저게 모사를(묘사를), 지사를 지냈는데, 그 지사 미, 미가 어디쯤에 있느냐?”

칸게네, 그래,

“자기 니러오는데 옆에 거게 질설에 있다. 그래 갈 때 이십리 올 때 이십린데 고 반튼은 니러오몬 그래 있다”

이카거든.

“그래 내가 거 미 짤에 오다가 무섭아서 잔게네로, 그래 마 지사판을 채려놓고, 잘 채리났는데, 그래 배암을 척 걸치나서 문 묵고 왔는데, 어찌 보골이 나던지, 배는 고파서 돌아서 면서 어찌 부애가 나던지 아를 물, 디딜바야 거다 밀아 열어뻘다 그카민성 그래 그카더라. 그카미 미로 드가더라.”

이카거든.

“아이구!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와가지고 빈걸로(빈 상태로) 갓는갑다. 못 잡숯고.”

그래 인자 미늘네들 불러 놓고,

“지사 음식을 할 때는 머리카락 걸은 걸 없으면 안 되는데, 너거가 잘못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걸치갖고, 이래 죽은 거석에는 뭐꼬 머리카락이 걸치가 있으면 배암으로 빈다. 구렁이로 빈다.”

거 딱 맞거든. 그래 인자 이 사람이 밥을 얻어먹고 나매,

“좋은 날로 받아가지고 새로 지사를 지내서, 그래 지내라. 그래야 되지, 그래 배가 고파서 간 조상을 갖다가 그양 거 하몬 안 된다.”

그카거든. 그래가 좋은 날을 받아갖고 지사를 지내고 난께, 그래 마 그 집이 마 잘 되더라 캐요.

[복구 설화 8]

### 첫날밤 신랑 오해로 소박맞은 처녀의 한

조봉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장가로 갔는 거라. 장가로 갔는데, 그래 인자, [청중: 문어 이야기?]. 그래. [웃으며] 그래가지고 밤에 이래 그거하이, 그때 이야기 그자?

그래가 인자 머리가 저저 그거 돼가지고 [청중: 첫날밤에.] 첫날밤에 자는데, 이 문어라. 문 앞에 바닷가 돼노이 그기 인자 문어가 푹 서가 이러니까, ‘아 저기 남자가 여게 있었구나’ 이라고. [청중: 정서방이 됐다 카고.] 그래 정서방우 있구나 싶어서 그래 옛날에 말로 짜다라 했습니까? 그래 갖고 인자 그날 첫날밤에 남자가 마 서울로 가뵈어. 마 옛날에는 처이가 그래 자몬 마 시집도 몬 가고 그 방에 마 평생을 살아야 되는 기라 인자. 몬 가니까. 처이 첫날 돼노이.

그래 인자 서울 갔다가 인자, 그래 옛날에 내가 여리(이곳으로) 지나갔는데 싫아서, 탁 지내고 오니까, 그래 그 방에 그양(그냥) 딱 족두리(족두리) 씨고, 그래 앉아 있더라대. 그래 갖고 한이 많으니 죽어도 하나도 이래 문지가(먼지가) 그자 요 쪽 이래 재가(쌓여서) 있는데, 그래 이래 드가니까, 그래 신랑이 드가 보니까, 그래 그기 한이 많아노이께노 그래 인자 이리 손을 한 분 대보니까 고기 마 썩 고양이 쓰러졌부더라네. [청중: 그래 신랑이 만지나와이께.] 그래 만치니까 고기 인제 마 고양이 재가 돼갖고. 그래가 그래 한 많은 세월 그기 있다. 그 옛날 이야기다 그기.

[조사자: 그거 중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드문 이야기인데.] 그기 옛날에, [조사자: 첫날밤에 인자 말하자면은.] [청중: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이야기라.] [조사자: 바닷가로 이 총각이.] 이 바꾸라. [조사자: 이 말이죠? 바닷가에 총각이 장가를 갔는데, 그 처녀가 있는 방에 문어가 올라오이카네.] 저 바닷가에 저 강, 이래 쪽 올라와 있으이께네. 머리가 이러이카네. [조사자: 그러이까네 인자 그 처녀가 다른 남자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렇지. [조사자: 그냥 가뵈네.]

[복구 설화 9]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조봉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그걸 인자 어머니가 고기를 찾으니까, 인자 메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돈이 없어서 사주질 못한다 아이가. 그래가이고 인자 지령이를 잡아갖고 그양 주문 표가(표가) 나고 샅자리 밑에 여 났다가(넣어 놓았다가) 말라가지고 그래 고거로 인자 푹 고와가이고 드렸다 합니더.

그런께 살이 자꾸 찌거든. 그러이꺼네 신량이 저 어마이를 마 마누래,

“우리 묵고 살게 없으이 갖다 팔아 묵자.”

이래 댘는 기라.

“다문 쌀 한 되라도 안 주겠나?”

이러 카면서.

[청중: 아 지령이를?] [청중 일동: 어데 어마이로.]

그래가지고 인자 그래 지령이 잡아다가 [청중: 사는 기 곤란하이께네.] 그래 그기 인자 잡숯고 나이께네 살이 똥똥하게 찌가지고 하얗거든. 그래 이 일도 거들어주고 저 일도 거들어 주고 이래 나노이께네, 마 메느리보고,

“인자 어무이 살이 마이 찌고 좋으이께네 누가 안 덕고 가겠나. 갖다 팔자.”

[청중 웃음] 그러카이께,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아들이 어마이 팔아 묵는 데가 어데 있는교?”

[조사자 웃음] 그래가지고 인자 어마이로 갖다가 도로.

[복구 설화 10]

## 해와 달이 된 오누이[수숫대가 빨간 이유]

하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자: 어무이가 이야기 잘 하시네.] 나도 구십, 못합니더. [조사자: 그래, 어떤 할무이가 떡을 해가지고 어데 넘어가다가?] 산 고개 넘어가다가 다 주뿌고, 한 고개 넘어가다가 주고 다 주뿌고. 떡 팔러가다가 주도 몬 하고 다 주뿌고나노이, 호랑이가 그 집에 인자 아-들(아이들) 있는데 가가 문을 뚜드리가지고 가이께네.

“우리 엄마 손 아이다. 우리 엄마 손은 털이 없다.”

칸께,

“밀가리로 묻히가지고 뭐 열어가.”

자시(자세히) 모른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라이카 아-들이 문을 열어주니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자아(잡아)물라 카이 도망 가가지고 거 나무 우에  
마 올라 갈라 카이,

“이기 올라, 우째 올라가몬 되노?”

카이께,

“참지름을 나무에다 묻히기 올라 왔다.”

카이케네, 참지름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하니까, 나중 거기 닭이뿌이께(닭여버리니까)  
올라 오더라 안 카나. 그래 올라 오이꺼네,

“저 하나님 저 우리로 살리 줄라 카거든 동앗줄로 주고 그라이몬(그렇지 않으면) 헨 줄로  
줄라.”

카이께, 그래 줄로 주서 타고 올라갔는데, 호랑이는,

“너거 우째 올라 왔노?”

“그래 했다.”

카이꺼네, 썩은 줄로 내라 주나노이 수수깡 밑에 널찌가 거기 죽은 범, 호랑이가 죽어나이  
저 수수깡에 피가 묻었다고 이려 카고. 그래 아가 해가 되고 달이 되고 그거 둘이 됐다 캄서,  
그것도 교과서에 나온 기다.

[복구 설화 11]

## 은혜 값은 까치

하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까마귀가, 거 일본(일본) 책에 보몬 있어. [청중: 여도 마이 있었다 카대. 옛날에 까마귀  
거기.] 까마귀가 하도 짚어싸서 보이끼네, 뱀이가 저저 새끼를 잡아물라 캐나노이카네, 그래  
그기 노래도 있어예. 일곱 마리 까마귀도 거해가지고 자아(잡아)물라 캐서, 이 사람이 활로  
싸가 직이뵈다 카네. 뱀이로.

그래노이 하룻밤에 거서(그곳에서) 누버 자는데, 뿔이 숨이 답답해서 보이끼네 뱀이가 칭칭  
감아가 직일라고 이라는데, 저 적예(쪽에) 종을 일곱 분을 치몬 뱀이가 살리준다 이래 된  
기라. 그래가지고 까치가 인자 새끼가 꼬랑댕이로 가지고 종을 쳤다 카대. 그래가 그 사람을  
살렸다 카는 그기다.

[복구 설화 12]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하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고래장을, 70살에 고래장을 하는데, 저거 아버지가 지계를 지고 가이끼네 할매로 더부다(데려다) 노이 손지가 따라감서, 거 저저 그거 한다 안 카더나, 지계로 다부 가온다고 카대.

“와 가오노.”

한께,

“아버지가 후제(후에) 나이 많으몬 갖다 내빠릴라고 가온다.”

[웃으며] 지계로 가온다 해삿대.

[복구 설화 13]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하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중국에서 나만(나이 많은) 사람을 죽이라 이래가지고 칠십 고래장을 시키는 기라예. 그래 시키는데, 그 아들이 엄마 혼차(혼자) 있는데, 방을 구들로 이래 파가지고 사람 하나 드갈 만치 해놓고, 엄마로 거다 모셨거든예. 그래 우에 덮어노이 모르는 기라. 밥만 갖다 주고.

그래 모셨는데, 그래 인자 중국에서 한국 임금 잘에다가 뭐로 내냈는데, 수수께끼로 내냈는 기라. 세 가지로 들어라 이래가. 그래 인제 내냈는데, 첨어이느(처음에는) 새끼 백발을 불에 태야가지고 재가 안 되고, 그 하면 저 그 하나 수수께끼로 넘어간다 이래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인자 나라에다 다 그거로 해놔노은께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저검마잘에(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어.

“새끼 백발로, 안 그라몬 우리가 저 중국에 인자 그거 된다.”

이래 돼가지고 물으이께네,

“그 새끼 백발로 저 소금을 되게 거해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거 불로 태우몬 꺼죽만(겉만) 타지 안은 안 탄다.”

카네예. 그래가지고 하문(한 번) 살아났어.

하문은 또 요래 꼬부랑 꼬부랑 하는 그거 그기 있는데, 거다가 실로 못 끼는 기라. 그런데 그게 실로 끼몬 된다 캐가지고, 그래 인자 요짜다가 꿀로 딱 놔놓고 벌에다가 줄로 매놔 놓으이 벌이 꿀 냄새로 맡고 이리 들어가 통과시킴어예. 그런데 한 가지는 뭇인고 온캉 (어찌나) 애릴 때 봐놓으이 모르겠어예. [조사자: 그래 나이 들어도 안자.] 그래가지고 안자 상감이(임금이) 불렸어.

“니는 우째 그래 똑똑하게 했노?”

카이, 그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그리 하라 카는데 몬 하고 모시 났다.”

칸께네, 그래 그때부텅 칠십을, 고래장을 없앴다 하대요.

근데 한 가지는 뭇인고? [청중: 한 가지는.] 학교 선생이 이야기로 했는데. [청중: 말로 똑 같은 말로 둘 매놓고 아들, 어마이로 찾으라 이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전부 다 못 찾는데, 그래 저거 엄마한테 가서 물으이끼네, 그래, “그거를 왜 모르노 해서러, 그래 콩을 이래 저저 삶아갖고 그래 인자 통에 열어 놓으몬 그래 자식이 아들로 이래 갈리(가려서) 준다. 인자 자식을.” 그기 그래 어마이가 알고 아버이가 알아가 그래가 살았다 안 하든가베. 그래 옛날 이바구 아입디꺼.]

[복구 설화 14]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박종이(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옛날에 인자 선비로 시집을 갔는, 선비한테 시집을 갔는데, 선비가 만날 글만 일으고(읽고), 없는 집에 가난한 집에 글만 일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인자 장피로(강피로) 훑어다가 여자가 훑어다가 먹고 살고 그라는데.

쟁피를 훑어논 쟁피로 널어놓고 갔는데, 구녕이 지붕에 구녕이 떨어져갔고 쟁피 덕석이 등등 떠물리가도(떠내려가도) 그 덕석을 안 들이 놓고 글만 씨고(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로 인제, 들은 애깁니다. 그래 참 일 갔다가 비 온다고 구르게 무르게 온께, 옷개 덕석은 떠물리가고, 그래 하도 ‘재산을 보고 몬 살겠다’ 그랑께는, 그람서는 인자 탄 데를 또 갔어. [조사자: 또 탄 데를 나갔뵈네.] 탄 데로.

또 탄 데 가 밥이라도 묵을라고 탄 데로 갔는데, 그래 쟁피로 훑어싼께는 저 산 먼다서로

(꼭데기에서) 세명잡집('삼현육각'의 뜻으로 말한 듯함) 대 짹히고 막 징감서(징과 함께) 올리고 막 그라고 오거든. 과개로 해갖고. [조사자: 자기 남편이?] 거기 인자 자기 남편인데, 지는 모르고 안자 산에서 노래로 부르기로,

저런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과개로(과거를) 해가 오는데  
아이고 내는 마 간 데 쪽쪽 이래가 살구나

그라고 인자 한탄하고 사는데, 만 저게 과개를 해가 온 남자는, 해가 오는 남자는 저거 여잔 줄 알고,

쟁피 훑는 저 마누래 간데 쪽쪽 쟁피로다

그라더랍니다. 그래가 안자 저거 남자는, 남자가 과개로 해가 그 사람을 데불(도로) 찾아 갖고 잘 살더랍니다. [조사자: 아, 저저 그래도 안 버리고 인자 덕고(테리고) 살던갑네?] 다부 덕고 오라 캐고, 과개로 해놔논께, 그때만 해도 큰 소리 친다 아입니까? 그래갖고 잘 살다 카데.

[북구 설화 15]

## 저승에 간 애원애기

박종이(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죽은 사람이 살아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애긴데, 애원애기라고. [조사자: 애원애기, 어.] 애원애기라고 전에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그래 인자 아가 서이고 아들이 셋, 아이가 서이고 아, 아튼(아무튼) 아들인가 딸인가 서이라 캐예.

남자도 있고 그랬는데, 야. 막 니비로(누에로) 키우고 야. 아홉 방 세 불 니비로 한, 한참에 다 그 니비도 키우고 베도 짜고 잉에도 걸다 놔두고 방짜다가(방자에다가) 놔두고 막 그리디 그 여자가 그리 서두라서(서둘러서) 잘하더랍니다.

그란께는 인자, 그래 인자 이 얘기가 꼬지키꼬지키(꼬치꼬치) 좀 빠자묵어깁니다. 빠자묵어 옛날 기가(것이) 돼갖고 빠자묵어. [조사자: 예예, 기억나시는 대로.] 그래 저승에 사람이 인자 죽었다가 아 젓 미리(먹이러) 온다고 사람들이 살아오고, 지쪽에(제각기) 밥 먹으러 온다고 살아오고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애원애기가 하는 말이, 인자 더블러(테리러)

왔는 기라 말하자면. [조사자: 저승사자가?] 저승사자가 더불러 왔는데, 그래 인제 지가 그 저 애원애기가 하는 말이,

“아흠 방 세 불 니비 한 밥잘에 더지(던져) 놓고 열 석자 삼베는 모시 저, 잉에 걸다 던지 놓고, 보름새 밍지베(명주 베)는 방짜다가 더지 놓고.”

막 그리 각서 쓰득기(쓰듯이) 그리 이름을 짓더랍니다. 그랑께는 그 사람들이 가만 서서 들은께, 저승을 찻히(잡혀) 갔어. 찻히 갔는데, [조사자: 애원애기가?] 애원애기가. 그래 시누, 시누가 해기로,

“이제 가면 언제 올까?”

그랑께네, 그 애원애기가 하는 말이,

“아흠 당, 아흠 방 세 불 니비 한 밥 찻히 더지 놓고 가는 사람이 오래 있겠다. 그랑께 았다(왔다) 갔다 할 기다.”

그 사람이 았, 저승서 았다(왔다) 갔다 함서 아 짓을 미고(먹이고) 가고 가고 그리잖아. 죽은 사람이 마이(많이) 살아왔답니다. 그랬는데 인자 아흠 방 세 불 니비 한 밥 찻히 더지놓고 막 그런 곡, 곡절을 다 해서 그래 한께나, 그래 저거 신랑 놔두고 가는 걸, 그걸로 지면서,

“우리 방에 도, 도롱님은(도련님은) 저 삼닭 잡아 안치 놓고, 그 닭, 닭이 꼬꼬 하거든 오마 하소. 오 제 오는 줄 아라고.”

그라고. 그람서는 그 머석하모, 그래 인자 시삼시리(새삼스럽게) 아 짓 미러 대닌다고(다닌다고) 인자 들락날락 아만 오목 덕고(데리고) 들오(들어와서) 술(밥을) 먹이가 가고, 그랑께는 꿀베기(꿀보기) 싫다 캄서 저승문을 탁 달아논께, 저승, 죽은 사람이 안 살아온다고 그런 말을 하대예.

[조사자: 아 그럼 애원애기 막 그냥 죽어뻗네.] 예. 인제 그때는. 아 짓 미이(먹여) 주고 키아 주고 고만 그때는 끝났답니다.

[북구 설화 16]

## 지옥에 간 사람

박종이(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그런께네 인자 거서로(그곳에서) 인자 막 어이로(어디로) 가라꼬, 저기하고 막 뱀이가 꾸-물, 수글수글 하는 그런 데도 가, 가보자 쿠고 오만 데를 다 덕고(데리고) 대니더랍니다. [조사자: 죽은 사람이 저승 갔는데?] 저승 갔는데, 그래갖고 인자,

“니는 제일 한 가지 할 기 있다.”

쿠더랍니다. 강, 저 창고가 여러 창고가 지어가 있는데, 딴 데는 창고가 짹(짹) 채이가 (차서)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창고 안에 텅텅 비가 짹 한 단하고 가위 하나하고 있더 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평생에) 녀를 도와주가 안 하고, 도와줄 줄 모르고, 지만 묵고 댕기나논께 지뵙기(자기밖에) 모른다고 짹 한나, 단지 애기 놓는 사람 하나, 애기 놓구로 해갓고 짹에다 인자 싸, 쌀 거 싸고 그래갓고, 그것뵙기 안 했담서 짹이 한 단 있고 가이 (가지고) 있고, 그래 실이 있고 그렁답니다.

그 사람은 그것뵙기 몬 했고, 그래가 또 강께는, 니는 저 산 먼당을(꼭대기를) 덕고 가더만은,

“니는 아무것도 녀를 도와주도 안 하고 살았인께나 니는 저 짹, 솔나무 솔, 솔가지로 묵고 살아라. 그래 평생에(평생에) 묵고 사라.”

암서, 무슨 산에서 도-올 구불렀부더랍니다. 그런 일도 좀 들었구요. [조사자: 아 거 지옥 에네 그지에.]

[북구 설화 17]

### 염소 복을 받은 며느리

박종이(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전에 한때 이리 살 적에는 행정같이 살고 참 잘 살았는데, 한 사람은 관상 보러 댕기는 기라. 관상 보러 댕기는데, 여러 해를 살다가 오이로 오이로 간께는 그 집에 관, 관상 보러 간께는 역수로 몬 살더랍니다.

잘 살았는데 그래서로 아이고 침(처음) 아싯는데(오셨는데) 뭘 해주, 해주까 막 그 집에서 그래싸서 가만,

“허 참 머 밥 묵으면 되지 머 해준다고 그래싯느냐고?”

이래싯는데, 그 사람이 인자 가만 쳐다본께, 아무것도 그 집에선 복이 없는데, 염소가 하나 마 역수로 복이 많더랍니다. [조사자: 사람은 복이 없는데?] 사람은 복이 없는데, 염소가 한 마리 있는데 역수로 복이 있더랍니다. 그래가 하도 여러 벌로 그 집에 관상을 불러 카몬 그 집 사람을 다 불러 카몬 멧 달 걸렀다 카대에. 오줌 누는 것도 보고, 똥 누는 거도 보고, 밥 묵는 것도 보고, 가는 데마당 따라 댕기면서 본다 카대에. 그래서로 하도 그래싼께 인자 지치 갓고(지쳐서) 사람 막,

“정 그렁거덜랑 저저 너거 염소 저거로 널로(나를) 잡아 한 그륵(그릇) 주면 안 되겠나?”

그랑께네.

“아모(아무렴) 그래 하지.”

캄서, 염소 그마 당장 잡아갖고 솔에다 안치더랍니다. 안치는데 그래 가마 참 그 염소가 요게 복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 그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염소라예. 그래 인자 그 한 그릇 얻어묵자고 사랑방에 딱 보내고 있으니께네, 그 집 메느리가 우찌 무도(먹어도) 그 집에 자정하지(좌정하지), 녀름 줄 복이 아니더랍니다. 그 집 메느리가 인자 생킨(생전) 안 살 굶깃나 국을 떠갖고 요래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런께 그 염소로 복 있는 염소로 그 자리에서 마 메느리가, 메느리가 먹더랍니다. 그래가 거기서는 끝났고.

[조사자: 그럼 메느리는 인자 그 부자가 됐는가?] 그 염소가 오디 안 갔인께, 탄 사람이 안 무신께나(먹었으니까) 그 집 복이지 뭐. 그래가 그 잘 살더랍니다.

[복구 설화 18]

## 진실한 친구(1)

주학수(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옛날에는 인자, 그때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집에 천석군이 천석군. 천석군인데, 아들이 그리께네 인자 널 술만 먹고 다녀, 술만. 카 술을 먹고 안자 술에 떡 취고, 그래 저거 아버지가 가만 보이, 그래,

“니 오늘 어데 갔더노?”

이래 물으몬, 자기 친구 만나러 갔다, 친구. 친구를 만나러 잘 가이. 친구는 인자 사귀야 된다 이래가 늘 친구 만나는데, 그 천석꾼 사백만 원 짜리, 늘 고마 돈이 썩었으니까 술만 먹는 기라. 그래가 저거 아버지가 한 번,

“어이! 그럼 니가 친구가 그리 많으면은 니가 제일 친한 친구 함 만나러 가자.”

이래 되는 기라. 그래가 인자 저 약속으로 인자 아들이랑 했는데, 그래가 아들이,

“그러몬 가입시더.”

이래. 그때 저가부지(자기 아버지) 돼지를 한 마리 죽이는 기라. 돼지를 인자 칼로 인자 목을 따가 죽여 피가 벌거이(빨강계) 나오니 기라. 그러몬 가마에 안자 가만(가마니), 거거 가마니 속을 열었는 기라, 그거로. 지고, 딱 지게로 짚어지고, 저거 아버지 지고, 니가 제일 친한 친구로 찾아갔더만. 찾아가니까,

“어이! 친구야.”

커고 부르니까, 그래 친구가 턱 나오거든.

“어이 친구야, 오늘 내 어떻게 하다 사람을 하나 죽었는데, 여 우리 처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한이까, 아 친구가,

“모른다.”

카는 기라. [조사자: 어, 친구가? 아-.]

“그거 나는 사실은 술 묵고 이런 건 해도 그런 일은 몬 하겠다.”

이러는 기라. 그래가지고 실패했뵈다 아닙니까. 그래가 이자 두 분째 친한 친구한테 가야 되는 기라. 두 분째 친한 친구도 또 지계를, 저거 아버지 지계로 지고 인자 찾아갔더만. 찾아가니까, 거기도 어이 친구야, 문을 대문 뚜드려,

“어이 친구야. 내 아무개씨다.”

뛰나오거든. 뛰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 살짝 해서,

“내가 사실 오늘 우짜다 사람 하나 죽었는데.”

뒤는 별거이 있다 아입니까?

“그니까 내가 죽었는데 이래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사실 거도 똑같은 기라.

“나도 그 살인사건 그런 거 처리 몬 하겠다.”

이러는 기라. 돌아섰던 식으로 친구가. 그래 셋, 셋집아지간(세 집까지) 다 돌아서는 기래.

그래가 인자 저 아버지가 인자,

“그러면 니가 내가 내 친구지만 가보자.”

이러는 기라. 저 아버지랑 지가 제일 친한 집안이라 카는 기라. 친구가 내 너, 그 아들 딱 보는데 대문을 딱딱 두드리난 친구가 나오는 기라. 나오는데 그래,

“친구야. 오늘 내가 어찌다 사람을 이래 하나 죽이 죽었는데, 그래 이 첨내 천상 우리가 묻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이,

“그럼 가자.”

그럼서 사방을 막 챙기는 기라. 저거 아버지 친구가. 그래서 아들보고,

“봐라. 친구라 카는 기 이기 친구다. 친구는 목숨을, 목숨을 되로(도리어) 바치는 기 친군데.”

그러이 인자 아들이 가마 지는 친구가 하낫도 없는 기라. 그러니까 주중친구(酒中親舊) 천명(千名)이로되 머 급반청음(?)은 일개무(一個無)라 카는 게 안 있습니까. 그래가 안자 아 아들이 ‘나는 친구로 친구걸이 생긴 게 아닌 기라.’ 그래서 안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진실한 친구인 기라. 친구라 카는 거는 인자 목숨을 바쳐주는 기 친구래. 내가 죽을 위치에 (위기에) 있는데, 되로 죽은 사람이 죽어주는 사람이 친군기라. 그 외에는 친구가 아이다 이래.

[복구 설화 19]

## 진실한 친구(2)

주학수(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친구라 카는 거는 언자, 그 친구 한 사람이 안자 이래 둘이서 버드나무에서 안자 장난을 놀았는. 촌에 전부 버드나무 아닙니까, 촌에 가면 전부 시골에 버드나무 거 올라가 노는데, 사또가 지나가는 기라.

사또가 딱 지나가는데, 한 사람을 오줌을 노뽀어, 사또 기(그곳에). 옛날 사또는 그 자리에서 죽이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 사또는. 요즘 임금은 못 죽있어도, 옛날 사또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그래 오줌 논 걸 보고, 내려오는 놈 보고 죽일 기라.

“니 내려오라.”

이래, 사또가. 내려온께 안 눈 놈이 내려오는 기라. [조사자: 오줌을 안 논 사람이?] 예. 안 논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저놈 살리달라, 내놈 살리.”

그래. 사또 그 절마 저거 안 눈 놈, 논 놈 우에 있고 안 눈 놈이 내려왔으니까, 그래 사또가, “그러면 너거 둘이 변하지 말고 마 지내라.”

카고 지나갔뿌리. 사또가 용서를 함(한 번) 했어예. 그러자 안자 오줌 그거 논 일마는(이 사람은) 참 마 베슬을(벼슬을) 해가 잘 돼가 있고, 오줌 안 눈 인마는 인자 그 덕에 사는 기라. 일마는 잘 노는 기라. 그라마 오줌 논 일마가 안자 그 지가 잘 살아난께, 그면(그러면) 내대로(내내, 계속해서) 살, 살리주듯 싶어 참 은혜를 하는 기라 안자. 산 넘에 있고, 요래 요 동네에 있는데.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 한 번은 지 친구 안자 그 잘된 그 생일날이 온 기라. 이 문 사는 기. 옷을 입고 지는 반가봤자(반가워서) 친구이께 어느 멧 월 며칠 날 생일인지 안단 말입니다. 밥을 얻어먹으러 안자 오니까,

“내 저 사람 안면 없는 사람이다. 후쳐 내라(쫓아 내라).”

이래 똥뽀는 기라. 그래 지는 싫거든. 그러니까 한 분 또 들어가가지고,

“어이, 내 아무개씨다. 내 산 넘에 아무개씨다.”

해쌌거든.

“나는 니겔은 사람 친구 아는 사람이 없다.”

이래가 딱 돌리 보내뿌는 기라. ‘저 사람이 나를 못봤나? 날 그리 썩노.’ 세 번째 가가지고,

“어이 친구야, 내 아무개씨다, 아무개씨다.”

거절하는 기라. 난 니같은 친구 없으니까, 돌리 보내뿌 인자. 그래가 이 사람이 꽤빚하거든. 그래 지가 독한 마음 묵고 인자 마누라한테 하고,

“내 사실 오늘 이려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고생이 좀 돼도 애랑 살고 있거라. 내가 천상(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도 출세로 해야 되지.”

그 질로 안자 독한 맘으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해가지고 인자 서울로 가서 베슬을 행 기라. 과거로 안자 일급면<sup>1)</sup> 따라지고. 그래 지가 옷을 인자 고마 추하게 입은 거라. 그래 거 밥 얻어먹으러 갈 때처럼 시커머이 입고. [조사자: 암행어사 됐구로(암행어사 된 것처럼) 인자 추하게 입고.] 예, 암행어사 있을 때도 원래 추죽계(추하게) 해가지고 그 친구로 만나러 갔단 말입니다.

“어이 친구야 산 념에 내 아무개씨다.”

집에 오(와) 보니까 자기 마누래도 잘 살고 있는 기라.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잘 사나?”

물으이,

“그 친구가 마이 마 돌봐줘가 잘 산다.”

카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옷을 마 떨어진 거로 입고 그래가,

“어이 친구야, 내 아무개씨다.”

이러카이, 이 친구가 반갑게 웃어 인사하는 기라. 그때 이기 만약에 참 옛날처럼 참 모른다 이랬으면 그냥 인제 보, 복수를 하는 기라. 지는 출세를 했은께. 지 암행 거 어사가 됐은께, 복수를 허는데, 그때는,

“참 친구야, 참 내 반갑다. 참 옛날에 내 일부로 고의적으로 니 그 하도 니가 그거 놓고 해서 잘되라고 안자 내 그렇게 한 기다.”

이래. 그래가 서로 잘 산다 이런 말도 안 있고. [조사자: 아이구 재미난 이야기네.]

[북구 설화 20]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주학수(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내가 저 어릴 때는, 중국에서 옛날에 중국에서 명나라 인자, 그렇지 인간 칠십 고래장 아 입니까? 고래장을 안자 하는데, 저거 부모, 이것도 효자라. 저어(자기) 부모를 갖다 저 구들을

1) 일급을, 즉 ‘일등 급제들’의 뜻인 듯함.

(구들을) 파가, 구들장 밑에 칭가노이(숨겨 놓으니), 부모로. 산에 갔다 버리야 하는데. 그래 구들장 밑에 딱 었어났는데.

그래 나라에 인자 중국에서 그 나무를 하나 갖고 나무를, 나무를 큰 나무를 안자 거 오동 나무데, 정부에 딱 갔다 놓고, 임금한테 그 나무가 어데가 아랜고(아래고) 운고(위인가) 가리라. 아래 우를 모르면 임금을 죽인다 콤서, 중국서.

그래, 임금이 걱정이 딱 든다 아입니까. 걱정이 딱 되니까 막 고 저거 방방곡곡에 인자 그 이 나무가 어데가 밑이고 어데가 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자 천재가 있는가 싶어 막 공문을 붙이는 기라. 임금이. 그러니까 아들도 그거를 보고 와서 저거 안자 엄마한테,

“엄마, 지금 나라가 참 위험함이, 위태롭게 돼 있으면서, 그 나무를 가져 와가지고, 그래가 아 어데가 밑엔고 어데가 운고 알아내래서, 그거 모르면 죽인다 카는데, 임금을 죽인다 커는데 이거 크일났다(큰일 났다).”

이러니까, 그래 그 저엄마가(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나무를 물에 었으면 안 되겠다. 물에. 물에 딱 여보면(넣어 보면) 밑에 무거운 데는 밑에 깔고 안고 우에는 뜨는 기라. 빼딱하게 요래 돼. 물에 여뿌몬(넣으면). 그런께 거를 확인하몬 된다.”

걸차(가르쳐) 주는 기라. 저거 엄마가. 그러이 아들이,

“아 내 아는 사람이.”

임금한테 가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 담가보마 밑에는 무겁고 우에는 개겁다(가볍다).”

그래가 안자 우에는 ‘상(上)’자를 쓰고 밑에는 ‘하(下)’, 이걸 상하(上下) 딱 글로 쓰가 중국에 보내뿌는 기라. 그래차 임금이 죽음을 피했다 아입니까. 그러이까 인자 저 임금이 그 아들한테,

“그 사람한테 상을 줄 끼라.”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바른말 한 기,

“임금님, 사실은 우리 엄마가 칠십이 넘었는데, 고래장을 갔다가, 갈긴데, 참 부모님을 못 끊어가지고 집에 계시가 부모님 거따(그곳에) ……”

그제 그래가 인자 고래장을 인자 없앴다. 칠십 넘어가지가 고래장을 없앴다 이런 말도 있고.

[복구 설화 21]

## 아버지를 살린 어린 아들

주학수(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머리가 굉장이 좋은 조기(저것이) 인자 임금이 위험한 기라. 그래서 고 사람 죽일라꼬 딱 죽일라꼬 인자 어떻게 머리 썼냐면,

“어이, 당신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유명하마 지금 이 겨울에 딸, 산에 딸기를 좀 따오라.”

는 기라. 딸기를 한 한 되쯤 따가 바치라는 기라. 만약에 메(몇) 월 며칠 날까지 못 바치면 당신 죽이리라 카는 기라, 임금이. 그렇게네, 이거 걱정이, 겨울에 딸기가 있습니까? 요즘 걸으면 딸기 참 살기, 하우스에도 딸기 있어, 옛날엔 딸기 있습니까? 그래 고민을 딱 그래 쫓깐한(조그만) 아아가(아이가) 한 아홉 살 문 아들인데, 저가부지(자기 아버지) 보래이(보니) 밥을 남아 고민을 하거든. 그래,

“아버지, 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와 고민합니까?”

그이까, 참 처음에는,

“내가 별로 고민 없다.”

카다 안자 자기들 죽이니까, 죽으니까 안자 임금이 죽이니까 누가 말릴끼고. 그래 안자 달래가들(‘어쩔 수 없이’의 뜻인 듯함) 아들인데 이야기를 했는 기라.

“내 사실은 이 겨울에 딸기를 따오라 카는데, 딸기를 바치라 카는데, 바칠 머 제안이 없고 머 어쩔 수 없다.”

그래 아들 인자 유언대로 이야길 하니까, 아들, 아들은 요기,

“그라몬 아버지 걱정하지, 내가 딱 처리할 겁니다. [일동 웃음] 그래 내가 한 분 갔다 올 기(것이니).”

요기 카는 기라. 임금한테 딱 가가지고 절로 딱 하거든. 임금이.

“내 아무 데 아무개씨 그 아들입니다.”

카거든. 그란게,

“어이 니가 우째 왔노?”

해서,

“내가 오늘 안을 낀데 올 아버지가 산에 그 딸, 딸 따러 가 독사한테 물리가지고 여기 문 왔습니다.”

웃다는 기라. 그러이 임금이 하면서,

“어이 지금 이 겨울에 독사가 어데 있노?”

이런이카, 그렇게, 일마가 하는 말이,

“임금님, 그 지금 이 겨울에 딸기는 어딴습니까?”

[일동 웃음] 그래가 그 죽음을 면했다 이런 말도 있고.

[복구 설화 22]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갑현(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명할머니경로당]

애기가 하도 울어싸서예. 아무리 달래도 안 달래지는기라예.  
“아가 아가 꽃감(꽃감) 주까.”  
칸꺼네, 퍼뜩 끈치더라(그치더라) 안합니까. 근데 호랭이가 밖에 와 앉았다가 ‘지보다 더 무섭운, 꽃감이 더 무섭운가’ 싶어가 달아나뻘다 카다예.

[복구 설화 23]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정갑현(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명할머니경로당]

아들이 어디 저 먼디(먼 데) 갔어예. 먼디. 군대로 갔는가 어데 갔는데, 엄마는 봉사고.  
집에 오니까 아들이 저, 저거 할매가 아들이 오니까, 똥을 참-,  
“엄마 뭘 먹고 살이 이래 쪼냐?”  
물으니까,  
“아이고 야야, 내가 메느리가(며느리가) 뭘 맛있는 걸 맛있게 해줘서 그걸 먹고 이리  
좋다.”  
그러더래. 그래,  
“그게 똥니꺼(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자리 밑에서 내가 보아서 아들을 좇어. 그께 그께 지렁이더래요. 그래가 눈을  
떴다 하대요. [웃음]

[복구 설화 24]

### 며느리의 방귀 힘

김우선(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메느리가 얼굴이 노라서(노랗게 되어서),

“와 노랗노?”

칸께네, 그래,

“방구로 몬 꺾어서 그렇다.”

한께네,

“방구 꺾라.”

칸께네,

“시아바이는 말뚝 잡고 머 시엄마이는 솔두방(솔뚜껍) 잡고.”

[청중: 시어머니는 문 꼬리 잡고.] 어어, 그래. 그래가 마 방구를 꺾게 다 날라갔다고 그래 썼대.

[복구 설화 25]

### 지네 잡아서 살린 처녀

김우선(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그래 처녀가 하나 막 죽는다고 난리를 직이고 만을 지지고 볶고 지질고. 그래가 오늘 참 머 하는 사람이 와서러,

“천장을 뜯어보라.”

카이, 크-은 지네가 천장에 있더라요. 그래갖고 살렸다 콤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 번 들 었어. [조사자: 어, 그게 인자 그것 때문에 인자 막.] 예. 지네가 우서(위에서) 요동을 친 머 아가씨도 막 그래 안 편해서 막 구불고 이랬는갑대요. 그런 이야기 하문(한 번) 들었다.

[복구 설화 26]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우선(여, 1932년생) 구술

최평순(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일본(일본), 일본 말인데 도라또 호시가끼라 카몬, 도라는 범이거든. 그래 호시가끼라 카몬 꽃감(꽃감)이거든요. 그 일본 책에 보몬, 도라또 호시가끼라 제목이 그렇는데.

그래 아가 집에서 막 울어싼께네, 엄마가 암만 달개도(달래도) 안 주고, 머 호랭이 온다 캐도 그냥 울고, 머시(무엇이) 온다 캐도 그냥 울다가 꽃감 주까 캥께, 아가 덜컥 근처뻘어 (그쳐버렸어).

그런께네 호랭이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와따 호랭이 날도 아가 안 무시운데(무서운데) 꽃감이 내보다 더 무십는갑다. 쭈까만다래 쭈까만다래 다이한대 쟁히면 큰일난다.’ 호랭이가 산으로 내빼는, 그런 게 있어요.

[조사자: 아, 그게 일본 책에 실려 있어요?] 일본 책이라 캥께. 일본 책에. 도라또 호시가끼. 도라는 범이고 호시가끼는 꽃감이거든. 가끼가 일본말로 감이거든. 호시가끼.

[조사자: 한국, 한국 이야기도 거 똑같은 이야기가 마.] 근데 이거 일본 책에 있는 기거든. 그래갖고 책에 보몬, 일본 책에 보몬, 그래 아가 방아서 엄마가 암만 달개도, 호랭이 온다 캐도 그냥 울고 마 이래 썩다가, 암만 달개도 안 된께, 꽃감 주까 캥께 애가 똑 그치뿌거든. 그런께 호랭이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와따 쪼끄마타가 다이한대, 쟁히면 큰일난다. 막 산을, 호랑이가 내빼는 거라.

[조사자: 그래 그 유명한 이야기다.] [청중(최평순): 그래 내빼는데, 저 초를 흠치러 왔다 소도독놈이 고 또, (웃으며) 거기 아이고 머 이기를.] [조사자: 호랭이 위에 타.] [청중(최평순): 꽃감인가보다 펄떡 뛰서 인저 그 탄께, 그래 그 집에 소도독놈이 왔다가 그것도 내빼고 호랭이도 내빼고 그래 내빼더랴.]

[복구 설화 27]

## 쓸모 있는 며느리의 방귀

최평순(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하도 거석해서 그만 할 수 없이 뭐야 시족, 친정으로 보낸다구 보냈는데, 배나무에 배가 그렇게 많이 열었더랴. 그래서,

“아이구! 그 배 하나 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께, 며느리가,

“배가 잡수겼어요?”

“배가 그렇게 탐시럽네.”

이라고 한께, 방구를 꾸니까 배가 우수수 떨어져. [일동 웃음]

“아이구! 그 방구도 씨할(쓸 데가 있는) 방구다.”

하구, 그려 대로(도로) 데리고 오더랴. [조사자: 아 소박 마출려고 덕고 갔다가?] 친정으로 디다(데려다) 줄라 카다가 배를 그렇게 떨어져서, 인저 시아바이를 준께루 달구(데리고) 오더래. 그 방구도 씨할 방구다 그려. [조사자: 그래, 그래.]

[북구 설화 28]

### 짐승 말을 알아듣는 며느리

최평순(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이래 첫날밤에 시집 간 첫날밤에 아무것도 친정에 아무것도 없어서, 우째 뭐여?, 쥐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더래.

“어이구, 잔치집 치룬 놈의 집구석에 새양지 불까지 끌 것도 없대요, 우째 이렇기 없느냐?”

카더랴. 그런께, 그 여자가 짐승 말을 다 알아 들었어. 그리고 웃었다. 웃었더이 신랑이 저보고 웃는다고 비웃는다고 고만 가빠리더랴. 저 지 집으로.

그래서 첫날밤에 소박을 놓고 갔는데, 참 뭐 소박맞은 새댁이가 머 할 수 없이 그런데, 그려 나중에 시아바이를 만나가지고, 그려 머여,

“우리 딸이 짐승 말을 이래 다 알아들어서, 그려 이르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려 혼차 웃었더이, 자기보고 웃는다고 그려 소박을 놓고 갔다.”

고 이런께,

“그랬냐.”

고. 그려가지구 이제 그 메느리를 신앙을 해와가지고, 집우(제비) 새끼가 마 이래 그 짹짹 거리고 이란데, 그걸 메느리 빨래 하러 갈 때 짹 감챘다. 시아바이가. 그런데 지부(제비) 새끼가, 지부들이 막 그, [조사자: 지부 새끼?] 지부 새끼를 다 감챘어이. 지비들이 울어쌌더래요. 내 새끼 돌라고(달라고). [조사자: 제비. 제비.]

새끼 돌라고 그리 울어쌌더래. 그런께 며느리가 빨래를 해가지고 오는데,

“야야, 저 제비들이 왜 저러는가 모르겠다.”

이란께,

“제비 새끼 감챘, 저거 새끼 감챘다고 그거 돌라고 그라네요.”

그러더랴.

“아이구, 참말로 짐승 말을 알아듣는구나!”

하고, 그래 그걸 다 갖다 인자 집에다 논께, 지배들이 가마이(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인제 ‘참말로 메느리가 짐승 말을 알아듣는구나’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살더래요. [조사자: 어어. 첫날 그래 자기 자기보고 한, 한 웃은 줄 알고, 비웃은 줄 알고 나가버리고.] 어어 자기보고 신랑보고 웃는다고, 비웃는다고 첫날밤에 소박을 놓고 가빠리더라.

그래 인제 그래선 즉 머여 나중에 어떻게 사돈을 만나가지고 인제 참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 인제 그런 얘길 하는,

“저 우리 딸이 짐승 말을 알아들어서 그래 머여 쥐새끼들이 인제 그래 들랑거리면 잔치집 치룬 놈에 집구석에 생쥐 볼 가실 것도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혼차 웃었더니, 그래 신랑이 저보고 웃는다고 그래 그만 소박을 놓고 갔다.”

고 그래. 그랑께로 참말인가 싶어서 인제 신앙을 해왔는데, 그래 메느리 빨래하러 간 사이 지비 새끼를 싹 감췄더이, 그렇기 내 새끼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비들이 운께, 메느리가 빨래를 해가지고 온께,

“여 새 제비들이 왜 저렇게 우냐?”

이랑께,

“지 새끼 내놓으라고 그라네요.”

그래 그라더라. 그래 참말로 짐승 말을 알아듣는구나 하고 그래 잘 살더래요. [웃음]

[북구 설화 29]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점희(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옛날에 시어머이가 너무너무 밍는 기라. 너무 너무 미워가지고 담요에다 싸가지고 시어머이 갖다 버릴라고 저기 손자 보고 가서,

“담요 그걸 가 온나.”

그랑께, 손자가 있다가,

“예. 그거 손대지 말고 그대로 가 오세요.”

“반쪽만 짜르고 가 온나.”

이라이,

“아이 그대로 가 오세요. 그대로 가 오몬 내가 반 똑같이 짤라가.”

“고 멀라고(뭐 하려고)?”  
저 엄마가 있다가,  
“그 멀라고 짤라.”  
그래 할무이가 있다가,  
“에이 새빠질 놈. 응 그거 담요 하나 주는 거 그기 아까워가 그것도 짜를라 카나?”  
그렇게, 손자가 있다가,  
“할매 그게 아이고, 엄마도 할무이 갖다가 담요 싸다가 버릴라 카니, 똑같은 기 있어야  
엄마 나중에 할매처럼 더 엄마도 가서 담요에 싸갖고 버리야 안 되는교?”  
손자가 있다가, [조사자: 어-, 옛날 고려장 때 이야긴갑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이 그-래 메느리가 시어마이한테 잘하더랍니다.  
“나도 질문하면 나중 우리 아들이 갖다가 싸가 내버린다고.”  
[조사자: (웃으며) 그러니까 시어마이한테 인자 잘해야 되네.] ‘나도 질문하몬 우리 아들이  
담요 싸가지고 갖다 버릴긴데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 잘하더랍니다. 그래 행복  
하게 살더래요.

[복구 설화 30]

### 앞뒤가 다른 계모의 행실

김점희(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옛날에 어무니가 죽었는 기라. 마느래가 죽었는 기라. 마느래가 죽었는데 혼자는 살 수  
없고, 아가 하나 있는데, 아가 다섯 살이 묵었는데 참 의사라.

의사 마느래가 죽었는데, 이거 마느래가 없으니 누가 밥해 줄 사람도 없고 참 막막한 기라.  
아 키알(키울) 사람도 없고. 그래가 간호원(간호사)을 알아가지고, 간호원한테 장개를(장가를)  
갔는 기라. 장개를 갔는데, 하- 아한테 참 잘하는 기라.

그래 잘하는데 아가 꼬치꼬치 마르는 기라. ‘이상하다. 어찌 저리 잘하는데 밥도 잘 먹이고  
저래 잘하는데, 와 아가 저리 애비꼬?’ 그래가 하루는 출근할라 카는데,

“아부지 오늘 하루만 내하고 같이 자자.”

더래요. 아들이 그래가 다섯 살 묵은 기. 그래가,

“아 내가 갖다가 일찍 오꼬마.”

그라이,

“아니 아버지 하루만 내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까?”

자꾸 이래 싸이, 출근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게 생각나는 기라. 그래가 살살 집에 오, 와가 문밖에(문 밖에) 딱 서이,

“엄마 이제 고만. 엄마 이제 고만.”

아가 그래싸 울싸(울어대). 울어쌌더래요. ‘이상하다. 와 그럴꼬?’ 문을 열어본게, 이 손톱 밑이 전부 주사기로 피를 빼는 기라. 이런데 전부 발을, 발밑 발, 발톱 밑이 손톱 밑이 전부 피를 빼는 기라. [조사자: 어어 그 언자 그 의붓엄마가 인자. 새엄마지 인자 말하자면.] 어, 가로 갖다가. 그리이(그러니) 먹는 것도 살로 안 가는 기라. 그 매일 날마다 그래 빼이 피가 어디 있겠노. 그래가 문을 열으이 깜짝 놀래더래. 여자가.

그래가 참 온 천지 깨끗(끌고) 땀기면서 마 저기 얘기 하고. 여자가 버리고, 그 생전 여자 안 열고 고마 아, 아하고 살았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 [조사자: 아아 참 옛날 다신엄마(의붓어미) 독했다. (웃음) 그런 이야기네.] 그래 애들, 아를 아를 아무리 잘 맥이도 피를 뺏으이 살이 찢 수가 있나. [조사자: 그러니까요.]

[복구 설화 31]

###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김종순(여, 194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효부, 효부 며느리가 너무 너무 인자 가난해가지고 막 이리 저게 산삼을 사다가 해드릴라 캐도 형편이 안 돼갖고 몬 해드리고. 그래가 인자 물어니까나노,

“자기 아들을 무식한 말로 삶아갖고 먹이면 그 물이 약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 진짜로 인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 매솔에, 큰 가매솔에다가 막 물을 팔팔 끓이고 인자 있으니까 아들이 들어오더랍니다.

자기 눈에 아들이 들어와갖고, 들오는데, 마 진짜 죽을 마음을 다해가지고 인자 아들 그 물에다 탁 담갔더래요. 담귀갖고 뚜껑을 닫아오니까나로 나중에 인자 물을 끓이다가 보니까 큰 삼이, 커다란 삼이더랍니다.

워낙 효심이 지극해나논께. [조사자: 아가 아니고?] 아가 아니고. 삼이 걸어들어 와가지고 눈에, 눈에 이자 그기 뜨이가지고, 그래 이자 그걸로 인자 그 시어른들을 복용을 해가지고, 거 다 낮아가지고, 그렇게 효부로 이름을 마이(많이) 날리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한 번) 들었는데.

[복구 설화 32]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명순(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저게 아들은 저 어데 돈 벌로 가고, 그래 시어마이카 며느리카 있는데, 그래 며느리가 하도 시어마이로 해 줄 게 없어서러, 그래 지령이로 잡아다가 내- 할머니를 고아 먹었거든. 그래 할머니가 구숨하이 참 맛있어서러, 그래 그거로 갖다가 쪼깨이(조금) 그거 해가지고, 자리 밑에다가 여 났다가, [청중: 아들 줄라고 그래 났다.] 그래, 저기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 어머니를 뒷을 멕이서로(먹여서) 이렇게 얼굴이가 좋고 건강해졌는고?”

물어보이께네,

“그래 무슨 고긴지 모르고, 그래 내가 이리 쪼깨 나똥다.(뉘똥다.)”

카더란다. 그래 내가지고, 아, 그 어머니가 참 눈이 어둡았다 카더나? 그래가지고 저기 지령이로 내가지고, 그래 비인까네(보이니까), 그래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뭐 그 누가 눈을 똥다 카던가 그. [청중: 할매가 내나 봉산데, 눈을 똥다 카대.] 눈을 똥다 카대. [청중: 지령이라 캐나이.] 지령이라 캐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복구 설화 33]

### 오누이와 달래고개

박명순(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누나강 동상강 고개를 넘는데, 그 뭐 내 잘 모르겠다. [조사자: 아시는 것만 해주이쇼.] 그래 인자 저게 누나가 앞에 가고, 그래 저게 똥이고? 인자 동상이 뒤에 가이까네, 그래 꼬치가 서거든. 꼬치가 서이까네, 꼬치가 서가 뭐 죽었다 카든가? 우째 하이까네, 그래 이야기 했는데, [청중: 동상이, 동상이 죽어똥 기라.] 그래 누나는, 누나가 그런 줄을 모르고, 그래 저게 똥이고?

“달라, 달라 말이나 해 보지. 이야기나 해 보지.”

카더란다.

[복구 설화 34]

### 늑대에게 물려간 아이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아니, 거기, 거기는 거 우리 지금, 저기 유림 아파트 그 자린데, 그 애가 한 여섯 살, 여섯 살 한 이리 됐을 끼라. [청중: 초등학교는 안 댕겼다.] 한 여섯 살, 일곱 살 요래 됐을 낀데, 그 애가 갑작스리 애들하고 놀다가, 아가 행방불명이 돼뻤는 기라. 그런께네 아-무리 메칠로 (며칠을) 찾아도 문 찾아가지고, 인제 뒤에 나주(나중에) 알고본께, 저 우리, 저 뭐고? 인재개발원 거 뒤에, 산에 거기 딱- 가가 있었어. 근데 그 늑대가 물고 가가주고(가서) 그랬다, 그때 그런 소문이 있는데.

[조사자: 그때 애는 말 못하고예?] 죽어뻤는데 뭐. 그래 뒤에 그것만, 송장만 있었는 기라. 그래 그래가 여서 놀았는데, 그 애가 저 뒤에, 그래 저기 인재개발원 뒤에 거 산 우에 그기 있었던 기라. 그래가 그 뒤에 뭐 송장만 남아 있었다 카제? 그래가 그 집 아라꼬(아이라고), 옷만 보고 인자, 그 집 아란(아이라는) 거 알았지.

[조사자: 송장 훼손은 안 댕던가예?] 훼손됐지. [청중: 훼손 안 댕단 말도.] 아이 훼손됐어. 훼손됐는데 내장만 뻤더라고. [조사자: 내장만 뻤다고예?] 그래 그래서 인자 그때 늑대가 물고 갔다 이래 이런 말이.

아들만 있어 놓으니까네 뭐, 어른이 있었던 것 같으면 거하지만, 그 뭐 아들만 있어노니까 네 똥이 물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뭐.

그래 여 놀았는데(아이인데), 같이 저거 아들 놀안 거는, 여서 다 놀았는데, 그래 나중에 전부 그것도 얼마나 있다가, 저쪼(저쪽) 거 인재개발원 뒤에, 그 쪽 그 산에 그서 발견이 됐는 기라. [청중: 그때 아들이(아이들이) 개를 한 마리 봤다 카는 그런 소리도 나던데.] 그래서 그래 마 늑대가 물고 갔다 그런 말이.

[복구 설화 35]

### 심심골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신실골이라 카는 거는, 그 왜 신, 심심골이었어. [조사자: 심심골.] 근데 그게 자꾸 세월이 오래가다 보이 심심골, 심신골이 돼봤는데. 거기 왜, 거기 처음에, 우리도 그게 들은 애긴데, 어디 갔다 오다가 쉬면서, 쉬면서 거기서 산에 갔다 오고, 거기가 이 옛날 산길에 삼거리택이라, 심실골이란 데가. 이쪽 길도 내려오고, 이쪽 길도 내려오고, 이리도 내려오고 하는 삼거리였는데, 앉아있으이 심심하다고 인자 심심골이라고 카대. [일동 웃음]

[복구 설화 36]

### 챙이골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조사자: 챙이골도 있네예, 챙이골.] 챙이골은 챙이같이 생겼다고 채이골이라 캬고, [조사자: 챙이골.] 챙이라 카는 거 옛날에 알지? 키. 까부리는 거, 곡식같은 거 까부린다 카는 키. 그거 같이 생겼다고 해서.

[복구 설화 37]

### 간장바위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조사자: 관장바위는 뭔데예?] 간장바위라 카는 거는, 바위가 똑 그 메주같이 생겼어. 메주, 메주, 메주같이 생겼다고 간장바위라 캬다고.

[복구 설화 38]

### 기운바위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기운바위는 워낙 이 바위가 이래 경사가 씨가지고(높아서), 기운을 내서 올라가야 그 바위를 올라간다고 기운바위라 됐다.

[북구 설화 39]

### 대포바위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대포바위는 바위가 이렇게 걸쳐져가 있어 이래. 딱 대포겘이 이래. 딱 저 북쪽을, 저 원동 삼랑진 저리를 보고 딱 이렇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6.25때 저 대포바위가 거 삼랑진을, 이북놈들이 삼랑진, 이 낙동강을 못 넘어왔다 했다고 결국은. [청중: 저 아파트 땀에(때문에) 안 뵈이네.]

그래 그 바위가, 우리가 인자 그거를 미신겘지만은 거 바위가 대포겘이 서가지고 저 강을 보고 저 원동, 저 물금을 보고 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이 낙동강을 지켰다 카고 우리 그래쌌다.

그래서 그 대포바위라고. 딱 대포겘이 요래 바위가 걸쳐져가 있어 이래. 그런게네 이북 사람들이 삼랑진까지 내려왔는데도 여 낙동강까지 문 내려왔다. 그래 그때 그레가지고, 우리가 저겘 그때만 해도,

“아- 저게 대포바위가 지켰다.”

이래쌌다.

[북구 설화 40]

### 귀신바위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옛날에는 귀신바위라 카는 데가, 쯤음 여기 우리 동네에서 이리 쯤음 외지가 있어가 노니 겘네(잇기 때문에), 그 바위가 워낙 크다. 이 뭐 이 건물만한, 건물만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기

그 밑이 이래 구멍이 이래, 뼈끔 이래 나와 있었어. 그래서 거기,

“귀신 들었다. 귀신 들었다.”

이케 가지고, 귀신 본 사람도 없지만, ‘귀신 들었다.’ 캐가 그래 귀신바위라 캬거든.

[복구 설화 41]

### 약물바위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약물바위는, 옛날에 우리도 그 약물바위에 가가 씻고 그랬는데, [조사자: 아-! 씻었다고예?] 응, 그 약물바위는 바위가 이래 움푹 파져가 있어 이래. 근데 이 물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몬, 거 빗물이 갠아져가지고 햇빛이 확- 증발을 했는 기라. 증발을 하인께네, 그 물이 일 년 내 내, 삼백 육십일 계속 증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옛날에, 그 해방 되고 날 때 될 무렵쯤 돼서 아들이,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이 머리 이런데 부스럼이 엄청 나가 있었거든. 소비습 캐가지고. 근디 그 가서 씻고 나몬 낮아 뿌는 기라. 응 그 물에 씻으면. 그래 거기 물이 쫘아지가지서 약물이 된 기라, 숨게 말하자면.

물이 오데 올라오는 것도 아이고(아니고), 드가는 것도 아이고 누가 갖다 붓는 것도 아인데, 그 자연적으로 빗물이 고이가지고 증발을 해가지고 그래가 있었는데, 인자는 나무가 질어져가지고, 이파리가 마 다 떨어져가지고 마 그렇게 해놓이, 마 그 흔적, 바위는 있는데 약물은 안 되는 기라, 숨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약물바위라 캬다.

여 우리, 여기에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은 그 다 가 씻고 이랬다고. 그때 마 우째 부스럼이 그리 마이(많이) 낫던가 몰라. 소비습(소비집) 캐가지고 마. 그 가서 씻그몬 낮았는 기라. 그래 가지고 소비습 마이 나고 이라면, 머리에다 막장, 된장을 썬리 발라가지고 소한테 갖다 대. 소가 핏아뿌는 기라. 그래가지고 낮우고 이랬다니까.

[복구 설화 42]

### 범메등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범메뚜. [조사자: 그 범메뚜. 범메뚜는 왜 범메뚜인가예? 범이 나와서?]  
범이 나왔다고 하는 기 아이라, 범메뚜기이라고 있어. 메뚜기에 속하는 범메뚜. 그걸 닮았다.  
등하고 닮았다 캐서, 그걸 범메뚜 이래 켜다.

[복구 설화 43]

### 선돌바위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누가 거 갖다 세웠겠노? 자연, 세상이 자연 그대로, 돌이, 이래 밑에는 바위가 이래 있고.  
이렇게 갖다가 서가 있으니까 선돌바위라고 카지.

[복구 설화 44]

### 소방우골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조사자: 소방우골?] [청중: 소방우골.] 소방우골 카는 기, 그때 그 소를 거기서 잡고 그리했  
는갑더라. 그러니께네 소방골이라 켜는 것 같은데, 그쪽이 저 쫘 외지거든. 저 부산시하고  
양산하고, 부산시하고 경계 그 사이, 그 사이를 소방우골이라 켜는데.

[복구 설화 45]

### 안택골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안택골은 지금 우리 요 불암사 있는, 저 진흥사 있는데 거가 안택이라 했는데, 좀 이래 뭐  
랄꼬, 골짜기 이리 안으로 조금 들어갔다고 안택골.

[북구 설화 46]

### 함안 조씨가 몰살되었던 불쌍골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함안 조씨라꼬. 우리 마을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 저 자리가 어딴냐 카면, 저 삼단지 저기  
자린데. 그쪽 자리 지금 저 우리 물탱크가 하나 있고 바로 뒤쪽인데, 거기 함안 조씨가 살았  
답니다. 살았는데, 뒤에 산이,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산이 무너져가지고 함안 조씨가 몰살해  
뻘어. 그래서 그 조씨가 몰살했다고, 그 장소를 불쌍하다고 불쌍터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거기 기와가 있어가지고 기와를 주와가지고 그릇 닦는데,  
늦그릇 닦는데 그걸 뿔아가지고(부수어) 늦그릇 닦고 그래도 했다고.

[북구 설화 47]

### 물레자리의 유래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물레자리는, 물레자리라 카는 기, 그 바위가 물레바위맨쿠로(물레바위처럼), 옛날에 물레,  
이리 돌리는 물레가 있어. 그 물레바위겉이 생겼다고 물레자리라고, 그 재가 있거든. 그 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레자리.

[북구 설화 48]

### 고동껍질이 많았던 금정산 고단봉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그런데 금샘[金井]에 대한 거는 요즘 뭐 학자들이 뭐 말 마이(많이) 했산께네, 우린 뭐 더 이상 못하겠고. 우리 원래 고단봉은, 옛날에 왜 고단봉이라 했노카면(했냐면), 그 옛날에 천지 개벽했을 때 그까지 그 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중마을까지만 해도 거기 가면 고동 그 껍질이 거기 있고 그랬거든. 고동껍질이 있고, 조개껍질이 있었다고. 그래가 그 고동이 있다고 캐서 고단봉이라 했는데, 그 밑에 보문, 고단봉 밑에 보문, 바위가 똑 고동겉이 요런 기 딱 있다고. 그걸 보고 고단봉이라고 이랬는데.

그 고단봉, 그 고단봉 할무이는, 고단봉에는 할무이밖에 안 계시거든. 그 고단봉 거는 할무이라. 고당할무이라 칸다고, 우리가 알 때부터. 어른들이 고당할무이라 했는데.

그래 우리 여계, 인자 거 할무이 고단봉에 거기 저 제를 지내고 어른들이 했는데, 워낙 멀잖아요 여기. 그니께네(그러니까) 그리 먼데까지 가기가 힘들다 캐가지고 고단봉 할무이를 모시고, 그 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당산을 만들었다꼬. 당산을 만들어가 지금 여 있어 지금. [조사자: 그 안에는 뭘 모시고 있나요?] 위패를, 고단봉 위패만 모시고 있지.

[조사자: 그럼 당산할배는 안 모시고?] 그런께네, 그래가지고 인자 쪽- 내려왔어. 쪽- 내려와가지고, 그래 인자 저 우리 우에 어른들이 인자 한참 우리 마을을 이래 지배를 하고 이럴 때, 그때 인자 나는 좀 어리도 그 어른들한테 이래 많이 휩쓸리가지고 이래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내가 어른들한테 제의를 했어.

“세상에 다 신발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는데, 할무이만 모시인께네, 우리 동네가 할무이만 연세가 많아지고 할아버지는 없더라.”

팔십 넘은 할아버지가 없는 기라. 계속 육십 돼서 돌아가시고 다 그런께네. 그래서,

“그 뭐 위패만 하나 더 써가지고 옆에 같이 모시몬 안 되겠느냐?”

내 그래 그렇게 어른들한테 건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반영이 돼 가지고, 그래 우리 여기는 고당 할아버지꺼정 모시지가 있다. 그라고나인께네, 조금 연세가, 팔십이 넘어가는 연세가 생기더라꼬.

[북구 설화 49]

## 정승도 말에서 내렸던 거릿대

이오용(남,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옛날에는 우리 그 저 거릿대라고 있었는데. [조사자: 거릿대도 있어셨어요?] 있었지. 요 밑에 있었는데, [조사자: 나무 세워가지고 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외지 사람이 말을 타고 오면, 거기 오면 무조건 내리야 되거든 거릿대서. 내리가 지고 말 끌고 마을에 들어와야지, 말 타고는 못 들어온다고. 정승이 아이라 정승 저 할배라도 그 거릿대 경계를 넘어오실 때는 말을 내리야 돼. 그런 그 위엄을 준다고.

여기 거릿대가 있었는데, 요 밑에서 있었는데, 이 개발이 되면서 거릿대가 없어지가지고 당산에다가 같이, 나무에다가 한테다가(함께) 모아뺐어요.

[북구 설화 50]

###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임구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뭐, 뭐 옛날에 뭐 그래 쌓대에. 고려장은 인자 70살이 되면 고려장이 돼야. 인자 자기 엄마를 업고 지게 지고 올라가이께네, 그래 가면서도 자기가 고려장터에 드가게 되면서도 내려올 때, 어두울 때, 내려올 때, 아들 생각을 해가 길에다가 솔가지로, 올라가면서러 아들 생각 해가, 전부 가지를 꺾커가(끊어가), 가지 꺾어난 그 자리로 내리가라고.

“내리갈 때, 내가 가지로 꺾커났다. 고, 고거 따라 내려가레이.”

길 찾아가라고 그러 카더랍니다. 그 부모는 그래 자기가 그런데 가면서도 자식을 생각 칸다 하는 그런.

아들은 인자 엄마로 고려장에 보내고 나이, 그 저 나라에서 그리 정해 난 법이라노이 데려 올 수도 없고, 그 고랑에 뽀-한 물 내려오는 것만 보고, ‘아직까지 엄마가 살았구나.’ 쌀로 쪼끔 넣어주는갑대 그때까정. 뽀-한 물이 안 내려오면, ‘엄마가 죽었는갑다.’ 이랬다 카대. 뭐, 그리 쌓대.

[북구 설화 51]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임화순(여, 1927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옛날에 절은 자세히 모르겠고,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고.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러 온 나라에 땡기몬스 시주로 해 가지고 종을 맨드는데, 그래 온 나라 땡기면서 종을 맨드는데, 그 종을 다 맨들어갈 때, 어는 집에 시주로 하러 가니까, 그래,

“시주 좀 하세요.”

카이까네, 애기 엄마가 애기로 안고 있다가,

“그래 뭐로 시주로 하꼬? 우리 아무꺼이를 줄까? 뭐로 시주로 하꼬?”

이래 카더래요, 그 애기 엄마가. 그러카는데 그걸 여사로 듣고도, 시주도 문 하고 시주 하러 간 보살들이 돌아왔는데. 그래 그 돌아와가지고(돌아와서) 그 거단(걸은) 걸로 가지고 종을 맨들어가, 에밀레종, 아 그땐 에밀레종이 아이지. 종을 맨들어가 소리를 낼라꼬 아무리 뚜드리도 소리가 안 나 종이. 그래서러,

“이 소리가 왜 이리 안 나노?”

물으이까네, 나라에서러.

“그래 무슨 원인이 있다.”

“애기로 저 보면서로 동냥 좀 줄라 카이, 뭐로 주꼬, 우리 아무꺼이를 주까, 아무것도 시주 할 게 없다고, 좋아싸서, 아 거기 좋아싸서.”

그래 췌는 기라. 그래 캔 그기 딱 못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그래 나라에서로 그 아로 없앴답디다. 아로 불러들여가. 이 나라에서 그래도 부를만 하길래 불렀지. 그래가 그 종에 다가 아로 제조를 해가지고 종을 만들앗디만은, 그래 그 종을 뚜드리어 끝이,

“에밀레-.”

카더랍니다. [조사자: 그 무슨 뜻인고예?] 소리가. 끝이 인자 아로 여 놓으니 ‘에밀레-’ 카는, 그 어마이 죄라. 그래 말은 함부더러 해선 안 된다 카는 거지. 그지요?

[북구 설화 52]

## 공알바위 유래

임화순(여, 1927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그래놓이 공알바우라 안 카나. 물 안 마른다꼬.

[북구 설화 53]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여자가 시집을 가이, 하도 없어가지고, 아 참 살다가 살다가, 내나 저 눈에 가갖고, 그 피 그거를 훔어다가 한 덩서리 쳐 넣어놓고 또 훔으러 갔는 거라. 또 훔으러 가가 그 놈을 또 이래 훔은께, 마 비가 때리 오는 거야. 비가 온께네 인자, 그 놈 인자 훔어가 막 집에 온께네, 마 비가 와가지고 마 다 흘피가 내리가뿐 기라. 그래가 인자 신랑 보고,

“그래 이거나 좀 그래 담아 주지. 왜 그랬느냐?”

고 그칸께네, 신랑이 말도 안 하는 거라. 입을 안 떼는 거라. 자기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라. 그리 이 여자가 가만- 생각한께, ‘저 남자 델꼬 내가 못 살겠구나. 내가 가야 되리다.’ 그래 갔는 거라. 가가지고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저 저 저, 그 여자가 복이 고 뿐이라. 팔자가 고 뿐이라.

참, 이야기 잘 몬 했다. 본데 신랑이 죽고 오자 이 남자한테 왔는 기라. 그래 왔는데, 이 남자한테 오갔고도(와서도) 그리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인자 그 떠 데 또 가 봐도 또 몬 사는 기라. 그래 글 쓰는 그 남자 다부(다시) 왔는 거라. 글고 왔으니까네 그 남자가, 본데 남편 죽은데 그 모에(뒀에) 가가주고 부채를 하나 주면서로,

“거 가서 붙이만 그 풀이 바삭 마르만은 그때 내가 델러 갈끼께네, 그 부채를 가서 부치라.”

이놈 암만 부치도 마르나 풀이.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가 결국 못 말리고, 못 말렸네예?] 결국 못 말렸지. 그 풀이 마르는가? 그 부친다고. 안 마르잖아.

[복구 설화 54]

## 상사뱀이 된 남자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뱀이 돼갖고, 그 있다 아이가. 그래갖고 하 요게 딱 온 몸에 감아가, 텍(턱) 밑에 요게, 뱀이가 탁 요래 텍을 공가가(괴어) 젊은 아가씨, 아가씨 요 밑에 요래가 텍을 공가가 있는께, 그래 인자 저 한 해 가는데, 그게 비리가, 개비리가 있는데 그 상사바우가 있거든. 진짜 거 있어. 근데 고 갖다놓고 인자 풀이를 했는 기라. 상사풀이를 하고 물에 밀어 넣뿌께네, 금시 요래 뱀이 두 바리가(마리가) 돼가지고 소로소로소로 기어 가더란다. 그런 기 있어. [조사자: 실제로 처녀 몸에 이렇게 있을 때는 안 보이지예? 사람 눈에. 상사병이 눈에 안 보이지예?]

처녀가, 천녀한테 와가지고 구렁이가, [조사자: 근데 그게 사람 눈에 안 보이지예?] 비이니까(보이니까) 했지. 안 비이기는 뭐 안 보여.

목 감아가 요게 택을 공가가(괴어서) 처녀가 눈물이 흐르면 지가 똑 받아먹고, 똑 받아 먹고. 할 수 없어 그 인자 비이가가지고(보여서) 상사바우 가가지고(가서) 그거를 했는 거라. 그래 하고 인자 물에다 밀아 넣은께네, 금시 뱀이가 돼가 두 바리가 살살살살. 그런 기 있어. 그 전설이 있어.

[북구 설화 55]

### 봉사 아버지 눈 뜨게 한 심청이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아이다, 참. 심봉사 딸은, 거기다. 저거 아버지 봉산데. 지가 인자 동냥을 하러 갔는데, 하도 저물게 안 와가지고 저거 아버지가 마중을 가다가 구무령에(웅덩이에) 빠졌어. 그래갖고, 그거 나는 책을 보고 말하는데, 그래갖고 인자 이웃 사람이 그 영감을 건지 줬는데, 그래가 인자 어느 도사가 지내가면서, 아 그 뭐꼬?

“백미 백석만 있으면, 저 눈을 뜨게 하겠구만.”

이랬는 거라. 그래 하니까, 이 들었는 기라. 이름 뭐꼬? 그 딸내미 그기? [조사자: 심청이.]

아! 심청이. 그래갖고 인자 그 찾아가주고(찾아가서), 찾아가니까 인자 그 지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못에다가 인자 그 처녀를 편지 영야(던져 넣어야), 인자 그른 기 있어야, 내나 전설이 있었는데, 그래 그 가 지가 물에 영야, 인자 그 백미 백석을 준다 이랬는 기라. 그래놓이 지가 인자 말을 했는데, 내가 인자 여게 빠지 죽어야지, 사람 들어가야지 그래 인자 배로 마, 뱃사람들이 마 이래 싣고 막 북을 치면서 들어간다 아이가. 들어가까 인자 그기 노래도 있잖아.

산천도 울었다네, 바다도 울었다네.

그래가 인자 드가가주고, 들어가까 인자 이 사람들은 요쪽 배로 타고 오고 배로 밀아놓고 간께, 배가 사르르르 휘젓는 기라. 고래가 물에 풍당, 아가씨는 물에 들어 가봤는데(들어가 버렸는데), 저거는 물에 들어갔다 저거는 나가뿌고. 연꽃이, 연꽃이 불롱하이 썩- 딱 물에 떠 땡기는 기야. 어느 뱃사람이 하나 본께네, 너무 예쁜 연꽃이 있었는데. 그래 그걸로 인자 가지고 임금한테 갔는 거야. 임금한테 가가지고 고래,

“이런 기 이리 바다에서 떠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왔다.”

꼬 이러니까, 그래 놔놓고 본께네, 시간이 시간이 된께네, 거서 인제 심청이가 올라오는 거야. [웃음]

“그래 니가 누고?”

쿤께,

“사실 인자 내가 어떻게 돼가 어찌 돼서 그래 돼서 이래 됐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인자 저거 아버지가 봉사 아인강. 봉사라꼬는 인자 다 불러 모았는 기라(모았던 것이라). 천지 세계 봉사라고는 다 불러 모다이, 제일 뒤에 오는데 질마 붙은 두루매기를 입고 찡아 붙은 갓을 씌고 그래가 들어오는 기라. 제일 못 묵고 인자 그기 저거 아부진 거라. 그래 올 아버지, 그래,

“저 사람이 올 아버지.”

라 캄서, 막 심청이하고 아똥코가지고(보듬고) 이래가 있는 기라, 책 보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잘 사더라꼬.

아, 그래 아이다. 그래가 참 인자 심청이가,

“아버지.”

카면서 아똥안께네(안으니), 눈을 퍼뜩 떴뻤는 기라 봉사가. [청중: 놀래갖고 눈을 퍼뜩 떴뻤다.] 나 마이(많이) 까뻤는가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복구 설화 56]

## 자기 죽는 날도 모르는 삼천갑자 동방삭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이 삼천갑자 동방삭<sup>2)</sup>을 잡알라꼬, 삼십년을 돌아댕기도 거를 문 잡았는 기라. 그래 인자 한날은,

“하-, 이놈을 갖다가 내가 삼 년을 돌아댕기도, 이놈을 내가 문 잡고.”

이카며, 헐레헐레 올라오며, 지 혼자 구성거리싸며 올라온께, 어떤 도사가 하나 지나가매,

“니가 삼천갑자 잡을라 커거들랑, 저 어는 골에 도랑에 숯 씻는 놈을 잡아라.”

이랬 컨데라.

2) 정확한 명칭은 ‘동방삭’이다. 동방삭은 중국의 인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삭’ 또는 ‘동방석’으로 구전되며,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숫 씻는 놈을 잡아라.”

이랬는 거라. 그래 인자 참, 숫을 씻는 놈이 어딴노? 도랑에 물 내리 가는데, 이런 소쿠리 에다가 숫을 한 상 담가놓고 씻겨쫓는 기라. 그래 이리 지나가는 기라. 삼천갑자. 그때사 인자 삼천갑자 동방석이 지나가는 기라 그리. 이 놈은 지 잡을라꼬 숫을 씻는데, 그래 본께네 숫을 씻겨 쫓거든. 이놈이 딱 쳐다보고,

“헤- 참! 삼천갑자 동방석으로 살아도 숫 씻는 놈 처음 봤네.”

이카는 기라. 고마 내빼리고 그 놈 잡았는 기라. 그래가 그래 인자 말이 있잖아. 삼천갑자 동방석에도 지 죽는 날로 모르는 거야. 그리 우리가 인자 한치 앞도 모르는 기 우리 사는 거라.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는 거야.

[북구 설화 57]

## 시아버지와 적이 된 민비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그래 옛날에 민비가 거- 시아바이하고 막 적이 돼가 싸웠잖아. 길국(결국) 민비가 이겼잖아 시아바이한테. 그리인자 노래고, 그 노래가,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난다.

[조사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청중: 그래 그거 아이가 그래]

그래 민비가 나는 피어나지만은, 시아바이는 인자 꽃을 다 피뻗다 그자? 다 피면 진다 아이가 그자? 진께네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난다’. 나는 기울어지고 나는 피난다. 이 말이거든.

그래갖고 그거 싸우다가, 길국은(결국은) 처음에는 민비가 후들기 갔잖아. 후들기 가다가, 아주 꿈보거든 민비가. 아주 꿈본데, 그때 되가 화장을 해가 하나도 표 없이 쳐발라가지고 인자, 가마로 타고 가는데, 거 인자 밀고 가다가 인자 주막이 하나 있는데,

“여, 주막에 여 데라.”

여 술이나 한 잔, 밀고 가는 사람들 그거를 뭐라 카는가 모르겠다. 다 잊어뻗다. 그거를 뭣이라 카더라. [조사자: 가마꾼. 있다 치고(있다 하고).] 있다 치고.

그래 인자 거 나라놓고(내려놓고) 주막에 가 죽- 앉아 가 술로 한 잔씩 묵고 이랬는데,

인자 소문이 난다 아이가 그자?

“시아바이랑 싸우다가 인자 쫓기 간단다. 아무데 그 년이 쫓겨 간단다. 민비 그년이.”

막 사람들이 이리 썩신다 아이가 사람들이. 그래 그 인자,

“아이고 그 년이 쫓기 간단다. 가마 저거 간단다. 우리 구깡하러 가자.”

카며 들다보니, 마 너무 미년(미녀) 기라. 꿈본데, 아주 꿈본데,

“하이고! 이봐 그거 아이라고.”

인자.

“아이고! 아이다. 이 가마가 아이다.”

“하-! 억시기(대단히) 이쁘고 미녀다.”

“하이고! 민비 그 년은 짱 꿈보다.”

쌓고 마 그래, 마 욕을 했는 거라. 거 귀에 딱 듣고 있다가, 그 인자 술을 마시고 나오니까,

“여계가 어디고?” 차를

그거로 인자 단디(잘) 기억하라 이거라. 지 밀고 가는 사람들로. 그래가 딱 기억해가지고 저  
가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잊어뿌고 말로 한다. 저 가가지고 저거 부하를 억시기 마이 했는 거야.

고게 나이 시 살 목을 때, 하나가 없어가지고 저거 엄마가 시장에 가서 지비쌀로(좁쌀) 한  
되 팔아다가 청에다 놔놓고 물로 한 동 이고 온께네, 요기 마 쥐 흘는 기야. 하-,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야 이 년아, 그것도 근근이 한 되 팔아가 읊는데, 와 이리 지 흘노?”

이칸께,

“체, 내 부하카먼 작은 그걸로 엄마는 그래 썩는다.”

그게 전부 부하가 돼뵈는 기라. 그래갖고 그 나라로 젓구덩이로 만들어뵈잖아. 그래 민비가  
그리 뵈다.

[복구 설화 58]

## 부인 때문에 발복 못한 명당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아들이 셈형젠데, 아버지가 딱 죽을 때가 뵈는 기라.

“내가 인자 시가, 무슨 시에 죽는데.”

큰 아들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라 칸께, 저거 엄마가 절에(옆에) 앉았는 기라.

“그래 야야, 너저 엄마 나가라 캐라.”

“아버지, 엄만데 어때요? 이야기 하이쇼.”

이칸께네,

“너거 어머니 외인아이가.”

[조사자: 여자라고? 아, 외인이라고!] 외인인데 나가라니까, 이 할마이가 들으니까 께쌌이 나가든. ‘무슨 이야기 할라고 저 카노.’ 싫어 나갔다. 그래 인자,

“내가 딱 죽겨들랑 목을 비가주고, 그 명주, 명주로 탁 그거 해놔다가, 딱 푹푹 말아가지고 께을, 요만한 께이 딱 있는데, 고 딱 열어가지고 아무데 못에 갖다 그거 여라.”

이라거든.

“아이고 나 아버지, 못 합니더.”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둘째 아들도 못 한다 카는 기라. 그래 인제 셋째 아들을 불렀어. 막내를 불른께네 할라 커는 기라.

“아버지 소원대로 하겠습니더.”

근디 이놈의 어마이가 가마-히 생각한께, 아들 서이로 다 불러들루코(불러들이고) 날로 나가라 쿠고, 이놈의 영감쟁이가 께쌌하다 싫어 그래도 있었어. 그래 인자 고마 그놈을 해가지고, 저거 서이는 안다 아이가 그자? 아들 서이는. 고마 저거는 저거대로, 마 신체는(시체는) 신체대로 하고, 마 이거는 두나(頭, 머리를) 싸 가고, 막내가 마 들고 가뵈는 기라.

못에 가가 치다본께, 시컷 큰 못에, 시퍼런 물에 이거를 내가 우째 가운데다가 영노 싫어서 살쩍이 물에 발로 연께 바짝 말라뿌거던 물이. 그래가 드간께, 짜죽짜죽 드간께네, 다 말라 뿐 거야. 못에 물이 짝- 말랐는데, 고 복판에 간께네 딱 고거 드갈만한 께이 있는데 돌께이. 딱 여놓고, 뚜껍을 들씨고(열고) 딱 여이 딱 맞거든. 또 한 재죽(한 자국, 즉 한 걸음) 나온께네 물이 생기고, 또 한 재죽 나온께네 물이 생기고, 마마마 못에 물이 마 께 차뵈는 기라.

그래 인자 얼마를 있다가, 인자 아들하고 어마이하고 큰아들하고 싸움이 났는 거야. 싸움이 나갔고 마, 하- 패악을 치면서 할마이가,

“야, 야, 저놈의 손이, 이놈의 손들이 저거 아배 목을 치다가 아무데 못에 갖다 열었다.”

고, 막 패악을 치뵈어 어마이가. 온 천지 동네사람이 다 듣고, 전신에(모두) 그 대가 마 물로 막 퍼 올라온께네, 허연 백말이 한 쪽 다리 원장 밟고 탁 올리다가 그대로 고서 께 사그라지뿌더란다.

그래가 외인이라 여자는. 그래 옆구리 터져 나와야 장사가 되는 기라. 어마이 입을 막아 뿌야 되는 기라. 죽어뵈다 아이가 옆구리 터져 나오만. 죽어야 되는 기라. 그런 기 있습니다.

[복구 설화 59]

## 아기장수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저 우리 고향 가면은 산이 딱 요래가 있는데, 고계 옛날에 인자 얻어무러 댕기는, 탁 집도 없고, 얻어무러 댕기는 사람이 애기가 뻗는데, 우째 가다가 산골짜기 가다가 보면은, 애기로 낳았는데, 텃줄 끊을 기 있나? 이래 본께네 속새피가(소쩍새가) 있는 거라. 속새피 그놈을 갖다가 [조사자: 속새피?] [청중: 한시배기, 한시배기, 산에 한시배기라고 있다. 그게 손 비거든.]

산에, 산에. 그래 인자 거기 뭐뭐 커가지고 뿔이 돼가 어데 가뿌고 없는 기라. 지 혼자 얻어무러 댕기고. 그거를 뿔이 우째우째 알았는지 그거를 알고, 그놈을 요 산에 썩 드가뿔는 거라. 요런 산에. 머스마가 쪼깨날 꺾에부터(작았을 때부터). 들어가뿔는데, 그놈을 알고 저 사람들이 천지에 와가지고,

“이 태로 뿔로 가 잘랐노? 그것만 알아라.”

이랬는 거라. 저거 어매로, 저거 어매한테 저 조지고 막 직일라 쿠고 마, 아무래도 안 갈차 줌는데(안 가르쳐줬는데), 난주(나중에) 영 저거 죽어뿔면 될 낀데, 지 안 죽을라고 갈쳐 줌는 거라.

“속새피 그거로 갖다가 그래 끊었다.”

이칸께네, 고거를 딱 가가서(가져가), 요 꺼내가 산 있는데 탁 썩리준께(때려주니) 탁 갈라 줌다. 지금도 가면 있어. 있어. 우리 고향에 가면 그래가 그 앞에 못이 있거든. 획- 날라가더 만은 거 가서 빠지(빠져) 고래(그렇게) 죽더라. [조사자: 애기장수가?] 응. 그런께네 옛날에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큰 자석이 될라면은, 어마이하고 이리 돼야 되는 기라. [양 손의 손등을 맞대어 서로 등지는 모습을 표현하며]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

[복구 설화 60]

## 돌아보면 돌이 되는 고개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올라가는 사람마다 그건 안 돌아보고 가야 되는데, 딱 돌아보면, 돌아보는 고대로 돌이 돼 뿔는 기라. 그런 게 있었다.

[복구 설화 61]

## 지혜로 위기를 넘긴 어린 사또

박종식(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열세 살 목은 사람이 고을 원을(원님을) 하는 기라. 열세 살 목은 기. 그래 턱 고을 원을 하고 있는데, 전신에(모두가) 크다 아이가? 지카면(자기보다) 모두 뭐 나도(나이기도) 많고, 큰 사람들이 어데 지나가면. 그거를 일로 보다가 앉아, 또 담벼락 밑에 가가주고 또 쪼매상 친구들이랑 앉아 또 소꿉을 놓는 기라. 이라니 어떤 사람이, 막 여럿이 지나가면서,

“하이고, 문디. 내 소매 안에 여도 차도 안한 기, 저기 무슨 고을 원고.”

이래뵈는 기라. 탁 귀에 들었는 기라, 그래 마 탈탈 털고 인자 오는 기라. 앉아서,

“아나 아무개 그 가서, 뭇 이하고, 뭇 이하고 잡아오라.”

이라는 기라. 거 두 놈이 가다가 그랬는 거라. 그래 인자 참 잡아왔다.

“예-.”

카며 온께네,

“그래, 너, 너거 둘이는 저 뒤에 밭에 가가주고 수싯대, 제일 큰 거 두 개를 하나씩 들고 온나.”

이래께네, 수싯대는 일 년만 커도 그만큼 컸는 거야. 그래 인자 이놈들이 좋다고 수싯대를 떡 갖고 온다. 온께네,

“그래, 고거로 빨라지(자르지) 말고 여 다 여라.”

카는 기라. 소매 안에.

“빨라면 안 된다. 빨라지 말고 여 다 여라.”

되나? 그놈이. 한 밭도 안 드가는데. 그래 인자 이라는 거라.

“야 이놈들야. 일 년 큰 수싯대도 너거가 몬 주워영는데, 십 삼년을 큰 날로 니가 소매 안에 쥐 열라 췌제? 아나, 저 놈 저갓다(저기다)놓고, 얹어놓고 치라.”

이라는 기라. 그래 막- 곤장을 맞았어. 그 막 퍼진다 아이가? 그 말이 그자? 온 데 퍼지 논께네, 독장사 하는 사람이 아가지를 뭐로 박송을(?) 딱 땀으면, 바람이 안 드가고 안 터질 깰데, 아가리 반 매나놓고 이래가,

“독 사소-.”

커며, 지고 가다가 보면, 바람이 드갔는가 독이 터졌는 기라.

“아무 데가 열 세 살 목은 기 그리 그리 했다 카는데, 독 값을 물리러 가자.”

이랬는데. 그래 참 희안한 일도 다 있다. 고 두 놈이 또 독 값을 물리러 갔어. 간께네,

그래 인자 열 세 살 묵은 그 놈이 고을 원인데,

“너거 왜 왔나?”

칸케네,

“독을 팔러 가다가 독에 바람이 불러서 독을 깨뿔는데, 독 값을 물어 주이소.”

이래는 기라.

“허허, 참. 그래 저 강가 가가지고 올라가는 사공, 내리가는 사공 두 사람을 잡아 오라.”  
이기라. 그래 떡 잡아다 놓이, 그래 너는 올라가는 사공 보고 인제,

“너는 무슨 바람이 좋노?”

이런께 올라가는 놈은, 물론 올라가는 기 좋지 그자? 내려가는 놈은 물론 또 내리 바람이 좋잖아.

“야 이놈들아. 둘이서 내려가는 바람 좋다, 올라가는 바람이 좋다. 그 바람에 싸움을 해 가  
독을 깬으니 독을 물어 줘라.” [일동 웃음]

그래 뻘다. 그 사람 지금 저 살고 있어. [일동 웃음] 마 이야기 되네. [조사자: 마 이야기  
된다 그지예?] 마 이야기 돼뿔다 아이가.

제일 처음에 고기(그것이), 머스마 고기 지큼만(자기만큼) 점점 크고 이런 긴데, 동네 가운  
데 둥자 나무가 있고, 막 사람들 노는 데가 있제. 그따가 새끼줄로 떡 쳐놓고 지는 우엿것  
만(윗도리만) 입고, 고추 톱 내 놓고, 나이 세 살 묵었은께네, 그래가 톱 이리 앉아, 앉아서  
자꾸 큰 거를 씹어 먹는 기라.

그래 저쪽 본께네, 참 아주 모시 두루매기에다가 갓을 씨고(쓰고) 부채질을 설렁설렁하며  
학자가 온께네, 이놈이 가마-히 쳐다보디만은(쳐다보더니), 마 아들을 불러갖고 저 사람 잡아  
오라 카는 거라.

이 할배가 마, 뭘시 짜다라(많이) 오디 마 끌고 가거든.

“이놈들이 와 이카노?”

이카며 끌기갔는(끌려가는) 기라. 간께 돌케다(돌에다) 톱 앉차놓고(앉혀놓고) 새끼줄 치난  
데(새끼줄을 쳐놓은 곳에), 그 안에 가되났는 기라 할배로. 한참 있다가 이제 시간 뻘다고  
할배를 보내라 카는 기라. 내나 그놈이 그놈이라, 커갓고(커서). 근데 처음에 이야기를 거꾸로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

[복구 설화 62]

## 용한 점쟁이

안명수(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옛날이야기 해 주까? 옛날에 한 사람이 하도 어느 저 어데 한 골짜기에 용하다 캐싸서러 (하기에), 얼마나 용하고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베로 짜다가 베틀로 인자 만자 뒤비 놓고, 내가 한 번 가 봐야, 그래야 맞나 안 맞나. 내가 마 오면 막 요거 뒤비난 거 요거 짜가 들 낼긴데, 오늘 들 낼긴데, 그래놓고 인자 점하러 갔는 기라. 하도 용하다 싸서. 점을 하러 간께네,

“아이가-이 너거 베틀 그거 저 삼 년 돼야 들 낸다.”

카더라 카네. [청중: 석 달 열흘이라 카더만.] 아, 석 달 열흘이라 카더나? 아, 석 달 열흘 인갑다.

“그래야 들 낸다.”

이카더란다.

‘에이, 니기미 씨발. 니가 똥을 알아서 씨벌. 내가 가면 지금 들 낸다.’ 마음속으로 그리 카고 오다가. 저 논두렁 밑에, 이래 마 풀이 이리 우묵하이. 오줌이 누고 싶어서 해필 거 똥는 기라. 마 그 똥이란 놈이 딱 사리고 있다가, 뜨거운 기 내리간께네 마 꼬치를 짹 물어 뜯어똥어. 그 병을 낫을라 카면 똥똥 석 달 열흘이 안 되나? [조사자: 석 달 열흘 만에.]

응, 그래가 그 석 달 열흘 만에 그거 낫아가 할라 카이, 딱 석 달 열흘이 걸렸는 기라. 옛날 그 얘기가 있다고.

[복구 설화 63]

### 꼬부랑 이야기

안명수(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질로 질로 가다가 똥을 하나 떡 누웠네, 할매가 똥이 누고 싶어가 똥을 누놔이, 요놈의 꼬부랑한 강아지가 오서 똥을 날름 주우 목었거든. 할매가 마 꼬부랑한 짹대기 안 있나? 요 꼬부랑한 거. 그거를 가지고 강아지를 탁 때리이,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커더란다. [일동 웃음]

[복구 설화 64]

###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독[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안명수(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독 장사가 독을 지고 가는데, 저 오데 만디(꼭대기) 올라가서 인자, 저런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떡 지게도 받히놓고 쉬거든. 그 독이 또로로로로 구불러 내리갔단 말이다. 떼굴 떼굴 떼굴 떼굴 떼굴 떼굴.

[청중: 그놈의 독이 깨지도 않았는갑다.] 하모, 떼굴 떼굴 떼굴굴 구부러, 그래 구불러 내리가더란다. 그 이야기를 하더란다. 그 딱 고기라, 지금도 안죽(아직) 내리가고 있다. [조사자: 그래 이야기 하라면 또 내려가고 있다.] 저, 저, 구불러 내려오고 있네. [일동 웃음]

[북구 설화 65]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아가 하도 울어서서 밤에, 꽃감을 주면 아가 달개지고 달개지고 그랬는데, 그래 하리(하루) 저녁에 또 아가 울어싼게네 인자, 호랭이가 인자 그 집 앞에 가서 가마이 서서 들으이께네, “호랭이 왔다.”

그래도 아가 울음을 안 그치고.

“호랭이 저 잡으러 왔다.”

캐도 안 그치더마는, 꽃감 주께 한개, 고마 아가 울음을 그쳤어. 그래서 아이구, 호랭이가 고마 도망을 감서로, ‘꽃감 주가’, ‘꽃감 주가’ 열매나 겁이 나는지, 호랭이라 캐도 안 겁나 더마는, 꽃감 주라 카이 겁을, 아가 울음을 딱 그친다 해가, 그래가 그 ‘꽃감 주라’ 카는 얘기가 나왔다요. [일동 웃음]

[북구 설화 66]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칠십대 고려장이 있었는데, 인자 이래 저다가 내뺨고(내버리고), 양 그래 해이고, 지게도 내뺨고 왔어. 그렇는데 한 번은 인자 할매를 지고 가서 인자, 그 집에는 할매를 지고 갔는데, 지게를 내뺨고 오이께네(오니), 그 손자가 따라 갔어, 손자가. 따라 가갖고,  
“아빠, 와 지게 내뺨고 가노?”  
그런께,  
“이거 내뺨고 가는 기다.”  
카고, 내뺨고 온께.  
“가(가져) 가자.”  
그래,  
“말라꼬?”  
“난주 아버지도 저다 내뺨구로 가 가자.”  
캐가, 그래 가오는 그 기 있었다요.

[북구 설화 67]

### 상객 가 실수한 친정아버지와 지혜로운 딸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는 인자 가면 뭐, 아버지가 상각을 간다 아이가. 아버지가 상각을 가면, 그 하룻밤 썩 자고 왔는갑대 사돈집에서러, 그런 얘기가 있더라.

사돈집에 가서 잤는데, 이 친정아버지가 고마 마이(많이) 묵고 배탈이 났어. 그래 인자 밤에 인자 화장실로 갔는데, 뭐 똥을 싸서, 중우로 그래 인자 벗어놓고, 두루막만 입고 인자 갓을 씌고, 그래 인자 저 밖에서 이래 큰 채로 올라오라 칸께, 사랑에서 자신께네(자니), 올라오라 쿤께네. 두루막만 이래 입고, 아버지가 이러면[다리를 올리는 모양을 하며] 다리가 썩 나온다 아이가. 그란께네 풀딱 뛰 올라갈라, [일동 웃음] 옛날에는 와 좀 그기 높았어요 축담이. 축담이 디담발이 있고 또 올라가고, 죽담이 좀 높은 집이 있거든 좀. 기와집 좋은 집 되나이. [조사자: 예. 예.] 그 풀딱 뛰서 올라갈라하다가 뒤로 히떡 자빠지뻘잖아. [조사자: ㅈㅈㅈ.]

고마 열매나 망신이고? 그래 딸이 인자 허는 말이, 그래 딸이 참 지혜가 있었던 모영이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나쁜 빙이(병이) 있었는데, 사돈집에 가서 저래 망신을 허면, 그기 인자 좋다 캐서 그래서 그기 양밥이다.”

하더란다. 그래 딸이 그래서 그걸로 면했다 안 카나.

[복구 설화 68]

## 은혜 값은 두꺼비[지네장터 이야기]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메느리가(며느리가) 아이고, [조사자: 아, 아입니까?] 그 집에 딸이 크는데, 항상, 옛날에는 부엌에서 밥을 마이 묵거든. 우리도 시집가서 전에 부엌에서 밥 묵었어요 그랬는데. [청중: 옛날에는 다 안 그랬나.] 부엌에서 밥을 묵는데, 참 그 옛날에는 이리 뒷문이 있어 이 부엌에. [청중: 그래 새에(사이에) 있다.] 요새 집들은 안 그렇지만, 뒤에 문이 있어 뒤에 이래 나무걸은 거 딜이오고 [청중: 그래, 그래 맞다.] 끄집어내고 하는 그 부엌이, 문이 뒷문이 있어요 제법 큰 기 있어요. 우리 친정집도 있었는데, 거서 두꺼비가 한 마리가 풀딱 뛰와가 밥만 몰라 카면 요래 앞에서 앉아가 차리보고(쳐다보고) 차리보고. 그래 밥을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줘는 기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인자 고을에, 무슨 인자 고마 용 몬 된 이무리기라꼬 이런 기 마 그 제우를(제물을) 바치야 됐다 카네 아가씨들로. 그래 그 집 처녀가 고마 인자, 지네가 마 역수로 큰 기 있었단데 옛날에 어데. 이런 제각 걸은 데(제당 같은 곳) 그. 그다 갖다가 처녀를 열어놔놓으면, 지네가 나와서 짹- 빨아 무뿌고(빨아 먹어버리고) 고마 글터라 카대(그렇다 하더라.)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리 인자 이 처녀가 거 뽑혔어 이제. 옛날에는 그 안갈 수도 었다 캐, 그 인자 뽑히면. 그러니까 뽑히고 가는데 이 두꺼비 이기 따라갔어. 두꺼비가. 그래,

“니는 오지 마라 내는 죽으러 간다.”

카고, 인자 이래 했는데, 그래도 거기 꼭- 따라가가지고 그래 옆에 딱- 있는데, 밤에 인자 이기 혼자 방에 이리 딱- 가다났는데, 뭘이 안에서,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거든. 옛날에 우리 아쪽에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

“찌그적, 찌그적.”

소리가 나서 본께, 이리 인자 가만 있었는데 지네가, 뭐시 빨-건 지네가 마 짹짹 나오는 소리가 그래 났는데, 그래 이 두꺼비가 지네를 보고 마 짹- 이리, 두꺼비 그기 그리 그기 세다 카네 독이. 두꺼비가 독을 쫓어. 지네, 지네도 독을 쫓거든. 지네 독이 있거든요, 지네 독은 역수로 세거든 그런데.

그래 둘이서 마 밤새도록 지네하고 두꺼비하고 막 독을 싸서 그랬는데, 아 그래 두꺼비가 이깃어. 지네가 마 툭 떨어지뻤어. 툭 떨어지고, 죽어갔고 떨어졌는데, 그래 두꺼비가, 그 인자 옛날에 짐승을 구하모 은혜를 하고 사람을 구해주면 입으로 양물을 한다 캬거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 그 뚜깨비가 그 처이로 살렸어.

그래 그 뒤에는 그 지네가 죽어 뵈게네 그 제우 바치는 게 없더라요. 그래가 그 뚜깨비가 처이를 살렸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복구 설화 69]

### 더벅머리 총각과 우렁각시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늙은 총각이, 그래 전에는 와 더벅머리 총각이라 했어, 늙은 총각을 갖다가 장개도 문 가고. 장개로 가야 상투로 꼽는데, 장개로 문 가 더벅머리 이리 내라가 있는 총각이라. 그래 옛날에는 장개로 가면 상투를 꼽고, 장개로 못가면 상투로 문 꼽았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그래 인자 상투로 문 꼽고, 더벅머리 총각이 마 가서 인자 발을 파는 기라. 이 발을 이루는 기라. 말을 이루면서,

“이 발을 쫓아서 누랑 누랑 묵고 살꼬?”

한개는, 그래 삼서(그렇게 하면서) 발을 쫓았는데, 그 뭐 이리 어덕(언덕) 밑에서,

“니랑 내랑 묵고 살지”

이라거든. 그래 또 그런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서, 그 어둡은 데, 말 나오는 데로 파본개는 아무것도 없고 우렁이가 한 마리 있어 우렁이가. 그 우렁이로 인자 더부다가(데리고) 인자 저거 집에 딱- 모시놓고, 그래 인자 와서 인자 발을 파고 가몬, 딱- 밥이 역-수로 진수 성찬이 한 상씩 차리가 있는 거라 밥상에.

그래 이 영감이, 이 더벅머리총각이 얼마나 좋을 끼고? 그래 인자 이리 참 가서 묵고 묵고 오다, 한번은 이래 ‘에라이, 내가 망을 보겠다.’ 싫어서, 딱 숨어가 망을 본게네, 거기 우렁각시라, 그 우렁 안에서 예-뽀, 예-뽀 인자 각시가 나와갖고, 밥을 그리 딱- 지어놓고 드가고 그러거든. 그리 난주는(나중에는) 인자 그거 해갖고 마, 우렁 속에 문 들어가구로 마 각시를 딱 잡아뵈는 기라. 잡아빼가, 그래 그 각시가, 우렁각시가 인자 우렁 속에 안 들어가고, 몰라 옛날이 그 둘이서 잘 살았다 카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꼬.

[복구 설화 70]

### 호식 당한 처녀들을 구한 새색시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이리 호식해 가는 거. 호랭이가 물고, 이 호랭이가 잡아가는 기 있었어요. 그래서 참 호랭이가 이래 와서 이래 그 처녀나 각시나, 새각시나 이래 인자, 그기 호식해 가는 기라고 했어 옛날에는. 호식해 가는데, 그래 가모, 가고 그래서 이 집에는 인자 하리 저녁에 새 장개를 가, 새덕이 인자 호식해 같까 싶어가지고, 그 메느리, 그 새각시 그다가 인자 맹주실로(명주실로) 해가지고, 바늘로 해가 착-착- 꼽아서 인제 이래 났어.

그리 했는데, 그래 인자 호랭이가 와서 잡아간다 했는데 그것도 아인가? 그리 인자 밍지실한 타리가 다 풀리더라 갔더란다. 그래서 뒷날 아축에(아침에) 그 밍지실을 삭-삭- 따라간 께네, 그 더부간(데리고 간) 기 호식해간 기 아이고, 그 여자들로 갔다가, 마 그 미인들로만 갔다가 모아가지고 마 한- 굴로 해냈는데, 그리 이 사람이 인자 찾아가갓고, 그 밍지실 그거만 보고 인자, 그래 다 옛날에는 지혜가 있고, 좀 그런 좀 뭐, 요새 걸으면(같으면) 좀 뭐 공부도 현 사람이겠지. 그래가 그래가 그 여자를 가서 찾아가, 그 사람들로 다 해방을 시켰다요.

[북구 설화 71]

## 내 복에 산다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딸이 뭐 여섯인가, 뭐 멧이(몇 명) 키우는데 아버님이가, 그래 인자 부잣집이던 모앵이지. 그런께네 첫딸로 불러갓고,

“니는 누 복에 사노?”

근께,

“내는 아버지 복으로 삽니다.”

이라거든. 그래 그거 놔두고, 또 그 다음의 딸로 데부다놓고 또,

“니는 누 복에 사노?”

카이께네,

“내는 아버지 복으로 삽니다.”

하는데, 다 묻고 막내이 딸로 데부다가 묻은께네, 막내이 딸이 허는 말이,

“내는 내 복으로 삽니다.”

이라거든. 그래서 마 입어서 마, 이 딸로 갖다가 내뱉는 기라. 지르다가(기르다가) 밭다꼬 아버지가 그래논께네, 그 딸이 가고나이까네, 그 집이 쪽- 다 망해가지고, 그래 그 딸은 참말로 그리 지복으로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복구 설화 72]

### 야박한 아낙네를 혼 낸 시주승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아로, 참 귀한 아로 낳아가 이래 키우는데, 인자 시주, 옛날에 증들은 오면 인제 이리 와서, “시주 하십시오-.”  
하고 이러거든. 그러는데,  
“아 때문에 시주를 몬 한다.”  
그랬어. 그 인자 아주머이, 어마이가. 그런께네,  
“그 아로 삼 년만 가만- 그리 들고 앉았시면 목, 난중 나올 끼 나온다.”  
이렇게 해놔논께. 그래 이 여자가 진짜로 인자 그런가 싶어, 아로 고마 가마- 오다가(안고) 삼 년을 있인께네, 아무것도 안 하고 촌에서 질쌘을 해야 살고 뭐 이 노력이라도 해야 살 것 아인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이, 인자 난주 뭐이 나오냐면은 빨가벗고 앉았더라. 아무것도 질쌘을 안 해갖고, 질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갖고.

[복구 설화 73]

### 첫날밤에 소박 맞고 증이 된 부인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이거는 그 첫날 저녁에 소박을 만난 여자가 헐 얘기라 하대 그거는. [조사자: 예, 어떤 건데예?] 거기 인자 몰라 확실히. 그 처음에 우리는 몰라. [조사자: 아는 데까지만 해주 이소.]

옛날에 인자 그러께네, 소박도 아이고 이리 알았던 사람인가 그랬는데, 거기 인자 여자가 인자 저 절로 가서 중이 됐어. 중이 됐는데 그 남자 집으로 동냥 하로 갔는 기라. 그래 동냥을 갔는데, 그거는 뭐 학실히(확실히) 모르이께네, 이거 해봐야 올리지나?

동냥을 갔는데, 그 남자 집에 동냥을 갔는데, 그래 쌀도 안 오고 좁이름(좁쌀을) 주라 췌는 기라, 좁이쌀로 주라췌는 기라. 옛날에는 와 이래 쪼깁(조금), 요따가 떠부어 주거든. 여승이가 해놔 놓은게, 쪼깁, 우리도 전에 줘봤지만, 쪼깁, 여따 쪼깁씩 떠다 부준다 아이가? 그 이리 오면, 전대를 가 오면. 그래 떠다 부어줬더마는, 고마 이 밑 없는 데다가 출- 받아가 흘리뵈어. 그 땅에 다 흘리놓은게 더 준다꼬 가가라 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고마 앉아서 탁 - 점도록 앉아서 그걸 젓가락을 갖고 주웠는 기라. 젓가락 갖고 주운게 그걸 어찌 줘겠노? 아우리 찍게 주도. [조.사자: 하루를 그래도 그지예?]

그래논게 아무리 적게 요래 쪼깁이 주도 그 좁, 좁이가 흘렀는데, 그거를 갖고 주올라 칸게, 젓가락 갖고 주올라 칸게 얼마나 몬 주웠겠노. 그런께네 마 해가 쳐서 넘어가, 어둡도록 주운께네. 그리 주위갖고 그 집에서 인자 자게가(자계) 됐어. 그래가 자다가 보이께, 그 인자 뭐 남자로 만냈는가 몰라, 그도 몰라. 그거뵈에(그것밖에) 몰라.

[북구 설화 74]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경주 불국사에 에밀레종이 있었다요. 그런데 그 종을, 옛날에는 종을 하나 맨들라 카면 이 시주드릴, 저 스님들이 갖고 시주를 해가 그 종을 하나 맨들었다네. 그 종이 맨들 이 거리가 모이야 되는 기라.

[청중: 그리 뭐든지 말을 함부도록 하지마라 췌는 기라. 함부도록 하지 마라.] 공께네(그러니) 종 하나로 맨들라 카면 역수로 많이 든다요 그게. 옛날에 그 늦쇠 그런 걸로 사가지고 마 시주를 해가 그걸 거다가(거두어) 허는데, 그래 인자 이 어마이는 인자 아로 보듬고 그 시주로. 그 참 정성 달이서 하는 거 아이가? 그 인자 종 맨들라꼬 시주를 갔는데, 스님이 시주를 갔는데, 그는 에밀레종 그 애기다.

그래 인자 그 어마이가 방정시리 아로(아이를) 보듬고,

“시주를 뭘 주꼬, 아무것도 없고 마, 우리 아무거시나 주까?”

이래가 이래뵈어. 그래 놔놓은께네 거서 시주를 몬 오고(못 얻고) 그 집에서 시주를 몬

오고 가서, 그 종이 다- 될 재료로 모아갖고 종을 만들었는데, 이 종이 소리가 안 나는 기라. 아무리 뚜드라도(두드려도). 소리가 안 나서, 그래 인자 그래 이 인자 왜 큰스님이 인자 물었는 기라. 시주를 간 사람을 다 물은께, 다 시주를 잘 받아갔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래했다 이란께네, 그때는 그 나라서 임금님이 내랴던 모양이지. 그런께 그 아를 더꼬 오라 쟤어. 그 아 이름이 봉덕이라. 그래 봉덕인데, 그래 봉덕이로 더꼬 오라 쟤가, 그 아로 뚜드려가지고 그다 한테(함께) 고아가지고 종을 만들었어. 그래논께 그 종이,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그런 게, 그기 와 그런고 카면? 그 어마이 때문에 지가 죽었다 캐서, 어마이를 원망하는 소리래요. 그게 옛날에. 그래 에밀레종이라꼬 있었다대 옛날에. 불국사에 있었는데 그 애놈(왜놈)들이 가다가, 지금 저 어데, 뭐 어데, 지금 저- 태평양 바다 밑에 빠자빠갖고(빠트러서) 거 있다 하더라.

[복구 설화 75]

## 딸로 태어난 매구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아주 부잣집이라, 부잣집에서 공을 디리가(들여) 딸로 낳았어. 인자 오래비들만, 아들들만 있는데, 막내이 딸로 한개 인자, 공을, 공을 디리가 딸로 낳는데, 그래 공을 디리가 딸로 낳아논께, 고마 그 매구가 태이났왔던(태어났던) 모양이라. 공을 디린 기 우찌 됐던고? 잘못 했던가? 매구가 태이났왔어. 억수로 귀여움을 받고 컸을 거 아니가? 그 부잣집에 외동딸 막내이딸로 나왔은께네. 귀여움을 받고 그리 막- 크고 그랬는데.

고마 이 가마- 커서 보이께는, 하룻밤에, 그 소, 막 말 이런 기 참 많이 있었는데, 하룻밤에는 말이 죽고, 한 마리 죽고, 하룻밤에는 소가 한 마리 죽고, 마 내체 그리 죽더라 캐. 그래서 인자 작은오빠 막내이 오빠가 한 번 망을 봤는 기라. 망을 본께는 이거 막내이 저거 가수나(가시내) 고기 고마 밤에 글로 막- 이래, 공부를 하고 글로 읽어쥘터마는(읽더니) 마, 이 팔에 다가 막 지름을(기름을) 확- 발라가, 가서 고마 말 궁디 것다(그기다) 손을 여가 썩- 간을 빼 묵거든. 그런께 고마 그 말이, 고마 아무 포도 없이 고마 죽어뿌고 그래, 소도 죽어뿌고. 그런께 그래 인자 이 오빠가 고마 가만- 보다가 ‘하, 안되겄구나.’ 싫어서, 그래 마 난주 저거 어매도 죽고, 저거 아버지 죽고해서, 이기 마 말로 한 마리 타고 썩- 어데로 마 행랑불명 돼, 요새 걸으면 행랑불명이 소문이 나, 소문도 매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았는 기라.

살다가 삼 년 만에 온께는, 삼 년이라 캐도 오래됐겠지, 그러께 저거 집은 썩대밭이 돼가 있고. 마 저거 행님이고 마 아무꺼도 없고, 집은, 그 부잣집이 마 썩대밭이, 사람 살던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썩대밭이란다 옛날에. 그래가 있는데, 개가 똑 한 마리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거마이(것처럼) 고리 질이 쫄- 있어.

그리 가마-이 인자, 즈그 인자 그 즈그 동생이 매구라 카는 걸 안께네 오빠가. 저 나무 우에 올라가서 썩- 이리 본께는, 양달에 앉아가 어마이 아바이 다 잡아묵고, 오래비 다 잡아묵고 양달에 앉았고, 이기 막 그래가 이리 샐거든. 뭐 이리 이리 막 핏치고, 뭐 그래싸서. 가만 앉았다가 저기 고마 살짝 내려온다는 기 고마 뽀시락 소리가 나뻐어. 매구겘이 안다 안하나. 그런께 이기 차라봐뻐어(쳐다뻐어). 차라본께네 이기 마 겹이 나서 마 말 등더리 뒤편 와가지고.

아 그래 참, 어는 그 가가지고(가서). 잘못 했구나, 어는(어느) 저- 산사 가갓고 인자 도사 밑에서 이 사람이 인자 있었던가 우엿던고(어찌했던가). 집에 가볼라 카이께네, 병을 세 개를 줌서로.

“처음에는 이걸 떼지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떼지고. 나중에는 이걸 떼져라.”

이랬어. 병을 세 개로 줌서로. 그래서 이 참, 차 인자 말로 타고 오는데 마, 이 매구가 막- “하이, 오랍씨(오라버니) 함께 갑시다. 아이구, 오래비.”

그 매구 오래비 본 것 같이 반갑다 그 말이라.

“후이, 오라비 함께 갑시다.”

달랑달랑 말공댕이 따라오거든. 그래서 병을 한개 그걸 딱- 내뻐께네 마, 뱅이(병) 거기서 까시덩쿨이 나와갓고 마, 옛날이야기 그거 순 거짓말이라. 가시덩쿨이 나와갓고 마, 까시밭이 이래 헨데도 마, 그 매구가 헤지고 따라오거든.

그래서 마 또 인자 저마이(저만큼) 간께, 까시덩쿨 헤비고(해치고) 따라와갓고 마, 또 마 말 궁댕이 살랑살랑 와서 또 뱅이를 그려 한 개를 내뻐께네 불바다가 돼갓고 마, 메구 이기 마, 그래도 마 그 불에 반치나 탐서도(타면서도) 마 불을 핏치고 또 나와서 또 마,

“오빠. 오빠.”

캠서로 마,

“하이 오랍씨 함께 갑시다. 후이 오랍씨 함께 갑시다.”

인자 숨이 가빠가지고, 그러면서 따라오거든. 그래서 인자 불에 타가지고 반치나 났는데, 그래서 인자 마지막 뱅이 하나를 확- 내뻐께네 ,바다가 썩- 돼가지고, 고마 그 물에 떠내려 가뻐단다. 떠내려가서 죽더라요.

그래 그 도사가 그걸 알고 그걸 쫓는 기라. 도사 밑에 가서 오데 간 기 그래, 그 오빠 그 건 한 개 살릴라고. 그런 기 있었던가 봐, 그래가 살았다 캐. 그래서 뭐 우쩌면 ‘아이고 매구 오래비 본 것 마이로 반갑네.’ 이라거든 요새도.

[복구 설화 76]

## 개로 환생한 어머니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엄마가 있었는데, 너-무 자식들로 이리 우다서(품에 품고) 고마 이 생전에 그건 안하고, 맨-날 고마 놀러도 안 가고, 구경도 안 가고 고마, 만날 자식들이 부다주고 자식들 집만 봐주고 살았어 엄마가. 그래 살았는데, 그래 인자 엄마가 죽었어. 죽어서 저승을, 뭐 저승 가봤나? 저승을 가이께나,

“나는 이승에서 어데 어데 구경을 허고 왔노?”

묻더란다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그런 순 거짓말, 그건 마 씨세이매이(?)로 앉아서 씨부린(말하는) 거라. 그래,

“나는 아무데도 구경도 못하고 그 자식들 그래 도와주고, 만날 자식만 도와주고 있다 왔다.” 카이께네,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저 세상에 인자, 요 문 들어온다.”

카면서로, 개로 만들어 줌서로,

“나는 가서 자식들, 안죽(아직) 더 돌봐주고 그래 오라.”

이랬어. 그래 개로 돌봐가, 인자 아들 집에 가서 개가 됐는 기라. 그래논께는 이 개가 가만 본께는 아들 메느리 딸 다 지(자기는) 아는데, 저거는 모리거든(모르거든). 모른께네 만날 개가 청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싸이께네, 그리 허다가 하릿(하루) 밤에 아들이 꿈을 꾸이께는, 그 개가 엄마가 한승해서(환생해서) 왔다 카는 꿈을 꿨어.

그래갖고 그래 인자 어마이한테, 인자 개라서 말로 문 한다 아이가. 그란께 인자 뭐라꼬 딱- 그걸 헨꺼네, 그래 인자 그기 오데 옛날, 그런께는 뭐 경물재이(독경무)한테 갔던가 우찌 해가지고,

“그래 너거 엄마는 너-무 자식만 생각허고, 이 온- 세상 구경을 한 번 문 허고 만날 그 집안에, 대문 안에만 있었은께, 저승 가서 그래 울키 문 가가 개로 만들어 줌서 가서 구경을 하고 오라 캤다.”

그래논께, 그래 아들이 마마 그 뒤로 그 저거 엄마라꼬, 마 개로 마마, 옛날에는 요새걸이 차가 있나 뭐 있노? 바지기에다가 담아지고 비단에다 감아갖고, 바지기다가 담아지고 조선 팔도 구경을 다 시키가 와서 낚논께, 그날 저녁에 어마이 죽었더란다. 그 개가 죽었더란다. 그래 그 어마이 저승 갔다 카는 그런 얘기 있더라꼬.

[복구 설화 77]

###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그거는 부모가, [조사자: 예, 예.] 부모가 아파서 죽기가 됐는 기라. 거기 아들이 참 효자라 아들이. 온- 산에 이런데 약을 캐러 댕기도 약이 엄꼬(없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파 죽기가 됐는데, 그래 앞에 중이 와서,

“동냥 쫓 주시오.”

옛날에 그리 도사가 댕겼단다. 그런께네 이 사람이, 그래,

“스님.”

그래,

“이 집에는 무슨 우환이 있겠네.”

그래서,

“스님, 스님.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이 있는데, 우찌 하면(어떻게 하면) 살리겠소?”

참 효자라.

“우찌 하면 살리겠습니까?”

이랬더마는,

“그라면 부모가 중하나 자식이 중하나?”

물었어.

“부모가 중하지요.”

이랬거든.

“그라면 너거 아들이 지금 서당에 갔는 기,”

열 살인가 뭐 여덟 살인가 문(먹은), 서당이, 옛날에 서당공부로 갔어.

“오거들랑 물로 펄펄 끓이다가, 그 아를 저 솥에다 잡아 열서 고아가 미면 마 살아난다.”

이래됐어. 그 참 우짜겠노? 고걸로. 그마이(그만큼) 효자(효자)라 인자. 옛날에 효자라 카는 그런 뜻이라.

그래 인자 아들이 서당에 갔다가 잘랑잘랑 오거든. 그래 마 가마솥에 펄펄 끓이 놓고 있는데, 달랑달랑 오는데 마, 그 참 그 부모가 중하기는 중하고 효자는 효자던 모양이지. 그 아로 고마 가마솥에다 주어 열어서 마, 그대도 주 열어갓고 푹푹 삶아갓고 엄마 갖다줄라꼬 소뚜 방울(솔뚜껑) 열어본께네, 그 아가 아이고 동삼이더란다 동삼. 거기 인자, 그, 그 인자 그런께네 도사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가 인자 그걸 인자 맨들었어. 아로 그리 동삼을 그리

보내고, 저거 아들은 난중에,

“아빠.”

카면서, 들어오더란다. 그래가 그마이(그만큼) 효자는, 그런 기 있었다는 그런 뜻이고.

[복구 설화 78]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메느리가, 그래도 메느리가 호성이(효심이) 있어서 그랬지, 미버서(미워서) 그런 거 아인가 봐. 그런게 지령이로 파다가 시어매이로 살아서 주고. 신랑인 인자 오데 가서 한 삼 년 이래 옛날에는 공부를 갔든가, 과거보러 갔든가 그래고 없었는데,

그래 메느리가 혼자서 호부 시어매이로 그래 그속을(그것을, 봉양하려 한다는 의미) 할라칸께 뭐이 없다 아이가? 그러니까 만날 지령이를 파다가, 그 요새로 지령이가 약이라꼬 전에, [청중: 질경이?] 지령이. 막- 그거 키우고 안 했나? 요게. 그래 파다가 인자 살아갖고 딱 켜지 주고, 그래 켜지 주고 하이께네, 할매가 눈이 어두버갖고 가만- 이리 먹어본께, 너무 맛이 있어서 아들 오면 자랑할 끼라꼬, 그래 하나씩 건지갖고 자리 밑에다가 열어놔어. 자리 밑에다 열어놔는데, 즈그 어매가 온께네 마, 살이 포동-하이 썩가 있고, 그래 참 마누래가 봉양을 (봉양을) 잘했어. 그래서,

“으응 어머이, 어째 이래서 좋다.”

고 그리 헌께네, 그러이 아들로 손을 잡고,

“야야, 메느리가 이걸 자꾸 내로 해줘서 그래 묵었더만 이래 살쨌다.”

캄서, 그걸 내서 빈께네 지령이라. 그래 마 저거 마누래로 마 호통을 쳤지, 지령이 살아 묵 있다고. 그런게 그 놀래갖고 어마이가 마 눈을 퍼뜩 떴뻬단다.

[복구 설화 79]

### 질경이 기름과 부모의 영혼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지름을(기름을) 요새 우리는 빼빼재이('질경이'의 방언)라 안하나? 그걸로 빼빼재이. 빼빼재이 씨로 받아가 그걸 서 되로 받아야 지름이 나온단다. [조사자: 그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께 그게 정성이라. 부모 하리 저녁에 불끼라꼬(보려고) 그걸 해가지고, 그래 지름을 짜가 불로 켜놔 놓고, [조사자: 그럼 보인다 아입니까?] 보인다 하대. 그런데 누가 해봤나? [청중: 우리는 자기 배필로 구할라 카만, 그걸 호롱불로 해갖고, 요래 심지로 해가 켜놔놓고, 밤에 이래-가 있으면, 그 자기.] [조사자: 배필의 모습이.] [청중: 배필이 모습이 짝-.]

[북구 설화 80]

## 제삿밥 이야기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제사할 때는 그래 수건 싼고 제사 음숙할 때 수건 싼고 오고, [청중: 수건 싼고 하대.] 제일 많이 비는(보이는) 기, 제일 많이 비는 기, 그 고사리 거기에 제일 많이 든다 카대.

[청중: 우리 어머니도 무슨 놈의 하면 수건 싼고 하대.] 그래 그걸 싼 때는 세상 하나씩 싼어야 돼. 고사리 나물 싼 때는. 그래가 싼어가 하는데. 그래 그 제사, 그 건치나물이라 하거든. 고사리나물로 건치나물이라 이라거든. [청중: 건치나물, 건치나물.]

건치나물 이라는데, 건치나물에 그게 뱀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인자 손주놈을 갖다가 저저 화닥불에다가 딱 밀어 썰어뿌고 왔는데, 그래 인자 그걸 머리카락을 바르면 낫을 낫는데, 그거를 인자 모른다 카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더라꼬 그때.

[북구 설화 81]

## 아랑의 원혼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아랑각이 경주 아이가, 글터나(그렇더나)? [조사자: 밀양.] 밀양이제, 밀양 영남루제. 밀양에 이기 인자 원이, 옛날에 원님이 살았는데, 진짜 딸이 예쁜 딸이 있었더라요. 아랑이라고요. 아랑이라 카는 기 있었는데, 그 아랑이가 참- 예뻐어. 옛날에는 그래 쫘 대가집 따라라(딸이라) 카면 좋은 옷에다가 비싼 옷에다가 막 이래가 땡긴다 아이가.

그렇는데 그 밑에, 그 인자 원 밑에, 인자 그 밑에, 요새 걸으면 그거 저 간졸들이(관졸들이), 간졸들이, 거 쫘 짧은 기 하나 있었는데, 그 인자 아랑이가 인자, 그 영남루 밑에 가몬 지금도 대밭이 있더라꼬 우리 가본께. 대밭이 이런데, 아랑이 저저 그 물 묵은 샘이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대밭이 요리 사살, 요리 사살 이리 거닐고 있는데, 영남루로 거닐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인자 그놈이 고마 더꼬(테리고) 드가서, 고마 그걸 아랑이로 고마 말로 안 들께네 (안 들으니), 고마 직이갖고, 고마 대밭에다가 쳐박아뿔어. 그래 거 지금 그래가 있는데, 그래 해 있다꼬 말이 그렇더라고.

그랬는데 그리 이 딸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 그 숲, 그 짚은 대밭에 있은께 몬 찾지. 그리 인자 이 원님이 인자, 그 원님은 인자 거서 마 가빠고. 그리 인자 원님이 들어오면 죽고, 원님이 들어오면 죽고 해 그계(그곳에), 밀양 그계. 원이 들어오면 죽고 그래서. 그래 인자 한 인자 한 몇 분 돼.

그는 아무도, 밀양에는 공께는(그러니) 원님이 드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소금장사로, 옛날에 말이 그렇더라. 소금장사로 하나 지내가는 걸, 그 사람이 그 대가 찾던 모영이지. 인자 이리 광고를 붙있는 기라. 밀양에 원님을 누구든 오면은 원님을 보내준다 카고 붙인께네, 소금장사 하나가 가서 지가 한다고 초청을 했더라요.

그래가, 그래가 원님을 보냈는데, 그리 인자 이 사람이 뭐 대가 좀 찾든가 우엿든고, 소금장사로 이루었다가. 그래가 그날 저녁에 인자 첫날 저녁에 가면 그날 저녁에 죽는 기라 전부가. 그래서 이 사람 잠을 안 자고 가만- 인자 촛불로 막 밝히 놓고, 밑에 막- 부하들로 막,

“전부 그날 저녁에는 다 그래 있으라.”

카고, 촛불을 딱- 밝히 놓고 있는데, 자정이 된께네 마 히히-하더니만 촛불이 싹 꺼져빠더라요. 그런데 인자 이 사람이 가마이 정신을 쓰고 있은께네, 예쁜 그 아랑이가 들어오더마는 절로 나부씨(다소곳이) 함서로,

“전에 원님들은 내가 와서 이리(이렇게) 인사를 하면 다 죽어뿔다.”

이기라.

“기절을 해서 다 죽어뿔는데, 그래 원님, 내 소원을 풀어주시소.”

그러더라. 그래,

“니가 누군데 그런 소리로 하노?”

쿵께, 그리,

“옛날에 그 저 그 원님의 딸인데, 제가 아랑인데.”

“그래, 그럼 우찌 소원을 풀어주노?”

그러께,

“지 시신이 지금 요 대밭에 요 안에 그서 썩고 있는데, 그 시신은 좋은데 갖다가 물어주고 그 지로 직인 놈을 잡아가 처별로 해주라.”

고 그랬어.

“그 사람을 우찌 아노?”

이랬는 기라 이 원님도. 그런께네,

“내일 아축에 전-부 안주꺼지(아직까지) 그 사람이 요 있다.”

그라거든 요기에. 요게 안주 있다 그라거든. 그래

“그럼 우짜면 되노?”

카이께는,

“내일 아축에(아침에) 이 간졸로 짝- 다 모아놓고 조회로 하는데, 조회로 하면 내가 나비가 되어갔고, 그 사람 요 어깨 가서 딱 앉으끼게 그 사람을 잡아라.”

그랬어. 그래 인자 원님이 줄줄 모아놓고, 인자 그래 아축 원님이 살았신께 얼마나 좋노? 다 죽고 밤새고 나면 죽어가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살아 있음께, 원님이 일어나서 인자 전부 이 간졸로 다 모으라 캐서 인자 그게. 그 부근에 있는 간졸들 다 모아갔고 딱- 마당에다 세아 놓고 원님 앞에 앉아서 딱- 그래 조회로 하는데, 그래 가만히 보이께 나비가 한 마리 날아오 더만 그놈 어깨 탁 앉는 자리가 있어서 그 사람 하나, 그 젊은 사람 그 어깨에 앉더란다.

그래서 그래 인자,

“다 판사람은 헤어져가고 나는 내 앞으로 오이라.”

캐갔고, 그리 그놈을 더꼬 인자 그 어데로 가노 해갔고, 거 간께네, 거 아랑, 그 죽은 그 처박아 난 데가 그가, 그 대밭 속에 그 시신이 안죽꺼지(아직도) 썩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 몇 년이 갔는데. 그래 썩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인자 아랑을 해갔고, 아랑각에 모시고, 막 그래가 그 뒤편 잘 지어줬다 카대. 뒤편 있다 카더라. 아랑 뒤편.

근데 그 지금도 가모, 지금도 가모 아랑 죽은데 그 대밭에 요리 웅담샘이 같은 게 있더라고 전에 우리 간께네. 그리 그 아랑각 그게, 그래서 그 아랑각을 지어서 인자 그리 잘 모셨다요. 그러고는 그, 그기 안 든단다 우환이.

[북구 설화 82]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옛날에 불이 났어. 참 할마이는 버버리고, 영감은 봉사라. 불이 나서 막-, 옛날에는 종을 치거든 불이 나면. 막- 그래 야단이 났는데. 그래 인자 할마이가 인자 그 눈은 있는게, 보러 갔을 꺼 아니가? 불난 거. 보러갔다가 온께네 그리,

“어데 불이 났는고?”

칸께, 요, 요를 탁 때리거든.

“아, 건너 맵근집에서 불이 났어.”

영감이 이러거든.

“와 그리 불이 났던고?”

칸께, 참 밑에 요로, 탁- 봉알로 잡았어.

“그래 감자 꾸버(구워) 묵다 불이 났구나.”

칸께, 그래, [웃음]

“얼매나 탔는고?”

카이께네, 꼬치를 탁 잡은께,

“아, 지동만 남고 다 탔는가배”

그런다 카더만은. [웃음]

[북구 설화 83]

## 수숫대가 빨간 이유

강옥선(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수숫대가 와 그렇노, 인자 이기 나온 기가 와 그렇노 그러이, 그래 수숫대(수숫대) 옛날에 오누이가 크는데, 오누이가 크는데, 인자 어마이가 만-날 인자 저 산 너메(산 넘어) 뭐, 인자 그 요새 걸으면 떡장사지, 그때는 그 범벅장사로, 범벅이라꼬 이리 해가 땡겼는데, 그 인자 호랭이가 맨날 고개에 그 앉아갖고, 할마이 가면 인자,

“할매, 할매, 범벅 한 개 주면 안 잡아묵-지.”

이래, 범벅 한 덩거리 또 주고 가고, 또,

“범벅 한 덩거리 주면 안 잡아묵지.”

해가 또 주고. 그래갖고 고마 이 범벅 다 주뻘어. 할마이가 인자 다 뺏기고 그래 아들한테 가면서로 절대 누가 와서, 산중이던가봐.

“누가 와서 문 열어 주라 카면 문을 열어 주지 마라.”

이래 됐는 기라, 아들로 보고. 그래 했는데 그리 인자 그 오마이가 호랭이한테 잡아먹히 뵈어. 그 팔고 오다가 그 범벅 다줘빼고, 짬이믹히빠가(잡아먹혀서) 어마이가 안 오는데, 호랭이가 인자 알고, 그 집을 알고 와갖고.

“내가 너 엄매다 너 엄매다.”

하고 문 열어 주라 카거든. 그래,

“우리 엄마면 저저 손을 한 번 내봐라.”

근께, 호랭이 손이 퍽 이런 기 들어오거든.

“아이 그거는 올 엄마 손이 아이다.(아니다)”

그러거든 아들이. 그런께네,

“하이 그래도 너저 엄매다.”

카고, 그래 또 어데 가더마는 마 가리로(가루를) 문치가(물혀) 와갖고, 그 저거 어매 손이라고 또 내놓거든. 또,

“우리 엄마 손 아이다.”

칸께, 그래 또 어데로, 호랭이가 어데론가 간 뒤에, 이 아들이 뒤에 요리 인자 그 저거 집, 집 뒤에 요리 웅당쌔이가 있는데 그 옆에 그 나무가 있었단다. 살구나문가 뭔가 있었는데, 거로 고마 아들 살짝-이 가서, 올라가서 앉아가 있었어. 그래논께네 이노무(이놈의) 호랭이가 와서 본께네, 사람은 엄꼬(없고) 이리 내리다 본께네, 웅딩이로 내리다 본께네 아들 둘이가 웅당이에 있거든. 그래 인제 이놈이,

“조래로 갖고 건질까? 소쿠리로 갖고 건질까?”

그래쌔거든 호랭이가 이리 딜비다(들여다) 보고, 아들 그림자로 보고,

“조래로 갖고 건지까? 소쿠리로 갖고 건지까?”

그래싼께, 우에서 동생이 보고 고마 헤헤헤 웃어뵈는 기라. 그래 마 치바다(올려) 본께네, 고마 그 아 둘이가 있거든. 고마 자아무려(잡아먹으려고) 올라올라(올라오려) 하는데, 인자 호랭이가 이리 나무로 올라,

“너저 거 우째 올라갔-노?”

이란께네,

“뒷집에 가서 짜구 얻고 앞집에 가서 참기름 얻고 해가 불라감서(바르면서) 쫘사감서 올라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짜구로 얻어가 불라갖고 참기름 보르이(바르니) 자꾸 미끄러져 내리 가고 안 올라와지거든. 그러는 사이에 인자 이 아들 앉아가,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릴라 커든 좋은 동앗줄로 내라주고, 우리를 죽일라 커거들랑, 그리 인자 동앗줄로 썩은 동앗줄로 내라 주이소.”

카고, 인자 하늘을 보고 벌고 앉았는데. 그 호랭이가 자-꾸 노력보니까, 참 올라 오지는 기, 올라올라 카는 기라. 근께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갖고 그 아들로 둘로 착- 싣고 올라 가뵈더란다. 그래논께 호랭이도 듣고,

“하느님 하느님, 나를 살릴라거든 동앗줄로 내려주고, 직일라거든 썩은 줄로 내려주소.”

했어 호랭이가. 그러께네 그 그 하늘에서 그거 그걸로 말라(뭍하려고) 살릴 끼고. 썩은 줄로 내려줬어. 그래 타고 올라가다가 고마 중간에 떨어져 뺏는데, 수씨발에 떨어졌어. 수씨발에 호랭이 똥구멍이 썩어서 그래 빨경탄다. [웃음]

그래 옛날에 우리 그래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 수싯대 요 보면 빨경 그기 있어, 지금도 있어요. 수시대 보면 옆에 그런데, 이파리 그런데 보면. 그기 호랭이 똥구멍에서 피가, 똥구멍 썩시가 피가 나서 그렇대요, 그렇대요.

[복구 설화 84]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권영도(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남산정경로당]

또 그거는 스님이 누 집, 인제 시주하러 갔는데,

“시주를 줌 하소-.”

카이까네, 그래 아 어마이가 아를 안고,

“뭘 주꼬, 뭘 주꼬, 줄께 있나 우리 봉덕이나 주까?”

[청중: 그거는 에밀레종, 에밀레종이다.] 에밀레종이 그렇제. [청중: 그래.] 참 결국 그 아를 안 주고 안 돼가 아로 쥐뿌렀다 카대.

[복구 설화 85]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황경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아, 시주를 왔는데,

“그 시주가 할 끼 없다.”

이래 돼 가지고, 그, 이 할매가 아를, 할머니가 아를 어루면서 그래,

“우리 봉덕이 데려 가라.”

그래, 그래 그 신라 때 에밀레종 만들 때 늦쇠 거두러 가이, 그 늦쇠 줄 꺼는 없고 우리 봉덕이 데려 가라 그래. 마 그 길로 중은 가뿌고, 종을 암만 만들어도, 암만 만들어도 거기 안 돼. 안 돼 가지고, 종이 안 올려서, 그래 봉덕이 그거를 정승 데려다가 그 안에 열어가지고 종을 만드께네, 그래 그 종이,

“에밀레-, 에밀레-.”

그, 그래, 그렇단다.

[북구 설화 86]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황경자(여, 1941년생) 구술

구말순(여, 1931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황경자]

옛날에는 하도 문 사니까네, 시어머니가 눈이 어둡고 하니, 뭐 해줄 끼, 양식이 없어가지고, 개가 똥을 뉘, 개가 보리쌀 먹어, 어디 뚝 흠치 묵고, 들에 가 똥뉘 보리쌀을 소복 내 먼 그 걸 싸다 씻가가, 씻고, 지렁이 그거 해갓고, 잡아가지고 고기라꼬 국 끓여 주고 그거 묵고 할 매가 눈 떴다 카던데. 그래 그거밖에 모린다(모른다). 더 하라카몬 모린다.

[구말순]

개똥 싸난 거, 개똥 싸난 거, 그거 씻거 가이고 밥 좀 씻거 가이고, 밥을 해준께네 묵고, 묵고 가서 모를 송군께네, 하늘에서 뭐 귀짝이 하나 널쭈는데 놀래가이고 본께네 돈이 한거 (가득) 들었단다. 복을 받았어. [청중: 지가 머이(먼저) 묵어보고 줘야지.] 지가 먼저 묵어 보고 줘 난께네, 그래 마 귀짝이 하나 널쭈서 가 본께네, 그 사람이 뭇이라. 그래가 주워 와가이고 보이 돈이 한거 들었단다.

[북구 설화 87]

### 개구리 엄마의 무덤

김화자(여, 1923년생) 구술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덕천경로당]

옛날에 뭐꼬, 물까다(물가에) 갖다가 어마이를 묻어놓고 비가 온께, 비가 온께네,  
“깨골 깨골.”  
울어산께, 떠내려간다고.  
“음, 울 엄매 떠내려간다.”  
꼬, 울어싸코 그랬다.

[복구 설화 88]

### 고려장을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김귀선(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할머니 고려장 시킬라고 지게 언차가(없어) 지고 가거든. 가민서(가면서) 길에 있는 나뭇  
가지를 톱 끊어가 놓고 놓고 이라거든.  
“엄마 그 와 그래니까?”  
카이,  
“야야, 어두브면(어두우면) 니가 올 짝에(올 때) 길 잃을까봐, 이 표시를 보고 집을 찾아가  
거라.”  
이라더라네. 엄마가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복구 설화 89]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귀선(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그렇는데 한 날은 아들이 역-수로, 이거는 무슨 일이고 모르겠다. 근심이 많거든, 걱정이 많아. 그래 엄마가, 연수(연세) 높은 엄마가, 옛날에는 고려장 안 시키만, 도장메이로(창고 같은) 그런데 어데 갖다가 숨카놓고(숨겨놓고) 동네사람 모르기 봉양하는 기라. 그래 아들이 오이께네 엄마가,

“왜 야야 니가 그래 걱정이 많이 보이노?”

카이,

“나라에서 이래 이 수수께끼를 몬 풀만 목숨을 바치라 카는데, 우째야 되노?”

카이,

“무슨 일고?”

카이, 재를 가지고 새끼로 백발로 꼬라 카더라네. 이 사르난 재를 가(가지고) 새끼 백발로 어떻게 꼬노 말이야. 그래 걱정이 돼. 그래 엄마가,

“야야 그거 걱정할 꺼 없다.”

이라거든.

“우째서요?”

카이,

“그거 새끼를 니가 이래 딱- 해가, 한 사리 해가지고 고고로(그것을) 불로 살- 질러가 재를 맨들어가 갖다 바치라.”

[청중: 아 하- (박수를 치며)] 하이, 그래 그 중국 사신이 나오가 우리 한국 임금한테 그리 질문을 하거든. 그리 임금이 걱정이 되이께네, 신하를 불러놓고 우찌 하꼬? 이래 돼가 함 번 (한 번) 면했다. 면했는데. 또 이래 막- 걱정을 하는데, 나무 커다란 나무를 갖다놓고, 그거 또 중국에서 한 개 풀고 나면, 또 이래 수수께끼 또 내는 기라. 나무를 이래 큰 거 갖다놓고,

“이, 이, 여가(여기가) 대가리가? 여가 대가리가? 알아라.”

카거든, 그거로 몰라서 아들이 또 걱정을 함시로(하면서), 엄마는 그 가다놓고 있으며, 고려장 안 시켰으니 가다놓고 사는데, 그래 엄마한테 얘기를 하이,

“야야, 그거 뭐 걱정 하노? 물에 띄우봐라 물에. 물에 띄우면 무거번(무거운) 기 먼저 내려 가이 대가리가 먼저 내리 가겠다. 그기 대가리라.”

이라거든. 그래가 또 함 번 면했다. 고마 엄마 덕에.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노무 중국 사람이 몬때가 또 수수께끼를 내내. 우짜노 카이, 말로 두 마리로 똑- 같은 거로 갖다 놓고,

“어는 기 예미고? 어는 기 새끼고? 알아내라.”

카거든. 고거 우찌 알아내겠노? 두 난치(두 개) 똑- 같은데. 그래 또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리 걱정하미 이래 수심이 가득.

“에이구 야야, 풀을 갖다 주 봐라 그 두 마리 앞에. 예미가 절대 먼저 안 묵는단다. 짐승도 자식을 먼저 먹이는 기라. 먼저 묵는 기 새끼다.”

이라거든. 하 그래 인자 또 임금한테 이야기를 이래 했다. 하이(하니까),

“참 니가 들어서 내 명을 살렸다.”

정승 높은 비슬로(벼슬로) 주거든.

“니 소원을 말로 해봐라”

카이께네,

“고려장 하라 카는 거로 우리 엄마로 나라에 영을(명을) 어기고 내가 이래 비밀 장소에  
열어놓고 차마 몬 묻어서, 산사람을 몬 묻어서 그래 비밀 장소에 모시놓고, 이래 지금도 이래  
모시고 있는데 그거만 용서해주면 됩니더.”

이라거든. 국법을 어겼으니까.

“됐다. 모시고 온나.”

그래 모시고 오가지고 그 후로는 고려장이 없어졌어.

[복구 설화 90]

### 인간 꽃이 제일이라는 딸

김귀선(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그래 부자가 딸로 인자 서이로 불러다 놓고,

“제일 좋은 거, 뭐시 최고 좋노? 좋은 거로 말해 보라.”

카이, 아이고 나는 무슨 꽃이 좋고, 무슨 꽃이 좋고, 막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제일 끈티는  
(끝에는, 막내를 말함) 한다는 말이, 인간 꽃이 최고라대. 인간 꽃.

그러이께네 인자 아버지가,

“하-, 됐다.”

카면서. [청중: 인간 꽃이 최고 아이가? 그래.] 그래서 그 사람보고, 그래 마 마이(많이), 참  
막내딸로 마이 그래 주더라 카는 그런.

[복구 설화 91]

### 내 복에 산다

박달순(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내 복에 산다케, 결국에 그 딸이 제일 복이 많고, 지 복에 다 살아. 지가 시집 보내뿌고 쫓가 내뿔다 하대. 쫓가 내뿌노이께네 마, 집이 망해뿌더라 카대. [청중: 귀신이 막 나고.] 망해뿌가, 그 딸이 그래 부자로 돼가 잘 산다 이래하대. 그래 그 딸 복에 살았다 카대.

[복구 설화 92]

### 공동묘지의 도깨비불

박달순(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우리는 요 이 동네 와가지고 처음에 살았는데, 실환데(실화인데) 이거는. 저저 공동묘지 저요 토깨비가, 불이요 여러 개가 왔다리 갔다리, 파란 불도 있고 뿌리한(뿌연) 불도 있고 마이 있었어요.

공동묘지 저 건네. 우리 요 살안지가 한 사십 칠 년째 살았다 여계. [청중: 지금 공동묘지가 있었나?] 지금은 없어요. [청중: 공동묘지가 있었나? 옛날에 여계.] 아니 요 살았는데, 밤에 날씨 꾸름하면 불이 다 보이, 파란불이. [조사자: 이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까?] 예, 저 건네 있다 아이요. 지끔도(지금) 있어요. 낙동고등학교 그 뒤에 거.

[복구 설화 93]

### 왜장을 죽인 진주 기생

박순금(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개상 아인교? 노래 부르고. 요사-는(요즘은) [조사자: 기생.] 기생이라 캬거든요 노래 부르고. [조사자: 기생.] [청중1: 개상이라 칸다. (웃음)] 그래 이거 옥반지로 그 저저 나라, 우리나라 그 뭐시라, 무신 이애미(의암) 바우에, [청중2: 이애미 바우라 거기.] 그 대통령이 뭐시라 카노? 그거. [청중2: 어 일본 저저, 장수, 장수.]

일본 장수. 그 사람을 직일라꼬, 이기 지 몸을 희생하고 옥반지로 열에 열 손가락 다 깎는 기라. 다 끼가지고, [청중1: 이애미.] 이애미바우 그계. [청중2: 그 사람을 자살을 안 시키면

우리나라 불리하거든. 그래갖고 인자 그.] [청중1: 그래 진주 남강에 떨어졌단다.]

그래 진주 남강에. 지금은 요래 딱 붙어가 있어. [청중1: 진주 남강, 진주 남강.] 옛날에 요래 벌어졌는데, 물이 씻기나아가지고 인자 요래 벌어지, 인자 오마(모두어) 졌거든. 요래 딱 붙었는 기라. 얼썬 붙었어. 먼저 가보이까네 요래 붙었더라고.

그래가 그 이애미 바우 뽕뽕 돌고 술로 먹이가지고, 니 한 잔 내 한 잔 카고 술로 억-수로 뭇 술로 먹이가지고, [청중2: 자기가 희생해가이고.] 그래 옥반지 그거로 끼고, 그거를 안고, 그거로 안고 뽕뽕이 돌고, 이 사람이 '내 몸 하나 희생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산다. 내 몸 하나 희생하자.' 카고, 그래 뽕뽕 돌고 그래 그 강에 떨어져가 죽었다 아이가. [청중2: 역사가 남아있다.] 그래 그 역사가 지금. [청중2: 전설의 이야기다.] 지금 집을 지어갖고요. [청중2: 진주 남강, 진주 남강.] 그 진주 남강에, 거게 집을 지어갖고 개상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멋지게 해가 찍어갖고 딱 그래난 기라.

[북구 설화 94]

### 호랑이에게 떡 빼앗기고 잡아먹힌 할머니

박순금(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딸네 집에 가면은 떡을 해가 간다 카대. 떡을 해가 가는데, 범이 중간에 아다리(만나게 되었다는 뜻) 됐는 기라. [청중1: 산속에 가다가.] 산속에, 산꼴에. 이래 산을, 등을 넘어가는데, 그래 이래 한-거(가득) 이래갖고,

“할매, 할매, 뭐 떡 한개 주면 안 잡아 묵지요.”

카고, 그래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 옛날에. [조사자: 그래 어째 됐는가예? 할머니, 떡 다 줬습니까?] [청중1: 떡 다 줬지 뭐.]

씩 다 주고, 난주(나중에) 그래 사람까지 마 호성해(호식해), 딸네 집에 가도 몬 했다 카드 마는. [청중1: 하나 주고 나면 또 주고 또 주고, 그러갖고 오면서 그래.] 그래 그랬다 샅대. 그리 마 그 다 잇아뻘다, 뭇시 어쨌다 카더마는 대충 마 알지 그 모린다. [청중1: 나는 고거 빼이 모른다. 저 떡 하나 주면 내 안 잡아묵지.] [청중2: 요새도 그런 얘기 안 하나 우리가.] 어. 어.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묵지.”

카고, 그래 범한테 마 호석을 해가, 그래 가다가 마 다 줬다가, 나중에 잡아먹히고(잡아먹히고), 딸네 집에 가도 몬 하고.

[복구 설화 95]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순금(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칠십대 고려장은, 옛날에 지계를 짚어지고 고려장 하러 올라갔는 기라. 그래 인자 즈그 아들이 따라갔거든. 따라가 돌이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그 고려장 해가, 막 파가지고 묻어놓는다 아이가? 그 지계로 가 갈라 카이께네, 지계를 안 가가고 마 바리고(버리고) 가거든.

“아부지, 아부지 지계 가(가져) 가입시더.”

칸께네, [청중: 뭐 하구로?]

“그래, 뭐 하구로?”

“아버지도 후제(나중에) 고려장하면 짚어지고 갖다 내빼리아지.”

칸서로, 그 지계로 그래,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답니더 그계.

[복구 설화 96]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박옥순(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덕천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애기를 놓고 사는데, 이 애기가 하- 너무나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 인자 경주 인자 절에서로 인자, 그 주지들이 인자 그 뭐시기 저거로 왔거든. 동냥하러 와났더니, 그래가지고,

“동냥 줌 주소.”

그카이까세, 그래 그 엄마가 애기를 안고 나오면서러,

“뭘로 주꼬? 뭘로 주꼬? 뭘 저거 아무것도 줄 꺼 없고 우리 봉덕이나 즐까?”

이켰다.

“우리 봉덕이나 주까?”

이케났더니, 그래가 그 인자 집집마정 땡기면서 시주를 해가지고, 그 인자 그 돈을 모아가 지고 인자, 그 인자 경주 종을, 경주 인자 종을 인자 그걸 맨들었는데, 암만 맨들어도 안 되고, 암만 맨 들어도 안 되고, 암만 맨들어도 마 퍼데이지고 퍼이지고 하이까세 몬 맨들

어가, 그래 말캉 곳곳마정 땡깃는, 그래 인자 시주하러 땡깃는 중들로 말끔 불러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무신 일이 있다. 그러니까세 이거 저거 설법을 해라. 이 종이, 암만 해도  
이 종이 자꾸 뽀개지고 종이 안 된다.”  
카이, 그래 인자 그거 한 사람이 있다가,  
“그래가 아무데 아무데 그 가이까세, 뭐로 주꼬? 뭐로 주꼬? 우리는 아무것도 줄 꺼 없다.  
우리 봉덕이나 주까? 캄서 들가버리고 나오더라.”  
캐, 그래 그거 인자,  
“그거 들은 거백이(것밖에) 없다.”  
캐여, 그래 인자,  
“거 가가지고 봉덕이를 가오라.”  
캐. 봉덕이를 갖다가, 옛날에 그 봉덕이를 갖다가 그걸 아로 삶아가 그래 그 반죽을 하이  
그래 에밀레종이 댜단다. 그래가 종이 어불려 났더니, 그래 인자 그 종을 이래 치면 종소리가  
인자, 들으면 인자,  
“에밀레-, 에밀레-.”  
인자 엄마가 인자 그 원수라꼬. 그래 인자,  
“에밀레-, 에밀레-.”  
칸단다.

[복구 설화 97]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정의(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거는 아가 울어서러, 달개다가 달개다가 안 돼서러, 참 뭐뭐,  
“금을 줄까? 은을 줄까?”  
캐도 안 돼가주고,  
“꽃감 줄까?”  
깨놔놓으니, 근쳤다(그쳤다) 안 카나. 호랑이가 아 물로(아이를 먹으러) 왔는데. [청중: 그래가  
꽃감이 지 카마 더 무섭는가 싶어가] 마 호랑이가 달랏뿌더라(달아나버렸다) 안 카나.

[복구 설화 98]

### 호랑이에게 떡 빼앗기고 잡아먹힌 할머니

김정의(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부모가 인자 떡을 일고 팔러 가니까네, 저 아들 인자 집에 놔두고 그래 그 하는데, 인자 호랭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 카더라 카네. 그래 오이(오니) 떡 하나 줘다. 또 오이,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캐서, 자꾸 그리 캐서 떡 한 마디 다 주뿌고 나나이, 그 호랭이가 인자 저거 엄마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인자 저저 아들 듣는데 와가지고,

“너거 엄마 왔다.”

카매, 그래 여 문 여더라 카대. 그래 여가 여이까네, 아로 뭐 잡아먹었다 카든가? 우쨌는가? 그건 모르겠다. [웃음]

[복구 설화 99]

### 며느리의 방귀 힘

김정의(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노라이(노랑게) 해가 있으이까네, [조사자: 처음부터 해 주이소. 할머니.] 그래 인자,

“왜, 저 저 그리 노랗노?”

카이,

“아버님예, 저 저 방구를 몬 끼서 그란다.”

“방구를 끼라.”

칼 낀데,

“아버님, 저 지등 나무 쫘 잡으라.”

카더라 카대. 그래 잡고,

“왜 잡으라 카노?”

칸케네, 방귀 편 걸 모다 낚서로, 방귀 꾸면은 그 지둥나무(기둥나무) 넘어진다고, 그래 지둥나무 잡으라 캐갓고, 그리 꿏다 카대.

[복구 설화 100]

## 선녀와 나무꾼

김정희(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나무꾼이 인자 나무로 하러 가가주고(가서), 인자 목욕하러 갔거던. 선녀들이 내려와가 인자 목욕을 하는데, 그 인자 나무꾼이 선녀 목욕, 그 옷을 인자 숨캐뻗거든. 숨캐뻗나나 놓은께네, 그래 인자 찾아살긴데,

“그래, 내캉 살만 인자 옷을 준다.”

캐 가지고, 그래 집에 와서러 인자 데꼬 와서 사는데, 그 인자 아 둘 놓고, 아 서이 놀따네 (날을 때까지) 안 갈라 칸다 카대. 그래서로 안 갈란가 싫어서러 그랬디만은, 아 서이 놓고 낚서러, 뭐 하늘에서 여 두릉박이 내려와갓고, 그래 하내이(한 명) 앞구리(옆구리) 하나 찌고, 하내이 업고, 그래 마 올라가뿌더라 카대.

그래 신랑도 낸주(나중에) 참 그거는, 뚜름박 내란 거는, 그거는 뒷 문제고, 하늘에 인자 구름 끼가주고 비가 올라칼 낀데, 앞풀라(옆에) 끼고, 아 서이 놓고 막 업고 막 가뿌더라 카대. 그래 한참 있으이께네, 인자 따른 박을 내려주더라 카대 하늘에서. 그래 신랑도 같이 올라가 잘 살더래.

[복구 설화 101]

## 은혜 갚은 까치

김정희(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그래 짐승은 구제를 하몬, 인자 그거로 하거던, 은혜를 하거든. 사람은 참 구제를 하몬

양물을 해도. 그래 그거 까치로, [조사자: 누가예?] 응, 까치로 구해줬다 카던가. [조사자: 누가예?] 응, 그래 구해 줘놔나 놓으긴데, 그래 과개를(과거를) 하러 가는데, 뱀이가, 뭐 용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그 해놔놓이, 까치가 와서로 그 뱀이를 물어 직이고 살리 주더라 카대. 은혜를 하더라 카대. 인자 과개 하러 감시러(가면서) 까치를 살려 주놔나놓이 그래, 은혜를 하더라.

[복구 설화 102]

### 도깨비에게 홀려 죽은 사람

김정의(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우리 오촌, 친정 오촌 당숙도, 아침에 인자 이짜 뜰데(산 등성이에) 나무 하러 가셨어. 정월 초승에. 나무 하러 가셨는데, 인자 해가 저도 안 오시는 기라. 그래 찾다 한 이십 년 됐거든.

그 인자 찾다 찾다 인자 가만 있었지만, 해가 지고 오셨는데, 이짜 뜰데에 나무 하러 가신 사람이 이짜 뜰데에서 왔어예. 전신에 인자 참 토깨비한테 흘키가주고, 저 온- 전신에, 산에 땡기다가 그래 인자 이짜 뜰데에서 집에 오신 거, 전신에 참 다 끌키가지고, 한 삼 일 만에 돌아가셨어예.

[복구 설화 103]

### 도깨비로 변한 빗자루

김정의(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여자들 멘스 있는데, 옛날에는 모두 마 부엌에 앉아가지고, 빗자리에 그거 엉덩이 깔고 앉고, 거 앉아가 밥 묵고 이랬거든. 그런데 멘스가 그것도 토째비라데예.

[복구 설화 104]

### 물에 빠진 올케 먼저 건진 오빠

박명화(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그라고 저게 올케하고 시누부하고 둘이 물에 떠내리 가는데, 둘이 물에 떠내리 가는데, 오빠가 동상을 안 낀지고, 마누래로 낀짚는 기라. 그래 노이까네, 이 처자가 그 이카매,

나도 죽어 남자 되어, 처자 권속 거느릴래.

[복구 설화 105]

###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박명화(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옛날에 우리 친정아버지는 토채비한테 흘렸어. 그래가 술로 한 잔 잡숫고, 그래가 인자 어디 가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가 새벽에, 인자 아침에, 아침 되이까네, 동네 아저씨가 눈에 가다가 우리 아버지를, 토깨비에 흘키가 어두로 어두로 어두로 까시밭으로 마 마 그 눈 울타리 처난 거, 그 그리로 마, 올가미 처난 데로 마, 데꼬 땡김서 열매나 그런지 마 전신에 끌키가지고 마, 여카마(여기에) 피가 나고 그래가, 그래 인자 우리 동네서로 한, 한 이십, 한 이백 메다 떨어진 데 거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그 가가주고 토째비를 마 그다 마 넘히났뿌고(놓혀두고).

그래가 아버지가 기절로 해가주고, 마 그래 동네 인자 그 아저씨들이 아침에 눈에 간다꼬 가다 만내가주고, 그래 그 아저씨가 아버지를 업고 왔는데, 마 전신에 피투성이라. 옷도 다 찌지졌뿌고(찢어지고). 그래도 토째비한테 흘키면 삼 년백에 못 산다 캐도, 그래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어.

[북구 설화 106]

### 도깨비를 물리친 친정아버지

박명화(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요 앞에 낙동강, 요개가 옛날에 수덕동네라. 거 수덕동네고, 이쪽은 구포로 오면 쪼매난 쪼박배가(조각배가) 사람을 요래 개가 땡겼고 이랬는데, 거 거 그때는 당신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 나도 안 했어. 당신도 안 나고(안 태어나고), 나도 안 나고. 그랬는데.

그래가 인자 거서 농사로 짓는데, 그래 인자 눈에 물로 퍼는데, 저 올라가자, 이게 이게 저, 저 물레방아맨치로(처럼), 그 대가 짝대기를 붙이가 올라가자, 이래 한 발 이래가주고 물로 퍼영는데, 그래가 인자 아버지가 인자 눈에 물 퍼로 간다꼬 가이, 할매가 콩을 볶아가주고,

“야야, 이거 가져 가서로 물 퍼만 심심은데 묵으라.”

카며, 호주머니에 여가 주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물로 편다꼬 한참 퍼는데, 한 시계가 한-세 시, 네 시. 아, 한- 두 신가 이래 됐는데, 그래 절에 오디만은,

“니 뭐 먹노? 좀 도.”

이래 카더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나, 콩이다. 아나.”

카고, 무라 이래 쫓더만은, 그래가 그기 뭐 센다꼬, 떨구 떨구 해 쫓더란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토째빈지 알고, 우리 아버지가 참 담이 썩거던. 그래가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알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가주고, ‘요게 뭇이 엿저녁에 와서 그라는고.’ 싫어서러 인자, 그래 인자 새벽에 일어나서 가보이까네, 그 도로깨, 짝새 있지예? 도로깨, 이거 타작하는 짝새. 거게 콩이 소복하이 들어가 있더란다. 그것도 그기 되는 기라.

그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가 한 번은 또, 눈에 인자 그 물 데러 간다 카이께네, 그게 웅디이가 있는데, 하얀 저고리 입고 새까만 처매를(치마를) 입고 해가, 마 빨래 씻는다고 방망이로 가지고 척척척척 뚜드리 쫓더래. 그래가 마 우리 아버지가 마 뒤 거 가가주고 마, 수건까(수건으로) 헐로(허리를) 대가주고, 훌쩍 집어던지이 가 빠렸는가 없더란다. 그란다꼬 우리 아버지가 그래 얘기로 하는 기라.

[북구 설화 107]

### 위로 쳐다볼수록 커지는 도깨비

박명화(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그런데 토째비는 쳐다보면, 자꾸 더 높은 기 키가, 내리다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은 그걸, 이 이 얘기는 우리 엄마가 하는 기라. 수덕동네, 요 살땠네.

그래 친구들하고 노다가 이래 가는데, 그래 토째비를 만났어. 그런데 굴간제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다보이께네, 쳐다볼수록 더 높으더라 카는 기라. 밑에 내려다보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청중: 그는, 그 사람 눈에 비이지 딴 사람 눈엔 안 빈다.]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놀래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래 마.

[복구 설화 108]

### 공동묘지의 토째비불

박명화(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옛날에 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 거게서 보문, 이쪽에 신당 절 있지예? 거서 토째비 불이 캐져가지고, 여 여계 공동묘지 그 가문 토째비 둘이서러 막 마주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 거서 두글 두글 두글 두글 구불고, 또 확 퍼지고, 확 퍼지고. 이라던 걸 우리 거거 봤어. 토째비 불.

[청중1: 이리 지나가는 데 보문, 불이 뭐 시뚝 가서 그기 토째비 불이라 카대.] [청중2: 불이 빌 날아간다.] [청중1: 밤새도록 막 불이 막 이리 뚜드리 패고, 이리 싸우다 보면은, 그날 아침에 보면은 빗자루대더라 카대.]

[복구 설화 109]

### 콩 까보면 그치는 여우 울음

박명화(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시집 와가지고, 여계 산에, 여계 야시가,

“캥 캥.”

올더라고. 올면 우리 어마이 나가가지고(나가서) 챙이다가 콩을 착- 착- 까불리,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안 나.

[북구 설화 110]

### 구포다리와 다복한 노부부

박명화(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옛날에 이 철구다리(철교), 이거 놔가지고 기공식 할 때, 그때 내가 몇 살 묵었나 하면, 그 때 네 살인가, 다섯 살인가 고래 묵었어.

그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등더리에 업히가지고 기공식 하는데, 그래가 구경간다고 가이, 마 짐승을 모두 맨들어가지고, 돼지 맨들고, 소 맨들고, 마 닭 맨들고, 이래 해가 다리예다가 쭈욱- 개공식 하는데, 입구다가 쭈욱- 해놔놓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팔자 좋고, 부부간에 오래 살고 이런 사람이, 두 노인이 그 다리로 건너 갔다가, 여서 갔다가 그래.

[북구 설화 111]

### 매구에게 흘려 죽은 사람

박시화(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저게 매구도, 매구도, 여자가 매구로 해가 끼미가주고(꾸며서) 밤중에 나오면, 마 밤중에 지내가는 사람으로 마, 그 사람 눈에 비이기, 그 사람이 마 거 매구 따라 마 마 산으로, 산으로 온 천지로 돌아가, 지 혼차 돌아댕기지.

지 눈에는 매구 그기 비는데, 판 사람으는 모르지 밤중에. 그리 그 처갓집에 갔다가 와가 하는데, 마 매구가 그거 해가, 산으로 끄집고 가가지고, 온 천지로 그거 해가 구불다가, 구불다가 죽었어, 죽어뿌고.

[복구 설화 112]

### 비가 오면 소리 나는 공동묘지

박시화(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저게 비가 올라 커먼 공동묘지가 있었거든. 공동산이. 저 저 [청중: 옛날에 공동묘지. 공동묘지.] 묘가 있었는데, 그 못자리에서러 비가, 큰 비가 올라 쿠먼,  
“콩차라 짜자 콩차라 짜자”  
소리가 난다 캐. 소리가 나.

[복구 설화 113]

### 도깨비불

박시화(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도깨비가 불로 써가지고, 뭐 이래 밤에 되면, 밤에 되면, 불로 써가지고 싹- 지나가. 지나가고, 우리가 이래 이래 가면, 토째비가 나와가지고 확- 지내가고 그렇고.

[복구 설화 114]

### 도깨비에게 흘린 아이를 구한 아버지

박시화(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클 적에, 클 적에 얘기다. 들었거든 나는.  
옛날에 저게 소금으로 저 울산 같은데, 먼 데 가가지고 받아가 짙어지고 오는갑대. 소금 받으러. 그래가 서이가 인자, 우리 마실 서이가 소금 받으러 가가지고 울산. 소금 받으러

가가 한 오십 리 길로 소금을 받아가주고 짊어지고 오는데, 밤중 아이가? 그러이 꼴짝꼴짝에 인자 꼴짝에 올라오는데, 우리는 클 적에 촌에서러 아주 간짓댕기 요래 걸치는데 고런데 컷 거든. [웃음] 그런데 그래 올라오이까네, 어느 옛날에 채봉꼴이라고 있었거든. [청중: 채봉이 뭇이나면,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양쪽에 나무를 이래 해가 널로 이래 걸치가 채봉을 했다.]

채봉꼴이 왜 채봉이라고 있었는가 하이, 사람이 죽으면 채봉을 해가 그 꼴짝에 이래 평쿨 채로 나무로 이래 얹어놓고, 나무로 이래 얹어놓고, 걸치놓고 신체로(시체를) 그 우에 얹어가 물 빠지도록 놔놓고, 가가 곡만 하고 오고, 이런 채봉꼴이 있었다 아이가.

근데 그 질로 올라오면 그 채봉꼴로 지내 오고든. 그래 요 꼴짝이 채봉이다, 요거는 질인데, 올라오이까네 머시마가 하나 그 배-내끼 그 채봉꼴로 지 혼자 가. 그리 지 눈에는 비이지, 딴 사람 눈에는 안 비(보여). 호째비라.

호째비가 인자 그 아로 하나 데꼬 마 배-내끼 올라가, 꼴째기로 올라가가 그 마 소금짐 그거로 톱 받치 놓고,

“저 아 저기 와 저리 올라가는고 우리가 붙들러 가자.”

올라가, 자-꾸 올라가이, 그러니까네 붙들고. 아 혼자 자꾸 올라가. 그래가 붙들고 내리 왔어. 그래가 그 짚에, 옛날에는 모단댕이, 김해댕이 이래 댕이로, 요새는 여기는 뭐 그도, 촌에는 무슨 댕이 안 있나. 모단댕이 아들이라. 칠백이라고. 이름이 칠백인데 그래 아로 데꼬 인자, 소금짐을 짊어지고 아로 데꼬 올라와가 그 집에, 인자 그 집 앞에 받치놓고, 어 그래 인자 아로 데꼬 드가가,

“모단댕이요-, 모단댕이요-.”

커이까네,

“야-.”

커더란다.

“칠백이 있는교?”

커이까네,

“야. 우리 칠백이 방에 잠더.”

카더라 그라는 기라. 그러니까네,

“그래 칠백이가 어데꺼정 가는 거 우리가 데꼬 왔심더.”

커이까네, 놀래가지고 저거 어매가 놀래 깜짝 놀랬는데, 자는 놈으로 그 호째비 그기 마 [청중: 아(아이) 데꼬 갔다.] 데꼬 가가지고 그리가 참 살렸다 아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박시화(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나도 한 번, 요 건네 마실도 있고, 저 건네 마실도 있는데, 시집와가 각시 때 집안 집에 놀러 갔다가 우리 집에 갈라꼬, 이래 그 집 마당에 서가 보이까네, 우리 집 앞에 불이 여서로 (여기서) 획-카며 올라가 없어뿌가, 밀등꼴로 올라가뿌고, [청중: 불이? 거기 토째비불이다.]

어, 토째비라. 그런 토깨비가 옛날에는 마이(많이) 있었다 아인교.

[복구 설화 116]

### 우물에서 나온 도깨비불

박시화(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우리는 시아바시 날로, 삼 년, 옛날에는 삼 년 상으로 날로 지냈는데, 우리 저 시누부가 너이(네 명) 있거든. 큰시누부가 인자 아, 큰시매가 저녁 째에(때에) 안 지내나. 저녁 째에 마 떡도 깔고 제사 지내고. [청중: 날 지내면.] 그래 인자 떡 다 갈라 주고, 그래 인자 우리가 큰 집이 뒤에 있고 우리가 앞에 있었는데, 고 복판에 샘이가 하나 있었거든.

그래 인자 우리 시매가, 큰 시매가 우리 집에 인자 방 너리다고(넓다고), 방이, 너린 방이, 빈 방이 있어노이까네, 자러 올라꼬 이래 내려오이까네, 그 샘에 그 새로(사이로) 불로 별거이 써가지고 뿜이 풀- 나오더란다. 거기 호째비라. [청중: 거기 토째비라.]

[복구 설화 117]

### 호식 당한 처의 시신을 지킨 남편

박시화(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또 사람으로 저 저 물고 가고, 개도 물고 가고, 옛날에는 범도 마이 있었어. 우리 왕고모

할매 동세가, 동샌데. 저 영감 할마이, 신랑각시 이래, 신랑이 병이 들어가 아파가 누버가 있는데, 인자 각시는 내- 마당에서러, 옛날에는 약탕관으로 이리 불로 푸아놓고, 이래 약탕기에 얹어 놓고, 인자 불로 붙이가 이래 있으이까네, 범이, 범이 와가지고 신랑은 아파가 방에 누웠는데, 범이 마 울담넘으로, 담넘어로 히떡 뛰넘어 가더니만, 그 여자 그거로 덜렁 물고 마, 담너매, 울담넘어로 훌쩍 던지뿌더니마 가. [청중: 그기가?] 그 훌쩍 떼지가지고, 훌쩍 떼지가지고 내려오자 마, 지가 녁큼 쪼아가지고 물고 산으로 올라가뻘어.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뻘는데, 그래 인자 마 신랑이 가마이 보이, 그래 마 마 아픈 사람이 마 악을 내가 죽을 판 살 판 따라갔어 마 마. 죽을 판 살 판 마, [청중: 그 마누라 물고 가노이까네.]

“내가 신체라도(시체라도) 니한테 안 뺏긴다.”

꼬. 사람은 아메(아마), 그 여자는 죽었을 끼이까네, 짝 물고 떼지고, 물고 갔으니까네, 그래도 내 신체는 안 뺏긴다고 마, 어데꺼정 마 마 자꾸 고향을 지르고, 마 따라가이, 지도 사람을 끄집으니, 썰기는 못 가거든, 못 가고. 그래가 마 범이 마, 중간, 산 중간쯤 가다가 사람, 물었는 사람 턱 놔두고 떠났다. [청중: 지는 가뻘다.]

그래가 마 신랑이, 그래 저게 각시로, 각시 짝에 가가지고 지켰다 카는 기라. 지키고 마, 범한테 안 주고 뒤에 지 범입에 안 열라꼬 그랬다. [청중: 그래, 그라이 잡히 가는 거는, 호식해 가는 거라 한다.]

그래 옛날에는 범도 있고, 범도, 마 마 개도 물고 가고, 마 마 범도 마이(많이) 있었다 아이가.

[북구 설화 118]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배종곤(남,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내가 듣기로는 저 의성, 의성에 사는 한 분이 만덕에 아마 상문을 갔는 모양이지. 상문을 갔다가 오면서, 아버지 주라꼬 봉지를 쪼개 사쫘어. 봉지를 쪼개이 사주서 가지고 오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지금 저 낙동고등학교 앞으로 저리 가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서 비가 부실부실 오제. 지내가는데 뿔이 나타나더라 카는 기라. 나타나니까,

“그 가지 간 거 내 놔라. 내가 내 뭇아치다.”

한께네,

“이거 안 된다. 우리 아버지 까다.”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싸웠어. 밀고 땡기고 싸와가지고, 우째가지고 인자 그놈을 잡아가지고 묶었는데, 전주에다(전봇대에) 묶었습니다. 칭칭 묶어놓고, 그놈을 가지고 집에 갔단 이 말이지. 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보인께네, 빗자리 몽디로 묶어 놔드래요. 거기 토채비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복구 설화 119]

### 도깨비불

배종곤(남,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토채비가 불이 여서 불로 했다가 폭-간다고, 인자 요쪽으로. 갔다가 저게 또 불이 폭-지나갔다고.

“야, 저 토채비 나타났다. 토채비 나타났다.”

이래, 토채비가 어딴는교? 거기. 그때 눈이 헛끼지(헛것이지) 그래.

[복구 설화 120]

### 만덕고개의 도적

배종곤(남,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옛날에 여 구포시장에 우시장이 있었소. 소 파는, 소, 짐승들 파는 거. 요 근처에서는 동래장, 요 구포장, 김해장, 양산장 이래 있는데, 소로 몰고 동래장에 팔로 가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뭐 인자 교통이 좋아 도로 닦고 이랬지만은, 옛날에는 산길로 땡겼거든.

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만댕이 그 가면은 쫘 외지요. 동네가 이쪽저쪽 없기 때문에. 만덕에도 그 밑에 동네, 큰 동네는 저 호수가 제법 마 이십 호 내지 삼십 호 이리 되어 있어도 우에 쪽(위쪽) 산만디 쪽에서는(산꼭대기 쪽) 집이 없다꼬. 외지지, 외지니까 도둑이 그 붙는

기라.

그러인께네 혼자서 그 소 팔러 가가지고 혼자서 못 오는 기라. 둘, 서이 돼야 오고. 내리  
올 썩에도 그렇고 갈 썩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 팔고 오는 거로 도둑놈들이 그  
놈을 털어 먹는 기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복구 설화 121]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00(여, ?생)<sup>3)</sup>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조사자: 옛날에 어째서 지령이로 살아주게 되었고?] [청중: 시어마이가 눈이.]

아들이 저 외국, 지금 외국이라 카지만, 과게 보러 갔는 기라. 과게 서울로, 과게를 보러  
감시러,

“니가 엄마 앞을 문 보나따나 엄마 잘 구완해 도라.”

카이, 마구 없이인께네, 지령이를 살아갖고 자꾸 시오마니를 갖다 묵고, 묵다가 묵다가 ‘하도  
맛있어서 이거 뭐신고?’ 싶어서 한 바리, 무몬(먹으면) 자리 밑에 하나씩 하나씩 넣었다 카는  
그 소리는 들었어요? [조사자: 아, 그래가지고.] 아들이 베실을(벼슬을), 과게를 해가 온께,  
온께네.

“아이구 야야, 암소리(아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아기가 날로 맛있는 거를  
어찌기 맛있는 거를 주는지 내가 묵고 이래 살이 찼다.”

“보자.”

커이꺼네,

“함 봐바라. 이게 무신고 보자.”

이불 자리를 휘떡 든께, 거시기 지령이 말라 죽은 기 있더라 안 카나. 골고지(고을마다) 다  
있어예. [조사자: 그러이카네 어째 눈을 떴는가?] 떴어예. 떴다 카대. [청중: 지령이로 살아  
조가 “지령이요 엄마.” 한께, 그래 눈을 번쩍 뜨더라 마. 놀래갖고.] [조사자: 아들이 와갖고.]  
아들은 베실 해가 왔고. [조사자: 그래서 눈을 떴구나.]

3) ‘이00’로 표기한 까닭은 제보자가 조사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  
는데, 주위에서 이씨라고만 성을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복구 설화 122]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OO(여, ?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고려장에 있을 때, 와 없어졌냐 하문, 그러대 전에. 어른들이 이야기 한디(하는데).

자기 아들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너도 저거 아버지가 어마이 고래장을 해논께, 아들이 거 같이 가가 있은꺼네, 저저 아버지도 후제(후에) 저저 [청중: 지계로 지는 엄마로 내빼리고.] 그래. 지계로 가 와논, 거 다부 지계로 지고 움서러 그 포시로(표시를) 해놔답니더이. [조사자: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뭐 거를 풀잎을 꺾어가 포시로 쪽- 쪽 해놓고 올라갔더라대. 그 고래장 하는 데로 올라 가.

인자 후제 자기도 길로 안 잊어빼리고 그 길 포시 해논 데 찾아가서 인자 고래장 할라고. 그 옆에 고래장 할라고. 자기 엄마가 죽었은께 자기 아바이도 그 길에 같이 고래장 할라고 질에 포시로 딱딱 해놓고 올라갔다 하대. 후제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몬 고려장 같이 헐라고 저검매한테(자기 엄마 곁에). 그래 썩대. [청중: 그 지계를 내빼리니께로, “그 지계로 왜 내빼렸냐?” 카이께노. “이 지계를 갖다나야(갖다 놓아야)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를 지고 내가 갈 꺼 아닙니까?” 카더란다. 아들이.] [조사자: 그래가 안자 아이고 나도 죽으면 이런 신세가 되겠구나 하이가 마 없었네.] [청중: 그렇지. 예. 그래가쥬(그래가지고) 그 옴마를(어머니를) 모셔 와가지고 잘하더라 안 캡니까? 그 아들이.]

[복구 설화 123]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1)

이OO(여, ?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그래 아버지는 여 자고, 아들 요 자고 요 자고, 어마이가 하도 영감이 기어 올라사서러 저 가세(가예) 가 누우이께로, 아들 넘어가지고 줄 줄 끌고 가이 입에 대이까.

“아버지 찹습니다. [일동 웃음] 아버지 찹습니다. 얼른 다부(도로) 가이소. 다부 가이소. 그 건너가지 말고 다부 가이소.”

카더라 안 카나. [일동 웃음] 예전에는 단칸방에 바글바글 하이께로, 할마이 생각은 나지, 할마이는 절에(결에) 없지, 이리 갈라도 질 다 막혔지. 이리 갈라도 맥혔지. 아들 하나씩 건내서 넘어가다이께로 줄 줄 끌고 가이까네 입에 대일 거 아닙니꺼. [일동 웃음]

[북구 설화 124]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2) [누워서도 잘 보이는데]

공춘덕(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아들 너이 뉘피(눅혀) 놓고 참 그리 영감, 할머미 인자 사랑을 허는다, 인자 동생은 철이 없어서 일어나 앉아서. 저검매(자기 엄마) 이불 밑에 뭐가 들썩들썩 해싸이카네, 가마이 앉아, 앉아 있으이, 저저 아버지가,

“네 이놈, 와 안 자고 일어나.”

카면서 뺨을 때리싸이케, 새이가(형이) 있다가,

“아이, 누워서 봐도 환하게 비는데 말라(뭐 할하고) 일어나 뺨 맞노.” [일동 웃음]

[북구 설화 125]

### 며느리의 방귀 힘

이OO(여, ?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미느리가 얼굴이 노랑더라네요. 그래 ‘재가 무슨 병이 있어가 노란가?’ 시아버지는 하도 하도 노래서,

“야야, 니 얼굴이 왜 그래 노르탱탱하노.”

“아이고 아버님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이유고?”

“방구를 맘대로 못 끼가지고 얼굴이 노랑병이 들었습니다.” [청중 웃음]

“하이고 야야, 방구 맘대로 끼라.”

“하이고 아버지, 방구를 꺾면 지둥 뿌리가 흔들흔들 할킨데…….”

“아유, 지둥 뿌리는 내가 잡을꾸마.” [일동 웃음]

지둥 뿌리를 잡으이께네, 미느리가 방구를 얼마나 꺾는가.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지둥뿌리가 왔다갔다 [조사자 청중 웃음] 흔들흔들 하더라요. 그래도 딱 빼이 빼지더라요. 시아버지가,

“야야, 인제는 다 꺾나?”

“인제는 놓으소. 인제는 댕습니다.”

지둥 뿌리 빠지도록 방구를 꺾더라 안 캡니까. [조사자: 아하, 그만큼 참았네?] 야, 그만큼 참았는 기라. 방구도 못 꺾고.

[북구 설화 126]

### 통제가 안 되는 며느리의 방귀

이00(여, 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미느리가(며느리가) 하도 방구를, 시아버지 밥상은 가지고 가야 되지, 방구는 자꾸 나오지, 방구 그치도록 있을라 카이 시아버이 밥이 늦지.

밥상을 들고 이래 가지지고 문을 여이께네, 방구가 뽀뽀뽀뽀뽀. [웃음] 그래도 또 참고 밥상을 탁 놓고 나이. 할배 잘에 앉아 손자가 요만한 게 할배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 밥을 먹고, 인자 미느리가 밥상 채리 쥐 놓고, 얼른 못 나와가지고 그 쪼매 머물고 앉았을 탄에 똥 꾸영으로 가지 오고, 발 뒷구멍으로 막아도 방구가 나오는 기라. [일동 웃음] 그 방구를 쪼 르르 꺾니께, 그 뭐 시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무안합니까.

“요노무 새끼 방구는.”

카이,

“엄마 지가 꺾 놓고 날 꺾다고.” [일동 웃음]

[조사자: 아 자기 엄마보고 내세우네.] 야. 그 시아버지한테 방구를 꺾니까 안 미안한교. 그래 손자가 요만한 기 철딱가리가 있으문 참을킨데.

[북구 설화 127]

###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이OO(여, ?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소 팔고 고개를 넘어오는데요, 머리를 산발을 하고 그 소 파는 저기한테 달구(달려) 오더만,  
“오라비 어디꺼정 갑니까?”

하고 집까지 따라오더라 안 갑니까.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까지 딱 들어와  
가지고 가만 보이꺼네, 사람은 집꺼정 따라왔는데 사람으로 안 비고 요런 빗자루 몽뎡이로  
비더라요.

고거를 주워가지고 지둥에다가(기둥에다가) 새끼로 가지고 창, 널 아척에(아침에) 비 불라고  
밤에는 어덱어가지고(어두워서), 창창 둘러매봤다가, ‘그걸 저게 뭇데 날로 집꺼정 따라오미  
오래비, 오래비 커고 따라 오노.’ 카이, 보이꺼로 빗자루 몽뎡이에 피가 묻었더라요. 피가  
묻었더라요.

고거 둔갑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머리를 산발하고 풀고 와가지고 집꺼정 따라와가  
지고 그러더라 카대.

[북구 설화 128]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옥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그거 인자 고래장을 하는데, 인제 아들이 업고, 아버지를 업고 갔어. 무덤 가는데 그꺼징  
업고 가매 가는데, 그래 가매 가매 재랍어, 자기는 아들을 업고 가는데, 아버지는 내가 오늘  
가니까 아가 몬 돌아올까봐 포시를(표시를) 해야 된다. [청중: 그렇지. 가면서 질가마다 포시  
한다 카대.] 삼 있잖아요. 삼 재릅(겨릅) 제일 긴 거 있잖아. 삼 빗기고 나모 저릅이(겨릅이)  
나오거든. 저릅 그기 하얗거든요, 베끼(벗겨) 보몬. 그걸 뿌질겨갓고(부러뜨려서), 가매 가매  
길에 한 개씩 나았다(놓았다) 카대. 그래 놓었는데, 인제 그걸 보고 찾어가라고, 집에 찾아  
가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한테 잘해주시는데 나는 산 사람을 갖다가,  
그래 그 갖다가 가두고 오이.’ 자식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 뭐뭐 공진회를 한다  
카모, 지금 말로는 그 말이 아이지만은, 나라에서 무슨 뭐 하는 대회가 있어서 그래가 하는  
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무를 큰, 이래 비다 놓고 그래 인자,

“나무 나이를 알아라.”

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한 번 물어봐야겠다’고 인자 갔어. 가가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나무 요래 요래 테가 있잖아요, 고것만 세알려(헤아려) 보만 고대로가 나이다.”

이랬는 거라. 그래가 그 사람이, 그기 없어졌다는.

[북구 설화 129]

###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손명자(여, 1940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오늘 저 시장에 갔는데, 뭐 봉테이(봉지) 안에 뿔을 떠꺼리(뚜껍) 딱 덮었는데, 안에 맛있는 게 들었다고 사가지고 니 줄라고 가져 올라오이까, 니는 없고, 니 저 산 위에 밭에 있는가 싶어 올라가보니 없대. 그래 거 가가지고 찾아보도 없어가지고,

“아익(아직) 그거 니 구불러 준다고 구불러 주는데, 아익 구불러 내려간다. 아익 구불러 내려간다.”

카대. 또 그라고,

“오빠 그게 무신데(무엇인데)?”

카니,

“아, 아익까지 구불러 내려 간다. 아익까지 구불러 내려 간다.”

오빠 집은 만데이고(꼭대기고), 우리 집은 저 아랫동네니께.

“한 며칠 있으몬 구불러 내리갈끼대이.”

그 참말로 이야기, 이야긴 줄 알고,

“오빠 봉테이 안에 뭐 들었는데?”

카이께,

“그건 구불러 가가 들씨박야 안다.” [조사자 웃음]

그래가,

“며칠 있다가 너거 집에 내려갈끼다.”

카더라. 열매나 있다가 참아라는가 싶어가,

“오빠, 오빠 우리 집에 봉테이 안 구불러 왔더라.”

카이께네,

“아이구, 내리 가다가 딴 사람이 조아(주워) 먹었는가베. 며칠 더 있어봐라. 더 있으면 내리 갈 끼다.”

[복구 설화 130]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손명자(여, 1940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그래 자꾸 그람서(그렇게 하면서), 꽃감(꽃감) 그 이야기를 하िका 호랭이가 밖에서 들었다 안 하나. 아,

“꽃감 준다.”

카니 울다가 가만 있으니까, 그런데 꽃감이 가당차이(가당참게, 즉 매우) 무섭운 긴 줄 알고, 호랑이 밖에 있다가 그래 듣고 갔분다대. [조사자: 도망치는가, 아 내보다 무섭운 게 있는가 싶어서.] 그렇지.

[복구 설화 131]

### 꼬부랑 이야기

손명자(여, 1940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꼬꾸랑 할매가 꼬꾸랑 짹대기 지고 꼬꾸랑 길로 올라가다가 꼬부랑 톱을 누이께네 톱을 누나노이 꼬꾸랑 개가 와가지고 그 저 꼬꾸랑 짹대기가 꼬꾸랑 개로 때리뿌이께네,

“꼬꾸랑 깡깡, 꼬꾸랑 깡깡.”

달아빠가 가더라. [웃음]

[복구 설화 132]

### 착한 며느리를 도와준 두꺼비

김옥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시어머니가, 그 서모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메느리를 갖다가 설움을 줘가지고, 자기 식구들은 밥 먹고, 이 메느리는 밥을 안 주고.

뭐 딴 거 옛날에는 물도 여다 먹었다 아입니까. 그래 물 이려 보내고 이려는 거라. 물을 여다 부어도 여다 부어도 물이 안 차는 거야, 도가지에(독에). 안 차가지고 그래, '그기 어떻게 되가 그런고' 싶어서 보이께네, 두꺼비가(두꺼비가) 그래 그라다가 늦게 물이 차더라 카네. 찻어.

그래 인제 보니까 거 두꺼비가 딱 그거, 시어머니가 빵구를 내놨는데, 거 두꺼비가 고 딱 밑에서 막아놨더라고요, 지 등허리로. 그래가 물을 항거(가득) 채았대(채웠대). 그래 두꺼비는 착한 일만 하는 거라고, 짐승이라고.

[복구 설화 133]

### 억울하게 죽은 밀양의 아랑 각시

손명자(여, 1940년생) 구술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밀양 영남도에 거 가문, 그 전에 그 저 총각이 처이를 더부다(데려다) 대밭 속에 갖다 딛고(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그 머 장난 치고 노다가 그거로 칼로 찌우, [조사자: 찌르고?] 찌우고 가뿔는갑대. 그래 인자 그 처이가 원통해서 나오가, 탁 그 영남루 강가에 있거든, 바라 영남루는 아지예? [조사자: 알지요.] 거 이짜(이 쪽에) 배에 물 있고, 영남루 다리 쪽에서 만날 그래 나타나더라 카대. 그래가 거 비석꺼정 세아줬다. 그 때문에 그 밀양시가 잘 안 되는 기라.

그래 후에 알아보이까, 처이가 죽어서 너무 원통해가 그렇다고. 그 제사도 지내주고 그럴 끼야, 구청에서 옛날에. [조사자: 그래서 인자 마 다시 제사 지내주이까네 다시 안 나타나고?] 예. 안 나타나고, 거 아랑제 할 때도.

[복구 설화 134]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유선(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애기가 그래 하도 울어사가 오만 소리로 해도 안 그치고, 그래가지고 이 호랭이란 놈이 문 앞에, 저 대문 문 앞에 탁 토시(도사리고) 앉았다가, 그래 어마이가 하는 소리가,

“니 꽃감(곶감) 주까?”

카이커네, 아가 떨컹 그치거든. 호랭이가 마, ‘아이고 내보다 더 무섭운 사람이 있나’ 싶어가 도망을 가더라 카대.

옛날에 거 우리 집에 할매한테 들은 소리거든.

그래 호랭이가,

“아이구, 꽃감 주까.”

카이까, 아가 떨컹 그치거든. 그러이까네, ‘내보다 더 겁나는 기 있는갑다’ 싶어 호랭이 도망갔다. 우리 할매한테 들은 소리거든.

[복구 설화 135]

### 제삿밥 먹지 못한 혼령

김유선(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옛날에 스님이 질로 가다가 가다가 너무 해가 저물어가 공동묘지에서 이래 인자 멧등에서 (뫓등에서) 앞예(옆예) 붙이고 잠을 딱 자이까네, 어데 한 마실에서 막 아를 삶아놓고 마 난리가 났거든. 그날 저역예(저녁예) 그 집이 제사라. 지산데(제사인데), 고 뫓등 거 할배가, 할배 지산데(제사인데)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 마 부랴부랴 스님이 고 집을 찾아 내려갔어. 내려가이커네 참 지사를 모셨는데. 손지가 와 옛날에는 문만 열문 부역에서 [청중: 그래 그래.] 가마솔이, [청중: 그래 그래. 맞아 그래.] 마 아가 마 기나가다가 마 문 울에다가 마 삶아 냈어.

그래 얼른 내려가가지고 수채, 그 물로 이래 내려가몬 수채가 이끼 안 있습니까. 그거를

퍼뜩(빨리) 스님이 좀 가서 붙이주라고, 이래 선물을 하더랍니다. 그래가 마 어- 스님이 죽을 판 살판 가가지고 보이 그 집에 다 했는데, 딱 드가이꺼네 손지가 나오다 물에 삶아났어.

그래가 마 이끼로 갖다가 뜯어가 온 몸에 붙이고, 그래 그 손주를 반을 살렸어. 살렸는데 그래 지삿밥 그 한 거 보자카이꺼네 멀끄덩이를(머리카락을) 지단한(기다란) 게 상체에 있더라고. [청중: 아주 정성껏 해야 된다.] 예. 그래 정성이 부실해가지고. 그래노이 인자 밍다꼬, 뱀이를 삶아가 준다꼬. 그거는 구신은(귀신은) 뱀이라, 멀끄덩이 전부 뱀이라 칸다꼬. 그래 뱀을 날로(나를) 삶아준다 감시는 손지를 그렸다고. 그래 멧밥 인자 제삿밥 보자 카이꺼네, 멀끄덩이, 옛날 머리로 안 지나(기나)? [청중: 그래 그래.] 지단한 상체가 있더라고. 그래 꿈에 선물을. [청중: 정성껏 하지.]

[북구 설화 136]

### 쌀이 나오는 구멍[사리암 전설]

이순우(남,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옛날에 그 저 싸리암에 거서(그곳에서), 쌀이 그래 저 손님이 그 저 한 사람 오면은 한 사람 먹을 쌀이 나오고, 두 사람 두 사람 먹을 쌀이 나왔는데, 그 저 스님이 좀 욕심이 나가 지고 구멍을 갖다 좀 크게 뚫으면 그 저 물이, 쌀은 안 나오고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그 전설이 있더라고.

[북구 설화 137]

### 역을하게 죽은 밀양의 아랑 각시

이순우(남,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아랑 이야기는 그 옛날 부사, 부사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저 결국 그 얼굴이 참 예뻐던 모양이야. 근데 그 부사를 모시던 그저 노비 중에서 참 딸을 갖다가 아주 저 나름대로 흠모를 했는 기라.

그래 기 또 우찌 댜노면(되었냐면) 유모 안 있소? 유모 한, 유모를 갖다가 잘 고슬랐는 (구슬렸던) 기라. 고슬러가지고,

“달밤에 저 딸 함, 부사 딸 함(한 번) 데리고 나온다.”

이래 된 기라. 유모는 참 그 놈의 말만 듣고,

“이제 저녁에 달도 밝고 하니까. 아가씨 말이지 여 저, 바로 남천강이 고 밑에, 강이 남천강이거든. 영남루 바로 밑에. 놀러 가자.”

이래 돼가지고 고가(그곳에) 나갔는 기라. 나갔는데, 이 유모는 그래 나가다 보면 지는(자기는) 살짝 피해버리고, 그놈이 이름이 ‘주기’라. 주기. 그래서 거 참 혼차 아주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몸을 그저 그걸 했어. 그래가지고 그저 거참 자기 에- 거 죽이 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대밭이 있는데, 대밭에다가 그래 그저 여뵈는 기라.

그래놔노이 이 저 부사가, 그 뒤로부터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음 저 새로 부임해 가지고 가기만 가만, 그 딸은 그저 아가씨는 자기 이래 원, 분함을 갖다가 그래도 호소를 할라고, 그래 그저 밤 되면 이제 안 있어? [조사자: 원귀가 돼가지고 귀신이 돼.] 원귀가 돼가지고 그저 부사한테 이제 호소를 할라고 들어가몬 저 그 고을 원이 놀래서 죽고 죽고 이제 늘 그랬는 기라.

그래다 한문은(한 번은) 참 그러니까 밀양에 이제 고을 원이 들어갈 사람이 없는 기라. 아무도 안 들어 갈라 카고, 그러자 한 사람이 내가 한 번 저, 자기가 자원을 했다 해가지고 그래 들어갔는데, 그래 저 보니까, 참 저녁에 턱 자니까 안 있어, 원귀가 나타났는 기라.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을 갖다 좀 풀어 달라. 그래 지금 내 시신은 대밭에 있고, 그럼 인제 그걸 갖다가 그석해가지고 내가 저 지금 참 이래 원통함을 갖다가 풀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 인제 원님이 좀 풀어줄 수 있겠는교?”

그래가지고, 그러모 원이,

“알았다. 내가 그걸 갖다가 해주겠다.”

그래 이제 확실히 그걸 갖다가 모르는 기라. 누가 언(어느) 놈이 했는지 모르는 거 아인 가베. 그래 저 아침에 저 한분 조회 때 모두 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말이지, 가만 보니까 그래 모두 보이 마 그걸 갖다 모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 [조사자: 아까 주기라 그랬어요.] 어. 주기 주기. 그래 이제 뭔가 뽀은(붉은) 나비가, 한 사람이, 참 나비 한 사람이 아이라 뽀은 나비 한 쌍이, 아침에 거 마 쪽 모두 인제 저 불러나놓고 세아놓고 있는데, 살 가디 (가더니) 한 놈 머리에다가 이래 살 도는 기라. 그래가지고 참 그놈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마 그런 원한 기 없이 이후부터는 그저 잘 이제 참 뭐라 할까 [조사자: 소원을 풀고.] 소원을 풀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 그 정돈데, 더는 모르겠고.

[복구 설화 138]

## 호랑이도 감동한 효자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옛날에 신랑어는 못살아노이 돈 벌러 갔부고, 아주 골짜에 외딸에 살았는데, 메느리 호부(호불) 시아바시하고 알라 낱아가지고 아직 돌도 안 지냈거등.

그런데 시아바시 가만 늘 장애 가가 술로 마 마이(많이) 자시고 오이꺼데, 메느리 만날 마지미를(마중을) 가거든. 가마(가면) 시아바시가 마 술 자시고 집 아무데나 마 산 밑에 이런데 놓어가 자사가지고 메느리 만날 업고 왔거등에.

업고 오는데 한 날은 가이꺼대 안자 산에 큰 짐승이 나와가지고, 범이 나와가지고 꼬랑 대기 물을 적셔 와가 낮에 축축하더라대 마. 메느리 가이꺼대. 그래가지고 인자 짐승도 술이 깨야 먹는다요. 술 안 깨고는 안 자아(잡아) 묵는다요. 그래놔노이 술 깨라고 낮에다 물로 자꾸 찍어다 바르더라. 그래가,

“이 짐승아 이 짐승아, 잡아 물라고 그라나?”

카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

“그라지 마고 우리 아부님일랑 놔두고 내가 집에 가가 대로 줄 재미(참이니) 아부님일랑 나뉘라.”

이카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 그래 인자 시아바시를 업고 왔는 기라요. 오이 인자 짐승이 따라 오는 기라. 산신령님이. 따라 오가 집에 왔는데 시아바시는 사라아(사랑에) 갖다 놓히놓고, 자기 애기로 덩씩 안아가지고 두디기(포대기) 싸가 안아가 대로 가주가라고 주니 카네, 짐승이 앞발로 두나가 퍼떡 받아가 가더랍니다. 그래가 가지고 가뵈는데, 인자 메느리 하고는 자아 무운 줄 아는데, 새복에(새벽에) 시어른이 술이 깨나노이 자꼬,

“애기 안고 온나라(오너라). 아무개 안고 온너라.”

고 자꾸 이카거든. 사라서(사랑에서) 그카이꺼네,

“아부님, 알라 잡니더. 아이 애기 잡니더.”

이카고 있으이께데, 산신령이 아직에(아침에) 날이 히굼하니 애기로 앞발로 딱 안고 와가 삼작걸에(삼작, 즉 대문에) 덮석 안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아, 니가 안 묵고 와 왔노?”

이러카니까,

“와 안 뉘노?”

이카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카고, 또,

“묵지 와?”

커이커데, 또 이카고, 알라를 이리 주더랍니다. 그래 갖다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 인자 부모한테 원차이(원체, 워낙) 호자(효자) 질로 하이꺼네 짐승이 인자. [조사자: 효부다 진짜?] 예.

[복구 설화 139]

### 돈 욕심에 어머니를 죽인 딸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옛날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거든요. 혼차서(혼자서). 딸은 인자 등 녀에 사는데, 아들이 마 군대 갔부고, 소로 인자 큰 황소가 있는데, 할매가 혼차 못 먹이가지고 인자 장아(장애), 사우로(사위를) 인자 등 녀에 있는 사우를 오라고. 장애 갖다 팔아가 돈을 가지고 인자 할매가 겁난다고 사우를 암만 조도(취도) 안 받을라 카는 기라.

“가져 가자.”

캐도, 집에 가와가지고(가져 와서), 집에 있으이 할매가 겁나가지고 밤에 도둑놈 올까 싶어가, 옛날에 문 안을 문꼐갱이(문고리) 거는 거 있거든예, 거다 손가락을 꼽아 놓고 잤거든예. 자니꺼데 문살 안에 손이 니나치(네 개가), 손가락이 니나 썩 들어오더란다. 손가락 그거 빨라고.

그래가 마 칼로 할매가 혼차 사니 칼로 갖다났다가 탁 때려쥘뻤는 기라. 손가락 니나 이게 잘려부렸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할매가 또 도둑놈인 줄 알고, 강돈가(강도인가) 이긴(그런) 줄 알았는데, 등 녀에 돈을 가지고 딸집에 가지고 갔는 기라예. 가지고 가이꺼데, 딸애는 정기에(정지, 즉 부역에) 물을 한술 부어가 불로 열고 앉았고, 사우는 방에 아프다 카미 이불로 덮고 누뻤는 기라예. 그래가 딸잘애(딸에게),

“야야, 이만저만하고 밤에 왔는 거 내가 그랬다. 칼 가지고 그래가 손가락이 니나 나가이, 손가락이 니날이 풀썩풀썩 뛰더라.”

이래, 딸잘애 이바구를 하이, 딸이 아무 말도 안하는 기라요. 그래가이고 인자 물로 살살 끓이더만 딸이,

“뒤에 다부래기 안에 어제 고기 사다 열어놔안(넣어놓은) 게 있으이 엄마가 좀 내오너라.”

이라더랍니다. 그래가 또 할마씨가 ‘지(자기가) 내로(내려) 가면 될 낀데 머하로(뭐 할려고) 어마이 내로 가라 카노’, 거 내려 가라 캐놓고, 옛날 다부래기 큰 기거든예, [조사자: 다부래

기가 뭘니까?) 머리까지 드가야 되거든요. 독. [조사자: 독. 큰 독.] 머리 이래 해가 고기를 집올라 카이 고기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마 밀어 열어가지고 물로 한 솔 갖다 부어가지고, 단지 안에 거 밀어열어가 부어놔노이, 부어놔뿌고 이래 놔노이, 저 어마이 직일라고 인자 그래뵈는 기라.

그래가 인자 그러구로 그날 아침에(아침에) 마춤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로 나왔는 기라. 새벽에(새벽에) 오이꺼데, 엄마가 없단 말입니다. 이붓(이웃) 사람들한테 물으이,

“아 장에 가가 소 파디(팔더니) 등 넘에 너거 누부네(누나네) 집에 갔는갑다.”

이러카이꺼데, 동생이 찾아갔거든요. 찾아 가이꺼데,

“저 엄마 여 왔더나?”

카이,

“안 왔다.”

카는 기라예. 자형은 이불 덮어씨고 눅었고, 아프다고 눅었고. 아-들한테, 인자 아가 쪼매 꺼만한(조그만) 기 있는데,

“너 할매, 외할매 여 왔더나?”

이러카이,

“왔다.”

카는 기라예. 그래가지고 인자 그러구로 인자 밥을 해가지고, 찾아보지도 몬 하고 밥을 해가 주는데, 하문(한 번) 떠물라고 이래 숟가락가(숟가락으로) 뜨이, 노약(농약) 내가(냄새가) 삭 치받더랍니다. 그래가 마 자기가 안 묵고 백에 개를 던져주이 그 자리서 마 직사를 했부더랍니다. 그래가 인자 ‘저검마(자기 엄마) 죽있다’ 싶어가 수상발라가(수상하다 싶어서) 온 데를 뒤비이꺼네, 다부래기 안에 거서 아익(아직) 안 죽고 꼬골꼬골켰더랍니다(꼬골꼬골거리더랍니다). 물에 떡 까꿀제비(거꾸로) 여나노이. 그래가 마 죽었다요. 그런 사람도 있어예. 옛날에 저 영천 원국 북동이라고 거 그랫어예.

[복구 설화 140]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저거 아버지, 할아버지 아인교? 조부아인교? [조사자: 그렇지.] 조부로 저거 아버지가 지계를 지고 가이, 손주가 암만 따라오지 마라 캐도 따라 오는 기라예. 따라 와가지고 보디, 그래

지게로 내빼리고 가거든예. 저거 아버지가 할배 저다 내빼고. 기어이 지게로 가지고 가자 카는 기라.

“와 가주 가자 카노?”

카이,

“아버지도 늙으마 할배매로(할배처럼) 이래 저다 내빼리, 그 지게 나뒀다가 저다 내빼리아 안 되나.”

이래 카매, 그래 가져와가, 그래가 고라고부텀 고래장 안 했다 카대요.

[복구 설화 141]

### 시집 삼 년을 병어리로 살다 말을 한 며느리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귀 어덜어(어두워) 삼년, 눈 어덜어 삼년, 버버리 되가 삼년. 또 뭐 또 삼년이고, 육년을 말해 놔노이 병시라고(병신이라고) 데려다 주이꺼데, 데리고 가이, 산에 저 가다가 꿈이(꿍이) 한 마리 날라 가이, 신랑잘에(신랑에게),

“아이고 저 꿈이 풀- 날라 간다.”

이카이꺼데, 말 한다고 데려 가노이, 또 말로 안 해가지고, 또 그래가 버버리라고 신랑이,

“가자.”

캐서, 또 한 번 데리고 가이꺼데, 비둘기가 한 마리 훌 날아가이,

“하이고! 저 비둘개(비둘기가) 훌 날라 가문 속이 서원하겠다.”

이칸다고. 그칸다 하대. 그래 그 사람하고 그때 거는 모르겠구먼 인자. [조사자: 그래가 도로 덕고(데리고) 왔던갑네.] 야. [조사자: 그래 실제로 말을 할 줄 아는데?] 예. 이자 시집 가만 어른들이, 친정 부모가,

“입도 띠지(띠지) 마고 눈도 어두워도 되고, 삼도 눈 어둡고 삼년을, 석삼년을 그래 살아야 된다.”

부모가 이래 타이르거든예. 내일이 시집갈 것 같으면 온(오늘) 저녁에 한 부모가 타이르 니더. 시집 가가 우예(어떻게) 해라 우예 해라. 그래 인자 그 소리 듣고, 그거 이바구 그대로 저거 엄마 말대로 다 그리 뒀는 기라.

[복구 설화 142]

## 호랑이 산신령의 도움을 받은 할머니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잊어봤는데, 대강밖에 모르지. [조사자: 대강 하는대로. 대강 하는대로.]  
목을 해가 갔다 카던가? 목을 해가 딸네 집에 갔는데, 이고 인자 올라가이, 넘어가이, 한  
고개 가이 또 짐승이 나와가, 하나 둘라 카이, 하나 한 덩거리, 산신령님이 나와가,  
“할매, 목 한 덩거리 주소.”  
카이,  
“딸네 집에 가 간다.”  
카이, 여이(기어이) 있는 걸 하나 조뻘따(주어버렸다). 한 등 넘어 가이, 또 하나 나와가  
둘라 카이 또 주뻘따. 매 등 매 등 넘어가이 목을 다 주뻘고 나이, 두 덩거리가 남았는데,  
산신령님이 자꾸 둘라 카는 기라.  
둘라 카이꺼데, 마 다 조뻘는 기라. 내중에는 인자 그거 다 조뻘고 나이 산신령님이 할매를  
물라 카는 거라. 할매를 물라 캐노이 할매가,  
“목 다 너거 쫘는데, 와 할매 내조차 자아(잡아) 물라 카노?”  
이카이꺼데, 짐승이,  
“내 자아물라 카나?”  
카이, 고개를 끄덕끄덕 카이,  
“날로 자아 먹지 마라. 내 딸네 집 가가 오만, 갔다가 오만 뭐 얻어가 갔다 주꾸마.”  
이카이꺼데,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매 딸네 집까지 데려다 주더랴요. 짐승이.  
옛날에는 산골 이런 데 만날 걸어 안 땡겼능교. 그래노이 데려다주고. 그래 딸네 집에  
갔다가 올 때, 딸잘애(딸에게),  
“야야 날 떡좀 해가 도고. 여러 덩어리 해가 도고. 저녁에 가다가 산신령님 또 둘라 카지  
싫으다. 가(가져) 가져로.”  
카이, 그래 딸이 인자 떡을 해가 주는데, 가져 오이꺼데, 오미(오면서) 인자 산신령님 있으면  
줄라꼬 가져 오이, 올 때는 산신령님이 안 나와가 몬 쫘다 카는가, 내가 잊어봤는가 모르  
겠다. 그렇다 카는 것터라(것 같더라).

[복구 설화 143]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옛날에 인자 저 시집을 가놔노이, 서방이(서방이) 만날 과거(과거) 하러 서울 간다고, 만날 과거 하러 땡긴다 카디이. 인자 무을(먹을) 기 전신에 없제, 없어도 모르고 마 과거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이래노이, 그래가지고 마 우리 영감을, 신랑을 내빼리뿌고 딴 데 살러 갔더든예.

딴 데 개가로 가놔노이 거 가도 또 그런 기라. 자기 복이 까진지(그까지인지). 그래가 인자 참 들에 인자 피로 훑었는데, 그거로 옛날에 쟁피라(강피라) 했거든예. 쟁피로 훑어 꺼대, 참 본 신랑이 서울 가고, 과거로 가고, 말로 타고 보이, 자기 색시가 참 들에 쟁피로 훑거든.

쟁피 훑는 저 마누래  
오나가나 쟁피 훑네

이러칸다 카고, 그래밖구 모르누마.

[조사자: 그래 그래. 팔자가 그 팔자다.] 예. 자기 복이 까진 모양이라.

[복구 설화 144]

### 세 딸이 말하는 어려운 시집살이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딸 서이가 있는데, 시집을 서이를 보내나노이, 딸이 인자, 딸 서이가 다 못 살겠다 와나노이,  
“니는 뭐가 시가집에, 뭐로 우예가 몬 살겼노?”

이러카이,

“배가 고파 몬 살겠다.”

“그래. 또 니는 변소 몇 번 가노?”

카이,

“하루에 다섯 분 간다.”

카이 당장 후쳐뿌고(쫓아버리고). 그래 둘째딸보고 또 부르이꺼데,

“니는 와 왔노?”

카이,

“눅우가 명주 꾸리를 비라 캐가, 하루에 비라 카이, 하루에 한 개씩 비라 카이, [조사자에 게] 명주꾸리 그 눅우가 그거 비기가 에렵심더(어렵습니다). 한참 가는 때밀에요(때문에요). 그래 명주꾸리를 눅우가, 명주꾸리를 비라 캐가, 아버지요 내가 몬 비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 니는 놔두고.”

막내이딸은 또,

“니는 와 왔노?”

이러카이꺼데,

“나는 일로 시어머니가 너무나 독하게 일로 시키사가지고.”

이눔을, 그 딸도 다부 가라고 후쳐뿌고. 그랬다고 그래밖에 모르겠구만. [조사자: 그래 둘째 딸만 인자.] 그래 안자 둘째딸만 데리고 있고.

[복구 설화 145]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여자가 하나 인자 쇠로 마강(모두) 얻어 모다가지고 에밀레 종을 맨드는데, 그래 인자 쇠 거두로 댕기는데, 아줌마가 하나 머슴아로 업고,

“쇠도 없어 못 준다. 나는, 이 중아 나는 아무것도 줄 거 없다. 우리 아무끼 주까?”

이카며 둥거덩이를<sup>4)</sup> 했거든예.

그러니 인자 쇠를 거다가지고 종을 맨드이 암만 해도 소리가 안나예. 그래가지고 이 아로 갖다 열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사다가 열어가, 한 때 뚜드리나이 그래 ‘에밀레 에밀레’ 카대.

그 종이 옛날 일본(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안 카능교. 종. 도드리<sup>5)</sup> 가다가 바다 빠져 뵈다 카는데, 바다 암만 찾아도 없다 카대. [조사자 웃음]

4) 아기를 어르는 시늬를.

5) “도로 가지고”의 뜻으로 말한 듯함.

[복구 설화 146]

## 쌀이 나오는 구멍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저 경산 와촌면이라고 신령 있는 데가 절이 있거든요. 돌꾸무지라고 있구마. 그 절이, 참 절에 갈라 카몬 아주 첩첩산중으로 걸어가야 됩니더. 그런데 질도 푹 요거만 하더만은. 내가 한 분 가이꺼네. 산 속을 가만 그 뒤에 청시기<sup>6)</sup> 푹 우리 댕뿔매이로<sup>7)</sup> 그래 빠이 지단(긴) 기 있구만은. 절이 짝매난데(조그만데), 거 스님도 어디 갔부고 없고, 우리 다섯이가 기경(구경) 하러 갔는데, 학생, 저 이래 참 한 세가 마이( 많이) 뿔으몬 한 삼십 뿔을 기고, 그런 사람이, 청년이 하나 있더라. 있는데,

“아저씨가 와 이래 혼차 와있는교?”

이러카이,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그 와가지고 인자 나술라고(낮게 하려고) 약 묵고 있다 이카대. 그런데 고 뒤에 청시기 인자 댕뿔매치로 짝 있는데, 청석 앞에다 절로 지어 뿔거든예. [조사자: 청시기라는 게 큰 돌?] 예, 청석, 방구. 예, 큰 기 있는데.

구영이(구멍이) 푹 얼마났고? [둘째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잡으며] 요것도 안 된다. 요렇 대요. 뿔심더. 보이커대, 요런 데 고게 옛날에 쌀이 한 개씩 두 개씩 푹푹 흘렀다요. 시님이 (스님이) 그 쌀 받아먹고 명을, 인자 산에서 솔잎을 뜯어 묵고, 썩도 뜯어 묵고, 생쌀 그러 나오는 고거 묵고, 이러구로 명을 달고 살았다 카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놈우 쌀 마이 나오너라.”

이러 카매, 뭐 쇠라 카든가 꼬쟁이로 가지고 콧 썩시뿔네. 마 하낫도 안 나왔다 카대요. [조사자: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던가베.] 예. 구영이 요래 있디요. [조사자: 스님이 욕심이 좀 많았뿔다.] 예. 그리 욕심이 많으몬 실물로 가고. 그 절이 있음더. [조사자: 경산 어디라고?] 경산 와촌 넘어가모 신령이라고. [조사자: 신령.] 신령 가모 오방나한전을 지내가지고 그 우에 올라가모 아주 첩첩산중이라. [조사자: 그 무슨 절인고? 오방나한전 지나자 무슨 절이라?] 돌꾸미절이라. [조사자: 돌꾸미절.] 돌꾸무절.

[복구 설화 147]

## 계모의 모함에도 살아난 전처 딸의 복수

6) “천석이”로 큰 바위의 뜻인 듯함.

7) “큰 바위처럼”의 뜻인 듯함.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옛날에 계모가, 아주 옛날 양반의 집안에 딸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씨가 죽어뿌니나노이 계모를 들렀거든요. 들라나노이, 참 이거 별당 안에서 만날 공부하고 베나 짜고 처자가 그랬는데, 저 아버지는 서울에 과계 하러 갔부고.

거 인자 계모 들왔는데, 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머스마 하나 있고 이런데, 하도 계모가 몹시 해사가지고 만날 연당 안 안쪽에 베만 짜고, 안자 공부만 하고 이런데, 글만 보고 이랬는데, 그래 인자 저 아버지는 서울 과계 하러 가뵈는데, 이 여자가 만날, 남자가 참, 계모가 만날 퍼떡하몬(여차하면) 밥을 역부로(역지로) 먹있어예.

먹이가지고, 그거로 키아가지고 엄청시리 키아가지골랑 자기 영괸이, 신랭이 서울에 과계 하러 가뵈고 나이커데, 저 옛날에 기와집에 돌매물이 올랐거든요. [조사자: 돌 매물?] 지봉케(지봉에). 기와 이기 났는데 돌 매물이 올랐거든요. 그거로 가지고 솔로 해 영는(넣는) 기라. 계모가. 솔로 해 영어가지고 놓고 그 뚜께비로(뚜꺼비를) 베끼가지고(벗겨서) 인자 솔로 어구야(매우 많이) 먹이놓고 뚜께비로 뵈끼가지골랑 뵈가이(발갈게) 베끼가지고, 마 주우(중우, 즉 바지) 가래이 안에 자는 데 갖다 영어 뵈어예.

그래 영어 놓골랑 자기 신랑 인자 과계 하고 올 때 되나이 그래 영어 놓골랑, 지 인자 술이 깨가 일어나 뭐가 벌거이 주우 가래이 턱 널찌대, 그래 조올라(주올라) 카이 계모가 퍼떡 조오가 가져가뵈는 기라. 그리놓골랑 인자 딸로 모함을 덮어씌우는 기라.

“양반의 집안에, 정승 집안에 그 딸이 남우(남의) 남자캉 그거 해가지고 접촉해가 아 낳아가지고 내가 갈무리해 뵈다.”

카매, 그걸로 처매 밑에 영어 뵈, 갈마이 해가 처매를 턱 덮어가 갈무리 해뵈가 있다가 신랑 와노이 썩 내밧다가(내밧었다가) 썩 이리 영어뿌는 기라. 옛날 남자들은 등신이라. 와 뵈앗아가 안 뵈는동 몰라. 이바구라 노이 그렇지 싶어.

그래가지고 그러니 인자 넘사시럽다고(남우세스럽다고) 딸로 짝두에다가 목을 쳐가 직일라고, 아바씨가 짝두 딸로,

“목을 대라.”

카이꺼데, 계모 낳은 아들이 절대 저거 아버지를 말기는 기라.

“아버지요, 내 말 들으소. 아버지요, 내 말 들으소. 내가 누나로 델고 가가지고 어느 못에 가가 밀어 영어뿌고 오마. 작두 하는 거보다 안 낫는교?”

이 카거든. 그러카이꺼데, 그래 인자 아들 말로 듣고 있이이, 동생이 델고 가가 저 첩첩 산중 골짜 큰 못둑에 가가지고 열매나 울고, 저거 누부로 보고 열매나 울고,

“누부야 누부야 저게 살거들랑 언제라도 나캉 만나자.”

이 카매, 그래가지고 데비갔다네(데려갔다네). 이 여자가 또 인자 못에 안 빠져 죽고 깔죽

(가족) 꼴짜기로(꼴짜기로) 드가이꺼데, 이런 꼴작에 집을 지어가지고 공부를 하더랴요. 옛날에 남자 혼차서러 밤에 공부를 해샀더랴요. 글로 작작 일러사이커데(읽고 있는데), 그 집에 가가 인자 빙빙 문 있는 데 가가 도이꺼데(도니까), 그 사람이,

“짐승이거든 나가고, 사람이거든 들온너라(들어오너라). 와 그래 백에(밖에) 도노?”

이러 카이꺼데,

“사람이길랑 오지 짐승이 뭐하러 오겠노.”

고 이러 카이꺼데,

“들오라.”

고 카거든. 들오이 참 마 인물도 좋고 거리도<sup>8)</sup> 좋고 이러커데, 신랑도 공부하는 사램이 인물도 좋고 거리도 좋고 참 양반의 자석이고 이런데. 그래 마 둘이 거 있다가,

“이만저만 하고 그래 됐다.”

카이꺼데,

“공부하는 데 있으라.”

카더랴요. 그래가 둘이 있으이꺼데, 그러구로 마 얘기를 둘이를 낳았어예. 머스마 둘이를 낳는데. 그래 저거 집에서, 신랑 집에서 장개 보낼라고 오라 카는 기랴요. 오라 카이꺼데, 이 아신랭이, 거짓말이지 거 참말로 그랬겠능교? 그래가 델고 오라 캐가지고, 딱 머스마 둘이 하고 여자하고 둘이 딱 델고 가가지고 저거 아부지 모르거로 연당 안에, 별당 안에 딱 갈무 해놓고 저 아부지가,

“니 장개 가야 된다.”

이 카이커데, 그래 저 아부지한테 그거로서 하는 거라.

“아부지요. 아부지요. 내 말 한 분 들어보소.”

이 카거든.

“해다 봐라.”

이 카이커데,

“장도 묵은장이 맛있는개? 햇장이 맛있는교?”

이래 묻거든. 아부지가.

“야야 이놈의 손아, 짙은(깊은) 맛은 묵은장이 낫고 야푼(얇은) 맛은 햇장이 안 낫나.”

이러 카이까네, 뭐도 뭐라 카더라, 뭐도 짙은, 조금 저 ‘묵은 기 낫나 햇기 낫나’ 카이,

“야야 그것도 그렇다. 묵은 기 낫다. 짙은 맛에는.”

“사람도 짙은 정 붙어노모, 짙은 정이 낫능개? 새로 정 붙이는 기 낫능개?”

이러카이꺼데,

“사람도 정 붙은 짙은 정은 안 낫겠나.”

저거 아부지가 선밴데(선비인데) 그카이꺼데, 그래 인자,

8) 허우대, 즉 “몸가짐도”의 뜻인 듯함.

“그러면은 아버지요, 내 시킨대로, 내 의견대로 하면 되는데요?”

카이,

“된다.”

카거든. 그러면 내가, 그 장개갈 처자로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머스마 둘이하고 여자하고 인자 그제서야 딱 내놓골랑,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내가 그걸 할 챔이이, 아버지요 그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사문 돼지, 이깃는 사람 데리고 살면 되지요?”

이카이,

“된다.”

카거든. 그래,

“물로 칼로 버직에다(바지게에다) 담아서 칼로 빈 듯이 이고 마당을 도라.”

카는 기라요. 멧 바쿠로(바퀴로) 도라 커이, 큰어마씨는 먼저 왔는 여자, 아 낳은 여자는 물 한 방울도 안 넘치고 그냥 이고 돌고, 두 분째 온 여자는 다 출렁겨려뿌는 기라. 그래 인자,

“아버지요, 나는 이 사람강 사지, 저 사람강 안 산다.”

고. 저 아버지도 막 암 말도 안 하고, 그래가 잘 살았는데. 딸하고 잘 살았는데, 인자 딸이 저거 아버지 우에 됐는고 싶어가 인자, 동상도(동생도) 그래가 날로 살려쫘시(살려주었지) 싶어가, 친정에 인자 말로 타고 신랑각시 갔거든예. 가이꺼데, 모르더라누마. 말짱 다 망해가지고 인자 아무 것도 없고, 마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방에 가이 먼지가 이래 있어도 씨지도(쓸지도) 안 하고 그양 있고 이렇더랍니다. 저 아버지도 나이 많고 저거 저 엄마도, 계모도 나이 많고. 딸인 줄 모르고,

“그런데 하룻밤 요 자고 가문 안 되나?”

카이,

“하이고 우리 집에는 잘 데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딸 잤는 방 거가 문지가(먼지가) 마이 있는데.”

카매,

“빛자루로 찢어가 자라.”

이 카더랍니다. 그래가 인자 찢고 자매, 베틀도 아익(아직) 그냥 있고, 그래가지고 저래 보이 그래 눈물이 안 나겠능교? 아버지도 불쌍코 이래가, 그래 인자 팬지를(편지를) 찢는 기라요. 동상한테. 계모한테 낳는 머스마지만은 안 직이고 나뒀으이. 그래가 인자 팬지를 찢가,

“아무개 아무개야, 내가 누부개(누나가) 아무 덕에 살아있으이, 저 내가 한 번 아버지하고 데릴러 오꾸마. 아무 날 내가 올 챔이이 동상 집에 있거라.”

이러카거든. 그래가 인자 참 내우간에 말을 타고 가는데, 인자 다른 사람은 다 그저 가매를 만들어가지고 땀는데, 엄나무를 구해가지고, 엄나무 가매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또 딸이 가지고 오는 기라요. 가 오가지고 아버지하고 지 동상은 말을 타고,

“아버지는 가마로 태아가 가고, 계모는 거 타라.”

카는 기라. 엄나무 해난 거. 거 타고 보이, 오매 아프, 아이구야 카고,  
“아프다.”  
카이꺼데,  
“니 저 지 밥 먹인, 저 뚜끼비 밥 묵어 키얏는 그 지(죄) 아이가.”  
또 아프다 카이꺼데,  
“너 엄나무 까시가 내 찢른 그 죄 아이가.”  
딸이 그 카대. 다 했는구로 그래 그 카매, 데리고 와가지고.

[복구 설화 148]

### 재산 뺏으려고 동생 죽이려고 한 누나

김순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백양경로당]

옛날에 영천 원국이라고 있거든예. 거기 인자 할매가, 아지마가(아주머니가) 딸 마지(끝으로) 놓고는 알라를(아기를) 다 자꾸 없애뿌고, 끝터이 막내이를 하나 아들 붙잡았거든예.

열 다섯살로 났는데, 그래 저 아버지 저 엄마 나이 많애가 죽어뺏는 기라. 논은 열 열 마지기 있었어. 있는데, 그래 인자 갈 데도 없이 저거 자형이 데리고 갔는 기라. 데리고 가가, 저거 자형, 누부 낳은 아들캉 같이 서당에 땡겼는 기라. 옛날에 서당에 안 땡겼습니까. 서당에 땡겼는데, 공부하러 땡겼는데, 그래 인자 저거 자형짚애 저거 누부가 자꾸 저거 처남으로, 저거 동상으로 자꾸,

“없애뿌자.”

카는 기라. 저거 자형은,  
“안 된다.”

캐도 누부가 자꾸 그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어데 가도 처남을 못 미답어가지고,

“처남 처남, 내 자고 오는데. 올 저녁엘랑 니 잤는 자릴랑 니 누부.”

참 저거 뭐고, 누부 낳은 아들 뭐 택이고? 외삼촌 안 되나 그제? 아로, 니, 지는 인자 잤는 자리는 고 아를 갠다 눅히고, 아 눅였는 자리는 지가 자고.

옛날에 호롱불 켜놓고 안 자는교? 호롱불 꺼뿌고 자몬 어둡단 말이다.

“뭐 하든지 고래 자거래이.”

하면서, 저 자형이 시키주고 갔는 기라예. 그래가 참 그래가 잤다. 자고나이, 아이 동상 직인다 카는 기 지 자석을 직이뺏어. 직이가지골랑 짚동 새에 갖다 열어나뺏는 기라. 그래

아직에(아침에) 날이 새고 보이, 동상은 나오는데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로 남자가야 안 살고 이혼하고 당장 나가라고 후쳐내뿌대. 돌아댁기다가 죽었다 카든가, 그쪽 끄테이느(끝에는) 잘 모르겠다.

[조사자: 그 와 그래 죽이는고?] 아, 재산 뺏을라고요. [조사자: 아, 논 남아 있는 거 그거 뺏기.] 예, 그거 뺏길라고.

[북구 설화 149]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봉임(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저 눈 먼 봉사 시어머미를 놔두고, 아들한테 마누리한테 잘 부탁하고 왔거든. 돈을 줌서러, “어머이 잘 모시라고.”

그랬는데, 끼니마당 고기를 해줘. 고기도 맛있는 고기를. 묵으면 맛있고, 묵으면 맛있고. 맛있어. 살이 통통하게 찼거든. [청중: 이야기가 두 가진데 그래.] 맛있어서러 저 어찌 맛있던지 아들 오면 자랑할라고, 전에는 죽순, [조사자: 아아, 대나무로 그래.] 여다 떠들고 끼니마다 하나씩 여났어. 그거 맛있는 고기를.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안 묵고 아들한테 자랑해야 쓰것다고. 자랑해야 쓰것다 그라고 열어났더니 아들이, 아들이 오더라요. 아들이,

“좀 어머니 잘 모셨냐?”

고. 어머니가 살이 보양게 찼갖고 얼굴이 좋거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야야 뭘 고기를 끼니마다 맛있는 고기를 해줘서 내놓던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살았다. 이것 좀 봐라.”

“어머니 거시랭이요(‘지렁이’의 사투리)!”

그랑께, [조사자: 꺼시랭이?]

“에유!”

하고 눈이 똑 떠부렸어. [일동 웃음]

[북구 설화 150]

### 시어머니보다 대가 센 며느리

박외선(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옛날에 시어머이가 너무 독하던지 메느리 몬 거느리는 기라요. 메느리만 보몬 쫓가뿌고, 쫓가뿌고 몬 거너이까네.

그 이우지에(이웃에) 독한 처녀가 하나 있었어. '내가 가겠다' 이래 됐어. 그래 가서 밥을 해 준다 카는데 마 밥을 마 꼬동밥을 해가 딜랴어(드렸어). 꼬동밥을 해가 딜라이, [청중: 된 밥을 해가 딜랴다.] 시어마이가 마 언캉(워낙) 집에서 조지사노이(나무라니) 말로 몬 하고 기가 차가 근근히 참고 있는 데다가, 그 이튿날 또 김을 끊어가 딜룬다 카는 기 바짝 끊어가(구워서) 마 묵도 몬 하구로 딜랴어. 그래노이,

“메늘아 메늘아 김은 좀 먼 불에서 끊어야 된다.”

이래 됐어. 그래 노이 그 이튿날 아침에는 부엌에 불로 대놓고 삼작거리 가서 김을 들고 있는 기라. [조사자: (웃음) 메느리가 어허.] 예. 그래,

“메늘아 와 그라노?”

카이께네,

“김은 먼 불에서 끊어야 된다 캐서 그런다.”

카이, 시어머니가 보다 보다 기가 차서러 마 방망이로 가지고 장독간에 가서 단지로, 새끼 단지로 뚜드리(두드려) 부수니까 기가 차가, 그러니 며느리가 쫓아 가가지고,

“어머이 풀(팔) 아픈데 내 뽀수께.”

카면서 마 몽디로(몽둥이로) 가지고 마 도가지부텅 썰리 뽀수더란다. [조사자: 어허 그래 메느리가.] 예. 그래노이 사랑방에 시아바지가,

“며늘아 오라.”

카더란다. 그래 가이꺼네,

“인제 시어마이 인자 후아잡아가지고(휘어잡아서) 우리 살림 살 사람이 들어 왔으니 다 맏긴다.”

카면서 고방 췌대하고(자물통하고) 전부 열쇠하고 다 맏기더란다. 인자 대찬 메느리가 들와가, 시어머니 이겨내고 살림 살겠다고. 그래 그 메느리가 대가 차가 마 시어마이도 그래 마음 대로 몬 하고.

[복구 설화 151]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박외선(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피 그거 늘어놓고 또 훑으러 갔어 어마이는. 또 훑으러 갔는데, 비가 짜다라 와가 거기 다  
떠내려가도 안내다 봤어. 공부한다고. 자 그런 공부한다고. 그런 얘기라.

[조사자: 그래 안 드다 봐가 우째 됐노?] 다 떠내려 갔지 뭐. [조사자: (웃음) 글 읽는 남편은  
우째 됐노?] 그래가 성공을 했어예. 성공을 해가지고, 과거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노이  
마누라는 남편이 하도 그래서 내뺐어.

내뺐갖고 보이께네 자기 남편이 과거를 해가 왔어.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돌아와  
노이,

“필요 없다. 가라.”

카더란다. [조사자: 필요 없다. 가라고.] 남편을 내뺐리뿌고 갔거든. [조사자: 마 팔자가  
그것 밖에 안 되네.] 그래 고생하고 살았으문 성공한 남편을 볼 낀데. 남편 그렇다고 내뺐  
노이 마 안 받아 주더라예.

[북구 설화 152]

## 전처 자식에게 나쁜 짓을 한 계모

박외선(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전처의 자식은 하도 예비가지고(아위어서) 나중에 조사를 하이꺼네, 꼬치 끈티에다가(끝에  
다가) 머리카락 감아 났어. [조사자: 꼬치 끈티에다가?] 예. 포 안 나그러 머리카락 가가 얼른  
보문 모르는 기라. 그래가 아를 노라이(노랄게) 콜코리<sup>9)</sup> 마르더랍니다.

옛날 의붓어마이 말도 마라. [조사자: 그럼 그 애를, 본처 아를 머리카락으로 어데 꼬치를  
이래.] 야. 감타났어(감아 놓 았어). 하도 애비가지고 조사를 하이카네, 꼬치 끈티를 머리  
카락 감아뉘노이. [조사자: 꼬치에다가.] 예. 그래 머리카락 가가 포 안 나구로 얼른 보만  
모르는 기라. 그래 아로 노란이 콜콜이 마르더란다. [청중: 그래. 옛날 의붓어마이 그거  
말도 마라.]

9) ‘꼬랑꼬랑’의 뜻인 듯함.

[복구 설화 153]

## 대를 이어 복수한 원혼

박외선(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옛날에 저 과거 보러 가는 고갯길에 주막집을 지었어. 주막집을 지어놓고 인자 내우간에 (내외간에), 젊은 내우간에 거 술장사를 했어.

술장사를 하는데, 옛날 고 과거 보러 갈라 카면 부잣집 아들 큰 사람 간다 아가. 부잣집 아들이 고 가문 고 주막에 들이야 되는 기라. 그래 가는데 마 부잣집 아들로 마 직이뿌고 돈을 훔치고, 그래가 또 과거보러 가는 사람 부잣집 아들 확 죽이뿌고 돈 훔치고.

한 사람은 여자가 저거 남편 찾아가 또 그래 가이꺼네, 돈이 많거든. 그래이 여자 직이 뿌고, 서이 죽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이, 자석을 낳아가 공부를 시켰어.

공부를 시키가지고 아들하고 딸도 참 인물도 좋고 잘하고, 아들 둘이가 참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그래 세월이 가가 과거 보러 갔어. 과거를 봐가 큰 아들 작은 아들 과거 다 걸리, 어사 출도 다 걸렸어. 딸도 예쁘고, 그래가 한 날 과거 보고 말로 타고 왔어. 말을 타고 마 출세했어. 그래 타고 오는데, 큰아들이, 큰아들이 오는데, 딸이 참 옷을 잘 지어가지고,

“참 오빠 잘 왔다.”

카고, 옷을 지어가지고 또 작은 오빠 주고. 싹 그래가 서이가 다 딸도 아들 둘이하고 마 저거 아버지 앞에서 말을 타고 그냥 탁 쓰러져뻤는 기라. 작은 아들 큰아들 다 죽고 딸도 마 한참에 다 죽었는 기라. 그래 그 고을에 어사출도한 큰사람이가 염라대왕 찾아갔어.

“이 집에 이런 공부로 잘하고, 과거 보가 출세한 사람 와 둘이나.”

염라대왕을 보고,

“이런 사람을 와 다 잡아가노?”

카이꺼네,

“그 사람 애가 옛날에 과거 보러 가는 사람 돈을 훔치가 자기 자석을 공부를 시키노이 그 자석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원수 갚을라고, 그래가지고 한날한시에 딸하고 아들 둘이하고 한참에 다 죽어뻤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조사자: 그게 자식까지 내려가뻤다.] 그래 원수 갚을라고 그래, 머리도 좋고 잘해가지고. 그래이 그런 한을 자기가 풀 수 없다 아이가, 평생. 한때는 잘했는데 고만 팍 죽었다. [청중: 도둑놈이 돼가 돈을 뺏았응게 지는 어째 사는고?] 돈을 뺏었고 직이고, 그 주위에 보이꺼네, 굴에다가 저 남자 둘이 직인 거 하고, 여자 직인 거 하고 시체가 하낫도 안 썩고 고대로 있더라.

[복구 설화 154]

### 염라대왕도 감동한 효녀

박외선(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자기가 안 가고 대로 갈 사람 있으면 보냈다 카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집 대감님이가 지로 잡으러 올 김데, 식구들한테 물어이 아무도 안 갈라 카거든.

아무도 안 갈라 캐서, 저거 딸, 법자 딸이 하나 있었어. 그래노이 지가 갈라 카더래. 법자 딸이 지가 갈라 캐서, 참 그날 자기 입던 옷을 입히가지고, 저승차사 더불러 오는, 입히가지고 자기 자리 거 뉘피(눅혀) 냈어.

그래 오디만은 그 사람 덕고(데리고) 갔어. 덕고 가서 보이꺼네, 그 사람 아이고 딸이거든, 법자 딸이거든. 그래가지고,

“니는 올 때 멀었다. 가라.”

카이께네, 뭐 말도 못하고 절대로 안 갈라 카더래.

“절대 안 간다.”

카고, 지가 저거 아버지 대신 왔다고 캐서 안 갈라 캐서, 안 갈라 캐서러 염라대왕이 너무 효자라서러 그 법자 곤치고, 말 태아가지고(태워서), 그래가 저거 아버지 이십년 더 살게 하고. 법자 참 인물 좋다고 말 다해가지고. 그래 인자 저거 집에서는 그렇다고 병풍 뒤에 나논께, “아무래도 딸은 죽은 기고 인자 초상 칩시다.”

카고, 팽풍 뒤에, 팽풍 그대 치고 초상 칠라고 보이꺼네, 법자가 이상쿠로 옷도 잘 입고 말로 태아가지고 일어나고, 저거 아버지 이십년 더 살고. 너무 효녀라서러.

[복구 설화 155]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윤교회(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아들은 돈 벌러 가고 없는데, 저게 하도 가난해가이고 고기는 못 사드리고 메느리가. 지렁이를 잡아다가 만날 때때로 해준께, 시어머니 봉산데,

“아이구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맛있노.”

카면서 한 마리 자리 밑에 들씨고 넣고, 또 먹어 보이 때마다 해줘가이 먹어보이 맛있고, 또 때마중 또 줘가 자리 밑에 넣고. 인자 아들이 왔어.

“야야 아들이, 이거 봐라. 며늘아가가 고기를 해줘가 이래 먹었는데, 이거 무슨 고긴가 봐라.”

이러카이카,

“아이고메 지렁이네.”

간께, 인제 어마이가 눈을 퍼떡 뜬 기라.

[북구 설화 156]

### 시어머니를 살찌워 팔려고 한 며느리

윤고희(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하도 메느리가 시어머이로 안 좋아 해서러, 못 먹어가이고 마르거든. 그래 인제 신랑이 그랬어.

“우리 어머이 살 좀 찌아가 팔아먹자.”

이랬거든. 그래 놓은께, 메느리가 좋은 기라. 시어마이 없은께. 그래가이고 잘해 먹있어 시어머니를. 진짜로 통통하이 찌놓이 일을 잘하거든. 시어마씨가 살이 통통하이 찌나노이.

“아이고 어머이 못 팔아먹겠다. 일도 잘하는데 인제 마 안되겠다.”

이러께,

“그러면 놔두쇼.”

일을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살을 찌아논께 그래 찌더라거대. [조사자: 밑어서 인자.] 밑어서 그랬는데. [조사자: 밑어서 빨리 팔아몰라고 인자 살을 찌아서.]

[북구 설화 157]

### 효심 깊은 까마귀

윤고희(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까마구가 새끼를 알을 까가 낳아 가지고 새끼를 인제 부화해가지고 인자 깻잡아. 까가이고 인제 물어다 어미가 키우잖아요? 새끼를. 지가 날라 대니매 주우(주워) 먹을 만큼 키아 놓으문, 이미가(어미가) 봉사(봉사)가 되는 기라. 이미가 눈을, 눈이 딱 붙어버려. 못 봐.

못 봐가이고 새끼가 또 이미지를 갖다 물어다 먹이는 기라. 물어다 먹이가이고 한 보름까 지나 있어. 그래가이 그때까지 주우다 먹이만 눈을 딱 뜨는 기라. 그래 저 저게 ‘까마구 새끼가 부모 공하는 거는 까마구 새끼뿐이다.’ 이러카거든. 그래 된 기라. [청중: 제비도, 제비도 놓어지면 새끼가 어마이 물어다 먹이더라.] [조사자: 제비도.]

[북구 설화 158]

###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부[산삼동자]

윤고희(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너무 효자라서 아가 애빈데,  
“우째가 낫겠노?”  
카이께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이야 부모 병이 낫는다.”  
캐서, 이래 너무 참 부모한테 효도 했는가,  
“자식은 또 놓으문 있는 기고, 그래가 해 주자.”  
개가, 자식이라고 삶았는데, 너무 부모한테 효도를 해놔노이, 둘러대가 그래 인삼이 됐다.  
인삼이 변해가지고 와서, 기기 아이라 삼이 들어왔어. 그래서 너무 효자가 돼노이. 그래가  
그래면 자기 자식은 살아 오더라 카대.

[북구 설화 159]

### 수숫대가 빨간 이유

김봉희(여, 1936년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어두워서 어마이가 김매러 등 넘어 김을 매러 갔는데, 어머니를 호랑이가 잡아먹고 와가고,  
“문 좀 열어도가. 문 좀 열어도가.”

그렇게,

“우리 엄마 손이 아이라.”

한끼,

“내가 오늘 김 매느라고 손에 풀이 묻어서 그렇다.”

그런 것도 다 그전에 다 옛날 거로 다 잊어먹었다.

[조사자: 그래서 우째 됐는데?] 그래가이고 두 남매가 무섭아가고 새 문을 열고 가가고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

나무에 올라가서 본께, 거 치다보고는 [청중: 그거는 책에 나와가 안 있나.] 내려오면 잡힐 기고 못 내려 와갖고 뭐, 그랬다고 뭐 그래 옛날에 뭐 이야기 그래 해삿대 할머니들.

[조사자: 안 잡혔는가요?] 잡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는 잡아먹고 와가고. [조사자: 아하, 잡아 먹고 와가지고 남매까지 잡아 물라 하다가?] 그래가이고 손을, 참 문좀 열어라하니까, [청중: 저 엄마가 갈 때 애들 놔두고 갈 때 당부를 했어. 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래 참 호랑이가 와가지고 엄마 흉을 내면서도, 그래도 엄마다 엄마다 하면서 문 열어 달라고 그래 자꾸 졸배이치고(조르고). 그래 책에도 나왔어. 젊은 사람들 다 아임시키더(알지 싶다).] [조사자: 아이고 아이고. 아는데 우리 어무이 이야기로 담고 이래 책을 내. 그래 그래서.] [청중: 그래 젊은 애들 다 아는데 뭐 하라고 그래.] [조사자: 그래가지고 뭐 올라갈라 카이케네, “우째 올라가몬 되노?” 하니까네, 참기름 묻히고 올라가몬 된다고 호랑이가 참기름 묻히고 올라가다가 마 떨어져뿔다대.] 떨어져가 죽었다 카대. [웃음] [조사자: 떨어져가지고 어데 이래 수수밭에 떨어졌뿔어.] 그래 수수 피가 그 피라. 호랑이 피라 카거든. [조사자: 그래 그래. 수수대가 빨간 기.] 이야기를 하다 본께 그렇네.

[복구 설화 160]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유남(여, 1932년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꽃감(꽃감) 얘기가 와 그렇노 하모, 애들이 우문(울면) 옛날에 마이 울었잖아요. 그래 인자 모이를 주면,

“꽃감 줄게.”

호랑이가 밖에, 문 앞에 와가 듣다가,  
'아 꽃감 이게 참 무서운 게구나. 울음 딱 그치는 거 보이께네.' 그 생각을 하고 꽃감이  
그래 무서운. 그래 꽃감 지내는 기라. 호랑이가 그래 겁을 냈다 하대. 그 말이. [조사자: 그래  
도망가뵈다.] [웃음]

[복구 설화 161]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유남(여, 1932년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고려장이 왜 없어졌는가 하문, 그런 소리 얼쩡(언뜻)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몰라도  
손주가 할아버진지, 옷대 할아버지로 인제 아버지가 그래 모셔다 놓고, 지계를 인제 가져  
왔는데, 아 가져 왔는데, 아버지가 지계로 안 가져 가자 손주가,

“아버지 이 지계를 안 가지고 가문, 내 저 아버지 모실 때 내가 지고 가야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 고려 시대가 차츰 차츰 없어졌다. 그런 소리 쪼금 들은 거 같아. [청중:  
자기는 부모를 내뺨리고 와도, 자기 갖다 내뺨릴라 카는 거는 겁이 났던 모양이지.] [조사자:  
그렇지.]

[복구 설화 162]

### 부모를 잘 봉양한 효자

이유남(여, 1932년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효자 아들은 그 부모를 모셔다 놓고, 참 한 달에 한 분이든가, 보름에 한 분이든가 그래  
음식을(음식) 해가지고, 가가지고 갔다.

지내고 동창이 이래 있다 캐. 또 두 분 갖다 모셔났는데, 고새 동창을 해가지고, 내외분이  
말 통하도록 해놓고, 그래 자식들 한 번씩 그래 효자 아들 음식을 해가지고 가문 지내주고  
그랬다. 그런 소리가 있대요.

[복구 설화 163]

## 객귀 물리기

김봉희(여, 1936년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조사자: 객귀 물린다 카는 거 아는교?] 칼로 물 좀 바가지다 뜨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춥고 한증 들고 막 이래 덜덜 떨고 이라마 객귀, 귀신, 객귀가 들었다고 물리내고, 머리끄덩이 요래 조금 뜯어가지고 물에 주(주워) 옹고, 그래가지고 갖다가는 물도 내빼리고 칼도 내빼리고 바가지는 얹어놓고.

그래 칼이 바깥으로, 끄티미가(끝이) 바깥으로 나가면 객귀가 나가고, 들오면 안 나갔다 카고 이랬잖아. [웃음]

[조사자: 객귀 물린 이야기라. 그런데 그게 소리 하는 게 있거든. “에잇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호령을 하거든. 에이 어데 귀신 어데서 오나 카고.] 이름도 알고 성도 안다. 한강 물에 썩 물러나가라. [웃음]

[복구 설화 164]

##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사또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이전에 밥을 이고 갈라카면, 무거바서 이야 주야(머리에 이게 해줘야) 이고 안 가나? 이고 가이까네, 와 가다가 미쳐 오줌을 바빠 못 누가지고, 오줌을 누니까 해필 끼구녕에다가(계구 명에다가) 오줌을 뺐는 모양이라 밤티를 이고, 이고 오줌을 누나놓으이, 마 끼란 놈이 뜨거바 나와가 마 거를 물어뵈다. 물어뿌이까네, 마 죽는다고 고탈을 질러, 사또가 마침 고탈 지내감 서 나발을, 나발로 가지고 지내갔던 기라. 그래 사또가 나발로 줌서, 사또가,

“저 와 저래?”

말 모는 사람을 보고,

“저 와 저라노?”

이러카이까네, 그래 끼가 거를 물어 그렇다 칸께네, 사또가 내려가가지고(내려가서) 마

거다 대놓고 나발을 댄다 불어뿌이, 마 끼가 내뺨뿌거든. 그래 사또가,  
“언제꺼정 내가 사또질로 해도 씹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북구 설화 165]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아주버이가 술로 참 좋아해, 술로 참 좋아해가지고, 술로 묵고 늦가 오는데, 이전에 여여여, 경남 아파트 고 고 끈티(끝에) 그가 참 외졌다. 그 외져가지고 무십았다 (무서웠다) 그. 그랬는데 거서러 오다가 술로 한 잔 무이까네, 마 허치인가, 토깨비인가, 지 눈에 모르고, 마 자꾸 지 따라오라 카고 마, 그래가 마 눈에 끌고 드가고 달고 마, 형견 헤매다가 그래 우째 우째가 집에 와서, 그래 그 이튿날 가보이까네, 지 그 꾸부러지고 마 자빠지고 싸운 덴가 가보이까네, 모지랑 빗자리더라 카대. [청중: 모지랑 빗자리에 피가 묻어 있더라.]

모찌랑 빗자리라 카대. 그 아주버이가, [청중: 고기 푹 토깨비가 되가 밤에 인제.] 마 그것도 모르고 술로 마이 묵어놔 놓으이까네, 그기 허치같이 빛는(보였던) 모양이라. 술로 마이 무놓으이 그래가.

[청중: 마 싸움을 하다가, 마 사람을 어데 나무에 가서 마 빨끈 매놓고 마 이래 오고, 그 다음날 가보인까네(가보니), 참 빗자루 몽디를 묶아놨더라 이 카대.]

[북구 설화 166]

### 착한 일해 명당을 얻게 된 아들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참 거 무슨 노인이가, 그 무슨 이가, 혼자 사는, 제법 아는 노인이 딱- 인자 가이까네, 어두부이(어두워) 잘 데도 없고, 불이 뻥-한데 들어가이까네, 아무도 없고 늙은이 함 혼차 있거든. 함 혼차 있으이까네, 이 늙은이가 저거 아들은 어데 갔는고,

“누캉 사노?”

하이까,

“아들 카.”

“아들은 어데 갔노?”

카이까, 숯 곱으러 갔다 카거든.

“숯 곱으러 가면 언제 오는가?”

“난주 온다.”

카더란다. 그래 늙은이가 가만 보이, 저 노인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노? 점두룩 산길로 와 가지고 우리 집 왔는데, 그냥 지올라카이(재우려하니) 할 수 없이, 지올 수가 없어가, 저녁에 아들 줄라고 놔둔 단지로 굶어가지고, 긍그이(간신히) 보리쌀 쌀 끓이가 살살 씻어가 그 노인을 밥을 한 그릇 해주이, 그 노인도 아들 물 꺼를(먹을 것을) 알지마는 언캉(워낙) 지가 배가 고프니까 묵었다 아이가. 묵고 나이, 인자 아들이 오고 그라는데, 그래 그 이튿날 자고 가면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가,

“그래 내가 밥을 참 잘 얻어 묵었는데 내가 공도 문 하겠고, 그래 엄마가 돌아가시거들랑 그래 이전에는 가마떼기에 싸가 올라가시다가, 저 지고, 지고 가다가 마 어데라도 미끄러지고 엎어 지거나 어쩐기나 그래 그 뚜불 뚜불 뚜불 구불라 가거들랑, 마 그 자리에 엄마를 물어뿌라”

그라거든. 그래 인자 얼마있다 마 저거 어매가 죽어서러, 그래 인자 그 엄마를 업고 지게 예다 담고 지고, 그래 산떼꾸데기 이래 길이 있나 이래 언덕에, 산언덕에 올라가이까네, 마 발이 미끄러져가 마 펍 엎어지가 마, 지 어매가 뚜불 뚜불 구부라가지고 마, 물이 찌찌기리 하는데 마 펍 엎어지거든. 마 거다 물어뵈다.

그 묻고 나이까네, 마 아들이 숲도 곱아도 잘 풀리고, 숯도 잘 곱아지고, 오만 기 다 잘 되거 든. 그래 한번은 떡 산에 가이까네, 풍수가 오디마는.

“하, 저, 뭘 저저 누긴고. 참 뭘 저기 까제설인데, 까제는 물에, 까제설인데, 같은 값이면 엎어져가 묻었으면 참 좋을 낀데.”

이리 카거든. 그 저저 어매가 엎어져가지고 그짜다(그곳에) 묻었는데, 그래 지가 복을 지야 지가 받지, 지 복 안지면 지가 안 받는 거라. 그니까 그 아들이 할매가 복을 지가지고, 배고픈 사람 밥을 주가지고 그래 복을 지가.

[복구 설화 167]

## 내 복에 산다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내 복에 내가 산다 카만. 그 옛날에는 호불, 그 일찍이 아들 둘이만 놓고 혼자됐는데, 그래 아들 둘이로 장개를 다 보냈는데, 큰아들으는 마 논 쪼깨이 가지고 나물을 해가 가면 팔리고, 이래가 그 공으로 묵고 사는데, 둘째아들으는 쪼매 다같이 마 이래 마 이래 주도 아무래도 못사는 기라. 만날 몬 살고, 또 뭐, 몬 살아서로 이라이까네, 그래도 뭐 인자 보이까네 또,  
“행님아 몬 살겠다.”

캐서,

“배고프다.”

캐서, 오고 하이까네, 생인들(형인들) 뭐 줄 끼 있나? 그래 인자 마 이래 같이 거둔다가, 거둔다가, 마 동상을 마 지 살던 집으로, 살던 집을 다 주뿌고, 그래 다 주뿌고 인자 가서,

“마,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께. 동상 니는 내 살던 거 이거가 살아라.”

카면서 가이까네, 그 동상이가, 저거 세이는(형이) 인자 아가 둘이고 저거 내외가 너이 갈라 카이, 저거 어매가 있거든.

“엄마는 내 자리 잡거든, 내 자리 잡거든 모시러 오끼요. 엄마는 집에 동상한테 좀 있으소.”

하이까네, 저거 어매가 함부래 안 있을라 카거든.

“내가 니 따라 갈란다.”

카면서, 그래 인제 저거 어매를 데꼬 가이까네, 이전에는 산길로 산길로 가이까네, 암만 걸어도 해가 질어도 참 기다 어둡어. 어느 동네 점도록 걸어가다가 어느 동네 드가 가이까네,  
“하룻밤 자고 가자.”

카이,

“다 잘 데 없다.”

카고. 한 집에 가이,

“저 부잣집에 가보세요.”

이라거든. 그 가이까네,

“자고 가자.”

카이, 처음에는 방이 없다 카는데, 그래,

“헛간에따나(헛간이나마) 하룻밤 재아주소.”

이래 카이까네, 그래 마 그 헛간에,

“그럼 그 헛간에 거 자라.”

고, 이러 카이칸, 그 인자 잘라꼬 떡 보이, 주인 영감쟁이가 떡 나오디마는,

“아, 노인네가 계신데.”

저거 머슴을 시키가,

“저 바아, 저 불 안 켜 바아(방), 저 짚 두어장 떼가 불로 열어(넣어) 주라.”

열어주면 그래 저 노인네가 계시가 안 되겠다. 불로 열어주서러 그래 인자 식구 다섯이가 인자 자고, 자고 나이까네 그 주인 영감재이가, 주인 영감재이가 내려오디마는, 밥을, 아츰을 잘 채리주서 묵고 인자 집에 갈라, 나올라 카이 그래,

“우째 나왔는고?”

묻거든. 그래 묻건데 그래 여차여차 하고,

“동생이 몬 살아서러, 나도 근근이 사는데, 하도 동생이 몬 살아서 마, 내 살던 거로 다 주고 우리는 우째도 우리 힘대로 내가 살아볼라꼬 왔습디더.”

이러 카이까네,

“방만 하나 있으면 내가 우째도 살겠거마는.”

이러 카이까네, 그 영감쟁이가,

“저 집이 하나 있는데, 빈집이 하나 있는데, 거는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 칸다. 거는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안 사는데 몇 이가 드가가 죽고 나오고 몬 사는데.”

카이까네, 마 거 좋다 카거든.

“그 기라도 좋다.”

카이, 그 집에 가이까 사악한 벗집이 너무 좋거든. 근데 인자 사악한 저 집에 들어가이까네, 저거 마누래는 물로 떠가 소지(청소) 다하고, 지는 나무 해가오고, 그래가 인자 학-닭아가, 그래 나무 해가 오는 그거, 집에서 살 쓰면 곡식 썩는다고 가(가져) 가니까, 밥 해가 묵고, 방 늙어 자이까네, 뭘시 마 밖에서 마, 밤중 되니까 밭에서 마,

“와시라, 와시라, 와사. 바양에(방에) 저 놈 끄잡아 내가 저놈 직이라.”

꼬, 마 전시이(전부) 마 토깨비가 나고 마,

“바양(방) 저놈 끄잡아 내라.”

꼬, 마 굷이 빠졌거든.

그래가지고, 그래가 인자 문걸이를 딱 잡고 팔팔 떨고 있으이까네, 그래 앞에 사람은 마 그럴 때 마 기절해가 다 죽어뵈는 기라. 이 사람들은 마 가만 문만 잡고 가마이 있으니까, 그래 어느 정도로 하고 나이까, 닭이 꼬꼬 울더라 카대. 아 닭이 꼬꼬 우이까네, 마 마 마 실실 가더라 카대. 저 어데로 가는공 싶어가 보이까네, 말끔 저거 청 밑으로 다 드가더라 카대, 저거 청 밑으로.

그러고는 인자 날 새도록 기다려가지고, 날이 새건데 청을 뜯어가 그래 목괴로가 거 파보이까네, 큰 숯티다가 엽전을 갖다가 한-거 영어놓고, 또 요쪽에 파이까네, 또 큰- 독에다 엽전을 넣어가지고 한거(많이). 부자가 그거 모은다고 함부로 써보지는 못하고 썩가 빠지게 모아놓고 죽어놔놓이 사(邪)가 일어가지고, 사가 일어가 거기 사람을 직이는 기라. 그 사는 사람 다 직이는 기라.

그래 엽전 파놓고는 인자, 주인한테 갔어, 이 사람들이. 그래,

“주인양반이요, 여 한 번 와보소.”

칸께, 그래 파가지고 보이, 돈이 마 큰 숯티 두 숯티 있거든. 그래 주인영감을 가주(가져) 가라 카이까네,

“자네 복에 난긴데 와 내가 가가.”

카고, 엽전 한 닢도 안 가가고, 그래가 인자 그 다 하라 카거든. 그 돈이 많이놓이 그 근방

집 나이(나오니) 집 사고, 논 낱이 논 사고 그래가며 천지가 부자가 되자 인자, 일꾼들 마이 대가지고 그래 사는데, 그러이까네 하리(하루) 저녁에는 맷대로 한참 열매나 살았는가 하리 저녁에는 어두무리 하는데,

“독사소.”

카고 또,

“하룻밤 자고 갑시더.”

이래 카는데

“자고 갑시다.”

카는데, 가마 보이 저거 동상은 옹기로, 저 숯티로, 옹기로 하나 지고, 저거 재수는 보이 까네, 바느질 뜨꺼베이(뚜껍) 떡 이고 또 있거든. 그래 가마이 보이 저거 지수고 저거 동생이 거든. 그래 머슴한테, 저 머슴한테,

“저 옹기장수 옹기 받아 우리 마당에 내라라.”

이래 카고,

“내라 놓고는 저 사랑방 모시고 밥 잘 채리주라.”

이라거든. 그래 참 이 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그래 저 밥이 열매나 맛있고, 채리주고, 그래 저녁을 다 먹고 나이까네, 그래 머슴을 보고,

“저 사랑방 손님 내 방에 모시고 온나.”

마 모시고 오이까네, 저거 동생이고, 저거 지수고 하이까네, 막 끌어 보담고,

“행님아 나는 와 암만해도 못 사노?”

캄서, 끌어 보담고 울고. 손아래 동시도,

“나는 행님요, 암만 살라 캐도 문 산다.”

쿠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라꼬 없고, 그 생이(형이) 복에 사는 기라. 그래 인자 저거 그 돈 다부 불러가 집도 주고 논도 주고 다 같이 잘 살더라 카네.

[복구 설화 168]

### 인색한 부자와 착한 며느리[장자못 전설]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스님이 그 부잣집에 동냥하러 가이, 참 부잔데. 동냥하러 가이까네, 세상은 이거 지고 안가 나? 바랭, 지고 가는 거 뭐고? [조사자: 바랑, 바랑.] 바랑. 어 바랑을 지고 가는데, 세상

바람을 벌리라 카면서 소똥을 한 소쿠리쯤 떠가 여주더라 카네.

여(넣어)주이까네 메느리 보고, 어찌 안타까븐지 살짝 부엌 짝에 드가서 쌀날 쪼깨이 퍼와가, 시아바이 몰래 주이까네,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가,

“그래 내 따라, 말끔 내빼리뿌고, 내 따라 돌아도 보지 말고 내 따라 온나.”

이리 카이까네, 온나 카이까네, 그래 그 얼-메 올라가이까네 마, 큰 베락 치는 소리가 마 마 마 나거든. 나도 암만 안 돌아볼라 캐도 안돌아볼 수가 있나? 그래 함(한번) 돌아보이까네, 지는, 메느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저거 시아바이 있는 동네는 고냥 마 각중에(갑자기), 각중에 마 소나구가(소나기가) 오고 베락이(벼락이) 떨어져가 마 아무것도 없더라 카는데.

[북구 설화 169]

### 불공 공덕보다 착한 마음이 우선인 극락세계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저승을 가면 아마 요수강을 건너라 가는갑더라. 이전에 원강(원낙) 못살아가지고, 생전에 뭐 배가 고프고, 녀므 베나 매주고, 녀므 베나 짜고 만날 그것 빼끼(밖에) 못하고 삽작거리고 모르고, 만날 배가 고파가 이래 살다가, 그 질까이(길가에) 앞에 있던 기라. 이전에는 뭐 도로가 있나 뭐 길가 앞에 집이 있어가, 베 맨다꼬 나서다가, 베 매다가 허리 편다고 쪼끔 서보이, 저 저 옷을 보-하이 입고 할매 서이가, 할매 서이가 올라오거든, 그래 올라오거든.

“할매요, 할매요. 어데 가는교?”

이리 카이까네,

“나는 십년을 아미타불로 해가 그래 목욕재개 해가 극락 간다.”

카거든.

“아이고! 할매요, 나는 안주꺼정 목욕도 안 해보고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아미타불도 뭐신고 모르고 천지 몰라, 나는 마 이양기(기왕에) 할매따라 극락 갑니다.”

카이, 몬 따라오구로 하거든. 지는 십년 공부한 사람이나 갈까, 이런 사람 몬 온다꼬. 옷도 이래가. 옷이야 풀로 붙이가 알긋게 해가 마, 그래 자꾸 따라 가이, 짤에(옆에) 오면 녀이 나고 둘이서 오지 마라 커거든. 멀찍이 따라서 사-살 가이까네, 그래 어데 어데로 가이까네, 한 솔밭을 어데 지나가이까네, 쪼깐 강이 하나 있거든, 강에서로 쪼그락배가(조각배가) 하나 알랑알랑하고 오거든. 선지이 알랑알랑하이 노를 젓고 오이까네, 그래 그 할매 서이들이 극락배 왔다고 요수강 건널라꼬, 극락배 왔다고, 인자 탈라 카이까네, 그 사공이 하는 말이가,

“할매 탈 배가 아입니다. 할매는 뭐, 할매 탈 배가 아입니다.”  
이라거든,  
“그럼 우리가 십 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 안 타고 누 탈노?”  
카이,  
“이거 임자가 있십더.”  
카대. 할매 서이로 몬 타구로 하고 그 아짐마를 날짝 실어가이고 마 가거든. 그래,  
“우리는 우짜노?”  
카이까는,  
“글쎄거든(그렇거든) 돌로 주워가지고 돌이 몰랑몰랑하면 내가 오끼요.”  
이카거든. 한 사람은 돌 줍고, 한 사람은 냄비 주아가 그 인자 불 떼고, 한 사람은 나무  
하고 뭐 석 달 열흘을 불을 떼봐도 돌이 무르나? 그리 마음이 착하지, 입만 가지고 하는 건  
소양이(소용이) 없고, [조사자: 맞아요.] 마음이 착해야 되는 기라.

[복구 설화 170]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동냥 하러 가이까, 저거 아로 어루다가, 그래 아로 좋다고 이래 어루는데, 그 동냥 줄라  
카이까네, 언강 동냥 줄 게 없시이니까네 그래, 저거 아를 어루면서,  
“우리 아이, 동냥은 줄 거 없고, 우리 아 복덩이를, 우리 아 복덩이 줄까?  
우짜고 캐사이까네,  
그래 마 갔는데, 마 종을 맨들어도 소리가 안 나더라 카대. 소리가 암만 해도 안 나서  
그래 그 아한테 가가(가서), 그 아 그거 데꼬 가가지고 그라이 종이, 그 말캉 다 그짓말이다.

[복구 설화 171]

### 오누이와 달래고개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이전에 두, 저거 오빠고, 하나는 오빠고 하나는 동생이고, 이전에 산길에는 고개가 있나?  
그 고개 고개를 가다가 소나구가 와서, 여름에 옷은 얇고 비를 줄- 맞으니까네, 그래 그 비를  
줄- 맞으니, 그 남자가 오빠라도 동생을 보고 그 뭣이 생각이 나든가? 우째든가? 이래놔놓으  
니까네, 그래 얼마나 몬 견디고 해서, 그래 지 연장을(남근을 말함.) 내가 돌에다 놓고 찍어  
뿌고 마, 저거 오빠 죽더라 카대. 죽으니까네, 그래 저거 동상이가,  
“오빠야 니만 알고 내만 알면 됐지. 와 죽기는 와 죽노?”  
칸다 카던데.

[복구 설화 172]

### 자식을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온캉 메느리가 호부인까네, 호부인까네, 그래 참말로 도인이, 참말로 이 집 메느리가 참  
호분강 싫어가, 그래 온캉 시아바이한테 잘해서 호분강(호부인가) 싫어가지고, 그래 인자  
그래 그 도사가 오이까네, 동냥을 오이까네, 그래,

“동냥을 줄진까네, 우리 어무이, 우리 어무이 하고 우짜면 그래 낫겠는가?”

그래 물으이까네

“내 말 듣겠는강?”

“듣겠다.”

카이까네,

“너저 아들이 학교 갔다 오거들랑 물로, 학교 갔다 올 때 되거든 가마솔에다가 물로 펄펄  
끓이라. 그거다 아들을 퍼떡 마, 퍼-떡 거 마, 옷 입은 그냥 퍼-떡 저 저 솔뚜베이에(솔뚜  
썩에) 그 열어가지고, 그래가 솔뚜배기 잡고 폭- 고아가 너저 어머이로 한 그릇을 주면 그래  
낫을 끼다.”

이라거든. 얼마나 애럽노? 그래가 인자 참 올 때 돼서러 물로 펄펄 가마솔에 끓이니까네,  
집이 짜다라 안 나나. 아들이, 알라가,

“엄마-.”

카고, 국민학교 땡긴 기, 쪼깐 기,

“엄마.”

카고, 담박에(단숨에) 들어오는 거를 퍼떡 잡아가지고, 아를 붙들고 가마솔에 대가, 마 불로

떼가 형겨 삶아가지고, 시어마이 줄라고 솔뚜배기를 열어보이까네, 인삼이, 인자 그기 동삼이지. [청중1: 마음이 천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동삼이 동동 뜨더라 카대.] [청중2: ‘하늘이 돌봤다.’ 그런 뜻이다.]

그래가 그래, 그래 인자 삶으이까네, 솔뚜배기를 열어보도 안 하고 삶으이까네, 아 난제 (나중에) 오는 거 저거 아들이,

“엄마.”

카고, 들어오거든. 아 솔에 분명하이 저거 아들을 잡아가지고 삶는데, ‘엄마’ 카고 들어 오이, 이상해서 솔뚜빼이는 열어보이, 동삼이 동동 뜨더라 카는데. 그래 저거 시어마이가 낫는다 카는데 그런 호자가(효자가) 있나?

[복구 설화 173]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전경로당]

이전에 할마이는 버버리고 영감은 봉사라. 그래 겨울이 돼가 영감은 방에 있다가, 할마이가 마 지넥 하러 나가고 열매 안 있으니까네, 마,

“불이야!”

카고, 가음(고함)-을 지르이까네, 그래 영감이가 눈은 어둡고, 즈그 할마이가 머머 불 떼다 불냈는가 싶어서,

“어데서 불났노?”

감서, 막 궁디를 털씩털씩 해서,

“어데서 불났노?”

카이까네, 할마이가 다만 방에 두드리마는, 영감 등더리로, 영감 등더리로 탁 때리니까네,

“아이고! 뒷집에서 불이 났구나.”

이라거든.

“아이고! 우짜다 불로 냈노?”

카이까네, 영감 봉알로 만치이까네,

“하이고! 감자 삶는다꼬 불났구나.” [일동 웃음]

“감자 삶는다꼬 불났구나.”

이라거든.

“하이고! 마이 태았나? 얼매만침 태았노?”  
카이, 영감 연장을(남근을 말함) 만치이까네(만지니),  
“아이고! 좇 지둥만 남았구나”

[복구 설화 174]

### 개로 환생한 어머니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엄마가 뭐 이전에 사니, 온캉 몬 사이까네, 이전에 귀경이(구경이) 어데 있고 여행이 어데 있노? 그래 살면서도 귀경도 한 번 못 간 게 포부가 졌는갑더마는, 그래가 죽어가 개가 돼가, 아들집에 개가 돼가 있어. 그 아들 집에 개가 돼가 있으이까네, 개가 자꾸 아들집에 한데(추운데) 그 마루 밑에서 자면서러, 그래도 개가 좀 다르거나 그렇체. 그래 하리 꿈에 그래 개가 하는 말이, 저거 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거 엄마다.”

개가,

“내가 너거 엄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삿쩍꺼리도 모르고 너무나 구경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봐서 그래 개가 돼가 너거 집에 왔다.”

이래 카이까네, 그래 그 질로는 인자, 개로 밥을 좀 다르게 주고, 둥지에다 담아가, 그래 저 절간으로 어들로 댕기면서, 이전에는 뭐 별 귀경 있나? 절에 가고 마 이래갖고 귀경 하고, 그래 구경을 시키가지고 그래 집에 데부다 놓이(데려다 놓으니) 세상 베렀다(버렸다. 죽었다는 의미.) 카던데.

[복구 설화 175]

### 모래를 던지는 금정산성 갈가지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그 쪼깨이 좀 그가 무십다 싶어가 혼차(혼자) 내려오면 모래를 떠진다. [조사자: 여기도 그랬습니까?] 여, 여, 여 산성서 내려오면 그렇다. [조사자: 갈가지가 어떤 동물인가예? 할머니, 호랑이 새끼니까?] 호랑이 새끼라 칼 수도 있고, [조사자: 살팽입니까?] 살팽이, 팽이 늙은 기라 칼 수도 있고.

사실 눈에 비지는 앓아, 모래만 던지는 거 빠끼 안 봐이. 모래만 던지는 거 빠끼 안 봐놓이, 그 모래 떠지면 뭐 사람이 몸에 땀이 나고, [조사자: 땀이 나고.] 머리가 찌뻗찌뻗. 머리 찌뻗찌뻗히고, 한 번씩 내려오면 얼마나 무십노?

이전에 지금은 도로가 좋지만은 이전에 참 도로가 너무 험했다. [조사자: 그게 산성 가는 길에, 여기 있었던 모래재 이런데 살았던가요?] 전부, 산성거서, 산성서 인자 도로 내려오면 함 번씩 내려오면 떠지는 기라. 그래 저 우에서 던진다꼬 오면, 요 밑에 내려와서 언제 앞에 또 떠진다 카대.

[복구 설화 176]

### 자기 새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이전에 호랑이 새끼도, 나물 캐러 가면, 호랑이 담 밑에 호랑이 새끼고? 뭐신고? 모르고 인자 금방 날아가 꼬물꼬물 기니까네, 어찌 좋은지 나물 깡지리롤(광주리롤) 놔놓고, 좋다고 자 씨담아 싸이까네, 좋다고 씨담아 싸이까네 저,

“어흥-.”

커는데, 보이까네, 커다란 호랑이가 지새끼 좋다칸다꼬 방구(바위) 우에 앉아가,

“어흥-.”

커는데, 마 이 사람들이 나물 바굼지도(바구니도) 다 내빼뿌고, 마 다부(도로) 내려왔다 마는,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이까네, 집집마다 그 물어다 갖다놨다 카대.

[복구 설화 177]

### 몰래 욕하다 들켜 자살한 며느리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저 산에 할매가 하나 와가, 거 마 각자 할매간에 여 수 백 명이 안 모이나? 그러면 그 백팔배 다 다 가고 백팔 평에 그 할매들이 마 한 방에 방 방이 다 가도, 그 자면 저거끼리 요래 모아가 얘기하는 데가 있다 또, 우리도 우리끼리 요래 하듯이, 아는 사람 저거끼리 모아가 얘기 하면 그라대.

손지메느리를 봐놔놓으니까네 손지메느리를(손자며느리를) 쪼깨이, 마 입이 쪼깨 야물고 마 되는대로 말로 하던 사람인 갑더마는, 손지메느리를 봐가 정지에 밥 하이까네,

이전에 정지(부역) 문 앞에 요런, 정지 요 벽에 요게, 요게 정지고, 문이 요만한 게 하나 있다. 고게 인자 요 봉창이 요래 있으니까네, 그래 내다보고 손지메느리로 보고 잔소리를 했던 기라. 글카이 할매가 귀 어둡다 합시고, 아이고 문디, 할매 귀 어두운데 뭐, 귀 어둡다 합시고, 뭐 정지에서 함 혼차 하는 말이가,

“아이고! 씨발 빵까라.”

이렇게 해놔놓이, 이놈의 할마이가 마 듣고 있었으면, 마 듣고 있었으면 될 낀데, 그 이튿날 아침에 지내가면서 그리 켜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저거 손지를 불러가지고 그래 소쿠리를 하나 주면서, 뒷산에 가가 빵껍데기, 빵시기, 빵시기 주아오라 카거든. 마 손지는 멋도 모르고 할매 말이라꼬 소쿠리 안에다가 빵시기를 주아가 이래 왔거든. 와가지고 하이까네, 할매가 그 손지 메느리 앞에 썩 달루면서로,

“니는 씹이 빵을 잘칸다 카대, 씨발 빵까라, 이(이것) 까라.”

캄서, 들이밀어놓이, 그 메느리가 그 집에 문 살고 마 죽으뵈어. 마 목을 매가 죽어뿌니 까네, [조사자: 안 들은 줄 알고 했더니만 그지예?] 그런데 죽고나йка네, 처음에 그러칼 땐 메느리 잘 문 했네, 죽고나йка 말큰(모두) 씨할매 보고 욱 안 하나. 마 문 들은 척하고 있었 시면, 집안이 편고 그거 할 낀데.

[북구 설화 178]

## 마을 당산 이야기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옛날에 영강(워낙) 미신이 심하이까네, 저 산에다가 산신령이, 저 당산부터 머이(먼저) 지이 놓고 동네가 생기는갑대. 옛날에 미신만 원강 직이나 놓으이, 이 당산이 어데 있었노 카면? 지금 정수장에 못, 못 판데. 여 정수장 큰 못 판데, 여게 고 가면 전신에 뭐 산이거든. 전(전부) 산인데 거렁이 쪼깁 물이 찌리부리 하이 내려가는 거 뿐이고.

요거 흙강 돌강 흙 한 짐 놓고 돌 놓고 요거만하구로 지이고, 우에 기와를 얹이놓고 문이 요거만-한 게 있데, 가보이, 그 인자 드가가 영천 점받치들, 또 아가 아프면 거가 빌고, 이전에는 의사가 없고 병원이 머이까네, 전신에 거가 비는 거라. 아가 아프이 거가 빌고, 또 뭐 그 집안이 그래도 거가 빌고 뭐, 거 빌면 또 그 찬물에 또 목욕하고 머리 깎아놓으면, 얼임이 꺽꺽 얼어도 목욕하고, 거가 빌고 이래 오데. 나도 함 번 가봤다 거게.

글트마는 그 인자 여기서로 뭐 사십 년이 넘어, 사십 년이 넘끼로, 거 이거 짓고나서로 이거 앵길, 시청서 앵기(웁겨) 주대. 앵기 주이까네 터가 있나? 그래 터 값이 우리 동네터, 요기 동네터거든. 동네터 요다가 인자 안 앵깃나.

[북구 설화 179]

###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업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집안이 좀 편찮고(편하지 않고) 하면, 자꾸 점받이나, 뭐 점받치가, 점받치가 잡신 걸린 사람한테 안 묻나? 물으면 하는 말이,

“이 집에 업이가 지금 나았아가 있다.”

이라거든. [조사자: 나았아 있다고?] [청중: 업이 나가가.]

“나았아가 있으이까네, 지금 도장 모시라 카거든.”

그래, 도장 모시면 인자 뭐, 그땐 팔죽을 짚이라 카대, 점바치들이(점쟁이들이). 팔죽을 짚이가지고 그래 한 보시기 짚이가, 그래 그 저 도장에다 갖다 놓고 뭐시 무슨 소린고? 뭐 점바치 그거, 점바치 그거 씨부리는 소리가, 천수경도 하나 못 외우고, 염불도 못 한다.

마 말 안 듣끼면, 북 크게, 에나 북이나 크게 뚜디리고. 또 말 좀, 말, 가만 들어봐라 하나 또 하는 거 없다. 마 “혈랄라 혈랄라.” 하다가 마 북만 뚜디리고 뭐, 징만 뚜디리다가 마마 그래,

“괜찮다.”

카고, 이래 가거든. 그러이까네 그래도 또 집안이 편할라 카면 편는(편안한) 기라.

[북구 설화 180]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호랭이가 와가 하는데요. 호랭이 온다 카이, 아가 안 그치고 곳감 주께 카이, 아가 달개  
진다 캐샀고. '아이고, 호랭이가 뭐 아이고 내카마(나보다) 더 겁나는 게 있는갑다.' 싫어가  
호랭이가 달난다 캐샀고.

[북구 설화 181]

### 저절로 얻어진 명당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옛날에 그 저 박씨 저저 할배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래 몬 살아가지고, 이래 꺼적떼기  
해가지고 몽치가 가다가, 저 와석 뒤 까산에 그 공동묘지 가다가, 어찌 무거븐지 마, 그 질  
가다가, 질가에 묻어뵈다 카대. 근데 그가 명당자리던가? 그래 할배가 뭐 잘 돼가, 그래 잘산  
다 아입니까? 그래 글 썼대.

[북구 설화 182]

### 모래를 던지는 금정산성 갈가지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우리 엄마 산성이 친정어거든. 친청인데, 친정에 저저 그 산성에 그 뭐 팔러 잘 올라가는데,  
오이가 좀 늦게 오면은 마, 앞에서 마 모래로 확- 던진다 카대. 던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가  
오면 저게서 떠났는데, 오면 요 앞에 와가 또 던지더라 카대. 거다마 앞만 보고 마 그냥  
온다. 그 돌아보고 마 그 혼이 흘리면 마 죽는다 하대. 그래 마 정신을 바짝채리고 내려와가  
요 마을에 떡 오이가네, 등더리 땀이 훌쩍 젖었더라. [조사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북구 설화 183]

### 자기 새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그래 저 산에 또 꼬사리(고사리), 그그그 꼬사리 끊으러 가면은, 꼬사리 가면, 범이 새끼를 낳아가 있어. 그지예? 저 여여 대밭골에 [조사자: 저 금정산에?] 어, 여 금정산. 이래가 꼬사리 끊다보면 이래 새끼가 이래 있어가지고 강아지 새끼걸이.

“아이고! 강아지 새끼가 어디서 이래 왔노? 좋다.”

고 시다브면(쓰다듬으면), 시답도(?) 뭇시,

“어흥-.”

캐서 보면, 마 어마이가 마 이래 토시고 있다대.

“아이고 새끼 좋다, 좋다.”

카면, 지 새끼 좋아한다꼬 가만 있더라 카대. 그래 드러(가끔) 봐, 범도. [조사자: 그래, 호랑이 봤다, 보셨다는 분이 계시데예.]

우리는 저 양내에 내리골에 그거 내 눈에 가가지고, 그 참 강아지 새끼가 참 이쁜 게 한 바리가 있어가, 내가 그 좋아가지고 안고 왔거든요 집에. 안고 오이 마 이웃사람이,

“그 강아지 새끼가 아이고 호랭이 새끼라고, 마 지 자리 갖다놓으라.”

꼬 야단이 났더라꼬. 그래서 내 지녁끝에 도로 갔다 났다 카이 그 자리에.

[북구 설화 184]

### 애기솔이 있었던 아기소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여 테레비에서러 우리 애기소가 안 있습니까? 애기소로 테레비 전설이 나오더라꼬. 나오는데 다 거짓말이(거짓말이) 나오더라꼬 내가 볼 때는. [조사자: 거짓말이 나온다고요?] 응, 다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는. [청중: 옛날 전설아이가 거기.] [조사자: 어떤 말인데예 거짓말이.]

전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옛날에 나무하러 갈 때 보면, 나무를 하러

가보면, 그 애기소 여 옛날에 저저 뭐시고? 고들빼기 산성골 논 안 있습니까? 논 요 밑에, 언덕 밑에 이래 보면은, 그 복판에 큰 바위가 있고 산이 이래 있는데, 큰- 애기솔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 옛날에 솔나무 귀하답니다. 거 하나 있고 저 산성 입구 그 애기솔 이랬다 아입니다.

그 가면 나무가 마 우리 마 둘이 안아도 안 되는 이 애기솔이 하나 방구 위에 하나 나가 있었는데, 거서 우리 이래 갈비 같은 나무를 하면은, 엔간한 방구 새이(바위 사이) 이래 허비 내가 해도 한 동은 하고, 이마이(이만큼) 나무가 컸는데, 그거를 우리는 애솔, 애솔나무라 켜거든.

예, 애솔나무 그 저저 애기솔이 거기 저저 애솔나무, 그 애기솔에 그 물이 인자 폭포사가 있거든. 그 폭포사에 애솔, 애솔나무, 애솔나무 하나 서가 있다고 애솔나무 켜는데, 거기 전설에 나오는데 뭐라냐면, 애기소인데 ‘애기소가 옛날에 소 한 치가(소 한 마리가) 거 물에 하나 빠지 죽어가지고 그래 애기소라 칸다.’ 이래 나오더라꼬.

[북구 설화 185]

## 객귀 물리기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우리 할매도 우리가 좀 아프면은, 저 바가지 있지예? 옛날에 바가지 요거 물바가지 아이가? 참 거 박, 박 박 거다가, [조사자: 물밥 만드는 거.] 거다가 물 쪼개 붓고 술 안있습니까, 막걸리 좀 열고, 마 이것저것 나물탕 집어 열어가지고, 밥 좀 퍼영고 이래가 우리 나오라 캐. 나와가 샅짝거리 우리 할매 거씨거든예(드세거든요). 샅짝거리 앞차놓고, 칼하고 숟가락 몇 개 담고 칼 가와가 마, 우리 머리 우에다가 마 칼로가 마 머리로 마 좀 비고 머리로 씨담 으면서 마 마 뭐.

“개 씹도 무을 것도 없는데, 여 붙어봐야 니는 개 씹도 무을 것도 없다 마 어서 나가라. 니 안 나가면 내 나갈 까다.”

캐삼서 마,

“후세-.”

캐삼서, 물리삼서(물리면서), 막 욕을 해삼서 막-. 그래 오리가지고[머리카락 자르는 흥내를 내며] 이래가 인자 샅짝거리 훌쩍 떠지데. 그 저까지(젓가락), 아 그 칼하고 숟가락하고 집어 던지면은, 숟가락 저 칼이 요 바로 나오면 나갔다고 이래 열십자 해가지고 칼로 딱 꼽아가

지고, 바가치 요 문고, 밥하고 이거 훌쩍 던지뿌고 얹어 놓더라꼬.

얹어놓고 우리는 앞도 보지 말고 [조사자: 칼 위에다 얹어놓습니까?] 어, 바가치로 칼 위에 얹어놓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양(방) 들어가라 카더라고 이라는데, 안 나가면, 칼이 바로 안 나가면 또 주와 온다. 주아가,

“에이! 이노무 것, 뭐 무을 거 있다고 너거가 안 나가노 말이지, 마 너거 안 나가면 내 나가지”

캐삼서러, 또 또 막 가암(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마 이래싸. 또 훌쩍 던지면 우짜면 칼이 딱 나가. 나가면 나가 떨어졌다 카대. 그래 잘 물리던 걸. 그러면 개안해(괜찮아) 또.

[북구 설화 186]

### 명당 터를 빼앗은 딸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옛날에 저 용당에서 윤씨, 윤씨가 그 저 할배가 돌아가셨다 카대? 할배가 돌아가시가 그 무덤을 팠는 기라. 내일 초상 칠라꼬 무덤을 팠는데, 윤씨 딸이 와석 여계 임씨네, 인제 임씨네 집 시집을 갔대. 시집을 갔는데 그 임씨네, 인자 윤씨 딸이 임씨네 시집을 갔는데, 그기 친정 아버지 인자 무덤 묻을라 하는데, 너무 명당인 기라.

명당인까나 저거 시아바이 묻을라꼬, 밤새도록 임씨네 딸이 그 무덤에 물로 여다 붓대 물동에. 물로 여다부이 아측에 인자 그 뒀을 찔라꼬 가보면 물이 많이 나가 있으이까네 ‘아 이게 물이 나서 여 못 묻겠다.’ 싫어서 안 묻더라꼬.

그래 그 사람이 저거 저저 시가집 시아바이 묻을라꼬. 그런께 친정아버지 묻을라는 무덤에 갔다가 명산이라꼬 거다 물로 딸이 여다붓는 기라. 그 여다 붓고 저거 시오마이 갖다 물을, 저거 시아바이 묻을라꼬. 그런 말이 있더라꼬 우리. 그지예? [청중: 그 자석 잘 될라꼬.] [조사자: 딸 시집가면 다 인제 소용없다고.] 어, 그래 임씨네가 윤씨 외손이지예? [청중: 어, 그래 될 끼다.] 예. 윤씨는 임씨 외손아이가.

[북구 설화 187]

### 처녀의 눈물을 먹고 사는 상사뱀

최무연(여, 1922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이우지(이웃에) 처녀총각하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뱀이가, 총각이 죽어가 상사가 됐다 카든가 그래가, [조사자: 맞아예, 예.] 그 총각이 죽은 뱀이가 돼가지고, [청중: 뱀이가 처이로 감고 앉아가.] 응, 그래 처이 여 턱 밑에다가 [청중: 감아가 이래 앉아 있었다.]

꼬랑대이는 딱- 요래 똥구멍에 찝구고(넣고), 그래 턱 밑에 요래 해가 춤을(침을) 널쭈면 받아 묵고, [청중: 옛날 그런 기 있어.] 그런 구리이가(구렁이가) 있었다 카이.

[복구 설화 188]

### 미신을 고집했던 시어머니

최무연(여, 1922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우리 집에는 우리 어무이가 참 부지런하고 항상 웃음을 머금고 사는 어른인데, 성질도 좋고, 참 좋은데, 미신 미신을 말도 못 하구로 지기는 거 있제. 나는 마 아주 몇 십 년 전에 그때부터는 말-강 소용없는 저걸 말라꼬 저라는고 싶었는데, 아이고 와 저 저게, [조사자: 바람도 모시고.] 2월 달이고 정월달이고 물 안 떠놓나? [조사자: 영동바람할매. 바람할매 모시고 예. 예, 예.] 뭘뭘 바람이 뭘 일층, 이층, 삼층 [조사자: 삼층까지 예.] 올라간다 감서로 물로 아침에 일찍이 떠다가 샘이 있는 사람은 샘이에다가 불 캐가지고 샘이로 불 캐가 떠올려가지고 또 장독간에 물 떠놓고, 그 또 아츰마정 추분데, [조사자: 그 이월 한 달 동안 해야 되고 예, 예.] 일찍이 물 떠놓고 여간일이 아이데이. 그래 물 떠놓제, [청중: 물 떠놓고 빌고.] 그래 물 떠놓고 지네제, [청중: 물이 얼어서러.]

시주단지 있제? [조사자: 시주단지도 모셨어예? 아이구.] 시주단지 요런 단지에다가 쌀로 인자 햅쌀나면 또 인자 그 쌀 그것도 참 힘들데. 언자 여 부정한 사람, 상주나 부정한 사람 문 들어오라꼬 전부 금구 딱 쳐놓고,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머리 깎아 빗고, 그래가지고 인자, 쌀로 인자 지날 지날치기 인자 고 무은 쌀(묵은 쌀) 부우고(붓고) 새 쌀로 여을라 카이 까네, 뽀야야 안 되나? 뽀야야 마 정체. 지 날 비가 와가지고 훑어가지고 마이 안 하이까네, 그래 훑어가지고 또 솔에다 뽀야가지고 찢어가지고 심바람만(심부름만) 할라 캐도 내가 할 짓이 아인 기라.

만고에 소용없는 저런 짓 말라꼬 하노, 내가 '저노무 시주단지를 갖다 내빼리아겠다.' 내

마음에. [청중: 할머니는 이제 부산 시내에서 시집을 오셔가지고.] 필요 없는 시준단지 저거 말라고 저걸 저래놓고 사람을 애로 미이고, [조사자: 시준단지는 아직까지도 모시는 집이 많아예 할머니.] 그래가지고 시주단지를 내가, [조사자: 없애셨으예?] 거렁물에 한거 내려가는데, 그래 인자 의자로 갖다 놓고 올라서가 [청중: 내라가.] 인자 시준단지 딱 내라놓고, 그래 나무 판떼기캉 못캉 이래 빼가 요래 놔놓고, 그래 인자 내리와가지고 인자 시준단지 안고 저, 저 앞에 저저 학교 앞에 그 다리 있제? [청중: 거렁, 거렁.]

그 도로에 옛날에는 이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거 가가지고 물에다가 훌쩍 던지뿌고 왔거든. 우리 어무이가 좀 참 부지런하고 성질도 좋고 좋으면서도 마-이 꼬치랑한 짓을 마이 하거든. 그래서러 그래, 처음에는 모르고 며칠 몰라, 모르고 있어. 그래 한 번 보이 시준단지가 없거든.

“어 시준단지가 없노?”

이르케. [청중: 간도 크다. 시어마이한테.] 그래 내가 그래 마,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기라서 내가 물에 던지뺏심더.”

이카이,

“어우왕왕왕왕왕-”

[청중: 대단하다.]

“어이구 어이구, 저년이 간도 크다, 시준님네가 자석 부라주고 살림 부라주고 하는 시준님네로 갖다 내빼리고 천벌을 받을 까다, 천벌을 받을 까다.”

하고, 아이고, 마마마마 야단인 기라. [청중: 간도 크다, 시어마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내빼리고 간도 크다 메느리가.] 아이고, 물어보도 안 하고 내가 마 하도 마 심바람만(심부름만) 할라 캐도 애로 목궤는 기라. [청중: 귀찮아서.] 근데 나는 마 그때부터 그저 소용없는 짓이라는 카는 거로 각오가 딱 되는 기라.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뭐라 카든지 마든지. [조사자: 그라고 그 뒤로 안 모셨어예?] 떼우뽀(떼어버린) 거 우짖끼고? 싫어서러 [청중: 그래 집에 무슨 일이 안 나서 다행이지, 무슨 일이 낫시면 맨날 마 원망일 낀데.] [조사자: 저런 마음이면 일 안 생깁니다. 할머니처럼 단호하시면은 일 안 생깁니다.]

마 있어도 뭐 천벌도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안 하거든.

[복구 설화 189]

## 당산나무를 베 죽은 사람

김기자(여, 1945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이 당산 할머니는 여 점쟁이도 못 들어 와. 점이 안 돼. 제일 세고 제일 거하기 때미래(때문에). 이 할매가. 그런 거는 절대로. [조사자: 영검 있는 이야기 좀 하나 해 주세요.] 영검 있는 이야기를? [조사자: 나뭇가지를 뜯었더니만.] 어 거 나무? 옛날 참, 그러면 인자 또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옛날에 나무를 누가 베가지고 그걸 넘가뿌렸더니만은 그 사람이 죽어 뿌렸어.

[복구 설화 190]

### 당산을 훼손해 봉변당한 사람들

김기자(여, 1945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당산 할매집에 질을 내다가 포크레이 일하는 사람이 죽었다니까. 고것밖에 몰라 나는. [조사자: 그 당산에 손을 안 댔는데예?] 손을 안 댔는데, 고 밑에 인자 질로 내는데 포크레이가 포크레이 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 당산 할매 짓고 사람 말키(모두) 죽긴 마이 죽았어. 당산 할매 손 대고. [조사자: 여섯 명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도 한 사람 죽고, [조사자: 공사 했는 사람이?]

공사 했는 사람 말고, 들어온 사람들이 죽고 그랬다 아이가. 양산 아들, 양산댁이 아들도 그 손 대가지고 죽었다 아나가 내나. 새로 그거 한다꼬. 그거 저 여기서 인자는 지 준다고 했어. 그래서 인자 그걸 짚는데, 그래 짓다가 그 일하다가 그 사람들도, 포크레이 하던 아저씨도 밑에 사람도 죽고.

[복구 설화 191]

### 도깨비와 싸운 사람

윤희수(남,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2동 윤희수 제보자 자택]

인자 술꾼들이 술로 대개 묵고, 술 묵고 인자 오다가 보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래 삐딱 거리고 오다가 보니, 앞에 뿔이 커다란 게 있으니까네, 이리 뭐 이리 기 있으니까네, 이리 치다보이께네, 치다보이께네 마 밑도 끝도 없이 자꾸 높으거든. 인자 그거를 보고 도깨비라

카고, 놀래가지고 이랬는데. 그게 인자 결국은 뭐로 보고 그랬냐면 전봇대로 보고, 전봇대 앞에서 인자. [일동 웃음]

술이 취하다가 보이께네, 앞에 인자 뒷이 딱 가룬단[가린다] 말이야. 가린께 뒷이고 싶어서 본께네, 쳐다본께네 뭐 밀도 끝도 없이 하늘로 이리 서가 있는께로.

“아이고, 도깨비다.”

카고 마, 그런 얘기가 인자 좀 있었지.

[북구 설화 192]

### 대알고개의 유래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그 저거 남매간에, 남매간에 가는데, 저 누나가 앞에 서서 가는데, 뒤에 가는 동생이 누나가 간께 여자로 보여갖고, 고마 그기 자꾸 일난께네가, 고마 이 그할 데가 아이다 싶어갖고 마 한쪽 서서 마 콩콩 돌 갖고 찢서 죽어뻗다 쿠대. 그래논께 그 죽은 거로 갖다가 저거 누나가 돌아서서 와갖고 저께,

“대나보지 와!”

[청중: 아- 그라이.] 그래서 대알고개라꼬.

[북구 설화 193]

###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스님

김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질로 가다가, 질로 가다가 소변이 보고 싶어서 인자 거랑, 거랑가에서 소변을 딱 보는데, 본다꼬 응 거랑 아이가. 거랑에서 앉아 보다, 누는데 께가(게가) 와가지고 그 할매 그 소변 보는 거로 깡 물었어. 물어가지고 아파 죽는다꼬,

[청중: 개미가 물었지.] 예? [청중: 개미.] 께가 물었다 께가. [청중: 응.] 께가 물어가지고,

그기 물어놓으이 께가 안 떨어져. 안 떨어져가 짹짹 흔들고 있는데, 따가바서 마 이래가 마 발광하고 있는데, 해필 그 스님이 지내갔어. 스님이 지내갔는데,

“할매 와 그라났고?”

칸께네, 그레 요 뵈이 물었다 감서로 다리를 딱 들고 그라이, 그 스님이 이래 내리다 보더 마는, [청중: 하이고! 콩길다.] [웃음] 그레가 그 끼가 마 잡아 띠기는 띠는데, 띠가 철철 나고 이래가 그 스님이 빨았다 캐샷꼬.

[복구 설화 194]

### 조기장사에게 조기를 공짜로 받은 부인

김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옛날에는 와 쪼기로(조기를) 갖다다 뚜르미로(꾸러미로) 엮어가 팔러 안 다니나. 그레 하도 몬 사는 집에서 고기가 묵고 싶어서, 한 번 하면 한 바리 주고 두 번하면 두 바리 주고. [웃음] 그레가 난중에 영감이 어데 갔다 와가,

“이거 뭘 고기고?”

카이, 그레 인자 그 사람은 앞으로 안하고 뒤로 하이께네, 이 여자가 마 영가이(어지간히) 무식해 몰랐는가봐. 그레가지고,

“이 조구(조기) 고기가 어데서 났노?”

밥 묵다 이라이께네,

“보소, 이 고기장사가 지나가는데요, 한 번 하이 한 바리 주고요. 두 번 하이 두 바리 주더라.”

[복구 설화 195]

### 이상하게 생긴 구멍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중이 동냥을 갔는데, 할마이가 삼비를(삼베를) 이래 메-미(메며), 옛날에는 이게 아주 특 타졌거든. 보지가 나왔는 기라.

“하이고, 궁기 빠꿈 하오리다.”  
카이,  
“복도 걸, 복도, 복도 드가는 궁기로다.”  
이카고.

[복구 설화 196]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진짜다. 우리 고향에는 딸이 막- 일곱 여덟 되는데, 한 방에 자요, 이불 하나 덮고. 옛날에는 그래 덮었거든. 들어와셨는데, 마 이불 덮어쓰고 영감이,  
“가만 있거라! 너거 어마이 뭐, 뭐, 뭐.” [웃음]  
[조사자: 너거 엄마 뭐예?] 일 한다 카던가? 뭐 한다 카던가?

[복구 설화 197]

###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그 마실에 쫘 쫘 시원찮은 놈이 있는데, 그걸 덜고(데리고) 갔어, 집에 오는 걸 덜고(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뭐 씨름을 했지 뭐 아마. 그라고 본께네 빗자루 몽댕이가, 팡, 그거 여자들 얼갱이(월경이) 있으면 문어가 나가 마, 그기 도깨비 된데이. 그기 밤에 가마(가면) 그래 되는데. 그래 버들낭계(버들나무) 꿈- 묶어놔더라 그놈하고 씨름을 하다가. 그래 아침에 가본께 빗자루더래요.

[복구 설화 198]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군에 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끼 없어서, 지령이를 캐가지고, 삶아가지고 시어마이를  
믹있더이(먹였더니) 살이 썩어서 뽀- 통통 하더라. 그래, 그래 저게, 그래가지고 뭐고?

[조사자: 뭔가 싫어서 자리에 내놓았지예.] [청중: 잇아빠렸지.(웃음)] 아니, 신랑, 아들이  
왔는 기라.

“하이고 야야, 어무이 뭘 잡숫고 그리 얼굴이가 살이졌노?”

카면서,

“하이고, 저리(자리) 밑에 너 빌라꼬(보여 주려고) 여났다.”

카데래요. 그래 보이 지령이더래요. 거기 봉사던가? [조사자: 예.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마, 눈을 퍼뜩 떴버릿어.

[복구 설화 199]

### 돌아오지 못하는 혼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누우 잘 찍에(누워 잘 때에) 여 화상을 기리마(그리면), 그리 혼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저 아이라꼬(아니라고) 안 들어온대요, 그래 그 질로 죽는 기라.

[복구 설화 200]

### 질경이로 죽은 남편을 본 아낙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죽으면 왜 그거. [청중: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그렇지만은, 그거 있잖아? [청중:  
뭘?] 질가에 가면 진-, 뭐시고 그거 지단한(긴) 거? [청중: 지령이요?] 이래 이래 훑으면 씨가

떨어지는 거. 그 뭐시더라? 이름은 모르겠다. [청중: 흠으면 뭐예?] 질갱이! [조사자: 아-, 질갱이.]

질갱이 그거 요래 훑어가 지름을 짜마, 불을 써, 제삿날 불을 써만 기냥(그냥) 들어오면 괜찮은데 묶어논 채로 마 집하고 마 뽀뽀 걸어 들어오더래요. 그래 놀래가지고 고마 다시는 안 하더란다. 거 신랑이 죽고 너무 언통해서(원통해서) 신랑이 보고 짚어서 죽었는 거. 그래가 오더란다. [조사자: 그 씨로 불을 켜면 귀신이 보입니다.] 어, 보인다 카대. [조사자: 예. 예.]

[북구 설화 201]

### 쌀이 나오는 구멍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조사자: 금오산에.] 경북 금오산. 거 저저 절인데, [조사자: 아-.] 그래 날마다 함, 한 번 먹을 꺼만 나오는 기라. 그래 묵다, 마이 나오라고 부지떼이로(부지갱이로) 푹- 찢렸더이, 안 나오고 고마 물만 나오는 기라.

[북구 설화 202]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전옥분(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디딜방아 이 찢잖아? 찢고, 하나는 방아실에 찢어 열고(쓸어 넣고) 이랬는데, 그래 동구쪽에서 불이 나가, 그래 그래 집에서 할마이는 그 다리는 성코(성하고) 병어린데, 영감으는 저 봉사고 이래논께 몬 나가고,

“할마이, 할마이, 저거 저 불난데 저 가보고 오소.”

이런께, 그 할마이가 그래 인자 갔다 왔어 그 집에. 갔다 와가지고,

“할마이, 어데 불났데?”

이란께, 할바이 [웃음] 우리 그 그 우스게라, 할바이 그거를 만진께네,  
“아, 그래 지동이가 남았어? 다 타고.”  
할바이가, 뭔지 알아먹고 그러더라.

[복구 설화 203]

### 여자 밑을 문 계를 떼어낸 원님

전옥분(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전옥분]

들에 인자 모 심구는데, 모 심구는데, 다락다락이 다락논이 있어서 모 심구는데, 인자 아침밥  
밥해가지고 이고 갔, 점심 해가지고, 뒤시고 그 사람 줄라꼬 이고 가는데, 이고 가다가 밥을 한 입  
(짐) 이고, 주전자 술 주전자 손에 들고 한쭈서(한쪽에서는), 물 주전자 들고 이래가이고 저- 간다.

바빠가지고, 미처 옛날에는 뭐 꼬창이가, 이래 속곳 꼬창이가 이래 벌어진 기 있거든. 속곳  
꼬창이. 그거 입고 인제 치마 입고 이래이, 밥을 한 입 이고 주전자 한 통 붙들고 그래 가는데,  
그래 마- 오짐이(오줌이) 메립어(마려워), 뭐 옛날에 산골짜기 논이 멀거든. 그런께 오짐이  
메립어가, 이래 앞아가 오짐을 뉘거든. 남 안 본데 눈다고 눈뚱에 앉아서 이래 오줌을 누더라.  
뭐가 따끔하더라.

끼가, 오뚝 계가, 오뚝 계가 고를 물어뵈어 고를. 그래가, 그래가지고,  
“앗, 따가라.”

이라면서, 고마 물주전자 내빼리뿌고 뭐 밥도 쏟아뿌고 이래가. 눈에서 바랬다. 바랬다.  
모심는 사람이 ‘왜 안 오고.’ 와 본께 그라고 있더라. 그래 그 끝은 또 잊어뿌렸다. [조사자:  
그래가지고 뭐 원님이 지나가면서.] 응, 응, 그를 잊어뵈어. [조사자: 나팔 불고.] 응, 나팔,  
나팔 불고, 원님이 지나가면서. 끝을 잊어뵈어. [제보자: 다 하셨나? 할머니 그 이야기 해주  
이소. 그 보지 물린 거.] [일동 웃음]

[이분선]

저게 오줌을 눈께 끼가 보지를 꿈 물었어.  
“하이고, 아파 죽겠다.”  
카이, 종이 가다가,  
“어데가요?”

카면서, 들, 들, 들다본께, 어 중 입수구리(입술) 요를 콩 물었어. 그래가 우쨌는고 쯔 질드  
만은 고거뻘이(그것밖에) 모르겠네. [조사자: 그래 왜 누가 나팔을 불어갖고 내 살아생전.]

[전옥분]

원님이 가다가, 원님이 딱 채리 입고 나팔을 들고 가다가 그래가 있신께, 이 집따따  
뭐 또 중이 하나 데다 보다(들여다 보다)그 데다 보다, 입술을 물리가, 또 같이 마 데다  
보다. 그래 그래가 있신께, 그래 나팔 불고 모 심구는 사람 오라 해가지고 우쨌, 그 다-  
있어뿌렸어.

[이분선]

그래 나팔 분께 끼가 놀래가지고 툅 떨어졌다 카든가, 뭐뭐 그 카더라.

[복구 설화 204]

### 아이의 간을 빼먹은 문둥이

전옥분(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산에 가서 문디 있어, 문디들이 산에 아들로 꽃 따러 가거든. 봄 나면 인제 삼월 달에, 꽃이  
피면, 참꽃 피면 화전 갔다꼬, 애들이 쪼매칸 기 딸아들이 말캉 가는데, 그 문디 그거 아를  
붙잡아 가가지고 애를 잃아뿌고 집에 와가지고,

“왜 아를 안 데리고 왔노?”

“하나 없더라.”

꼬, 그 이튿날 찾으니까, 문디가 아를 잡아가 간을 내가지고.

“왜 잡아가 간을 내 먹었노?”

이런께네,

“그걸 먹으면 낫는다.”

하더라, 아 잡아가 내 먹더라. 그래가 산에 안 보냈어요.

[복구 설화 205]

### 며느리의 방귀의 힘

전옥분(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옛날에, 인제 메느리가 시집 식구들 많은데 시집을 왔는데, 만날 색이 노-래가지고 시아바  
이가 보더마.

“야, 며늘아가 니 왜 색이 노랑노? 왜 그렇노? 얘기 좀 해라.”

이란께, 그래 저저,

이래더래,

“그래, 그래 방구, 니 끼라. 맘대로 끼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 뒷 지둥 붙잡고, 어머님으는 앞 지둥 붙잡고, 신랑으는 옆 지둥 붙잡고,  
시동상도 옆 지둥, 말강 지둥을 안고 있어라.”

방구 끼면 옆어지니까 집이가. 그래 가서 마 쪽- 붙잡아가 있다가, 방구를 열매나 탕탕탕  
끼께, 지둥이 흔들흔들 흔들하고 집이 막, 지붕이가 막 날아가고 그래고,

“며늘아가 그만 끼라, 야 고만 끼라, 집이 다 날아간다.”

[북구 설화 206]

### 고기를 매달아 놓고 밥을 먹는 영감

전옥분(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안날에 엄청 가난하게 살아난께네, 시오마이 시아바이 뭐 저 사는데, 아무꺼도 뭐 반찬해  
드릴 끼 없어 만날 나물만 해주이까네, 그래 시아바이가 자-양(장) 가서, 오새(요즘) 뭐, 저  
이름, 도미 말고, 그 이름 뭐야? 비싼 고기 있제? 그 고기 또 잇아, 잇아뻘다. [조사자:  
갈치.] 갈치도 아이고, [조사자: 비싼 고기.] 비싼 고기, 비싼 고기, 그걸 사다가 들어 붙여다  
봉지에다, 바양(방) 봉지에다 저 짝 달아놓고, 그래 인자 밥을 해서 며느리가 가지 오면,

“며늘아가, 며늘아가.”

“예.”

“저 고기로 찌지지 말고 저다 만날 달아 뉘라.”

“왜 그럼니껴 아버님.”

“저 고기에 밥 한 손 떠먹고, 저 고기 한 번씩 쳐다보고, 또 밥 한 손 떠먹고, 그러면 밥이

절로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

그러면서 며느리부로 효부상을 주더란다.

[복구 설화 207]

###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전옥분(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옛날에 고려장서, 옛날에, 옛날에, 고려장 때 칠십만 넘으면 인자 아바이나 어마이나 짚어지고 고려장 하러 가는데. 그래 질을, 이래 질을 가다가 산으로 이래 가이까네, 그 업혀있는 할마이가, 고려장 짚어져 하러가는 할매가 가면서, 솔잎, 어마이를 지게에다 이래 짚어지고 갔는데, 솔잎을 떡 꺾어서 또 하나 내빌고(내버리고) 또 가다 또 솔잎을 하나 꺾어서 또 놔두고.

“어머이, 왜 그러니까?”

이런께네,

“어머이 내버려 가는데.”

그런께네, 할마이가,

“나를 갖다가 고려장 하고 올 때, 너거 질 잇아뽕고 집을 못 찾아오잖나. 그란께 내가 질 만들어 놓을라꼬 그란다.”

[복구 설화 208]

### 개미를 남근으로 놀러 죽였다는 스님

조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여자 하나가 저 산길을 내려오다가, 오줌이 매리워서(마려워) 오줌을 누이께네, 개미, 개미 소굴에 났다 캐. 개미, 개미 소굴을 살- 눈계(누니) 마, 고마 그 속으로 썩 다 들어가 뺏는 기라. 그래 가마이 생각을 한께네, [청중: 응, 응. 그럴 수도 있는 가배. 응.] 여자가 가마이 생각을 한께, 사람은 여럿이 지내가지만은 말할 사람이 없는 기라.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말할까, 이래도 안 되겠고. 그래 참 스님이 지내가더라 카네.

“스님, 스님, 참 오줌을 누다가, 아 개미가 들어서이 이걸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래 칸께네, 그런께 인제, 그래가지고 인제 스님이 가마-히 보디마는(보더니) 뭐라 카는 기 아니라 글카더라 카대.

“아, 이거는 몽디로 놀러 직이야 되겠습니다.” [일동 웃음]

[청중: 그 그거 곳곳마다 다 틀린다 아이가.] 그래서 그래 인자, 참 마 진직이 스님이 놀러 직있지 인자. [청중: 그래 뭐, 한 번 했지 뭐.] 어, 그래서 여자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스님예, 스님예, 이 개미 놀러 직있으니께네, 이거 다른, 다른 흥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카더라 하잖아. [일동 웃음]

[복구 설화 209]

##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

조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바보가 그래 인자 장개를 갔어. 장개를 갔는데, 아- 뭐든지 인자 부모가 시켰겠지 바본께네.

“뭐든지 가거들랑, 밥을 뭐든지 주거들랑 다 먹으면 안 된다, 체면을 채리야 된다.”

그래 인자 그래서, 고래 인제 가서 참 밥을 주는 대로, 그래 우째 했는가 물으이께네, 아, 갔다 와가지고는,

“마 주는 대로 다 먹었다.”

카는 기라.

“그기 아이다. 기기 아이고, 우째도 체면을 차리야 되고.”

이래 한께네, 인자 밥을, 인자 남가야 한다 이기라. 요새는 남구는 기 실레지만, 옛날에 뭐든지 체면을 채리면 남구는 기, 그래 저게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그래 두 번째는 인제 장개를 간께네, 뭐 콩을 저저 콩을 삶아가지고 주더라나. 콩을 삶아가지고 툇 띠서 하나 저저 남구코(남기고), 또 선나 까묵고 또 남구코, 그래,

“왜 그러느냐?”

칸께.

“엄마가 집에 간께네, 남구는 기 그걸 예의라 캐서 무조건 마, 무조건 남가야 된다.”

고, 무조건 선나 밥도 띠이(떼어), 콩도 띠 묵고 또 쪼깨이 남구고, 또 쪼깨 나코 뭐 송편을

해줘도 마 선나 반 묵고 또 띠내고, 띠내고, [웃음] 그래그래 참 바보짓을 하더라 카네.

[복구 설화 210]

### 머느리의 방귀의 힘

조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그래 방구를 못 끼가지고 노-라이 그래 얼굴이 그래서,

“그래, 왜 니 얼굴이 그러노?”

이래 칸께네,

“방구를 못 끼서.”

“그러면 방구를 마음대로 끼라.”

칸께네, 고마 마 방구를 낀께네, 마 시아바이가 굴뚝으로 왔다가 쫓아 내려오고, 왔다가 쫓아 내려오고 전부 마, 그래가지고는 마, 맘대로 끼고 고마 그런 병이 낫더라 카대.

[복구 설화 211]

### 개로 환생한 어머니

조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생전 구경도 생전 안가고. 평생에 이 사람이라 카는 건 구경을 좀 다녀야 되지, 안 다니고 있으면 고마 막 참 그렇거든. 그래 만-날 인제 그 뭐 고마 저거 엄마가 개가 참 그 저저, 고마 그기 영혼이 개가 됐어. 그럼 만날 그토로(그토록) 고마 모도 이제 꿈에도 저것도 하고 이래해서.

그래 인제 엄마를 갖다가 인자 엄마라고 인제, 개를 올려 미고(올려 메고) 인제 온-데 이제, 생전 저 부모도 생전 구경을 안 시켜주면 개가 돼 뿌렸어 고마 개가. 구경을 안 시키주고 그래서. 그래 개가 돼가이고, 인자 사-방대고 데리고 땡기면서 참 구경을 씨기고(시키고) 그래 고마 효도를 하더라 카대.

[북구 설화 212]

### 개 서방 하다 개에게 물려 죽은 사람

조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그래 옛날에 인제 어떤 사람이 인제 군예를 갔는데 개 서방을 한 기라. 개 서방을. 만날 개를 데리고 자고자고 이래했는데, 그래 인자 참 델고 자다가 인제 개가 인제, 남자가 인제 휴가를 온 기라. 그래가지고 인제 마 좀 좋다고 오는 기라, 개가 마마 고마 짓고 마마, 막 쥐어뜯고 고마, [조사자: 남자를?] 응, 남자를 지뜯고. 지 지 지가 델고 자던 기니까. [청중: 지 뉘나놓고 간다고.] 어, 지 뉘나놓고 인자 그 남자하고 있다꼬. 그래가지고는 물어 직이 직이 더라 안 케여. 물어 직이더래잖아. 고마 쫓아와서 물어 직이뻘어.

[북구 설화 213]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조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그래 에밀레종 그걸로 그 저 보면, 어느 스님을 징을 만드는데, 하-도 인제 거기 소리가 안나. 아무리해도 소리가 안 나서, 그래 어느어느 어데, 아마 애를 거다가 이래 열으면 종이 난다, 저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래 그 애를 잡아다가 이제 그걸 이제 고아가이고, 거기 종에다가 열어서 그 소리가 잘난다고 그런 소리를 듣긴 들었어. [청중: 그래, 에밀레- 하고.]  
에밀레-하고 인제.

[북구 설화 214]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조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시집을 간게 어렵고 어려워서 탄 데로 또 시집을 간 기라. 그래가 본남편이 인제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해가, 급제를 해가지고 오면서,

저기, 저기 훑는 저 여자는 오나가나 쟁피, 쟁피로 훑는다.

고, 그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복구 설화 215]

### 도깨비불이 나타났던 덕천동 화장터

윤용만(남,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용당경로당]

그기 저저 그 이야기 아이가? 저 이전에 저 덕천동 그 뭐고? 덕천동에 저 화장터 있는 데 거 말하는 거 아이가? 덕천동 화장터에 거라. 옛날에 그 길이 글로 오고 산으로 산 비슷하이 오기 때문에 걸어올 짝에 만덕 쪽에서 지금 만덕동 그 우에가 개발되기 전에는 만덕1동 그 저 저 뭐꼬? 그 뭐 속똥이라 카제? 속똥하고 기찰, 기찰, 남산지, 기찰 이런 식으로 불리, 그리 돼가 있는데 만덕으로. 그때는 그 길이 여(여기) 없어가지고 전부 소길로 땡기기 때민에 산으로 글로 온다 아입니까? 오면은 밤에 비가 부실부실 오고 이라면은 옛날에 화장터가 있어요 거기. 지금은 낙동 고등학교라.

낙동 고등학교 그 장소가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울로 해 가지고 전부 공동묘지가 마이 있었어요. 글로 오면은 비가 오고 마 부실부실 오고 이라면은, 그기 인자 그때는 술이 뭐 약간 한 잔 하고 이리 오면은, 그 인자 어른들이 그 뭐 오시면은, 그 뭐 눈에 헛거물 찌다 카는 거가 뭐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 뭐고. 그런 식으로 된다 하는 그런 기지.

그래가지고 도깨비불이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는 뭐 자기가 뭐 질리가지고, 놀래가지고 어 그 토깨비불이 온다고 마 이래가지고, 화장터 글로 오니까네, 사람이 본되 질리가지고 그래 오인께네,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인자 길도 잊어뿌고 캄캄하니까, 길도 잊어뿌고 논으로 드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온, 와가지고 그 뭐 집에 온 사실도 있고 이런 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확실한 거는 지금 그래 된 거는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미레(때문에) 그 분이 그래가지고 저 병을 앓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었지.

[복구 설화 216]

## 학이 날라 가버려 명당을 잃은 학산

윤용만(남,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용당경로당]

전해 오는 전설이겠지요. 거기 사실이, 확실한 거는 아이고. 우리 학산이라 카는 거는 학이 마이 앉는다고 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간에 우리 저 시조, 그 우리 시조가 살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23세, 24세에, 아 23세에, 23세에 23세 소자 할아버지가 사셨는데(사셨는데). 소자 할아버지 바로 밑에 아들이 두 형제 계셨는데, 명자 은자 할아버지하고 비자 은자 할아버지 계셨는데, 명자 은자 할아버지가 그 학산에 계셨거든요.

거기 계셨는데 그게 그 할아버지의 그레 할머니가 임씨라. 수풀 임자. 평택 임씨라요. 평택 임씨. 평택 임씨가 어디 있냐 카면 지금 와석이라 카는 거기에, 거기에 잡고 있는데, 거게서 그 며느리가 뭐 그 하여튼 그게 딸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인자 시집을 오면서. 시집을 왔다 카는 그런 결론이대요.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가지고 인자 묘지에 아, 그 우에 웃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가지고 묘지에 인자 그 묘를 팔라 카는데, 아, 자기들 인자 할아버지가, 임씨 할아버지가 묘를 그 찔라 카는데, 학산에 거 가 찔라 카는데, 그 인자 며느리가, 아 이쪽 그 딸이 이 윤씨 집에 왔기 때미레(때문에) 윤씨 집에서 그 인자 밤새도록 물, 그 묘 거기에다가 들어 부어가, 부어가지고 물이 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위에 할아버지, 웃대 할아버지를 못 신고로 명산이기 때문에 못 신구로 했는데, 거기 인자 지나 가고 난 뒤에 인자, 그래가지고 우째 우리 할아버지 인자 묘를 썼는 거라. 거기에 인자 명산이 돼가지고 뭐 이리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윤씨들이 완전 번창했는데, 번창했는데 그 후에 어떤 그거 풍수가 와가지고,

“이 못자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응 여 조금만 앵기면(웁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자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전설입니다. 사실이.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좋겠다. 이리 됐는데 그거로 인자 그래서 여서 인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묘를 팠는 거라. 파니까 거기서 인자 뭐 김이 막 올라오면서 학이 뿔이 새가 그 뭐라 카노? [청중: 그 먼데서 보면 안개같이 올라오는.]

그 안개. 그 새 같은 기 날라가지고 어디 갔냐 하면, 여기 옛날에 여 저 저 장삿거리 있었어요. 여 포구나루라꼬 있고 그 돌이 마이 있고 정자가 좋은 기 있었습디다. 요기에. 개발되기 전에. 그 밑에는 전부 다 그 저 뭐꼬, 그거 뭐라 카노? 연못맨치로(연못처럼)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강이 흘러내려가 저쪽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글로 흘러가 그 큰 그렁이(개울이)

있었어요. 그 앞에 정자가 좋은 기 있었어요.

지금 요 있는 이 나무가 정자나무가 거서 앵긴(웁긴) 겁니다. 앵기 난(웁겨놓은) 겁니다. 그 밑에 돌이 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뒤를 갖다가 그 앉았다 카는 거라. 그 새가, 그 새가, 학이, 그 뒤를, 뒤에 앉았다꼬. 그래가지고 거서 결과는 우리 운씨 그 저 뭐꼬? 그기 명산이 날라갔다 이런 식으로 인자 그 이야깁니다. 전설이. 그래가지고 그쯤부터 운씨 집안이 좀 안 됐다.

[북구 설화 217]

### 용당마을의 유래

윤용만(남,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용당경로당]

그기 문제가 아이고. 산이 용으로, 용 맨치로 학산부터 해가지고 이 용이 짝 뺀은 것 맨치로 그리 돼가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용당이라꼬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용자로 용, 용 맨치로 이리 생겼다 해가지고 용당이라고 짓는 겁니다.

이기 [청중: 용 못이라. 여기가.] 산줄기가, 산줄기가 그래 이 원치 산이 쪽 붙어가 왔는데 일본, 일제시대서 그거 저 뭐꼬? 이거 철길 내면서 그 중간 찢라뺐어요. 산을, 산 중기를, 그래서 정기가 날라갔다고(날아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던요. 저 이 철길, 옛날에 있었던 철길이 그때 산 중턱을 찢랐는 거라. 찢라노인께네(자르니까) 그 정기가 다 날라갔다고 용당이. 다 날라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디다.

[북구 설화 218]

### 학이 놀다 간 학사대

최말분(여, 1946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용당경로당]

여기 수정마을아파트 잘에 요쪽 삐알에(지역에) 산이었거든. 동네 요 동네에서 산이었는데, 거게 선비들이 맨날 모이가지고 시를 짓고 이랬다더라구요. 그래서 그 학이 맨날 날라 와가

앉아가 있고, 그래가 그 산을 바위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학사대라 칸담미더.(한답니다.) 학사대 산이라고, 인자 선비들이 그 시도 읍고 모여가 놀고 이라는데, 거 인자 학이 날라 와가 거 앉았다꼬 학사대라 캐가, 거기 인자 이래가 유래가 돼가 여 초등학교가 학사초등학교라 요 동네에.

[복구 설화 219]

### 일본인이 철길을 놓아 망한 동네

최말분(여, 1946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용당경로당]

옛날에 진-짜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 과거를 보러 갈라 하면, 요 동네 앞을 지내갈라면 말을 타고 못 가고 내리가 걸어갔다네. 그래 일본 사람이 그 이 동네가 너무 잘 사니까, 철길을 갖다가 여 밖으로 안 내고, 요 동네 저 산에서 내리오는 설(혈)로 끊어가, 동네 복판 절-로 (저기로) 둘러가 기차길을 내가 요 동네가 망해뵈는 기라. 그래 인자는 저 복원해가 요 밖으로 냈지. 새동네 하먼서러.

[복구 설화 220]

### 명당 터를 가로챈 딸

최말분(여, 1946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용당경로당]

저 요 옆에 동네 임씨가 살고 요는 윤씨 집작촌(집성촌)인데, 임씨 딸이 요 시집을 와가지고 인자 친정에서 초상이 났는데, 요 우리 집 앞산에 산소가 대기 좋아. 거서 알고, 명당자리 알고, 이래 뵈를 파 났는데, 이 딸이 가마히 보이 욕심이 나거든.

저거 부모, 시부모를 갖다가 모시고 싶어가 밤새도록 나무로 놓고 물로 이다가 붓다네. 그래 가 인자 초상 칠라고 보이 물이 있거든. 그래 안 치고 가뿌리고(가버리고). 우리 윤씨 할배를 그 모시가 아주 잘 살았다 카더란다.

## 2. 사상구 설화

[사상구 설화 1]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옥순(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애기를 기르는데, 저녁 내 뭐 줄까 뭐 줄까 해도 울어. 그래서 호랑이가 인자 그 밖에 와 있는데, 호랑이가 인자 사람을 어찌 해칠라고 와 있는데, 그래 인자 방에서 뭐 뭐쭈 호랑이 온대도 울고, 사심(사슴) 온대도 울고, 뭐 늑대 온다 해도 아가 울거든. 대게(많이) 울거든.

“그러면 꽃감이 줄까?”

그런께로 안 울거든. 그래 호랑이가 도망을 가부렸어(가버렸어). 꽃감이 저보다 더 무서운가이. [청중: 꽃감 뒤에 호랑이 안 있나?] 응, 근데 꽃감은 그 인자 맛있다 아이가, 요 꽃감 꺾아 놓은 거. 그랬는데 호랑이는, [청중: 지보다 더 무서운가 싶어서.]

‘어이구, 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갑다.’ 싶어서 그냥 도망을 가부린 거야. 그래 애기 들이 울면,

“꽃감 줄까. 꽃감 줄까.”

그래.

[사상구 설화 2]

### 여우를 죽여 망한 집안

김정자(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어이구 마, 동네서 나가뺀고 없는 기라. 그래서 인자 온- 동네 사람이 메칠을(며칠을) 찾아도 못 찾는 기라. 그래가 오디에(어디에) 있다고 메칠만에 찾았는데, 찾아갖고 천-지를 땀겼는데, 저 동네가면 높은 어덕이(언덕이) 있고 글타대. 그 뭐 얘기장도 있고 그 뭐 무섭아서. [청중:

애기장터라.] 사람들이 뱅이도(병도) 모우고 이랬는데. [청중: 애기장터가 마이 있다 촌에.]

그 높은 데서 널썰갓고 죽었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몬 지낸다고, 이 인자 모판을 해는데, 여시가 두 마리가 와서 빙-빙-, 아들이 허는데 돌더란다. 거기 갔다가 조키(줄게) 달개가 보냈으면 될 낀데,

“아 이놈의 새끼가 놀로(누구를) 잡아물라 여 왔나?”

카면서, 때리 몽둥이로, 때리가 잡아뵈어. 잡아논께 마 여시 잡았다고, 여시 고기 묵고, 여시 보지 사러 마 백 사람도 더 들어오더란다. [청중: 여시 보지가 노랑내가 좀 나니라.] 근데 여시 보지 징기면(지니면) 재수 있다고 전에 말이 있다 아이가. [청중: 응, 말이 있다.] 그거 살라꼬 마 서로 사람이 와서 마 잔금을 치고 이래 갔는데. 싹- 집구석이 망해지뵈. 시집 간 딸꺼정 죽어뵈더라고. [청중: 아이구!] 시집 간 딸꺼정 죽고, 착-착- 죽어뵈고, 저 막내딸이 있었는데 시집 갔는데, 가더만은 병신 아로 하나 나뵈더라고(날더라고), 그 또 아가 죽었다더라.

여시 잡고난께네, 그리 집안이 안 풀리고 아. 그래갓고 그 또 사촌제종도 다 사람들이 멍청하이 다 안 좋아. 우리들도 여 또 사촌제종 있고, 또 우리들은 우리대로 또 이리 있는데, 그 집안은 넷 집인가 다섯 집인가 다 망해뵈더라고. 그런 꼴을 봤다 내.

[사상구 설화 3]

##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유막달(여, 1925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도깨비가 불이 마 파딱파딱파딱 하고. 요도 파딱 저도 퍼떡 마. 그래 마 불이 나, 그래 나오면. [청중: 개똥벌레불 아이가?] 언지예(아니요), 그리 나오면 그 집에 툇 이리 인자 대게 너른 터가 있거든. 그 가서 탁- 꺼져 뵈고, 또 보면 우리 대청이 있은께 인자 뵈거든(보이거든) 앞에 환하이, 또 보면 마 도깨비, 나중 보몬 빗자루 몽댕이라.[웃음] [청중: 그래 빗자루 그거, 몽댕 빗자리 그기.]

날새서 가본께네 빗자루 몽댕이라. [청중: 옛날에는 도깨비 많았는데, 지금은 도깨비 없어.] [조사자: 맞아예.] 그래가 그래 내가 만날 저저 도깨비불 나면,

“그 빗자루 몽댕이다. 빗자루 몽댕이다.”

[사상구 설화 4]

###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윤옥자(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어떤 사람이 마 와 붙들어가지고 뿔이 마 가자 카더란다. 불이 풀뚝풀뚝 쿠나. 요거 놈이 뿔고 싶어 마음에, 술이 취해도 ‘요놈이 아마 토채빈갑다.’ 싶어가지고 뿔곰 붙들어가지골랑, 집에 가가 대추나무, 삼작거리 대추낭게에 가 뿔곰 붙들어 매놓고, 아침에 보이, 빗자루 몽댕이 요만한 빗자루 몽댕이더란다. 그래가지고 있더란다. [청중: 빗자루 몽댕이라.] 빗자루 몽댕이 랜다.

[사상구 설화 5]

### 여자 밑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차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옛날이야기요. 그래서 인자 딸이, 저저 엄마가 저- 산 너매(산 넘어), 참- 높은 산 너매 있는 기라. 옛날에 차가 엄서(없어)가지고 내- 걸어 땡깁는 기라. 산 문당이로 꼭다로 (꼭대기로) 걸어 땡깁는 기라. 걸어 땡깁는데 인자, 엄마가 인자, 저저 딸이 목을 해갖고 엄마 집에 간다꼬 가인께네, 가이 호랑이가 그 문당(꼭대기에서) 그 호랑이가 확- 내리다 보고 있거든.

‘우째 내가 이 목을 우리 엄마를 해다 줄꼬. 우째 저 호랭이 속에 갈꼬.’ 싶어서 머리 췌어. 궁리 내갖고 옷을 할딱 벗고, 옷을 할딱 벗고 뒷걸음을 쳐서, 이놈의 뒷걸음을. 이리 짹- 벌리갖고(벌려서).

아이고- 호랑이들 ‘저 내보다 더 무섭은 게 온다.’ 싶어가이고 [일동 웃음] 전부 도망을 가더라 캐. 전부 도망을 가더라 캐. 그래가 인자 도망을 가서로 그래가 인자 살짝 그거를 갖고 가 갔는 기라. 가 가서 옴마 집에 간께네 옴마가 참 있더라 캐. 그래 목을 인자 목어라고 주고, 또 또 호랭이가 짹- 있더라 캐. 또 그래가 올라온께 또 그래가 넘어왔어. 넘어온께.

이놈의 난중에는 마 옴마가 죽어논께네, 이놈의 부고가 오나 뿔이 오나 아무것도 모리는

(모르는) 기라. 그래가 난제는(나중에는) 또 한 일 년이나 이 년이나 있다가 넘어가인께네, 그래가 또 뒷걸음 쳐가 그래 넘어가니께네, 옴마가 죽어빠고 없다. 언제 죽었는가 그것도 모르고 죽어빠고 없더라 캐. 그래가 혼자서 고마고마 산골짜에 오디에다(어디에) 갖다 물어놓고, 꿩이로(꿩이로) 파가 물어 놓고 혼자 넘어왔다 쿠더란다.

[사상구 설화 6]

###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에게 잡혀간 오누이

정차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참- 엄시(없이) 살아갖고 엄마도 아빠도 없고, 아(아이) 둘이 형제간 저 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저 머스마 하나 이래가. 인자 어데로, 엄마도 인자 엄꼬(없고), 죽어 빠가 엄꼬, 몬 묵고 살아가 죽어빠고 없고. 그래가지고 인자 산골짜으로 산골짜으로 밤새 점도록 걸어간께네 불이 뻥-해가 있는 기라. 어느 산골착에(산골짜에).

그래 그 집이 인자, 아들 밤은 어둡제, 그래 그 찾아 들어가네. 찾아 들어가이 호랭이집을 찾아 들어갔어 호랭이집을. 호랭이 둔갑을 해가. 호랭이 낮에는 사람이 됐다가 밤에는 호랭이가 되고 이러는 기라, 그래 가가지고,

“좀 잠 재여주소.”

이래갖고 아들이 인자, 좀 아 어린 아, 좀 큰 기,

“좀 재이주소.”

이런께네,

“아이고 그래, 우리 방 오이라. 방 뜨시다.”

인자, 둔갑을 해갖고, 호랭이가 둔갑을 해갖고,

“뜨시다. 얼른 들어오이라. 들어오이라.”

밥을 엄-청 잘 채리 주더라 캐. 뭐 배도 고프고 엄마도 엄꼬, 배도 고프고 한데 그 얼마나 마이 묵었겠노. 실컷 먹이갖고 인자, 잘 채리주가(차려짐) 먹이(먹여)가지고. 둘이서 누우 자는데, 방 뜨끈뜨끈한데 누우 자는데, 밖에서러 이 문구녕 그 초입장 문구녕 그긴데, 문구녕 밖에서 뭇이 불로 훅훅- 때 쫓더라 캐. 그래서 춤을(침) 발라고 푹- 뚫버가 보니까네, 호랭이가 둔갑을 해갖고, 낮에는 그 인자, 밤에는 사람이더만 둔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로 때 쫓더라 캐.

아휴- 겁시(겁이) 나고, 큰 기 그래갖고 인자 불로 때아싸서, 새이가 쫓 인자 그 큰 오빠가

쫓깨난 동생을 그거를 얼마나 피곤하노? 두드리 깨배민시로(깨우면서),

“일라라(일어나라). 일라라.”

인자 그 창문에, 그 요런 봉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갈라꼬. 인자 호랭이가 되는 꺼네 겁시나서(겁이나서), 저거 잡아묵을라고 하는가 싶어서 인자 이란께, 아무리 깨배도(깨워도) 동생 그는 낮에 대가지고(힘들어서) 늘어빠지가지고, 밥 마이(많이) 못제(먹었제) 늘어빠지가 일나도 안하고, 마 더불러 호랭이 둔갑을 해갖고 더불러 들어오는 거 갖고 창문으로 팍 튀 나가뻘어. 튀 나가갖고 인자 아 그 놈은 쟁히가뻘어. 쟁혔는 기라.

잡아갖고 마 끓는 물에다 잡아 열어뻘어. 끓는 물에다 잡아 열어갖고. 그래 그 오빠라 카는 그기는 인자 거 뒤편에가 큰- 나무 구간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타고 올라갔는 기라. 나무 재주를 잘 해가 타고 올라갔는 기라. 그래 날이 히룸하지 그 아로, 지 동상을 잡아 감서로 마 가족을 뱃기고 마 머리카락(머리카락) 뜯고.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르, 그 인자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른께네, 호랭이가 하는 말이, 호랭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오늘 어 인(人)고기 잡아가 인고기 팔러 갈 낀데, 날이 비가 와서 이래가 우야꼬, 우야꼬-.”

쳐다보고 이래 썬거든. 그 오빠가 딱 그 있거든. 오빠가 딱 있은께,

“하이고-, 나는 우째가 거 올라갔노?”

“나는 발바닥에다가 참지름 보리고(바르고) 들지름 보리고 저 이우지(이웃에) 가서 얻어가지고 들지름, 참지름 전부 지름이라고는 다 보리고 그래 올라왔다.”

쿵께네, 이놈의 호랑이도 지름하고 썬리 볼라가 올라간께네, 미끄럽어가 못 올라오거든. 못 올라온다.

그래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인자 눈물도 너무 마이 흘리갖고 눈물도 안 나오고 한께네, 그 인자 동생을 잡아갖고 짹어지고 가는 기라. 또 사람이 돼갖고, 둔갑을 해갖고, 사람이 돼갖고. 저 산 너매로 팔러 가는 기라.

그래 이 머스마 이기, 이 오빠라 쿠는 기 멀기 자꾸 숨어서 내리와갖고, 멀기 숨어서 뒤따라가는 기라. 그래 어느 동네 간께, 동네가 산 넘어간께 동네가 커다란 게 있는데, 그래 인고긴 무슨 고긴고 싶어서 인자 마을 사람이 살라 카는 기라. 살라 쿠면,

“인고기가(사람고기) 머요?”

“하이고-, 인고기 맛있다.”

꼬,

“인고기는 맛있다.”

꼬, 카 썬거든. 그래 살라인께(사려고 하니) 오빠라 카는 기 와가지고,

“하이고-, 사지 마소. 사지 마소.”

울면서,

“우리 동상, 우리 동상 잡은 기라.”

칸께, 그래가지고 그 동네 그 인자 그게 포수가 나와가지고 총알로 딱 쏘니께, 큰- 호랭이가  
널어져빠지가 죽어뻘어.

[사상구 설화 기

### 각시로 변한 새금파리

정차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참 옛날엔 못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혼자 호불애비가, 응 호불애비가 인자  
장개도 못 가고, 호불애비가 참- 못 살아가지고 때꺼리가 없어가지고 땅을 고마, 먼당(산꼭  
대기) 고마, 산뻘탈에 파가지고 인자 묵고 사는데, 그 땅을 호갱이로가 이리 파면은 얼마나  
대노(힘드나). 저무나 새나(날이 저물거나 날이 새거나) 밥도 안 묵고. 그 대서러 허리 쫘  
편다고,

“허유-, 이 땅 이리 파갖고 누랑 묵고 살꼬.”

자꾸 이라거든.

“누랑 먹꼬 사노. 내랑 묵꼬 살지.”

또 옆에서 그런 소리가 나. 사람은 아무리 차리(쳐다)봐도 엄서(없어). 차리봐도 엄서가지고  
또 한참 파다가 허리가 아파가 신다꼬,

“후유-, 이, 누랑 묵고 살꼬.”

이라면,

“누랑 먹꼬 사노. 내랑 묵꼬 살지.”

이라거든.

그래가 인자 그 앞날에, [청중: 이야기를 어부(제법) 잘하네.] 그 앞날에 땅을 파다가 그 밭  
맹근다고(만든다고) 땅을 파다가, 하-도 예쁜 새금파리(새금파리)가 있었어. 새금파리가. 새금  
파리 뭐,

[조사자: 그릇 깨진 거.] 응, 그 그릇 깨진 거 새금파리. 거기 하도 이빠서러 그걸 갖다가  
떡- 농 밑에다가 씻겨갖고 여 났더라 캐. 씻겨갖고 영는데, 인제 말하자면 거기 사람이 돼가  
지고, 아가씨 새댁이가 돼가지고, 인자 와가지고 그라는 기라. 그런께네 하도 사람은 안 보이  
는데, 날마다 오면 그리하면 그 소리고,

“누랑 묵고 살아 내랑 묵고 살지.”

하도 날마다, 오늘 그라고 내일 그라고, 날마다 그래 하다가. 그래가 인자 하도- 밤으로

누워서도 수상하고 하도 이상해서로, 하리는(하루는) 인자 땅을 파러 안 가고, 저, 아, 땅 파가 집에 오면 밥을 짝- 해놓고, 멋지게 해가 채리놓고, 밥수건가(밥수건으로) 딱 덮어놓고, 고만 그래놓고 사람은 엄꼬(없고). 맨날 그렇더라 캐, 땅 파고 오면 그렇더라 캐. 그래서러,

‘이기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싫어서러, 궁금해서러 한번은 변소에 가갓고 가만-히 숨어가 지고, 숨어갓고 인자 망 본다고 본께네, 똑 새-파란 치매를 입고 빨-간 저고리를 입고 이래 갓고 고름 녕청하이도록 아침에 딱 입고 나와가, 방에서 쑥- 나오더니 쌀로 퍼다 밥을 하고 막 반찬하고 해쌌더라 캐. 가마이 망을 본께. 그래 짝- 해 놓고 또 짝 방에 들어가고. ‘이상하다.’ 방에 들어와서 인자 밥을,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사람은 아무도 엄는데(없는데) 우째서 사람이 이리 생겨가 나올꼬 싶어서 가마이 생각을 한께, 지 새금파리 갓다 논(놓은) 거 그거를 갓고, 그거를 인자 생각을 했는 기라. ‘아- 이게 둔갑이 돼가 사람이 돼가 나오는 갑다.’ 싫어가 그래가.

또 하리는 또 인자 땅 파러 간다고 또 막- 나와가지고, 또 오데 머 어덕(언덕) 밑에 오데 뭐 숨어갓고 있다가 또 짝- 이래 훌타꾸니 들어와서 이래 보인께네, 또 옷을 짝- 꺼내서 또 밥을 해 놓는 기라. 그 또 짝 해 놓고 들어오고, 밥을 할 때 그때 가서 탁- 안아뵈어. 너무 신기해 갓고. 요래 마 탁- 마 부석에(부석에서) 밥 하는데 마 탁-, 하도 이쁘고 신기해서 딱 안아뵈 니까네(안아버리니까).

“하이고-, 와 나를 안냐?”

싸면서로 막 좋아서 죽을라 카더라. 그래가 둘이서 그리 잘 살더라 캐. 그 땅 판 거 이라갓고(일구어서) 송거가(심어서) 묵고, 너무 잘 살더라 캐. 부자가 됐어. 그런 기라.

[사상구 설화 8]

## 날이 굶으면 나오는 도깨비

정차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날이 꾸무리하고(굶고), 꾸무리하고 비가 올라 쿠고 날이 꾸무리하면 토채비가 나오거든. 토채비가 나오거든 그라면,

“헤에에에에에-- 야호호호-- 헤헤헤헤- 야호호호-- 헤에에에-” [웃음]

밭이나 매고 하면은 토채비가 나와갓고, 밭을 매고 마 어둡어둡한데 마 토채비가,

“헤에에에에 호호호호호 히히히히 호호호호호.”

항상 그러거던. 그러은 마 무서버서 이기 마마 하늘땅까지 올라갈라 카는 기라. 그럼 이리

이리 누벼 업치갓고 이래 밭 매다 땅배닥(땅바닥)에서 엽차(엿드려) 쳐다보면은 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 나는 기라. 그러면 난중에는 또 쯤 있다가,

“흠 대! 대! 대! 대! 대! 대!”

해쌌고 어,

“짜어라, 짜어라, 토채비 방망이 나온다 짜어라, 짜어라.”

해쌌고 막 그리 썻더라고. 진짜 무섭았다. 토채비 나올 때는. 날이 꾸무리하고 토채비 나올 때.

[사상구 설화 9]

## 저승 갔다 온 사람

정차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그래가 인자 새벽녘에 내가 잠이 싹- 들었어. 우째 꿈을 꿴다 잠이 들어뻘어. 꿈을 깨이, 하-얀 옷을 입고 할매가 들어와갓고 소복을 입고 이리 들어와갓고,

“니 농 안에 있는 한복 내 입어라.”

이래. 한복이야 썻지( 많지). 옛날에 입고 놔둔 거. 그래 한복을 싹- 내 입고,

“흰 고무신 있거든 신어라.”

이러더라고. 그 또 흰 고무신도 있지. 흰 고무신 그놈을 신고.

“옆도, 앞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내 뒤만 따라 오이라.”

이러고 딱 데꼬(데리고) 가. 한 질이(길이) 고마 똑- 이것보다 더 매끄롬해. 빨-가이 색깔, 요런 색깔도 아이고 빨-그란 조런 색깔 쯤 찢한 거 매이로(처럼). 한 질에 가는데, 양쪽 가세(가예) 마 꽃이 마 이막시해(이만해). 복썰복썰하이 빨간 꽃, 흰 꽃, 노란 꽃 양쪽 가세, 내가 이리 가면서 마 이리이리 채리(쳐다)보거든. 이리 채리본께네, 이래 가면서 한복 입고 따라 가민서로.

간다꼬- 간다꼬- 마 엄청 멀더라고 그런 데가. 아따 산꼴로 산꼴로 드가는데, 첩첩산꼴로 드가는데, 저 합천 해인사나 어데로 가면은 큰 기왓집, 와 집이 있다 아이요? 대문도 엄-청 크고 막, 대문이 이거 이거보다 더 커. 그래갓고 인자, 그 딱- 어느 정도, 요서 저만치 대문이 있으면,

“아무것아, 문 열어라.”

앞에 가는 사람이,

“문 열어라.”

한께네, 양쪽에 그 남자들이 들어서 하나는 이리 착- 제치고 하나는 요쪽 서가, 들어서 짝- 이래 열더라고. 내 따라 여, 문턱이 또 요마이(요만큼) 높아 또. 참 저승 문턱이라쿠더니 엄청 높아. 마 나무 뚱거리가(나무토막이) 엄-청 커. 이리 높은 기.

“그 이거 넘어 오이라.”

이라더라고. 근데 나는 말도 안 하고 따라가는 기라. 자꾸 오라 쿠는 데로 따라가는.

그래 또 한 대문 또 간께,

“문 열어라.”

칸께, 하이튼 세 대문을 들어갔어. 세 대문을 들어갔는데. 우찌 그리- 좋을꼬, 그 마 너무 좋더라고. 마당도 흙 하나 엄고(없고) 고마, 저런 색깔 좀 찌한 거 매이로 마 빠드래- 빠드래 해갓고 너무 좋아 마. 그러케 해갓고 거기 앉아가, 딱 가마-이 가운데, 그 큰 마당, 너린(넓은) 마당 그 복판에다 세와놓고(세워놓고).

“여 가마-이 꿈짝도 하지 말고 서가 있어라. 내 오도록 서가 있어라.”

이러더라고. 그래가 인자 대답은,

“예-.”

해놓골랑, 서가 있은께, 안에 이리 둘러보니까네(둘러보니까) 어찌나 집도 크고 너무 마당도 너리고(넓고) 너무 좋은 기라 고마. 그 꼴짜기 다 차지해 있는 기라. 근데 한-참 있다 오더 만은, 딱 오디 내 앞에 서서.

“오던 질로 쪽- 바로 가라. 옆도 보지 말고 오던 질만 쪽- 바로 가라.”

쿠대. 세 번을 딱 그라대. 그래 마 죽자 살자 뛰논께 고마 깨져뻘어.

와이고, 내가 이런 무슨. [청중: 꿈 꾸민(꿈 꾸면) 죽었다 안 하나. 꿈 꾸민 거기 죽었어.] 그래, 그 안 보내주면 죽는다 쿠대.

[사상구 설화 10]

## 나무꾼과 선녀

정차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산꼴착에(산꼴짜에) 참- 물이 너무 좋은 기라 그 그 못에. 물이 좋아서로 그래 나무꾼이 총각이 하나. 나무꾼이 나무 하러 갔어. 그래 그 물이 시-퍼런데, 선녀가 내리와가지고 모욕을(목욕을) 하는 기라. 옷을 딱- 바우 우에다 딱- 벗어 놓고, 좋은 옷을 벗어 놓고, [청중: 서이가.

서이가.] 응 서이가. 그래 옷을 딱- 벗어 놓고, 그래 인자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하-도 예뻐서러, 너무 예뻐갖고 반해갖고, 저 놈 옷을, 옷을 내가 그거 아까분께(아까워) 몬 보내낸 게네, 옷이라도 훔치갖고, 내가 하나로 그거를 내 사람으로 빼이야(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옷을 한 벌을 싸 가와.

둘은 옷 입고 올라가뻘는데 하나가 옷을 엄신께(없으니) 몬, 그래 둘 올라가고 나서로 옷을 인자 주갖고, 그 인자 지 사람을 삼았는 기라. 삼았는데 인자 부부로 해가지고 아로 하나 낳았는데, [청중: 둘이 낳어.] 아이라, 하나 놓고 또 둘 놓고, 인자 둘만 놓으면은 인자 하늘로 안 올라가지 싶어서러 인자, 그리 마음을 놓고 인자, 마음을 놓고 땡겼는데, 아 둘 놓은게 네 양쪽에서 딱 보듬고 올라 가뻘더라요. 셋을 낳아야 마음을 놔야야 될 낀데, 딱 양쪽에 보듬고 딱 올라가뻘어.

[사상구 설화 11]

### 호랑이에게 목을 빼앗기고 잡아먹힌 할머니

정차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할매가 딸네 집 가면서러 목을 한- 단지 해가이고 이고 가거든. 모래이로(산모통이로) 모래이로 돌아가는 기라. 옛날에 산꼴이 되논께. 요새는 이렇지만은. 모래-이로. 한 모래이 돌아가면 호랑이가 나와갖고,

“할매, 할매, 목 한 동가리, 아 한 덩거리 주면 안 잡아묵지.”

이 할매가 안 잡아먹힐라고, 내- 목을 주는 기라. 또 열두 모래이 돌아가도 또 계-속 모래이 돌아간게네, 그 호랭이 계속 나타나서는 또 묻고, 또 묻고.

고마 빈 덩거리 가거든. 빈 덩거리로 또 한 모래이 돌아간게네,

“할매, 할매, 목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묵지.”

이래, 그래가 인자,

“목이 다 나가고 없다. 오이소(구술 도중 지인을 보고 한 말). 목이 다 나가고 없다.”

한께네,

“그럼 내 업어주면 안 잡아묵지.”

이라거든. 긍께 등더리 딱,

“업어라. 내 업어줄께. 요 업히라.”

딱 업으니까, 등더리 딱 물어(물어) 직이뻘더라.

[사상구 설화 12]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시오마이가(시어머니가) 봉사라. 근데 옛날에 고기가 귀하잖아. 고기가 귀하니까네, 인자 메느리가 아들 군에 가뿌고, 시오마이가 인자 자꾸 고기를 타령을 하니까, 메느리가 돈은 엄꼬(없고) 이래서 지렁이를 잡아다가 할매로 끓이주면(끓여주면) 무보이(먹어보니) 참 맛이 있는 기라.

보이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리 밑에다가 한 동가리씩 여 냐는 기라. 그래 인자 아들이 인자 왔, 제대를 해가 와가 그래,

“우리 어마이가 뭐를 자시고 이래 얼굴이 부-허이 좋노?”

이라이까네,

“아이고 야야, 메느리가 오데서 고기를 가 왔는지, 그 고기를 맛이 있더라.”

쿰서, 자리를 희뜩 들이빈께(들어보니),

“어머니, 기(그것) 거싱이(지렁이)네예.”

쿰께네, 마 할매가 놀래가 눈을 똑 뜨더라 안 카나. 그 이야기다.

[사상구 설화 13]

###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뭐꼬, 오데가 물으니까는 그 시오마이가 아팠다대. 그래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낫는 기라. 그래 누가,

“아를, 너거 아를 하나 잡아가, 문둥병이라. 인자 그래 인자 그거를 하나, 아로 하나 잡아 먹이면은 할매가 일날 꺼다.”

이랬는 기라. 그래 참 아가 인자 저게 뭐꼬, 저거 자석을 직일라 쿰께네 열매나 가슴이 아플 끼고, 아파도 저거 엄매를 살려야겠다 싶어서 아로 마 솔에다 열어가지고 꼬았는 기라.

꼬아가 할매가,

“아이고 야야- 이, 내가 이거를 묵고 이래 일어나는데 희한하다.”

이래쿰서 일어나는데, 아가 저 밖에서,

“옴마-.”

쿠면서 쫓아 들어오더라는 커라. 동삼이라 거기 자기 자식이 아이고. 그 인자 그만큼 효부를 인자 불라꼬, 동삼을 인자 눈에 자식으로 보이게 했는 기라. 그래가 그 효부로 인자 되는 기라. 자기 자식이 아이라 거기. 동삼을 잡아 여가 삶은 긴 기라.

[사상구 설화 14]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이 인자 늦그릇을 구걸을 하러 땡기는 거라. 와 그러냐면은 종을 그 큰 거 맨들라 하이께네 쇠가 없는 거라. 그런께네 집집마당 가서 인자 뭐꼬 늦그릇을 내 낚라. [조사자: 누가예?] 응? [조사자: 누가예?] 인자 종 맨들 사람이. 응 그래가 인자 저기 늦그릇을 내 낚라 칸께 이 집에는,

“아이고! 우리는야 아무것도 줄 끼 없고야, 아나(아이나) 줄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켜는 기라. 거기 인자 모순이 돼갖고, 그 종을 맨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거라. 그래 인자 이 사람이 꿈을 꿔는 기라. 꾸께네 인자 그 애를(아이를) 마 열야만 종소리가 조타(종다) 이리 땡는 기라.

그래 옛날에 인자 각처 땡기면서 모아가 종을 맨들어도 종소리가 안 나서, 그 애를 같이 열야가 고와가 인자 쇠로 주물로 맨드니까나, 그리 종소리가 잘 나더라 안 카나. 그 옛날에 전설이라. 그 그리나와. [청중1: 근데 아를 땡라고 준다 그랬을까 아를 이리이리.] 그러니까 인자, 우리가 인자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가 인자 거기 인자 헛말 나온 기라. 그런데 인자 그 사람이 입을 뿔안(뿔은) 거를 할 수 없는 거야.

[청중2: 나라에서는 그거를 우짚 켜가.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 애로 마 열야만 인자 소리가 난다 이리 돼갖고.

[사상구 설화 15]

### 게를 떼려다 입을 물린 사람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뭐꼬, 모로 심는데 인자, 이 며느리가 밥을 해가 이고 가는 거라. 가는데 오줌이 해필, 인자 아, 저 저 뭐꼬 시숙이 눈을 갈고 있는데, 제수가 인자 밥을 이고 그 뚝 넘는 거는 봤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와서러 넘어다 보이께네, 이기 얼마나 오줌이 누렵든지 고마, 그 이고 오줌을 누는데, 께가(게가) 나와서 해필 여 보지 끈탕이, 여 시월지름(여근을 말함) 물었는 기라. [일동 웃음]

아무리 해도 안 났는(놓아) 기라. 그러인께네 시숙이 배는 고프제 마, 부애가(화가) 나가 지고 쫓아온께 제수씨가 떡- 가랑이를 벌리고 이래가 오줌을 누고 이래 게가 떡- 물었는 기라. 그래,

“아주버님, 아주버님, 요 함(한 번) 디다(들여다) 보이소. 께가에- 여 한 군데를 물어예.” [일동 웃음]

“예-.”

쿠며, 한 다림에(한 걸음에) 디다 본께, 고마 시숙도 인자 이짜 입을 또 물어빠렸어. [일동 웃음]  
그래 옛날에 그 전설이.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6]

### 이상하게 생긴 입보고 도망간 호랑이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밥을 인자 톱 매러 갔는데 호랑이가 잡아무러(잡아먹으려) 왔는 기라. 호랑이가,  
“으르렁. 으르렁.”

쿠거든. 아이고이 잡아먹는다. 옛날에는 와 꼬장주, 요 주름 잡아가 끄내끼(끈) 매가 여 톱- 앉으면 벌어지는 거. 근데 해필 옛날에 사람들은 이 가짐을 안 했어. 안 하고 인자 뭐꼬 마 호랑이가 온께, 무섭은께 치마를 흘-떡 뒤집어쓰고 마, 이래 었디렀는 기라. 그란께네 피가, 멘스 그기 요 요래갓고 마 터랙기(털) 부비는데, 빨건 피가 칠칠 흐르거든. 호랑이가 보이께네,

“야, 내 이때꺼정 있아도 입이 가로 찢진 거는, 옆으로 밑으로 찢진 거는 처음 봤다.” [일동 웃음] 면서, 도망가는 거라, 그런 이야기 해놓고 많이 웃었다. [청중: 예이, 그런 소릴 해여.]

[사상구 설화 17]

### 영덩이로 호랑이굴을 막은 사람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그러고 인자 호랭이 굴에 갔는데, 우리 저저 전에 일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호랭이 굴 막홀(막을) 사람은 내 하나밖에 없다.”

이래, 내가 덩치가 큰게. 그래,

“지랄병 하네, 문디걸은 기.”

내 이러쿵께네, 그래 인자 호랑이가 잡아무올라꼬, 호랭이가 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마 여자 덩치 큰 기 참말로 마 궁디로(영덩이로) 막하뿌렸어(막아버렸어).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살았단다. [웃음] 그래갖고 그 이야기도 있다.

[사상구 설화 18]

### 자기 새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촌에 가면 뿔뿔 있제? [청중: 뿔뿔이다.] 뿔뿔이 뭐라 하면 지금 뭐라 하노? 그 보리 밥. [청중: 아 보리밥.] 그기 인자 지금은 모두 키우지만, [조사자: 산에 모두 열매로 있었지 예.] 옛날에는 산에서 낚거든. 그래가 우리 엄마가 서 되로 땀대. 한 서너 되를 땀는데, 옛날에는 그 뭐 운동화가 있나, 고무신 그것만 신고 갔는데, 따다가 본게 어데서,

“크르릉-, 크르릉.”

글터란다. 인자 아- 저게 뭐꼬, 고양이 걸은 기 세 바리, 두 바리가 딱 있는데 너무 이쁘 더래 양쪽 쪽에, [청중1: 탁 고양이만(고양이만) 있다.] [청중2: 호랭이 새끼, 호랭이 새끼.]

그래 마 너무 이빠가 마 입을 맞추고 마 이리 씨담은께(쓰다듬으니까). 오데서,

“크르릉-, 크르릉-.”

인자 목에서 호랑이는 그 ‘크릉 크릉’ 소리 내도 고양이도 난데이. 그래 인자 딱 이렇게 보이께네, 호랭이가 하나 마 이-러고 앉아있는 기라. 놀래가 마 그 새끼고 뭐꼬, 마 우리

엄마가 마 신발도 다 내 편지고, 마 자리고 뿔기고 집에 오이께네, 신발쩍이하고 자리하고 함부리 갖다 났더라 캐.

[사상구 설화 19]

### 오누이와 대나불골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저 산청 그 가면, 옛날에는 걸을, 또랑을 걸어 다니거든. 인자 장애를 가도 걸어댕기고, 요새는 다리를 다 놔놓으니 그렇는데, 가는데 누나가 자양(장애) 갔다 오는데 옷을 한복을 옛날에는 입었잖아. 입고 비를 쪼로록 맞은께네, 요 살이 싹- 딱 들어붙는다 아이가.

인자 남동생이 뒤따라 오면서 누나를 보이께네, 마 이 꼬치가 섰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문땀 것이 왜 누나를 보고 섰나 싶어서러, 마 돌에다 놔 놓고 팡팡 찍어가(짚어) 죽어뿔어. 죽으니까나 누나가 와가 너무 억울해가,

“대나불 곁, 차라리 대나 봤으면은 죽지는 안 았을 곁.”

그거 유래가 있어. [조사자: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이 뭐 있습니까?] 저게 뭐꼬, 그 인자 ‘대나불곶’하는 동네가 있어. 산청군에 가면은.

[사상구 설화 20]

### 저승 갔다 온 사람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우리 이모는 얘기를 놓다가 그래 삼 일만에 깨어났어. [청중: 안 보내주면 죽는다대, 그게 전설이라 쿠대.]

우리 이모가 얘기로 하는데. 인자 죽어가 인자 저승을 가는데, 이 문을, 열 두 대문을 여는데 마당(마다) 방맹이로 마 무섭은 사람들, 마 아들매로(아이처럼) 요새 뭐 있제, 그런 거를 들고, 양쪽에 몽둥이를 들고 섰더라, 이런 방맹이를. 그래 열 한 대문채, 열 두 대문채 탁

여니께 시-퍼런 큰 강이더래. 강인데 와 옛날에 와 삼 뺏기고 난 재럽나무 있제. 고거를 영금영금한 거를 요 공딱씩 만한 거를, 이모가 소복을 입었는데, 딱 입었는데 하얀 닥클(닭을) 하나 앵가(안겨) 주면서,

“니 조(저기) 앉아라.”

하더란다. 그 앉으면 인자 물에 빠져 죽는 기라. 그렇는데 탁 닥클(닭을) 안고 재럽을 땀는데, 송- 내려가는데 본께네, 옛날에 자기 살던 집 걸더라 캐. 그런데 드가니께네 대문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 인자 아무것도 안은 것도 없고 고마, 인자 탁 들어가니까네, 저거 죽은 동새가 (동서가) 밥상을 탁 들고 사랑채로 가더라네. 자기는 어찌 반갑든지,

“아이고! 행님.”

이리 큰께, 밥상을 탁 들고 가다가 눈을 마 짹- 요리 꼴치고 가더란다. 그래 밥상을 사랑에다 딱 놓고 나오더만은 빠마때기를(뺨을) 마 나다당기께네(때리니),

“니, 요 뭐 때문에 왔나?”

하며, 때리주더란다. 그리고 마 인자,

“아이고!”

큰께, 엄청시리 매 때렸는 기라 꿈에라도. 때렸는데,

“아이고!”

쿰서로 깨니께네, 아이고야 평풍이(병풍이) 휘떡 넘어가뻘어. 삼 일 동안 사람이 안 굳더라 카대. 그래 삼 일만에 살아났다 이라더라. [청중: 꿈에, 꿈에?] 응. 응.

[사상구 설화 21]

## 죽어야 없어지는 상사뱀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옆에 집 처이가 인자 뭐꼬? 있고, 저 옆에 총각이 사는데, 뭐 탄 데로 시집을. 그 혼자서 좋아 했는 거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탄 데로 시집을 갔어. 그랬는데 그 남자가 죽어갔고, 죽어가 뱀이가 돼가 꼬랭이를 요를<sup>10)</sup> 딱- 박아가, 요 모가지 요서 밥을 같이 받아 묵는 거라. 그래 여자가 철- 시집을 가도 몬 살고 왔는 거라. 철골이 철골이 마르는 기라. 그래,

“왜 그렇노?”

하니께네, 말을 안 하고. 그래 뱀이가 크도 안 해. 짜그마한 기 탁- 요다 꼬리를 박아가

10) 여자의 음부를 말함.

딱 모가지 요[턱을 가리키며] 붙어가 안 떨어지는 기라. 그래가 인자 동네서 돼지 잡고 이래가 마, 물까에다(물에다) 갖다가 물까에 딱 안춘다대 안차가(앉혀서) 굶을 크-게 했어. 해갖고 만약에 뱀이가 스크르 풀리가면은 이 여자가 살고, 안 그러면 같이 죽어야 된다 하대. 그런께 아무리 굶을 해도 뱀이가 안 빠져 나오는 기라. [청중: 아이구야!]

그런께 같이 밀어 열어가지고 애나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조사자: 상사병이다 그죠?] [청중: 어데서 그런 소리 들었을까?] 철골이 말라. [조사자: 눈물 받아먹고.] 응, 눈물 받아먹고.

[사상구 설화 22]

### 개똥을 씻어 부모를 봉양한 며느리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인자 이 집이 너무너무 돈 살아가지고, 인자 녀의 모 그거 품을 들러 갈 낫데, 방에 어른이 계시는 기라. 그런께네 굶가놓고(굶겨놓고) 나갈라 카이 기가 차는 기라. 그래 오데 간께 개가 보리밥을 묵고 떡- 싸냈는 기라. 그리 이 며느리가 그걸 우다가(모아서) 가서 씻거가(씻어) 다시 해가지고 시어마이를 줬는 기라. 공양을 했는 기라.

그리 해놓고 인자 눈에 가서 모를 심구는데, 막- 천둥번개를 치고 마 난리거든. 그래 자기가 그 죄를 인자,

“내가 개가 싸 난 거를 밥을 해 줬다 하는. 죄가 돼갖고 이 사람들아 다 나가라. 내가 오늘 별을 받을라꼬 이려는갑다. 다 나가라.”

했는 기라. 그래 나가라 하이, 조용한데 똥을 상자를 하나 툇 떨어 주더란다. 보니까 먹을 거를 한거(많이) 내려준다. 그 인자 효부라꼬 그 상 받았다는 그기다.

[사상구 설화 23]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최갑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막-

“불이야.”

쌌거든. 그 영감은 장님이고 할마이는 병어리라.

“불이 났더노?”

이래 쿤께네, 그래가 인자,

“오데 불 났는갑다. 빨리 나가 봐라.”

이랬는 기라. 그런께네 인자 말을 해주논께네 할마이 쫓아갔는 기라.

그런께네 떡 갔다 오더만은 영감 불알을 실실 만지는 기라.

“아-, 다 타고 지둥만 남았더나.”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24]

## 집을 떠난 업구령이

고순자(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중앙노인회]

난 그거 봤어. 우리 친정에서. 부역에서 아궁지에 불을 때는 데, 우리 집이 옛날에 시골 집에 초가집인데, 천장에 쇠골이 있는 집 아인고. 근데 불을 때는데 뿔이, ‘세세세’ 이라는 기라. ‘세세’ 소리가 나는 기라. 그래 떠-억 치다 보니까네, 이만한 뱀이가, 뱀이가 막 나와가지고 마 기름기가 막 반질반질반질, 내 그 기억 확실해.

기름기가 반질반질반질 하더만은. 널로 보고 고개를 딱 이래가지고 세로(혀로) 막 날름날름 날름 하더라고. 인제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지. 그래가 내가 놀래갓고 부지깽이를 들고 아궁지 불 때다가 마당에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저, 저, 저 정지(부역).”

옛날에 정지라 쟤어. 전라도말로 정지. 정지 음, 전라도로 정지라 했거든.

“그 엄마 저, 정지에 뱀이 나왔다.”

카이까, 우리 친정엄마가 들여다보고 기절을 하더라고. 그래가 판에다 물로 떠, 정확수 물로 떠나놓고 빌대. 빌면서, 음,

“저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잘 가시라고.”

요리 빌더라고. 비니까네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마, 하모 마 저 그 쇠골 밑으로 툭 나가는 구녕이(구멍이) 있대. 이만한, 옛날에는 그런 데 새도 들어가고, 그 참새 같은 거 들어가 알 놓고 그랬거든. 제비도 들어가고 그런 데. 그런 구멍으로 쑈-욱 들어갔다 카더라 카이까네. 음,

내가 그 기억은 내가 생생해.

[조사자: 그리고 집안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어. 거기 뭐, 집안에 안 좋을라 카면 그래 빈다 하대. 업이. 음, 옛날 사람 말이 그렇더라고. 근데 그러고 아무 일이 없었어 싶으다. 음, 내 그거는 생생하이 기억난다. 내가 멧(몇) 살 땐가?

[사상구 설화 25]

###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사촌형

정우엽(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중앙노인회]

옛날에는, 요즘은 차가 있으니깐, 차로써 이리 땡기지마는, 옛날에는 등을 넘고, 등을 넘고, 등을 넘고 해갓고 인제 인자 사촌성이 집에를 찾아 갔는 기라. 사촌성이 집에를 찾아 갔는데 배가고파 갔는 기라. 때가 돼서. 배가고파 갔는데 이, 이 사촌성이가 밥 한 끼를 안 줘. 그래서 이, 저 아우가 하는 말이,

“성아 성아 사촌성아, 쌀 한 되만 찾아서라. 형도 묵고 동생도 묵고 할 것인데.”

그러이께, 형이가 그렇게 독했는 기라. 아 그래서 인자 그 형이가 아, 그걸 갖다가 인자 뉘우쳤제. ‘아 내가 그걸 갖다 몰랐구나.’ 하고 뉘우치고 그래 된 기라.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진짜 참말로 이 차가 있어서 땡기기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등을 넘고 산길을 넘고, 산길을 넘고, 등을 넘고, 등을 넘고 가면 범도 나타나고 뱀도 나타나요. 겁이 나는 기라. 그 아시아시 한(아슬아슬 한) 것도 넘어가면서, 그 행이라 집에 가니까, 배가고파 죽겠는데 밥 한 되도 안 줘. 그래인께,

“행아, 성아, 성아 쌀 한 되만 찾았으몬 성도 묵고 내도 묵고 할 낀데.”

그래 인자 그래가 그 인자, 자기 형이가, 그 이야기가,

“아, 네 이야기가 맞구나.”

하고 뉘우쳤는 기라. 그래.

[사상구 설화 26]

### 저승 갔다 온 사람

정우엽(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중앙노인회]

우리, 우리 조카 되는 사람이 꿈을 꿔. 꿈을 꾀는데 아, 내가 좀 절에로 열심히 땡기니까,  
“자네, 자네도 좀 그씩 없는 시간이 있는 날에는 좀 절에로 좀 가소.”

이러니까,

“아지매, 절이 그거 뭐 부처님이 뭐, 부처님이 뭐 뭐 복을 주고, 부처님이 뭐 뭐 하는 기  
뭐 있다는 기요?”

“아이라. 그런데 가면 마음도 배우고 그 좋은 말, 좋은 법어도 듣고, 우리가 착한 거 마이  
배와지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닦아지고 좋은 기라.”

그래, 그러더만은 인자 그 사람이 뭐 했는가냐면, 이발소를 했어. 이발소도 하고 또 내가  
인자 주인이고 그는 직원이고. 공계 내가 인제 만날 충고를 했지. 지는 그거를 별로로(관심  
없이) 들었는 기라. 별로 들었는데, 하루는 내가 인자 그 이발소를 내가 팔았지. 지한테 팔았어.  
팔고 내가 안 하고 인자, 안 하고 그 옆에를 지내가니까,

“아지매, 아지매.”

“왜?”

하니까,

“함 여기 와보소.”

그래 가보니까,

“아지매 말이 진짜 맞습니다.”

“맞기는 뭐이 맞아?”

하니까,

“그게 아이고, 확실히 저승이 있고, 저승이 없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대.

“뭘 봤는가?”

하니까,

“내가 한 며칠 전에 꿈을 꾀는데.”

지가 꿈을 꾀는데, 아 지가 시켜면 사람이 왔더라는 기라. 그래 지가 잤지. 잤지었는데  
이 새람이 누군고 하이(하면) 저 해병대 대장이라. 저 우리 요계 여 복구, 복구 여, 여(여기)서  
뭐냐 장영기라고. 그 터미널 앞에 이발소를 하면서 장영기라고. 이거는 확실히 실화다. 그래가  
지고 날 보고 하는 말이,

“아지매, 진짜 저승이 있고 이승이 있습니다.”

“자네는 참 별 희안한 소리를 다 하네. 자네 그런 기 없고, 부처님이 어땀더냐고 뭐이  
어땀더냐 하던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이라니까, 그래 지가 인자 시커먼 사람이 와서 지가 껌히갔다는 기라. 껌히가니까 그 사람들 큰담하고(크고), 시커멍이 커담한데 지는 찌만하더래(작더래). 찌만한 게 따라 가니까, 아주 염라대왕, 염라대왕 말만 들었는데, 염라대왕 앞에서 지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았다 해. 내가 말을 다 못하는데, 대강대강 들어놓이, 듣고 얘기 대강하는데, 그래,

“무릎을 딱 꿇고 앉아라.”

지는 쫄글치고 딱- 무릎 꿇고 그 앉으면서, 손을 빌면서,

“아이고 염라대왕님,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저,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아들이 잘고(어리고) 저가 살아야 됩니다. 아직 자석들 하고는 여 부인하고 같이 살아야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니 보자, 니가 살아야 될 낀가 죽어야 될 낀가 함 보자.”

그래서 보니까, 어 이 책을 두 군데 놓더란다. 두 군데. 이쪽에는 착한 일 한 거, 이쪽에는 지가 나쁜 일 많이 한 거. 이걸, 책을 이리 탁- 내더만은, 이걸 실화 돼갖고, 만약에 가 장영 기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가 본다면은, ‘아 이거는 우리 아지매가 잊지도 안 하고 내 얘기를 했구나.’ 이거는 실제로 실화다. 그런데 이거를 내더만, 인자 한 장, 한 장 들씨더만은,

“아, 니가 나쁜 짓도 많이 했네.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니가 죽을 죄도 많이 짚다. 짚는데 함 보자.”

딱- 보더만은 여기는 나쁜 질 한 거, 여기는 착한 일 한 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리 딱 보니까 아, 이 착한 일 한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더 있더라는 기라. 왜냐면은,

“이발소를 해가 돈을 벌이도 아주 더러븐(더러운) 머리를 아, 막 때 찌인 머리로 와서 깎아 갖고, 그 깎은 데다가 면도까지 해가 찌쳐갖고, 예-쁘게 내보냈으니까, 때꾸중 물을 찌기갖고 내보냈으니까, 머리를 깎으이, 그 긴 머리를, 금수 같은 머리를, 긴 머리를 찌라갖고 예쁘게 내보냈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서 너게 더 했다. 그러니까 니가 인제 아직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나가라.”

하더래, 그래 가는데, 그래가 무엇을 따라갖고 그래 나오는데, 어찌다가 보이 마, 뭘 큰, 큰 거를 나무 덩거리 그기 터-억 떨어졌다나 어쨌다나, 깜짝 깨보니까, 깜짝 깨바갖고는 일어나 보니까, 지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그거를 몰라. 그 꿈에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래 제가 제 살을 꼬집었다는 기라. 양쪽을 이리 꼬잡으니까, 이기 아픈가 안 아픈가 꼬잡아 보니까 아프더라 캐.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살기는 살았구나.’ 지가 아직 죽은 지 알았다 함서, 살기는 살았구나 해갖고, 그래갖고는 일어나보니까, 그래 불을 희미 보이니까, 전기불이 희미하더래. 희미보니까, 저거 마누라가 누워 자고, 저거 아들들은 또 피촉피촉 자고 하더래. 그러는데 인자, 자는 그 어마이를 갖다가, 영기 엄마인가 뭔가 즈그 아 이름을 불러갖고,

“일어나봐.”

저저 영감이, 그 사람이 뭘 했는고 하면은, 서면에서 야구르트 장사를 했어. 대낮에는 야구르트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 할 꺼야. 피곤해서 잠이 떨어지게 잤는데 막,

“일어나봐.”

깨배니까(깨우니까), 아이 깨베니까, 그래 깜짝 놀래갔고,

“저 영감이 미쳤나. 글렀나. 왜 피곤한 사람을 불러갖고 이리 깨베느냐.”

이러니까,

“그게 아이고, 내 저게 우와기(윗도리) 가(가져) 오이라.”

그래,

“우와기를 자다 말다가 우아기를 왜 가 오라냐?”

이래 되니까,

“가 와바라.”

가 오니까, 갖다 주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이라고는 다 꺼내더래. 생전에 돈을 벌이면, 각시한테 돈 한 개 안 줬대. 안 줬는데 그 꿈을, 그 꿈에 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보니까 저저거 마느라한테 죄를 많이 지었거든. 돈 벌어가 돈도 안 갖다 주고 이래 됐어.

그래가지고는 인자, 그 하는 말이 아, 싹- 꺼내더만은 각시를 돈 십 원도 안 가지고 지가 싹 가지고, 싹 가지고, 각시를 쥐뿔어. 주니까,

“저 영감이 미쳤나 글렀나. 생전에 돈 한 개도 안 주던 사람이. 자다 말고 웬 돈을 왜 날 주노.”

이래, 그래 인자,

“내가 실은 그게 아니다. 내가 꿈을 꾸이 꿈에 죽었다. 죽어갖고 이래이래 가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가 그래 항복을 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니한테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가 돈을 싹- 주고, 아침에, 아침에 이발하러 갈라 카니까, 차비도 없고 해서, 싹 다 쥐뿔리고, 그서 어디냐면은 저-게, 사상, 사상 극동 이발손데, 사상 극동 이발소서 덕포동 골목으로 저래, 저, 아주 산골, 산골 저, 뭐, 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 그 뭐 아파트 같은 게 쫘 있었는갑더라. 그 살았는갑다.

그래 그서, 깨미나(개미나) 밟을까 싶어서, 깨미도 밟으면 죄라 싶어서, 하-나도 안 밟고. 지렁이가 한 개 제 발 밑에 있을까 싶어서 사-살 사-살, 아이 그래 저래 부지런히 오면 한 이십 분, 뭐 몇 분도 안 걸리는데, 뭐 한 시간 열맨가 더 걸렸다 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지가 인제 그 꿈자리를 갖다가는 지가 인자 그, 그 해병대 대장이기 때문에 그 저저 집 이발소에 해병대들이, 해병대 했던 그 사람들이, 해병대, 요, 저저 그 사상 인데, 그, 그 본부가 있거든. 그 놀러, 직장에 오면은 거기 이발소 집합이라. 그 모이갖고요,

“이 사람들아, 내가 우리 아지매가 절에를 땡기면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베풀어라 하고, 좋은 일을 해라 했는데, 내 그것도 모르고 그랬더만은. 내가 염라대왕한테 잡히갖고 꿈을 꾸보니까, 진짜 저승이 있고 이승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저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온- 사람들마당 지가 그걸 이야기를 했다는 기라. 아, 지가 그 경과를 그래. 아, 역시나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더라는 거라. 그래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사람이 돈을 갖고 베푸는 것도 베푸는 거지만은, 말로서 좋은 것도 인덕이라고, 좋은 말로도 해주고, 나쁜 것을,

넘 송(흥) 안 보고, 넘 송 본 것도 그것도 죄가 되고. 아, 가씨나들 꼬아묵는(꼬드기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되고, 전신에 죄가 되더라네. 그런 것이 썩- 다 나오더라네.

[사상구 설화 27]

###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사람

김기순(여, 1935년생) 구술  
2015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괘법경로당]

모 송구는데 이래 밥을 이고 가다가, 이 밥을 이고 가는데, 점섬밥을(점심밥) 이고 가는데, 오줌이 되게 누고 짙은 기라. [청중1: 그래 낮다 카대.] 그래가 논두렁에 마, 막 다라이를 이고 그냥 오줌을 눈께네, [청중: 누야지.]

고마 끼가(게가), 끼가 그 참 단지를 물어뵈어. [청중: 물었다. 물었다 카대.] 물어가 있었는데, “내 죽는다.”

이래 썩께네, 저 중놈이 하나 오디만은 그래,

“와 카느냐?”

글개,

“요 밑에 마 뵈이 막 물었다.”

쿤께, 그래 그 [청중2 : 아이! 성님요. 성님요.]

“그래 내가 오줌이 마려워서 낮더만은, 끼가 나와, 하필 끼구멍에다 오줌을 싸놓이, 그래 끼가 거로 물었는데 떼 주이소.”

그란께네, 중놈이 인자, 참 머리 뻑뻑 깎아놓이 곁끄럽다 말이다. 었디리가지고 띠, 띠거든. [웃음] 띠는데,

“냄새가 전라도 젓, 십삼도(13도) 젓 다 무봐도(먹어봐도) 그 같이 냄새 나는 데 었다.”

카더라.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28]

### 꽃감을 싫어하는 호랑이

장필남(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괘법경로당]

그래 안 하더나. 밤에 늦가서(늦게) 가이꺼네, 호랑이가 자아물라 카이(잡아먹으려 하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카고, 또 재 하나 넘으니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몇 고개, 시(세) 고개를 넘고 나이까네, 결국 떡이 없으니까네, 이, 자아물라, 그 할매로 자  
아물라 칸다 안 카나. 떡을 주고 온께네. 그러인께네 그, 저, 범은, 호랑이는 빨건 거 보면  
저, 그거 안 한다 카대. 안 잡아먹는다 카대. 그래가 꽃감을 하나 떤지이께네, 묵고 잡아 가  
더라. 그래 꽃감. 음, 꽃감 빨건 거는 싫어한다 캐. [청중: 빨간 거를 싫어한다.] 음, 빨건 거를  
싫어한다 호랑이가.

[사상구 설화 29]

### 담치를 닦은 여근

장필남(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괘법경로당]

그래 내나 저- 자갈치 시장에 저, 갔디만은, 안 카더나? 꽃게, 꽃게가 그거 물어가지고 아  
(아이) 손을 짝 물으이께, 물어뿌가지고 목욕통 가이께네, 저, 아, 담치다 담치(홍합), 담치.  
내 얘기 하꾸마. [웃음]

그 저 자갈치 시장 담치로 파는데, 야가 담치 그거, 저 딱- 벌씨고 있으이께네,  
“요고, 요고.”

캄서, 손을 딱 넣으이 짝 물어뿌거든. 그래 인자 고폐 아파가지고 푹- 죽겠는데, 고 감정이  
있는데, 저- 집에 오가지고, 저 목욕통 저거 딸로 델꼬(데리고) 갔어. 그라이께네 저거 어매가  
머리를 감으이께네,

“이거 전에 자갈치시장 가서 받 거 푹- 조개 닦았네.”

캄서,

“요놈, 또 물어라, 또 물어라, 또 물어라.” [일동 웃음]

캄서러, 그래 콧콧 쑤시이건에 그거는 안 물더래. 그래 그 이야기, 그거는 재미나는 기라.  
[청중1: 그래, 그 이야기하고 대바탕(크게) 싸웠다 안 카더나.] 그래. 그래, 거기 조개 거거를  
딱- 하이께네, 손을 영이께네, 짝- 무이께네, 그래 놀래갓고 목욕통을 가지고 저거 엄마 머리  
감으이께네, 푹- 고거 닦았거든.

“또 물어라. 또 물어라.”

저거 엄매, 그래 담치 손 열어가 그래 하더라 안 카더나?  
그래 얘기가 그 있다. 얘기가 있다. [청중2: 응, 있더라.]

[사상구 설화 30]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장필남(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괘법경로당]

아 여자가 등념에 딱- 넘어가. 하나 뛰가거든,  
“가봐라. 가봐라.”  
지금 귀 어둡는 사람하고, 영감은 눈이 어두버 문 나가고, 할마이는 인자 말로 문 하는 기,  
버버리라. 그래 인자 버버린데, 저거 영감이,  
“저 가봐라 저 소리 난다. 가 봐라.”  
카거든. 그래 쫓아 등념에 가이까네, 불이 났다 아이가. 그래 할마이한테, 아, 영감한테, 턱  
- 오갖고,  
“뭘라 하노?”  
하면,  
“어째가 불 났더노?”  
카이, 배를 실실 쓰담거든 영감 배로.  
“아, 등념에서.” [일동 웃음]  
이라거든. 그래이께네, 똑 감자로(불알을 말함) 턱- 만치거든.  
“아, 감자 꾸우 묵다가?”  
그래께네, 똑 또 좇을 딱 꺾잡은데,  
“아, 불이 났다 말이지.”  
그래 했다. [일동 웃음] 요거로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인자 그 느낌을 영감한테 다 줬는 기라.  
“아, 옳다. 그래 불이 났다.”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세게 치며] 이 말이라.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31]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장필남(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괘법경로당]

옛날에 사람이 부부생활을 하는데, 한 바양(방) 여럿이 아들하고 자이께네 인자,  
“우리도 그 신식으로 함 해보자.”  
그래 칸께네, 단수(장롱), 단수 인자 단수 떡- 서갓고 인자 하이께네, 시끄럽아가 우에,  
단수 올린 거 마 늘찌뿌거든. 그 카이,  
“아따 벨(별)나게 한다. 하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아들이 이카거든. [일동 웃음]  
“벨나게 한다.”  
커거든,  
그래 또 한 번은 그기 생각이 나서, 즈그 할마이는 저짜(저쪽) 자고, 영감은 이짜(이쪽)  
자다가 생각이 나서 슬-슬- 더듬어갓고 넘어 가이까네,  
“아따 참, 영천 좃도 크긴 크다. [일동 웃음] 영천 좃도 크기는 크다.”  
그래 캄서, 그래,  
“별나기도 한다.”  
캄서, 나는 모르겠다 이제. 그 카더라. [청중1: 질질 넘어간다 안 카나. 아들 얼굴에 막  
000<sup>11)</sup>. 응, 그래.] 질질 넘어가 마, 아들 온 전신에 문때(문지르고) 가이까네, 나는 그래 또 그라  
제. 또 비오는,  
“아따, 나 밖에서 비오는 줄 알았더이만. 뽅작, 뽅작.” [일동 웃음]  
아를 옛 사가 오라캐가(오라해), [청중: 아이고! 사람 직이겠다.] 어 돈 한 푼 주가 보내  
났디, 그때 마무리가 덜 됐어 그간,  
밖에서 들은께네, 비오는 소리 나거든.  
“비 오는 줄 모르더만, 저거까지 같이 하고 있다.”  
고. [청중2: 아이구! 사람이.]

[사상구 설화 32]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장필남(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괘법경로당]

11) 제보자와 동시에 구술해 청취가 불가능 함.

옛날에 너무 엄서갓고(없어서), 할매는 빼빼 모르고(마르고), ‘신랑 오면 뭐라 카겠노?’ 싶어 가지고, 그래 인자 지령이를 파갓고 쫘는데, 하도 맛있어서, ‘우리 아 오면 비이(보여) 줄란다.’ 싶어갓고, 하나, 하나씩 남가놓고(남겨놓고) 자리 밑에 여놓고, 또 다 묵고 하나는 또 밑에 여놓고, 다 묵고 이러다가 아들이 오가,

“아이고 엄마, 얼굴이 좋네.”

카이께네,

“뭘로 무서(먹어서) 이래 얼굴이 좋노?”

카이께네,

“그래, 며느리가 뭘로 이래 맛있는 거로 해가지고, 때때로 묵고나이까네, 살이 찌고 이래 좋다.”

카이까네,

“그래 뭇이대요?”

그 카이,

“아이구, 내가 비(보여) 주꾸마.”

캄서, 자리 밑에 하나씩 하나씩 여난 거 비(보여) 주이께네 지령이 있더라고.

“그래.”

카이.

그런 전설이 있어. 음. 그래, 그기 몸에는 좋는갑대.

[사상구 설화 33]

### 말하려다 먹은 음식이 목에 막혀 죽은 사람

장필남(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괘법경로당]

“고향이 어뎜미꺼(어딴니까)?”

미숫가리를 해가, 마른 거를 주면서 무라(먹으러) 캐나(해)놓고, 고거를 글케(그렇게) 해놔놓이께네, ‘합천’ 카다.

“합, 합.”

카이께네, 확- 땡기 드간다 아이가. 마 죽어뿌더란다.

밍아싸서(미워서), 밍아싸서, 합천 칼라꼬,

“합!”

카이께네 마.

근데 또, 고구매로(고구마를), 영감을, 구포자양(구포장) 가서 고구매로 사갖고 주난께네 (주니), 저- 마당에서 영감 무라고 주놓고, 물도 안 주고 주나이께네, 할마이 목이 매르거든. 목이 맥히가 죽을 판인데, 오라꼬, 물 줄라꼬 오라 카는데,

“마 당신 잡수소 그거 갈라 물(먹을) 끼 어데 있는. 갈라 물 끼 오데 있는교? 마 당신 혼자 잡수소” 그 카이, 본께 기척이 엄서서(없어서) 가보이께네 마, 고구매 목다 죽어뵈다 안 카나.

[사상구 설화 34]

### 호랑이와 꽃감

강계화(여, 194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애가 하도 많이 울어서, [청중: 응, 호랑이 꽃감 야기다.] 호랑이 꽃감 얘기 그제잉? 하도 많이 울어서,

“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래 하니깐은,

“그래, 울면은 호랑이가 니 잡으러 온다.”

밖에서 호랑이가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아, 야를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문만 열기만 열면은 데려갈라 하는데, 문을 안 열더라는 기라. 그래가 못 잡아먹혔대.

[사상구 설화 35]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계화(여, 194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옛날에 저, 저 하도 못 살아서, 못 살아가지고, 먹을 켜 없제.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거 하 수도 이래 파면 지렁이 같은 게 있잖아. 그거를 인자 잡아가지고, 이, 푹- 고아가지고 인자 소금을 쫄 열어가지고, 고아가지고, 인자 할머니를 드리고 드리고 이랬는 기라.

그래 밥을 말아서 잡숫고 그러니까, 그래 그 동네서러 그 할머니 곧 죽는다고, 빠짝 말라가 있는데, 살이 마 이리 찌거든. 그래나니까,

“하, 저 할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이 갑자기 저렇게 찌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중에는 저, 그 지령이, 먹을 게 없어서 지령이를 삶아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참, 국을 해가지고 밥을 말아 잡숫, 그래서 인자, 그기 인자 그리 해가지고 인자 호부상을 받았다는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 샀더라.

[사상구 설화 36]

### 개로 환생한 어머니

강계화(여, 194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엄마를 내- 집만 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래 집만 보다가 죽어 뺏는 기라. 죽어뺏는데 아무도 어데 구경을 못 시켜줬는, 근데 어느 스님이 이리 지나가다가,

“저 개가 참- 당신 부모요.”

그래,

“이 양반아, 저 저 뭐야, 개가 어찌 부모가 되노?”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아무데도 못 가고 집만 지켰지요?”

커거든. 그래,

“집만 지켰다.”

하니까,

“그래 집만 지키니까, 저 개가 너저 엄마가 똤다.”

이러더라.

그래서 인자 그 개를 어깨다가 미고(메고), 온- 데를 구경을 다 당기고, 장터를 다 돌아 당기고, 그런 얘기도 해줬더라. 그래가, 그래가 내중예(나중예) 호부상 받았다고.

[사상구 설화 37]

### 오는 손님 막으려다 망한 집

강계화(여, 194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하도 글캐, 사람이 끓고 자꾸 와싸서, 밥을 먹을 때나 안 목을 때나 자꾸 와싸서, 그래  
인자 참 스님한테 물어봤어.

“우리 집에 너무 사람이 마이(많이) 와나서, 좀 적게 오면 되겠소.”

그러면은 밥을 묵고 치우지 말고. 기양(그냥) 인자, 지금은 파마를 해서 풀 꺼더나 올릴 꺼  
나 없다 아이가. 옛날에는 머리를 풀어놔놓고, [청중: 상제매이로(상주처럼) 풀어놔놓으면.]

“상 옆에 이렇게, 어 풀어놔놓고 이래- 앉아 있으라.”

인자 그라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람이 끈꼐다더라(끓  
어졌다더라).

[사상구 설화 38]

### 무덤 옆에만 피는 할미꽃

김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딸이 많아가지고, 할머니가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 내매이로(나처럼) 너무너무 보고  
싶어개웃음). 그래가 딸네 집으로 인자 갔어. 지팡이를 지고. 짚고 이래 한참, 한참 가이까네,  
옛날에는 뭐, 도로가 있나? 산중 길이거든. 산중 길 젊은 사람은 모른다. 산중 길은 완전하  
게 산이다. 오솔길, 요래요래 산도 없고, 자기가 요래요래 가야 되거든. 그런 길로 이래 딱-  
가이까네, 해가 뉘엿뉘엿 저가지고 딸네 집까지 문 가고 그서 마, 열어 죽어가.

[청중1: 그래가 할미꽃이 됐는가?]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 할미꽃이 됐는 기라. 그래 인자  
무덤에 할미꽃이 피지 아무데나 할미꽃이 안 피거든. 할미꽃. [조사자 : 딸 보고 싶어서.] 응.  
딸이 보고 싶어가 뉘웃뉘웃 저, [청중: 해거름에.] 어, 등을 넘고, 하루 종일 가도, 나만 사람  
은 걸어나 작대기 짚고. 그래 등을 넘고 등을 넘고 등을 넘고 가가지고, 가이까네 해가 저  
가지고 꼭 인자, 옛날 사람들으는 산소에 잤거든. 산소에, 산소에 잤는데 그래가 저, 그(거  
기)서러 마 산소 양지 쪽이다 그거는. 자다가 마, 열어 죽어가지고 죽었는, 그 거기 인자, 할  
미꽃이 아무데나 안 피거든. 꼭- 무덤에 핀다. 무덤에.

[사상구 설화 39]

###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김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메느리 워-낙, 워낙 효부라. 효부라가, 효부 알제? 시아비한테 잘하는 거 효부. 그래가지고 워낙 그래 시아배가(시아버지) 하도하도 아파가지고, 시아배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기라. 그래가 인자 한 날이 턱-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사가, 스님이 짝대기 짚고 이래- 오더만은 그래,

“너 새끼를.”

저 저 그라자, 저거 아가 툭툭 튀어 들어오더란다.

“저거를 삶아가 먹이라. 그러면 네 시아배가 낫는다.”

카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가마-이 있어, 있다가, 자식은 놓으면 자식이고 부모는 한 번 가면 부모가 없, 이제 마지막 부모다. [청중: 다시는 못 볼 부모고.]

그래가 인자, 그 아로 인자 물로 펄펄 끓이는데, 저거 아가 탈래탈래 오더라네. 그런 걸 갖다가 그로 마, 아로 마, 그 물 펄펄 끓는데 주 여가(넣어) 삶았어. 그래가 인자 다 삶고 인자 목을라 카이까네, 진짜배기 저거 아가,

“엄마!”

카매, 튀어 들어오는데. 솔뚜껑을 여니까네 삼, 인삼이더라 안 하나. 그래 그만큼 효성이 지극하이, 심청이 보라도 효부가 더 하거든. 그래가 인자 다 삶아 가이까네, 그래 인자 저거 아는 저- 삼찌꺼리(삼작거리), 대문 아이고, 옛날에 삼찌꺼리에서 탈래탈래 오거든.

“엄마!”

하면서 보이까네, 진짜 저거 아고(아이고), 솔에 있는 건 인삼이고.

[사상구 설화 40]

### 속종대왕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안 노부부

김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저 숙종대왕이 축지법으로 이리 주름을 잡아가 하루 저녁에 이, 대한민국을, [청중: 대한민국을 넘는다 안 하나.] 응,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는갑대. 백성들이 잘 사는가 몬 사는가, 잘 사는가 몬 사는가. 그래가 전국을 저녁만 되면 축지법으로 해가 그거는 마 주름 잡아가 막 훨훨 날라 댕긴다.

그래, 한 하루 저녁에는 탁- 가니까, 저거, 아주아주 산골짜에 여서 치면 한 저, 대전썰땀 겠지. 그래 인자 그 가서, 그래 들어가니까 노부부가 둘이 살더라네. 사는데 그래 임금이 그래, “노부부가 여기 왜 산골에 사느냐? 저쯤 동네 가운데도 살지, 왜 여기 사느냐?”

고,

“저 동네 가가 살면은 우리 자식들이 잘 풀리는 그 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지리상으로 탁- 보니까, 임금이 우리 벽에 갓을 거는 자리라서, [청중: 응.] 응, 갓을 거는 자리라서 몬 떠나고 여기 산다.”

카매, 그 노부부는 그기 대왕인 줄도, 임금인 줄도 모르는 기라.

그라면서 그래 그 자기가 ‘아, 이기 바로, 이것이 이 노부부가, 노부부가 이 나를 위해서 여기 살았구나.’ 그래 그래 인자 그 노부부가, 할배가,

“우리 벽은, 우리 집은, 여(기) 터는 임금이 지나가면서 우리 벽에 갓을 거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노부부가 여기 산다.”

말이 떨어지제 그제? [청중: 말 되네.] 그제? [청중: 응.]

[사상구 설화 41]

## 보시 하러 왔다가 절을 떠나게 된 사람

김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스님이 법당에 이런 데 났는, 저거 신도들이 그 한 주먹, 한 주먹 갓다 올리는 거는, 정성스레 갓다 올렸거든. 그래가 인자 저 한 날으는, 동네에 사람이 인자 몬 살아가, 옛날에 장계 내 무가(먹어) 장계 그지요? 이찌와리 하잖아, 이찌와리 주잖아 그지요? 이자를. 한 말 내면은 두 말 주잖아. 그지요? 그래가 인자 탁- 인자 갔어. 가가지고 동네 사람 청년이 그 장계를 내가, 짚아지고 와가, 그 이듬해 농사를 지어가 절에를 탁- 갓으로 갔어.

갓으러 가이까네 스님은 고이 잠을 자더라네. 자는데 그래 인자 가을인데 뱀이 여 뭐하러 나오노 그자? [청중1: 응.] 이러인데 탁- 이래 걸어, [청중2: 가을에 뱀 나온다.] 저, 저 뭐고

시월 달에, 쌀 짝을 때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래가 인자 절 마당을 이래- 거닐고 다니이까네. 뱀이가 저 쪽서 새로(혀를) 널롱널롱 하더라네. 그래 이 청년이 돌로 쥐고 마, 그 뱀이로 마, 대반에(즉시) 대가리 터졌어. 그래 마, 피가 철- 나오는 기라. 그랬는데 스님이,

“아!”

하면서, 방에서 그라이 마, 스님이 저 마, 머리에서 마 피가 줄줄줄 나왔는 기라. 그래 그 스님이,

“이것도 아이다. 이것도 아이다.”

그라면서, 인제 그,

“장게 내가는 이 절로 인자 좀 보시를 할라꼬 했는데, 이것도 아이다.”

카매, 그 길로 일어나서 바랑 한 개 짹아지고 그래가 인자 가뿌렸는 기라. 거기 전설적 이라. 거기 이것도 아이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래가 인자 그래갓고 또 한 집에는, 또 인자 어짜노 쿠면, 다람쥐가, 다람쥐가 겨울에 묵을 라고 이 밤이야 뭐야 소복-이 인자 저 저 굴에다가 이래 딱 재어났어. 재놓이까네 동자승이, 껌깨난(작은) 열라(아기) 스님이, 그래 절-로(저기로) 가이까네, 밤이 소복-이 있는 기라. 그 얼마나 좋노 그쟈?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와서 삶아 묵어뵈는 기라. 삶아 무-뿌이까네(먹으니), 그 다람쥐가 저거는 저거 양식인데, [청중3: 저거 양식인데.] 저거 겨울 양식인데, 그래 나와가지고, 뭐 말로 하나 그쟈?. 스님이 인자 잔다꼬 인자 하얀 고무신 요래 딱- 요래 벗어 노이까네, 그 고무신을 마 발발 떨고, 물고 떨더라네.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스님이, 큰스님이 그래,

“이기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 있다. 그래 웬일이고?”

이쿠미, 그래 인자 상자들인데 물으이, 아무 일 없나 아나 그쟈? 그래 나중에 나중에 보이 열라 스님이 그 밤을 가져와, 훔쳐 온 거 아이지. 파가와가(파와서) 삶아 묵으니, 그래노이 그 다람쥐가 큰스님 고무신을 물고 발발 떠는 기라. 그 뭐 내가 절에 다니면서 그거 배웠구만.

[사상구 설화 42]

## 며느리의 방귀 힘

윤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예전에 며느리를 보이께, 상이 노-랄더라네. 살아갈수록 입따리를, 상이 노-란 기 핏기랑

하나 없어. 그래 시어른이,

“아가야.”

한 날은 불러가지고, 한차(한 번에) 돌이, 부부에, 저게 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해.

“네 왜 그래, 상이 그래 노랑노?”

그라이께로,

“저는 방구를 못 꿰어 그래요.”

이카더라네. [청중: 그래, 그 얘기도 있다. 하니까 잘 해, 기억이 조금씩 나네.]

“그러면, 꿰어라.”

이카이께네,

“방앗고 하나 갖다 줘요.”

이카더라네. 저 전에 방아 찧는 고 있잖아? [청중: 예, 예, 방앗대, 방앗대 그래.] 이래, 그 거를 하나 갖다 주이께네, 여기 찌아(끼어)가지고, 저, 저 배나무가 하나 옆에 있는데, 그 밑에를 가디, 방구를 꿰이, 그노무(그놈의) 방앗고가 들랑날랑 들랑날랑, 배가 고마 한 개도 없이 다 떨어지더란다.

그래가지고 배 실컨 주우 먹고, 그 며느리 고마 상이 빨개져가지고 곤치고(고치고). [일동 웃음] 그런 얘기도 있다.

[사상구 설화 43]

### 시어머니를 살 찌워 팔려 했던 며느리

이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누가 동네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저, 저 장에 갖다 팔면은 살로 찌아가, 좀 찌아가 팔면은 값이 나간다 카는 기라. 그러이께네 그 말 듣고 인자 팔라꼬, 지렁이를 잡아가 그래 자시도록 했더만은 살이 통통하이 찌는 기라. 그래이께네 살이, 사람이 살이 찌고, 기력이 있으니까 며느리 일로 마, 얼마나 도와주는 기라. 도와주이께네 그 인자,

“팔러 가도 되겠다.”

그라이께네,

“절대로 못 판다고 우리 어무이가 없으면 집안이 안 된다.”

고, 아(아이)도 잘 봐주제 오만 일로 다 하거든. 그러이께네 안 된다고. 그래가 신랑이 그랬다 카든가. 뭐 그러 카더라. 신랑이 그러 캐가 저거 엄마한테 잘 하라고 그래 나노이께네, 인자 엄마 살도 찌고 했으니 팔러 가자 카이께네, 절대로 안 된다 하더란다.

[사상구 설화 44]

### 가난해도 행복한 가족

이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어떤, 그 저 저 옛날에 과거 보러 땡기는, 과거 보러 땡기는 사람이 과거 불라꼬, 이 산을 넘어가 인자 오솔길로 이래 가는데, 그 쪼꼬만한 샷갓같은 오두막집이 있는 기라. 그 문꾸녕은 (문구멍은) 다 떨어져갔고, 그러면서도 해야 웃어쌌고, 마, 그래 웃고 마, 난리를 지기는 기라.

그래서 우째서 이래 재미가 있는고 싶어서 이 오두막집에, 이 못 사는 집에 어째서 재미가 있는고? 아들이 오롱오롱 많으면서, 아들이 문꾸녕 다 뚫어 났는 기라.

다 뚫어놓고 이래노이 그래도 그 아들보고 좋다고 그래, 웃어쌌고 그래 하더라 카네. 그러 인께네 아들이 즐거움을 주는 기라. 어, 못살아도 그 나물 캐 묵고 어, 도토리 주갓고 밥해 묵고 살아도 어, 그 아들 때문에 행복해갓고 그래 웃고 그래 어, 마누라랑

“쟈 보소, 야 보소.”

해싸면서, 손뼉을 치고 그래 웃어쌌고 그런 그것도 있더라 카네.

[사상구 설화 45]

### 방귀 시합 때문에 생긴 우포늪

이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창날경로당]

창녕에 우포늪이 있는데 그래, 큰집에 제사가 있는 기라. 그래 인자 작은집 메느리라. 작은집 메느리가,

“아가씨, 집 잘 보소. 집 잘 보고 있으소. 오늘 큰집에 제사라서러 그래 이 언니는, 형님은 그 집에 가갓고, 큰집에 가갓고 제사음식을 해야 되께네, 집 잘 보라.”

카고, 갔는 기라.

가이께네, 가가 있으이, 스님이 와갓고 푹- 푹-목탁을 뚜더리면서,

“시주 왔습니다.”

카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소.”

쫓겨난 기,

“우리 집에 아무도 없소. 우리 올케 언니는 저게 큰집에 제사 지낸다꼬 음식 하러 가고 아무도 없다꼬, 어른 없다꼬, 동냥 몬 준다고.”

하는 기라. 그래 그라이께네,

“그래도 쫓 주라고.”

똑똑 두드리니께네,

“없다 카이께네.”

몬 준다꼬 마, 이기 양살로 지기거든. 이 스님이 방구쟁이라. 방구를 풍~ 끼뿌이께네, 이기 부식을(부엌에) 더가갓고(들어가서) 꿀뚝을(굴뚝) 나와 나노이께네, 얼굴이 마 기고만장한 기라. 그래갓고 잉잉 울고, 그래 큰집에 이 올케 언니한테 가이께네,

“우리 애기씨 와 이려노?”

꼬, 마 이려이께네,

“아무데 산에, 저게 스님이 와갓고 동냥 줄라 카는 걸 안 준다꼬, 우리 올케 언니 큰집에 갔다 카이께네, 그래 방구를 끼갓고 내가 부적을(부엌에) 더가갓고, 방구 바람에 부적을 더가갓 굴뚝을 나와 나노이 그렇다.”

꼬, 이라거든. 그래 나노이,

“이 놈의 스님 보자.”

이라면서 이거 또, 이거 또 빵구재이라. 방구를 한 방구 하는 모앵이지. 방구를 끼가면서 마, 지 빵구 지가 날리가지고 그 절에 갔는 기라. [청중 웃음] 갓고 마, 스님도 방구 끼고 마, 지도 방구 끼고 마, 이래갓고 마, 절이 들썩 들썩 하는 기라.

“이래가 안 되겠다꼬. 우리 저 가갓고 말뚝이 꼽아 놓고, 말뚝 꼽아 놓고, 우리 방구 시험 하자.”

인자 이래 되(되어), 스님하고 이 여자하고 방구, [청중: 진짜 이야기다.] 방구 시험을 했는 기라. 그란께네 마 말뚝 그기 썩- 빠져갓고, 방구 바람에 썩- 빠져갓고, 이래 날라가가지고 그래가 푹- 꼽혔는 기 우포늪이 됐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46]

## 쌀이 나오는 구멍

김선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양산 그 쪽에 가몬(가면) 와, [조사자: 높은 데.] 그 가몬 그 저 깨구리(개구리) 나온다 커는 구녕(구멍) 안 있소? 금깨구리 있다 커는 구녕. 그 있고, 또 뭐 쌀이 나오는 구녕도 있고 이랬다. 옛날이야기 있대.

쌀이 내- 떨어진데, 누가 욕심을 직이가(욕심을 부려) 쌀 마이 나오라고 그 방구를(바위를) 건더리가 안 나왔다 캐샀대.

[사상구 설화 47]

### 괴이하게 생긴 괴법마을

김선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이 지역이 뭐 좀 괴상하더라데. 옛날에 여 뭐 물이, 물가다 하데 여. 저 올라오는데 있제. 저 갈대밭이 있고 여 물, 그니까네 우리가 저 밑에서 땅을 파몬 참모래라. 옛날에 이거 물이 들었던 강가라 여기가. [조사자: 그래서 괴상하게 생겼다 해서.] 그런 말이 들리데. [조사자: 괴법이라.] 괴법이라.

[사상구 설화 48]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옛날에요 봉사하고, 봉사하고 인자 저 귀 어둡은 사람하고 그래 살았거든. 그래이께네 봉사는 눈이 안 빈다(보인다) 아이가. 또 귀 어둡은 사람은 귀로 못 듣는다 아이가. 그래 어디 불이.

“불이야-”

간께네, 봉사는 앉아서 듣는다 아이가.

“그래, 불이 났으니 니 함(한 번) 가 봐라.”

봉사가 이리 됐는데, 가 보이까 불이 나가 있거든. 그래,

“뭐 탔다. 뭐 하다 불났는고?”

카이,

“뭐 하다 불났는고?”

카이깐,

“뭐 하다 불났는고?”

카이께네, 뭐

“감자 삶, 저저 태우, 꺾다 불났다.”

카거든. 그러인께네 그 봉사가 앉았다가 그거를 저 저 불알을 쫓득쫓득,

“아-, 감자 꺾다 불이 났구나.”

이란다 안 카나? 그리 카고.

“감자를 꺾다 불이 났구나.”

카이,

“얼매나 탔노?”

카이, 또 꼬치를 쫓득쫓득 땡기이(당기니),

“아이고- 쫓 지등만 남았구나.”

칸다꼬, 그 옛말이 그리 돼. [일동 웃음]

“아이고, 쫓 지등만 남았구나.”

[사상구 설화 49]

##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나발수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옛날에 뭐 뭐, 소죽 끓이고 인자 밥하고, 밥은 우에 엮고 소죽은 끼고 그래 가이까네, 인자 어데 오줌이 매립아서 이걸 내룰라 캐도 내룰 수도 없고 누가 거들어 줄 사람이 없거던. 촌에는 사람이 없어가이, 없으이께.

그래 인자 이 여자가 인자 가다가 마 통을 이고 마 이래가 오줌을 싼데, 기구녕(계구멍)에 싼어. 기구녕에 싸이, 기가(계가) 나와가지고 이놈의 나부랭이 물어 뜯었는 기라. 그러인께네 어는 저 사또가 가다가 보인께네, 마 ‘아야꼬’ 감-을(고함을) 질러싸이께네,

“저 함 가 봐라.”

카이까네, 그래 중하고 뭐하고 함 가 보거든. 가 보이까네 이래 물어가 땡굴어져가 있는께

네 우째 딸 끼고 그래. 이래 이고 있제. 몬 띠다 아이가.

몬 띠이까네, 그래 그 사람, 나발재이가 나발로 확 붙어뿌이 떨어지거든. 그 나발재이가. 그래 그이 띠고 가더란다. 그러이께네,

“냄이(냄새가) 난다 냄이 난다, 안들에 공알같이 냄이 나는 거 없다”  
카고.

[사상구 설화 50]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1)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물로 질질 흘리고 가이까네, 그래 마 아들이 누웠다가,  
“아이고- 시발! 내 입이 좇 닳는 질이가(길이나)?”  
칸단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51]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2)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아들로 짜다라 인자 서이 너이 낱아 낱히 놓고(놓혀 놓고) 뗏거리가(양식이) 없는 기라. 뗏거리가 하 없어서 저 시장 가서 옛날에는 일수라 싸는 대품뻘이가 있거든. 그 내가지고 인자 솔로 한- 단지 해 났거던 인자. 해 났는데 그거로 인자 팔아가, 팔고 이란께네, 아를 밥을 먹이대고 뭐 이래 이래 되는 기라. 그래 되이까네.

한 번은 영감이 마 할마이 찾아가다가 술단지가 얹어뻘 기라. 얹어뿌이까네,  
“뭐 무요(먹어요)?”

아이고 저거 어매가 일어나섬서,

“아이고, 우짜꼬. 내일자 대품뻘이는 우짜꼬. 응?”

그러인께네 아들이, 큰아들이 늙었다가,  
“아이고 씨발, 이것도 뭐 저게 잔치라꼬 술이 만개가 났네.”  
칸다 안 카나. 그 그 소리 들었다 나는 이전에. [조사자: 대품뻘이가 뭘데예?] 대품뻘이라꼬  
옛날에, 요새 이야기로 할라 카면은 큰-, 만약에 만 원 얻으면 천 원 붙고 이런 거 아이가.

[사상구 설화 52]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앵기 쟁기 너른 들에 갱피 훑는 저 마누래 또 다시 갱피 훑는다.’ 카는 기라.  
이 남자 하나 얻어가 사이까네. 만-날 이 여자는 들에가 피로 훑는 기라. 피, 피, 피가 인자  
이기 물에 뜨는갑대 이래. 우리 보지를 앉았는데, 뜨는데. 한번은 마 피 훑으러 갔다 오이  
남자는 마 앞아가 공부만 착- 한다꼬 마, 그 피로 마 다 떠내러 가는 거로 마 안 거뒀는(거  
두었는) 기라. 자기 묵고 사는 거로. 그래 마 여자가 보골 나서 가뻘는 기라 어데.  
그래 이 남자는 공부를 해가지고 인자 과거로, 옛날에 뭐 장원 하듯이 해가지고 막 나발을  
붙고 마 하인들을 거느리고 내리오이, 이 여자는 아직까지 거서 갱피, 이 피를 훑는 기라.  
[청중: 갱피 훑는다.] 그래 그 남자 내리오다가  
“앵기 쟁기 너른 들에 갱피 훑는 저 마누라가 또 다시 갱피를 훑는다.”  
카더란다. 그래이께네 이 여자는 그 인자 급제 해가 가는 데로 따라가거든. 따라가이,  
“내 말 죽이나 짧이주고 따라 갈라.”  
카이,  
“오지 마라.”  
카더란다. 그 남애가(남자가). 그 오지 마라 카는 그 남애도 미친놈 아이가? 지 이때까지  
믹이 살린 걸 우째 오지 말라 카노. [청중: 사람 사는 그것도 있네.] 그라인께, 그 여자는  
따라 가다 죽어뿌더란다. 말 뒤에 따라 가다가. 말이 그렇대.

[사상구 설화 53]

### 새 옷 얻어 입은 남편의 사연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여자 한 명 영감하고 이래 사는데, 이 남애가(남자가) 마 하도 마 문 살았어 마, 남자가 어디로 나가뵈는 기라. 나가며 시골 어디 가이까네 부잣집이 또 안 있다. 그 가서 인자 메칠-이리 있으이까네. 이 여자가 맹지바지(명주바지) 저고리다가 통냥갓(통영갓)에다가 막- 그리 해주더란다. 그래 인자 그걸 입고 저거 집에 왔거던. 오이께 여자가,  
“아이고, 보소 보소 이거 누가 해 주던교?”  
카이, 이 무릎팍을 탁 치면서,  
“명지(명주) 바지저고리 내 좇 덕이고, 통냥갓도 내 좇 덕이고.”  
[자기 무릎을 치며] 카고, 이야기 카더라 안 카나.

[사상구 설화 54]

### 처녀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그 여자가 가이까네, 떡 대는데 들어가이까네. 그 집에 들봐다 보이 제사상을 짜다리 채리 났더라 카네. 그 여자가 내리킨 내렸는데 간 곳이 없더라 카네. 그래 차비를 받아야 될 거 아이가. 차비를 몬 받으이께,  
“내가 여자를, 어떤 여자로, 내가 처이로(처녀를) 태와가 왔는데 차비를 몬 받았고 이 집에 더갔다(들어갔다).”  
그리 카이께네. 그 저거 엄마가 나와서 두 말 없이 차비 주더란다. 그 구신이(귀신이) 그래 인자 왔는 기라. [청중: 딸 죽은 날이라.] 딸 죽은 제사를 지내는 기라. 하도 억울해싸서 밥을 떠 났겠지. 그리 억울해서 인자, 그 어마이가 차비를 주더란다. 그 구신이 없다 카면 없고, 있다 카면 있는 기라.

[사상구 설화 55]

### 상객 가서 실수한 사람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뭐 이래 털이 이래 있는 영감이 뭐 장가를, 저 저 어찌 술을 묵어썸는지 저거 할마이가  
가지마라 켜는 기라.

“그 상각을(상객을) 가지 마라.”

“아- 내가 내 아들 장가 들이는데 내가 가야지.”

카면서 차리 가는데, 그래인께네 뭐 마 그 털이 이래- 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

“아이고, 아이고 저 마 상각이 마 입이 없노? 입이 없노?”

이래 썸서, 마 들어가거든. 들어가이께네, 그 사램이 일 다 마치고나서,

“이기 입이 아이고 니기미 씹이가?” [일동 웃음]

칸다 안 카나. 그 사돈 듣는데 어.

그래 야야, 인자 나갈라 카고 색시 안 보나 이전에는. 보면,

“야야, 나는 뭐 딴 부탁은 없다. 빨갠 치매 입고 저저 단장 위에 올라 서지 마라. 먼 데  
있는 놈 좇 꼴린다.”

카고 그라더란다. 그러인께네, [조사자: 상각 못 가게 했구나.] 상각 못 가. 그래 갔다 와서  
그래,

“하이고! 보소, 무슨 이야기를 했는교?”

카이, 지 헨(한) 이야기로 다 했거든.

“와이고 우짜꼬! 이거 클 났다. 사돈집에 이거 클났다.”

할마이가 그리칸께,

“그럼 내가 몰라가(물려서) 오꾸마.”

카면서 도로 가더라 카대. [일동 웃음]

“니사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뭐, 빨갠 치매를 입고 올라가든가 말든가 니 맘대로 하라.”

쿠고, 올라갈 거 아이가, 물루러(물리러) 간다 안 카나. 그리 썸대.

[사상구 설화 56]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그 저 해인사 절로 할 때, 종을 달 때, 다시 쳐도 소리가 안 나더라 카대.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서 그래 어던(어떤) 스님이 와가주고,

“이 종을 할라 카면 어던 아로(아이를) 여도 여가주고 고와가주고 해야 소리가 난다.”

칸다 카대. 그래 어데어데 가가주고 참 저거 엄마가 그 아로 팔았다 카네. 돈 마이(많이) 받고. 마이 받고 사가주고 그 에밀레종, 그거로 열었다 카네. [청중: 그래 그 어마이 그 카더란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줄 것 없고 우리 딸 저거나 줄까? 줄까? 줄 께(것이) 없다.” 이 카더라대, 그래가.] 그라이까네, 그래 치니까네,

“에밀레-, 에밀레-.”

칸다. 종소리가.

애미가 그래 자석을 죽이가 되겠다. 안 영으이 절대 소리가 안 나더라 카대. 이전에 해인사 그것도 안 카나. [청중: 근데 스님이 시주를 거둘러 땡길라꼬 절 지을라꼬, 종 그거를 할라꼬 어디 가이까네 그래, “우리 집에는 줄 끼 없고 딸이.”]

딸 그거 잘 키우라고 주지 직이라고 주겠다? 안 그렇나? 절에 가면 아들 저거 잘 키우면 명도 주고 한다 안 카나. 그렇지만은 그, 그래 그 그래, ‘에밀레종’ ‘에밀레종’ 하는 말이 있다 아이가.

[사상구 설화 57]

## 스님과 아낙네의 실랑이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중이 목탁을 치고 동냥 좀 줄라 카니 여자가 딱 앉아가지고 안 주더라 카대. 안 주고 마, 그래 중은 인자 이 여자는,

“주나 봐라.”

카고, 중으는,

“가나 봐라.”

‘주나 봐라, 가나 봐라.’ 말이 안 있나? 주라 봐라, 가나 봐라. 그래 아들은 저저 앉았다가 저저 앉았다가,

“너거 둘이 잘 해 봐라. 너거 둘이 잘 해 봐라.”

이칸다 쿠는 말이 있대.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58]

## 사람 살려준 거북이

박종금(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또 어떤 배로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배로 한 배 싣고 가는데, 다 배가 파산이 돼 다 죽었는 기라. 한 사람이 딱 살았는 기라. 한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가 딱 배에 딱 내리이 거북이가 딱 받차가(받혀) 있더라 거북이가. 받차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이 사람 살렸는 기라.

살리고 보이, 그 거북이 등에 저거 할매 이름이 딱 써져가 있더라. 저거 할매가 그마이(그만큼) 거북이를 열고 용앙을 먹있는 기라. [조사자: 용앙 먹이는 거.] 먹이노이 그 거북이가 은혜를 했는 기라. 그래 할매가 잘 되만, 할매가 그래가 잘 되면, 인자 자식 잘 된다 이 말이 아이가 그기.

[사상구 설화 59]

## 삼천갑자 동방삭

송월분(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생전 안 죽는 기라. 그걸 찾아라꼬(찾으려고) 어떤 사람이 물이 졸졸 내리 가는데, 숲을 짹짹 찢거던. 그래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지나가다,

“내가 삼천갑자로 살아도,”

[청중: 동방삭을 살아도 꺾은 숲 희라고 찢는 건 처음 본다 안 카더나.]

“꺾는 숲 찢거 희지라고(하얗게 하려고) 찢는 건 참 본다.”

[청중: 그래 처음 본다.]

“아! 니가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하고, 탁 잡아 가더란다.

[사상구 설화 60]

## 나무꾼과 선녀

송월분(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옛날에 선녀, 선녀가 저 그 못이 있던데, 못 그거 이름은 모르겠다. 그 인자 못에 목욕하러 갔는 기라. 선녀 서이가 목욕하러 가가주고 그 목욕을 하는데, 하늘에서 줄이 탁 내리 오더만 은, 고서 총각이 하나 선녀 옷을 하나 탁 감차뽀는 기라. 그래 입고 올라갈라 카이 까네 옷이 없어 몬 올라 갔는 기라.

그래 그 선녀하고 총각하고 살았는 기라. 그래 그 선녀가 말로 안 해야 되는데, 그래 아 서이 놓고 나서 말로 해뽀어. 아이 그런께네 그 총각이 마 구름 타고 줄 타고, 마 아 서이 양 쪽 옆에 하나씩 끼고, 마 산에로 올라 가뽀더란다.

[사상구 설화 61]

### 떡 장사 할머니와 호랑이

송월분(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옛날에 할매가 떡장사를 해갓고 떡을 팔로 이고 왔거든. 이고 가이까네 한 덩에(고개), 한 덩에 넘어가이까네 호랑이가,

“할마이-, 할매-, 할배 떡 하나 띠주믄(떼어주면) 안 잡아묵지.”

떡 하나 띠 또 줘다. 또 한 고개 넘어가이,

“할매, 할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그래 또 하나 줘다. 시(세) 고개를 넘어도 그냥 자꾸 떡 도라(달라) 쿠거든. 떡을 다 주뽀어. 다 주고 나이께네, 다 주고 나이께네, 그래 호랑이가 돌아서 가더란다. 그 할매를 안 잡아 묵고.

[사상구 설화 62]

### 뒤를 돌아보다 돌이 된 여자 [장자뽀 전설]

원삼선(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청중: 그런 것도 있고, 와 시주 안 주고 시주 바가치에다가 뭐를.] 쇠똥을 뭐뭐 뭐 담아 줬다. [청중: 그래 준다 캐셨대.]

담아 줬는데, 그 여자가 저저 쌀 준 여자를 보고, 종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쫘 있다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죽었는데, 저 먼당 가서(산꼭대기에 가서) 딱- 쳐다보고 있더라대 그런.

[사상구 설화 63]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명인(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옛날이 그카대. 봉사가 눈을 껌고(감고) 있는데, 시어마시가 눈을 껌고 이리 있고, 아들로 저게 참 멀리 어디 멀리 갔부고.

그래가지고 참 저게 살림은 없고, 고기를 사다 줄라 카이 돈이 없고 해노이까네, 그래 인자 그거 지렁이 그거를 잡아다가 만날 참 이래 볶아주고 이래 주이까네 맛이 있거든? 그기 참 약도 되고 그래 그거 약 그거 하이까네, 그게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 할매가 아들 오면 인자 비(보여) 준다고 그거를 만날 한 마리씩 그래 여 냐어. [조사자: 자리 밑에?] 자리 밑에다 여 놓으이까네. 여 놓으이카 참 빠작(바작) 말라가 있었는데.

그래가 낸중예(나중예) 인자 아들이 와가지고 이래 그거로, 그거로 내가,

“야야 이거 메느리가 만날 이거로, 만날 맛있는 거로 만날 없는 머시 만날 사다가 해준다.”

카이까네, 메느리 만날 인자 잡아가 그래 인자 참 해줄 건은 없고 그거로 만날 해 줘노이 맛있어가지고, 하도 맛있어가 그놈을 낚두이까네, 낚도나노이, 그래 와가지고 아들 왔는 거로,

“야야 이거 메느리 그래 만날 해준다. 그래가 내가 잘 묵고 잘 산다.”

카이, 그래,

“아이고 엄마. 예이다. 그기 저게 그거 지렁이다.”

인자 우리는 보통 거시라 카거든. 거시라 카거든요.

“엄마. 그 거시다.”

이카이케네, 마,

“뭐라?”

깜짝 놀래며 눈을 퍼떡 떠뿌렸어. 그거 할매가. 눈을 떠뿌려가 그래, 그래가지고 참 메느리 소자(효자)더란다.

[사상구 설화 64]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명인(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젊은 사람인데, 우리 있는 데 아주 꼭대기거든. 경주 산래(산내) 우라, 우라라 카는데, 거 살거든. [조사자: 아, 산내면?] 예, 이자 산래면 우라. 우라라꼬. 우드라 있고, 밑에 우라 있고 그렇거든.

그게 꼴짜기는(꼴짜기는) 아주 우리 사던 꼴짜기라. 그래노이 술로 묵고 산래, 산래장이라고 있거든요? 살래장 거(그곳에) 가 술로 묵고 올라오이까네, 그래 마마 술로 얼마나 무었는공 우리 있는데 동네 조금 떨어져가 모래이(모퉁이) 이래 돌아가는 고계 밭에 전봇대가 섰거든.

마 전봇대 거 마마마 얼마나 두드리 뺏든지, 인자 그거 토째비가 인자 사람곁에가지고(사람 같아서) 붙들고 막 씨름을 해노이꺼네, 그래 얼마나 패고 해노이, 이튿날 아침해(아침에) 가가, '뭐가 그랬노?' 싶어가 술 깨가지고 이튿날 아침해 자고 거 가이까네, 그래 빗자루 몽땡이가 하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참 그래 애를 묵었다 캐. 혼을 참 잃었다 캐요. 그럴 때도. 그래 그거는 우리 동네 인자 그랬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사상구 설화 65]

### 저승 갔다 돌아온 사람

박소임(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그전에는 저기에 사람이 죽을라 하모는, 이렇게 또 해안(하얀) 백성 개가 나온다 카대요? 하얀 백성 강아지가. 백성 개. 강아지. 강아지가 그렇게 그 아픈 사람을 데꼬 가면 쫄쫄쫄 하나로 따라가더라 캐.

그라몬 그 강아지가 '어디로 간가 보자' 이란께, 큰 연못으로 가갖고 그 강아지가 그걸 건너 가야 되는데 뽕뽕뽕뽕 돌다가는 그 강아지가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 자분 구석에 물에 풍 빠져분께, 그 죽은 그 양반이 퍼떡 깨어났단다.

그리고 우리 친정아버지 이약을(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갖고 가다 본께 염왕인가 자간 디마다(곳마다), 하천 지르고(질러가고) 간 디마당 이렇게 마 질이(길이) 착- 나가져갖고, 첩첩산중으로 들어가 들어가다 본께로 질도 막어질 때도 있고, 그 강아지를 하나로 따라갔으면 팬찮을 긴데, 강아지가 그냥 물에 빠져서 깨쁜 바람에 그 사람이 염왕 못간께 깨어났단다. [조사자: 그래가 살았다.] 예.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 해샀대.

[사상구 설화 66]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박소임(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암만 끄치라(그치라) 해도 안 끄친께,  
“아이고 저 꽃감(꽃감) 좀 주라.”  
뚝 끈친께, 호랑이가 하는 소리가, ‘하이고.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쪼까(조금) 있는갑다.’  
이라고 호랭이가 도망갔다고.

[사상구 설화 67]

### 도깨비불

현인수(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경기도서 사는데 산골이라예. 깊은 산골에서 물이 내려오는(내려오는) 갯도랑이 있어요. 큰 갯, 마 그는 우에 마 까시녕쿨 이런 것도 있고, 마 버드나무도(버드나무도) 마 이래 서가 있고 이런데. 그래 인제 요 다리가 있는데, 고 다리 건너 가가 우리 서넛집 살고 고서 또 요리 건너오면 큰 동네고 이런데, 큰 동네 사람이 우리 영감님이 인자 오도바이로 그 동네 딱 한 사람 오도바이 끌고 땡기.

그래가 밤에 누가 얘기를 낳는데 동네에 인자 병원이 없시이까 옛날에는 조산소(助産所)라

켰어요. 조산소로 신고 가야 되는데, 오도바이 있는 사람이 우리 영감 뺨이, 밤에 자는데 막 와가지고,

“좀 실어다 달라.”

캐. 그래 인자 영감 혼자 인자 가는 거 보고 나는 ‘누가 얼마나 아파 그런가?’ 하고 그 집 이서(집에서) 먼데 그 집까지 확인하고 사람을 태와가 인자 가는 거 보고, 나는 인자 집으로 오는데 한참 와가지고 이거를 건널라 카다가, [조사자: 다리를?] 또랑 있는 쪽을 쳐다보이 까예 도깨비 불이라예. 불이 이거만 한 게 막 그냥 이런 불이 오는 게 아이고, 불이 오매 뭉가 축축축축축 흘러예. 막 불이. 축축 흘러몬 이기 불이 우예 오느냐 하몬 요래 와가지고 요래가 요래 오고 요래가 요래 오고 하지, 쪽바로는(뚝바로는) 안 오데예.

그래가 마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막 신발도 어데 벗거진지 모르고 막 뺨어요. 집을 뛰가가지고 그래 우리 인자 대문에 가가 대문을 딱 들어서가 마루에 들어서몬, ‘혹시나 따라 오나’ 보이 아무 것도 없대예. [조사자: 아, 허째비.] 야. 그래가 동네 사람한테 얘기 하이 그 도깨비불이 있대 이카대. 그래 난 봤어예.

[사상구 설화 68]

### 부모를 위해 돌다리를 놓아준 자식들

김점심(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서로 인자 의논이 맞아갖고, [청중: 견우직녀다. (웃음)] 밤만, 밤만 되면 저검매가(자기 어머니가) 살짜기 나가고 나가고 쿠더란다.

그래서 그래 나가서 인자 ‘어데로 우리 엄마가 저리 나가는고’ 싶어서 저녁에 가가 지켰다 캐. 그럼 가서 영감한테 가서 자고 오고 한께, 그런 소자가(효자가) 없는 기라.

그란께 저거 성제(형제), 성제간들끼리 의논을 해갖고, 치매자락이 적셔갖고 오몬 그계로 (그곳으로) 전부 돌다리로 나줬어. [청중: 견우직녀다 그런께.] 그래갖고 그런 소자가 있더랍 니더. 그래 인자 다리로 놔주면 그 다리로 딛고 어마이가 왔다갔다 하거든예.

[사상구 설화 69]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점심(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오만 걸 다 준대도 안 울고, 호랭이가 온다 해도 안 근치고, 하늘에서 그러문,  
“야야, 아가 꽃감 주께.”  
간께, 떨걱 근치더랴요.  
그런께 호랭이가 허는 소리가 ‘아유, 내보다 더 무선 놈이 있는갑다.’ 함서 도망을 가빠더래.

[사상구 설화 70]

### 자기 새끼 좋아하는 줄을 아는 호랑이

김점심(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나무를 캐러 가서 바우 밑에 호래이(호랑이) 새끼가 우물우물하이 있더란다. [청중: 호래이 새끼 줄 몰라갓고.]

“하이고, 어찌 이런 예쁜 게 있냐?”

고 막 따독거리산께, 호래이가 우에, 바우 우에 앉아서 좋다고 ‘허허’. [청중: 지 새끼 좋다 한다.] 그래 너물(나물) 바구리고(바구니고) 너물 보따리고 싸악 집어 내빠리고 간께, 이튿날 저녁에 집에 다 쫓아와 내버리고 없는데, 아침에 와분께 지적금(제각기, 각자) 집에 싹 호랭이 갔다 뵈다. [조사자: 아, 그 나물 바구니로?] 하모. 그 인자 고맙다고. 지 새끼를 좋아, [조사자: 좋아한다고.]

짐승도 지 새끼를 좋아하는디. 요새 세상은 애미애비도 몬 봐서 다 갖다 내빠린다 아이가.

[사상구 설화 71]

### 두꺼비 덕분에 위기 면한 콩쥐[콩쥐와 팥쥐]

국학연(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계모가 인자 팔쥐는 데리고 온 기고, 콩쥐는 [청중: 콩쥐팥쥐 아이가.] 그래. 인자 그거는 그래 있었다 아인교.

그래가지고 둘이 딸하고 이것하고 엄마하고는 좋은데, 무슨 어데 행사가 있어가 가는데 엄마가 있다가 이 딸, 큰딸로 보고는,

“니는 인자 참 그기 독이 밀 빠진 독에다가 물로 항거(가득) 채아놓고 니가 온나.”

이랬는 기라. 그래 나노이 이기 뚜꺼비가(뚜꺼비가), 뚜꺼비가 참 밥을 주듯이 이것도 그래 했는 기라. 그래 하지도 않았는데, 뚜꺼비가 듣고 있다가 그 옹기 밑에 가갖고 딱 받치갖고 있어가 물로 안 새도록.

있어가 보이, 물로 갖다 인자 부아나(부어서) 놓고, 이기 인자 그 행사 하는데 가이께네가, 저거 엄마가 보이께네가,

“니 물 채아놓고 왔나?”

카이,

“물 채아 놓고 왔다.”

이래 하거든.

“밀독에(밀 빠진 독에), 우째 밀독인데 어떻게 니가 물로 채아놓고 와?”

이랬는 기라. 그래 가보이께네가 이 뚜꺼비가 참 그래 받치갖고 그러니까 물로 항거 채아 놓고 있더람서.

[사상구 설화 72]

##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김금순(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인제 엄마가 달개다가(달래다가) 달개다가 안 달개, 안 달개지이카네, 그래 하는 말이가, 그래 저저 그래 인자 범이 오가 있어도 그렇고, 또 마 이리 그거 해도 아가 안 달개지이 하는 말이가, 그래,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저 한테 저 꽃감(꽃감) 줄게. 우지 마라.”

이래 카이까, 아가 끄이더랴요(울음을 그치더라). 그래서 꽃감이 제일, 범카마(범보다) 더 무섭다요.

[사상구 설화 73]

### 혀가 짧아서 부르는 보리타작 소리

성락동(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옛날에 형제가, 세 형제가 한 집 쫄쫄래미(나란히) 같이 한 동네 살았는데요. 살았는데, 인자 복판에 제일 앞에는 저저 머꼬 형이 살고, 고담 복판에 살고, 막내이가 인자 뒤에 살고 이랬는데.

그래 인자 새이도(형도) 죽어빠고, 동생도 죽어빠고, 복판 언자 사람 하나만 살았는 기라. 어 보리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 때 되이 인자 형수, 제수하고 인자 타작하는 기라.

[조사자: 시동생하고.] 그래 시동상강 하는데, 그 시동생이 또 새가(혀가) 째른 기라. 허 인자 말하모 새가 째라가지고,

옹헤야

카고, [조사자: 저저 보리타작소리다.] 소리도 하고. 안자 ‘요 보리 때리고’ 카는 소리가,

요 보지 때리고 [일동 웃음]

또,

옹헤야

저 보지 때리고

이부지(이웃) 사람이 가마이 들으이까네 형수하고 제수하고 서이서 타작을 하면서러 기도 차도 안 하거든.

낮보지 때리고 저보지 때리고 [웃음]

그래. 그서 저 머꼬 시동생이 나쁜 게 아이고, 그 인자 앞소리 먹이는 기 안자 새가 째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사람이, ‘아-, 불러가 좀 질로 들이라 캬터만, 아이구나 새가 째라서 그렇구나’ 카고, 그래가 지낸대요.

[사상구 설화 74]

### 본처 자식이 말라가는 이유

성락동(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인자 시집을 왔는데, 본처 딸이 있고 지가 언자 아를 낳았는데, 신랑 보는 데는 마 어쩔  
든지 그거 뭐꼬 본처 딸, 저 여어(여기) 있는 아 젓을 먹이고(먹이고), 지 아는 마 뒷전이고  
이렇는 기라.

그랬는데 어째된 판인지 신랑이 보이카네, 자꾸 인자 지가 난 아는 빼삭 마르고, 지가  
인자 여자가 낳은 아는 자꾸 살이 자꾸 찌는 기라.

‘그래가 어째서 이렇노?’ 카고, 난중에 그거로 보이꺼네, 그래 저저 뭐꼬 그 집이, 어마이  
숨 쉬고 하는 그 입집이, 그 저 뭐꼬 들어가가지고 마르더란다.

[조사자: 그래, 그 입집이 저 아이한테 가고, 이 아인테 안 가고.] 예. 저 아이인테 안 가는  
기라. 암만 잘 먹이고 뭐로 하고 해도.

[사상구 설화 75]

### 호랑이불에 놀란 사람

김경자(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인자 외숙모하고 둘이서 인자 행님- 쫓고, 나는 엄마- 쫓고 그래 인자 갔는데, 여 등 넘어서  
요래 갔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히! 와 안 오는갑다’ 삼서(하면서), 소름이 끼친다.

그래 마 건너편에 불이 요래, [청중: 호랑이불이라고.] 어. 두, 둥거런(둥그런) 기 두 개 착  
있는데.

“저 불 개가 오는갑다.”

한께,

“마 시끄럽다 가자.”

감서, 내 손 잡고. 어 내 손 잡고 마 온 기라. 집에 와서 그기 호랑이불이라 카더라.

[사상구 설화 76]

### 호식할 팔자

김경자(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우리를 안 자아묵(잡아먹는) 기라. 응. 자기 건들이면 잡아묵고. 그런데 혹시 인제 팔자가 호식할 팔자가 있다 카대.

[사상구 설화 77]

### 범 새끼를 가져 왔다 혼난 사람

김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저 나물, 나물 캐러 간다꼬 친구들끼리 마 처녀들 친구끼리 갔어. 섬에 나물 쭉 캐러. 쭉 캐러 갔는데, 딱 쭉을 캐고 이래 놀다 보이꺼네, 고양이 새끼가, 범 새끼가 고양이하고 똑 같지않아요. 고기 오물오물하이 다섯 마리가 있는 거라.

그래 탄 사람 다 안가지 가는데, 우리 언니가 그걸 다섯 마리로 소쿠리에 담아 왔어. [청중: 아이구 범 새끼갑다.] 범 새끼데, 고양이 새끼 줄 알고. [청중: 고양이 새끼겔다 카더라.] 응.

그래 인자 새끼 갖고 와서 방에다 놔놓고 이래가 저녁에 자는데, 아이고 밤중 되이 범이 막 와서 대문 앞에서 우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마마마 하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 하고 놀래갖고,

“이기 고양이 새끼가 아이고 범 새끼데, 이거 우째야 되노?”

그 인자 들고 나가지도 몬 하는 기라. 무, 무까봐(물까봐) 싫어서. 그래가 왈왈왈왈 떨고 있는데, 새벽(새벽) 되이꺼네 범이 올라갔부러 산으로. 막 어딜 가든 가고 없고.

그래 그런 새끼를 인자 소쿠리에 도로 담아갖고 올 아버지하고 올 언니하고,

“어데 가 있더노?”

커고, 인자 앞사갖고(앞세워서) 갔어. 산에 그래 있는 자리에 갔다가 다 놔뵈디만은 그날 저녁부터 범이 안 오는 거라.

[사상구 설화 78]

### 밤에 머리 감다 호식 당한 딸

김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옛날에 아주 아주 돈 살아가지고 인자 남자가 딸아를 하나 덕고(데리고) 서이서러(셋이서) 인자 거 동네로 갔더라 카네. 아무도 없는데.

그래 오니 동네다 지저금(각자의) 밭이고, 지저금 밭인데, 앞에 그 산에 보이꺼네 집을 쫓개난(조그만) 맨들어가 마 '살면 되겠다' 싶어서, 인자 생 낫신(낫선) 사람이고, 인자 딸아를 덕고 서이가 왔는 기라.

그래 오가 그래 산에 거다(그곳에다) 인자 밭을 맨들고, 머 나무는 하몬 되고, 솔만 하나 지고 오몬, 우리 저저 집안사라 칸다. 저저 양산 배네 이런 데는 거는 갈라 카몬, 저쪽에 솔 하나 하고 그거로 소금만 한 푸대 가(가져) 가가 묵고 산다, 산다 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거서 인자 우물을 내가지고 참 산에 나무도 하고 넘우(남의) 동네 밑에 일도 하고 이래가 살았는데.

지녁에(저녁에) 처이가, 그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클 때 머리 밤에 몬 깎구로(감도록) 하대요. 절대 밤에 머리 몬 깎으라 카대. 글코 인자 밤에 머리 깎고 비올 때 머리 밤에 몬 깎구로 하대요. 어릴 때 밤에 머리 몬 깎구로 하대. 그렇고 인자 밤에 머리 깎고 비 올 때 머리 깎은 몬 저거 엄마 저 아버지 죽으몬 비 온다고, 절대 머리 몬 깎구로 하고, 밤에 지녁 묵고 나몬 범에 물리간다고(물려간다고) 머리 몬 깎구로 하거든.

그래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인자 사는데, 저녁에 딸아가 저 엄마하고 저 아버지 방아 있는데, 머리로 깎았어. 깎았는데 방에 있으이께네 흑- 뿔이 흑- 카더라 카네. 글차(그런 차에) 차고 가이. 그래가지고 흑떡 해서 나와 보이께네, 처이로 마 차고 가는데, 그래 이 마 뭐 그 산인데, 절도 엄고(없고) 마 막 뉘나라꼬(놓아라고) 괄을(고함)을 지르고, 신랑 각시는 따로 마 담말아(달려서) 따, 따라 가이께네 뭐 저 가다가 뉘났는데 머 죽었더라 카대.

[사상구 설화 79]

###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 [하늘이 아는 효부]

김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모 숨구는데, 벼락이(벼락이) 때리고 막 이라몬,  
“죄 지은 사람 밖에 나가라.”

칸다 하네. 눈에 함께 모 숨구다가(심다가) 대기(매우) 출(추울) 때는 겁난다 아이가. 그래 나가라 하이까네, 여자 하나가 아주 젊은 사람이 나가더라 카네. 그래,

“나는 죄 지은 기 있어가지고, 그리 죄 많은 사람 이거 벼락을 때린다 하는데, 죄 지은 기 있어 나간다.”

카더라 카네. 그래 인자,

“뭘로 죄를 짓노(지었노)?”

하이까네,

“너무너무 엄서가지고(없어서) 개똥을 주아가지고(주워서), 개 그 금방 보리쌀 그거 묵고 삭도 안 한 거 그거를 주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래 참 지가 머이(먼저) 떠묵고, 지가 미이(매우) 씻어가 지가 머이 묵고 시어마시를 줬더 만은. 그래 인자,

“나는 그죄뿐이라.”

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뭇이 마 한 몽티 푸-옥 널짜아(떨어뜨려) 주는데 돈 보따리를 널짜 주더라 카네. [조사자: 뭐가 벼락이?] 벼락이.

[사상구 설화 80]

## 산딸기 따러 갔다가 본 호랑이

임월분(여, 194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그래 한날로 우리 언니로, 오새다(요즈음이다) 카노, 우리 언니가 지가 인자 옛날에 산태가 나고 비 오고 나문 산딸기 이런 기 마 시-크머이(시커멓게) 참 많다 우리 골작(골짜기) 거는 (그곳에는). 그래 산딸기 따러 가는데, 지가 갈라 카이, 그래,

“언니야, 나도 따라 가까?”

카이,

“가자.”

카더라 카네. 그래 가는데,

“니는 요 골짜기 올라가라. 나는 요리 갈꺼마.”

하이, 그래 거 가이 마 산딸기가 마 한정 없더라 카네. 그리 있는데, 딸기 탄다고 이래 따이까네, 우에 인자 거기 인자 범이 인자, 범이 사람을 알아보는 기라. 그래 커다란 방구 에서(바위에서) 뭇이 꼬랑뎡이로 철퓌철퓌 쳐샷단다. 그래가 마 우리 언니 겁이 나가지고,

“[소리치듯] 새이야.”

카이꺼네,

“와? 괜찮다 따라.”

이래 카더라 카네. 우리 언니는 만날 저 [청중: 안다.] 봐나노이, 괜찮다 따라 이러 카더라 카이, 딸이고 똥이고 채리(세리, 즉 힘껏) 구불라가지고, [일동 웃음] 요세도 이런 이야기하모. 딸이고 똥이고 똥, 우리 언니는 인자 올케 언니는 널짖다고(떨어뜨렸다고), 우리 언닌 요거를 따는데, 따다가 보이께네 똥이 그 인자 무섬을(무서움을) 주는 기라. 인자 개안은(괜찮은) 사람은 개안은데. 이래 뭐 꼬랭덩이로 마 치고, 철썩철썩 소리가 내더라 카네. 그래 인자 겁이 나가지고,

“새이야.”

카이께네,

“괜찮다 따라.” [일동 웃음]

[청중: 그래 새이한테 쫓아가지.] 그럼 누부는 인자, 우리 언니는 만날 봐사니까네 여산기라 (예삿일이라) 그거. 그래가 마 우리 언니는 새이고 똥이고 똥 내빼뿌고 내리왔똥다.

[사상구 설화 81]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전장덕(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신랑이 참 몬 살았거든. 저쪽에 할매를 데고(데리고), 인자 시어머니를 데고 사는데, 그래 할매가 대기(매우) 살림이 엄고(없고) 몬 사는데, 신랑은 그질로 군예를 또 갔똥는 기라.

갔부고 나이, 이 이 메느리가 뭐 해줄 기 없는 기라. 그래노이께 지령이를 잡아다가 만날 할매를 삶아 먹있어. 할매는 눈이 봉사라.

삶아가 만날 믹이끼네, 꺾디기는(건더기는) 안 묵고 국물 뽀하이 그렇다네. 그거로 가 꺾디는 안 묵고 인자 국물만 만날 묵고 그러노이께네, 그 옛날 초석자리 안 있나? 대자리. 그 꺾디를 만날 할매가 대자리 밑에다 열어놨는 기라. 열어놨는데, 그 아들이 오이께네,

“하이구, 엄마 얼굴이 어찌 그래 좋소?”

이러 카이께네,

“그래 아이고 봐라. 내 똥로 똥고 이거를 자꾸 어미를 해 주더라”

캄서, 이래 꺼내보이까네 지령이더란다. 지령이. 그래가 지령이 거기 참 보약 된단다 그렇게.

[사상구 설화 82]

###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전장덕(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개가 보리밥을 묵고 똥을 수북히 노뉘노이까네. 그놈을 갔다가 씻어가.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 시어마이 믹이고 지는 또 녀의(남의) 일 하러 가고 그랬다 카대.

그러이께네, 그 밥을 해가지고 그냥 시어마이만 즐라 카이께네, 이 이 죄가 됐다 싶어가 자기 한 입 떠무(떠서 먹어) 보고, 그래 시어마이를 주고 그랬단다.

[사상구 설화 83]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안순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하도 울어사서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러 인자 엄마가,  
“꽃감(꽃감) 주께. 꽃감 주께.”

한께, 애가 고마 툇 달래지더란다. 그래논께네, 마 호랑이가 마 이놈우 꽃감이 얼마나 무서운 긴고 싶어서 도망을 갔부더란다.

[사상구 설화 84]

### 도깨비불과 빗자루가 변한 도깨비

오학분(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도깨비는 진짜 인자 우리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이 우리 클 때지. 저 여어(여기) 우리

함양(함양) 산청 지리산 밭이거든. 고향에.

그래 사는데, 인자 촌에는 촌인께네 그자, 산이 가깝다 아이가. 인자 우리 동네 건너 인제 주막이 있었거든. 인제 밑에는 큰 질(길)이고 차 대이고(다니고), 주막이 있었는데 산 밑에. 옛날에 술집이 있었다 아이가. 그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을 뜯어냈는 기라. 뜯고 인자 거기서 토깨비가 비이는(보이는) 기라.

그 왜 한나 걸 같으몬, 토까비 그 터어서(터에서) 그 또랑이고 또랑이고, 그 옆에 집터고, 그 인제 밭을 지금 해묵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산이 됐겠지 뭐. 그래 그 저 우리 클 때 보몬, 우리 집이 인제 산 밑이라 논께나, 인자 집이 인자 동네서는 저 좀 우에 좀 붙었어. 앞담이 웃담이 붙었어.

비가 올라고 마, 비가 올라고 하는데, 비 설거지 할라꼬. 뭐 인자 뭐 뭐를 넣어놓으몬, 비가 올라 카몬, 우리 엄마가 깨배거던(깨우거든). 그래 비 설거지한다고 밖에 인자 나간다. 나가 몬, 그래 건네 가서 인제 토깨비 있는 기라. 시퍼런 불이 마 별 걸은 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샐는 기라.

인자 거 주막 뜯는 데 거 터서. 거 산에서. 그래 하이칸 그기 엄청 무섭고 그렇대. 그 한 번 두 번 본 게 아이고. 옛날에 굶고 하몬 날 저문 밤에 나가몬 그런 기 있어. 눈에 비는 기라. 그래 줄이 그기 마마 싹 언치고, 똑 마 저저 달, 와 그 그 뭐꼬? 달집 지몬 터주는 거 안 있나? 불빛, 보름에. 그거겘이(그것같이) 마 터지는 기라. 토깨비가.

그래갓고 무섭어갓고 그 자리에 가보는 기라. 나는 안 가 봐도, 가본 사람이 있어. 가본께, 내나 빛자리 몽당이 딱 나무에 이래 뭉켜(뭉어) 났더란다. 빛자기 씨다가, 빛자리. 그기 토깨빈 기라. 가서 날이 구질라(긋으려) 카몬. 그래갓고 떼내빼고 나서는 엄마한테 또 그 짓, 토깨비가 되는 기라. 아무 앓다(왔다) 갔다 하는 기라. 그기 토깨비라.

[사상구 설화 85]

## 긋은 날에 나오는 헛것

오학분(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저녁에 되몬, 날이 굶고 할라 카몬, 마 물로 풍덕평덕 퍼샐고, 마 사람들이 가몬 마 시부리 샐는다 아이가. 여자들 시부는 소리 나고 물이 많다고 벗고, 만닥 우는 소리는 나고, 마 찌지고 웃고 마 그래샐단께. 그런 소리가 듣기(듣겨).

[조사자: 사람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밤에 인자 날이 굶고 할라 쿠몬 헛것이가 나와갓고.

[사상구 설화 86]

## 헛것과 싸운 사람

이경년(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전에 헛것이가 저 산골에 가는데, 마 밤에 한밤중 돼서 이래 가이까네, 새가(혀가) 빠지  
인자 그꺼지(그곳까지) 올라간께네, 헛것이가 탁 만나이더라(만나지더라) 캐.

그래 헛것이가 만나서 요놈우 자석이 인자, 내가 이 몸이 인제 좀 안 좋으면은 헛것이  
거기 달라들긴데, 내 몸이 고마 이 좋으니까, 헛것이를 내가 이길라 쟤어. 몬 이기며는 지가  
거서 죽고 이기면은 내가 사는 기라. 그래가 마 대기 마 지랄,

“니랑 내랑 마 오늘 죽자. 내가 인자 이후로 이길란다.”

그래 하몬 썸-리(매우 세계) 헛것이, 썸리 딱어 뺨을 썸리고 이빨 주째 박고 대기하라고  
고만 이깃어. [조사자: 어, 어무이가 이깃네.] 아니야. 내가 이기잖애, 헛것이 이야기.

이기갓고 집에 가서 인자 누우자고, ‘이 널 아침에 인제 가서 인자 이 헛것이가 긴가 아인가  
뵈인고 하 문 가서 본다’ 싶어서 가니께네, 빗자리 몽댕이 담배꽂치 그런 기 마 새-카마이  
있더라 캐.

그래 이기 진짜 헛것이가 됐는 긴가(것인가) 싶어서 이래 함 처라보니까(찾아보니까), 밤에  
빗자리 몽댕이하고 담배꽂치하고 그하고 헛것이가 됐더라. 그래갓고 헛것이가 돼서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 인자 우짜든 내가 그 헛것이로, 헛것이가 아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어도 내가 이기 봐야 되겠다’ 이래 싶어. 그래 대기(매우) 인자 그 뒤에는 또 만냈다 캐. 마  
뺨을 치고, 요 뺨 치고 저 뺨 치고, 저번에는 자기가 몬 이기걸에(못 이길 것 같아서), 집에  
들어와서 인자 영 사람이 마 죽어뵈어.

그 사람이 이길라 칸께나 힘이 부대끼갓고(부대껴서) 죽어뵈는데, 뒤에 또 만냈어. 그 뒤에는  
인제 가서 마, 우짜든(어떻게든) 그놈을 갖다 썸리마 짝대, 그거를 새끼를 하나 열어, 새끼가  
있어. 새끼 끈 거. 그거를 탁 엄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래 널(내일) 아침에 날이 새서 가니께네  
그게 헛것이더라. 저저 빗자리 몽댕이더란다.

[사상구 설화 87]

## 솔에서 나는 헛것의 소리

최시점(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술을 갖고 그거 그 자리에 그 기계로 없앴는데, 그 자리에 헛것이 나와. 쿵덕쿵덕 소리가 나고 그러니라. [청중1: 그런 일이 있어.] [청중2: 있었어.] 통통통통통 소리가 나고. 헛것이가 있어. 그런 거는 옛날에 촌에는 그런 거는 있었다.

[사상구 설화 88]

### 헛것에 홀린 사람

최시점(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인자 우리는 삼학년이고, 그 인자 오빠들은 커서 그런데, 일회(1회) 졸업생이고 그런데, 아이 팬하이(빠르게) 붓도랑으로 가더라고. 그러더마 그 등그이<sup>12)</sup> 가서 그 드러누빠리(드러누워 버려). 그 옆에 가서 신짱을 벗어가 뺨을(뺨을) 세계 때리더라고. 헛기 나오대. 뺨을 세리더라고. 헛것이 흘키갖고(홀려서) 들어누갖고 신을 벗어가 마 뺨을 세계 때렸다.

[사상구 설화 89]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번남(남, 1940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호랑이가 아- 잡아몰라 왔는데, 안에서 마 애가 우니께, ‘저거 내 밥이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우지 마라. 밖에 호랑이 왔다.”

이래도 애가 또 울거든. 그러니까 어이고 달래도 달개 봐도 안 되니까,

“아나 꽃감(꽃감) 하나, 꽃감 하나.”

12) ‘등그런 못독에’의 뜻인 듯함.

물께네, 아가 눈물을 툇 그치는 거야.

금께네, 밖에서 호랑이가 가마이(가만히) 들고 있다가, ‘아이고 내보다 더 무서운 기 있구나. 꽃감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놀래가지고 외양간으로 탁 갔는데, 외양간으로 그 중요한 이야기 할라고 외양간으로 탁 갔는데, 외양간에 소도둑이 왔는 기라.

소도둑이 와가지고 외양간에 인자 다 여 소를 목 가지 갈라 카는데, 이눔우 호랑이가 온께 네 소도둑이 놀래갔고 깜짝 호랑이 등에 딱 타버린 거야. 그래 콧 타니께네, 호랑이는 ‘이게 꽃감인갑다’ 싶어갔고, 그래 꽃감인갑다 싶어가지고 마 이기 마 ‘다리야 내 살려라’ 카고 막 호랑이가 달렸는 거야.

금께네, 그 뭐고 포수는 죽으까봐, 도둑놈은 소도둑은 죽으까봐, 호랑이를 잡고 마 목을 잡고 꼭 달리다가, 이걸 저 지가 어데 가 쫓 내려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가는 나무가 딱 있었는 거야. 나무를 딱 잡고 있는데, 호랑이는 마 ‘아이고 꽃감 떨어졌다. 내 인제 내 살았다’ 해갔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도망가고, 꽃감 저 저 뭐고 소도둑은 소도둑대로 거 들고, ‘절대 도둑질도 안 하고 해야 되겠다.’

[사상구 설화 90]

### 도둑 아기는 자라서 도둑 된다

박화자(여, 1944년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저 내가 인자 애기를 업고, 도둑질해갔고 여 품안에 요래 뭐 이래 흠치(흠쳐서) 열고 이 라며는,

“이 아가 도둑 된다.”

카고, 마 뭐 임신한(임신한) 사람이, 어 임신한 사람이 도둑질해가지고 마 요 품안에 넣고, 어 그것도 인자.

[사상구 설화 91]

### 은혜 값은 까치

이연옥(여, 1946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나무에 올라와서 까치 새끼를 잡을라 했는 거지. 금께 이 사람이 보고 구렁이를 인자 딱 저 했는 거야.

근게네 어느 날 사냥꾼이 인자 깊은 산길이가 그 절인가 어데 갔는데, 저 구렁이 위에 종이 올라야 구렁이가 안자 이 사냥꾼을, 인자 이 사람 선비를, 인자 노래 놔주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하면, 그래 인제 선비가 죽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직 종칠 시간이, 새벽 종칠 시간이 아닌데, 종을 땡땡 올리는 거라. 거서,

“어떻게 왜 일이야?”

하고, 인자 이 구렁이가 깜짝 놀라서, 인자 귀신이지, 확 가고 나니까, 보니까 꼭 종 안에 까치가 죽어 있다.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죽어있다는 거. 치악산에.

[사상구 설화 92]

### 흑 떼려다 흑 붙인 욕심쟁이 영감[흑부리 영감]

이연옥(여, 1946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이웃에 흑이 크게 있는 거야. 그래 흑, 흑이 너무 크게 있어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내 그게 고민인 거지. 동네 놀림감도 되고.

근데 어느 날 저 저 어느 날 인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잊어버렸는데, 그 요새 꿀밤도 아니고 그기 이름이 뭐라? 그기 나도 이 도시 살아노니까 모르는데, 그 나무 열매가 그 이름이 뭐더라? 그래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산에 다님서 그걸 알았어. 꿀밤이 아니고 그기 [조사자: 밤나무 비슷한 거.] 아네요. 꿀밤나무 비슷한 건데 고런 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 인자 저 숨어갖고 인자 그거를 몇 개를 따가지고 있었는데, 도깨비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인자 딱 구석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천장에서, 그래 이 저 그거 하나를 확 깨물었는 거야. 금께 푹! 소리나거든. 그래가지고 도깨비들이 다 도망가고.

아, 거는 토깨비 이야기 아인데? 어머야. [청중: 얘기 하다 보몬 얘기 까먹어뿐다.] 아니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도깨비, 그거는 딴 이야기네.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와가지고 와 동네, 흑부리영감은 아니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 해가지고 이 흑부리영감이 무서워가지고 노래이 불렀다. 노래를 불러놓으니까 저 이 도깨비들이 ‘오호! 노래가 좋다’ 이래갖고,

“그 노래 어디 나오냐고? 그 흑에서 나왔냐?”

니께,

“아니다. 이거 아니거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하이께네.

“아이고 우리 흑 이거 안 줄라고, 노래주머니를 안 줄라고 그러게 했다. 이거 줄 거니까 달라.”

이래갖고 탁 떼면서 탁 떼가, 방망이로 툭 뺐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 사람은 흑을 인자 도깨비방망이를 가져가고, 동네 가가지고 자랑을 했지.

“나는 흑도 떨어졌제.”

마 똑딱 하면 돈이 나오고 똑딱 하면 한계 부자가 된 거야. 그래 이웃에 심술장이, 욕심장이 아저씨, 할아버지가 인자, ‘하 나도 가서 해야지’ 이라면서 딱 갔는 거지. 가가지고 탁 오니까, 노래를 텍 하니까, 이 아저씨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이 노래가 나오냐?”

“이 노래주머니에서 나오지.”

이래 인제 얘기를 했지.

“이 노래주머니에서 나오지.”

이라니까,

“이 어디 거짓말 하노.”

하면서,

“먼저 번에 우리가 말이지 흑을 하나 뺐는데, 거 노래 하날도 안 나오더라.”

하면서, 도로 붙이가 요 양쪽에 붙여준 거야. 그 툭 붙여주가지고 이 아저씨 흑이 두 개가 돼가지고.

[사상구 설화 93]

###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연옥(여, 1946년생) 구술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어느 날 저 어느 집에 거위가 인자 살고 있는데, 거위를 키웠는데, 그 알 그 집에 거위는 하루 한 알씩뿌이(한 알씩밖에) 알을 안 낳는데, 알이 황금알인 거지.

황금알이 되논께네, 자 이 이걸 텍 인자 주인이 생각하니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매일 하나 논께, ‘안에 금이 얼마나 많겠노?’ [조사자: 그 속에.] 어. 그래 욕심을 부려가지고 거위를 잡아노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금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사상구 설화 94]

### 몽달귀신과 처녀귀신의 혼례

김두중(남,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아버지)]

죽고는 이래 총각귀신을 갖다가 혼인을 시키거든. 혼인을 시키는데, 그것도 또 중신이(중매가) 들어와가지고 그 죽은 또 여자 구신들하고 처녀들하고 이래가 사돈도 맺고 다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시깁는데,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부부지간(夫婦之間)에 잠을 재웁니다. 이렇게 같이 가. 아무도 안 보지요. 그럼 분명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일어나면) 같이 둥개개(포개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조사자 웃음] 무슨 무슨 조환지.

[사상구 설화 95]

### 처녀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박수경(남,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아버지)]

택시기사가, 부산에 택시기사가 말이지. 저 경주에 손님을 더부다(데려다) 주고 니러오이까(내려오니까), 니러오이까, 저 언양쫘 오이 말이지 허헌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기라. 그래 택시기사가 딱 세아가지고, 문도 안 열리는데 사람이 뒤에 앉아가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카이,

“온천장 거 원예고등학교.”

원예 쪽 고등학교제? 원예고등학교 고 아래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그까지 딱 덕고(데리고) 오이까, 더버다(데려다) 놓고,

“잠시 기다려라.”

캄시로,

“내 돈 가(가져) 오꾸마. 기다리라.”

카고, 아- 이 아무리 기다리도 사람이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기라. 그래 들어가보이, 그날 저역에(저녁에) 제사라. 그 아들이 말이지 돈을 십 만원을 딱 줌시로,

“큰 고생했다.”

[사상구 설화 96]

### 시아버지 불알을 쥐어버린 며느리

박옥금(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머니)]

시아바이하고 메늘하고(며느리하고) 살았거든. 한 집에 살았는데, 감나무 크단(커다란) 게 하나 있는데. 저 감을 따 물라 카이께네, 메늘도 못 따구로 하고, 또 메늘 딸라 카이 시아바이 못 따구로 하고.

이래 있었는데, 시아바이 밤에 할딱 벗고 올라가가 딱 앉아 감을 따묵고 앉아 있시어, 메늘도 살살 나와가 따다 카이 시아바이 불알을 쥐뿔어.

“야야 이거 감 아이다. 내 불알이다. 뇌라. 뇌라.” [웃음]

[사상구 설화 97]

### 지령이국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한 며느리

오순남(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머니)]

시아버지 봉양할라고 며느리가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제 지령이요, 그 놈을 저 만날 저 잡아가지고 고아가지고 인제 시아버지 잡수려 드리끼네, 이거는 인제 시아버지 잡숫다 그것도 아들 생각한다고 다 안 묵고 자리 밑에 열어 났다 카대요.

열어 났는데 낸주에(나중에) 아들 와가지고 그래,

“야가 이걸 먹고 해가 내가 몸이 마이 좋다.”

캄서 이래 자리가 들씨가 보여주길 지령이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거 지령입니다.”

이 카이께네 눈을 버쩍 떴다 이 카대요.

[사상구 설화 98]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정상(남,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아버지)]

이 마을에 참 담도 세고 무섭은 어른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이야기하기를, 하룻밤에, 그 어른 보몬 언제나 작지를(작대기를, 즉 지팡이를) 쇠가 이리 달리가지고 요리 끌고가몬, 길에 가모 쇠 소리가 잘잘잘잘 나도록 이래 끌고 땡기고, 또 짚고 땡기고 이랬거든.

근데 그 어른이 아- 하룻밤에는 나가니까 키가 큰, 눈에 헛갓이(헛것이) 나타나가지고, 헛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래가,

“씨름을 하자.”

카더라요. 그래 인자 씨름을 하자 카는데, 그 딱 거머쥐고 씨름을 하면서, 이 어른이 담도 좀 세고 힘도 좀 세고 한께네 딱 불끈 오다(오므려) 쥐고 고마 잡아 냐깁는(넘겼는) 기라.

잡아 냐깁고는 ‘이기 뭇이 그랬나?’ 싶어서, 옛날 어른들은 참칼, 집 잇는 칼 그걸 옆구리, 옆구리 차고 땡겼거든. 그래 그걸로 빼가지고 모가지로 확 찔렸어.

목을 찔러서 놔 놓고 집에 왔는 기라. ‘이기 뭇가?’ 싶어 날 새고 나서 가보니까 거기 빛자 리라, 빛자리.

[사상구 설화 99]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정상(남,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아버지)]

자기 부모를 그거를 고려장을 할라꼬 지계에다 짚어지고 가니까, 그 손자가 따라오는 기라. 뒤에 졸졸 따라오는 기라.

“아부지. 와 할무이로 와 산에다 그래 가다 가(가져) 갈라 카느냐?”

고. 그래 마 울어삼서 따라오는 기라. 따라오니께네, 그래 참 본께 저거 할무이를 갖다가 참 고려장을 하고는 그래 하거든. 하니께네, 지계를 인자 그따 내빼리고 간께,

“아부지. 지계 가 가입시더.”

이라는 기라. 그래서,

“야 이놈아. 지계 이걸 뭐할라고 가져 가노?”

이란께,

“아부지도 죽으면 나도, 나도 지고 가야될 거 아이냐꼬? 나도 지고 가야될 거 아이냐꼬?”

인자 그 얘기가 전설에서 인자 흘러나와가지고 거 고래장이 없어졌다 이 말은 들었어요.

[사상구 설화 100]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정상(남,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아버지)]

내나 그 얘기가 말하자면, 아들이 그 집 노모의 아들이 말하자면 징용마냥, 옛날에 이래가지고 짹히 가가지고 갔는데, 메느리가 그 집 메느리가 시오마이가 눈이 마이 거슬리는 기라.

시오마이를 천상 죽어야 되겠는 기라. 마음적으로. 그래 해서 지렁이를 파서 그걸 삶아가지고 그래가, ‘이걸 이기 아주 흥시런(흥한) 그런 물건이니까 이걸 먹이면 죽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인자 그걸 지렁이를 삶은 물로 자꾸 지렁이를 삶은 물이 부헌(부연) 기라.

그 물로 자꾸 쫓는(쫓는) 기라. 주고 인자 아들이 그러구로 저러구로 저걸 시간을 때암을(때암) 하고 집에 오이께네, 자기 어머니가 보허이 살이 역수로 찌가 있는 기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 해주는 거기 하도 신기해서 기운도 나고, 뭐 소변을 봐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거를 건디기를 건져서 자리 밑에다 넣어 놔어. 그래 아들이 오니께네,

“야야, 이거 함 봐 봐라. 메느리가 이거를 삶아가 널로 줘서 이렇게까지 건강했다.”

그래 그란께,

“어머이 그거 거시오.”

그래 자기 어마이가 눈이 봉산데,

“뭐야?”

캄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01]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이정상(남,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아버지)]

우리 고향 사람인데, 지금은 그 분이 나이 구십입니다. 구십인데, 이 분이 정력이 좋았는 기라. 정력이 좋은께네 자기 마누라는 나이가 좀 거하고 하니께네, 젊고 하니께네, 이래가 인자 밤으로 인자 자꾸 마누라를 참 괴롭히는 기라.

괴롭힌께네. 손자가 옆에 자는데, 그래가지고 참 거 인자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하니께네, 애가 과함을(고함을) 지고 울거든. 우니께네 하층에, 저거는 이층인데 그는 하층에 저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 우짤 일인고?’ 싶어서 과함을 지르고 운께네 쫓아 올라왔는 기라. 쫓아 올라오니께네,

“와 과함을 지르고 우냐?”

이래 하이께네, 그래 인자,

“내가 이야기 할게.”

저거 할매가,

“내가 이야기 할게. 너거 아버지가 날로 자꾸 밤으로 괴롭힌께, 내 배 우에 올라가 있으 이께, 그래갖고 고마 할매 죽인다꼬 과함을 지고 울었다.” [조사자 웃음]

[사상구 설화 102]

### 고동바위의 유래

이정상(남,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아버지)]

요 우에 오데 바위가 있었는데, 그기 뭐 뭐 고동 우는 소리로 뭐 그 소리로 했다 이기라. 그래서 그기 고동, 고동바위라 이래가지고 뭐 이름을 지었다나 이래 들었는데.

[사상구 설화 103]

###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차별한 딸

최영자(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할머니)]

딸네집에 와가 있으이까네 저거 아버지라꼬 꺾디기를 마이 담아 마이 주이까네, 사돈은 그

묵고, 시아바이는 밀건(멸건) 국물로 주이까네, 사돈이 가마 앉았시모 괜참을 낀데,

“아이고 사돈요. 갖다리 오지지요?”

그 카이,

“오지기는 개 좃도록 오지야?”

қندا 안 카든교. 못 얻어 보고 있으이까네, 시애비는 못 얻어 머시(먹었으니) 안 오지고, 친정 아배는 인자 잘 먹어서 오지다고 그라네.

[사상구 설화 104]

### 여우가 많이 나왔던 애장 터

김자건(남,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사상서 우리 있을 때 사상 있을 때, 우리 딸래미도 거서 글로(그곳으로) 땡겼는데, 그 야시고개 카는 기 양쪽에 솔나무가 꼭 우거지고 고개가 쫘 거해 유명한 고개라.

고개고. 옛날 화장막이 있었고. 거기 뭐 옛날에 그 애장 터, 그 야시가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학생들 넘어댁김 사고도 많이 나고 뭐 그 자리에 현대아파트 저거 지어가지고 재수 없다고, 사가지고 드가가지고도 나온 사람 많았거든예.

그 옛날 애장 터 하고 뭐 야시고개 캐사미.

[사상구 설화 105]

### 삼 대째 쥐를 잡지 않은 집[집지킴이 쥐]

송현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하루 식구들 탁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묵는데, 상에다 밥을 묵는데, 쥐가 마 딱 이래 서가지고 춤을 추면서러 저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청중: 쥐가?] 쥐가 춤을 추매. 그래서 식구들이 너무 참 희안해서 쥐 따라 쫓 가봤답니다. 밥을 묵다가 쫓 따라간께네, 싹 찢고 나가나니까(나가고 나니까) 집 거기 딱 어그리지더라고.

그래 그 집이 삼 대로 쥐를 안 잡은 집이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로 들어췌어.

[사상구 설화 106]

### 떠는 밥을 잘라서 잘 살게 된 사람

송현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저 어느 참 이인, 옛날 이인이라 안 있습니까? 이인이라 쿠는 거 요새겘모 박사겘은 그런 기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저 시골로 지나가다가 인자 그 집에 밥을 얻어묵으러 갔어. 아주 못 살더랍니다. 집이. 못 살아서, 그래 가서,

“그 하룻밤 신세 지자.”

쿠고, 드가서 그래도 밥을 주서 얻어 묵고, ‘와 이래 이 집이 못 사는고?’ 싶어 보니까, 그 집 주인 아저씨가 발로 마 달달달달달달 떨어란다. ‘너무 발로 떨어져 아-하 저래서 문 살구나’ 싶어서 밥 얻어 문 그 은혜로 인자 그 무슨 밤에 자다가 도끼로 한 개 가(가져) 와가지고 발 끄티로 콧 찍어빼고 가뻘다 커네.

갔어. 인자 자기가 갔어. 한 삼년 있다 온께, 그 집이 부자가 돼가지고 억만진척 부자가 되어 있더랍니다.

[사상구 설화 107]

### 남편을 달리 섬기는 본부인과 첩

송현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그 본처하고 남편을 섬기는 그 일인데, 그래 저 첩은 약을 달기가(달여서) 오면 항상 일정한 양을 달이가 오는 거라. 달이가 오고. 본마누래는 약을 다리고 오몬 많았다가 작았다가 많았다가 작았다가. 매 본마누래를 구박하고 이래 잘한다 이랬는데.

뒤에 알고 보니 첩은 약을 달이 가고 작으면 물로 타고 많으면 부(부어) 내빼고, 본마누래는 나오는 그 쪽쪽 딱 이래 타가 빼가 갖다 주고. 그래 뒤에 그 남편이 알고 그 첩을 갖다 쫓가(쫓아) 내뺐답니다(내버렸답니다).

[사상구 설화 108]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송현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남편이 탁 양반이 되자 글만 읽고 앉아가 있다가 인자 그거 과거보러 갔다 아입니까. 서울로 과거보러 가다가, 아 저거 인자 글만 보고 있음께 저거 마누래가 그냥 너무 답답해서 저저 어대 탄 데 살러 가뿌렸는 거라.

살러 갔는데, [청중: 피, 피 훑다가.] 가만 있어 봐라. 그래 살러 갔는데, 저 인자 과거를 보러 올라가가지고 거 뭐 우짜든 과거를 보고 좀 살았는지 그거는 올키(올게) 모르겠는데, 그 땀에 몇 년 돼서 내려오본께네, 그 여자는 그냥 쟁피를 훑고 있더랍니다.

이 남편은 잘 돼갖고 어사 출두 돼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런데 임시로 못 산다 캐서 그 남편을 버리고 간 그 여자 죄가 많아서 그런가.

[사상구 설화 109]

### 풀국새가 된 며느리

송현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저 아주 못살아서 친정이 잘 살아서 친정에 가서 쌀로 얻으러 갔는데, 올케가 너무 독해가지고 저 풀로 먹이다 남은 풀국 안 있나?

“새이(형님) 풀국이나 따다 좀 주소.”

이라니까, 풀국 그것도 안 줄라고. 풀국풀국. 고계 그 풀국 그것도 안 주고 탁 부(부어) 내빼더라. 거기 이야기거든 그게.

[사상구 설화 110]

### 본처 딸을 죽이려 한 계모

송현자(여, 1939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옛날에 서모 밑에서, 장화홍련이랑 비슷해. 서모 밑에서 저 딸이 둘이 자랐는데, 인자 저 큰언니가 시집을 가는데, 서모가 하도 못되서 시집을 가는데, 옛날에 저 대리청이라고 있다 아입니까? 거서 인자 딱 인자 신랑하고 각시하고 술 주고받고 거기 있다 아입니까?

그거 할 때 인자 그거 저 술, 술로 갖다 서로 인자 치고받고 하는데, 저거 동생이 인자 마루에 기둥을 콧 안고 뽕뽕이 돌면서러,

형부형부 새형부요

저 무슨,

술이라고 주거들랑  
은동곳을 지겼으면(지냈으면)

은동곳. 은동곳.  
은동구술 지겼으면  
술이랑 주거들랑  
젓어보고 잡수세요  
아니젓고 잡으시면  
저 거 가옵니다.

이래 했는 기라. [조사자: 영길영천.] 에- 그런 거 같네. 그래가 그 저 그 처제 노랫소리가 하도 이상해서 술로 갖다가 그래 젓어 보니까, 그 안에 청산가기로 여가 서모가. 그래 해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사상구 설화 111]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이두리(여, 1945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산골경로당]

자기 집에서 피 훑다가 또 피 훑기 싫어서 다른 데 갔는데, 그래 오미오미 본께네로 또 그 저기 살러갔는 데도 그 피로 훑어서 저 저 사람은 간 데 쪽쪽 쟁피 훑네 그카면서.

[사상구 설화 112]

### 꼬꼬 하니 삐약삐약

정득례(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애는 인자 짝 낚히고 놓고 만내 불라이 만내 볼 수도 엄꼬(없고). 이래 인자 아버지가 인자 어마이를 보고,

“내가 꼬꼬 허글랑 그래 인자 나온다.”

그랬어. 그래 인자 아버지가 인자 ‘꼬꼬’하면서 나간께, 인자 어머니가 따라나간께, 이것들 짝 일나가 ‘삐약삐약삐약’ 함서. [일동 웃음] 그래가 또 못 만나는 기라.

[사상구 설화 113]

### 며느리의 방귀 힘

정득례(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그래 항상 기가 죽고, 노래이(노랑게) 떠갖고 그래 아무개서,

“야야, 어디가 아프나?”

하모,

“안 아프다.”

쿠고 이래서, 그래 인자 불러다 놓고 물으니께, 인자 친정엄마가 그 인자 시켰어 그리. 방구도 인자 제대로 끼지 마고 참고, 인자 병어리 삼 년 뭐 뭐 참 귀머거리 삼 년 그런께.

송아지도 보고도 송아지라 안 하고 송추씨, 송추씨라 쿠고. 그래 인자 이리 살, 시아버지가 물은께,

“방구로, 방구로 참아 글타.”

한께, 그래 인자,  
“마음대로 끼라.”  
캐논께,  
“아부님, 지동을 짝 잡으이소. 잡으이소.”  
쿠모 방구를 끼모 마 집이 히떡히떡. [일동 웃음]  
“아부님, 또 인자 또 인자 이리 잡으이소.”  
하모, 뒤에 가서 끼몬 마 집이 뼈떡 일나고. [일동 웃음] 마 가다가 방구를 끼모 시아배도  
날라가고. 그렇더란다.

[사상구 설화 114]

### 소변 보다 밑을 계에게 물린 며느리

정득례(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시아버지가 논을 가는데, 그래 인자 며느리가 인자 참을 해가 가는 기라. 술 하고, 참을 해가  
가는데, 거 인자 소변이 하고 싶은 기라. 응, 가다가.

근데 시아버지는 배가 훌쭉한께 인자 며느리 저 깜빡깜빡 이고 오는 걸 봤는디, 그래 고마  
하매는(하마) 오까 하매는 메느리가 안 오는 기라. 그래서, ‘야가 오다가 우찌 됐길래 안 오는  
고?’ 싫어서, 인자 그래 인자 고마 메느리 오는 길을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인자, 메느리가 오다 소변이 누고 짚은께(싫으니까) 인자 또랑에 앉아 소변을  
했던가배. 근께 마 참게 그 놈이, 와 계, 거기 와서 짝 물어뺐어. [일동 웃음] 물고 있는께네  
이기 놈야 일어나든가 할 긴데, 마 아파가 꿈쩍도 몬 허고. [일동 웃음] 그래서 인자 시아배가  
인자 간께 메느리 그래가 앉았거든.

“그래 야야, 야야. 그래 와 그래가 있노?”

한께,

“아버님, 그래 마 소변이 허고 싫어서 여 소변을 했더만, 계가 와서 물어갖고 지금 일나도  
몬허고 그래 있습니다.”

“야야 보자. 내가 띠께.”

이래갖고 마 시아배 디다 본께 마 한 쪽 다리가 시아배 입술 짝-. [일동 웃음]

그래 그 뒤에는 몰라요.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15]

### 내 방귀 고시지요?

정득례(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머고 머 영감인가 머신가(똥인가) 따라오는 줄 알고 방귀 뽕 끼가, 끼놓고, 그래,  
“내 방귀 꼬시지요?”  
카고 이러이카네,  
“댁에 방귀 똥았소?”

[사상구 설화 116]

### 저승 갔다 온 사람

정득례(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내보담 두 살 더 묵는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인데, 여 와서 인자 이야길 하는데, 자기 언니가 임신을 했는데 고마 죽었어. 죽어갔고 인자 밥 해놓고 막 이래가 삼 일만에 깨났다대예. 그래가 인자 곽에 다 열어갔고, 이래가 인자 초상칠라꼬 딱 이래 났는디, 탁 살아났는 기라.

그래서 인자 물어본께네예 그래 인자 저승을 이리 저 가니까네,  
“안중(아직) 올 시간, 저 올 때가 아이다.”  
이름이 뭐 같은 기 있었는가 그런께, 인자,  
“집에 가라.”

하더랍니다. 가라 함서는, 그거는 인자 다리를 타는 게 아이고,  
“인자 저 개를 따라 가며는 물이 있을끼네 고 언자 건너가라.”

하는디 간께, 지릅을(겨릅을), 삼, 옛날에 시골에 삼, 베 놓는 삼이 있거든예. 삼 그거 베끼몬 인자 우리는 인자 사투리로 그거 재립땅구(겨릅대), 재립땅구라거든. 물에다가 고걸 딱 이리 하나로 뉘놓고 그리 건너가라 하더랍니다.

고마 건너가다가 빠져뻘는 기라. 그래가 살아 일나갔고 애 놓고 밋(뎃) 년 더 살다가 죽었 다대요. 실지로 그거는.

[사상구 설화 117]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득례(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장경로당]

자기 인자 어머니가 인자 세상을 베렸는데(버렸는데), 아 세상을 안 베렸고, 인자 고래장(고려장) 할 때가 됐어. 그래가 언자 자기 어머니를 지게다 인자 짊어지고, 그 인자 고래장 할 때 묵는 양식 쪼끔 그 준비를 딱 해갖고 인자, 자기 엄마로 인자 고래장을 딱 시었어(시켰어).

시이고(시키고) 저 지게는 내빼리고 온께, 아들이,

“아버지 와 지게를 와 버리요?”

이런께네,

“그 인자 다 썼는디 뭐 필요가 있노? 버리고 가지.”

한께,

“아버지 후제(후예) 아버지 나 많으몬 또 내가 지고 오까요.”

쿤께, 고마 [웃음] 그래갖고 고려장이 없어졌다.

[사상구 설화 118]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임말순(여, 1947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3동 백양그린아파트]

자기 아버지가 지고 인자 고래장을 하러 갔다 아입니꺼. 그 가서로 인제 돌 밑엔가 굴 밑엔가 인제 아버지를 그기 놔두시고 그리 지게를, 지게를 그 놔두고 오이께네, 그 아들이 따라가가지고 손자지 그지요. 손자가 그 지게를 짊어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 온다 아입니꺼.

“그래 야야, 니가 왜 그 지게를 다시 지고 오노?”

이런께네,

“나도 나중에 그 저게 어른이 되며는 아버지가 늙으시며는 짊어지고 그래 고래장을 하러 가야 안 됩니까?”

이래면서 그래 그걸 보고 인제 고래장이 나는 없어졌다.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상구 설화 119]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임말순(여, 1947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3동 백양그린아파트]

옛날에 그 인제 형제가 살았다 아입니까. 저거 엄마가 어디 떡 팔러 갔는데, 그래 오다 보이 엄마가 떡을 이고 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나고, 언덕을 넘어 오는데, 그래,

“떡 하나 주문 안 잡아묵지.”

카고 인제 이래서 떡을 주다주다 보이께네, 다 쥐뿌고, 엄마를 잡아먹어버리고, 지가 엄마 처럼 이렇게 형태를 해가지고, 인제 저 아-들(아이들) 사는 집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손을 이래 내밀면서로 그래,

“엄마다. 문 열어라.”

하이께네,

“우리 엄마 손이 아이다.”

하면서로 그래 자꾸,

“떡 하나 주께.”

이러면서 지가 인제 엄만 줄 알고 자꾸 그랬는데, 그래가 우예우예 그래다가 마 참 잡아 먹을 정도가 되자, 이리 우물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 인제 하늘에다가,

“저희를 살릴라 하려는 동아줄을,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일라 하려는 현, 현 줄을 내려보내 달라고.”

인제 이리케 기도를 하이께네, 참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타고 인제 올라갔어. 하늘로. 그래 올라 가가 있는데 인제 또 이 호랑이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지도 그래 비는 기라. 그래 인제,

“나를 살릴라 하면은 동아줄을 니라 주고 나를 죽일라면 현 줄을 니라 달라.”

하이께네, 현 줄을 니라 쫓어요. 그래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걸로. 예예, 죽어버렸어요. 그래가 아들은 살아내려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사상구 설화 120]

## 산신령 도움으로 약초 구해 어머니 살린 효녀

임말순(여, 1947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3동 백양그린아파트]

겨울인데, 겨울인데 산에 인제 이래 갔어요. 아가씨가 이제 나무를 하러 인제 산에 갔는 기라. 갔는데 그 도련님이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봐요. 그래가지고 인제 가이께네 자기가 엄마가 병들었는지 하여튼 뭐 약을 해가지고 와야 될 그런 애긴데.

그래 ‘이 겨울에 어디 가서로 나무를 캐가지고 인제 그걸 해주노.’ 카고 인제 갔는데. 가다 보니깐 정자같은 집이 있더라요. 그래서러 인제 거기 들어갔어. 무섭고 이래가지고 인제 들어갔는데, 그래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잠이 살퓏(살포시) 들었는데. 들었는데 내가 나무를 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로 아버진지 어머니지 인제 약을 구하러 간 그런 저런 얘기에요. 아 그래 뭐 어떻게 그 총각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어디 가며는 약초가 있다. 새파랗게 있으니까 그걸 빨리 베 가가지고 그래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라.”

인제 이래가 퍼뜩 깨니까 꿈이라. 꿈이라서 인제 참 일러주는 데를 갔어. 가니까, 참 겨울인데, 그런께 나물이, 지가 구해야 될 나물이 새파란 거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제 도련님하고 인제 그거 고맙다꼬 인제 인사를 하고, 인제 이래가지고 집이 집이 왔어요.

왔는데 그래 인자 그걸 가지고 약을 해주니까 저거 엄마가 참 살아났는 기라. 살아나가지고 그래 인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며는 그 곳에 한 번 가보자.

엄마가.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예. 아무도 없고 집도 있던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기 월체 참 처녀 딸인데, 효자, 효자 노릇을 하니깐, 그 인제 산신령이라든가 뭐 인제 옛날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선몽해가지고, 그래 해준 그 효자 얘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상구 설화 121]

## 우렁각시

임말순(여, 1947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3동 백양그린아파트]

밥을 탁 해가, 뜨신 밥을 해가 김이 솔솔솔 나도록 해놔코, ‘그래 이상하다. 이기 누가 이리 와가지고 밥을 해놨노?’ 하고 인제 몇 번을 그래 하다가 인제 지켜봤다 아입니꺼. 숨어

서로 인제 나무하러 가는 척 하다가 숨어서 딱 보니까, 참 우렁이 그거 속에서 아가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 밥을 이렇게 잘 지이가지고 채라나코 그래 그 속에 싹 드가는 거를 잡았다 아입니까. 잡아가지고 그래,

“참 날마다 나와서러 이렇게 밥을 잘 해나가 내가 참 잘 묵고 이래 했는데, 내하고 같이 살자.”

하면서러 잡아가지고, 그래 인제 뭐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러 참 부부간, 부부간이 돼서러 잘 묵고 잘 살았다.

[사상구 설화 122]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임말순(여, 1947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3동 백양그린아파트]

산중에 이래 사는데 애가 자꾸 우는 기라. 저녁만 되모 울고 이래사가지고, 그래 인제 바깥에는 호랑이가 인제 잡아 묵을라꼬 탁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가 자꾸 울어도,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대이. 자꾸 울모 호랑이 온대이.”

이래도 안 끈처지는(그치는) 기라. 그런데 한참 있다 모라 하나며는,

“꽃감(꽃감). 꽃감. 꽃감 있다. 꽃감.”

꽃감 이래 꽃감, 꽃감 이래 카고, 인제 엄마가 꽃감을 줬지. 꽃감을 주이께네 울음을 딱 끄쳐뿌는 기라. 그래 호랑이가 잡아 묵을라꼬 탁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꽃감이 더 무섭구나.’ 자 아가 호랑이 해도 울다가 꽃감, 꽃감 카이께네, 아가 울을 딱 그쳤거든.

그러께네, ‘아이고 무서라. 내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구나.’ 하고 마 줄항당(줄행랑), 줄항당 해가지고 도망을 갔부더라.

[사상구 설화 123]

### 선녀와 나무꾼

하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3동 백양그린아파트]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있었는데,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꾼이 너무 그 목욕하는 거 보니까, 그 인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천사라노이 아름다워갖고 옷을 훔쳤는 기라.

나무속에 드가가 모르도록 지게랑 거다(그곳에다) 놔두고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가 인자 갖다가 놔뒀다요. 그래가 인자 보니까 이기 마 천사가 옷이 없이까 하늘로 못 올라간다요. 하늘로 못 올라가가 내 인자 이카고 있으니까, 그 저게 그 나무꾼이 너무 안타깝어가 자기 집을 델고(데리고) 갔는갑대요. 자기 집을 델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옷 이야기를, 인자 아를 인자 하나 놓고 둘 놓고 서이 날아가지고, 하나 놓으면 올라가 하나 타고 올라가뿔까 싶어가, 서이 놓으면 못 올라가지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인자 아 서이 놓고, “그래 어느 때 그래 저 저게 당신 그럴 때 그랬다.”

이라니까, 마 이 천사가 깜짝 놀래면서,

“그 옷을 돌려.”

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걸 못 주겠다.”

그카이까카데, ‘설마 아이 서이 델고는, 둘이는 델고 올라가도 하나는 못 델고 올라가지’ 싶어가지고 놔두이, 그 서이 다 델고 태아가 올라가뿔다 쿠는 그 이야기.

[사상구 설화 124]

###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차별한 며느리

하복순(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3동 백양그린아파트]

이래 집에 딱 인자 사돈네 집에 놀러 간다고 딸집에 간다고 가이까데, 딸이 저 저게 저 아버지 왔다고 닭을 잡았거든에. 닭을 잡아가지고 저거 아버지 상에는 닭다리하고 소복히 인자 놔두고 시아버이 앞에는 인자 작게 나았는 기라.

그러까데 인자 사돈이 인자 판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래 인자 오면서,

“아이고 사돈 이쪽 앉으소. 나 여 앉을란다.” [웃음]

앉아가 무이, 사돈은 시아버시, 저거 집에 딸네 집에 왔는데, 딸네 집에는 건디기 고기도 하날도 닭다리도 없고, 저쪽 사돈 먹는 데는 보이까네 고기가 마이(많이) 들어가 있는 기라. 그래갖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랬다 카더라. 딸보고, 인자 그때는 딸이 왔는데,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하이까데,

“야야, 와 나는 그래 저저 너거 집에 갔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닭을 잡았시모 너거 시아바 이만 다 주고 나는 그래 하날도 안 쫓노?”

카이, 그 메느리 쫓매 쫓 몬땀던 모양이랴요.

[사상구 설화 125]

###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

박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에- 좃민 여러분.”

[청중: 뭘 좃자를] [웃음]

“좃민 여러분. 에- 좃민 여러분.”

오늘 보지 매상 날입니다. 젓은 보리도 안 되고, 젓은 보지라 쿠제. 젓은 보지도 안 되고 또 무슨 보지도 안 되고, [청중: 그랬다더라. 현 자지도 안 되고, 새 자지도 안 되고 그래갖고.]

뭘, 현 자지는 안 되고 새 자지 열어겠지, 새 자지 열어겠지. [청중: 현 자지도 안 되고 새 자지도 안 되고, 젓은 보지도 안 되고 마른 보지도 안 되고. 나는 모르겠다.]

그래. 젓은 보지도 안 되고, 뭘도 안 되고 마른, 저 마른, 마른 보지만 여 가라 쫓지. [청중: 자지는 자리, 담는 기 자리라. 그래 인자 그 소리고. 썩가(혀가) 짧라난께네.]

[사상구 설화 126]

### 무엇이든 존대하는 며느리

박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시집을 가니까, 어른들이 며느리를 시키기를, 시키기를 항상 소나 개나 인자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써라 그랬는데, 어른들이 그래 싸노니까, 인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시아버지 앞에서, 시아버지가 어데 뭘 소, 소리 쿵쿵 난케,

“며늘아, 이게 무슨 소리고?”

그라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쇠씨가 꺼적씨를 뜯으시네요.”  
이라더란다.  
그 소한테도 존댓말을 붙인다고.  
“쇠씨가 꺼적씨를 뜯으시네요.”  
그렇게 존댓말을 쓴다고. 그래 무조건 존댓말을 쓴다고. [청중: “쇠님이 꺼적씨를 뜯으시니  
개님이 짓으시네요.”] 아,  
“쇠님이 꺼적씨를 뜯으시니까, 개님이 공공 지으시네요.”  
이리 돼뿌서(이렇게 되어서), 그건 잊아뻘다.

[사상구 설화 127]

### 닭에게 밤똥 팔기

박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그래 인자 우리들이 클 때는 우리가 인자 밤에 인자 똥이, 저녁마다는 아닌데 어찌다가 한  
번씩 똥이 누고 싶다 아이가. 밤똥이 누고 싶으면 마 갈라꼬,  
“엄마, 똥 누러 가고 싶다.”  
고 팔짝팔짝 뛰싸면, 인자 우리 엄마가 따라 나와갖고 그 주로 인자 저 멀리 화장실이 있  
으니까, 거기 닭장이 붙어 있거든. 인자 작대기로 툭툭 닭집을 때림서,  
“닭아, 닭아, 닭이 밤똥을 누지 사람이 밤똥을 누나. 우리 아무것이, 우리 아무것이 밤똥은  
니 가가고(가져가고), 낮똥은 우리 아무것이 주라.”  
고, 그래 닭한테 똥도 팔고 그랬어.

[사상구 설화 128]

### 며느리 방귀의 힘

우옥술(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옛날에 며느리를 본께 방구를 하도 꺾갓고, 시아바이가 도저히 못 데리고 살아갓고, 인제 친정에 델따 주러(데려다 주러) 갔는데, 델따 주러 가다인께네, 큰 대추낭개(대추나무) 하나 있는데, 대추가 벌거이 열었는데, 그래 인제 그 시아바이가 하는 말이,

“아- 저 대추 좀 따 못으면 좋겠다.”

이란께네.

“아버님, 내가 따 드리까요.”

이라더란다. 그래,

“니가 우째 따노?”

이란께네,

“가만있어 보세요.”

카디만, 마 대추나무 밑에서 마 방귀를 마 마 방-방- 낀케네, 대추가 마 다 흩어져뿌더란다. 그래갓고 이 시아바이가,

“아- 이 방구도 쓸 방구구나.”

델따 주러(데려다 주러) 가다가 메느리로 다부(다시) 데꼬(데리고) 집에 왔단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29]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우옥술(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옛날에 인자 어떤 버버리하고 장님하고 살았는데, 그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래 인제 봉사가 인제 버버리가 갔다더나? 그래 가인께네, 그 저기 영감이 할마이 보고,

“불이 마이 났던가?”

카이께네, 할마이가 영감 꼬치만 이래 탁 잡고,

“음, 아- 기동만 남았어.” [일동 웃음]

또,

“얼마치 탔더노?”

카이께네, 뭐로 만치라더라. [청중: 그거 옛날에 우리 산에 땡기면서 마이 했는데, 다 잇아 뺏다 형님.] [조사자: 뭐 하다가 불 났던고?] 아, 맞다. 응 응 [조사자: 감자 꺾어 묵다가 그랬다.] 맞아. 맞아. [청중: 그래 여 또 만치께네, 정구지밭도(부추밭도) 다 탔는 가배 칸다 커더나, 뭐라 커더나.]

[사상구 설화 130]

### 줄을 서시오

우옥술(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봉사가 가지로 따러 가이께네, 봉사가 가지를 따러 가이, 가지가 주렁주렁 열은께네, 마  
사람이 만는(많은) 줄 알고,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일동 웃음]

[청중: 아, 그기 꼬치라 생각했다. 가지로.]

[사상구 설화 131]

### 입이 야문 며느리

우옥술(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옛날에 뭐 며느리가 참 뭐 양반집 며느리를 봐 놓으니께네, 시집을 인자 갔어. 없는 집에  
시집을 가이께네, 옛날에는 수수 타작을 했다 아이가. 조 그거를 타작을 하이께네, 인자 그  
껍데기가 푹푹 날린다 아이가. 그래 시아바이가 마리 끝에(마루 끝에) 앉아갖고,

“며늘아, 저 건너 푹푹 나는 게 뭐꼬?”

근께네,

“쫓 껍데기지에.”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32]

### 신식으로 하지 말고 구식으로 하지

우옥술(여, 194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신랑 각시가 참말로 부부관계로 한다꼬, 인제 마누라로 신식으로 한다꼬 마누라로 인제 벽에다 세아놓고 신랑이 쫓아와가지고 탁- 맞추니까.[웃음] 아들이 인제 누우자는데, 그라니께네, 큰아들이 뻘이 보디만은,

“고마 구식으로 하면 될 낀데. 신식으로 한다.” [일동 웃음]

꼬. [청중: 맞다. 그 이야기 있다. 맞다.] 그라니께네 동생이 있다가 아, 동생이 그러니께네, 형이 있다가,

“야 이눔아, 가만.”

[청중: 그기 아이다.(아니다) 형님아.] 그건 아이가? 아, 그건 아이고. [청중: 뭐 있어. 뭐 이야기 있어.] 응, 그래갖고 신식으로 하면 될 낀데, 괜히 구식으로 한다꼬, 그란다꼬 인자.

[사상구 설화 133]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하도 남자가 공부만 헌께, [청중: 팔자라, 팔자라.] 몸서리가 나서 마 살려 가빠렸어. 근데 남자가 인제 뭐 진산가(진사인지) 판산가(판서가) 돼갖고 내려옴서,

“저거 갱피 훑는 저 마누래, 간디(가는 데) 쪽쪽 갱피 훑는다.”

더란다. [웃음] [조사자: 여전히 그지예?] 그놈 참 빌어물 놈이제. [웃음] 뭐이 떠내려가도 공부만 허니라고 안 쳐다보더래. 그래 몸서리 나 탄 데 살러간께 갱피를 훑거든. 그런께 진사 판사를 해갖고 와서 내려옴서,

“저기 저 마누래는 간디 쪽쪽 갱피 훑는다.”

더란다. [청중: 옛날에 그 노래도 있다.] 그런께, 고마 각시가 뭐라이던고 아이는,(뭐라고 하나면)

따라 갈래네. 따라 갈래네. 쇠(소) 물이나 들어주고 말 물이나 들어주고, 내가 따라 갈래네.

이러더란다. [웃음] [조사자: 그래가 데꼬 왔습니까?]

[사상구 설화 134]

###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윤추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처음에는 호랑이 온다고 이리 계속 우는 거야. 그란께 할머니가,  
“꽃감 줄께, 우지 마라.”  
그러니까는 얘기가 덜컥 끈친, 끈친(그친) 거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더 무서운 거라.

[사상구 설화 135]

### 세 번만 통하는 위력

윤추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어느 인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그 그게가 허고 잔데(하고 싶은데) 이놈의 고추가 안 서는 거라. 안 서갖고,  
“이놈의 꼬치가 어찌면 섭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는 거이라. 그란께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저기 저 ‘뽕뽕’ 하면은 일어서고 ‘뽕뽕’하면은 그거이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항상 그걸 염려를 해가 허라.”  
고 그랬어. 근디 인자 그걸 딱 생각 해갖고는 ‘뽕’ 한께 진짜 꼭 서는 거야. 그래 연습을 한 번 했어. 그래갖고 또 ‘뽕뽕’ 하니까 죽어뿌렸어. 그래 인자 직장을 간다고 인자 어데를 가는데,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차가 앞에 딱 걸리갖고는 차가 안 빠져 나가는 거라. 근께 ‘뽕’ 하니까는 또 퍽 서는 거라. [일동 웃음] [청중: 어데서 고런.]  
그래갖고 인자, ‘하이고, 인자 회사는 가야겠고 안 되겠다.’ 싫어서, 또 ‘뽕뽕’ 거린께네, 또 가라앉혔어. 그래갖고 인자 가갖고는 이거 집에 가서 한 번 썬 먹어야 것는다, 다 쓰면 안 되거든. 세 번을 하라고 했는디. [청중: 세 번을?] 응, 그래 인자 딱 참고 있다가 집으로 가갖고는,  
“어이 마누라, 오늘 저녁에는 한 번 우리 재미있게 놀아보세.”  
허구는(하고는) 했는디, 그래 인자 가서 목욕하고 씻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씻고 인자 씻으러

갔어. 씻으러 가갖고는 마누라 나올 때 돼서 자기가 인자 그걸 헐라고 인자 ‘뺑’ 하니까 딱  
섰어. 그란께,

“어이 여보, 이리 와 봐.”

그리고 오라고 칸께로, 와서 쳐다보고는,

“오- 우쩍 일로 당신 뺑뺑 허네.”

그런께네 [일동 웃음] [청중: 다 도로 끝났뻘다.] 그래갖고 못 허고 말았단다.

[사상구 설화 136]

### 순진한 어린 신부

은수연(여, 1944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저 시집 온 사람 보고 김을 꾸우라고 내 주우논께네(내어주니), 적최다 열어갖고(넣어서)  
부역에 여놔놓고 인자 물 이러 갔는 기라. 물을 이러 갔는데, 물 이고 온께네 아무것도 없거든.  
개를 때리 패뻘몬서로(때리면서) 김 내 묵었다고 때린다 캐.

그래갖고 인자 어른이 뭐라 캔 게 아이라,

“야야, 그거는 불 먼 빛으로 꾸우야 되지. 그거를 가까운데서 그래, 부역에다 열으면 안 된다.”

캐나논께네, 나중에는 이래 들고 불이 저만치 있는데, 이래 들고 끝는다고 또 섰더라. 그런  
께네 옛날에는 진짜 어려서 시집을 가놔놓은께 뭘 몰라가지고 그랬대.

[사상구 설화 137]

### 정월 대보름날 모기 버리기와 소 먹이기

은수연(여, 1944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정월 보름날 되몬 인자 저 밥을 해다가 나무에도 놓고 소도 주고 다 하거든. 그래 놔놓고는  
인자 모기를 되 내뻘리면(내버리면) 없다고, 한 되, 두 되, 그냥 이래 되 내뻘리는 거라. 그냥  
밖에다가 이래 문 앞에다가 되 내뻘려. [조사자: 아무것도 안 넣고?] 응,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되 내빼리는 거야. [청중: 빈 되로.]

한 되, 두 되, 되 내빼리는 거야. 그러면 인자 그 해는 자기 집에 인자 모기가 없다고. 모기가 작게 안 온다꼬 .그래갖고 우리 시골 여 부산 나오기 전에도 그래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그래 그게 양밥이라. 그래갖고.

우리들은 저 뭐, 뭐꼬 보름날로 소 걸은 거 이런 것도 밥을 요 챙이다 담아다 갖다 줘요. 갖다 주문, 소가 나물부터 묵어문, 그 해 농사가 안 좋다 그라고요, 쌀, 저 밥부터 먹으면은 인자 농사가 잘 된다 그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 했어요.

[사상구 설화 138]

### 매구로 태어난 딸

은수연(여, 1944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옛날에 그 인자 아주 대갓댁이 있었는데, 거게서 인제 딸이 늦게 하나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가가 한 여섯 살 이리 될 때, 그 집에 인제 소도 하룻밤 자고나온 한 마리 죽어가 있고, 닭도 죽어가 있고, 마 돼지걸은 것도 죽어가 있고 하는데, 인자 나중에 인자 자기 아버지가 가만히 숨어가 보니까 자기 딸이 그라더라요. 그래 그게 매구라.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인자 그 집 아들을, 저거 인자 매구 오빠를 갖다가 절에다 보냈대요. 보내놓고 있었는데, 그래 인자 그 절에서 실컨 살고 있었는데, 이 아가 인자 조금 크면서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도 다 잡아먹고 없었대요. 없어갖고 인자, 그 나중에 인자 그 절에 스님이,

“집에 가지 마라.”

켰는데, 아들이 자꾸 갈라 그라니까 그라면 주머니로 세 개로 주면서,

“이거 되게 급할 때만 위급할 때만 쓰라.”

그라고 그거 세 개 주머니를 줬다네요 색깔별로. 파란 것도 있고, 또 인자 빨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흰 기라 더나 노란 기라 카더나? 그래 세 개를 줬는데 그놈을 갖고 집에 가보니까 집에 싹- 다 망해묵고, 그래갖고 인자 그 지 동생은 아가씨가 돼가지고 살고 있더라네. 그런께네 가니까,

“아이고-, 오빠 인자 오냐.”

쿰서로 마, 그 어릴 때 받 기,

“아이고-,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해쌘시로, 인자 오라비가 말을 타고 와난께네 말 한 때 묵고 오래비도 한 때 묵고.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이래 찢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자 그 저저 뭐꼬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 방에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인자 그 뭐 밖에서 칼을 갈아 찢더라대. 그래 문을 살짝 열어본께네, 그 지 동생이 마 칼로 갈아 찢더라네. 그래서로, ‘이기 이래갓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살짝이 갔다 카는 기라. 그래갓고 인자, 아하 도망을 가기 전에, 인자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오래비, 오빠 손목에 실 매고 내 손목에 실 매자.”

커더란다. 그래 매갓고 지는 나가서 인자 그거를 이래 칼로 갈고 있더라네. 그래 너무 무서워서 인자 ‘이래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그래 인자 풀어가지고, 인자 그걸 풀어가지고 실로 문고리에다 딱 매 놓고 이게 도망을 갔어. 인자 오빠가 인자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기 마,

“오빠. 어디 가냐?”

꼬 막-,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할라 캬는데 어데 갔냐?”

꼬. 난리를 치고 따라오더라네. 죽기 살기로 따라와서 이기 인자 도망을 가다가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러 집어 던지 뺏대. 인자 주머니를 하나 던지니까, 마 가시발이 짝- 올라오더라네. 올라오는데 거서도 그래갓고 도망을 또 도망을 어디까지 갔는데 또 찾으러 오더래요. 또 찾아 오더만은 그래서 안 돼서로 마 나중에 또 인자 파란 그거 주머니를 던지니까 그 물이 돼 빠더라네.

그래도 도망을 가다가 가다가 그래도 또 찾아왔더래. 그래갓고 마 나중에는 마 빨간 그거 주머니를 던지 버리니까 뭐가 왔냐 카면 그 불이. 불이 딱 나뻐는 기라. 그 때 인자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서 그래 지 목숨은 건졌는 기라 오빠가. 그래가지고 인자 거기 끝이라. 산에 매구는 그 타 죽어뿌리고.

[사상구 설화 139]

## 제 눈 가린 것도 모르는 바보

이귀선(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어느 아들이, 나무 하러, 좀 바보가 나무 하러 갔거든. 나무 하러 갔거든. 그래가지고 산 주인이 저거 산에 나무 한다고 감-을(고함)을 지르고 내려오라 카이께네, 바보가 돼 놓으니 낮을

가지고 탁- 지 눈만 메카가지고(막아서) 그 사람이 안 보이거든. 그래논께네 감-을 지르거든 주인이. 그러니,

“저 놈이 쇠로 뚫고 날로 본다.”

카더란다.

“쇠로 뚫고 날로 본다.”

하더란다. 낮을 눈에 딱 막까놓으니(가리니), 지는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주인은 그냥 감-을, 내려오라고 감-을 지르니까,

“저 놈이 쇠로 뚫고 날로 보네.”

그라더란다.

[사상구 설화 140]

###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수박[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이귀선(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어떤 사람이 수박을 한 짐 지고 산만디에(산꼭대기에) 올라갔거든. 그래 산만디에 가서 마 돌에 받히기, 툇 꾸부러지가(넘어져서), 내일 모레까지 구불러 내려간다 그거는. [일동 웃음] 인자 다 했다.

[사상구 설화 141]

###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귀선(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저거 아버지하고 저거 엄마하고, 아! 저거 아들하고 목욕을 갔거든. 그래 인자 물이 되게 뜨거와. 물이 뜨겁는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갓고,

“아따- 시원하다. 요 들어온나.”

이라거든. 그래 아들이 들어가이 뜨겁거든.

“에이- 시발끄.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  
카더란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42]

### 무엇이든 존대하는 며느리

이귀선(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아버님, 조동씨에 밥티씨가 붙었습니다.”  
이 칸다 안 카더나. [웃음] 우대(존대) 하라 카이 말마저,  
“아버님, 조동씨에 밥티씨가 붙었습니다.”  
칸다 안 카더나. 입술에 밥풀이 붙어놓으니까네.

[사상구 설화 143]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1)

이귀선(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아들 둘하고 떡 신랑 각시가 사는데, 아들이 둘이라.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래 누버 자다가 인자, 막 열나게 마 신나게 했어. 하인께네, 작은 아들이 마 자다 보인께네, 막 그거 하거든.

그래가 앞아가 이래 보다가 보인께네, 저거 아버지가 한참을 하다 본께 저거 작은아들이 앞아가 있거든. 앉아 있으니 응접결에 귀때기를 날리는 기라. 큰아들이 있다가,

“야, 이 새끼야, 니 늙어가 봐도 다 보이는데, 뭐 때멘에로(때문에) 앞아가지고 귀때기를 맞노.”

쿠더란다. [웃음]

[사상구 설화 144]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2)

이귀선(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장모가 인자 저거 딸네 집에 갔어. 딸네 집에 가가 있으니까네, 이쪽에 놓어 있었어. 가에다가 놓어 있었는데, 아, 아, 인자 복판에, 왔다고 복판에 떡 놓히 났어. 그래 인자 사우가 저가에 놓었는데, 막 장모가 며칠 있으이, 마 마 마누라한테 가고 싶어 죽겠거든.

그래 인자 배가 아무래도 보니까네, 이 사우놈이 마 무슨 일이 나겠다 싶어서 벽에다가 가만히 요래 앉아 있으니까네, 사우가 일어나더만은 인자 미리 소리 난다꼬, 거서 벗고 벽을 살살 타고 가이께네, 거기 할매 입으로 쏙 거치(거쳐서) 가거든. 거치 가서러 '이놈의 것 인자 클 났다.' 싶어가, 저짜(저쪽으로) 가서 인자, 난중에는 또 거 있으면 또 거쳐 가겠다 싶어가, 인자 가만히 가서 놓어가 죽은듯이 이려고 있었는데, 실컨 하고는 인자, 뭇이 받히는 기 있어. 더듬어가 기가면서, 기가면서러 또 장모 입에다가 설깁. 그러니까네,

“하이고, 하도 못하고 입에 풀칠만 짜다라(많이) 했다.”

커더라.[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45]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3)

이귀선(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또 인자 비가 출출 오는데, 인제 신랑 각시가 턱- 있으이, 이놈의 손이 절대로 놀러 안 가거든. 인자 돈을 한 닢 쥐가지고,

“저, 저 가서로 니 호루라기, 뭐 사 묵고, 꼭 호루라기로 사가지고 불고 오라.”

카거든. [웃음] 그래 마 쫓아가가 저거 엄마 뭐 하겠다 싶어가 마, 그래 호루라기 점방에 가가 호루라기를 불고 오니까네, 저거 엄마하고 저거 아버지하고 하다가 놀래가 바깥으로 일 나뿌더란다. [청중: 그때는 방이 하나뿐이라.] 야. 그때는 방이 하나가 돼나놓으니까네. 꼭 호루라기, 피자(과자) 사 묵고 호루라기 한 개 사가 불고 오라 카이께네, 이놈의 꺼 마 가더만,

이것도 눈치가 빨라가 마, 호루라기만 사가 내리 불고. [웃음] [청중: 어째 그래 호루라기라 했을꼬.]

[사상구 설화 146]

### 꼬부랑 이야기

허점조(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갖고 꼬부랑 똥을 눈께 꼬부랑 작대기를 때린께,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했단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47]

### 잘못 들은 말

허점조(여, 194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아저씨, 저 미국에서요 저기 사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우가 아니라,  
“아저씨, 저기 미국서 조지 부랑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응? 벌써 좇이 빨라져? 내 육십 년 된 내 것도 아직 안 빨라졌는데.”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48]

### 오누이와 호랑이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옛날, 옛날에 저- 꼭각시에게 친정을 간단 말이야잉. 떡을 해갖고 이고 가잖야. 친정을 가는데, 호랭이가 딱- 내려와서 가로막고 못 가게 하더라.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그라더라네. 그래서 한 개 주면 흘랑 묵고,

“하나 더 주면 내가 안 잡아먹-지.”

그라더라. 그래서 또 주는 게, 그런 한 상씩 해 가는 걸 다 받아 쳐먹고는, [청중: 옛날 그런 노래도 있었어.] 노래가 아이고 인제 예기라. [조사자: 그래가지고.]

응, 그래갖고 인자 어떻게 해가지고 갔어, 갔는데 가다가 인자 호랭이가 따라온 게 오데로 갈 데가 없거든. 택시가 없거든. 그러이 이 샘이 줄개줄개(줄줄이) 있는디, 노송나무가 큰 놈이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인제 그놈을 막 타고 올라갔다네. 그놈을 타고 올라가갖고는 가만히 있을께, 막- 찾아싼니라고 난리더니, 요로케 샘을 디다본께 그거 들었거든? 그란께,

“함바구로(함지박으로) 푸까나? 조리로 푸까나?”

물 그거 다 퍼야 그 사이에 있는 줄 알 거 아니가.

“함바구로 푸꾸나? 조리로 푸꾸나?”

이렇게 풀어싸. 그 지랄 해쌌더라. 그래서 하도 그래 썩게, 요것이 거기서 ‘헤헤’ 하고 웃었어 나무에서. 히득 쳐다보고 거기 있었는데, 이걸 나무를 올라가질 못하겠거든. 그래,

“뒷집에 가 짜구를 얻어다가 찌고 올라갈거나? 아랫집에 가 조치를 얻어가 찌고 올라갈거나?”

그라고, 고놈을 자꾸 찌고 올라갈라이 지 안 되거든. 그래 그라다 그라다 지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디야. 지가 죽었디야.

[사상구 설화 149]

### 피를 내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한 남편

김상순(여, 1927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옛날에 사람이 참 불쌍하게 커가 인자 장개로 들었는데, 장개를 떡 들고 보이, 저 각새가 저 엄매한테 불척하게(불손하게) 하거든. 그래가 장개 들어놓고 또 군에가 영장이 나왔는 기라. 그래가 인자 ‘내 가고 없으면 저 올 엄매를 열매나 천대를 시키겠노’ 싶어가 연구로

냈는 기라.

그래가 인자 저 각시한테,

“이 사람아, 내 군에 갔다 올 판에 어매를 잘 먹이라. 잘 먹이 놓으면, 살 찌문 시장에 내다 팔몬 돈을 많이 준단다.”

이캐노이 가고 없으니, 참 뭐 해가 이지까지(이때까지) 잘 먹이. [조사자: 팔아물라고?] 이이. 돈 마이 받는다 캐노이. 그래 안자 잘 먹있는 기라. 먹이노이, 참 저거 아들이 와보니 저 검매가 막 살도 찌고 일도 너무 잘하는 기라. 인자 군에 마치고 와가 보이. 참 저거 엄매가 완전 판 사람이 돼뻘어. 그래 인자 저 각시한테,

“보래 이 사람아. 인자 어매 갖다 팔자. 모레 장에 엄매로 갖다 팔자.”

이 카이,

“아이고, 안 된다.”

카더란다.

“어매 아이몬 우리 농사 몬 짓는다. 머머 소 풀도 역구로 뜯어다 나르제. 일도 어띠(어떻게나) 잘하는지 절대 몬 판다.”

카더란다. 그래가 그 안사람 손도 안 대고 질로 잘 대리가(들여서) 살더란다.

[사상구 설화 150]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장월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저거 할매를 업고 갖다 내빼리고는 지계를 내빼리고 온께네,

“아부지, 그 지계 가지고 갑시다.”

한께,

“그 지계 머 할라꼬?”

“아부지도 죽으면 내가 지계를 지고 가야지.”

한께네, 그래 그 질로 없어졌다 아이가. 고래장이.

[사상구 설화 151]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황분희(여, 1925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옛날에 아들이 일본을 가뿌고, 일본을 가뿌고, 메느리 호불, 인제 혼자 메느리잔테 시아마이가 있는데, 늙은이는 봉사지.

그래 인자 괴기(고기) 사줄 돈이 없는 기라. 없지. 땅바닥에 지랭이를 잡아가지고 폭 삶아가 항상 시아마시를 주는 기라. 시아마이가 마 오복걸이 되는 기라. 지랭이를 삶아 무우가 보신이 돼가.

그래 아들이 오니까 아주 잘해냈어. 잘해냈는데.

“엄마, 뭐로 묵고 이러치(이렇게) 몸이 건강한교?”

카이,

“아이고 그러 카지 마라. 메늘이가 뭐로 때때로 보한 곰탕을 해가 주는데, 거기 그래 맛있다.”

카더란다. 그래 보이, 늙은이가 묵을 때마중 지랭이를 하나씩 자리 밑에 넣어놔어. 하나 낀 지가(건져서) 열어놓고,

“그래 내가 묵을 때마중 자리 밑에다 하나 넣어놔다. 야야, 봐라.”

카이, 아들이 보이 지랭이 꺾디거든.

“하이고 엄마, 지랭이.”

카이, 늙은이가 놀래가 눈을 퍼떡 뜨더란다. [웃음] [조사자: 심봉사 눈 뜨듯이.] 야.

[사상구 설화 152]

## 부자보다 나은 거지

김용웅(남, 1943년생) 가창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옛날에 만수꾼이(만석군) 있는, 살았는데. 만수꾼, 부잣집이 살았는데. 인자 봄 되면, 봄이 인자 되니까 자기 인자 들, 만수꾼 자기 논이고 밭이고 역수로 많잖아요. 그지요? 그래 밭은, 인자 논뚜렁은 봄이 되가 썩- 지내가는데, 어디 어느 어덕(언덕) 밑에, 큰 자기 논 어덕 밑에서 웃음소리가 났어, 인자 웃음소리가.

그래 참 넘거다 본께, 거렁뱅이가(거지가), 거렁뱅이 부부가 어린 애기를 인자 낳아가지고, 그 어리면서 웃고 막- 애기하고 같이 웃고 있는 거라. 그래 만수꾼 그 부자는 자기 평생 한

번 웃어보질 안했어. 만날 머슴들 뭐 뚜드러 후드러 잡고 뭐 일만 시켰는데, 웃음을 한 번도 안 웃어본 사람이라. 그 사람은 웃어 볼, 웃을 일이 없었는 기라. 그런께네 꺼러지(거지), 꺼러지 보고,

“하! 니가 내보다 낫다.”

꺼렁방이라도 인자 얘기를 낱아가지고 열우면서 웃고 있으니까, 자기는 만수꾼은 했지만은 한 번도 웃어 본 적이 없는, 만날 머슴들 뭐 후- 때려 잡고 뭐, 일 시키느라고. 그래 만수꾼이 꺼렁방이, 꺼렁방이 보고,

“네가 내보다 낫다.”

그런 옛날에 저 속담이 있어요.

[사상구 설화 153]

###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호박[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김용웅(남, 1943년생) 가창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옛날에 참, 어, 어느 저 할아버지가 인자 호박을 인자 팔러 가는 거라. 호박을 팔러, 강아지를 인자 데리고 갔는데, 그래 인자 저 산, 산 고개를 넘어가야 인자 저, 시장을 갈 켜데 호박을 짊어지고 가다가 인자, 인자 각종(갑자기) 인자, 대변이 보고 싶어가지고, 강아지를 갖다가 인자, 인자 지계를 공가났고(고정시키고) 강아지를 그 저 목, 목발에다 묶어 놔놓고 인자 대변을, 강아지가 그러면, 옛날 강아지는 뭐 대변을 잘 묵잖아예?

그래 인자 할아버지가 저 구석에 가서(구석에 가서) 인자 대변을 보는데, 냄새가 강아지 이거 코로 오니까 그 인자 할아버지 대변 보는 거 그거 물라고 콧악 뛰가니께네, 고마 마 바자기, 지계 자빠지고, 호박이 인자 저 산만당이에 구불어가는 거야.

인자 구불어간다(굴러간다). 아 구불어간다. [일동 웃음] 어, 나무에 걸칩다, 또 주우려 가니께, 또 구불어간다. 그게 끝까지 저- 산 끝까지. [조사자: 지금도 그러지예?] 예. 하하 끝까지 구불러간다. [청중: 아직 구불러 간다.] 아직 구불러가고 있을 끼다.

[사상구 설화 154]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기남(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칠십 넘어서 고려장을 했거든. 그래 인자 저거 아버지를 인자 짚어지고 인자 고려장을 치러 갔는 기라. 가니까 고날 따라서 손자가 꼬박꼬박 따라 갔는 기라. 또닥또닥 따라 가가지고 그래 고려장을 딱- 하고 인자 돌아서 오이께네, 그냥 오이께네,

“아버지예.”

“와?”

“지게 이거 지고 갑시더.”

“야야, 말라꼬?”

카이,

“후제 아버지도 내 여다 져다 내빼리야지.”

카미, 다부(다시) 가 오더라 카대 집에. 그거는, 그 소리는 들었다.

[사상구 설화 155]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다 쫓겨난 며느리

박기남(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아들하고 메느리하고 인자 어마시하고 세 사람이 살았는데, 어찌-기 먹을 끼 없던 지, 그 인자 신량은 인자 일본 돈 벌러 갔는 기라. 돈 벌러 가고, 봉사 시오마씨 데리고 묵고 살라 카이 어찌 그리 무을 끼(먹을 것이) 없던 지. 그래, 참 지령이를 캐가지고 찌거뿌고 그래 자-꾸 고아 먹있는 기라. 뽕-양이 그래 살이 찌고 그래 사람이 좋더라요. 그 인자 신량이 인자 그러구로 인자, 돈 벌어가 딱- 나와가지고,

“어머니, 뭐로 메느리가 해줬건데 이렇게 봉두각시같이 이래 좋는교?”

하이,

“야야, 눈이 안비서러 보지는 몬 하겠고, 만날 삼시 세 끼 맛있는 거로 해준다.”

그람서러.

“그래요.”

“여보, 우리 엄마로 무엇을 가지고 봉양을 했건데, 이래치 그래 좋는교?”

그래 이 며느리가 마 바른 말을 했는 기라.

“물 낀(먹을 것은) 없고, 당신은 돈 벌러 가고, 할 꺼는 없고, 그래 지령이로 캐가지고, 그제 큰 거 캐가지고 찢거뿌고 자-꾸 고아 먹었다(먹였다).”

[청중: 시오마이가(시어머니가) 자리 밑에 열어가 비더라(보였다) 카더만.]

카는 기라. 그래,

“고아 먹어서 그래 좋다.”

이카니께네, 그래 좋다고 받아 들이야 될 낀데, 이혼을 해뿌더라 카네. 훗차(쫓아) 내뿌더라 카네 며느리로, 마누래로. 그 독한 거, 그런 거 해줬다고. 봉두각시걸이 낫았시면 봉양을 해야 될 낀데. [청중: 거기 얼마나 좋은 낀데.]

그래 봉양을 해야 될 낀데 쫓아내뿌더란다. 이바구는 그래 들었다.

[사상구 설화 156]

## 제 복을 누리는 사람

박기남(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중이 이 집 저 집에 인자 그거 시주하러 댕기는데, 어느 부자집에 턱- 한 군데 턱 가본 끼네, 참- 그 집 개가 복이 많더라요. 그 집 개가. ‘아, 이 집에는 요 개로 잘 먹이가지고 부자가 되었구나.’ 카고 마음을 묵고 딱- 이래 있는데. 그래 묵탁을 똑똑 뚜드린께, 며느리가 쪽- 나오더라카네. 나오가 그래,

“시주하러 왔다.”

이카이께네, 시주를 하고, 그래,

“사랑방 하룻밤 유(遊)해가 가면 안 되겠냐?”

이래 물으이께네,

“예.”

카며,

“자고 가라.”

카더라 카대. 그래가 그 집에 하룻밤 잔 기 아니고, 사흘 밤을 잤는 기라. 그 집 사주를 볼 라꼬.

사흘 밤을 이래 자는데, 그 중 윗다하면, 그 중 개고기도 안 묵잖아. 마, 개 고거를 탁- 잡아가지고 마, 마, 솔에다 삶아가지고 뜯어 묵더라 카네. ‘하하. 이거 참, 요, 씹-.’ 가만- 보고 있으니까, 개로 탁- 잡아가 삶디만은, 칼로가 요래요래 젓어 찢디만은, 며느리가 개 새(혀)

고거를 날람(날름) 건지 주 무(먹어)빠더란다. 딱 건지(건져) 묵는데 중이,  
“옳다. 복은 며느리 다 잡겠구나. 다 잡겠구나.”

카면서, 그래, 그 살림을 안 떨구고, 그리 복이 많게 잘 사더라 카는, 그 소리는 들었다.  
[조사자: 아! 그거 먹으면 복이 글로 가는 거다 그지예?] 예. 개 그게 새에 복이 많더라고요.  
그래 고 새로 갖다가 며느리가 썩 빼 무뎠더란다. 그래 그 집이 안 망해고, [조사자: 될 집은  
그냥 된다 그지예?] 잘 사더라 카더래, 그 이바구는 들었다.

[사상구 설화 157]

### 피를 내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한 남편

박정숙(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메느리하고(며느리하고) 억수로(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기라. 그래가 한 번은 신랑이 인자,  
가마-이 연구를 냈다. ‘어쩌면 저 사이를 좋게 붙이겠노.’ 싶어서 인자, 밤을 한 되로 사가  
와갖고,

“이거를 어무이가, 어무이로.”

인자 저저 마누라보고,

“이거를 저 밥 우에다가 열 개씩만 놔갖고, 아츰마다 요거, 자리 요거 다 무마(먹으면)  
어무이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성들여 해드리라.”

이랬는 기라. 그러이께네 아츰마다 밤을 갖다가 밥 우에 얹어갖고, 시오마이만 탁 주는 기라.  
그래 한 때 묵고 두 때 묵고 마, 며느리가 좋아 죽겠는 기라.

“아우! 야 야, 니 안 묵고 와 그래 주노?”

하면서, 막- 둘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갖고 마, 메느리 가만히 생각하니까네,  
‘아이고이, 너무 저래 내한테 잘 하는데, 이거 다 잡숫고 나가 돌아가시마 그 하겠다.’ 생각  
도 들고. 그래 인자 그 날은 인자, 마지막 묵는(먹은) 기라. 그래가 메느리가 막 울면서,

“어무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

꼬, 그래갖고 인자 저저 고부끼리 억수로 사이가 좋고, 신랑이 인자 그래 얘기를 하는  
기라,

“하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됐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다.”

카면서, 그래 얘기를.

[사상구 설화 158]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정숙(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그래 인자 저, 참 돈벌이로, 먼데로 갔는 기라. 일본 뭐 어데로 갔는데, 그 참 무을 낀 (먹을 것은) 없고, 반찬도 없고 이래갖고 마, 지렁이 그거를 파가이고 참 깨끗하이, 깨끗하이 씻겨갖고, 그걸 참 국을 끓이갖고(끓여서) 아츰마장(아침마다) 쫓는 기라.

그랬더만은 너무너무 맛이 있어갖고, 건더기를 썩- 건지갖고, 살- 그거 해갖고, 자리 밑 에다 썩- 열어놔다가 아들 좀 주야 되겠다 싶어서 마 너무 맛있어갖고, 그래가 참 아들이 그때 돌아왔는데,

“아이구! 어무이, 얼굴이 어째 이래 좋습니까?”

카이께네, 그래 인자 눈도 잘 안 보인다 카네 그 시오마씨가. 그래가 인자 아들이 오가,

“야야, 하-! 가가(며느리를 말함) 이 귀한 데, 세상 고기국을 아츰마다 끓이(끓여) 주더라.”

그러니까,

“아이구! 어무이, 무슨 국을 그래 끓이 줍니까?”

카이,

“그래, 하이 요런 긴데(것인데). 이렇게 맛있더라.”

카며, 자리 밑에 꺼시기(지렁이) 그거 말란 거로 갖다가 썩- 내주니까,

“아휴! 어무이, 이 거시네예.”

그라이께네, 시오마이가 눈을 펴떡 떠뵈다네. 그래 그 뒤로는 인자 마, 눈도 밝고, 사이도 좋고 그래 잘 됐담미더.

[사상구 설화 159]

### 무엇이든 먼저 먹는 며느리의 버릇을 고친 시아버지

박정숙(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호불(홀) 시아바이가(시아버지가) 인자 저 뭐꼬, 메느리하고 사는데, 인자 메느리가 마 뿔이 든지 부엌에서 밥도 다 되가면 집어묵고, 반찬도 다 되어가면 집어묵고 내- 그라는 기라. 시아바이가 딱 문구녕을 내다보니까,

“아, 참 저래가 안 되겠다.”

한 번은 인자 소 간을 사다가 메느리를 좇어.

“아이구! 야야, 국 째이라.”

이랑께,

“예”

캄서, 그래가 인자 막 그십를 넣어갓고 인자 한 술 째이는 기라. 그래가 소 허파하고 이런 거를 사다준께. 그래 문구녕에 딱 내다보니까, [웃음] 국이 다 끓으이께네 마 며느리가 마, 우에(위에) 마 다 허파 그런 게 전부 다 뜨거든. 그래,

“하! 요것도 맛있다. 요것도 맛있다.”

내- 그렇게 묵는 기라 마. 문구녕에 내다보니까. 건지 묵다 보니까 인자, 시아바님 밥이 다 됐어. 밥을 떠갓고 인자 상을 차릴라 카이, 국 꺾더기가 하나도 없는 기라.[웃음] 아이고 그래가,

“요노무 주댕이, 요노무 주댕이.”

내 막- 쥐 박고 이래가, 그래 시아바이가 보이,

“야야, 뒤에는 그라지 말고 인제 됐다. 그냥 떠가 온나.”

이랬어. 그래 마, 미안해가 죽겠는 기라 그 메느리가. 그 담 뒤에부터 그 버릇을 곤치 (고쳐)뵈더란다. 그 시아바이.

[사상구 설화 160]

### 술을 좋아하다 봉변당한 아버지

양곡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남양경로회관]

옛날에 우리 그 덕암 동네 그, 어데라 쟤노? 근데(그곳인데). 아버지가 술을 역수로 좋아 했는 기라. 술로 좋아했는데, 그래 인자, [청중: 딸 팔아 무뵈나?] 응응(아니). 딸을 인자 웃, 웃손을 가가지고, 술 못 먹구로 하라, 마 얼마나 다졌던지, 얼마나 좋은 술이 나와 썬노. 다 묵고 탁- 오다가, 오다가 마 술병을, 그 상 오는 술병을 마.[청중: 띠 내갓고 마.]

응응, 깨뵈어. [청중: 응.] 우째 늘찌가(떨어트려) 깨뵈는데, 그따가 마 입을 대가지고 마, 빨아 제치다가 술병 깬 데 거 입술구리를(입술을) 비이(베어) 가지고. [웃음]

[사상구 설화 161]

### 꼬부랑 이야기

김광식(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꼬부랑 할머니가 길로, 꼬부랑 길로 올라가다가, 꼬부랑 작대기 잡고 꼬부랑 길로 올라가다가, 꼬부랑 똥이 매렵아서 꼬부랑한 데 가서 꼬부랑 똥을 누이까네, 꼬부랑한 개가 오서러. [청중: 전신에 꼬부랑이네.] [웃음] 어, 그 똥을 무서(먹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작대기로 꼬부랑 개로 한 차례 탁 때리이 맞아가 아프다고,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카더라, 이라 캐썬대 할머니들이.

[사상구 설화 162]

### 교미하는 뱀을 죽인 모자

김분옥(여, 1948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이야기 이런 것도 역수로 많은데. 우리 저기 뭐꼬 그 촌에, 내 시집가서 있는데, 그 옛날에는 촌에도 뭐 우물 하나 뿐이다 아이가 뭐. 여다 목고(길어서 먹고) 그라는데. 그 인자 샘이에 거 가는데 샘이 있는데, 샘이, 토랑에 인자 큰 빈석 있는(비석 있는) 데로 거기 마 이 큰 배암이(뱀이) 마 두 마리씩 나와서 마 노는 걸 갖다가 고마 잡았어. [청중: 우짜꼬.]

한 마리는 도망을 가뻘고 한 마리는 잡았어. 잡았는데 그 인자 지금 치몬(같으면) 암이나 무슨 병에 걸리썬고 인자 위중에 있는 젊은, 저기 뭐꼬 사램이 남자가 하나 그래 있는데, [청중: 약 할라고 잡았던구나.] 그래 있는데, 동네 사람이 그걸 잡아갖고,

“이걸 아무것이 저기 뭐꼬 꼬와 주면 그기 낫는다.”

이리 뻘어 인자. 인자 그때 되몬, [청중: 폐병이면 한다. 폐병이면, 그뻘 폐병이거든.] 내 또래나 된 사람이, 내 또래이나 된 사람 같으면 나가 많애 보인다 아이가. 나가 많은께 젊은 사람한테 그,

“이런 걸 가가서 좀 해 먹으라.”

이리 해. 그걸 갖다가 마, 그 빈석 있는 옆에 그따다가 서마지기 솔을 갖다가 인자 자리에다 이어갖고 묶어갖고 마 위에다 돌을 누질러가 삶았는데, 거기 마 폴딱폴딱 튀더라개. 그래도 삶아갖고 그걸 한 그릇 인자 아들 묵고, 그 할매가 그 이튿날 인자 아침에 고치밭에 인자 오줌을 이고 갔어 인자. 우리 꼬치 농사 지몬 그런 거 갖다 주고, [청중: 거름 준다꼬.] 거름 준다꼬 이고 갔는데, 그 가서 독새한테 물리가 그래 초상이 두 번, 그 아들도 죽어뿌고, [청중: 어마이도 죽고.] 어마이도 죽어빠고.[청중: 아이고! 세상에.] 그래 한 이틀 거리 고마 한 집에 초상이 두 개나 갖다 나뻐는 기라.

[사상구 설화 163]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노순이(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칠십 되면 고려장을 하니까나 하도 효자 집에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칠십인데, 인자 고려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 고려장을 안 하고는 나라에서러 몬 전딘다네, 잡으라 올라 캐서. 그래 고려장을 해 놔놓고, 어머니 무을(먹을) 거 인자 갖다놓고 인자, 고려장 해 놔놓고는,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하도 그 아들이 효자라가 돼가, 까-만 이녁에 녀(남이) 잘라 할 때 그때 밥을 가지고 가먼, 하- 저거 엄마한테 찾아 가가지고 먹이고 오고, 새벽에 또 밤중에, 또 새벽에 또 밤중에 또 가서 어마이 먹이고 오고. 그래 어마이를 살리냈는데, 나라에서 인자 무슨 사건이 큰- 사건이 났어요. 큰- 사건이 났는데,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을 준다꼬 인자 그 상, 문제를 못 맞히서 그래 썩는데, 그래 그 효자 아들이 저거 엄마한테 밥 갖다 주로 가서,

“나라에서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카면서,

“그런 문제를 맞히면 그렇다. 카는데 그렇습니다.”

카이, 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와, 저거 엄마가 알아가지고, 알아가고, [청중: 가르쳐 주빠네.]

“야야, 어서 그래 임금님한테 이래 가서 [청중: 그 말로 해라고 이래 카면서 빌었어.] 옆드리 가주고 그래 해라. 빌어, 그렇다꼬 말해 주라.”

이러니까, 그래 가서 마, 임금님한테 가서 옆드리서 있은께네,

“그래 고개를 들어라”

카면서,

“그래 무어(뭐) 땀에 그러노?”

카이께네,

“이 문제를, 우리, 문제를, 문제가 이런 하면은 문제를 해결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라니까, 그래 문제를 그리 하니까는 해결이 졌어.

“이거를 누가 알았나?”

카면서로, 본인을 보고,

“어찌 알았나?”

꼬 물으니까,

“고려장 하는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하도 못 잊겠스러 밤에 밤중에 내가 밥을 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했더만 이렇게 말을 해 주더라.”

카니까네,

“아이고! 이 나라에 나 만(나이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함서,

“나 만 사람이 있어야겠다.”

함서, 그때부터 고려장을 마 탁 없애뵈다 카대.

[사상구 설화 164]

## 개로 환생한 어머니

노순이(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바양(방), 저 부엌에 고기를 마 끓여 놔놓고 바양 들고오 나면, 고기가 물고 가고 엄꼬(없고), 엄꼬 이랬는데, 그래 하리 지녁(하루 저녁) 꿈에 자기 뒷밭에 개가 고기를 목고 자기 뒷밭에 누우가 있더라 카네. 그래 저 개 저기 그렇담서러 인자, 마 저 때리(때려) 잡을라다가 놔뵈는데 꿈에,

“야야, 고기로 내가 목었다.”

함서로,

“엄마가 저저 살아 있을 적에 구경을, 구경이라꼬는 몬 가봐노니까네, 죽어서라도 구경을 갖다 오라 캐서러 내가 개 허눔을(허물을) 덮어씌고 왔다.”

이란께네, 그래 그 날부터 아들이 지게에다가 저거 엄마를 지고 땡기면서로(다니면서), 온-

천지를 지고 땀기면서로, 또 내라놓고 쉬고, 또 내라놓고 누워서 낮잠도 좀 자고 이랬더만, 어느 날 구경 다 했는가 가뿔더라대예. 쉬고 나이께네.

[사상구 설화 165]

### 나무꾼과 선녀

노순이(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나무꾼하고 선녀하고 만났는데, 선녀가 옷을, 나무꾼이 옷을 하나 숨켰다 카더나? 마 잘 몰라서로 내가 얘기로 못 하것다. 그래가지고 다른 선녀들은 다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선녀는 옷이 없어가지고 문 가고, 그래 나무꾼이 데꼬 왔다대.

나무꾼이 데꼬 와가지고, 그래 나무꾼하고 살면서러 아 하나 놓고, 그 선녀는 자꾸 하늘에 갈 끼라꼬, 둘이 놓고 이랬는데 인자 둘이 나아(날아) 놓고나면 둘이 끌어안고 갈까 싶어서 서이를 낳았다대. 서이를 나아(날아)가지고 하나를 못 떼놓고 가서로 하늘로 못 올라갔다 대요 그.

[사상구 설화 166]

### 밤이면 나타나는 여우

노순이(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우리, 어두부리 하는데, 그 산 밑에 우리 밭이 있는데, 콩밭이 있는데, 콩을 낮에 비가 인자 다 묵아났어. 묵아났는데 우리 언니가 아가씬데, 처년데. 인자 어두부리 해질라 하는 건데,

“어서 콩 그 이고 온나. 혼차 일라카만(이려면) 그거 하이 들어다가 좀 높은 데다 딱 놓고 그래 이래가지고 이래하면 이 진다.”

캄서,

“그래 이고 온나.”

칸께네, 이고 인자 득이라꼬 있는데, 득을 올라와가주고 걸어 오면 건너편에는 산이라예.

이래 걸어오는데 이상해서 이리 건너 보인께네, 요래 야시라. 야시가 우리 언니 딱 서면 (서면) 지도 서고 이래이래 걸어오면, 이래이래 걸어오서 보면 또 걸어오고. 또 서면 또 딱 서고, 마 땀하러 오면 또 땀하러 오고 그러더라대요. 그래 서 가지고 막- 둥에서 막- 우리 어머니를 불러쫘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 언니를 데꼬 왔다 아입니꺼. 야시가 그러더라대.

[사상구 설화 167]

### 빛자루가 변한 도깨비

노순이(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산에 아저씨가 산을 넘어갈 일이 생겼는데, 도깨비가 도깨비가. [청중: 앞에 탁 나타나가 주고.] 앞에 탁 나타나가주고 고마 질로 막후고(길을 막고) 문 가구로(가게) 그 막 해 싸니까네, 이 아저씨가 대가 차가주고 마 도깨비하고 싸움을 했답니다 마.

밤새도록 싸움을 하고 인자 도깨비한테 이겼다 카네. 허리끈을 쓱- 빼가주고 마, 나무다 도깨비를 달아놓고 팍- 쫓아놓고 왔더만은, [청중: 빛자루 몽디이다.] 그래 그 아튼날, 그 아측에 간게 빛자리더랍니다.

[사상구 설화 168]

### 뱀을 죽여 화를 당한 사람들

염진순(여, 1946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옛날에는 와 이리 뱀이, 이무기 해갓고 올라간다고 그 할 때, 이런 데 담 걸은 데 마 척- 걸치고, 어떤 데는 있고 안 했나? 옛날에 우리 애릴 때는. [청중1: 그래 맞다.] [청중2: 그랬다.]

그랬는데 행님 그리 이야기 해쫘대. 그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중딩이로(가운데를) 마 퍽- 잘라가 그랬다대. 잘라쫘다 카대. [청중1: 와 짜를꼬?] 그 뭐 어때서 잘랐다 하더라고. 잘라쫘고 나이께네, 그 해 말남형님 영감이, 젊은 사람 딱 고 나이 딱 되는 사람 서이가 다 죽어쫘단다.

[사상구 설화 169]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명식(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인자 어마이가 인자 고려장 아이가? 고려장 갖다 물어 놔놓고, 갖다 놔놓고 지게로 가져 오йка네, 그래 저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마이가 하는 말이,  
“와 그것도 가져 오노?”  
카이까네,  
“후제 아버지 엄마도 죽으면 이것가 가져 갈꺼요. 지고갈 꺼 아이가.”  
그럭 하이까네, 그래 인자 그로부터 인자 그 고려장이 없어졌다 카대.

[사상구 설화 170]

### 사람에게 흙을 뿌리는 여우

정명식(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옛날에 그 저 나무 해가 오몬, 해가 지몬, 지고 오몬, 뒤에 야시가 따라 오면서 흘로(흙을) 자꾸 질질 뿌린대. 그래 이리 뿌리몬 인자, 앞에 인자 나무 지고 오는 사람이가, 영감쟁이가,  
“따라 온나, 따라 온나. 오몬, 마을에 오몬 니 밥 하나 주께. 오나라, 오나라.”  
칸다. 그래갖고 줄줄줄 따라 오더래. 따라 오면 인자 그 동네 오면 개 안 있나. 강아지, 그놈 한 바리 물고 가는 기라. 그기 인자 지 밥인 기라. 그랬다 카대. 그런 말이 있더라고.

[사상구 설화 171]

### 비가 오려면 우는 당산나무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그 우리 동네 그 시집동네 촌인데, 있는데 당산나무가 그 저 뒷산에도 있고 [청중: 밑에도 있고.] 이리 밑에도 있고 두 개가 있거든. 비가 오고 이래이래 하면 당산나무가,

“응-, 응-.”

올어싸. 우리 시집 가가주고 그랬는데, 그리 울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 난제는(나중에는),

“아이고! 저거 비가 올 낀데 우짜노?”

카면서. 그래 비가 올라카면은 그리 울어요. 구름 찌고 이라면. 그래가 영영 울어짚는 기라. 밑에 끼(것이) 우는 기라. 우에 건 안 울고. 동네 앞에 있는데, 거기 그리 올대.

“영--.”

[사상구 설화 172]

## 영동할미 모시기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그거는 인자 이래 형겅을 갖고 쪼가리 쪼가리 색깔이로 내가주고 딱- 요래 묶아가주고 그 래가 감나무나 이래. [청중1: 앵두나무에 묶는다. 앵두나무에 묶는다.] 에이, 감나무에 묶었다. 앵두나무가 없은께. [청중1: 앵두나무에 묶으데.] [청중2: 앵두나무 없으면 감나무에 묶겠지.]

그래가주고 감나무 묶았어. 그래가주고 달아매고 이랬거든. 떡을 하면 인자 떡을 딱 소쿠리다가 가래떡을 딱딱 몇 가지 해가주고, 딱 그거 해가 두지나무 뭐 나락 퍼분데, 두지 있제. 두지에다가 딱- 갖다 언지놓고(앉어놓고) 그래서 그 그. [조사자: 영동할미 그거 떡 해 줄라고 이렇게 나락 같은 거 펼쳐 놓은 거 새가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서요?]

그래가주고 그랬는데, 그만치나 그래 그거 했어. 그래서. [청중1: 옛날에는 진짜로 얼마나.] [조사자: 영험했다 거지예?] [청중1: 아이구.] [청중2: 요새는 뭐 그런 기 어딴노?] [청중1: 영동할미 저 집에 인자 뭐꼬 그릇 씻거 얹는데 그따가 딱 모시놔다가 그래 인자 초 닷세나 되면은 저게 뭐꼬 밖으로 모시고 간다 아이가. 그래갖고 나무에 인자.]

그래 어른들이 말을 그래쌌대.

[조사자: 딸 데리고 오면 바람 불고 이랬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이소.] [청중1: 그래, 며느리 데리고 오면 비 오고, 딸 델꼬 내리오면 바람 불고. 며느리 데꼬 나와야 그래 그 해

풍년이 들고 응.]

머느리 데꼬 내리오면 치매 끄테이(끝이) 저제 뭐 얼룽지라고(얼룩지라고) 그리 인자 비가 온다 그 카대. [조사자: 시어머니 용심이다. 그죠?] [청중1: 용심. 시어마이 용심.] [청중2: 어째 그리 밍어 했을꼬 몰라 옛날에는. 에이구 진짜로.]

잘하는데, 그기 영동 밑에서만 그거 풍속으로 찾아낸 때미(찾았기 때문에) 영동할매랍니다. 영동, 서울 영동 밑에서만 그거로 파지 영동 우에는 그런 걸 안 찾는답니다. 그래서 영동할래라 카대.

[사상구 설화 173]

### 당산 터를 팠다 동티나서 죽은 사람들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해필 당산나무 옆에 가서 수도로 인자 땅을 파고 마 그거를 했는 기라. [청중: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하고 난께네, 수도를 집집이 밑으로 연결로 씨기(해) 놓은께네, 저 우리 동네서 남자들이 싹 다 죽어뻘는 기라. 우리 동네 다 죽어뿌고 그 수돗물 묵는 집마정, 인자 수도를 여난께네, 묵는(묻는) 사람은 쾌안은데(괜찮은데), 그 땅 판 사람은 남자들이 지대로 마 다 죽어뻘어. [청중: 아이고! 우짜꼬.]

여들인가(여덩인가) 아홉인가 다 죽어뻘어. 그 과부가 다 돼뻘는 기라 우리 동네. 과부가 흘뻘(전부) 다 돼뻘(돼버린) 기라. 그런 것도 건들이면 안 돼.

[사상구 설화 174]

### 도깨비불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저저 우리 동네, 친정 동네, 거기에 인자 토째비불이 막, 우리가 갓집이라서 도롯가 저래가 있는데, 날이 고마, 토째비불이 폴짝폴짝 뛰면서 마 가는 기라 마. 축-- 가디 또 팔짝팔짝

뛰며 가니 그래 아버지하고 우리 할무니하고는 ,

“저거 토째비불이다.”

이쿠면서. 그래 육이오사변 나고 나서, 또 그 밑에 동네도 없고 차 도론데, 육이오사변머리에 사람이 많이 죽어뵈거든. 마이 죽었는데 귀신불이 나가지고 마, 저서 불이 마 뿔뿔뿔뿔-마 따라서 푸른 불도 오고 뿔은 불도 오고 막, 죽- 따라 오대. 따라 오기네 우리 할매하고 아버지하고,

“야야, 저 봐라 귀신불 저 난다. 함 봐라.”

이래 कु께, 우리가 서서 봤으예. 본께네 불이 마 ‘치치 치치’ 마 가는 기라 마. 떨어진데 있는데도 불이 마 꺼지고, 한쪽으로는 또 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 그 귀신불 우리가 보고 토째비불도 우리 집 앞이라. 집 앞에 이래 가는 걸 봤거든.

그래가 우리가 그걸 보고 할무이하고 아버지하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

“야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귀신 불 간다.”

이래 싸면서, 그래 나오고 보고 우리가 그랬거든. 그래,

“아유! 저게 아버지, 귀신불이에요?”

कु께, 할매도,

“야야, 저게 귀신불이데이.”

쿹서.

[사상구 설화 175]

## 흙을 던져 가는 길을 막았던 도깨비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우리 동네서 인자 창녕에 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 우리 적중리거든. 그래가지고 거서 인자 차로 몰고 큰집에 왔다가 가는데, 토째비가 앞에, 차 앞에 나서가지고 마 흙을 꺾어(쥐고) 가지고 마 차, [청중: 그거는 토깨비가 아니고 호랑이다.] 그래가주고 마, 꺾어 가주고 마, 콕콕 던진께네, [청중: 호랑이다. 그거는 호랑이다.] 차가 문 가겠더랍니다. 문 가는데, 집어 던지뿌고 그랬다 커면서 그리 이야기로 하대. 그래가주고,

“내가 올 적에 차 안 뿌쌌기(부수었기) 망령이다.”

이래 쿠면서, 거기 그렇다 카매, 그래 이야기로 하더라.

[사상구 설화 176]

###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1)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아주 옛날에 나 만(나이 많은) 할배가 있었거든. 그 동네서 인자 돌을 이래 집으러 올라오는데, 토째비 그기 나가(나와서) 앞에 딱 가라(가리고) 서고, 가라 서고 이렇거든. 가라 서니 그 할배가 인자,

“에이, 이놈으 가라.”

카며, 대로, 담배 푸는 대 있제? 그걸 딱- 갖고 오서,

“비키라.”

카면서,

“에이놈!”

큰 소리 확 치고 마, 자꾸 앞에 나서 가랏더란다. 몬 가구로(가도록). 그래가 그 할배가 오래 살았다. 한 구십 살 목도록 살았다. 우리 클 때. 그래가주고,

“아-따, 내 오늘 토째비한테 흘키(흘려) 죽을 뻔 했다.”

이리 쿠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기라.

[사상구 설화 177]

###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2)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우리 또 시집 동네는, 우리 시집 동네는 인자 배로 건니가야 저 동네를 갈 끼거든. 갈 낀데 그 흘키가주고, 남자가 그래가주고, 흘키가주고, 싸우다 싸우다가 난제는 우째 그래가 하수도 구멍, 이래 세면(시멘트) 해가주고 박아난 거 있거든. 그다가(그곳에) 쳐박아뿌더란다. 그래가 살아나오니 고마 얼마 안 있디 죽더라. 그 사람이 직접. 한 번 흘키면 오래 못 산단다.

[사상구 설화 178]

###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3)

정춘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우리 엄마는 일본에서 흘키가주고 죽을 뻔 했단다. 장사하러 가가주고 인자 왔는데, 집에 온께네. 엄마 아버지가 인자 아, 할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영화 보러 갔는 기라. 고모들하고 가뿌고, 엄마는 인자 장사하고 온께네, 아무도 없더란다.

그래 돌다가 돌다가 자꾸 못 밖으로 이래 돌았다네. 이 돌아도 그고(그곳이고) 돌아도 그고. 아무리 정신을 채리도 몬 하겠더란다. 그래가 우째우째 나아가 정신을 채리가지고 집에 왔는 기라. 온께네 아버지도 없고 뭐, 고모들도 없고 뭐, 전신에(전부) 영화 보러 가고 엄서가 지고(없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그래도 칠십 너이에(74세에) 돌아가셨다. 그래 그 이야기로 안 하나.

“야야, 내가 귀신한테 흘키가 죽을 뻔 했다.”

이래 쿨서, 도깨비한테 흘킨 기라. 우째 가다 간께네, 엉뚱 길이 나와가주고 그 질로 돌아가지고 만날 돌아도 그더란다. 그래가 물에도 안 빠지 죽고 그래도 용한 기 대택이라 캐. 그래 이야기 하대.

[사상구 설화 179]

### 바보 사위

강심분(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옛날 사람은 참 어리숙긴 어리숙어. 처갓집에 간께네, 콩을 삶아 준께네, 까가 무야(까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훑아 묵더래. 그란께네 장모가 있다가,

“이 사람아, 그걸 까서 묵지 그냥 묵냐?”

고, 뭐라 캤다 카네. 그 뒤에 왔는데 송편을 해준께네, 싹 까갖고 묵고 껌디기 내빼더래요. [일동 웃음] 그래서,

“와 그거 까 묵고 껌디기(껌질) 내빼냐(내버리느냐)?”

칸께,

“먼저는 또 까 묵는다고 뭐라 카더니만은, 인자는 까 묵는데 뭐라 칸다.”  
카먼서로, 쫓아 아랫방으로 쫓아 내리간께, 당글래, 옛날에 나락 묵는(묵는) 당그래, 거기  
있다. 당그래 그거 이파리를 다 뽏았는(뽏은) 거. 당그래 자리가 딱 집어준께,  
“어, 내 한 개뿌께(한 개밖에) 안 묵었다. 한 개뿌께 안 묵었다.” [일동 웃음]  
그래 카더란다.

[사상구 설화 180]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복남(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고래장을 왜 없었느냐. 저거 엄마를 인자 지계에 담아 지다가, 그 인자 고려장을 시키고  
오이께네, 그 갖다 내빼린 아들이 아바이로 보고,  
“아버지, 어데 갔다 오나?”  
“할머이로 그래 저- 산에 집을 지어가 갖다 버리고 왔다.”  
이란께,  
“그 지계 뽏빼리지(내버리지) 마세요.”  
한다 안 하나.  
“그래, 왜?”  
카이까네,  
“나도 크면 아버지를 갖다가 버리야 되니까, 그 지계를 놔두세요.”  
칸다 안 하나. [청중: 그랬다는 말이 있어.]

[사상구 설화 181]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박복남(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그래 인자 시님이(스님이), [청중: 그 노래가 있더라 한창, 아를 안고.] 시님이 동냥을 왔으  
면은, [청중: 응. 응.]

“아이고, 스님요, 줄 끼 없어요.”

부잣집에서 와 줄 끼 없겼노 또. 그 아가 인자 마 갈 때 그렇게 가라는 운명이겠지. [청중:  
그렇겠지. 그걸 아를 안고.]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뭐 줄 끼 없는데, 우리 딸 줄께.”

이리 돼뻗는 기라.

“이거라도 줄까요?”

이리 뻗다 카든가 그렇더라꼬. [청중: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 시님이 대답도  
안 하고 갔는데, 종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기라. 세 개 짜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기 왜  
이렸느냐. 그래 시님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듣고 머릿속에 있었던가봐. 그러께 그  
집에 가서 그거 애를 데꼬(데리고) 오갓고 끓는데 열인께(넣으니) 종이,

‘에밀레-.’

하면서, 소리 났다 안 하요.

[사상구 설화 182]

## 몸종의 아들로 태어나 출세 못한 홍길동

박복남(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그래 홍길동이 왜 출세를 못하고 홍길동이 그렇게 뻗느냐 하면은, 그 홍길동이 인자  
마나님이 낳은 아가 아니고, 인자 마나님이 그거 하룻밤을 자졌으면은 큰 아들로 낳았을  
깐데, 그 인자 정승이 자니까 꿈이, 달이 떨어져서 자기 몸에 들어갔는 기야.

‘아하- 이거 틀림없이 큰 자식을 놓겠는데, 내가 오늘 밤에는 마나님한테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니까, 마나님이 문을 안 열어줬는 기라 방문으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열어주니까  
몸종 방으로 갔어요.

몸종이 감히 어째 할 끼고. 몸종하고 자나놓이 홍길동이 생겼는데, 그기 마나님이 아이고  
몸종이기 땀에서 출세를 못 했잖아. 홍길동이 도중에 마 그 해뻗잡아요.

[사상구 설화 183]

## 꼬부랑 이야기

황연희(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학산노인회관]

할때, 꼬꾸랑 할마이가 꼬꾸랑 짝대기를 짚고, 꼬꾸랑 산을 올라간게, 꼬꾸랑 개가 꼬꾸랑  
똥을 싸논게, 꼬꾸랑 똥을 주우 묵고, 꼬꾸랑 짝대기를 갖다가 탁- 때링께,  
“꼬꾸랑 꺽꺽, 꼬꾸랑 꺽꺽!”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84]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김경이(여, 1932년생) 구술  
이태임(여, 1934년생) 구술  
남선조(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김경이 구술]

저 똥이고 양반한테 시집을 가놔나날이(가니), 이 양반이 글만 일고(읽고) 생전 가정사를  
모르는 기라. 그래 너무너무 가난하는데, 이 아줌마가 쟁피, 요새 걸으면 피라. 그거 훑어가  
주고, 말라가주고, [청중1: 쟁피, 쟁피.] [청중2: 나락, 나락밭에 있다 그.]

그래, 나락밭에 그 피 아이가? 그게. 그래 그거 훑어 먹고 사는데 글만 읽지 천지도 모르는  
기라. 하루는 그래 쟁피 훑으러 갔는데, 비가 왔는 거라. 비가 오서 쟁피 훑다 보이께네,  
똥석에 넣어놓은 기 비가 오서 다 떠내려 가. 숯채구녕으로 가고 없는 거라. 언니 저 말  
이야기 잘하겠네. [남선조 : 그래가지고 탄 데 가빠렸거던.]

내뿌리뿌고(내버려두고) 갔는 기라. 그래 이 양반이 열심히 공부해가 과거에 장원급제 했는  
기라. 그래가주고 인자 저 똥이고 그거 해가, 그거를 쓰고 나팔 불고, 인자 타고 인자 귀향  
하고 집으로 오는데, 그 어던 쟁피 훑는 들판이 있다. 그거만 아네.

그래 오다가 보이께네, 저 마누래가 안죽꺼지(지금까지) 그 쟁피를 훑고 있으면서 보이  
께네, 신랑이 오니까, 그래 신랑이 보이까, 가마 타고 오는데 그렇거든. 거기 무슨 들이더라.  
그 들은 나는 모르겠다.

[이태임]

그 노래는 그 기라. 저 전라도 쟁기 맵기라 카는데, 그 들이 너르거든. 그서 인자 쟁피로

훤고 있는데 눈에. “쟁기맹기 느른들에.”

[김경이]

그래 그 들이 말이라. 그 들을 내가 모르는데.

“무슨 무슨 들에 쟁피 훤는 저 아줌마 훤던 쟁피 다시 훤나“

카면서러, 그 신랑이 그 쫓아오다가 말을 하니까네, 돌아보이께네 자기 신랑이거든. 그래 따라 오이께네, 신랑이 안 받아들이더라 안 하나. [청중1: 거기 “식모라도 살구루 해 주이소” 커이, 안 받더란다.]

[남선조]

앞으로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엮드려 비니꺼네, 응 비니꺼네,

“그라먼 물로 한 동 이고 오이라. 물로 한 동 이고 오라.”

“신작로 복판에 부우라.”

부우가(쏟아서) 그럭 하이(그렇게 하니),

“물 한 동 채우라.”

흘러가 물 담을 기 어딴노? [청중1: 없어.]

“니가 한 번 그리 간 이상은 우째 내가 니를 아노?”

“그 물도 니가 한 동 담야. 내 받아 주꾸마.”

이기라. 물 한 동 쏟아난 거 우찌 그걸 담노. 얘기가 그리 되는 기라.

[김경이]

여러 가지다.

[사상구 설화 185]

###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온다던 오빠

오영자(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강부자가 저거 오빠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온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다 하대. [일동 웃음] 그 한 번 노래 ‘뜸북 뜬북 뜬북새’ 나온께, [청중: ‘뜸북 뜬북 뜬북새’ 그 했다.] 우리 오빠가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온다 했는데 고마 한 번 가더니만 안 오더라는 기야.

[사상구 설화 186]

### 여자 밭을 문 쥐를 떼어준 사또

이원경(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그거는 인자 여자가 인자, [청중1: 어떻게 그런 이야기 잘한다. 잘한다.] 인자 시아바이 저, 시아바이 밭에 일 하는데, 메느리가 밥을 해가, 참을 해가 이고 갔거든. 이고 가는데, 그놈 이고 인자 오줌을 이래 냈다. 누이 마 쥐가 막 꼭 물어뜯치가(물어뜯고) 안 놓거든. 그래놓이 시아바이 넘봐다보이, ‘며느리가 밥 이고 오는 거는 봤는데, 와 안 오는데.’ 싫어서 쫓아가 보이 쥐가요 그거를 꼭 물고 안 놓으니까네, 덜봐다 보고 시아바이가.

“놔라-.”

그 인자 쥐를 땡기면 살끼(살갓) 떨어질 끼고,

“요놈아 놔라- 요놈아 놔라-.”

카고 있거든.[일동 웃음]

어떤 인자 사또가 지내가다가, 사또가 지내가다가 보이 희안하거든.

“여봐라- 세아라.”

이카거던. 그래 가 보이 시아바이는,

“놔라. 놔라.”

카고, 며느리는,

“아야야.”

카고 있거든. 그래 마 그 사또가 마 나발을 대고 마, 하- 있는 대로 불러 뿌놓이, 쥐가 똑 떨어지더란다. [일동 웃음] 그래 인자 쥐가 떨어져놓이,

“사또 십 년 만에,

[청중1: 아여 오째갓고(어떻게 해서), 쥐가 그 구녕에.]

“사또 십년 만에 씹나발 붙어 보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카더란다. [청중2: 이 나발, 저 나발 붙어봐도. 이 나발 저 나발 들어가야 돼.] [청중1: 씹나발 붙어 본다.] ‘씹나발 붙어 보기는 처음이다.’ 이 카더란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87]

### 말이 센 며느리

이원경(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저저 시아바이가 인자 사랑에 있는데, 메느리가 밥을 채려 갔거든. 채려 가이, 이놈의 시아바이 고추가 썩- 나와 있거든. 저 자지가 썩- 나와 있으이,

“아버님, 꼬치 나왔습니다.”

카이,

“떡지놈, 여 들어와 앉아 봐라.”

이 카거던.

“예-.”

카이까네,

“저게, 어릴 때는 꼬치고, 어른 되면 좇이라 칸다.”

이카거던. [일동 웃음] 그래가 메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맞습니다. 저, 우리도 클 때는 보지라 카더만은, 요새는 씹이라 카대요.”

이카더란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88]

### 신식으로 합방하려다 겪은 수난

이원경(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저 어데 여관에 가가주고 가만- 뭐, [청중1: 오만 소리 다 나오데.] [청중2: 벨놈의 얘기 다 하네.] 여관에 가가주고, 그전에 마 울컥울컥 해 찢고 마, 문꾸녕으로 가만히 들다 봤거던. 들여다 보이까네, 저게 여자를 딱 세아 낚 놓고 흘- 쫓아가 록 쥐 박고 그라거든. 자기도 와가지고 할마이로 그 인자 인자,

“벽에 서라.”

[청중: 그라는 거 봤거든.]

“벽에 서라.”

꼬, 그래가,

“우리 신식으로 한번 해 보자.”

이카이까네,

“어데 가이(가니) 신식으로 하더라.”

카이,

“신식이 뭐요?”

“이 짝으로 서라.”

카더란다.

서가이(서서) 남자가 마 울퉁 들어오이 마, 선반에 언친(엎혀있는) 마마 냄비강. 옛날에 마이 언저 안 났나, 냄비강, 바케쓰강 마이 얹여 놓으면, 짝- 늘어져가, [청중: 옛날에 선반 생활이 많았어.] 아들이 마 다 찡기가(끼여서) 받히거든.

“아이고- 아버지요, 구식, 신식 하지 말고 구식 하소.”

이카더란다.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189]

### 사돈집에서 실수한 친정아버지

이원경(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자 저저 할마이가 다같이 저게 자식을 낳았는데,

“당신 잘 묵고 나는 못 무이(먹으니) 우짜꼬.”

이카더.

“그럼 지름 주머이 하나 개벼도.(접어서 쥐) 내 좀 여 가 올꾸마.”

이카거든. 그래 쪼마이름(주머니름) 하나 개비(개어) 줬어. 개비 쥐 놓이, 하나 묵고 지름 주머니로 하나 열고, 주머니 열고 마 마, 그래가지고 우짜가 인자, 그 놈 자리름(주머니름) 차고 인자. 그때는 통시라 췌다. 통시에 갔거든. [청중: 화장실] 응, 그래 가가주고는 인자 옷을 벗고 누는데, [청중: 통시에 둘러 빠져뻘나?]어, 어. 안 빠졌어. [일동 웃음] 개가 와 지름주머니, 개가 와 지름주머니를 들렁 물고 가 버리거든. [청중: 개가 물고 가뻘구나.] 어. 그래가이고 그 놈 잡으러 가다가, 고마 물고 가디나 말디나 똥이 다 누면 어떻노. 똥도 덜 누고 그거 잡으러 가가 마, 똥도 바지에 싸고 마, 이래가지고. [청중: 빨개 벗고 그랬겠다.]

그래가지고는 똥도 다 싸고, 오짐도(오줌도) 싸고 이래가지고 마 입을 수가 없거든. 그래가 어디 한쪽 구석에 이래- 가이까네, 빨래를 벗어가 개 뉘더란다. [청중: 딴 거 같아입었겠지.] 하나 쥐 내 입으니께네 안사돈. [청중: 속곳을 입어뻘네.] 안사돈 앞이가 타인 옛날 바지 있거든.

[청중: 꼬장주다.] 어 그거를 입고, 그래가 인자 두루배기(두루마기)를 꼭 가라가지고 갔는데, 마리청에 인자 딸로 보고, 딸로 보고 인자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딸로 보고 요래 와야 되는데, 앉았있으이 마리 새가(마루 사이가) 옛날에 벌어졌거든. 거기에 불알이 꺼내려 가가지고, [청중: 그 딱 걸려가 불알이 안 빠진다 아이가 또.] 상도 채리놓고 뭐, 딸도 앉아 있고 사돈 끼리 다 앉아있는데, 암-만 땡기도 안 돼. 이리 땡기도 찡기가 안 나오고, 이 우야노 싶어서 이리 봐도 안 나오고, 그래가.

“사돈 와 어디 뭐 불편한교?”

하이까,

“아이요.”

그래가 인자 그 집 머슴이 보이까네, 개가 고 안에 들어가가고 불알로 살로 훌러(훑어) 샷거든. 일단 기가 차는 기라. 이래가 인자 뭐로 하나 가이(가지고) 살짝 끄집어 올리줬단다. 끄집어 올리주니 그래 인자 그 떨어져 가지고 저거 집에 갔대.

[사상구 설화 190]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이원경(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그래 인자 할아버지는 봉산데, 할마이는 버버리고. 그래가 인자 이우제(이웃에) 불이 났거든. 이우제(이웃에) 불이 나가주고, 그래 인자 할마이 갔다 오거든. 말은 문 하고 그래,

“불이 어예(어떻게) 났더노?”

이카이까네, 불알로 만치거든.

“감자 꺾어 묵다 불 났구나.”

이카거든. 또 그래,

“얼매나 탔더노?”

이카이까네, 꼬치로 만친께네(만지니),

“아이고, 기동만 남았네.”

이카더란다. [일동 웃음] [청중: 기동만 남았네 하고.] [조사자: 그 말이 딱 된다 아입니꺼 그지예?]

“다 타빠고 기동만 남았네.”

이카더란다.

[사상구 설화 191]

## 바보의 문상

이원경(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한 바보 축구가 하나 있었어. 그래 인자 상갓집에 가가주고, 동생을 상갓집에 가가주고, 상주 묻고 오라 했거든. 옛날에는 상주 찾아보는 기 그 인자 상주 묻는 거거든.

“묻고 오너라.”

이카이께네, 그래 저게 상주를 물으러 가는데, 인자 매부가 이서방이거든.

“그래 어짜 하면 되노?”

카이,

“이서방, 이서방, 내가 왔네. 이카고 그래, 상주 묻고, 절하고, 그래 인자 그래 오면 된다.”

카거든. 그래 인자 이래 가다가 마 이서방 그거를 잇아뻘어. 아 마 도랑 뛰다가 이서방을 잇어뻘어. 그래 너널너덜 가다 하이까네, 깨로 하나 흘리 있거든. 그래 또 이 닳았거든. 그래 마 이서방 잇아뻘고,

“깨서방, 깨서방 내 왔네.”

컨다.

“아이고! 빨리 들어오시쇼.”

이카더란다.

그래 가만 쳐다본께 내나 병소(빈소) 채리 놓고 이래 났거든. 탄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들어가면 문지방이 안 낮나 그자? 문지방에 드가다 갓이 흘렁 벗겨지거든. 자기는 키가 적어 가주고 풀쩍 뛰가 마 갓을 흘쩍 벗고,

“깨서방 깨서방. 내가 왔네” [웃음]

이카며, 그래 인사를 하고, 옛날에 축구 바보 만였어요.(많았어요) 그래 그런 바보도 있었어요. 이서방도 잇아뻘고, 아무리 생각해도 깨가 하나 흘리놓이 마,

“깨서방-, 깨서방-.”

카거든. [웃음]

[사상구 설화 192]

## 며느리 버릇 고치는 시아버지

이태임(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옛날에는 여자도 그, 남자도 그, 등신이 많아. 젊은 새댁이가 시집을 가갖고, 시아바이 밥상만 들어두면, 상지동에 대고 똥을 싸가, 똥구녕 쓱- 닭고 쓱- 닭고 해싼께로, 며느리가, 요놈의, 아무리 봐도 시아바이가 사랑방에 잔께,

‘조길 어째 질을 들일꼬.’ 싶어서 칼 끝이를 갖다가 상지동 짜진데 갖다가 딱- 꼽아 뺐거던. 그래 꼽아 논께,

“야야, 물 떠가지고 오이라.”

카이까,

“아이고, 물이고 뭐이고 한 동네가 두 동네가,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되가 아파서 못 하겠소.” 하더라.

[사상구 설화 193]

### 여자 속곳 입고 장에 간 사내

이태임(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옛날에 ‘급하만 저게 여자 속곳 입고 자양(장에) 간다.’ 꼬 말이 있어 옛날부터. 급하면은 옷을 갈아입고 자양은 가야 되는데 옷은 없고. [청중: 오만 소리가 다 나온다.]

옛날에는 한 농에다 여자 옷, 남자 옷 넣어 놓은께로, 마 이전에 바지라고 내 놓은께로, 속곳을 입고 장에 훌렁 훌렁 가다본께, 가랑이가 쪽- 짜져갖고(짜져서) 가는 사람마다,

“아이-, 저 여자 속곳 입고 간다. 여자 속곳 입고 간다.”

요래 가라도(가려도) 안 되제, 요래 가라도 안 되제. 그래가 자양에 땡기다가 그래가 오더라. 그래갖고.

[사상구 설화 194]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학경로당]

옛날에 할머니가, 옛날에 할머니가, 아들이 울어 싸니까, 울어 싸니까네,  
“꽃감 하나 주께.”  
이래이래 찌다가 달래다가 안 되니까, 낸중 호랑이가 나와서 어,  
“호랑이 왔다. 똑 그쳐라. 꽃감 하나 주께. 똑 그쳐라. 호랑이 놈이 왔다.”  
카고 그라제. 그런 갱강(것인가) 모르겠네. [웃음] [청중: 그래 호랑이가 저저, 웃다가 ‘내카  
마 더 무서운 기 있는갑다.’ 카면서 가더라 안 카나.] 있는갑다 카면서, 돌아 가뻘다 카네.  
“호랑이 왔다. 호랑이 왔다.”  
이라이, 음마야 호랑이가,  
“음, 내카마(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갑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캄서, 가더라네.

[사상구 설화 195]

### 지렁이국으로 부모를 봉양한 며느리

이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학경로당]

옛날에 저저 시어머니하고 메느리하고 사는데, 너무나 먹을 끼 없어서 메느리가 매-일 그,  
저저 뭐꼬? [청중: 끼시이(지렁이).] 거시이, 거시이를 잡아다가 해가 퍅이고, 퍅이고 이러이까  
네, 너무나 맛있거든. 그래께네 시어머니가 있다가,  
“야야, 이기 무슨 고기가 이래 맛있노?”  
이라이까네,  
“어무이, 그기 거시이 아입니까.”  
카이께네, 놀래가지고,  
“아따!”  
눈을 버떡 떠뻘단다.

[사상구 설화 196]

### 제삿밥은 정성이 최고

이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학경로당]

그래 옛날에 제사를, 하도 없는 사람이 제사를 지낼라 카이, 제사를 지낼 그게 없어가지고, 부잣집은 아니고 없는 집이 돼가지고, 그래가 제사는 지내야 되고 우짜꼬 싶어서 있는데, 흰 죽을, 흰 죽을 한 그릇 쭈아가지고, 제삿날에 딱- 떠놓고 제사를 모시고 나이까네, 그 꿈에 그래 선몽을 하더라 카대.

“아이구, 너거 집에 와서 오늘 배부르게 잘 먹고 갔다.”  
이라면서, 그런 전설도 있고.

[사상구 설화 197]

### 나무꾼과 선녀

이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학경로당]

옛날에 없는 집 사람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 보니, 저 한 모퉁이에 그, 깊은 물 좋은 데서 선녀들이 모욕을(목욕을) 하거든. 모욕을 하다 보니, 이 옷을 안 훔쳐갈 수가 없어 이 나무꾼이. 훔쳐 갔어. 훔쳐 가가지고 어, 인자 몇 년을 안 내놓다 보이, 매일 그, 날개달린 그 옷, 그 옷을 만날 청하거든 남편한테,

그라다보이, 우짜다 보이까네 내놔어. 내놓이께네, 아 하나는 아듬고(안고), 양쪽에 여 찌고 (끼고), 그래가 하늘로 날라 가 빠릿다네. [조사자: 그라고 끝입니까?]

응, 그 날개옷을 안 내줬으면 안 날라 갈 켜네. 날개 옷 내줘놓이, 하나는 딱- 찌고 하나는 여, 아듬고 해가 훑훑 날라 가뻘단다.

[사상구 설화 198]

### 엄마로 변신한 호랑이

이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학경로당]

옛날에 호랑이가 인자 집은 엄꼬, 먹을 게 엄꼬 하인께, 산, 산 중턱에 인자 집 하나 있는데 왔지. 오이까네, 아들이 울어 싸이께네,  
“내가 엄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라이까네 손을 썩- 내민께네,  
“요는 울 엄마 손 아이다.”  
“요 너 엄마 손이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카이, 또 손을 썩 영이,  
“이거는 울 엄마 손이 아니다.”  
이라면서, 그래 있다가 인자, 자기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호랑이는 가고 아들 구했는 갑대. 그런 것도 있고 그래, 옛날에 다-.

[사상구 설화 199]

### 아버지 눈을 뜨게 한 심청이

이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학경로당]

옛날에 심청이가 저 옴마는 뽕덕 엄마로 이름이 되가지고, 뽕덕어머이로서 어머이는 가뿌고.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이 심청이가 매일 이거 짝지름(작대기를) 이래 짓고, 땅기고 오고 가고, 밥을 얻어가 참 저 할배를 드리다가 이라다가, 고마 옛날에 저, 저, 저, 저, 나라의 임금, 숨게 말하면 아들이제 그제. 그 사람네들이 보니까, 하 너무나 어여쁜 꽃이 물에, 전에는 빠질 때는 꽃이 아이지. 인자 처녀지.

배에서 풍덩 뛰어 내리께네, 거기 큰- 연꽃이 되어가지고 그래가 이래 있는데 이, 아바이는 인자 딸도 떨가뿌고 엄꺼든(없거든). 그러다가 우짜다가 뽕덕어무이라고 또 하나 만나 가지고 있는데, 이 할배 꺼를 다 훑카 묵고 아무 꺼도 없거든.

그런 찰나에 인자 이, 아버지가 인자 한 번 심봉사 잔치를 한다 온 나라에 하는데 이 아가 씨가 꽃 속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오는데 저거 아버지는 안, 엄꺼덩(없거든).

그래서 맨날 며칠을 하다 보니 참, 끝에, 마지막에 저 아버지가 오더라네. 그래가지고 저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부지, 나 심청이.”

라 카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아부지가 너무 좋아가 눈을 별떡 떴다 카듯이. 그래가 잘 살더라 카네. 그래, 마음이 심보가 고부면은(고우면) 잘 되는 기라.

[사상구 설화 200]

### 막내 공주와 일곱 난쟁이[백설공주]

이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학경로당]

일곱 공주를 낳아가지고 사는데, 친정 엄마가 죽고 없어나노이, 계모가 들어 왔거든. 계모가 들어 왔는데, 다른 아들한테는 그래 해꼬지를 안 하는데, 꼭 이거 막내딸한테만 해꼬지를 맨날 하는 기라. 문뜰 사과도 약 넣어가 먹이고, 뭐도 못된 거만 먹이가 야를 직일라꼬 그래 맨날 거울을 이래 보고,

“거울아, 거울아, 내가 더 예쁘지. 아무개가 더 예쁘나. 누가 더 예쁘노?”

카고 이랬거든. 그러다 보이께네 거울에서,

“니가 더 안 예쁘다. 아무개가 더 예쁘다.”

이라면서 이랬는데. 한 번은 산골짜기에 떡- 사는데, 이 아가씨가 사는데 가니까, 아가씨가 마 너무 예쁘게 그래 살고 있거든. 쪼매난 일곱 난쟁이하고, 그 내나 못되게 해췌는 그 공주하고 살고 있거든. 그래이께 그 살고 있는데다가 인자 그 사과 팔러 와갓고,

“사과 사세요.”

캄서, 사과 안 사도 좋으니까, 약 영은 그거를 하나 먹으라꼬 이래 주이까네, 이 그 공주가 먹어뵈는 기라. 묵고 팍 죽어뵈어. 죽어뵈는데 인자 그 가다가 보니까네, 인자 그 숨게 말하면 왕자, 왕자지 인자. 왕자가 지나가다 하이까, 인자 그 예쁜 아가씨가 죽어가 있으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래가 인자 숨게 말하면, 옛날에 그, 요새는 뿔이라 칼란지는 몰라도 그, 옛날에 그, 구르마 그 큰 구르마 그거 잘 쓰이지 그제?

그(거기)다 신고 털컹컹 가이까네, 길이 인자 올참아갓고, 털커덕 털커덕하고 가다가, 이 묵은 기 꺾끄덕 꺾끄덕 올라온께 난중에 살아났어 이래. 이 아가씨가 살아나가지고, 그래 인자 이 칠공주가 아이라 칠, 그거 난쟁이, 칠 난쟁이들하고 그 사람하고 살았는데, 그 왕자가 보고 이 여자를 갖다가 그래 퍽- 치고 가다가, 너무 예쁘니까, 신고 가다가 털크덕 털크덕 해가 살았는데, 그래 그 사람하고 인자 낮아가지고 인자 공주를 결혼을 해가 잘 살더라

카대. [조사자: 그 여자애 이름은 없습니까?] 이름이 그 있는데 모르겠네. 이름이 있더라고. 이름이 있고, 난쟁이는 칠 난쟁이. 일곱이가 짹짹 있는데 보면 기똥 찬다.

[사상구 설화 201]

### 꼬부랑 이야기

박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우리네에,  
꼬부랑 할매가 꼬부랑 짹대기를 짹 꼬부랑 길로 가다가 똥을 늦거든에. 꼬부랑 똥을 누노닌끼네 개가 주우 묵고. [조사자: 그것도 개도 꼬부랑 갠가?] 그러는갑대. 그래가 꼬부랑 깽깽 꼬부랑 깽깽 카더랍니다.

[사상구 설화 202]

### 여우로 변한 딸

박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옛날에 어느 집 딸이 있었거든에. 딸이 있고 인자 소도 있고 짐승이 마이 있는데, 하루 저녁(저녁) 자고나온 소가 간을 빼 무뎠고 죽고, 또 하룻밤 자고나온 마 닭도 그래가 죽고, 모든 짐승을 다 자아(잡아)뒀거든에.

그래가 인자 참 저저 오빠가 있었어예. 저저 인자 부모들도 그래가 인자 다 자아뒀어예. 간을 빼가. 다 자아묵고 오빠만 남았는데, 오빠가 인자 한 날 저녁에 딱 인자 징키가(지켜서) 보니까네, 저저 동생이 인자 둔갑을 해갔고 그래가 인자 자, 자아묵더랍니다.

그래가 인자 다 자아묵고 나서는 오빠가 말로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여우가 따라가매,  
“오빠 한 때, 말 한 때. 오빠 한 때, 말 한 때.”

카미 따라가더랍니다.

[조사자: 오빠 한 때?] 오빠 한 때 말 한 때. 오빠 한 때 말 한 때. 고래 인자 두 자아묵는다

카매, 고래 인자 따라가더랍니다. [일동 웃음] 오빠 한 때 말 한 때. 오빠 한 때 말 한 때. [조사자: 오빠 한 때 묵고 말 한 때 묵고.] 예 말 한 때 묵고. 그래 인자 잡아묵는다 거기라요. 마즈막에 다 잡아묵고 막.

[조사자: 그 어찌 다행히 도망을 갔던가?] 모르겠어예. 그래가 끝이라예. 오빠 한 때 말 한 때 이래갓고.

[사상구 설화 203]

### 딴 사람 몸에 들어간 혼

박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사람이 죽었는데, 저쪽 마을에서 죽고 이쪽 마을에서 인자 죽어 둘이 죽었는데, 그리가 니는 안주꾸중(아직까지), 참 저승으로 가이커네,

“니는 안주꾸중 올 때가 안 됐다.”

이래가지고 가라고 보내나노이, 자기 그 혼이 자기 몸으로 안 가고 딴 몸으로 갔는 기라예. 그래가주그 인자, [조사자: 저승에서 나와가지고 딴 데 갔는 기라.] 예.

지 몸에 드가야 저거 가족들이 지로(자기로) 인정을 할 낀데, 그래 인자 딴 몸에 드가나노 이께네, 그래 인자 가족들은 깨놔노이께네, 몸은 그 집 몸인데, 마음은 인자 이쪽 집 거기 라예. 말하는 것도 이쪽 집 그기고. 그래 혼이 바뀌가 그래 하더라 카대예.

[사상구 설화 204]

###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박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인저 시어머이가 아프거든예. 아파갓고 오만 약을 해도 다 안 낫고 있길래, 인자 밤에 꿈 에 잠에 저 어떤 산에 가면 그거 묘가 있을 낀까네 거가서 다리를 하나 띠다가 살아가지고 믹이문 낫는다고, 이렇게 쓴즉 참 그 메느리가 어디 가 그 산에 가갓고 인자 밤에 가갓고 다리를 히나 띠가 오고 삶았어예. 삶아갓고 인자 약을 인자 시어머시 줄라고 인자 뚜껍을

열고 보니께 동삼이 산삼이 그래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 그 산삼을 먹고 시아마시가 낫더랍니다.

[사상구 설화 205]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하도 울어싸서 온 별짓을, 별 소릴 다 해도 안 돼가,  
“저 호랑이 온다.”  
캐도, 안 그랬다. 호랑이가 가만히 듣고 있게케네,  
“꽃감(꽃감) 주께. 울지 마라. 꽃감 주께 울지 마려.”  
떨컹 그치거든. 그런께 호랑이가, ‘아휴 꽃감이 내보다 더 무섭운갑다’ 싫어갓고 [웃음] ‘꽃감이 자기보다 더 무섭운갑다’ 싫어갓고 고마 도망을 갓뿌더란다.

[사상구 설화 206]

### 꼬부랑 이야기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꼬부랑 할무니가 꼬부랑 길을 가다가 꼬부랑 통이 누고 싶어서. [청중: 꼬부랑 짝대기는 빠자뿌따.] [조사자: 꼬부랑 할마이가.] 그람 이자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서 통을 샐어. [청중: 거는 다르네 우리하고.] 개가, 개가 그걸 주우 뉘어. 작대기로 갓고 때리게네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일동 웃음]

[사상구 설화 207]

### 딸집에 꽃감 가지고 가다가 다 빼먹은 어머니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옛날에 어떤 할매가 딸네 집을 가는데, 꽃감(곶감) 한 접 이고 딸네 집 갖다 줄 끼라고  
가가, 가가 갔는데, 저 거 하다가 하다가 산골로 산골로 이리이리 도는 디가 많아갖고 많이  
가다본께 마 배가 고평 기라.

한 모래이 가서 한 개 꾸워 짜 빼먹고, 또 한 모래이 가다 한 개 빼먹고 하다 본께, 딸네  
집을 가니 없는 기라 다 묵고. [일동 웃음]

그래 딸네 집엔 빈 걸로 들어갔지 뭐. 하다(하도) 이래 모래이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  
질로 매- 이리이리 돌아서 돌아서 갔다 아닌가배. 그래 가다가 본께, 배가 고파서 고마  
한 개 빼먹고 한 개 빼먹고 그래 뭐 꽃감 하나씩 다 빼 먹어빼고 딸네미 집엔 빈 손으로  
들어갔어.

[사상구 설화 208]

### 호랑이에게 떡을 다 빼앗긴 할머니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우리는 또 할머니가 딸네 집에 간다고 떡을 해갖고 이고 가이께네 호랑이가,  
“떡 한 개 주면 니 안 잡아묵지.”  
카거든예. 그래 한 개 주고 또 가다가 또 호랑이가,  
“떡 한 개 주면 니 안 잡아묵지.”  
캐갖고, 마 떡을 인자 다 쥐뿔는 기라. 멧 번 캐갖고, 그래가 딸네 집 갈 때 빈 걸로 갔  
답니다.

[사상구 설화 209]

### 죽었다 살아난 며느리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그 옛날에 시어마시가 하도 독해갖고 메느리 배를 굶리나논게, 동지풀죽을(동지팥죽을) 끓이면서 새알 그걸 갖다가 막 건지갖고 찬물에 송 적시가 묵고, 송 적시가 묵고 몇 개 묵고 마 죽어뻘어.

[조사자: 새알을 묵다가?] 뜨거버서. 간에 간이 뜨그와갖고. 그 인자 배가 고프니까 그 죽을 끓이면서 새알 그걸 갖다가 건디기라고(건더기라고) 그냥 막 시어마이 몰래 뭉께네 뜨그 번 걸 그냥 생키다(삼키다) 마 죽어뻘어.

그 죽어뻘는데, 반지가 반지로 인제 끼고 죽었는 기라. 반지를 끼고 죽었는데, 그거를 인자 물어나논게, 저거 삼촌이라 카든가 시삼촌이라 카든가 그기 아깝는 기라. 반지 낀 거. [조사자: 반지 낀 게.] [청중: 그거 빼러 갔구면 또.] 그기 아깝어서 인자 밤에 가서 그 산소를 팠어. [청중: 응 인자 반지 빨라고.] 반지 빨라고. 가는데 뻘께네 옛날에 그짜는 머 그 반지 한 개면 나락이 몇 섬이지 이래 썼다 말이다.

그래 판께네 살아가 나왔더란다. 살았더란다.

[사상구 설화 210]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그래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먼 이웃집 보통 보면 일이나 해주고 쪼깨씩(조금씩) 얻어먹고, 일해 주고 품팔이도 쪼깨씩 해가서 묵고 이라다가 인자 신랑 뒷바라지를 하다가 저거 신랑이 인자 과게 하러 간다고, 신랑이 과게를 하러 갔는데. [청중: 옛날 고전 이야기.]

그래갖고 탄 데를 시집을 갔는데, 밥이나 얻어무울랑가 싶어서 갔는데, 거서도 가난해갖고 또 강피 훑는 기라. 그래 과게를 해갖고, 신랑이 과게를 해갖고 막 올리고 오는데, 말 타고 이래 오는데, 오다가 본께네 강피 훑고 있더라네. 자기 마누래가.

[청중: 탄 데 가갖고?] 그라문. 탄 데로 가서도. [청중: 그래 과게 보러 간 새에 탄 데로 갔네. 그새를 못 참고.] 그래. 강피 훑는 저 마느래. 내 집에서도 강피 훑었는데 또 탄 데 가

서도 갱피 훑냐고.

[사상구 설화 211]

### 사람 고기로 시어머니 병을 낮게 한 효부[산삼동자]

박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인저 시어머이가 아프거든예. 아파갖고 오만 약을 해도 다 안 낫고 있기네, 인자 밤에 꿈에, 잠에 ‘저 어떤 산에 가몬 그거 묘가 있을 낄꺼네, 거 가서 다리로 하나 띠다가 삶아가 지고 믹이먼 낫는다’고 이러 캐서, 참 그 메느리가 어디 가 그 산에 가갖고, 인자 밤에 가갖고 다리를 하나 띠가 오가 삶았어예.

삶아갖고 인자 약을 인자 시어머시 즐라고 인자 띠꿍을(뚜껍을) 열고 보이께네, 동삼이, 산삼이 그래 있더랍니다. 예. 그래 그 산삼을 묵고 시아마시가 낫더랍니다.

[사상구 설화 212]

### 시어머니 죽이려다 효부 된 며느리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아들이 과계 하러 갔는데, 밭어 죽겼는데, 그 밭어서 인자 마 자꾸 거시이를 잡아갖고 삶아 쫓는 기라.

그런께 인자 할매가 하다(하도) 맛있어서 자리 밑에다 자리를 들치고 한 바리씩 한 바리씩 주 열어논께, 할매가 저 봉사라. 봉산데 그래 인자 아들이 과계를 해갖고 온께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엄마 참 얼굴 좋아졌네요.”

거시이가 얼마나 보약이던지,

“아이, 엄마, 참 얼굴 좋아졌네요.”

이런께네,  
“아이고 야야. 메느리가 하다 맛있는 고기를 해줘서 내가 묵고 저 이리 살이 찼다.”  
카는데, 자리 밑에 내가 열어놨는데, 자리를 들끼면서(들치면서),  
“이 봐라.”  
“아이고 엄마, 거시이네!”  
이랑께네, 할매가 눈을 번쩍 떴부더란다.

[사상구 설화 213]

### 며느리의 방귀 힘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하다 하다하다 얼굴이 노래져서 친정을 갔다. 그렇께네 아버지가,  
“야야, 니 얼굴이 와 그렇게 노라노?”  
이러니께,  
“아버지, 방구를 몬 꺾서, 방구 참다 본께 그렇기 얼굴이 노래졌다.”  
그런께,  
“그럼 오늘은 니 맘대로 꺾바라.”  
그랑께, 그래 인자,  
“모두 다 지둥을(기둥을) 잡아라.”  
꺾어. 지둥을. [일동 웃음] 다들 지둥을 잡고 있으이께, 마 봉 뽀께, 집 앞으르 밖에서 후딱  
날라가 가뻘어.

[사상구 설화 214]

### 자기 새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옛날에 또 인자 나물로 캐러 갔는데, 바위 밑에 고양이 새끼가, 인자 호랑이 새끼라. 고양이

새끼가 요래 등을 내밀고 나오는데 역수로 이쁜 거라.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쌈서로 막 이래 안아보고 막 씨담아(쓰다듬어) 준께네, 바위 우에서 어흥! 하더란다. 지 새끼 인자 좋다 칸다고. 이쁘다 칸께네, 지도 웃는 색인(모양인) 기라. 어흥!

하지만 놀래갔고, 나물보따리고 뭐 소쿠리고 뭐 바구니고 다 집어내빼리고만 집이로 다 쫓아왔더만은. 그 이튿날 아침에 본께네, 그 집집마다 딱딱 갖다 났더란다. [조사자: 바구니를?] 예. 나물 보따리를. 지 새끼를 예뻐해줬다고, 그래 해줬다고 그래 갖다 났더란다.

[사상구 설화 215]

## 나무꾼과 선녀

정정순(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나무꾼이 저 그 골짜에(골짜기에) 골짜에서 움막집을 지(지어) 놓고 사는데, 참 효자라. 효자라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인자 쌀 한 되씩 팔아갖고 참 엄마를 그 그 밥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한 문은 나무를 하러 간께네, 노리가(노루가) 팔딱팔딱 뛰서 뛰어오는데, 그 인자 그 포수가 잡으러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걸 심카줬는(숨겨주었는) 거라.

심카주나논께, 그 인자 노리가 포수 지나, 포수가,

“노리 한 바리 안 뛰왔냐?”

이랑께,

“노리 몬 봤다.”

이랬거든. 나무, 나무짐으로 심카놓고는 몬 봤다 그러논께, 그거 그 노리가 인자 그 선녀 기라. 선녀가 돼갖고 그 노리를 인자 나중에 본께네, 아가씬 기라. 그래 덕고(데리고) 와서 집에서 사는데, 그래 애기들 꿈에 그 선몽하기로,

“애기 셋 놓도록까지는 가르쳐 주지 마라.”

캬거든. 아 그거 그거는 그게 그기 아인가 모르겠다. [청중: 그게 아이지.] 그게 아니다 참. 그게 아니다. [조사자: 어 아인가? 저 저 선녀 있는 데를 옷을 훔쳐, 옷을 훔치고.] [청중: 나무하러 가가 선녀가 목욕하는데 옷 훔치가 오가 아 서이 놓을 탄에 가르쳐 주지 마라 안 캬나.] 그거는 그기다. 인자 어느 기 어느 긴지 모르겠다. [청중: 아 서이 놓는 건 그기다.] 아 맞다. 셋 놓도록까지는 가르쳐 주지 마라 캐난께, 고마 하도 그 마누라가 이빠싸고 좋아싸서 마 돌이 놓고 나서 가르쳐 줬어.

[조사자: 음 그 저 옷하고 있는 거 흠친 거 그걸 도로 줘. 응응.] 그래 목욕을 하는데 옷을 흠치가지고 와갖고, 그래 인자 옷을 흠치나논께 선녀가 하나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지. 딴 선녀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래 몬 올라가니까 자기는 고마 그 나무꾼을 따라와서 사는 기라. 살다가 본께네, 아를 둘이 낳았다. 그래 셋 놓두로까지는 가르쳐 주지 마라 꿈에 선몽을 했는데, [청중: 그랬으면 선녀가 되서 올라갈 낀디.] 둘이, 둘 놓고 나서 마 가르쳐 줘빼나논께, 마 한 쪽에 하나씩 끼우고 고마 하늘로 올라갔부더란다.

[사상구 설화 216]

### 며느리의 방귀 힘

최연이(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학장본동경로당]

시집을 갔는데, 인자 시집을 갔는데, 하도 노래. 얼굴이, 시아버지가 보니까. 얼굴이 노래서, “야야, 야야, 니 얼굴이 왜 그래 노라노?”  
이라니까, 부끄러워서 말은 몬 하고,  
“아부님, 아부님, 제가에 시집오기 전에 ‘절대 시집가서 방구 끼지 마래이’ 그래서, 말로 몬 하고 있다고. 방구 잘 편다고. 제가 방구 끼면 집이 일로 씨러지고 일로 끼면 일로 쓰러지고 그래가 그래 안 한다.”  
“아 꺼라 꺼라 꺼라.”  
이래.  
“맘대로 꺼라.”  
이런께, 마 저쪽에 가서 꺼니까, 마 집이 쿡 넘어가고, 또 저리 가서 팍 꺼께, 탁 넘어가. 그래 어찌 꺼니 탁 집이 서더래요. 그래, 그런 말이 있어.

[사상구 설화 217]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연이(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학장본동경로당]

메느리가, 시어머니가 눈을 못 보니까, ‘어째서 눈을 고칠꼬?’ 생각하다가, 누가 또 그런 말을 들었겠지요.

“이 지래이를 좀 꼬아가 드리라. 그러면 눈을 뜰 것이다.”

누가 그렇기다가 그 말을 듣고, 지래이로 파다가 인자 끓이가 주고 그려. 이상하게 맛있고 이래서 한 마리씩 요렇게 장판 밑에 했다. 했는데, 그 냉중에(나중에),

“어무이요, 그 머신지(무엇인지) 압니까?”

이러니까,

“지랭입니다.”

이렇게, 어? 하면서 깜빡 눈을 떴댔대.

[사상구 설화 218]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최연이(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학장본동경로당]

신랑은 선비라. 선비고 글만 하는 거요. 그래 여자는 못 먹고 살아갖고, 참 한 나라가(날에는) 피도 끓고 마 참 이래갖고 죽을 깊이 먹고 살았는데, 하도 그래 여자가, 하도 남자가 그 없으니까, ‘글만 한다고 냉중에(나중에) 고상하겠다’ 탄 데 마 가뻘어. 시집을 가뻘어. 마 버리고.

그래도 그 선, 저저 선비는 내- 공부하는 거요. 그래가 인자 감사가 돼갖고 인자 저 고을에 인자 가는 기라. 가마 타고. 옛날엔 가마 타고 막 순례를 도는 기라요. 이렇게 여전히 그 자기 마누라가 피를 뽑더래요. 아이구 머 피 뜯든 쟁피 머 다시 뜯네 카면서, 머 슬픈 노래로 신랑이 부르더랍니다. 그래 그 얘기가 있었어.

[사상구 설화 219]

###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최연이(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학장본동경로당]

옛날에 부엌이 있잖아요. 부엌에 인여 가마솥 있고, 아궁이 이만하고 그러니까, 머 앉아서, 때 이래 앉아서 빗자리를 깔고 앉으니까, 그게 참 머 멘스 그게 묻었어.

문어갓고 그걸 버리놔노이 거기 또깨비가 돼갓고, 또깨비가 돼갓고, 그래 길로 길로 이래 어데 갔다가 내가 가던 이래 오잖아요. 오는데 밤에 한 열 두시 돼서 오면은,

“내카(나와) 같이 가자. 내카 같이 가자.”

이러거든요.

“내카 같이 가자. 내카 같이.”

그래서 보몬,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라. 그래가 인자 이삼일 실로 가지고 고것도 맺어. 고 서(거기서) 매고 아침에 보니까 빗자루더래. 매나 놓고 가서 봤어, 뭇가. 빗자루가 또깨비가 됐어.

[사상구 설화 220]

### 또깨비에게 흘린 사람

최연이(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학장본동경로당]

학장에 요게도요. 이래 발전 안될 때 또깨비 있었어. 또깨비 있어. [조사자: 그런 이야기 들었네. 또깨비.] 예. 또깨비. 밤에 들어오는데, 자꾸만,

“어데 가자.”

카더래. 자꾸 가자 밤새도록 따라 땡기다 보니까 날이 새더래. [조사자: 그래 흘릿네.] 흘릿어.

[사상구 설화 221]

### 또깨비 사귀어 부자 된 사람

최연이(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학장본동경로당]

참 너무 못 살았어.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았어갓고, ‘또깨비 하고 사귀면은 부자로 산다.’ 그래서 인자 또깨비를 사꿨어.

좌천에 살았는데, 오데서 가이 돈을 그래 가 오더래. 돈을 가 오고 잘 살았어. 근데 인제 잘 살고 보니까 인자 또깨비 떨라고, 떨라고 이래,

“보소 보소. 우리가 이래 사는데 당신은 무엇이 제일 무섭나? 제일 무섭나?”

이라니까,

“백말 피. 나는 제일 무서운 기 백말 피다.”

그래가 떨라고 백말을, 백말 피를 어디서 구해갖고 온 전신에다가 마 뿌렸어. 그에 도깨비가,

“영! 에이 이년아 이년아.”

하면서 마 돈을 갖다가 막 썬져 주더래. 그래 더 부자가 됴대.

[조사자: 어허 지는 도망갔부고.] 도망갔부고. 불이래요 거게는. 백말 피가. 또깨비는 그 불로 보인대. 불. 불로 보인대. [조사자: 불로 보이는구나.] 어. 백말 피가, 그 또깨비 눈에는 백말 피가 불로 빈대요(보인대요). 이걸 우데서(어디에서) 내가 들은 말이라.

### 3. 사하구 설화

[사하구 설화 1]

#### 딱따꿈의 유래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딱따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 그 지형의 이름인데, 옛 옛날 그 백발노인이 이 어느 날 하얗이 인자, 이 저 뭇니까 안개 속에서 나오더만은,

“먼 훗날, 먼 훗날, 이 지형은 닦고 닦고 닦아서 어, 딱따꿈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딱따꿈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은, 먼- 훗날 분명히 거기에 예, 학교나, 학문하는 곳이 설 꺼다.”

꼬, 하얀 백발노인이 말씀을 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가 인자 옛, 인자 거슬러 올라가서, 한 몇 백 년 전에 그 지형을 딱따꿈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네로 인자 후손들은 우에 어르신들이 구전으로 딱따꿈이라고 하기 때문에 딱따꿈, 딱따꿈 이랬는데, 그 인자 딱따꿈이 원칙으로 할 거 같으면은, 거기에 딱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응, 딱나무로 많이 키웠는데, 그 딱나무가 서기 이전에, 어느 날 백발 그 저 뭇니까? 산신이 나타나가 하시는 표현이,

“먼 훗날 이곳은 분명히 닦고 닦으면은 좋은 이 학문의 터가 될 것이다.”

라 했는데, 이것이 인자 참 천년이 갔는지, 그거는 우리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그 곳에 학교가 밀집해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사하구 설화 2]

#### 안골새 유래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안골새라 했는데. 왜 안골새라 했느냐 하면은 여자가 방뇨를, 길거리에서 방뇨를 하면서 처마를 때고(치마를 펴고) 인자 길거리 방뇨를 한다 이래서러 그래 안골새.

[사하구 설화 3]

### 옥녀봉 유래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옥녀봉이 있거든요. 옥녀봉 이야기는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사자: 아니 옥녀봉 있다고 어르신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예. 예. 옥녀봉 요거는 인자, 삼성여고 고 근처로 가든지, 고계 또 나만 노인네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자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옛날에, [조사자: 옥녀가 뭐 하는 형상인가예?] 옥녀가 무슨 형상이냐 그러면은, 여자가, 옥녀봉이라는 거는 여자가 인자 항아리를 이고 인자 물을 뜨러 오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리이리 살피다가 어느 웅달샘이 있었더랍니다. 그계서로 물을 길어가지고, 인제 이리 이고 가는, 고 봉오리 형상이 그래가지고 옥녀봉 이랬습니다. [조사자: 이게 이고 나가는 형상입니까?] 예. 나가는 형상, 물을 이고.

[사하구 설화 4]

### 용이 죽었다는 용다움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또 인자 용다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면, 옛날에 암컷, 수컷 용이 났답니다. 근데 어 칠십, 육십일 년, 칠십일 년도 박대통령께서 여기에 인자 고속버스려 해가지고, 인자 고속길로 맨든다꼬 저거를 갖다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커다란 암놈, 숫놈 용이 나와가지고 허리가 뿌러져가지고, 그래 인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난 뒤에, 그 이후로부터 우리 지금 현재 기억에만 용다움, 참 꿈도 아름답지. 옛날 유년이 시절을 반추해 보면은 저 곳은 용다움 곳이다. 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곳이, 그래 인자 그래가지고 인자 참 배경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로 용다움이라 했고요.

[사하구 설화 5]

### 감천의 유래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또 인자 감천이거는 왜, 지금은 감천이라 하는 거는 인자 달 ‘감(甘)’자에 다가 요, 감천 아닙니까? 옛날에는 감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달고도 단 물이 내를 이루어서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감내라 했거든요.

우리 원, 이 지형의 원 본토 이름은. 그래서 감천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앞에 그 딱 두 곳을 딱 보면은, 제가 글로 지어낸 기 있습니다. 어,

“하늘이 처음 열리는 날 감천을 품었다. 아, 감천이여. 음, 수수 만 년 이어나갈 내 감천.”  
이래가지고, 고 글로 지어낸 기 있으니깐.

[사하구 설화 6]

### 성축끝의 유래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또 저쪽에는 어 지금은 인자 다 없어졌습니다. 인자는 다 매립이 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성축끝’이라 했습니다. 성축. 왜냐하면은 성축, 성축이라는 거는 성을 쌓아가지고 축대를 올리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성축이라 이라거든. 성축인데.

그거는 뭐냐하면은, 옛날에는 왜구가 마이 이렇게, 이 바닷가로 인해가지고 마이 침입을 해가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축을 지아가지고, 우리 요 인자, 어민들이나 민간 백성들이 인자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인자, 그 쪽에다가 화살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 왜구들이 이 들어온다.

아이면은(아니면) 낫선 사람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품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인자 성축 끝에다가 화살이나, 화약이나 이런 거를 인자 막아가지고, 인자 고 방어집을 딱 지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저짜서로(저쪽에서) 구멍을 파가지고, 우리 에릴 때 고 마이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우리 집, 바로 우리 집 밑에는 커다란 암벽이 있었는데 굴이

좀 있었어요. 굴이 있어가 그, 우리가 놀러를 갔는데, 이 굴을 그냥 우리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이 굴이 뭐예요?”

이러이까네,

“이 굴은 일본 놈들이 저거 무기 장치 할라꼬 그 해난건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로 다 철수해가 갔다.”

인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성축, 성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하구 설화 기]

### 신선을 당산신으로 모시는 감천1동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당산은, 당산이라는 거는 요게, 저 우에 올라가면 주산할아버지가 계시고, 요게는 요, 당산이 계시는데요. [조사자: 두 개, 두 분.] 두 분의 신이 있는데, 또 저 쪽 마을에 가면은 당산할머니가 계시요. 당산할머니. [조사자: 저 쪽 마을이라면?] 아니 요 앞에. 몇 발로 가면 우리 보도로 하면은 한 스물 보도로 그냥 가면은 그냥. [조사자: 다른 마을이네요?] 아니지. 감천1동 테두리 범위 내에서. [조사자 : 세 분을 모시네요?] 세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수령이 얼마나 있냐 하면은, 인자 조금만 있으면 저 분이 아마 정승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지금 아마 저 수령이 480 년 채(째) 지납니다.

[조사자: 수종이 뭔데요?] 수령. 수령. [조사자: 그니까 수종.] 그러니까네로 나이테. [조사자: 그런데 수종이. 종류가?] 수종은 아마 그, 뭇나무. 언니야, 엄마. [조사자: 평나무입니까?] 평나무가 아니고. 그, 헌 데 낫을 때 이거. [정중: 누릅나무.] [조사자: 아! 누릅.] 누릅나무일 겁니다. 누릅나무.

[조사자: 그 할아버지를 모시게 된 이야기, 전설은 없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모시게 된 전설은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날 구름을 타고 오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그 여러 신선들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분들은 인자 다 가고 그 할아버지가,

“이 곳에 내가 마, 기거를 하고 싶다.”

이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인자 다른 분들은 구름을 타고 인자 하늘로 다 올라갔는데 친구 한 분이,

“이 사람아 가세. 그 왜 자꾸 여기에 널쭉널쭉 하이 있나.”

까네,

“자네들은 다 올라가세. 인연이 안 됐는가봐. 나는 여기에 인연법이 닿는가 나는 이 바위에서

한심 자고 가려네.”

이래 댘는 거라. 그래까누로 다 같이 올라가야 옥황상제님이 자기 새끼들이 다섯 치를 보냈는데,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가 쳐지니까네로 형님들이 꾸지람을 들을 거는 사실 아닌가.

“그래, 가자. 인제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인제 가자.”

인자 마, 쉽게 표현 하자면 시간 타이밍이 딱 있으니까 가자 하나까,

“이곳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아주 경관이 좋을 곳이네. 나는 이곳에 마, 남을라네.”

이래가지고 그 신선이 남아, 남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인자,

“안 된다. 가자, 가자.”

이랬는데,

“그래도 나는 하룻밤 이곳에 기거를 하고 갈래.”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잤대요. 자고 나니깐 꿈에 그러더라고요.

“이곳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이곳인데 이곳 지형의 이름을 감내라고 지어라.”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로 감내. 그래 이라면서 인자 이거를 갖다가 밑에 인자 그, 그, 동료 인자 신선들한테 고,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 말을 했는가 봐요. 그것이 구전으로, 구전으로 내려 왔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다시피 그게 내가 답변을 하자면, 거기에 있었던 그 중에서 그, 이 산을 지키는 이 신선, 신선 한 분이,

“그러면은 내가 이 산을 맡겠다.”

이래 해가지고 하다가, 그 인자 후손인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네가 당산 주인이 되어 가지고 원대 이 산을 지키라.”

이래가지고 천마산의 이 정기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들은 인자 알 바가 없으니깐 시월. [조사자: 보름.] 아닙니다. 음력 시월 초이레 날이 되면은,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제보자: 그런데 왜 초이레 날 지냅니까?] 그 초이레 날 이제 고거는 날로 받아 가지고 지내는, 우리들의 인자 그거고. [조사자: 그러면 어르신, 세 분이, 한 분은 산신.] 예. 한 분은 인자 주신. [조사자: 한 분은 거리신.] [청중: 거릿대.] 예.

그래가지고 인자 이래 하는데 저 인자 원, 주산, 요는 당산, 저 앞에는 당산할매 자리 집, 요거는 당산할배집. 그래까누로 우리가 제사를 인자 조금 전에 인자 그, 당산을 지낼 때 동, 동제를 지낼라 그러면은 [조사자: 주산 동자.] 예. 동제를 지낼라 하면은, 동네의 강녕과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로 우리가 목신한테 이거 음식을 거룩히 바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날 제반들이 모욕을 짝 하고 벌써 열 두 시 정도 되면 올라갑니다. [조사자: 주산 먼저 제일 모시고?] 제일 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인자 열 두 시 딱 넘으면은, 다음, 다음 날이 안 됩니까? 그때 인자 밥을 해가지고 인자, 쌀도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조사자: 그 자리에서 밥을 하네요?] 그 자리에서 밥을 해가지고, 김도 참 안 새고 딱 그대로. [조사자: 솔 채로.] 솔 채로. 인자 올립니다. 올리고 그 짝에서 인자 다 하고 내려오면은, 인자 한 세 시나 네 시나 되면은 조금 피곤한 분들 인자 잠을 잤다가, 시간이 요, 보통 열 한 시에 그거를 합니다. [조사자: 당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하구 설화 8]

## 산신이 내려왔던 천마산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천마산은, [청중: 그기 역사라.] 옛날에 그 저 뭍니까? 저 산신이 내려오셔가지고, 딱 하강을 할라고 하니까네로, 옥녀봉도 있고, [조사자: 아! 여기 옥녀봉 있습니까?] 요 옥녀봉도 있고, 요게 인자 천마산이 있는데, 자기가 딱 첫 발 딛인 데가 이 천마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천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천신인데, 이기 인자 구전으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네로 천마, 천마산.

자기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이 말 ‘마’자 안 있습니까? 이 인자 말을 타고 천신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천마산. [청중: 천마산.] 이래 된 겁니다.

[사하구 설화 9]

##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땀을 흘리는 천마산 산신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일본 왜놈들이 올 때, 그 성축에 그거를 하면은, 그 우리 부산은 특히 제일 안전한, 육이오 때도 안전했고, 왜구 때도 참 안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땀이 나더랍니다. [조사자: 어디 저기 주산신?]

예.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러 그래 인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도 오도 안 했는데, 물도 뿌리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인자, 인자 이렇게 이슬이 인자 물이 자꾸 흐르느냐 싶어서 보이까네로, 딱 그라고 난 뒤에 일주일 안으로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 이 인자, 그래니까네로 사람의 형상은 아니로되, 마 비지같은 땀을 흘리든지, 눈물로 흘리든지 하면,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더랍니다. 이 천마산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말을 마이 씩니다. 천마산 정기, 또 천마산은 대단한 곳이다.

[사하구 설화 10]

## 당산나무 옆의 고인돌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다만, 요게 당산목에 가면은 고인돌이 있어요. [조사자: 고인돌.] 고인돌. [조사자: 선돌?] [청중: 돌을 갖다가 이래 내려가지 못하게끔 이래가지고 고정하는 돌을, 이 말이라.]

왜 고인돌이라 했느냐, 왜 고인돌이라 하느냐면은, 이 고인돌이 그 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바로 생매장 하듯이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인자 돌로 엮어 놔다 말입니다. 고인돌. 근데 고거는 인제 고인돌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영(靈, 영혼)이 빠지지 말아라꼬, 고 고인돌 하나 그 했는 기. 고기 지금도 있습니다. [조사자: 그래갖고 그거를 시신 위에 엮어 놓는 겁니까?] 아니지요. [청중: 밑에.] 시신 밑에. [청중: 도망가지 마라꼬. 흘러가지 마라꼬.] 영이, 영이 떠나지 마라꼬.

[사하구 설화 11]

## 효부를 도왔던 천마산 산신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우리 여계 감천 요 천마산이 왜 우리가 신영(神靈)이 이래 참 그옥하다 이래 하느냐면은, 요 옛날에, 요 우리 마을에 참 가난한 농부가 한 분 살아계셨답니다. 살아계셨는데, 그 편모가 몸이 마이(많이) 편찮으서러 그래,

“아야, 아야.”

하는데, 이 편모가 평상시에 감을 참 좋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 산에 감을 이래 주우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감이 없어가지고 깊은 산 중을 들어갔대요. 인자 들어갔는데 길을 일거(잃어) 버렸어. 길을 일거 버렸는데, 너무 인자 정말 이, 인자 젊은이가 나무하는 젊은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인자 호랑이가 인자 저 저 거기 저 산길로 가지 마라꼬, 입으로 옷깃을 물고 나와가지고, 자꾸 인자 이래 자기 등어리를 자꾸 이래 치는 거예요.

그래서러 ‘왜 그러지?’ 싶아서, 제일 처음에는 인자 엄마 두지가지고 너무 인자 겁이 나니까

웅크리고 있는데, 자꾸 앞발로 가지고 자기 등어리를 때리니깐 그래 인자 땀대요. 타니깐 이 양반이 비호걸이. 이 인자, 이 인자 이 범이, 호랑이가, 비호걸이 인자, [청중: 마을로 내리 왔다.] 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을로 내려와가지고서는, 그래 인자 이 할머니를 인자 태아 내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인자 감을 인자 뭐 따지도 못하고 왔는데, 고 뒷날 저녁에 호랑이가 이 감내, 요 요 천마산, 요 산에,

“우-, 우-.”

울면서러 고 집을 요래 내려왔더래요.

그래가 인자 그래가 뜨문 뜨문, 옛날에는 뭐 이만큼 집 하나, 집 하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오이, ‘그래 뭣이 저래 있는고?’ 싶어서 보니까네로, 그 어제 자기 내라 준 호랑이가 또 우짚어 있더래요.

그래서 갔디만은 어느 고을에 딱 대주더랍니다.

그래서러 ‘아, 이거 왜 대주고 나가지?’ 싶어서러 살- 이래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것도 제사 그기 없고, 감이 가-득 제사상 우에 올리져가 있더래요. 그래 인자 이 나그네가 가마 앞아가 있으니까네로,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하는 표현이,

“시장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님 제삿날인데, 그래 이 제사를 지내고난 뒤에 제삿밥을 공양을 하겠다.”

이래 댘는 거예요.

그래 인제, 이 인자 남자가 하는 표현이,

“그럴 여가가 없다. 어머니가 지끔 저승길을 가실려고 저래 예, 재축을 하고 계시는데, 제사를 지낼 수만 있다면은 지내고, 저 감 하나만, 흥시 감만 하나 주면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네로 제사를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이미 제사를 지냈으니까 다 가져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 있는 그 감을 가져왔대요. 감을 가져오가지고 인자, 그래 인자 딱 안으니까네로, 안꼬 나오려고, 그 인자 오밤중에, 캄캄하고 온 데 그 나무뻐에 없는 그곳에 하염없이 인자 이래 서가 있으니까네로,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더랍니다.

그 산신이라. 천마산 산신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인자 그래 인자 이분을 실고 왔어요. 인자 자기 등에 인자 타고 인자 내려가지고서는, 내라주는데 그 감을 먹고 인자 엄마 이 감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인자 그래 그 산 인자 그 감을 얻어가 와가지고 인자 어무이로 드렸더만 그게 낫았어. 낫았는데

그라고 난 이후로 이 호랑이가 그 너무 고마버서러 어데가 어덴공 싶아서 인자 한 번 쳐다 불라꼬 이래 보니까네로, 그 호랑이가 그 인자, 천마산 이 등, 등어리에 그래 쓰러지가 돌아가셨더랍니다. 죽았더랍니다. 그래서러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러 땅을 파가지고 그래 묻어 쫘다는 그 구전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사하구 설화 12]

## 저승에 갔다 온 사람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인자 그 뭐니까? 사람이 인자 죽을려고 할 때에 어, 칠성판 있지요? [조사자: 칠성판에 실려 와 하는.] 칠성판. 그래 인자 내가 인자 칠성판 인자 이야기는 왜 인자 여쭙느냐면, 돌아가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네로 하는데.

그 사람은 옛날 그 저 칠성판에 이래 모시놔답니다. 먼데, 고 뭐 어느 정도 날이 인자, 시간이 가야 염을 하던지 하는데, 아 나무를 딱- 하러 가니까, 이기 움쩍 거렸던가 봐. [조사자: 칠성판?] 아니. 칠성판이. 시체가 움쩍거렸던 가봐. 죽은 인제 시체지. [청중1: 시체다.]

시체가 움쩍 거리니까네는 ‘아 이거야.’ 싫어서로 염, 염 인자 풀었던가 봐. 이래저래 해냈던 거 풀았지만은, 그 양반이 우리가 알기로도 엄치 있을 때까지, 요게 저거 와 그 염한다고 묶어놔제? [청중1: 염한다고 묶은 자리가 남았구나. 아하-.] 요 묶은 자리가 시커멓게 있대 그 할아버지가. 응 오래도록. 그래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할아버지는 우째서 조래 딱 요래 시커멓는데?”

이래 하이까네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서 산에 이렇게 칠성판에 놔놔는데 할, 할아버지가 깨나가지고 그 염할 때 딱딱 묶어놔던 고 자국이래. 고 자국이, 그 자국이 남아 있었어. [청중1: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조사자: 그럼 다시 태어 나셨네요? 아, 깨어 나셨네요?]

그렇지. 죽은 사람이 깨어났지. [청중1: 죽은 사람이 깨어났지.] [청중2: 웃각단에 웃각단에 살아꾸만.]

[조사자: 그런 분들은 저승 갔다 온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래 그란대. 그래 그라더라요 할배가. 그 자기가 딱- 가니까 커다란 강이 있더라요. 강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강을 가니까네로, 강을 건너지 마라 하더라요 사람들이. 그 그. [청중1: 건너면 저승이다.] 저승에서 건너지 마라 하는데, 아 이 사람이 건너갔던가 봐. 건너갔는데, 그래 인자 이야기인 즉슨 그렇습디다.

“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깐,

“누구 누구입니다.”

이래 말 하이까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래 물으니까네,

“그냥 와서 모릅니다.”

카이,

“내가 저승사자다.”

이러더랍니다.

“그래, 니가 그렇구나.”

하면서로.

“근데 너는 올 사람이 아니야. 너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자가, 내 부하들이 너를 잘못 다리고 왔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꼬 사과를 해야 되겠네. 근데 자네가 돌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되, 내가 주는 그 강아지, 강아지를 따라 가게.”

이라더래요.

그래서러 인자, 강아지가 쫓로로 하이, 고 딱 놔놓으니까네, 그 강아지를 따라 나오는데 그래, 커다란 인자 큰- 대동강. 나는 대동강 모릅니다만 마, 한강이라 생각하고, 그 인자 물로 건너야 되는데,

“어찌지?”

이래 말 하이까네로,

“할아버지 뭐 그렇게 어려울 꺼 할 꺼 있어요? 강을 건너지 말고.”

그 인자 강아지가,

“둘러 가면 되지요.”

이러면서로 산기슭으로, 산기슭으로 해가지고는 인제,

“할아버지, 인제 여기서 그만이에요. 나는 집에 가야, 글로(그곳으로) 가야 되요.”

하면서, 짝 밀아뿔어 할아버지를, 이 강아지가 발로, 뒷발로 가지고. 그래가지고,

“깨갱!”

하면서 인자, 고양이, 저게 그 강아지는 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

이라고 깨보니까 자기가 싸매지가 있더라. 그래서로,

“날로 깨배 주가(깨워 달라). 날로 풀어 주가.”

해가지고 그래. 자기 깨났다. [조사자: 옛날에는 저승길 안내하는 게 개였다. 그지예?] 개. 강아지. 강아지.

[사하구 설화 13]

### 밤에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새앙쥐, 새앙쥐가 나옵니다. [청중: 작은 쥐를 말합니다.] 조그만한 요, 머리에 이 같은 새앙쥐가 나온답니다. 그 새앙쥐를 인자 따라 가면은, 인자 그 사람이 가는 거고, 그 생쥐를 안 따라 가면은 [조사자: 그게 인자 혼입니까?] 그기 인자 요 혼이 드갔다 나갔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런 말로 마이 합니다. 밤에 잘 때, 음- 화장 그리고 자지 말아라. 밤에 잘 때, 왜 우리가 밤에는 화장을 지우느냐 하면은 그 유래는 내가 하나 이야기 할께요.

보통 요새는 인자 뭐, 피부 그 관리를 하고, 피부 마사지를 하고 이라지만은, 옛날에는 그 인자 뭐, 참 화장을 새신부들이 화장을 안 합니까? 한께는, 한 밤중에는 화장을 필히 지웠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과 같이, 이 새앙쥐가 나오기 때문에, 화장을 해나 내놓으면은, [청중: 문 찾아가 들온다.] 자기가 문 찾아온답니다. 고 혼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지우고, 본 얼굴이라야만이 고 인자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 혼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 얼굴로 찾기 위해서 그래,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 세수를 했답니다. [조사자: 그니까 밤마다 나오네요?] 그래 그렇지. 밤마다 나오지.

[사하구 설화 14]

### 도깨비와 합방한 사람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왜 그렇냐면은 찌가(쥐가) [조사자: 예, 고 이야기 좀 해주시이소.]

왜 그렇냐면은, 왜 손톱 발톱을 못 깎구로 하느냐 하면은, 손톱 발톱을 깎으면은, 찌가요 사람으로 변신을 한답니다. [조사자: 그런 적이 있었던가예?]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로 하니까, 내가 하나 머리에 떠오르는 기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이, 어 괴정이라는, 괴정에서로 내려오면은, 옛날에는 저기 보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수수깡, 수수깡, 보통 우리가 뭐 여 여 남자들이 없으니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네. 멘스를 이래 치면은, 이 빗자루를 깔고 자지 마라 합니다. [청중: 깔고 앉지 마라 이기지.]

왜냐하면 멘스가 예를 들어서 그 문으면은, 그게 저 귀신이 된답니다. 귀신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래 자꾸 이제, [청중: 해칠 수 있다.] 해칩니다. 해친다는데. [조사자: 그 귀신을 해치이라 합니까?]

그래서러 인자, 해치기 때문에. [조사자: 해치라.] 어, 해치. 해친다고 해치이. [조사자: 아! 그거구나.] [청중: 해칭이가 나왔다 이라거든.] 해칭이. 해칭이다. 이라는데 이 해칭이가 겁이

나서러, 울로 쳐다보면 지 눈높이, 눈높이, 눈높이, 눈높이, 눈높이 올리고, 쑥- 올라가고, 그래 서로 밤에 사람을 보면은 나차(낮추어) 이래 보지. 울로 쳐다보라 안 한답니다. [조사자: 그래요?] [청중: 그 참 옛날이야깁니다.] 왜? 해친이가, 해치이가 눈높이만큼 자꾸 올라가니까 네로. 그래 인자 여 자꾸 밑으로 내라 봐야지, 그러다보면 쪼개 난 놈은 얼마든지 잡아 직일 수 있고, 뚜드려 팸 수 있지.

근데 이 인자 우리 아버지 친구 되는 분이, 이 인자 예-뽀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래 인자 흐느껴 울었던가봐. 그래,

“왜 우냐?”

이래 말하니까네로, 그래 마,

“그냥 서러워서 운다.”

이랬던가봐. 그래 인자 우리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이,

“그라면 마, 내가 니를 품어주며 안 되나?”

이래가지고 마, 만리장성을 쌓았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새벽녘에 떡- 일나 보니까네로 빗자루 몽둥이 있지요? 빗자루 다 쓰고 모지랑 빗자리. 거기 자기 팔에 딱- 있더랍니다. 그런 또 뭐 이야기가 있다 캐.

[사하구 설화 15]

### 업구령이를 죽여 벌 받은 며느리

김응자(여, 194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참 부잣집이었는데, 어 부잣집이었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이 집을 시집을 왔답니다. 구령이 이야기니까 제가 합니다. 시집을 왔는데, 아침저녁으로 일로 하니깐요,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젊은 새댁이가. 한 번 실 틈도 없이 내- 그냥 오는 손님상을 내야 되고, 상을 내야 되고 이라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네로 뭐 천석꾼인가 만석꾼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인자 너무너무 이 어린, 이 신부가, 새 신부가 피곤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천장을 쳐다보지 마라.”

했대요. 그래,

“왜 어머니 천장을 쳐다보지 마라 합니까?”

이래 말 하니까네로, 거게는 김을 빨아먹고, 이 밥을 하는, 옛날에는 밥을 다 아궁이에

불로 때가 밥을 했잖아요. [청중: 그래.] 불로 때가 밥을 하는데, 이 밥 냄새가 우리가 그렇게 꾸수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마시느냐 하면은, 그 집에, 그 저 뭇니까 영물인, 업인 구렁이가 이 냄새를 맡게 됐는 기라. 그렇는데,

“그래, 아가 만약에 그것이 보이거들랑은 너는 본동 만동 하거라. 그래, 우리 집 업이나라.”  
이래 가리켜줬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이까네로, 인자 업이 그 천장에서 이래 그 하니까네로, 뭐, 요만한 구렁이 얼굴이겠지, 그기 인자 김이 나니까, 인자 지 탄에는 인자, 코, 혀를 발름발름 했던지. 범의 형상이 인자 우리는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 그 하는데, 그래 냄새를 맡고 인자 보이지 않으면은 인자, 지 곳에 인자 들어갔겠지요.

너무너무 일하는 기 지켜워가지고, ‘에이씨 내가 요거를 직이뿌야, 집이 망하겠다.’ 이래 생각을 ‘내가 일이 수월겠다.’ 이래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불로 때면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별경이 달았어요. 부지깽이를 달아가지고, 이기 인자 밥 냄새만 맡으러 나오면은, 올리보고(올려보고) 눈을 찌르고, 마 이래 마 이 얼굴로 화상을 찌르이까네, 이게 마 뜨거바 가지고 그 냄새를 맡을라 하다가 안을 썩 들어가고, 썩 들어가고 했던가 봐.

근데, 또 어무이가 밥을 할 때 되면은,

“아이고- 이, 우리 집의 업신님요, 어짜던지 마이 응감하시고, 이 가정이 번창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면서 빌고. 또 밥 펴 때는 이 삼 분 이렇게, 이래, [조사자: 저어 가지고.] 이래 떡- 하면 김이 확-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자 좀 있다가 밥을 펴고 이랬는데, 그래그래 인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시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깐, 인자 메느리가 인자 지가 인자 가모(家母) 아닙니까. 가모가 되어가지고 인자 이거를 그 했던가 봐요. 근데 그 날로부터 매일 찌짚어. 그러니까네로 배도 고프제, 김을 문 마시니까 배도 고프제, 또 이제 온 얼굴이 화상이제, 찌지나나놓이. 그래 가지고 어느 날은 지도 인자 앤만하면은(웬만하면은) 이 집에 터주대감 비스듬하게, 인자 ‘지키미’ 우리는 표현할 때는 ‘찌끼미’라 하지만은, 우리가 글은 ‘지킴이’ 아닙니까. 지킴인데.

이 집을 지키 줄라꼬, 자기가 지키미 노릇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이래 찌지고 배를 굶기니까 도저히 안 돼서, 밥을 좀 치다가, 천장에서 죽었어요. 어느 날 특- 하고 보니깐, 커다란 구렁이가 인자 덩석말이겘이 인자 땅에 떨어졌는 거라. 부엌이지. 옛날에는 우리가 정지라 이래 했는데, [청중: 정지다 그.] 부엌에 인자 떨어졌는 거야. 요새 부엌이지, 옛날에는 정지라 했습니다. [청중: 정주라 했어.] 예, 그 정지에 인자 마당 안에 떨어졌는 기라. 그리고 난 뒤에 삼 년 안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여자도 그래 굶아 죽더랍니다.

[사하구 설화 16]

## 우렁각시

백만녕(여, 1936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자꾸 자고 일어나면 밥상을 차려놓고, 차려놓고 그랬거덩. 그래서는 한 번은 엿을 봤어(엿봤어). 엿을 본께, 이-쁜 처녀가 나와가 밥 차려놓고 소라뽕이 속으로 쏙 들어가더란다. [청중: 소라뽕.] 응, 그런 이야기 있어요. [조사자: 그래갖고 어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각시를 잡았어. 잡아갖고 살았어. 응, 살았어. 각시 데꼬 살았어. 아, 그 사람이 공을 마이 저 세운 사람인께, 그런 흥제가(횡재가) 생겼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사자: 우렁각시랑 결혼해가 살았네요.] 그렇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사하구 설화 17]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황완용(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앤날에(옛날에) 뭐, 늦게 결혼해가주고, 하도 아를 낳아아 노이께,(날아 놓으니) 너무 귀해가지고 막 이래 치켜들고 막- 이케 싸인께, 스님이 시주하러 왔더란다. 시주를 하러 왔는데, 몬 살고 그 너무 가난하니까 줄 끼 없어가지고,

“우리 아무꺼시를 주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무꺼시를 주까.”

이케쌌는 기라. 그케 나나논께 시주도 받아가도 몬 하고, 아도 그 델고 가도 몬 하고, 냅두고 가가지고 종을 맨들었는데, 스님들이 시주를 해다가 종을 맨들었는데 소리가 안나. 소리가 안 나더래. 소리가 안 나서 그 시주하러 댕긴 사람 불러놓고,

“어데 시주하러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물었는 기라. 물은께, 그래 참 그 시주도 몬 받으면서, 뭘시를(무엇을) 줄까? 아를 어예 받아가노? 그래 그케 싸서,

“아도 모(못) 받아가고 돈도 모 받아가고 쌀도 모 받아가고 아무것도 모 받아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 아를 데려 오라.”  
이랬는 기라. 그래 그 아를 델고 가니까 그 종을 다시로 뿌사가(다시 부수고) 다시 맨드는 데 그 아를 여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논께,  
“에밀레-, 에밀레-.”  
칸단다. 그 종이.

[사하구 설화 18]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황완용(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고려장 그거는 또 뭐를 했노카마, 저게 부모가 너무 오래 사니까 지업는 거야.(지겨웠던 것 이야) 이야기 들은 이야기지 내가 봤나 뭐 우옛노? 그래 너무 지업으니까 부모를 업고, 산, 그 인제 고려장 하러 갔어. 고려장 하러 가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그 산에 산골 짝으로 골짝으로 간께, 날 갖다 내빼리러 간다 하는 걸 알았는 거야. 그 올 때 길 못 찾아 온다꼬, 아들이 지계를 담아 지고 올라가는데, 나무를 똑똑 끊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기라.

그래 엄마가 뭘 하려고 싶어, 업고가기 대니까(힘드니까) 몰랐지. 그래,  
“엄마는 뭘 그리 하요?”

좀 가다가, 평지가 나오든가 그 칸께,

“네가 나 델다 놓고 올 때, 질 모를까 싶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 나라고 던졌다.”

그라거든.

부모는 항상 부모라. 그래 부모가 했디만은, 갖다 나논께, 어마이를 그 갖다 놓고 왔어 집에. 그래 자기 아들이,

“아부지는 어데 갔다 왔느냐. 할매를 지고 가서 우옛노?”

물었는 기라. 그래 인제 이만큼 저만큼 했는가 봐. 그래 그 아들이 그 지계를 갖다가 탁- 그때 막 당걸어매(달아매어) 놓더란다.

“그래, 그 지계를 왜 당걸어매 놓노?”

카이께네,

“아부지도 후제 할머니만치 늙으면은 내가 그럴꺼요.”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졌대요. 거기 정부에, 임금님한테 그 말이 올라가가 주고. [조사자: 음- 그래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거기 없어졌다.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은 기지 다른 거 없다.

[사하구 설화 19]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황완용(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아들이 인제 돈 벌로를 갔어. 옛날에 일본도 가고, 보컬대 뭐 어데도 가고 안 하나? 그래 가는데,

화토도(화투도) 문 치겠다. 돈도 모(못) 따게 자꾸 잃겠다. 자꾸 화토를 치, 저 저 이야기 하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인제 그 할매가, 그 아들이 돈을 벌이가지고 오니까, 할매가 마 살이 보양이 찌가지고, 앤날에는(옛날에는) 이래 뇌졸증으로 쓰러지면, 병원에는 돈 가고 집에서 구완을 했는 거라. 돌아가시지도 안하고, 집에 낫나놓고.

봐라 화토 치라 안 하나? [조사자: 치시면서 해주시이쇼.] 그래가지고 인제 아들이 돌아 온께 그 할매가,

“아이고, 어무이가 뭘 잡숫고 저리키 신간이 좋은고?”

싫어가지고, 그래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인제 앤날에는(옛날에는) 자리 깔고 잤거든. 자리. 자리. 자리를 깔고 불 때고, 그래 자는데. 그래 인제 그 자리를 들디만 뭇을 꺼내더란다. 하도 맛있는 걸 해줘서 하나씩 구들맥에(구들장에) 넣어놓았는 기라. 자리 밑에 불 때는 데, 넘은 모르지 거기. 그래가지고 여놔나논께로.(넣어놓으니) 인제 거기 바짝 말랐겠지. 그래 아들이 온께로,

“그래 애미가 이걸 해주더라. 이걸 해줘서 먹으니까, 내가 이래 살이 찼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 그거를 뭐신고 싶어 본께, 그래 인지 징어리(지렁이)라. 그 그 하수도 파만 나오잖아. [조사자: 지렁이.] 지금은 거기 뭐.

화토 돈 다 잃겠다. 그 얘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참 자기 부인이 효부다. 이런 좋은 걸 해가지고 드리놔놓이, 돈은 없꼬, 노인이 입맞은 없고, 그게 보약 한 가지라 카대. 보신 된다대. 그래 그거를 잡아가지고, 하수도 가서

맨날 잡아가지고, 국을 끓이가지고 드린게, 잘 잡승게로(잡수니) 그리 해드렸는 기라.

궁께 보양이 살이 찌가 있으니께, 그래 인제 아들이 하도 맛있는 거 내 혼자 몰라이 아깝고, 여 낫다가 아들 오면 줄라꼬, 그래 내 놓는데 그게 징어리더란다. 징어리(지렁이).

[사하구 설화 20]

### 잘못 된 자식 교육

황완용(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더덕머리 총각이, 이기 그 애긴강 나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저 저 아를 하나 나나논께(날으니) 귀해가지고, 더덕머리 총각이 마, 저 너무 못 살아서 산에 가서 산을 쪼사가 파전 일아가(일구어) 먹고살고 이런 시대라.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 그래 부부간에 아를, 결혼 몬 하고, 더덕머리 총각이 결혼해나 노이, 그 총각이 너무 자기 아를 나아노이 귀할 꺼 아이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가르친다 카는 기, 배안(배운) 것도 자기가 없지. 동네 이우지 사람 사는데도 없지. 즈그끼지 살면서 좋아싸 가지 고(좋아서),

“엄마 한 차례 때리고 온나.”

그래, 어마이는 또,

“아빠 한 차례 때리고 온나.”

애기 때, 췌매난 애기 때, 교육이라 카는 기 그런 식으로 시켰단다. 그래가지고 인제 장성 해져도 자꾸 때리는 기라. 그기 질이 돼가지고.

그래 나나논께로, 참 동네 사는 데, 사람 사는 데 내려와 본께 그기 아니거든. 그기 아닌께,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 동네에 내려왔었다. 동네에 내려와가지고, 그래 인제 교육을 다시로 시키는 기라. 그래가 다시로 배와가지고 그 사람도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 듣고 보고 이것도 배우는 기라. 학교 교육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래 했다. 자기가 배왔나? 아무것도 둘이가 안 배왔지. 더덕머리 총각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성이라 카는 거는 마, 내마(나만) 알 게 되거든. 그래가 아를 나아놀이 너무 너무 귀한 기라. 그런 식이라. 교육이라 카는 기 그기라.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더덕머리 총각이 그리 살았다. 옛날(옛날) 옛적에.

[사하구 설화 21]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황완용(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영감, 병어리 둘이 살았는데, [조사자: 병어리 둘이, 아하-.] 영감 할마이가, 영감은 봉사고 여자는 병어리라. 그래 둘이 살았는데, 동네 불이 났는 거야. 동네 불이 나나논께, 병어리는 눈이 밝은께 쫓까댕기잖아(쫓아다니잖아) 운제. 그래 댕긴께로, 그래 인제 영감은 봉사라놓이 바양(방에) 들았았고, 들았아가주고, 그래 인제 나가서 막- 동네 불나면,

“불이야!”

캐싼께, 바양 앉아서 봉사는 듣거든 귀가 밝아서. 병어리는 눈으로 보는 거 뿐이지, 말도 문 하고 귀로 듣도 문 하거든. 그래나나논께 인제 손으로 가지고 이래 흥내만 내는 거라 병어리는. 그래,

“어데줍치(어디쯤) 탔더노?”

인제 불 났은께, 봉사는 듣고 알고 그 칸께, 그래 그 남자 꼬치를 만지매,

“그래, 그래 탔다.”

칸께.

“아, 동네 복판에 불이 났구나. 어디 불이 났더노?”

카이께, 그래서,

“동네 복판에 불 났구나.”

캬다 카대. [조사자: 그래서 얼마큼 남았던고 하니까?] 그래 얼마만큼. 다 알매 뭐하러 묻노?

“얼매만큼 다, 저 저 다 탔더나? 얼매나 남았던노?”

칸께, 그래 그거를 만진께네,

“아, 대들보만 남았더나.”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22]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송은의(여, 1938년생) 구술  
2015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구감경로당]

시주 뭐, 옛날에 뭐, 시주하라고 그래서 와서 시주를 하는데, 쌀을 안 주고, 쌀도 없다 하면서, 저 그,

“아이나 데려 가라”

고, 인저,

“아이나 봉사한다.”

이래갖고, 그 아이를 안 넣으니까는 종소리가 안 나가지

[사하구 설화 23]

### 수숫대가 빨간 이유

강춘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근데 옛날에 아주 가난한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버이는 죽어뿌고 아들만 다섯이로 놔놓고 어마이가 팔죽 장사를 하는데, 그래 팔죽을 이고 가 팔아가이고 와야 인자 먹을 걸로, 쌀로, 좁쌀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이는데, 그래 이 쌀 사러 팔죽을 이고 가다가 호랭이가 나타났어. 호랭이가 나타나가주고, [청중1: 떡장수 간다 그랬지, 팔죽은 무슨 팔죽.] [청중2: 낱 뒤.]

그래, 우리는 또 팔죽이라고 들었어. 그래 팔죽을 가다가,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안 잡아먹지.”

했대. 그래 가지고 호랑이가 한 그릇 줘. 주고 가다인께, 이게 먹고난께, 맛 보인께네 또 따라 와가지고, 그 팔죽 또 달라 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또 절반을 줘. 절반을 줘. 한참 있다가,

“마제(마저) 주야 되지 안 그러면 다 잡아먹는다.”

는 기라. 그런께네 지 안 자아먹힐라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시이께네, 그래 인제 팔죽 그릇을 고마 다라이채로 줘. 줘디만은 인자 텔래텔래 마 아들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인제 다 호랭이한테 다 뺏겼다고 이야기 할라 켜는데, 아 호랭이가 먹고 따라와가지고 그래,

“그 팔이로 날로 줘야 되지, 팔이 안 주면 잡아먹는다.”

카는 기라. [청중1: 팔을?] 그러니까 팔을 띠여줘야 되는 기라. [청중1: 그 소리는 안들었다.] [조사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을 띠가 줘. 그래 줘디니만은, 아이 또 돌아와 보고 한 팔을 마저 달라는 기라. 마저 준께네, 인자 벌어먹을 길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게 아가,

“엄마, 그래 인자 팔을 다 주뿌고, 양팔 주뿌렸고, 엄마 벌어먹을 길이 없어 인자 클(큰일) 났다.”

이러인께네, 그래 인자 호랑이가 있다,

“요놈 새끼들, 너 잡아먹는다.”

이랬는 기라. 그래가 마 와- 달라 드께네 아들이 마 나가는데, 영겁절에 하나가 나무에 올라갔어. 한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내다보이, 쫓아 나오는 걸 봤는데, 호랭이가 나오인께네 없는 기라. 그래 샘이를 들야다 보이께네, 샘이에 아가 그늘에 비는 기라. [청중1: 낭개(나무)에 올라갔다, 낭개.] 그래, 그늘에 비인께네, 저게, [청중1: 지가 조(저기) 드갔다.]응, 그래 우에서러 비치는 줄로 모르고, 샘이가 위에 눈에 나무에서로 내다보고 헤헤 웃으니께네, “저놈의 딸아가 조 물 속에서 웃는다.”

꼬, 그래가지고,

“조를(저것을) 꺾어가지고 저를가(저것을) 잡아묵어야 된다.”

꼬,

“조리로가 꺾지까, 툭바이가 꺾지까 조리가 꺾지까?”

그래 했다꼬, 옛날에 우리 엄마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꼬. 그래 가주고 그러인께네, 우에서 아가 본께네 헤헤 하거든. 그래 우에 본다고 보이께네, 아가 나무 꼭디에 올라가 앉아 헤헤 한께네 그리 엄두가 안 나잖아. 호랑이가. 그래,

“조리로 꺾지까, 저저 툭바이로 꺾지까?”

커고 있는데, 이 아가 나무 우에서러,

“헤헤”

한께네 그래 나무에 호랑이가 문 올라가. 올라간다꼬, 올라가 잡아묵을 끼라고 올라가다가 또 마 턱 널찌고(떨어지고) 널졌는데, 수수꺨때기에 널찌버려, 수수꺨때기가 빨건게 왜 빨경노 칸께네, 그 호랭이 툭구녕에 찢리가지고 수수꺨때기가 빨경다대. 그래, 그 이야기를 했어.

[한금심]

그래, 그래 저뻘에(전에) 인자 아 둘을 자아묵을라고,

“니는 니는 어찌 올라왔노?”

“어, 참기름, 저저 어디 집에서 참기름 한 병 발라가지고.”

마 저 궁디를 팍팍 썬시가지고 그래 또 못 올라가고,

“니는 니는 어찌 올라갔노?”

또 하나가,

“나는 도끼로 얻어가 콕콕 찍어가.”

고마 올라오거든.

“하나님, 하나님, 날 살릴라거든 새 줄 내라주고, 날 죽일라거든 헛 줄을 내라주소.”

한께, 새 줄을 내라줘, 요래 타고 올라가니, 호랭이가 탁 올라와가지고 지도,

“날 살릴라거든, 응 새 줄 내라주고 날 죽일라거든 헛 줄을.”

예구 헛 줄 내려와 궁디 썬서 죽었다 카대.

[강춘자]

우리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꼬.

[사하구 설화 24]

###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강춘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부자가 목욕을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인자,  
“아버지부터 가소. 뜨겁다.”  
“아들부터 드가라.(들어가라.)”  
카이, 또 아들은,  
“아버지 부텨 드가소.”  
이래. 서로 미루다가 인자 아버지가 드갔어. 드가이께네,  
“어-, 시원하다-,”  
이러고 드가이께네, 그래 아들이 보이께네, 아무래도 이 김이 술-술 나고 뜨거불(뜨거울)  
것 같아서 안 갔어. 안 가고 그니까네,  
“아버지, 진짜 시원해요?”  
이런께네,  
“진짜 시원-하다. 여 들와봐라.”  
이랬는 기라. 그래 가지고 드갔다. 드가이께네,  
“어- 뜨게라.”  
이 뜨거번데, 아는 뜨겁잖아. 쪼금만 뜨시도. 뜨거브니까네  
“어- 뜨게라.”  
이러이께네,  
“아이고-잉,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아들이 그래 썬다. 아버지로 어 그리 시원하다고 들어오라 캬는데, 드가이께네 뜨거버서,  
어 그랬대.

[사하구 설화 25]

### 여자 믿을 문 계를 떼어준 중

강춘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아이, 여기는 또 그리 이야기하는데, 또 딴 데는 또 이야기하는데 보이 이려더라. 점심을 (점심을) 이고 가다가 오줌이 매립어가지고 임야로 누는데, 그래 이기 끼(게)가 올라와, 오줌 구멍에서 마 끼가 타고 올라와가지고, 뜨시이께네 올라와서 물었어.

물으께네 이놈 물리가지고 이지도 내루치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있신께네, 중이 하나 지내 갔어. 중이 지나가이께네,

“아이고 대사님, 내 밑에요 이래가 물리가이고 꼼짝도 몬 하고 점슴(점심) 이고 가야 되는데, 저 들에는 기다리는데 어짤까요요?”

이러이께네,

“하- 봅시다.”

이래께네, 뭐 보이지도 기가 차거든. 저 저 목탁을 대고 뚜드리짜.

“조, 조암새, 국지 조암새.”

하고, 오만소리 뭐,

“끼 좀 놔 주세요.” [일동 웃음]

목탁을 막- 뚜드리께네. 이기 놀래가지고 놔쫘어. 놔주이, 그러이께네,

“하이고! 이제 됐어요.”

커이께네, 하이고 이고 가이,

“하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이놈 땀에 절을 못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컨께,

“예, 됐습니다. 가소.”

이래 놓고,

“허, 삼십 년 목탁 들고 땀기도, 저 저게 그 보지에다가 저가 목탁 뚜들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청중: 그래 해쫘대.]

[사하구 설화 26]

## 구식도 좋더니만

강춘재(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농 우에 그릇, 저게 그릇 애킨다고 여 났는 기, 마 졸- 다 널졌어. 널진께,

“아- 구식도 좋더만은, 또 신식 한다고 머 난리를 치다가 마 대가리 깨지겠다.”

애가.

[사하구 설화 27]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강춘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그런께네 단칸방에 딸로 시집을 보내냈는데, 딸네 집에 가보고 싶어 못 견디는데, 단칸방에 사이께네, 참 딸네 집에 가기 힘들었어. 그래도 딸이 보고 싶어, 인제 할 수 없이 딸네 집을 갔어.

가이께네 단칸방에 인자 자는데, 가이께네 하마 어둡어나노이께네(어두워서) 다니러 올 수는 없거든. 하룻밤 자야 되는데, 아이 또 하룻밤을 사위가 참지. 아 마 달라들어가지고, 마누라인데 달라들어가지고 할라 켜는 기라.

할라 카이께네, 아이고 이 엄마가 모처럼 왔는데, 그래 그러이께네, 아 단칸방에 전부 졸룩이 눕었는데, 엄마는 가로 눕었어 밑에. 가로 눕었는데, 자꾸 할라 카이께네,

“엄마 왔는데 하룻밤만 참자.”

쿠이께네, 그게 염치도 없이 쳐, 마 찾아 들어와 했는 모영이라. 하이께네, 또 눈이 왔다 갔다 하이께네, 엄지발가락이 어마이 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 기라. 그러이께네, 인자,

“좋나, 좋나.”

쿠이께네, 또 어마이고 있고 하이께네, 딸이 어마이 들을까봐 ‘좋다’ 소리도 문 하고 가마히 있었어. 가마이(가만히) 있으이 대고,

“좋나, 좋나.”

쿠이께네, 내제는(나중에는),

“아이고! 이년아, 좋다 캐라. 애미 눈 빠지겠다.”[일동 웃음] [청중: 눈이 왜 빠져?] 눈에, [조사자: 이렇게 누워가지고예.] 저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가로 눕어놓이 엄지발가락이 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28]

## 눈 뜨게 된 봉사가 겪는 어려움

강춘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저게 봉사가, 저 집에서 마누라가, 마누라 있는데,  
“내가 저 어느 절에로 가면은, 걸어서 걸어서 절에로 가면은, 내가 눈을 뜬다더라.”  
이러이께네, 할마시가 보내쫘어. 그러이께네 천방지방으로 갔네. 갔던 사람이 사흘만에만  
그 절에로 갔다가 온다 했는데, 일주일도 안 오는 기라.  
안 와가지고 할마이가 가께네, 영감이 눈을 떴는데, 집이 어디 붙었는지 몰라가 못 갔대.  
그래가지고 영감이 눈은 떴어. 눈은 떴는데,  
“왜 그러면 안 오노?”  
이러이께네,  
“할마이가 찾아오도록 있노?”  
이러이께네,  
“눈을 감고 와가지고, 떠놔노이 어디가 집이 붙었는지를 몰라서 몬 간다.”  
[청중: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랬는 기라. 그러이께네 할마이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원래대로 눈을 감고 오지.”  
이랬는 기라.[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29]

### 외길에서 마주친 두 봉사

강춘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저 어데 가는데, 인제 딱- 직선으로만 가라 캬대. 그래가지고 직선으로 갔는 기라. 갔는데  
저 짝에 봉사가 또 직선으로 오다가, 둘이 이마를 맞뜩 딱- 쳤어. 탁 쳤어. 쳐놔노이께네,  
“니는 똑바로 보고 오지. 어더로 해가지고 나를 이리 쳤노?”  
컨께, [일동 웃음]  
“니는, 나는 눈이 안 보여 그렇지. 니는 왜 똑바로 못 봤노.”  
컨께,  
“나도 눈이 어둡어노이께네 못 보고.”  
둘이 이마를 맞뿌디쳤대. [웃음] [조사자: 그래 서로 똑바로 보라고.] 어. 그래,  
“똑바로 보고 오지. 우째가 이마로 들이박았노?”  
이러이께네,  
“나는 눈을 감아서 똑바로 못 봐가 그렇다”

카이,  
“나도 눈을 깜고, 깜아가 못 봤다”  
카대. 그래가 둘 다 눈이 어둡어이께네(어두워서), 이마를 맞드닥(마주) 쳤다 아이가

[사하구 설화 30]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덕희(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지계를 저, 어마이 모시고 지계로 갖다가 갖다 내빠리고 온께 아들이,  
“아버지, 와 지계로 갖다가 버리고 오느냐.”  
꼬,  
“나도 후제,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 쳐다 버려야 되는데, 와 지계로 가져 온냐.”  
꼬, 이래 쿠더라 카대. [청중: 그라이 마 아바이가 마 저 뭐꼬, 그 지계를 다부 가오가이가  
(다시 가져와서) 그런 풍습이 없어졌다 카대. 그 풍습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인자 마 그거 엄따(없다) 안 하더냐? [청중: 고려장이 없어졌어.]

[사하구 설화 31]

### 주인 재산을 차지한 피 많은 하인

박덕희(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옛날에 인자 과개(과거)로, 인자 과개 간 사람이 뭐꼬? 그, [청중: 서울.] 서울 인자 과개를  
가는데 인자, 지 쫓을(종을) 다리고 갔는 기라. 갔는데, 중간쯤 가다 인자 배가 고파서 에이,  
인자 그 ○○○○<sup>13)</sup>이 있더라고. 그래,  
“뭘 좀 사가 오라.”  
쿤께네, 고마,

13) 구술자의 구술이 빨라 정취가 불가능 했다.

“코 빠졌다.”

꼬. 또,

“야, 이놈아. 코빠졌다”

“오다가 코가 빠졌다.”

이라더란다.

“야 이놈아 니 무라.”

또 지가 다 목고, 또 중간쯤 가다가 뭐 사온께, 또 탈로 내 뭐 빠졌다고, 또 이기는 인자 배가 고파 죽을 판인 기라. [청중: 피가 많아서.] 피가 많아. 지가 다 목고. ‘그래, 요놈을 갖다가 우째 직이야 되겠노.’ 싶어서, 너무 인자 밍어 직일라꼬 작정이 댜어.

그래서 인자 내일 어느 낭개다(나무에) 참, 버들 낭개다가 인자 올라간께, 그 시간 되면 인자, 열한 시나 열두 시나, 시간 되면 인자, 줄로 땡기면은 인자 못에 빠져 죽을 기라. 그래 인자 낭개다 저- 달애쳐논께(달아매니), 이놈의 자석이 노래로 어-떻게 잘 부르던지 환장할 판 이라. 그래서 인자 유과장사가 유과를 팔고 가다가, 어떻게 노래로 잘 부르던지 내라 놓고, 인자 시간이 다 댜는데, 내리오라 하더란다. 지가 올라가서 타 보꾸마. 그 우에 지가 하겠 다고, 그 사람 내려오라 하더란다. 그래 내려오고 난께, 예고 유과장사가 그이다 빠져 죽었 뻔 기라. 줄을 땡기갓고.

‘그래 이거를 어찌 직이야 되겠노.’ 싶어서 인자 궁리가 안 나오는 기라 인자. 궁리가 안 나와서러 인자. 인자, 고게 인자 우찌되는 긴고. 까무빠고 모른다 그 말밖에. 어, 많은데 까 무뻔네.

그 뭐, 그 뭐 장모로 갖다가 주개(주걱) 들고, 장인은 뭐를 들고 이래갓고 거짓말 해가,

“물에 드가면 참 잘 돼가 있다.”

하더란다. 그래갓고 장모하고 장인하고 인자, 하나하나 놔두고, 주개 들고 물에 드갔는 기라. 드간께 그 이놈의 자석이 사우란다 그 모뎀 놈이. 고마 빠져 직이뻘어. 그래 직이빠고, 그 처갓집 살림, 부자를 갖다가 지가 싹- 다 말아 하더란다.

[사하구 설화 32]

## 상객 가서 실수한 사람

박덕희(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청중1: 할아버지가 상객을 갔더란다.] [청중2: 손짓말 치았는데(결혼시켰는데).]

할아버지가 그 갔는데 인자, 하룻밤 자면 인자 그 이튿날 인자 와야 되거든. 돌아와야

되거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 인자 엄석(음식)을 인자 내놓고 인자, 할아버지 갖다 인자 만난다 아이가? 사돈끼리 만나고 이리 했는데, 아이 마 딸은, 손자딸은 기가 차는데, 음식을 내놓으이 마, 고마 그런 음식을 안 봐놔이께네, 마 손을 가마꿈어가(쥐어가) 염치없이 이래 마 먹더라 하대. 그래 그런 기 참 많았다. [청중1: 그런 음식 보기 참. 옛날 우리카마 그 옛날에 있다 아이가?]

[한금심 구술]

뿔을 목다가 설사병이 나가지고 똥은 질질 나와 찌제, 개를 인자 워-리 해가 불러가지고 개가 싹싹 훑어 목으면, 개가 훑아 목으면은 고마 마, 고것만 훑아먹고 마는데, 마 중우까지 와갖고 빼뜨려 가뿌더라 카네. 그래가 마 흘랑 벗고 인자, 뿔이 입을 끼 있나? 방에 들어가, 여자 마 속곳을 입었더라 카대. 그래 속곳을 입고 그 앞아가 있으이 그 어찌 되겠노 그제? 하이고 옛날에 그랬다 카대. 속곳을 입고 앞아가 있었다 하더라. 상각 간 남자가.

[사하구 설화 33]

### 뱀 신랑 이야기[구령덩덩 신선부]

박덕희(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구령이가 뭐 뭐, 그 여자한테 구령이가 되면은, 그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갖고 상사가 되면은, 참 오데도 따라 땡기더라 하대.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에 와서 딱.

대가리 딱 요래 맞대고, 그 열매나. [조사자: 사람 눈에 보입니까?] [청중1: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인자 그기 따라 땡긴대.] [청중2: 요 텍(턱) 밑에서 요라고 텍 밑에 있다. 붙어 있대 캐 우리 눈에는 안 붙어 있는데.]

옛날에는 뭐뭐 뭐꼬 뭐, 구령이가 돼가지고 밀가루통에 구부러가주고 장독 퍼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쌌더라고. 그래갖고 허물로 싹 벗고, 서울로 과개하러 가고 이라더라대.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응. [조사자: 그 이야기는 끝까지 모르십니까?] 그 이야기는 끝까지 모르제. 대강은 알지만은.

그래 옛날에 앞집 뒷집이 고래(그래) 찌는데(있는데), 그 처녀로 좋아했던 갑터만은. 그래 갖고 처이가 인자 저저 자꾸 앞집 총각을 보고, 한테 장개를 갈라 카더라대. 시집을 갈라고. 그래서 인자 어마이들은 문 가구로 안 하겠나. 지 눈에는, 념 눈에는 저저 구령인데 지 눈에는 그리 좋은 총각이더라 하대. 그래가 죽어도 그 구령이한테 장개를 갈라 하더라대. 시집을 갈라 하더라대. [청중1: 여자가 구령이가 됐는데.]

여자가, 남자가 구렁인데, 구렁인데, 여자 지 눈에는 구렁이가 아이고 총각으로 보였는 기라. 그래가 앞집 뒷집 그래 샀는데, 죽어도 장개로 그 처이한테로 갈라 하더란다. 그래갓고 인자 장개로 인제 갔어. 갔는데, 이 대, 간때이(장대를 말함), 그 뭐 대 안 있나 그자? 그거를 타고 장개를 오고 이래 했다 카대.

근데 녀 눈에는 그런데, 지 눈에는 총각이더라대. 어. 근데 내가 대강 이야기로 들었는데. [조사자: 그래가주고 할머니, 밀가루 구불라가지고 허물을 벗는데.] 어,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 제일 처음에, 그 저 또 장뚝에 빠져가지고, 밀가루 구불러가 허물로 싹- 벗었는데 마, 그런 옥황상제가 없더라대. [청중1: 미남은 아니지, 아주 미남이라 해, 아주 미남이라 해.] [청중3: 그 거짓말이지만은. 그게 그리 이바구는 그래.] [청중2: 밀까루에 꾸불러갓고 허물로 벗었는데 아주 미남이다. 그래 캐야제] [조사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인자 허물 그걸로 인자 그 여자 저고리 여, 동전에 여 인자, 끈어내고 언제든지 있으라 캐서. 또 저거 언니 요년이 얼마나 새골이를(질투를) 해가지고, [청중1: 새로 봐갓고 가야(가져) 갔네.] 언제든지 동전 이 놈을 따가지고, 고마 허물 거 사라뻘어. 그래 인자 지 남자 과개로 갔는데, 오도록 이거로 몬 하구로 했는데 고마 사라뻘어(불에 태워버렸어). 사는데 인자 어쩔 수가 없는 기라.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여자가 뭐냐면 인자, 참 갈 곳도 없이 걸어서, 하루 걸어 저- 간께네, 어데 간께네, 인자 아가씨가, 아가씨라 하더나 애들이라 하더나. 새로 보더라대 인자, 옛날에는 나락 이 심어놓으면은, 고개 지면 새 봐야 하거든. 빨아 무(먹어) 싸서로. [청중1: 후여-.] 그래,

“후여 후여-.”

뭐라 쿤다라 카더노. 어 참,

“내일 모레 뭇이 장개 가는데, 구경 갈 낀데.”

이러쿰서, 여가가 들은께 그러더라 캐. 이거를 꼬박꼬박 인자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는 모영 이지. 새 보는데 그게. 물어본께네, 그래 무슨 그기 인자 그 사람이 신랑이라. 과개를 할 낀데, 고마 이 허물로 사라뻘서 고마 과개를 몬 하게 댘는 기라. [청중1: 못하게 댘지.] 하모, 그래 몬 하게 댘다 카대. 그래 인자 끝까정 갔어. 그래 간께네 뭐 어던 각시집 찾아갔든가. 이야기는 인자 옛날 끼라서 모른다. 간께네, 인자 그 집에 찾아갔는데 잔솔이라 쿠더나 쭈시라 쿰서(하면서) 줌서러(주면서) 부우가지고,

“그 사람 만날라 쿠면은 다 쭈어라.”

카더란다. 그래가 참 뭐 뭐 그래가 그거를 쭈었는데, 남자가 그래 왔더라대. 찾아왔더라 라대. 인자 근데 그 사람하고 둘이 장개를 갈 낀데, 인자 이 여자 찾아갔은께노 우짜노. 그래도 이 여자가 저저 댘다더라. 그래 뭐 어뻘다 하든가. 끝까지는 모른다. 내 다 까무뻘고.

[사하구 설화 34]

## 도깨비불

박영도(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옛날에 이 동네 전설로 이야기 할게 그러면. 이 동네 옛날에 여 한보철강이 들오기 전에 승(성)이 있었거든. 절터, 성. 이래 끼리하이(길게) 성이 있었어. 이놈 큰 돌로가 산성이 있었는데, 거기 인자 성 안에 지금 이 한보철강이 전부 다 뭉게고 들어왔거든.

그런데 그럴 적에, 우리가 요 동네, 내가 한 다섯 살인가 먹어서 요 동네로 왔어 우리 할머니강. 우리 아버지는 부산 시내에서 아버지 직장에 계시고 엄마강. 그래 왔는데, 그럴 적에 그 성에서 옛날에 구신불이 나더라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거게서 막- 말 타는 소리가 밤에 난대요. 그 성 안에서,  
“츄룩 츄룩.”

하이, 말 가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면, 거기 인자 내다 보면, 구신불이 막 그 성에 마, 이리 큰 기 앞을 가면 작은 거 작은 거 따라서 쭉-욱 갔다가 왔다가 그런대요 옛날에. 그래서 여게, 여게 그래 거기 아주 옛날에 전설에 그렇게 인자 전해 오고, [조사자: 해치불이라고 하셨습니까?] [청중: 해칭이.]

해치이불이라고 있어. 구신불이라고. 도깨비불이라 카고 그랬어. 인불이라 거기. 그래 그런 것도 있었고, 이 동네는 좀 그래. 그래 옛날에 절터가 돼갖고 여게. [청중: 여 절터야, 절터] 옛날에 여 함 보자. 어떤 어떤 포크레이튼가. 언젠고, 여가 절터야. 성터데 [청중: 아이, 성이다. 안 성 바깥 성 성이야. 그래다가 이 동네 이름이 성포야, 성포.]

저쪽에서는 인자 동문이, 동문이 있었어. 저쪽에서 인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서문이 있어갖고 이리 나가고. 절터에 그리 했었다대. [조사자: 저는 구평동인데 왜 노인정 이름이 성포일꼬 했더니만은.] [청중: 그래서 여 성포야, 성포. ] [조사자: 옛날 이름이.]

옛날에 성이 있어서 성포라 여게가. 이 중년꺼정 여게를 성포라 했거덩. 중년꺼정 성포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구평으로 돌아가뿌러. 성포가 없어져 뿌리고. [청중: 그래도 구평 안에서도 여는 성포라.] [조사자: 바깥구평이라 하던데.] 예, 바깥구평이라고 그런다고. 그라는데 이 중년 안, 몇 년, 한 십 년 전으로부터 성포라 했어. 여게. [조사자: 아! 성이 있는 포구.] 예, 예, 그래서예. [청중: 저쪽 너머에는 간석이고. 간석이라.]

그리고 요 동네에서는 또 요 길 울로는 삼밭골이라 했고. 옛날에 삼을 마이 심었다 더랍니다. 그래서 인자 군데군데 이름이 다 갈라져 가 있어.[조사자: 삼밭골이 있고, 간석이 있고.] [청중: 간석은 그 돌이 마이 있어갖고. 바위가 있어가 간석이고. 요는 성포고.]

[사하구 설화 35]

## 턱이 없는 도깨비

박영도(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요게 가면 옛날에 대밭이 있었어. 대밭이 있고, 큰 길이 있고, 큰 길 뒤에 쪼그마한 오두막 살이가 하나 있었어 옛날에. 인자 짚을가(짚으로) 이안 깔밭을(갈대밭) 오두막살이가 있었는데 장림 사람들이 여 인자, 이 동네에서 인자 후리라 하는 거는 거물로 나아가 밤에 인자 땡기가 메르치(멸치)를 잡는 그런 요 막이 있었거든.

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자 땡기주면, 딴 동네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밤에 땡기주면, 메르치는(멸치는) 주인이 하고, 인자 잔해, 여러 가지 뭐 이 자잔한 거, 고기 나오는 거 그거는 땡기 주는 사람 노나 쫓습니다. 노나 쫓는데, 그래 하는 사람들이 밤에 인자 가다가 인자, 요 가다가 할매집이 있으니까 인자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면 할매가,

“너것도 그런 놈들가?”

이란답니다. 그러면,

“할머니 왜 그러냐?”

고 이라면, 거기 인자 귀신불, 해치이라 카는 기라네. [청중: 해치이불.]

그기 인자 밤으로 그 할매집에 와서 물로 좀 줄라 한다네. 근데 옛날에 물이 귀했답니다. 여계 샘이나 뭐 이런 거 팔 줄은 모르고 외따거리 어 한 채 두 채 있어노니까, 그래 물 좀 줄라 하면, 그래 인자 그 할머니가 인자 물로 바가치다 이래개 떠주면 이래 짚으고(쥐고) 물이 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 밑에 다 흘러뿐답니다. 그래 흐르면,

“와 그 아까운 물로 갖다가 안 묵고 전부 다 흘러 내빠리노?”

할머니가 이리시면 하는 말이

“내가 해치이거든.”

그런다 안 합니까. [일동 웃음] 근데 그 할머니를 우리가 실제로 봤거든. 봤는데 그 할마이가 진언을 참 잘 치여. 염불로 잘 하시여.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애릴 때, 아주 애릴 때라서 우리 할머니가 이래 인자 친구고 이리이까 아는데, 인자 두 분이 인자 옛날에 관세음보살로 모시고 아미타불로 모시고 이라는데, 그러면 그 염불로 할머니가 모신답니다. 그러면 그 해치가 고마 가뿐대요.

그래,

“내가, 내가 텍이 없거든.”

그런다 안 하는교. [조사자: 그래도 해치가 나쁜 해치는 아이다 그지예? 사람은 안 해치고 그렇지예. 그 인자 할매가 보통 사람같으면 해꼬지를 할 낀데, 할머니가 당당하고 또 염불도 잘 모시고 이래 한께, 해치이가 겁을 내가 가뿌는 거야 고마.

[사하구 설화 36]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영도(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옛날에 인자 아들이 참 몬 사는 산중에, 못 살았는데, 할매가 봉사더라대. 봉산데, 옛날 말인지, 전설인지 그 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 말이 그렇더라.

근데 인자 아들이 인자 일하러 온다카모, 오래 있다가 오고 이라는데, 그래 인제 할머니가, 메느리가 인자 할머니로, 시부모님 뉘를 해주야 하는데, 색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 주는 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인자 댕기면서 지령이로 파갖고, 언자 물 지져부리한 데 가면 지령이가 있잖아. 지령이가 이리 파갖고, 그 지령이를 인자 폭- 고아갖고, 죄 받을까봐 자기부터 머이 먹고(먼저 먹고), 그래 시어머니로 인자 한 봉지씩 디리고(드리고) 그렸다네. 그래 봉양을 했는데, 아들이 인자 어디 갔다가 턱- 집예를 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얼굴이 뽀야이 새각시겜이 돼가 있거든.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어머ियो, 어째서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좋느냐?”

고, 아들이 질문을 하이께네,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이고 얘야, 애기가 매-일 날로 그 맛있는 국을 한 그릇씩 준다네. 그래서 내가 그걸 묵고 나이 힘도 나고 내가 이래 좋다.”

그라더라. 그래 인자 그 아들이 인자 자기 부인한테 물어봤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라고 인자 그 할매가 쟈, 그거를 한 그릇 묵으면 한 마리씩 내 가이고 아들 오면 준다꼬 자리 밑에 넣어놔더라. [청중: 아- 보이 준다꼬. 보이 준다꼬] 어, 보이 준다꼬. 자리 밑에 넣어 놔는데, 그래 그 자리 밑에 그 지령이를 내가 비이 주이, 아들이 기감장(깜짝 놀래지) 안 하겠습니껴. 엄마를 이런 걸 먹있는가 싶어서. 그래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니, 그래 부인이 사실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드릴게 없어서 이래갖고.”

[청중: 고기라 묵고 싶다 캐서.] 그래서 할머니는 고기를, [청중: 나쁜 거는 아이니께.]

“어머이는 디리고 싶은고, 그래서 내가 죄 받을까봐 항상 내가 먼저 묵고 그래 어머니로 디렀다.”

고 그렇게 하던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하구 설화 37]

## 떡 장사 할머니와 호랑이

서희원(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아니 호랑이, 어데 참 그 그 맞으러 갔는 기라. 오데 일해 주러 아들 살릴라꼬. 가니까 그 집에 떡을 한 시루 찌가지고 고사 지낼라꼬 딱,

“아이고, 저 떡 좀 우리 아들 주면, 뭐꼬 좀 주면 그 하지”

카이까네,

“아이고, 좀 가(가져) 가소.”

카디, 이만한 거를, 넙덩거리로 한 개 주더라대. 주 가지고 그걸 인자 아들 줄 끼라고 가(가져가), 마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를 만나.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카이.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 줄 낀데.”

또 요마이 떠 줘어.

“아이, 쪼금 더 주면 안 잡아묵지.”

카이, 세 번 떠 주고 요만뻘이 안 남는 기라.

“아이구-이, 이거로 갖다가 아들 붙이도(나눠준다는 의미) 문 하고 어짜겠노. 문 주겠다.”

그래가 마, 마저 떼쳐주고 막- 뛰 갔는데, 뛰 갔는데 마 호랑이가 집인꺼정 찾아오더란다. 따라오가주고, 그래 여를 딱 이리 보더니만은, [청중1: 호랑이도 무조건 안 잡아 묵는다던데.] 그래 딱 이리 보더니만은,

“떡 그거 하면은, 어데서, 어데서 가 왔노?”

그 집을 좀 갈차 줄라 하더란다. 그래가.

“아무 데 아무 데 거 가니까 그래 떡을 주더라.”

그래 인자, 그래 호랑이가 인자 가가주고, 아들로 숨어가주고, 이리 돌아 나가이께네, 그래 인자 그 뭐꼬 호랑이가 떡- 보이까네, 그거 아가 저거 엄마 잡아무울까 싶어서, 저거 엄마를 딱- 부둑꼬, 샘이를 딱- 이래 보고 있으이, 거 저거 엄마하고 다 있거든. 그 우째 드갔는지를 묻더라대.

그래 이래가 들어왔다 카이까네, 그래 그거 들어가가지고. 잡아 무우러 들어가가지고 그래 지가 죽었어. 몰라, 그 소리는 하더라. [청중1: 물에 들어가 지가 어찌 살 끼고?] [청중2: 이야기가 여러 가지라.]

[사하구 설화 38]

### 외도하다 봉변당한 봉사

서희원(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참 마 봉사가, 만날 봉사가 마마 만날 지고 가스나 집에 가는 기라. 자꾸 가스나 집으로 가는 기라. 그래 이 깨로, 그런께로 만날 낮이고 밤이고 오는 기라. 그래 이놈의. 낮에 왔는 기라. 봉사가 더듬더듬 해가, [청중: 낮에도?] 어, 색시집에도 가니까, 그래 마 왔다고.

“아이고-이.”

카이, 아들이 마 우- 나오니까,

“아이고, 봉사 좇 봐라.”

카이가,

“뚝끼놈. 내가 밤인데 깜깜한데, 빛이 보이노. 나는 눈도 밝다.”

카면서 나는, 봉사란 말 안 하고 나는, [청중: 눈이 안 보이니까.] 어, 눈이 안 보이니까 인자, 뭐, 간에, 그 아들이 막- 마 우습다고 손뼉을 치고, [청중: 훌쩍 벗고 가네.] 훌쩍 벗고 그 인자 그거 간께네 후들겨(쫓아) 냈지. [청중: 아-!]

말하자면 가스나가.

“아이고, 저게 누가 우리 신랑이 오는데 빨리 나가라.”

켰는 기라. [청중: 그래놓이.] 빨리 나가라 캐 놓으니까네, 마 빨가벗고, 마 옷도 못 입고, 자아 입지도(잡아서 입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 기라. 그래놓이 아들이,

“하이고-, 봉사 봐라, 좇 봐라.”

하고, 가음을(고함을) 지른다.

“뚝지놈. 눈도 밝다. 밤중에 빛이 그래 좇이 비노(보이나?)”

[사하구 설화 39]

### 왜장을 죽인 논개

송윤수(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일본 그거 장군 이름이 파갈장군이라 하대. [청중: 어, 파갈장군.] 어, 파갈장군인데, 그래갖고 인자 술 한 잔 묵는데, 논개가 그 파달 장군, 일본 대장을 그거를 직일라고. 열 손가락에 옥가락지를 다 낀어요. 다섯 손가락이면 열 개 아인교? 딱- 끼 이라면 안 빠지잖아. 그래가 탁- 끼고 인자 유혹을 했어. 마 이래 살살 거 하면서, 애교를 지기가면서 이래갖고는, 바다에 진주 남강에 가이 그 바윗돌이, 물에 그게 쪼개 나더라고. 옛날에는 그 바위가 역시로 컸는 갑대. 근데 거기서러 인자 술 한 상을 짝 채리놓고는 술로 묵으면서러, 그 인자 그래가 그 논개 기생이, 그 논개 기생이 황해도 이북에, 황해동에 기생, 그거 아이던교. 평양 기상가. 평양에 그건가? [청중: 처음에 평양 기생 이암이라 했다.] 어, 어. 평양이지 싶어요 원 고향이.

그래갖고 인자 진주에 기 해갖고, 그거 왜놈, 왜장 그거를 직일라고, 그래가 그로 술로 인자 마이 먹있어. 술로 인자 마이 먹이가지고는 인자 춤을 추자 했어. 그러이까네 인자 일본 파갈 그 장군 안 있나. 일본 나쁜 놈. 일본 사람 춤 이리 치대. 이리이리 치이까, 이리이리 안 하고, 똑 일본 사람 요래 추더라고 [춤추는 시늬를 하며] 요래 추이까 논개가 인자,

“파갈장군, 파갈장군.”

함서, 이래 안아개[안는 시늬를 하며] 목을 갖다 이래 끌아가 허리로 탁- 요래갖고[양 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시늬를 하며], 그래 마 인자 이러니께네,

“논개, 아부나이(あばない, 위험하다). 아부나이. 논개, 아부나이, 아부나이.”

이리 하는데, 그 소리에 인자 그람서로 인자 이리 끼민서, 살살 웃어가면서 이래가지고.[청중: 전부 옥가락지를 찌놔놓이(끼어놓으니) 빠지지도 않고.] 어, 안 빠져. 원래 인자 직일라, 죽을라고. 인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택이지. 일본 왜장, 왜놈을. 그래갖고 탁- 끼고 이래갖고 이래가 뒷걸음을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리 하이까네, 일본 장군이,

“논개, 아부나이, 아부나이, 아부나이.”

이래 하는데, 확- 낭떠러지에 고 딱 가(그곳에 가), 그 깊은 데 낭떠러지에 가가주고, 이래가 자기는 밑에 드가고, 이래 안고 뒤로 넘어졌으니까네, 논개는 밑에 가고 그 장군은 위에 안 있겠나. 그래가 죽었어. 그 역사가 있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았다꼬.

[사하구 설화 40]

## 장사할 계란을 깨트린 두 봉사

송윤수(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옛날에 봉사 둘이가 계란을 짚어지고 계란 장사로 하는데, 어데 저 산중으로 산중으로

계랄 팔러 가다가 잠이와서로, 이런 그거 밑에 있다가, चु으이까네, 둘이서 맞대가 자자 캐가, 둘이서 계란을 짚어지고. [청중: 계란 짚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이 해꾸봐서(가벼워서), 계란이 다 터지뻘다 안 하더나. [일동 웃음] 그런.

[사하구 설화 41]

### 억울하게 죽은 밀양의 아랑 각시

송운수(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아랑이가 아주 미인 아이가. 미인인데, 너무 정조를 너무 지켰어. 요새 걸으면 이 남자 거 하면 마 그 할 낀데, 그기 아이고 인제 근데, 그 고을에서러, 그 아랑이 이 사람이 지금 무덤이 있지요? 영남루에, [조사자: 영남루에.] 영남루 그 어데, 밀양 어디에, 무덤이 있다 카더라. 그래 그 아랑이가 참 예쁘고 인자 너무 미인이고 이랬는데, 그 마을에 인자 어느 총각이 쫓 서로 눈이 맞아갖고 그거 했는데, 그래 달은 황청겘이 밝은 날 저녁에 그래,

“우리가 좀 만나자.”

이래갖고, 밀양에 그게 똑다리 곁은 데 있는데, 깔대밭이(갈대밭이) 참 마이 있는갑대요. 그 책에 그래가 써지가 있더라꼬. 그래가 깔대밭이 있는데 그래,

“우리 달밤에 구경하러 놀러 가자.”

이래갖고, 처녀로 인자 우째갖고 인자, 하인한테 이야기를 해가, 하인이 인자 부모한테 인자 말로 짜가 속이라 캐놓고는, 그래 나와가 처녀 총각이 인자 달밤에 그 깔대밭에 있는데, 이래 도는데, 총각이 뿔을 그기 해가지고, 아가씨를 보고,

“아랑이, 내가 잠깐, 소변을 보든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잠깐 내가 그거 하고 오겠다. 볼 일 보고 오겠다.”

이래갖고, 잠깐 뜬 사이에 아주 험상궂은 나쁜 놈이, [청중1: 납치해뻘다.] 납치해갖고 깔밭을 데꼬 가이 찾을 수가 있나. 달이 휘영겘이 밝은 달이, 밤이라도 몬 찾아 가지고 그래 그 하는 데, 손목을 잡고 가는데, 이 아가씨가, 그 험상궂은 놈이 좋아, 인자 그거 한다꼬 이래 포옹을 할라 캐이, 안을라 카이까네, 손을 탁 털치면서로 그 험상궂은 놈이 있는, 가는 사람 칼을 갖고 탁- 이래 꼽아가 있던 걸 빼가지고 지 손목을 탁 잘랐어. [조사자: 어메!] 그만큼 열녀다. 그래갖고 찢라갖고 이래 한께네 그 험상궂은 놈이,

“독한 년.”

이라 하면서러, 칼로 탁 그거 해갖고, 그 아가씨 자빠트려놓고, 목을, 가슴인가 어딘가

목인가 칼로 찢러가 직이뻘어. 죽었는데 인자 그 집에는 아가씨 잇아뻘다고, 그 지금 걸으면 그 수사관들이 막- 얼마나 찾고 그 하는교. 옛날에는 뭐 깔밭에 그거 뭐 아가씨가 그런데 갈 줄 알았나. 그니 이 총각은 마 그 질로 마 말도 없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가 십년으로, 일 만에 한 번씩, 고을 원님이 했다카면 죽어 나오고, 또 다시 선출해가, 우리 여 같으면 국회의원 한가지다 그지요? 선출해가 했다, 보냈다 카면 죽어 나오고. [청중1: 그 자리에?] 어, 마을에 인자 고을 원님, 그 마을에 인자 쯤, 우리 여 같으면 대통령, 그 마을에 부락에 인자 뭐 반장이나 통장이나 쯤 높으겠지. 그래갖고 인자 고을도 지키고 인자 질서도 잡으라꼬 인자 해놔놓이까네, 모시가 딱 해 놔놓이까네, 아침에 가면 죽어갖고 이거이거 뭐꼬 이거? [조사자: 관예?] 관 말고 와 사람을 해가 덮어갖고, 텔레비 같은데 보이 양쪽에 여 들고, 여 들고. [조사자: 칠성판이에?] [청중1: 들것?] 것이, 들것이. 그거를 해 가면은 죽어가 있고, 죽어가 있고. 그래가 십년 만에 어느 고을 왕이, 한 사람이 막- 들어와갖고 있는데 그래.

“어느 놈이 어떻게 했길래, 이 고을 왕이 들어올 때마다 죽노. 내가 한번 지키봐야겠다.” 십년 딱 됐는 그 고을 왕이 딱- 지키고 있으이까네, 아 그 고을 왕이 누워자니까 꿈에, 꿈에 아가씨가 꿈에 나타나갖고,

“내 원수를 쯤 갚아 달라.”

이라더란다. 그래,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원수를 갚아 달라 하노. 어, 그래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야 내가 알지. 소원을 해 주지, 원수를 갚아 주지.”

이러이까네, 그래,

“내가 나비가 돼가주고, 이 고을에 백성들로 전부 다 모아갖고 회의로 한다고 인자 모아라.”

이거라. 그래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으이까네 인자, “쫓민 여러분” 함서 다 모아라 해갖고 다 모아졌으. 모았는데 그래 ,

“내가 다 모으고 나거든 내가 나비가 돼가주고 창문에 이리이리 하거든, 창문을 열어 달라.”

이래, 아가씨가 인자 그래 꿈에, 그거를 했어. 그러이까네 참 이래 이래가 딱 있으니까네, 사람들 략- 모아놓고,

“이 고을에 이리이리 하는데, 왜 고을왕이 해마다 죽어 나가노. 이상한 일 아이가.”

함서러 그라이까네, 그래 인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고 다 모아라.”

해서 다 모있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모있는데, 참말 이래 보이까네, 꿈에 선몽을 해서 딱 보이까네, 나비가 참 창문에서 팽팡 돌더라 안 하나. [청중1: 우짜꼬.] 창문을 탁 열어 주이까네. [청중1: 나비가 들오네.] 참 나비가 날라댕기면서 딱 보더만은, 딱 뒤에 앉은 험상궂게 생긴 놈 왼쪽 어깨에 살-푼 앉았다가 날라가더라 안 하나. [청중1: 그게 원수라.] 어, 인자 원수 갚아달라고 그 사람 포적을 딱 해주고 날라가뻘는 기라. [청중1: 아

-!] 그래 고을왕이, ‘아따 저놈이다.’ 싶어서,  
 “인자 이래이래 하이까네, 어짜든지 우리 고을에 이런 사고 없도록 잘 하자.”  
 이라면서러, 그래가 다 가고 제일 뒤에 있는, 갈라쿤께,  
 “여봐라, 저 놈을 잡아라.”  
 이래갖고, 딱 해갖고는,  
 “니가 아무데 아무데 해갖고 어느 처녀 아가씨를 그래 직있제.”  
 이라니까네, 막 곤장 이걸로 들고(들고) 패이까네, [청중1: 바른 말 하라고.] 바른 말 하라고  
 그거 하이까네 놓아놓고 궁디 안 패던교. 그래 패이까네 바른 말 하더랍니다.  
 “너무 예뻐서로 내가 이리이리 하이까네, 칼을 갖고 자기 손목을 끊어서 독한 년이라서  
 내가 찢러, 가슴을 찢러 죽였다.”  
 [청중1: 옛날에는 정조 지킬라꼬 이래 장도칼 여 찢기고 살았다.] [청중2: 그래 참 용타.]  
 그래가주고 인자 그 아가씨, 저 뭐꼬. 그 고을 왕이, 그래가지고 인자 그 사람을 데꼬갖고,  
 어떻게 해서 이리 직있는지, 금방 이리 그리 해갖고, 가슴에 칼을 꼽아 직있다. 하이까네  
 “무덤이, 어디서 직있노. 가자.”  
 캐가, 인자 요새 맨쿠로 어떻게 해서 직있는가 그 장소 목격을 하는 기라. 그 죄인을 데꼬.  
 험상궂은 놈을 데꼬. 그래 가갖고 보이까네, 그 깔밭에(갈밭에), 가슴을 여 다 칼로 딱- 꼽아  
 갖고, 피가, 그 투성이가 고대로 죽어 있더라 안 하나. 그래갖고 그 아가씨를 데꼬 인자 그  
 무덤을 좋게 해가 물어줬답니다. 좋게 해갖고 인자 물어주고, 그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인자  
 사형시키겠지. 목을 쳐가 직있겠지. 직이고 나이, 그래 그때부터 그 고을 왕이 안 죽고, 이  
 사람이 십년을 해뒀다 카나 고을왕을. 그래 역사가 있더라꼬.

[사하구 설화 42]

### 개똥을 씻어 부모를 봉양한 며느리

이판순(여, 1931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오데, 오덴가 오덴가 간다고 간께네, 개가 썩씨를 묵고 토해 냈더라요. 썩씨. [조사자:  
 썩씨.] 옛날에는 농사가 안 돼가주고 썩씨를 묵고 토해 냈는데, 그거를 보니까 고기는 멜-  
 가이 소화가 안 되고, 고대로 나온께 멜갈거든. [청중: 어, 그렇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내치다가 보니까 아까운 기라. 그래 참 쓰러 담아가 오가고(와서), 참  
 집에 와서 인자 다시 씻겨가지고 솔에다 고았대요. 고아가지고, 참 여 말따나 죄 맞을까

싫어서, 내 함 무우 보고, 그래 참 시어른을 디렸더만은, 그거를 먹고난께네 할마이가 눈이 뜨이더라 카면서, 며느리 보고 그래,

“아이고, 니 때민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요. [청중: 에이고! 효자야.]

[사하구 설화 43]

## 비를 내려 준 이무기

정말수(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이 뭐꼬, 아들로 모아 놓고 여 글로 가르치는데, 글로 가르치니까네로, 어떤 서지에(서당에)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밤에 되면은, 그 아가 없어지더라 캐. 그 아가 하나 없어져서러, 그래 인자 서지에 선생이, 그래 인자 그 아로 찾아서 한번 따라 나가 보이간에도, 한 밤중 되니까네, 이 아가(아이) 하늘에 득천 할 아라. 이런 안데(아이인데) 이 선생이 이상해서 찾아 나가보이까네, 그래 인자 이 아가 마 어디 나가더만, 축지법을 해가이고 마, 마 어디로 날라가 빠고 없더란다.

날라가빠고 없는데, 가마 보이께 새벽에 돌아는데 보이까네로, 아가 후리-하이 해가이고 물에 빠져가이고, 물에 빠져가이고 옷이 후리-하이 적시가지고 그래 오더라 캐. 그래 오가이고, 아들 옆에 붙어 자고, 자고, 또 안날 되면 또, 또 그 시간 되면 나가더란다. 나가서 인자 그 선생이,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도 따라 함 간다.’ 싫어서, 가가 나가가이고, 축지법을 해가이고 갈 때, 그 선생이 따라서 축지법을 해가이고 따라 갔는 기라. 따라 가이까네 백두산을 가더란다. [청중: 백두산?] 백두산을. 축지법을 해가 백두산을 올라가더만은, 백두산에 그계 독- 짐승들이 마 그 밤 되이까네, 나아가이고(나와서) 마 온데 날라맹기고, 물에 빠지고 마 이래 하는데, 그 아도 같이 놀고 있더란다. 같이 놀고 있더만은, 고 시간 되이까네, 인자 그 아가 또 시간 되이까, 딱 나오더만은, 집을 또 축지법을 해 가이고 오더란다. 오가이고 또, 집에 또 그 자리에 또 쏙 드가가이고 지 자는 자리에 자더란다. 그래 자고 또 인자 맨날 그리 하거든.

그리 하는데, 그래 하다가 인자 보이까네로, 한 해는, 한 해에는 저 뭐꼬 비가 하나도 안 오더란다. 비가 하나도 안 와서로, 이 백성이 인자 비가 안 와서 죽겠는 기라. 죽겼어서로 그래 그 아로 보고,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저저 그 아 이름이 뭐, 성록이라 카든가, 성록인데, 그래,

“성록아, 니가 저, 고, 이 백성이 비가 안 와서러 전부 다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비로 한 시간만 오고록(오도록) 해도가(해집).”

이래 말로 하니께네로,

“안 된다.”

카더란다. 안 된다 캄서로 고개를 짤래짤래 하면서 안 된다 카더란다. 안 된다 카는 거로 근그이 근그이 며칠로 이 선생이 야로(이 아이를) 야랐는(달렸는) 기라. 야라이까네로 그래 우찌 해가지고 축지법을 하더라 카던가 마 해가이고 마, 비가 오도록 구름이 찌고 마 금쌍 노성 벼락을 치더만은 마 비가 때리 마 오더란다. 오더만, 비가 한 시간을 따루고 나이까네, 영- 해결이 났어. 인자 이 백성이 살기가 됐는데, 그라고 나이까네로 조금 있으니께로 하늘에서 벼락을, 노성벼락을 치더만은 무지개가 탁 그 집에 서더란다. 서더만은 하늘에서 사람이 하나 딱 내리와가이고, 무지개 타고 내리와가이고 그래 하는 말이,

“그래, 저저 여게 저 성록이라 카는 아가 어데 갔느냐?”

고 찾더란다. 찾는데 그래 선생이 하는 말이,

“그래 여기 이계는 성록이라 카는 아가 엄꼬, 저 바깥에, 저 삼작거리에 선 나무가 석류나무가 하나 섰는데, 저 나무로 보고 성록이라고 부린다.”

꼬 이라거든. 그라이까네로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이 가더만은, 마 저저 뭐꼬 저 무지개를 타고 마 뭐 올라가더만은, 마 노성벼락을 치고 마 하더만은, 그 석류나무 그따가 벼락을 탁- 때리서 마 뿌사빠고 가빠더란다. 그래 했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사하구 설화 44]

## 은혜 깊은 잉어

정말수(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그런데 옛날에 저 영감 할마이, 할멈 둘이서로 인자 저 어느 마을에서러 살고 있는데, 그 저 쪼그마한 장이, 오일마다 장이 서는 기라. 화산장이라 하는 둥, 이런 장맨치, 구포장이라 카던 둥, 이런 장이, 장날마다 저 장이 서는데.

그래 인자 그 장날만 되면은 신을 삼아가이고, 저 짚을 가이고 신을 삼아가이고 인자 그 장날로 가서 팔아가 와서러, 영감 할마이 그 신 팔은 돈을 또 다음 장날까지 묵어야 되는 기라. 묵고 살아야 되는 기라.

그래 사는데, 그래 인자 그 장날에 가서로 신을 삼아가이고 인자, 돈을 팔아서 장날에

묵고 또 장 다가올 때까지 살다가, 또 안 날 장애, 다음 장애, 또 오일장애 또 그 신을 삼아가 팔로 갔는데, 신을 삼아가이고, 딱 돈을 팔아가이고, 딱 돈을 거머지고 나오니까이로, 저 다라이 안에 잉어가 한 마리, 막- 눈에, 잉어가 한 마리 딱 앉아가 있는데, 앉아가 있는데 보니까네로, 그 잉어가 눈에 눈물로 뚜둑뚜둑 흘리고 있거든. 그 할배가 보인까네.

그래서 그 잉어로 삭 할배로 살라 캐서 살라 카이께로, 그 저 신 삼은 그 돈 가이고 그 잉어 사면 돈이 한 푼도 안 남는 기라. 한 푼도 안 남아서러 인자, 영감 할마이 묵고 살, 장날까지 묵고 살 돈이 없는 기라. 돈이 없어서러 짚룩짚룩 하다가 ‘아이 이거 뭐 굶으면 고마.’ 마 그 잉어를 샀는 기라. 잉어를 사다가 오다가 마 잉어를 물에다 살라 쥐뺐는 기야. 눈물을 어찌- 흘리든지 그래 살라 쫓는데, 살라 주이까네 마 잉어가 똑- 마마, 잉어가 마 눈에 눈물을 흘리던 잉어가 마, 풀풀 날라서 가거든. 날라서 갔단 말이야.

가고 난 뒤 그 인자 할배가 집에 와가고, 영감 할마이 인자 굶고서 장날이 며칠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느 총각이 하나, 하룻밤 자고 나이 오더만은, 총각이 그 할배를 부리거든. 불려서러 나가니까이로 그래 할배로 지 따라 가자 카더란다. 가자 캐서로 그 지 잉어 살라준 그 자리로 갔는데, 가이까네로 그 할배로 저저 뭐꼬 그 잉어, 그 총각이 지 등에 업히라 카더란다. 그래 딱 업히니까네로 마 그 물 속으로 마 그 할배가, 그 할배로 업고 마 핑- 날라서 가더란다.

그래 가서로, 인자 그래 따라 가이까네로 그 용앙, 용왕님 사는 곳이라. 그래 용왕님한테 가더만, 그래 감서로(가면서) 하는 말이가, 그래 자고 올 때, 그래 그 할배가 저 뭐꼬, 저 그거를 뭇이라 카더노? 저저 아 잡책을 하나 줄 낀데, 잡책은 안 할라 카고 뭐로 도라 칸 다더라(달라 한다던가). 도라카라 칸께로, 그래 인제 가이까네로, 자고 인자 저거 집으로 올라 카이까네로, 그래 인자 그 할배가,

“잡책으로 하나 할래?”

무슨 뭐라 카더라. 이야기로 잇아뻘다.

“열쇠로 할래?”

그러더란다. 그래서 그 총각 시키는 대로 열쇠로 할라꼬, 열쇠로 줄라 카이께네, 그래 그 열쇠를 주더란다. 짚룩거리고 안 줄라 쿠더만은 주더란다. 주서가고 인자 그래 올 적에 또 그거 그 총각이 또 업어다가 또 그 자리에 데부다 주더란다. 데부다 주서 오인까네로, 오인까네로 마, 그걸 가이고 마 돈 나오라 쿠면 돈 나오고, 밥 나오라 쿠면 밥 나오고, 쌀 나오라 쿠면 쌀 나오고 마, 이기 마 영- 요물이라 마.

그래가고 똑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그래 인자,

아 그 책을 줄라 카더라. 책을 줄라 켜다 카더라. 책을 줄라 켜는데, 그래서 인자 그가고 인자 그 영감 할마이 부자로 살고 있는데, 저 뭐꼬, 그 어데라 켜노. 그 어데 절이고? 저. 그 뭇이고. 저 그 어데 어데 절 안 있나? 그 어데 절이고? 그 절에서로 와서로, 그 할배를 보고, 그 저저 뭐꼬, 그서 가완(가져온) 책을 줄라 카더란다. 줄라 캐서로 그 절이 어데 절이고. 뭇이고? [조사자: 어디 있는 절 말입니까?] 저 무신 절이고? 그 절로 잇어뻘렀다 내가. 저-

어데. 먼데 그 절이가. 그 절에도 마이 가 봤구만 잊어뻘다. [청중: 함안 절에?]

함안 절 말고. [조사자: 강원도예?] 강원도 아이고, 저 저 뭐꼬 저저저저 아이고 그 뵈이  
고? 모르것다. [조사자: 양산예예? 사리암 같은데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절로 인자, 저저 그 절에서 와서로 그 책을 좀 빌려 줄라 캐서로, 그래 그 책을  
빌리 쫘더만은, 그 절이, 그 이야기가 그 절로 그 책을 가이고 그 절로 지은 절이라고. 그  
책, 그 절에, 뒤에 책 재 난(쌓아 놓은) 그기 그 책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 합천 해인사서로 그 할배, 할배하고 사는데 와서 책을 빌리줄라 캐서 아무도 책을 안  
빌리 주는데, 그 책을 빌리주서러 그 책을 가가서 합천 해인사를 짓고 그 뒤 그, 그 뒤편에 그  
책 재 난 그기 그 할배 책이다 이라더라고. 한 번 그 절에 가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합천  
해인사. 합천 해인사.

[사하구 설화 45]

### 도깨비에게 흑을 판 영감[흑부리영감]

정말수(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흑 달린 영감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러 가가이고 나무로 마이 한 짐 해가  
지고 짙어졌는데, 그 짙어지고 오는데, 오는데 해는 다 지고, 인자 뭐꼬, 그 뭐꼬 그 어데  
얕는, 어데 쉬가이고, 자고야 가야 되것는데, 몬 자고. 자고 갈라카면은 집이 없어서  
어던 동네로 드가니까네로, 집이 한 가구 있어서로, 그 집을 드가이께네, 그 집이 도깨  
비가 사는 집이라.

도깨비 사는 집이라서러, 도깨비 사는 집을 인자 드갔다. 드가이까네 벽은 떨어지고 창은  
미어져서 퍽 더러운 집이나마 한데서 새우기보다는 나왔습니다. 나아서로 그 집에 잤단 말이다.  
자는데, 잠서로 인자 혼자서 중얼거림서, 할배가 밤을 새올라카이 중얼거리면서,

“퍽 더러운 집이나마 한데서 새우기보다는 나왔습니다.”

이라면서, 시조를 하나 했는 기라. 시조로.

“말 없는 청산이오. 태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청풍이오. 임자 없는 명월이라.”

[조사자: 아-, 다 기억 하시네예.]

“이 중에 병 없는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그래, 그 시조도 한 마디 하이까네로, 어디서 토깨비들이 개수 토깨비, 토깨비 여러 마린데  
개수 토깨비가 그 영감 앞으로 오더만은, 영감 그 저 흑 달린 영감인데,

“그 저 노래가, 아 그 시조가 말이지, 그 노래가 흑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고 이라거든. 그라이까네 할배가 한단 말이,  
“내 이 흑에서 무신 그렇, 그렇겠느냐.”  
인자 흑을 몬치면서(만지면서) 이라인까네로, 아무래도 그 흑에서 그렇다고.  
“그 흑을 우리들에게 주지 안으실랍니까(않겠습니까)?”  
그거 토깨비들이 그라는 기라. 그라니까네로,  
“내 이 흑이 천상 귀찮게 여기는 긴데, 주도 상관없지만은 아파서 어떻게 띠어주나.”  
이리 카이까네로  
“우리들이 띠 것 같으면 하나도 안 아프다.”  
카거든.  
“하나도 안 아픙니다.”  
이러 카이께네로  
“그라면 그렇겠나.”

흑을 즐라고 싱강을(실랑이를) 했는데, 그래 인자 그래 그 흑을 즐는 기라. 주이까네 마  
감쪽같이 띠가 어디로 가뻘다 말이다. 가서로 그래 그 할배가 흑 붙었던 자리로 만치면서,  
만치면서 그래 그 도깨비들이 있던 곳을 가 보이까네, 그 토깨비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저 뉘꼬 그 토깨비들이 있는 곳에 그 금이 마 한거(많이) 있거든. 그래서러 그 할배가  
한단 말이가,

“금이 토깨비 값, 흑 값이라네.”  
그람서 그래 노래를 또,  
“까마귀 싸우는 곳에”  
아니, 태산이 높다 하더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이 또 시조를 한 개 더 했는 기야. 그래 그래하면서 흑 달린 그 영감이, 흑 띠 준 거서로  
“금방맹이, 은방맹이 금방맹이, 흑 값이라네.”  
이라면서 그래 안고 오더라고. 그그 4학년 조선어책에 그림이 다 있더라고. 그 있더라고.

[사하구 설화 46]

### 한 번 구르면 삼 년밖에 못 사는 삼년고개

정말수(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삼년고개라 카는 고개는, 그 인자 옛날에 삼년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할배가 한 분 삼년고개라 카는 그 고개에 오다가. 갔다 어데 왔다가, 장에 갔다 오다가 꾸부러졌는데, 그 삼년고개에서는 한 번만 꾸부러지면 삼년밖에 못 산다는 그 말로 듣고, 이 할배가 그 말로 들은 말이 있어서려 인자 근심이 돼가 병이 났는 기라.

병이 나가 죽기가 돼가지고 드러누웠는데, 그래 어떤 옆에 소년이 한 분 살다가, 그래 가서로 할배한테 한다는 말이가,

“할배요, 삼년고개에서 한 번 꾸부러지면 삼년밖에 못 살지요.”

“그래, 삼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내가 이래 병이 나가 이래 드러누우가 있다.”

고 하니까,

“참 좋은 방법이 있다.”

꼬 이라거든.

“그래, 방법이 뭐시냐?”

고 물은께로,

“삼년고개에서 한 번 꾸부러지면 삼 년이지요. 두 번 꾸부러지면 육년이지요. 세 번 꾸부러지면 구년이지요. 네 번 꾸부러지면 십이 년이. 이런 좋은 방법, 방법이 또 어디 있느냐.”

꼬 이라이까이네로, 그 할배가 그 소리 듣고 오래 살라꼬, 그 삼년고개서, 그 청년은 그 소리로 하는데, 지는 그 소리가 어에 되는지도 모르고 막 꾸부르는 기라. 꾸불러, 꾸부러 재치는 기라.

[사하구 설화 47]

## 시조를 잘 짓는 과부

정말수(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옛날에 어는 과부가 한 분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과부가 한 분 살고 있는데, 과부가 한 분 살고 있는데, 짝- 밤에 아들하고 잘라꼬 잘라 카는데, 그래 인자 밤은 짙어지고, 밤은 짙어지고 인자, 뭐 잠이 들어가 자는데, 마- 한데서 먼데 개가 짚어 울거든. 밤중이 되니까네, 짚어 우니까네로, 그래 그 과부가 하는 말이가 시조라. 저저 뭐꼬, 그래가이고 인자 그 개가, 먼데 개가 짚어 우니까네로,

하림를 열고 보니 하늘이 차고 달이로다.

하늘은 잡고 달이로다.

저 개야 공산 잠든 달을 짓어 무삼하리요.

그래, 그래 하인께네 개는 짓고 가빠고 없고, 저기서 먼 데서 짓는데, 이 과부는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이까네로.

개는 짓고 하늘은 차고 달이로다.  
저 개야 공산 잠이 든 달을 짓어 무삼하리요.

그런 시조를 하고 있더라고. 그 시조라.

[사하구 설화 48]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정윤선(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저 뒷동네 봉사하고 병어리하고 살았어. 봉사하고 병어리하고 살았는데, 인자 뒷동네 인자, 뒷동네에 불이 났어. 외판집에 불이 났는데, 그래갖고 인자 이 봉사가 그래 인자 할마이를 보고 가 보라 쟤어. 봉사 영감이. 가보라 칸께네로 ,

“그래-, 마이 탔더나.”

이란께,

“어, 지등만 남고 다 탔대요.”

이란께, 이제 요걸 만졌어(만졌어). 그란께 요게 꼬친지 알고, 기등이라 칸께 꼬치라 생각하고. 또 인자 또 인자 그 인자 또 여 인자, 어데 뿔이 나갖고 또 갔는데, 또 봉사가 병어리로 가라 쟤어. 갔다 온께네로,

“와 저게 어, 그는 간께네로 어, 열매나 탔더노?”

그런께네로,

“찌붕찌실하게 뭐 쪼깨 남고 다 탔다.”

한께,

“아- 요게? 터래기만침 남았더나.”

그라고, 그런다 카대. 그래 그기였는 기라.

그래 또 뿔이 있는데, 또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 “뿔 하다 태웠던고?” 한께, 인제 만지

니까, “아이고 감자 삶아다가.” [청중: 맞다, 그거를 만지이께네, “다 타 버렸더라.” 이려고, 이거를 만지이께네, “아 기동만 남았더냐?” 이래갖고.]

“뭉하다가 또 탔더노.”

이란께네, 그래 인자,

“감자 꾸우 묵다가 탔구나.”

이란께, 또 인자 밑에 [청중 : 감자로 만져서, 인제 불알을 만진께, “아- 감자 꾸어 먹다가 불났구나.”]

이바구 그렇대.

[사하구 설화 49]

### 오즘 누다 밑을 게한테 물린 아낙

정윤선(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옛날에 인자 자기 남편하고 시아버이하고 들에 인자 일을 하러 갔는데, 점심을 해갖고 인자 깡어리에다(광주리에다) 이리 이고 가는데, 이래 인자 오즘이 누린께, 이걸 어데 내라 놓도 못하고 무겁어갖고, 개울이 이래 있는데, 거 가서 인자 점심 깡어리 이고 저게 저 소변을 했는데, 게가 고마 나와서 여를 짝 물고 있어. 쥐 새끼라 카더나 게라 카더나. [청중1: 게, 게, 게] [청중2: 끼, 끼, 께.] 그래 요를 딱 물고 있었는데, 이기 일어나도 몬하고 떼도 몬하고 인제, [청중1: 물리가지고 인제.]이리 물리갖고 있는데, 시아버이가 내리왔어. [청중2: 예-헤!]

점심 깡러리 그를 받을라꼬 이리 한께네로, 며느리가 인나도(일어나도) 몬 하고 그래가 인자, [웃음]

“아버님.”

[청중1: “아버지, 내 밑에 좀 보소.” 하더란다.] [일동 웃음] 그런께, 게한테 물리갖고 있는께, 게 땀라 칸께네, 밑에 메느리 그걸 봐야 되겠고, 이거로 곤란한 기라. [웃음] [청중1: 그래.] 그래 니야 어짜든가 말든가, 내는 점슴 깡어리 이거 빼뜰어갔어(빼앗아갔어). 빼뜨러간께네, 지가 인자 그걸 빼고 인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

[사하구 설화 50]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1)

정윤선(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부부, 젊은 부부가 사는데, 시어머이하고 같이 사는데, 한 방 거치로 해. 한 방 거치로 한께 인자, 이 젊은 부부들이 참 마누래 생각이 나는데, 이 시어머이 때문에 몬 하는 기라. 그란께 인자 시어머이가 인자 누 자는 줄 알고 살썩이 인자, 이리 잠들었다꼬 인자, 돌이서 이리 하고, 하도 한께 좋아갓고는, 저 우리 이래갓고, 아들이 인자 우리 이래갓고, 마누래를 보고,

“우리 이럴 때 부산 가자.”

이란께,

“어, 좋아, 좋아. 가, 가.”

이리 됐는데, 그래가 실컨 하고 일난께, 시어머이가 딱- 앉아갓고 담배를 푸고 앉아, 담뱃대를 딱 물고 앉아 있는께네,

“아이고! 어머이요. 언제 일났소?”

이란께,

“너거 부산 갈 때 일어났다.”[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51]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2)

정윤선(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자기 아들하고 인자 한 방에 인자 이불 하나를 덮고 이래 자는데, 한 여름에는 삼베 훌이 불로 갖다가 풀로 뺏뺏하게 해갓고 이래 잤어. 잤는데, 등 넘어 등 넘어, 아는 여럿인데도, 또 인자 등 넘어 등 넘어 이래갓고, 아들 요래 재끼놓고 인자 하는 기라. 한께네로 들썩들썩 들썩 이란다.

“엄마, 엄마.”

아, 저.

“좋나, 좋나.”

이란께,

“좋다, 좋다.”

이 소리는 인자 여자라논께 몬 하고,  
“좋나, 좋나.”  
이란께,  
“좋으면 좋다 캐라. 좋으면 좋다 캐라.”  
한께, 끄떡끄떡 하던께네로 삼베 모가지, 저기 훌이불이 모가지를 자꾸 이라거든. 이란께,  
“엄마, 엄마. 좋으면 좋다 캐라. 우리 모가지 끈어진다.(끊어진다.)”

[사하구 설화 52]

### 거머리가 된 기생의 녀

정윤선(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거머리가 기생 죽은 녀이라 카더라 참. [조사자: 뭐 어떻게?] 그기 사람 피로 빨아 묵고, 불으믄 안 떨어지고 피를 빨아 묵고 굶버려 지거든. 그런께 그래 기생 죽은 녀이라 해.

[사하구 설화 53]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한금심(여, 1931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그래 인자 아가 울으이 아를 인자 달랜다꼬, 요리요리 하니, 스님이 와가지고, 인자 뭐, [청중: 동냥.]

“동냥을 좀 즐라.”

카이,

“아무것도 줄 췌 없고 우리 아나 데려가까?”

이라고 해서, 난주(나중예) 그 아를 데리러 왔더래요. 그 지 주둥이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즐대. 그래가 녹하가(녹여서) 종을 만드이 종이 소리가 안 나서, 그 녹하가주고 종을 만드이 소리가,

“땅그름.”

하이 나더래요. [청중: 에밀레-.] 그래,  
“에밀레-.”

하고. 그래가 에밀레, 에밀레. 오마이가 인자 죽였는 거라. 그리 일이 그렇다 아이가. [조사자: 그래, 스님이 뭐 하면 차라리 안 주면 안 주지 뭐라 말 하면 안 된다 하대요.] [청중: 하는 기 아이라.] 그래 말이 씨.

[김춘자]

그런 소리했어 그자? 그래, 아무것도 줄 거 없는데 아나 줄까? 카이께네, 그 스님이 가가 종을 만들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 할 수 없이 그 아를 갖다 열어가주고 한께네,

“에밀레- 에밀레-”.

[청중: 에밀레-] 옛날부터 그 말은 있다. 옛날부터. [청중: 그런 말이 있었다.]

[사하구 설화 54]

### 박자할 때 박을 것을

한금심(여, 1931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사진 찍자하니, 영감이, 우리 사진, 옛날에는 사진 박자했거든. 할마이보고 인자 그라이, 영감이 마 죽어뿌렸어.

“아이고- 박자할 때 박을 것을.” [장단을 맞추며]

사진을 찍을 꺼라 이 소리야. [청중: 그래 아들이 몬 그래하이.] 그래가 아들이 어마이가 그래 울어싸니,

“그기 무신 소리요. 시끄럽소.”

“야야, 야야, 시끄럽다. 너거는 모른 소리 하지 마라.” [장단을 맞추며]

고, 막- 쓸쓸이 울고 그래. 박자할 때 박을 것을. 고마 죽어뿌렸거든 영감이. 그래놓으이 사진도 한번 몬 찍어보고 죽었다 이거지. 그래 아들은 그 쯤 찡피시럽어이(창피해), 막 뭐라 해놓이.

[사하구 설화 55]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한금심(여, 1931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갱피를 훑다가 찌가 넣어놓이, 비가 와서 떠내려가도 그거 하나 걸어 담아놓 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라. 과개 불라고. 그래가 과개 보러 갔어. 과개를 잘 해가 인자, 진주 남갱(남강)가가주고 뭐 하늘같은 말 타고 인자 터벅터벅 오이, 그 여자가 인자 내빼리고, 거 저거 신랑 내빼리고, 딴 데 가서 또 내나 훑던 갱피 다부 훑는다하더라 안하대. 그지요?

그라이 그래 여자 보고 물을 한 동이 이고 오라 해가, 막- 쏟아뿔고 이 물 주서 담을 수가 있냐. 그래 지를 내빼리고 가도, 팔자가 그리 나쁘라 이거지, 뭐 딴 거 있냐.

[사하구 설화 56]

### 전처 자식을 괴롭힌 계모

한금심(여, 1931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인자 할마이가 죽고, 아들 하나 하고 영감하고 세 식구로 사는데, 이 할마이, 인자 오는 할마이가 그 아들이 미버(미어) 죽겠는 기야. 지가 안 놔노이. 저거 영감은 담배장사하고.

“아이고 야야, 오늘은 내 따라 가 보자.”

뭐 어데 갔다가 솔나무에다 묶어놓고 오고 이래 계모가. 그라몬 어디서 혼자 나무를 꼭 잡아매놓면 오면,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저거 아버지가 오몬, 똑 저거 아 목소리 걸거든. ‘이상하다. 아가 요가 올 리를 만무한데.’ 보면, 저거 아가 딱 문끼가 그래 있거든.

“아이 니 와 여가다 문끼가(뭉여) 있노?”

“친구들 놀다 뭉꺼 줄라 해가지고 가뿔고 없네요.”

이라고, 끌러가 내려오고. 또 한 번은,

“야야, 니 어데.”

그래, 하 시간이 저리 됐구나-. [청중: 하소. 하소.] 그래가 하루는 또 또 따라가자 해서 또 따라갔어. 따라가서 큰-데 들이다보이 뭐 굴겘은 데가 있는데, 마 그 계모가 고다 밀으러 버리고(밀쳐 버리고) 왔어. 혼자 그거를 딱,

“니 졌다 내 졌다. 니 지고 내 직있는데 내 이랬다.”

이래 찻거든. 혼자서 그 굴 안에. 가마히 또 아버지 오이, 똑 저 아 목소리라. ‘이상하다.’고 들다보이 지 아 혼자 그라고.

“야야, 여가 어디라고 혼자 와 이리 빠지가 있노?”

그라이,

“아, 같이 와가지고 마, 친구는 나 좀 안 꺾지주고 저거캉 가고 없어요.”

그래가, 그래 혼자 마 오도 가도 못 하고 이라고 있다. 마 인자 뭐 뭐가지고 끄나풀 해가, 달아매가 뭐 올리가지고 인자, 또 데리고 온다. 아이고 이 계모년은,

“점도록(하루종일) 어디 갔다 인자 오노.”

이라거든. 그래 있다 또 하루는, ‘저거를 어찌 직이야 되겠노.’ 연구를 하는가 봐. [청중1: 아들로 직일라꼬?] [청중2: 서모가. 어째 그래 다 그란다.] 어, 서모지. 지가 안 나아 논께. ‘어찌 저거를 직이야 되노.’ 싫어가 하루는,

“너거 아버지. 저 담배 저저 얼마나 팔았노?”

그 담배 억수로 마 굴그지 크대. 그거 해서 덮어놓으면 나오도 들오도 몬 한대.

“너거 아버지 담배 얼마나 팔았노 함 번 들여다 보라.”

그라이,

“예.”

그래 들여다 보이 흑- 밑으로 뚜껑 딱 닫았버리고. [청중1: 우짜꼬!]

“야는 어디 갔는데.”

이러거든. 영감이.

“몰라요, 어디 가고 점도록 안 오요.”

이라거든. 그래 인자 아침에 자고 담배 또 내가(내어서) 인자, 한 메칠만에 담배를 빼 가는데, 또 그 날은 인자 그 날 아침에 담배를 인자 빨라고 문을 여이, 아가 떡 앓아가 있거든.

“하이고! 세상 별나다. 니 뭐 땀에 여게 들여다보고 앓아가 있노.”

“아바, 아버이 담배를 팔았나 안 팔았나 보이, 고마고마고마 이리 돼가 있어요.”

[청중1: 문이 댕겼다.(달겼다.)] [청중2: 계모가 그랬다 안 카나.] 거짓말로 그래. 거짓말로 속이는 거라. [청중3: 저런 고런 년이 어데 있노? 내가 봤이면.] 암만 또 저 죽일 뭐 생각이 안 나서, 동네 개를 잡아서 팔고 그런 사람이 있어 동네. 그래 동네 사람한테 가가,

“아이고! 내가요.”

뭐 돈을 준다나 뭐 재산을 준다나, 준다고 하이, [청중2: 곡속을 준다 하던가배]

“내가 내 병이 있어서 사람 간을 먹어야 지가 낫는다.”

카거든. 그 여자가. [청중1: 서모가?] [청중2: 직일라고 그란다.] 어,

“저 사람 간을 먹어야 낫는다.”

카거든.

“그래.”

그래가 개재이, 개 잡는 사람한테 인자 떡- 인자 의논해 놓고 왔어.

“넌 아츰에 아를 보내이, 간을 빼다 주라.”

어-찌 아가 잘생겼는지 절대 몬 죽이가지고, 저거 집 개를 하나 딱 담아가, 간 내가지고

올라 보냈어. [청중1: 아! 직이지도 몬 하고.] 아는 인자 개 새끼로 하나 딱- 주며,

“니 발길 닿는 데로 가라.”

이랬거든. 그 개재이 인자, 인자 아바이텍이라 알고 보면, 그래가 야가 개, 하다- 천지 가는 대로 가이, 어디 큰- 나무, 감나무가 벌-하이 8월 달이 됐던가, 배가 고파 그 올라가 감을 좀 따 묵고, 마 거서 꼭- 끌어안고 자고, 개는 그 밑에가 이리 쪼그리 있고 이라래. [청중2: 개를 한 마리 주던갑다. 그쟈.] 응, 개를 하나 주가, 개 따라가라고. [청중1: 직이라 한 개장사가 개를 주더라 안하나. 그 강아지로.]

그래가 딱 따라가, 이리 해필하고 간다고 간 게, 옛날에 뭐 정승이, 임금 잡이라. 그래가 임금이 딱- 이래 감나무 밑에 뗏이 환-하이 빛이 나거든. 광이 나는 거라.

“야야, 저 감나무 밑에, 감나무 우에 올라가던동 함 차라봐봐라.(쳐다봐라) 뭐가 있다.”

이라거든.

“무(어느) 아가 누(누워) 자네요.”

이러거든.

“허, 그래. 무슨. 그래 내려오라 캐라.”

그래가, 인자 저거 집에다가 딱 인자 나아가, 살아 같이 살아 개하고 그 아 하고. 그래가 어디 마 큰- 굿이 나자빠진다고 마, 식구들 다 가는 거라 마 종캉. 그런데 가 이름이 개똥이라. 개똥이만 놔놓고 저거 다 가뿌렸어. [청중1: 옛날에는 개똥이도 짓고 마 이랬다 이름.] 응, 개똥이가 인자 그래가 인자 만날 수컴똥바람(숯처럼) 시커머이 알곶제. 그래가 다- 가고 나서 예따 내도 한번, 말도 천지라 말이. 옛날에 말이 무슨 대답을 하노. 거짓말이라 그러지.

“니 옛날 장터 빨리 갈 수 있지?”

그런께, 말이 고개를 끄떡 하더라. 그래 말 타고 인자 마 죽어라 아, 그리 하자 그 개재이 집에서 오서 도복을 지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도복을 한 벌 지아주고 딱 싸 줬어. 그래 그거 딱 입으이 마 일등이, 조선 팔도에 인물이 그런 인물이 없어.

고놈을 입고 막 그 장터로 가가 지가 날라 댕기는 거라. [웃음] 그래 장, 장터에 가가. 판 판 귀궁은(구경은) 없고, 야가 야가 귀궁을 하는 기라. 날라 댕겨. 여기서 떡 주면 받고 저기서 떡 주면, 여기서 고기 주면, 마 뭐이 한 보따리로, 그거를 다 가가 와가주고 지 놔논데 놔 놓고, 각 집에 와서 또 뭐 뭐 뭐 수수 방석 만들어가지고 떡 있으이.

“하이고! 옥 봤제. 그런 귀운이 없다. 원 총각이 날라 댕기는데 마, 막 미치겠더라.” [일동 웃음]카이, 그래 지가 그랬는데.

“하이고! 그래요?”

[청중1: 보고 완 사람들이, 집안사람들이 이제 그리 이야기를 한다.] 어, 이바구를 하고.

“그래요? 잘 했네요.”

이라이, 한 사나흘 되니 인자, 딸아가 서이 있어. 그 집이 딸 서이. 제일 큰딸한테 인자, 머리 한번 빗어 불라고 인자, 본 본지를 내 놀라고 인자 딱-

“빗 좀 줄라.”

“어데서 응, 그래 저저 빛을 돌려 캐셨고.”

뭐라 캐싸이.

“예-”

그라고 복판딸한테도,

“빛 좀 돌려고.”

하이,

“어디서 그래 빛을 줄라 그리 한 소리를 입에다가 그리 하냐고”

뭐라 하거든. 제일 막내딸한테,

“빛 주라.”

“어, 들어와, 여게 들어와. 들어와. 내 머리 뺏기주께.”

이라거든. 거기 지 보호가 될라고. 그란다. [청중2: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머리 딱- 감고  
빛어주이, 옛날에 언제 한 번 놀러가는 그 덕우기 곁거든. 암만 봐도.

“그래 야야 개똥아, 니 옛날에 그 옷 입은 그거 없냐? 그 도복 입고 막 날라 댕기던데.”

그래,

“있지요.”

하거든.

“아이고, 가 와.”

좋아져갖고 그치에 누버자는 거라, 들어 자는 거라. 새벽도 모르고 밤중도 모르고 인자  
둘이 자는 거라.

그래 인자 종들이 몇 개 있는데, 저거 인자 제일 막내 인자 딸네, 그거 막 아무보고 졌거든.  
아침에 세숫물도 안 뜨고, 아무껏 소리도 없고, 개만 여기서 죽는다고 울어왔는 기라. 개가  
커가지고.

그래가 인자 아하 창고에 내려다보니 머리가 하나고, 뭐 머리가 하나, 몸띠가 들이고 이래  
쌌고, 수건 달우고 인자, 이제 마 내일 모레 인자 몇 시만, 몇 시가 되면 인자 죽일라고  
인자, 시간을 딱 받아냈는 기라. [청중1: 총각 그거로?] 어, 둘이 끌어안고 자메, 옛날에 그런  
데는 큰- 우사라 카대요. [청중2: 맞아. 맞아.] [청중1: 쫓가낸다.] 큰 송(흥)이지. 직일라고.  
직일라고 딱 날짜를 받아노이, 그래가 떡 자다가, 실컨 자다 일어나보이, 개는 “짹짹” 거리고,  
일어나라고 울어도.

그래, 개 보고, 개가 무슨 말을 하노? 고개만 끄덕하대.

“니 저 엄마 아버지 집 알제.”

개가 고개를 끄덕하거든. 그래가 만 유서를 써가지고, 그 인자 그 아- 그 내가 빠자 묵었다.  
그 옥통수라는 게 불면, 옥 세 개에서 소리가 난대요. 그 통수가. [청중1: 통수가. 옥통수.] 그  
통수를 왜 쫓냐면, 이 저 그 내나 그 임금 집에서 삼서(살면서) 나무 하러 가가지고, 딱 살뿐  
잠이 드는데, 저거 엄마가 꿈에,

“야야, 야야 니 그 옆에, 쫓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바우 밑에 한 번 가 봐. 그 나팔이 하나

있다.”

그래,

“니 나팔 그걸 가지고 용케 쓸 데가 있니라.”

그라고 갈차주이, 그래 자고 일어나보이, 그거를 인자 내가 모르고 안했어. 이바구.

이 보이 반짝반짝하고 통수가 딱- 있거든. 한 번 살- 보고 온 동네가 짱장 울리거든. 어머슴들이 무슨 소리냐고 마 일어나거든.

“몰라요, 나는, 무슨 소리 나대요?”

숨카가(숨겨) 인자 탁 인자 옷하고 그 통수하고 탁 개 꼬랑이에다가 묶어가지고 인자 집에 가라 해. 개재이 집에. 그 개 인자 보내준 집, 그 집 찾아가것냐 하이, 찾아갔어.

[청중: 잘 찾아간다.]

“아이고! 야야, 니가, 우찌 그리 니가 쪼개내서 갔는데, 집을 알겠더노?”

아이고! 내 꼬랑지만 보라고 막 이래 썩거든. [웃음] 지 꼬랑지 뭐 있다 이거제. [청중2: 아하, 아-] 그 유서를 써서 꼬랑지다 짜매주고, 꼬랑지다 나팔도 여주고 이래 매달아 놔노이. [청중1: 아, 개가 이제 내 꼬리를 보라 이거다.] 보라 이라이, 무엇이 빠딱 하거든. 그래 보이, 그 저 저 뭐꼬 나팔, 만사 유서를 써가, 옛날에 장터 그 귀궁하듯이(구경 하듯이) 저거 집에를 쳐들고 들어오라 이거야. 나팔 불고. 굿을 만들어가. 그래 해가 오라 유서를 써노이,

그래가 마 사흘 나흘을 음숙을 해가, 개재이집이 잔칫집 한 가지라. 해가 마 온 동네 사람을 찌지고 뿔고 해놓고, 목고 두들고 막 불고 이라고. 뭐, 하이고, 양반이 그 소리, 나팔 소리 나이,

“아이고, 저저저 옛날에 그 장터, 장터 그 가이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난다. 나가 봐라.”

이러거든. 종들 보고 그래.

“예.”

하는데,

“시방(지금) 골짜기에 여 뭐 큰 굿이 쳐들어오고 있네요.”

그라거든. 그래가 자꿈자꿈 저거 집에 쏙 들어오거든. 하이고 이상하거든. 저거 집 찾아 오거든, 찾아가가지고, 인자 딱 개재이하고 그 임금하고, 임금이 시방 텍이면(지금 같으면) 임금이지. 딱- 인자 인사를 나누는 거라. 이러쿠 이러쿠.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찾아 왔냐고. 우짜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

하거든 개재이가. 그래서 인자,

“이거 이거 사위 이거 살아서, 이리이리 굿을 끼미(꾸며) 오라 해서 이리 왔다.”

고 그래노이, 내일 모레, 내일 죽을 날인데, 그래노이 죽이고 날이고 마 난리 나가, 고마 신랑이 나와가 당장에 식을 올리고, 아-주 부잣집이고, 옛날에 임금 한 가지고, [청중1: 그래.] 그리 잘 살고 살았대요. [청중1: 임금 사우 됐네.] [청중2: 그 임금 사우가 됐네. 아이고 잘됐다.]

아 그리 하, 빠졌다. 내가 끄트머리 마저 하께. 인자 그래 장개를 갔제. [청중1: 응.] 임금 딸하고. 그래가 생전 이 남애가(남자가) 말을 안 해.

“왜 이만큼 호식호강해 잘 사는데, 뭇이 부족해서 말을 안 해요?”

그래. 그래,

“할 때가 되면 한다.”

한께네,

“그러면 내가 날짜를 받아가, 내가 우리 고향을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카더래. 그래,

“왜?”

“그래 꼭 그거를 꼭 갔다 와야만 된다.”

해서, 그래 그 또 그 곳을 해가지고 인자, 저거 엄마 뒤편 가는 거라. 저거 엄마가 죽었어. 그래가 뒤편 가가 막- 곳을 하고, 온 동네 곳은 얼척없이 좋거든. 그래가 딱- 인자 그 계모를 뒹뒹 안 죽고 살아가, 저거 아버지는 그래도 안 죽이고, 계모만 딱 딱 벌쳐서 인자 몰차 놓고 놓고, 한 점 한 점 찢라가 죽이는 기라. 살키를 인자. 그래 지한테는, [청중: 그래 그리 직이야 된다. 본처의 자식을] 그런 기 문 쓰게 했거든. 그래노이 원수를 갚고. [청중2: 그래 웅덩물에 빠자 직일라 쟤제. 낭그에 올라 매놓고 직일라 쟤제. 담배창고에 안자 가달제, 간 빼가 줄라 쟤제 지가. 그래가] 난중에는 간 빼 목을라꼬 지랄병 하고. 그래가 살았어 인자. [청중1: 개장사한테는 이래주야 되겠다.] 아이고 그렇지.

그래 가마이 보이, 영감이 저거 할마이 뒤편 가서 곳을 하고 난리거든. 온 동네 사람이 마. 곳이 났거든. ‘어이 우리 할마이 뒤편 가서 저라노.’ 쿠이, 난주 그 영감 할바이를 부르거든.

[청중1: 저 아들이다. 그자?] 인자 불러 그 아들이. 그래가 인자 잘 돼가지고 인자, 모르지. 뭇 쪼개내서(어려서) 뭇, 쪼개내서 봤는데 컸는데 아나 아들인지. [청중1: 모른다. 그래.]

그래가 참 잘 묵고 잘사는데 그 살키는 태와가지고 모구, 모구, 깔따구가 되고, 빼땅구는 뿔 되고 이랬단다. 그래서 계모 낮이래서 그리 문대요. 사람을. [청중2: 모기가 그래 그기 참.]

그 빼당구고 살키는 태아가 모구가 되어가지고 그리 사람 물어뜯는데. 계모다라서. 다 했다.

[청중3: 아- 이야기 참 잘했어요.]

[사하구 설화 57]

## 오누이와 달래고개

한금심(여, 1931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옛날에 그 인자 두 형제간이라. 두 남매고, 형제간인데. 인자 뭐 어디로 간다고 가니, 비가 와가 딸딸 불고, 옷이 딸랑 불으이, 야야 동생이 이려는 기라. 동생이 인자 고마, [청중1: 누나 궁당을 본께네.] 생각이 나서, 지 꼬치를 찍어가이고 마 죽어.

‘아 와 안 따라 오는고.’ 보이, 한참 내리가보이, 뭐 꼬치를 찍어가 죽어가 있더라 카대. 그, [청중2: 그 와 그랬는데?] 여자 생각이 나서. [청중1: 누나하고 가는데 비가 오이께네, 옷이 옛날에는 이리 뚜꺼운 옷이 있었으예? 얇으니까네 딱 불으이.]

그래가 있고, 그래노이, [청중1: 그 육체가 뭐뭐 유방이고 다 이리 나오이까네, 지도 모르게 그 낭심이 마 쫘 그기 됐고, 그래께네.] 응 다 들어난다 아이가, 그러이마, 지가 마 꼬치를 찍어가지고, [청중2: 지가 자살했구만. 지 연장을 지가 그거 해가지고.] 그래가 죽었다 카대. [청중1: 그래하고 동생이 안 따라와 가주고 누나가 되돌아 올라가이께네, 꼬치를 내갓고 돌로가 찍어가 죽었더라대.] 그래가, 응 응

“아이고-이! 말이나 좀 하지.”

누부야가 그러더라 안 하나.

“말이나 하지. 니나 하고 내나 아까”

[청중1: 그래가이고 그래 말이라도 한 번 해보지, 달래나 한 번 해보지. 그래가 달래고개 라.] 어, 그랬다가 죽었다 안 하나. [청중2: 그래가 달래라고 달래구나.]

[사하구 설화 58]

## 개똥을 찌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복남(여, 1985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개가 하도 인제 저 그때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가 인제 보리쌀을 삶아논 걸 갖다 훔쳐 먹었는가배. 개놈의 배가 너무 고프게. 그래가지고 인제 그걸 찌고 찌고 찌어가지고 밥을 해논께로 그걸 인제 자기 먹기도 아까운데, 인제 먼지 먹으면 인제, 먹고 시어머니를 주논께, 그래 시어미가 그래 맛있게 잡수더라네요.

그라논께 막 노성을(뇌성을) 하더라요. 막 노성을 하고 막 이래논께, 고마 ‘이기 내가 시어머니를 이걸 드리서 내가 그런게 보다’ 싫어가지고 막 고만 어떡할 중을(줄을) 몰라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는데, 고마 내중에는 여름이던 거지에. 모 심구러 가는데 거 인제 들에를 쫓아갔다 카대. 들에를 쫓아갔는데 고마 들에도 고마 천둥이, 이 사람 눈에 들어 간께, 천둥을 또 하더라요. 그래논께 사람들이 막,

“다 나가라.”

카더라네.

“천등을 안 하다가 어 새댁이가 온께로 이렇게 노성을 하니, 여러 사람 다치지 말고 나가라고.”

이랑께 눈뚫 밑에 올라가논께로 고만 쌀자루를 한 자루 주더라고 이라대, 마 소문에는.

[사하구 설화 59]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복남(여, 1985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할매가 인제 세상을 안 뜨고 있음께, 그때는 칠십만 되도 고려장을 해논께, 아버지가 지계를 가지고 오더니만은 어머니를 갖다 지계에다 짐더라네(지더라 네). 짐더니만은 이 손자가, ‘왜 할매를 저래 지고 어디로 가시는고?’ 싶어 인제 살곰살곰 따라갔답니다. 따라강께 산으로 가거든. 산으로 강께 전도(자기도) 같이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할매를 인제 참 굴을 이래 파놓고, 할매를 인제 며칠 먹을 거를 인제 밥도 갖다놓고 거기다 묻어놓고 인제 오는데, 지계를 내뺐고 오더라고. 지계를 내뺐고 온께 솔, 인제 아들이지 인제 이 사람은,

“아부지, 아부지. 왜 이 지계를 안 가지고 갑니까?”

이랑께,

“에이 지계는 가져가면 안 된다. 할매를 갖다 여기 가서 버리고 가서로, 그래 기냥 거거 내뺐리야 한다. 내뺐리고 가자.”

이래 한께,

“나도 이거 가져 갈거여. 나도 가져가서 나도 아부지 내중예(나중예) 같이 할매마냥 매장할 거라고.”

이렇게 해논께, 그래 그기 없어졌다고 말은 그래 하대요.

[사하구 설화 60]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복남(여, 1985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장에 가면은 술을 잔뜩 잡숫고만은 안 오신답니다. 그래 안 오시서로, 오감(올까) 암만 바래도 안 오고, 안 오고 하대. 만날 본께 도깨비한테 흘키가지고. 이 영감이 흘키가지고 뭐고 뭐고 그래가지고 인제 막 날이 다 쉼라 카몬 인제 오고 오고 그라더라네요.

그래 한날은 인제 영감이 결심을 했다 카대. 내가 요놈의 도깨비를 내가 워떻게 인제 내가 복수를 한다 캐맨(하면서), 그란께 뭐 끈을 가지고 왔더라네요. 끈을 이제 저 거 뭐라요 조끼 에다 넣어가지고 이래 갔는데, 또 물을 우리 마시는 인제 그 또랑이, 큰 개고랑이 있거든에, 촌엔께(촌이니까). 개고랑을

또 건너면 또 거기서 또 나선답니다 직접.

그래 나서가지고 인제 막 돌이 인제 씨름을 하고, 그래 인제 씨름을 하다하다 인제 내중 에는 저 어데 가마이 본께, 무슨 어디 뭐 나무가 있는 거 걸더라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막 그 나무로 가지고 꼭-꼭 짜맷다 카대요. 짜매놓고 인자 그날은 집에를 왔는데, 와가지고 인제 아침에(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갔답니다. 가가지고 인제 거 가본께로 아무것도 없고 마당 빗자루 [청중: 모지랑 빗자리가 있던가베.] 인제 그것도 마당도 만날 쓸다 본께 뭘 묻었던 모냥이지. 그래가지고 마 마당 빗자루, 어떡키(어떻게나) 키가 크더라요.

저 도깨비가 자기보다 더 크더라네. 근께로 고만 이제 그 마당 빗자루더라네. 그걸 가지고 자길 가져 간 끈에 꼭-꼭 묶어가지고 있더라입니다. 그래 인제 여자들 그 저 거시기 있을 때 뭐가 묻으면 그렇다고.

[사하구 설화 61]

## 뒤에서 해코지 하는 도깨비

김복남(여, 1985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아들이라 커매 자꾸 그래싸서로 그러면 아들이면은,

“애비가 뒤에 가야지. 니가 앞에 가거라.”

이러 칸께,

“으응 아버지가 앞에 가야지요. 내가 뒤에 가야지. 아들이 뒤에 가야지.”

하매, 그 똑 그래 와서 뒤에서 그래 해꼬지를(해코지를) 하더라 카대요.

[사하구 설화 62]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사덕(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아이고 며느리가 무슨 국을 끼웠는고 맛있다 맛있다.”

이람서 만날 뉘는데(먹었는데), 만날 끼리줘서 너무너무 맛있거든. 맛있어 고거를 한 바리를 하나를 꺾지가 자리 밑에 넣어놨다가, 아들이 먼 데 가가 몇 개월 되다가 오이, 그래 비졌디 만은(보여줬더니만),

“이기 뉘은 고긴고 마 메느리 끼리주는데, 어찌 맛있는지 내가 너무너무 맛있더라. 이거 니 함 봐라.”

카이, 보디만,

“아이고 어머이, 끼시네요(지렁이네요).”

카이, 마 눈을 버쩍 뜨더라.

[사하구 설화 63]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차선(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늑대 온다. 늑대가 온다.”

해도 아가 자꾸 울대.

“꽃감(꽃감) 주까? 꽃감 온다. 꽃감 주까?”

한까, 고만 늑대도 도망가더라 카대. 뉘 말은 참 호랭이.

[사하구 설화 64]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차선(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아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찌 울어서,  
“저 호랭이 온대이. 호랭이 온대이.”  
하이, 더 많이 울어서,  
“울지 마라 꽃감(꽃감) 주께.”  
하이, 떨걱 곤치더라(그치더라) 하대예. 그래이 호랭이가, ‘내보다 더 무서운 게 있구나’  
캄서 가더라 카대예.

[사하구 설화 65]

### 개똥을 씻어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김차선(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개똥을, 개똥을 저 질에(길에) 가다가 실어(쓸어) 모아가지고 씻어가 밥을 해가이고, 그  
시어마이 머이(먼저) 주면 죄 받을까 봐 자기가 한 손가락 묵고 그래 묵었다 카대예.  
보리쌀로 묵고 썩 고양(그냥) 내 놓거든. 그런 거 실어가 인자 해가 밥을 해 먹었다 카대.

[사하구 설화 66]

### 자기 아이를 죽여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한 효부[산삼동자]

김차선(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엄마가 아파가이고, 약을 써도 안 들으키네,  
“누가 인제 사람을 무야 산다 하이, 누 사람을 먹이겠노? 아들로.”  
그래 의논해가 그라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하이끼네, 어마이가 그래,  
“또 놓오몬 되이까, 그래 삶아 먹이자.”  
캐가이고, 그래 삶아가 먹이고.  
인제 나이 나섰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들이가 책 보따다리 들고 들어오면서 엄마 카면서 들어오더라 카대. 그러이케네 그기 아가 아이고 산삼이라 카대, 산삼. 저거 아로 삶았는데, 아가 아이고 산삼이라예.

[사하구 설화 67]

### 며느리의 방귀 힘

정혜영(여, 192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메느리가 시집을 오니께네 얼굴이 노랗거든예. 그니까,  
“야야, 아가 아가 니가 와 얼굴이 노랗노?”  
카이,  
“아부이, 아부이. 내가 방구를 끼다가 방구를 몬 끼서 그렇다.”  
카이께네,  
“그람 마 끼라. 개안타(괜찮다).”  
카이께네,  
“그럼 마 아부이가 안 지둥 잡으이쇼.”  
지둥 넘어갈까봐. [웃음] 방구를 끼이께네 시아버지가 마 날라갔비더란다.

[사하구 설화 68]

### 게에게 성기를 물린 아이와 게를 떼는 방법

장명민(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바우가 이래 있는데, 거 저저 게는 저저 뭐꼬 이 땅에 파고 하는 게는 저 꼬래이, 대가리  
요가 빨갈거든요. 폭닥하거든. 고기 고마 가서 고치를(고추를) 물어뺐어.

고치를 물어빼가지고 고치 달리가 아가 죽을라 소리 내지르는데, 띠도 몬 하고 이래 하도 몬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고마 게 요 달리가 있는데, 고마 손바닥으로 탁 댄서, 거 게 뺏구녕 안 있습니까 딱까리 띠는 데, 게로 낫을 딱 쫓사빼니까 탁 발로 놓는 기라.

[사하구 설화 69]

### 가다가 멈춘 거류산과 여자가 누운 형상

장명민(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경남 고성군 거 거류면(거류면) 당동리에 그 거류산(거류산) 행상이(형상이) 어떻게 돼 있나면 여자가 딱 누워 있는 형상이라 카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튼. 그런 이야기.

[조사자: 산이 걸어가던가?] 예. 산이 걸어가고, 부작대이로 갖다가 딱 뚜디리가지고 탁 있었는데, 여자 형상으로 딱 누운 모습이 딱 거기 있다 하고, 거기 그래가 그루산이라 하는 거 같대예.

[사하구 설화 70]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하위맹(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옛날에 신랑이 공부만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그런께, 물(먹을) 기 없는 기라. 엄서서 쟁피로, 논도 없고 가난해갖고 마누래가 쟁피로 훑어갖고, 찌갖고 밥을 해묵고. 그래도 신랑은 공부만 하는 기라.

그래 하다가 신랑이 서울로 과게 하러 올라갔어. 그런께, 그 공부하러 올라가 있는께네 한 멧 년 됐어요. 그 과게로 할라 쿠문. 그래가 과게해가지고 큰 말을 타고 다락걸은 말을 타고 화살걸은 호언지래, 구름걸이 그래 오는 기라.

오면서 보니까는 진주들 너른들에 쟁피로 훑고 있는 부인이 보이는 기라. 그래서 그 부인을 자세히 자세히 치다보니, 말에서, 자기 마누래라. 마누래라도 그저 쟁피를 훑고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기라. 자기는 인자 벌써 원이 돼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장개를 갖기 때문에. 그래,

“쟁피 훑는 저 부인아, 옛날에 옛날 옛적에도 쟁피를 훑어 살더만은 지금까지 쟁피 훑구나.”  
쿠고, 그래 원이 저거 집으로 다부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대.

[사하구 설화 71]

### ‘게’ 수수께끼

하위맹(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널 테잉께네, 내가 학교다닐 때 했는 긴데, 거기 기억이 아직 남아가 있어가지고.

‘대족(大足)이 이족(二足)이요, 소족(小足)이 팔족(八足)이요, 천지복판이 동그랗고 두 눈이 똑 별라진 게 뭐요?’

[조사자: 일행이 대답을 못하자,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며 놀리다가 답이 ‘게’라고 일러 주었다.]

[사하구 설화 72]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하위맹(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갔거든 고려장 하러. 가니까 고려장을 해놓고 사흘 물(먹을) 양석(양식) 놓고, 강술까지 (관술 가지) 사흘 피울 거 놔놓고. 사흘만 무문(먹으면), 그거만 무문 굶어죽는 기라.

그래서 고려장을 딱 해놓고, 인자 아들이 그 손자가 따라갔어. 따라가 아들 지계를 내빼 리고 가거든. 그런께네 손자가,

“아버지 와 지계 내빼리요?”

그러쿨 때, 첫 문제부터 이야기할게. 그게 중간이라서 안 된다.

엄마로 고려장 가러 지금 덕고(데리고) 가는 중이라. 집에서. 메느리가 싫다고 해서 그래

지게 지고 가는데, 그 할매가 저만치 가다가 또 나무가 대이면 하나 꺾어 땅에 놓고, 또 좀 가다가 또 나무 하나 꺾어서 땅에 딱 놓고, 또 가다가 나무 하문 딱 놓고, 십리면 십리고 오르면 오리고 꺾어서 딱 놓고 간께네, 고래장터가 나왔어요.

그래 고래장 해놓고 그래 인제 거 물어놓고 지게를 내빼리고 온께네, 손자가,

“아부지 와 지게를 내빼리고 오요?”

“그래 이런 거는 내빼리는 기다.”

이란께,

“나도 아부지 나 많으몬 짚어지고 고래장 하러 올 낀데 지게 가 갑시더.”

이러쿤께, 지게를 파갓고 다복(다부, 도로) 짚어지고 가더랴요.

[조사자: 그런데 거는 와 꺾어 났는가요?] 그거는 인자, 그거는 인자, 요거는 인자 좀 다르다. 요거는 지게 내빼리고 가는 거 손자 글쿠는 거고.

[사하구 설화 73]

### 고려장 갔다 부자 되어 돌아온 시어머니

하위맹(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요거는 며느리도 싫다 커고 그래갓고 칠십 되자마자 시어마이를 갖다 내빼리러 가는 기라. 그런께네 이 시어마이는 머리가 참 좋았지요. 거 나무를 요래 꺾어놓고 그래 몇 십리를 걸어 가서 고려장을 지냈는데, 할매가 사흘로 묵고나니께네 양식도 없고 불도 간설불(관솔불)도 꺼지고 없고, 성냥도 없고, 그래서 살살 더듬어서 여 고려장이 파면 이만치 높으거든. 벽을 살살 팸서러 또 한발 디디고 또 벽을 또 요만치 가서 또 하부작하부작 파갓고 또 한발 디디고 또 올라가다 또 파고 이래가 밖으로 나왔어요. 할매가. 나와가지고 길을 모르거든요. 몰라서 자기가 이파리 꺾어놓은 거 기억이 나갓고, 그래 그 이파리 꺾어논대로 살살살살 오니까네 해가 고마 넘어갔는 기라.

저저 집에 가기 전에 해가 넘어가서 아 그때는 도둑놈도 많고 산도 깊으로 이래서 그래서 할매가 가만히 나무 밑에 앉아가 있으니까 어디서 사람소리가 뚱뚱 나는 거 같거든. 그래서 겁이 나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 기라. 올라가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앉아있을라고 올라갔는데,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뚱이 오디마는 뚱뚱뚱뚱 하더마는 도둑놈들이 금을 막 너무집에가서 등지에다가 그 밑에 나무밑에 놔놓고 막 저저끼리 가르다고 난리라. 그래 하는데 그 할매가 어찌 기침이 나뻤어. 그런까 아이고 사람소리 난다고 마 그 폐물을 놔놓고 도망을 가뻤어.

그래가 할매가 아침에 인자 히그막 내려와서 본께네 반지니 팔 뒹뒹 목걸이 막 패물이

많은 기라. 그걸 갔다 흘치 들치 썬어. 싸가지고 길을 몰라서 또 좀 한 오리나 걸어가면 또 나무 이파리 있는 데, 몰라져가지고 ‘아 요 맞다’ 또 오리만 있으면 나무 이파리 그래 저거 집을 찾아갔어요. 간께네 며느리가 깜짝 놀래거든. ‘저 시어마이 갖다 내빠라 했는데 와 저 찾아왔는고?’ 이래요. 그래 어무이 오란 소리도 안 하고 이래서 방으로 썩 들어갔어요. 시어마이가 들어가갖고 그 보따리 그걸 치마에 싼 걸 내 놓으면서,

“며늘아, 이것 봐라. 내가 고려장 하는데 들어간께네, 너거 고려장을 시키서 들어가니까 금이랑 어떻게 많든지, 내가 그걸 다 가올라 캐도 무거워서 몬 가오겼고, 내가 우선은 쪼깨만 들고 왔다.”

그래 며느리를 야나 니 해라 하고 쫓거든요. 준께네,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본께 ‘아 그 굴에는 금덩어리만 들어가 앉았는갑다’ 싫어가 지가 가는 기라 거. 거 인자 가는 기라. 고려장터로 가는 기라. 가가지고 고려장이 인자 거 구멍이 쪼깨 있음께 폭 빠졌뻤는 기라. 지는 인자 올라오도 몬 하고, 지는 사흘 묵을 양식도 없고 금덩거리도 없고 그래서 며느리가 죽어 뻘어.

[사하구 설화 74]

### 바닷물이 파란 이유

하위맹(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제주도 가면은 바닷물이 새파랡잖아요. 그래 와 그래 새파랡겠습니까? [조사자: 바위에 부딪치가지고.] 맞다. 그거는 맞다.

[사하구 설화 75]

### 곡소리도 못하는 바보 사위

하위맹(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그때는 전부 다 어리석고 바보라. 요새는 다 똑똑고, 마 아도 다 알고 이래도, 옛날에는 너무 어리석했어.

그래서 인자 재인이(장인이) 죽었다고 부고가 왔는 기라.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이래서 작대이 대박대기에다가 편지(편지) 한 장 이래 매갖고 끌꼬간 그게 부고라. 그래 인제 부고가 가서 강께 사우가(사위가) 인자 문상 하러 가야 될 거 아이가.

그런께네 인자 저거 아들이, 하도 옛날 사람이논께네 엄마가 죽으몬 뭐라 쿠는고, 아버지가 죽으면 뭐라 쿠는고, 재인이 죽으몬 뭐라 쿠는고, 그것도 모르는 기라. 그런께 엄마가 시키기로, 그래 인제 술 한배이(한 병) 하고, 또 인자 맹태(맹태) 한 대하고, 옛날엔 맹태가 때리가 되가 있었거든, 황태하고 소고기 좀 사고 이래갖고 인자 이래갖고,

“세 가지를 해갖고 그래 처갓집에 문상하러 가라.”

캬거든.

“그래 가되 딴 사람 암만 아이고아이고 울어도 니는 어이어어 울어라이. 본대 사우는 어이어이 우는 기다.”

이케 했거든. 이놈우 자석이 ‘어이’ 잇을까봐 가면서러 ‘어이어이어이어어어’ 쿠고 처갓집을 가는 기라. 가다가 토랑을 팔딱 건너니까 고만 잇어뻗는 기라. 이제 해는 다 저가고 큰일 났어. 그래 인자 턱 뻗대가 앓아갖고, ‘이 우째 해야 알 것도 이거는 뭇이라 쿠더만은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거 뭐 우째 되겠노? 뭐라 카라 쿠더라.’ 산을 찾아봐도 모르겠고, 땅을 봐도 모르겠는 기라.

그래 인자 해는 다 저갖고. 그래 옛날에는 여 맹근(망건) 씨고, 맹근 씨고 탕건 씨고 딱 갖 쓰고 이래 갔거든. 그래 거 옆에 본께 토랑이 쪼개난 게 요 하나 있는데, 물이 쫄쫄쫄 내려 가는 기라. 이리 논으로. 아무리 ‘어이’ 소리로 알라 캐도 모르겠는 기라. 그래서 하도 해는 다 넘어가고 답답해서 지 맹근을 끌러갖고 여따다 통을 탁 토라다(도랑에다) 쫄는 기라. 그걸 건너다 잇어뻗은께. 여 토랑이 잇어빠구로 했은께, 요 토랑에서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요 딱 막아놓고 여서 후야 후야 호야호야 찾으인께네, 맹근에 미꾸라지 새끼가 요만한 게 하나 걸리가 있거든.

그래 미꾸라지를 잡아가 가마히 본께네, 이거 뭐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라. 말도 안 한께네 이놈의 뭐라고 우째야 되노? 그 마 성이 나는 기라. 해는 넘어가고. 썩 요런께 뻑 쿠거든. ‘아 뻑뻑 해야 되는거구나 인제 알았다.’ 이래.

그래 이거는 인제 또 ‘이거는 무시라 쿠더노?’ 아무리 봐도 이거는 모르겠는 거라. 엄마가 갈차주더만은 이걸 모르겠다 싶어서, 또 이거는 기가 차서 또 요리조리 하다가 아이고 마 해는 쫄고 쫄랑쫄랑, 아 요는 쫄랭이다.

맹태는 떡 본께네 질독한데(길죽한데) 이거는 뭐라 캐야 되노 대가리는 위에 있고 꼬랭이는 밑에 있고 이걸 또 모르겠는 거라. ‘아 이 참 큰일났다’ 싶어가 본께 우에 본께, 쪼개 서럼어 척 걸치니께네 턱 걸치거든. ‘아 이거는 걸치기다. 이거는 쫄랭이고 요거는 걸치기고.’ 요거는 저 소고기라.

그 또 요거 이름을 모르겠는 기라. 그래 요건 또 무슨 고기라 쿠던고 대체 모르겠고, 이리 서리 둘러봐도 뭐 아무 인자 해는 다 넘어갔고, 어둡기는 어둡고, 인자 뻑뻑소리는 알았고,

이거는 뭐라 쿠고 싶어가 턱 이래가 있으니까 송아치가 저찌서(저쪽에서) ‘음메’ 해삼서 가거든. 그 고거는 알았는 기라. 아 요거는 음메고기다. 이래가지고 처갓집으로 가갔어 인자.

그래 장모한테 가서 요거는 쫄레이고 요거는 음메고기고 이거는 걸치기고 이래 캐놓고 빈소로 갔어. 가갔고 인자 사우 왔다고 상주들은 마 울고 있는 기라. 딸도 아이고 쿠고 울고 막 자꾸 울어쌌는 기라. 근데 이거는 인자 운다 쿠는 기 ‘뽁-뽁-’ 이래 찢거든. 그런께 자기 마누래가 마 막 ‘저기 무슨 소린고?’ 싶어갓고 마 고마 자꾸 뽁뽁 찢께네, 마 입을 죽겠는 기라. 그거 말도 아인 소리 한께 넘 우사도 되고, 마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마 신랑 다리를 꼭 잡아뽀는 기라. 고만 하라고. 이란께네,

“아이고 아퍼라 내가 췌기 우는데 왜 내 다리 잡노?”

이람서 ‘뽁-뽁-’ 이래서 그래 우사를 했댜요. [일동 박수 치며 웃음]

[사하구 설화 76]

## 바보 사위

하위맹(여, 1923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가을에 장가를 갔는데 봄에 인자 인사를 갔는 기라. 처갓집으로. 갈라 쿤께 가랑이 나무 이파리가 짝 차논께네 그 집을 갔지만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놔논께네 어는 게 저저 처갓 집이고 집을 모르겠는 기라. 그래 그 동네를 다부 나왔어. 그래 넷물이 흘러가 넷물을 본께네 웬 여자가 빨래를 씻거든. 그래,

“보소 보소. 말좀 물읍시다.”

이랬는 기라. 그기 내나 저저 마누래라. 옛날에는 장개 가도 마누래를 자세히 안 쳐다봤거든. 그래 저저 마누래라. 이래 본께네 저저 신랑이 맞는 기라. 그래서 그래 빨래를 씻으며, 그래,

“개 따라 가소.”

이랬거든. 개가 인자 딱 와갓고 그 마누래 앞에 빨래 씻는 데 있었는 기라.

“개 따라 가소.”

이랬는 기라. 그래 개로 살살 덕고 갔으면 될 긴데, 이 신랑이라 쿠는 게 개를 마 후차 논께 개가 쫓아가거든. 그런께 지도 마 쫓아가는 기라. 막 쫓아 따라가이 새가 빠지게 쫓아 간께, 되게 후쳐뿌이 막 수채구영으로 쑥 들어갔부는 기라. 그런께네 지도 고마 그 처갓집에는 사우 온다고 막 떡하고 난리 났는데, 수채 구영으로 막 사우가 쑥 들어와. 온 옷에 흙덩거리고

하이구 그래 방으로 들라났어. 그래 인제 각시가 빨래로 하고 오니까, 그래,

“야야 너거 신랑이 그래 옷을 다 베리갖고 그래도 왔는데 옷을 갈아 입히라.”

각시가 부끄러워 죽겠는 기라 인자. 그래 인자 옷을 갈아 입히서 문을 닫아놓고 떡 있는 꺼네, 옛날에는 문쪼다가(문종이로) 이 문을 보르고(바르고) 문쪼로 문을 불러 냈거든. 그래 인제 사위 왔다고 그 신랑이 춤을(침을) 불라가(발라가) 요래 문을 요래 뚫어본꺼네 뽀꼼하이 비거든 마리가(마루가). 마당이 비는데 떡시루를 놔놓고 막 떡을 이래 칼로 열십자로 기리 (그려) 샀거든.

그런께 거기 묵고져서(먹고 싶어서) 침이 꼴닥꼴닥 넘어가는 소리가 각시가 듣기는 기라. 그래서 사람은 마이 있고 줄 수는 없고, 옛날에는 부끄러서 그리 갖다 줄 수도 없는 기라. 상을 차리다 줘야 되지. 그래서 ‘사람이 옆에 없이몬 한 눈티 똑 퍼떡 문 열고 편지주몬 좋겠구 만은. 우짜면 좋을고?’ 싶어 있다가. 우짜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고마 그 한 눈티를 탁 방으로 문 열고 편지 쫓거든. 그럼 암말도 안 하고 무엇으면 될 긴데,

“어 뜨거라.”

그러 कु께네 각시가 무안해가 사람이 와서, 팔 하나 지거리도 없는가베. 팔이 띠간꺼네 언자 떡 쫓단 소리 안 할라꼬. 팔 하나 지끄리 뜨거워 이러कु께네, 신랑이라 쿠는 기 문을 툅 열고, 그거 떡 그거를 내놓서러 팔 하나치 한 술이라 그럼서 우사를 지기더란다.

[사상구 설화 77]

## 세 곳에서 들어온 혼사를 해결한 딸

최미영(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저 딸이, 딸이 서이가 있는데 인자 시집을 어데 어데 보낼꼬 싶어 걱정을 하고, 어느 어느 주점에 막걸리 주점에 가이 걱정을 하이까네, 그래 그서 노는 사람이 술이 채가지고 인자 그 말했는 그 노인은 잠이 들어뻘는데, 잠들 동안에 사성(四星)을 보겏도예(호주머니예) 시냇을 (셋을) 열어났거든.

잠을 떡 깨고나이가 보겏도예 사성이 시 개가 들었거든. ‘이거 참 서글프네. 이거가 어떻게 할꼬?’ 아 딸은 하내인데(한 명인데) 장개, 뭐 추(推, 미리) 걱정을 해노이까네 그렇게 열어 냈거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식음(食飮)을 전폐(全廢)를 하고 누웠거든.

그래 딸이 인자 밥을 해가 가야,

“아버님 밥을, 진지 잡수시라.”

카이까네,

“야야. 내가 큰 걱정 있어가지고 밥을 못 묵겠다.”

그카이까네,

“그래 무슨 걱정이 있으시는공 모르지만 저한테 다 알려주시마 그래 서로 알고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고 이렇게 말로 하이까네,

“야야. 거기 아이고 내가 니도 시집을 보낼라고 어디 얘기를 했디마는 사성이 석 장이 들었는데, 니는 딸은 하나인데 사성이 시(세) 군데서 오마, 장개를 시 군데서 오마 그 감당을 내가 우예 하꼬?”

“아이고 아버지. 그런 걱정겘오마 저한테 뻐기소. 아무 걱정할 거 없심더. 잔치나 잘 치루이소.”

이 카거든. 그래 딸 얘기를 듣고 잔치를 치루고, 잔칫날 닥치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을 보고] 녀 송하나 뭐하노? [조사자: 이야기 잘하신다고.] 그래 캐도 송하지 마라. [웃음]

그래 인자 그카이까네, 근데 그래 듣고 잔치를 치루는데 막상 신랑이 시 군데서 장개겘을 떡 치루고 왔거든. 그래 신부가 인자 치루가지고(차려가지고) 마당을 떡 나갔거든. 나가이까네 신랑 서이가 장개왔는데 어느 사람과 식을 올리야 되겠노 그자? 입장 곤란하나 그자?

그런데 신부가 하는 말이,

“여기서 인자 남자분이 세 분이 와셨오마, 저하고 결혼할 사람은 ‘너발 노래’를 해야 저하고 결혼하지 ‘너발 노래’ 못 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카거든. [조사자: 너발 노래?] 너발 노래. 그카이꺼네 ‘너발 노래’ 누가 배워 왔나 그자? 아무도 안 배워 왔지. 요새겘오만 전화를 해서 알렀다 카지만은, 그것도 아이고 캄캄하다 아이가? 그래 그카이까네 신랑 한 사람이,

“그럼 내가 하겠다.”

하거든.

“그래 하소.”

카이께네, 그래 인자 신랑이 노래를 하거든.

대동강은 한쪽이요 낙동강은 두쪽이요

대동강은 한쪽이요 낙동강은 두쪽이요

[기억이 나지 않아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낙동강은 한쪽이요

이 카고, 모르겠다. 그 한쪽, 거 인자 한발이요. 저,

신부님은 한쪽이고 신랑님은 두쪽이고  
저보배상을 차려놓고 그 안○○ 한발이요  
장담암담을 마주놓고 백미두그릇 절에두고  
그아니 한발이요

모르겠다. 그카며 너발로 하거든. 너발로 하이까네, 인자 올케다. 너발로 몬 하는 사람은  
가뻘거든? 가뻘고 나이까네, 인자 그 신랑이 신부로 보고,  
“그 노래로 답변이 있어야 안 되느냐고? 신부가 답변을 하라.”  
카이 깐카네, 그래 나와가 답변하거든. 그래 인자 그 답변을 함시러 카거든.

하늘같이 높은차일 방공중에 높이치고  
일월같이 높은팽풍 좌우로 둘러싸고  
장담암담을 마주놓고 백미두그릇 절에두고  
청실홍실을 걸어놓고 백년의기약을 맺었더니  
정승판사 자모가되네

자기가 정승판사 자모가 되모 아들로 삼형제 놓겠다.  
‘정승판사 자모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하이카네, 그래 그 사람하고 결혼을 잘  
하더라요. 야. 그래 결혼해가 잘 살드립니다.

[사상구 설화 78]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미영(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그 엄마로 어찌 야속하게 하는지, 그래가 너무 야속하게 해가지고, 인자 신랑이 과게 보러  
갔다 카대.  
과게 보러 가면서로 그래 신부한테,  
“우리 엄마 보양 잘 하라.”  
고 이런 부탁하고 갔는데, 과거를 보고 오이까네, 엄마가 보하이 머 얼굴이가 참 본색이고  
좋거든.

“그래 우째가지고 엄마가 이렇기, 눈도 갔부고 어둡고 이런 이런 엄만데, 그래 엄마가 우제가 봉정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좋냐?”

고 카이까네,

“야야. 저 메느리가 얼마나 날로 보양을 잘하는지. 그래 내가 이렇게 얼굴이 좋다. 내가 니 보이줄라꼬 내가 보이줄라꼬 그렇게 뇌뒀다.”

카매, 옛날 샅자루 아이가 그자? 샅자루 들씨디마는, 샅자루에다가 내주는데,

“그거 꺼시라.”

안 카나? 꺼시. 꺼시. [조사자: 지령이.] 지령이 그거로 그기 인자 삶아주는 거 목고 인자 건지내가 그 영어노이까네 삐쩍 안 말랐나 그자? 말란 거 내줌서는,

“그래 이런거로 맨날 날로 마이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다.”

카이,

“엄마. 거 꺼시아인교?”

카이, 눈이 편쩍 떨어지더라 카네. [조사자: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 그래 눈이 편쩍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사상구 설화 79]

## 성격 사나운 처녀를 길들여 혼인한 총각

최미영(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옛날 어떤 사람이 처녀가 디기(매우) 걸삼씨거든.<sup>14)</sup> 처녀가 디게 걸삼씨고, 좀 완고하다 캐요. 장개를 못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 오래까지 노총각, 노처녀가 되가 있는데, 그래 어데서 한 총각이,

“내가 장가를 가겠다.”

고 이카거든. 그래,

“장가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해로도 못할 낀데.”

카이꺼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수단적(수단을 써서) 할 끼다.”

카미, 그래 장가를 갔는데, 총각은 성이 손가고 처녀는 안가라. 안 처녀 손 총각인데, 그래 장가를 감시노(가면서) 저거 엄마한테,

14) 성격이 걸걸하다는 뜻으로 보임.

“엄마, 그래 저 호박떡을 그래 마 조금만 날로 해주면 좋겠다.”

그카거든.

“그래 뭐 할로 카노?”

카이까네.

“어떻게 하거나 간체 시긴대로 해 둘라.”

카거든. 그래 호박떡을 쪼개 요래 손가락만치 요래 쪼개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딱 해가 갔거든. 그래 안 처녀한테 인자 장개를 갔는데, 첫날밤에 안 처녀가 막 술로 들이 묵고 마 잠을 ‘쉬-쉬-’ 자거든. 처녀가 너무 완고해가지고, 잠을 실실 자йка네 요걸 질로 들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주우(중우, 즉 바지) 밑에다가 고거로 호박떡 딱 넣어놨거든. 넣어놓고 머물다가 그래 인자 색시를 깨뻬어(깨웠어).

“여보여보. 우연 잠을 그렇게 질게 자느냐?”

고 카йка네, 그래 잠을 깨거든.

“아이구 꾸령내야. 똥이, 똥내가 왜 이렇게 나노? 아이고, 오늘같이 좋은 날 밤에 이거로 개로 부르겠나 우짜겠노. 참 거 좀 어렵버니까네 이거 마 내가 묵어야 되겠다. 내가 묵고 치야는 게 옳지, 이거를 개 부르고 하모 넘사시럽고 이러모 되겠나?”

그러카미 이걸 신랑이 떡 묵어뿌거든. 가마 각시가 생각해 보йка네, ‘아무리 그렇지만도 오늘날밤에 사랑방에 상각도(상객도) 계시고 전부 이렸는데, 개도 부릴라 카며 넘사시럽다’ 카미 자기가 자시는데 싶어가지고, 고마 인자 한 평상(평생) 걸삼도 안 내고 마 죽어있는 기라. 걸삼을 인자 행동을 안 하고 죽어가 참 잘하고 있는 기라.

그래 아들 딸 놓고 인자 잘하고 사는데, 인자 한 쪽 가고 그러йка 한 오육십 댕겠지. 댕을 때 신랑이 가만 생각해 보йка네, ‘인자는 얘기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각시한테 얘기를 했어.

“자네가 너무 완고하고 그렇다 캐. 내가 질 들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가 묵었다.”

이렇기, 그기 부부간에 뭐 서로가 할 말 다 안 하고 산다 카는 그 뜻이지. 그래 인자 그캐 노йка네, 그래 인자 신랑이 그카매,

“뭘냐고?”

카이까네,

“그래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다.”

이러 카네. 그때사 고마 신랑 상태기를 쥐고 흔들매,

“그러몬 그렇지. 그러몬 그렇지. 내 정신에 똥을 싸리? 그러면 그렇지. 내 정신에 똥도 안 쌀긴데 나 똥 싸가지고 걸삼 몬 배았다.”

카매, 그 질로 노래가지고 남편을 큰 욕을 비이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사상구 설화 80]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최미영(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인자 신랑이 인자 과계(과거) 하러 가고, 각시는 피를 훑어가지고 만날, 그래가 참 과계 하러 안 가고, 피로 훑어가지고 그거 묵고 살고 있는데, 신랑이 생전에 일도 안 하고 방에 앉아 공부만 만날 하고 있거든.

그래 인자 여자들 생각에 얼핏 생각에, 요새 묵는 기 답답고 안 급한가? 급해가지고, ‘만날 바아(방에) 들었어(들어앉아) 공부한다 지랄해 봐야 무슨 해결도 없고 이래가 우예 살꼬?’ 싶어가지고 탄 데 살러 떡 갔뻐거든.

살러로 갔뻐는데, 그래도 남자는 공부해가지고 서울 가 어사, 과거로 하고 내려오이께네, 복 없는 여자는 할 수 없지, 그 동네 이름이 뿔이라. [조사자: 진주라 너른 들에.]

너른 들에 갱피 훑던 저 마누래 훑던 갱피 다시 훑네

인자 그카매 자기는 어사로, 어사 급제로 해가 내려오매 그캐 말한다 카이, 그 남편이 열매 점잖노 그자? 나쁜 걸오마 욱을 하미, ‘니 날마다 그카디만 별 것도 없네.’ 이렇게 칼 낄데, 그렇게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 그런 말 안 하고,

‘갱피 훑던 저 마누래 훑던 갱피 다시 훑네.’

인자 그카이, 이 여편네가 얼마 억울하노 그자? 그래 될 줄 알았서마, 참 같이 살았서마, 이렇게 좋은 일로 보겠긴데, 그런 노래도 있어요.

[사상구 설화 81]

## 소 판 값으로 콩 두 알 받아 부자 된 아들

최미영(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인자 아들로 하나 키운, 모자간에 살미(살면서) 소를 한 마리 키웠거든. 소를 한 마리 키아

가지고 아들로 옛날에는 여자가 시장에 안 간다 아가. 시장에 안 갔는데, 아들로,

“니가 소로 가 팔아 오너라.”

시키노이까네 소 팔러 갔지. 소를 팔아가지고, 소를 팔로 왔는데,

“여이, 돈 얼마 받았노?”

카이까네,

“콩을 두 낫 주요. 콩 두 낫 받아왔다.”

하이까네, 콩 두 개 그걸 받아노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노 그자? 소 한 마리 주고 콩 두 낫 받아왔다 하이까네, ‘이렇게 섭섭해가 안 되겠다.’ 카미 콩을 마당에 툇 구불라(굴러) 던지뵈는 기라.

“이것 받을라고 소 키아가 소 팔러갔나?”

카매, 마당에 고걸 던지뿌니, 그런까 카세트에 다 나와요. 내가 일부러 지었는 것도 아이고.

그래가 콩을 두 낫을 인자 마당 툇툇 구불고 나이까네, 이기 비가 오이까네, 마당 옛날에 흙마당 아이가 그자? 흙에 뿌리가 백히가지고 콩이 컸는 기라. 콩 줄이 마 올라가 하늘까지 올라가뵈는 기라.

하늘꺼정 올라가뿌이까네, 하루는 저저 엄마한테,

“엄마 엄마, 내 여 콩 줄기에 한 분 올라 가볼란다.”

인자 그카모 그런 말로 하고 콩 줄기에 올라갔지. 콩 줄기 졸졸졸졸 타고 올라가이꺼네, 하늘꺼지 올라가뵈는 기라. 하늘꺼지 올라가가지고, 하늘 가가지고 그래 살피보이까네, 인자 저저 아버지가 옛날에 거 우야다가 좀 죽음을 살리해가(?) 죽은 그런 분함이 있어. 있는데, 그래 거 가이꺼네, 하늘에 올라 가이꺼네, 아무도 없고 뭐 방에, 뭐 알기 숨게 말하몬, 책상 매이로 저런데 그 우에 은금보배 평거리가(덩어리가) 하나 있거든.

은금보배(은금보배), 은금보배 평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놈을 딱 언자 챙기고, 저 한데(바깥에) 부엌에 가가 가마이 있으이까네, 그래 이 도둑놈이 터벅터벅 오디마는,

“아이구, 인내가 나네. 우얀 인내가, 인간 내가 나노?”

고카며 살피보디만은,

“여게 내 보배 덩어리 놔둔 게 없다. 우짤 일로 없노?”

그카미 살피보디만도,

“이거 보배 평거리가 없는 거 보이까네, 어느 놈이 도둑놈이 가져갔다.”

카매, 그래 고마 온 집을 마 험해(험하게) 땡기고 알긋거든. 그래 인자 아들 요기 가만 생각해 보이까네, ‘여 있다가 맞아 죽겠다’ 싫어가지고, 그래 저저 아버지도 인자 그 가여운 그 사람한테 죽었는 분풀이를 하러 올라갔는데, 콩 줄로 타고 졸졸졸 내려오는 기라. 은금보배 평거리를 가지고. 콩 줄로 타고 졸졸졸 내려오이까네, 내려오매,

“엄마 엄마. 저 내가 다 내려 가이까네 콩 줄 끊어라. 끊어라.”

다 내려와가는 그놈의 발 욱지에 대면 되거든. 그래 끊어뿌고 나이까네, 끊어뿌고 났는데, 저 도둑놈들 두 놈이 타고 내려오는 기라. 타고 내려, 그 놈이 거 떨어져가지고 그 뭐 박살이

돼가지고 그놈 죽어뿌고 분을 풀고, 콩 두 낫 가지고 은금보배 평거리로 찾아가 잘 살고, 저거 아버지 분 풀고 그렇게 잘 살았다.

[사상구 설화 82]

## 기름장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통장

최미영(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지름(기름) 장사를 했거든. 지름 장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얼마나 곤란하게 살았노 그자? 지름 장사 엽전 돈을, 그래 지름 값을 받아가 엽전 돈을 마이 징기고(지니고) 댕기다가, 그래 어느 동네 떡 들어가이께네, 동네 앞에 뭐 쫌 쉽터 고런 기, 바우가 있거든.

그 바우 우에 떡 놓어요. 자다 보이까네 고마 그 저 엽돈 돈 자루가 없거든. 자는 잠질에 누가 훔쳐갔부고 없단 말이다. 그래 일가뿌고(잃어버리고) 나이까네 그래 탄 데 하야이 뜨고, 동네 통장한테,

“내가 이렇게 일가뻐는데, 내 이렇게 억울해가 우짤 수 없으이카네, 그래 이거로 한 분 찾아주몬 좋겠다.”

카이까네, 그래 동네 통장이 그래 저녁을(저녁을) 먹고 온 동민을 불렀거든. 전부 다 참 동민도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지. 그 동민을,

“전부 다 우리 집에 오너라.”

이렇게 불러놓고,

“올 때 다 엽전 돈을 쫌 챙기고 오너라. 맨 손으로 오지 말고 돈을 챙기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로 해노이까네, 그래 인자 동네 사람이 그 통장 명령에 나왔지. 오이, 물로 한 대접이 떡 떠다놓고,

“돈을 빠자라. 돈을 여 다 열어라.”

온 동네 사람이 돈 다 열어도 물이 냉냉하이 아무치도 안 하거든. 한 사람이 돈을 열는데 보이, 물이 지름이 동동 뜨거든. 돈을 가지고 댕기매, 돈을 엽전 이거 지름 장사가 맨날 가 댕기노이까네, 그러구 마 지름이 쫌 문은 모양이지예. 지름이 동동 뜨이까네,

“단디 찾았다. 인자 도둑 찾았다. 니가 가갔제? 틀림 없제?”

용납 없이 그리 찾아지더란다. 그런 것도 카세트에 나왔쇼.

[사상구 설화 83]

## 명가 성이 양반 아닌 사연

최미영(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한 사람어는 성이 안가(安哥)고 한 사람어는, 한 사람은 성이 안가고, [잠시 생각한 후에] 한 사람은 성이 뭐시라 카더라? 그래 살았는데, 그래 사이꺼네, 한 사람은 안가고 하나는 명가(明哥)거든.

한 사람은 명가고 한 사람은 안간데, 한 사람이 명가가 말날 안가를 보고,  
“니 성 쌍놈 성이다.”

암만 친구라도 듣기 좋은 소리 자꾸 하면 듣기 싫다 아이가. 그래 자꾸 그렇게 카이까네, 자꾸 듣기 싫거든. 듣기 싫어가지고 안가서 짐긴 사람이 그래 한 번은 마당에 스님 시주하러 왔거든. 그래 시주로 하러 왔는데 불렀어.

“스님 스님. 시주는 얼마나 내가 할 모양인데, 여 잠깐 쉬어 가라.”

카이까네,

“아이고. 샌님 장소에 지가 감히 앉을 수 없다.”

“괜찮다고. 앉으라.”

카거든. 그래가 앉으이까네,

“내가 그런 봉패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렇게 카이까네,

“연기를 주이소. 한 삼일 연기를 주모 다시 제가 오지요.”

이카거든. 그래 인자 삼일 후에 왔는데, 그래 인자 중이 하는 말이,

“저 명가 성은 지가 양반이라 캐사도, 그게 아주 상놈이라 카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왔는데, 인자 그러키 말씀 하이소.”

뒤에는,

“니 자꾸 그렇게 말하거들랑 니 명가 그거 양반인 줄 아나? 명가가 뭐꼬 카마, 저 강원도 어는 절에, 강원도 무슨 산이더라? [조사자: 일월, 일월하고 월.] 그 산이, 산 저 거기 일, [조사자: 일광사.] 일광사도 있고 월광사도 있는데, 일광사 중도 하룻밤 자고가고, 그 산중에 인자 과부가 술장사로 하고 있었는데, 술장사 하고 있으이까네, 일광사도 중이 와야 하룻밤 자고가고, 월광사 중도 하룻밤 자고가고 둘이 자고가고 아를 낳아노이까네 성을 뭐라고 싶어 가지고 그래 명가로 했다.”

이카이까네, 인자 안가 보고 만날 상놈이라 캐사다가, 그렇게 말하이까네 용납도 못 했지요. 지가. 용납 못해 지더랍니다.

[사하구 설화 84]

### 꼬꾸랑 이야기

김사자(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대티경로당]

옛날에 꼬꾸랑 할무이가, 꼬꾸랑 산에 올라가다가, 꼬꾸랑 짝대기를 짚고, 꼬꾸랑 산을 오라가다가, 인자 개가 따라오는 데 보이, 개를 때리이, 개가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한다고.

[사하구 설화 85]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사자(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대티경로당]

산에 올라간다고 딱 올라가이,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 내리가라고 나뭇가지로 하나 떠루고 (떨어뜨리고), 하나 떠루고.

인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로 칠십만 되몬 인자 고려장을 했는데, 그 지계를 인자 자석이(자식이) 내리올 때, 아버지 나뭇가지 떼지는 그 길로 내리왔다 옛날 할매들 말이 그렇대예.

그래가지고 그 지계를 또 아들은 다시 놔나가(놓아가),

“와 그라노?”

카문,

“후지(후예) 나도 인자 저거 밑에, 손지가, 아버지도 늙으몬 그 지계를 가지고 아버지 지고 산에 고래장 해야 안 되겠는교.”

그러 칸다고 옛날 말이 그렇대예.

[사하구 설화 86]

### 지령이로 부모를 봉양한 효자

김사자(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대티경로당]

인자 워낙 효자가 이래 부모가 아프이 지가 돈은 없고, 땅에 지령이를 파가 한 바리씩  
엄마 아빠 밥 때마정(때마다) 주고 이러이 엄마가 회복이 됐어.

다음 자석들은, “이래 무슨 고긴고 이거로 무어 내가 눈을 뜨고 회복이 됐다.”

카이, 그래 보이 지령이더라 카매, 그 소자가(효자가) 돈은 없고 꺼시 그걸 파가 지령이를  
먹이가 그래.

[사하구 설화 87]

### 내 방귀 고소하지요

김사자(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대티경로당]

메느리가 시아바이가 좋다고 만날 메느리를 사랑을 주고 이래쌌는데. 그 인자 옛날 아들이 동  
장군 지고 밭에 가몬, 메느리도 가다가 인자 저 메느리 방구를 폭 끼뿌이께네, 신랑인 줄 알고,  
“아이고, 내 방구 뽕 끼고 마, 내 방구는 꼬시지요.”

이랬는데, 돌아보이 시아바이거든요. 마 메느리가 그 질로 와가지고 마 방에 딱 들어놓으가  
안 일어나이, 시아바이가 할마이보고,

“니가 날로 고탈을 질러라. 내가 오늘 올라가 메느리가 방구를 끼서 방에 안 나오이께네.”

“이놈의 영감쟁이 귀가 어둡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영감, 영감.”

괘(고함) 지르이, 영감 귀가 어둡어가 몬 듣고,

“저놈의 영감쟁이 귀가 어둡어서 큰일났네.”

카이, 메느리가 가만 들어보이, 시아바이 귀가 어둡는가 싶어서 ‘인자 시아바이 귀 어둡워  
못 들었겠다’ 싶어가, 그래가 메느리가 나오더라고. 옛날 할매들이 그래쌌대요.

[사하구 설화 88]

###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와 도깨비에 홀린 사람

현전미(여, 1949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대티경로당]

인제 옛날에는 촌에 진짜 토깨비가 있었다 아이가. 비 올라 카몬 토깨비가 불로 캐가 밤에 막 쫓아댕기고 그랬다고 그래 샀아.

그래 그런 거를, 그 저저 사람 손 이거 많이 몬친(만진) 빗자리 달근(닿은) 거 그런 거는 토깨비 된다고, 잘 깔고 앉지도 몬 하구로 하고, 아무 데나 버리지도 몬 하구로 하고 이라 대예. 그거는 똑 불에 태아가지고(태워서) 없애고.

진짜 뭐 토깨비한테 흘키가 술 묵고, 옛날에는 뭐 이 장날이 얼마나 닥치오는(다가오는) 장날이 있다 아니가. 그 장에 갔다 오다가 술로 대기(매우) 잡숫고 그 산 모랭이 돌아오면 마 토깨비한테 흘키가지고 어디로 꺾이가고 그랬다고 그래샀대예.

[사하구 설화 89]

### 비가 오려면 나타나는 도깨비불

현전미(여, 1949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대티경로당]

양산을 가는데 비만 올라 하몬, 토채비불이 우짜(어찌) 보이 파탁파탁하이 산 밑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글때 그렇대요.

[사하구 설화 90]

### 대티고개와 싸릿골의 유래

강숙자(여, 1946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고개를 올라간다고 아마 대티고개라 캬는 같습니다. 대티고개가 좀 힘이 들어요 올라가기에. 산에 길이, 그래서 아마 대티고개라 이래 헨 거 같아요. [조사자: 대서(힘들어서).]

나무들이 참 많애가지고요 산에. 요 췌릿골이 아니고 싸릿골인데, 지금 췌릿골이 돼가 있어예.

[사하구 설화 91]

###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강숙자(여, 1946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옛날에 아이가 자꾸 울어서,  
“호랑이 온다.”  
캐도 안 되고, 마 온대도 안 돼가지고,  
“꽃감(꽃감) 주께.”  
이래가지고, 인자 꽃감이 호랑인 줄 알고. 꽃감을 주이까 떨걱 그쳤나, 꽃감 온다 캐가지고  
떨걱 그쳤던가,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사하구 설화 92]

###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서경연(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밭에 가서 날만 새몬 그거를 훑는다 아입니꺼, 피로. 다른 거 피겔은 이런 거로 훑어가지고  
한 번 늘어놓고 이래 갔는데, 소내기가 갑자기 썰리 와가이고, 덕석 넘어난 거, 쟁피 훑어난  
거 그게 싹 떠내리가빠도 여자가 온께네 남자는 그냥 책만 보고 있거든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장이 상했든공 ‘아무래도 몬 살겠다’ 캐서 그래가 가뿌릿는 기라요.  
그 여자가. 가뿌었는데, 그래 그런게네 그러구로 헛수가 지나갔겼지요. 그래가 남자는 과거를  
해가이고 말을 타고 오고예, 그 여자는 그냥 그때도 몬 묵고 그냥 훑고 있더랍니다.

그래서러 말을 타고 가다가 새아서 내리가지고, 인자 쟁피 훑는 사람 자기 마누래다 싶어  
가지고 그 아저씨가 인자 노래로 불렀는갑대예. 뭐,

간데족족 정만 들이 놓고  
가는 곳마다 쟁피 훑는다

컴시러, 인자 이래논께, 딱 이래 채리(쳐다) 보이께네 자기 신랑이거든예. 그래갖고 거따다 (그곳에다) 떼지뵈고 소쿠리로 오가이고 인자,

“말꼬리라, 말 고뻐(고삐)라도 내가 몰고 땡기낀께네 따라가자.”

쿤께네,

“안 된다.”

카더랍니다.

[사하구 설화 93]

### 며느리의 방귀 힘

서경연(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지둥(기둥) 붙들어 주고 방구 끼라.”

칸다 안 합디꺼. 그래가이고 메느리가 방구를 끼논께 마, 지둥 붙들어도 희뜩 날아가뵈다 카더만.

[사하구 설화 94]

### 과부에게 몰래 장가간 아버지

노영자(여, 1934년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과부. 저가부지가(자기 아버지가) 과부 갔는데(과부에게 장가를 갔는데), 니, 과부가,

“이 소리 아무절에도(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예.”

“그래, 니 소원이 뭐고?”

“떡이 찰떡을 해가 찰떡을 해가 봉지 봉지 싸줄라.”

카더라. 그래 사가지고 들로가 새백에(새벽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개간 떡, 떡이요.”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95]

### 지렁이 고기를 먹고 눈을 뜬 시어머니

전경자(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자기 엄마가 봉사를 된 거 보고서로 외국에 갔는데, 갔다 왔는데, 와서 본께 너무 살이 보양게 찼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들보고,

“야야, 이 자리 밑에 함(한 번) 디다(들여다) 봐라. 이 밑에 뭘 영어넣는가(넣어 놓았는가). 메누리가 하나씩 해주니 영어났다.”

“아이고, 어무이. 지러입니더(지렁이입니다).”

칸께, 깜짝 놀래가 그래 눈을 떴답니다.

[사하구 설화 96]

### 옆드려 가는 할머니가 무서워 피해간 호랑이

전경자(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너무 어두운 재를 넘어 가는데, 밤이 됐는 거라요. 턱 호랭이 앞에서 ‘어흥’하고 나타났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갈 길이 없으니 할머니가 처매를(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옆드린께, 호랭이가 하는 말이, “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

카미(하며) 피해 가더랍니다.

[사하구 설화 97]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아버지 엄마 배 위에서 잔다]

전경자(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말이, 아들 배곶에(밖에) 나가 놀맨서로,

“야야, 친구야. 내 말 들어보래.”

“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방 너무 좁아가 만날 우리 엄마 배에 올라가 잔데이.”

그라더랍니다. [웃음]

[사하구 설화 98]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최두리(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아가 울어싸서 마,

“까자(과자) 주꾸마.”

캐도 안 근치고(그치고),

“호래이 온다.”

캐도 안 끈치고,

“뭍을 준다.”

캐도 안 근쳤는데,

“꽃감(곶감) 주까.”

칸게, 놀, 떨걱 근치이, 호래이가 놀래서 달아나뿌더라 카대. 지카마(자기보다) 더 무십은 사람 왔다고.

[사하구 설화 99]

### 도깨비와 싸운 사람과 빗자루

최두리(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촌에 가서 소를 팔아가 온다가, 소 그 팔아 점무더갑더만(저물더구만). 촌길은. 그래가 큰

들로(언덕으로) 오는데, 양쪽에 까새(가시), 그거 뿔이 새밭이 막 우석우석 있는데, 한 놈이 나와가지 마 돌이서 밤새도록 영감재이하고 싸웠어.

밤새도록 싸우다, 옛날에는 도복 입고 안 땡기나? 뭐 이런 거. 거기 다 찌이지고(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마, 그래 새복에(새벽에) 들온디,

“와 그렇노?”

카이께,

“내 한 놈 잡아가지고 솔나무에 뭇까났고(묶어 놓고) 왔다. 함(한 번) 가보라.”

카더란다. 가이께 밤새도록 싸웠다 솔나무 실개이로 뜯어 뭇까났는데, 빗짜루 뭇대이 하나 푼뽀 뭇까났더라.

그기 하석을(화성을, 즉 변화를) 해가지고 우리 안 하는 말로 여자들이 갱도로 우짜다 묻힌다. 그기 하해가지고(화해서, 즉 변해서) 도깨비 된다 카대요. 그래 그라더라고. 그 우리 이모부 그래 바보가 되더라고 고마.

[사하구 설화 100]

### 며느리의 방귀 힘

최두리(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옛날에 그래 시아바이가 메느리가 노라이 해가 있으이,

“와 그렇노? 야야.”

이라 카이,

“아이고 아버님. 방구를 못 끼가.”

“야야, 끼라.”

카이,

“끼면 저짜 집을 붙잡아라.”

카더란다. 그래 붙잡고 시떡(휘떡) 넘어. 또 저짜게 이리 히떡(휘떡). [일동 웃음] 그래 노란 김을 다 빼더래요.

[사하구 설화 101]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아버지 엄마 배 위에서 잔다]

최두리(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떼고나서 영감이 할마이 배 우에 올라가서 저거 판에 일로 치는데, 아들이(아이들이) 쳐다 보고,  
“아빠, 뭐 하노?”

그라이께,

“아이고, 너거 형님 볼로 어찌 뜨거바서 엄마 배 우 올라와가 있다.”

이라거든. 그라이께,

“형님아, 불 떼지 마라. 아버지 뜨거바서 엄마 배 우에 올라가 잔다.”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02]

###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최두리(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시엄마, 엄마가 아팠는데, 나술(낮게 할) 길이 없는 기라. 그래 인자 큰 가객이고(과객이고)  
하룻밤 자고 가면서로,

“가리키 주꾸마. 할라나?”

이래 물은께,

“그래 무슨 일이라도 가리키 주는 대로 어머니를 살릴라 카모 해야 된다.”

이래 됐어.

그래 그 할매들 하는 얘기 쪼깨(조금) 들었지. 내가 뭘 아나?

그래가 인자,

“아들 참 쪼깨넌(조그만) 거로 있는 거로 그거로 인고기를 삶아 미면(먹이면) 낫는다.”

인자 그래 됐는 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인고기로 어디가 찾을 거고? 지 새끼 아이모.’  
그래 인자 들어서, 영감 신랑 각시지, 의논을 했는 기라.

“우리는 놓으모 또 자석인께, 부모는 한문(한 번) 가문 없다. 우리가 인자 자석 하나를  
희생을 시기자(시키자).”

그래가지고 참 그래 솔에다 삶아가지고 미있는데(먹였는데), 난주에(나중에) 보이 아들이  
다부(도로) 들오는(들어오는) 기라.

그래 놀래가 솔을 열어 보이 큰 인삼, 산삼을 막 삶아가지고, 그거 어짜는공(어떻게 하는지)

볼라꼬 인자, 그걸 하상을(화상을, 변신을) 시켰다. 아들겜이 눈에 보이가지고 여엿는(넣었는) 기라. 그기(‘진짜 아들이’의 뜻으로) 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할매 병을 나사가(낮게 해서) 잘 살았다고 이래 하더만.

[사하구 설화 103]

###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 봉양한 효부

최두리(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어찌기(어찌나) 못살아 났던지, 신랑은 어디 갔부고 없고, 시아마이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데 나가이께 개가 와 보호쌀(보리쌀) 무모 똥을 그냥 싸요, 보호쌀로 무모. [조사자: 보리쌀. 보리쌀.] [청중: 쌀보리쌀?] 보리쌀. 삶아난 거. 그거로 묵고 똥을 소복하이 싸났는 기라.

아이고 마 배는 고프고 하무(아무) 구헐(구할) 데는 없고 그거로 마 막 씨리고서 빨았어. 빨아가지고 밥을 재지가지고(재워서), 그냥 시아마니 밀라 카만 죄 많을까 싶어 자기 한 줌 먼쭈(먼저) 떠 묵고, 그래 시아마이를 미있는 기라. 할마는 뭇도 모르고 배가 고프이 뭐 맛이나 아냐? 그래 무웁다.

실컷 묵고나이 금방 하늘에서 노성을(뇌성을) 하고요 구름을 치고요 막, 막 때리더래요. 그래 메느리 자기 죄 진게 있어 마당에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 부모를 이런 거로 삶아 매서 날로 직이주세요.”

카고 옆드려 있은께, 금방 번개 치고 막 먹구름이 닥치더만 막 벼락을(벼락을) 때리더라 카네. 땅에 딱 떨어진 데 보, 큰 금똥거리(금똥거리) 한 개 떨어지더래요. 효자라꼬.

[사하구 설화 104]

### 어머니를 팔자고 해서 부인 버릇을 고친 남편

최두리(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어찌 시아마이를 구박하는지, 신랑이 연구를 하다가 하다가 이래 똥는 기라.

“보래, 오늘 아무꺼데 나가이께, 할매들 살찐 할매들 산다 카더라. 우리도 어머니를 한 서너 서너 장을 잘 미이가지고 팔아다 우리 씨자.”

이래 됐는 기라. 메느리 들음 고솨하거든(고소하거든)? [웃음] 막 그래가 막 미있어(먹였어). 막 고기를 사다가 미이고 잘 미이께, 한 서너 미이께, 할매가 살이 찌가 통통하이 일도 잘 하거든? 막 소지도(소제도, 즉 청소도) 하고 마 빨래도 씻겨주고 마 잘 하거든.

그래 아들이 보이 ‘인자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 엄마 팔로 가자.”

이래 되거든.

“와이고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없음 크일(큰일) 난다. 저리 일 잘하고 하는데 와 팔끼냐.”

그캄서 그리 잘 하더라요.

[사하구 설화 105]

### 마하골과 마곡정의 유래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말을 마이(많이) 키웠다고(키웠다고) 그래가 마하골이 됐다. 마하골이나로께네로 마곡정이 라고 지었어요.

[사하구 설화 106]

###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유래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지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 감천이 저 얘기를 한문(한 번) 할께요.

옛날 어느 산골에 어 지성이와 감천이라 카는 기 살고 있었어. 그 사람이 저거 엄마로 일찍 기리고 아버지가 있었어. 그래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어. 그래 단돌이 뿐이라. 일곱 살 여덟 살 요래뻘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인자 살 길이 없어갔고, 아무도 뭐 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께, 살길이 없어서 인제 얻어묵기로 나갔는 기라.

“아무것아 지성아, 우리 저게 이래갖고는 안 되겠고, 어데 얻어무러 가자.”

“어년(어느) 동네로 갖고?”

그래 인자,

“동네로 갈라 쿠며는 재로 넘어갖고, 산길을, 산길을 넘어갖고 가야 되는데, 산길을 넘으면 어년 동네가, 동네가 있다.”

그런께네로 가자 이려캐고골랑,

“그래 산, 산을 넘어서, 제로 넘어서 인자 너는 저 동네로 가서 얻어묵고 오이라. 나는 요 동네로 가꾸마. 이래갖고 똑같이 얻어몯는데, 아무 날 우리 아무 시에 그때 와서 만나자.”

이래 켜거든. 만나자 이래 했는데, 그날 그 시가 됐어. 돼서 인자 둘이서 만났어. 만나서 본께네로 지성이는 참 잘 얻어묵고 이래갖고 막 살이 썩갖고 있고, 감청이란 놈은 빼빼, 저거 새이 감청이, 감청이 몬 됐단 말이다, 감청이라 카는 거는 빼이빼배가 있고,

“아, 너 참 너 오데 가서 이래 얻어무서 살이 썩노?”

“아이구, 나는 아무 데 간께네로 그래 주더라. 새이는 와 이리 애비노(아위노)?”

“나는 밥도 올키 못 얻어 몯다.”

이런께네로 그래까골랑 그 인자 고마 저게 뭐꼬 감청이가 심청이(‘지성이’라고 해야 할 말을 실수로 심청이라고 함) 살찐 기 심술이 났어. ‘이 없어야 내가 그 동네 가서 얻어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갓골랑,

“지성아 지성아, 여 누우라. 내 이 잡아 주 꾸마.”

이래갖고 누 갖고 이래 있는 데다가, 말이 그 가랭이라 카더마는, 거 그 송곳, 그 송곳을 하나 징깃던 모냥이라. 마 송곳을 갖고 마 눈을 고마 두 눈을 썩시뻘어. 두 눈을 썩시뻘논께 그래놓고 그는 그 동네로 얻어무러 가고, 지성이는 저게 뭐꼬 저기 안 보여서 헤매고 있는께 네로 저기 뭐시 획- 오더라마는. 도깨비, 옛날에 ‘도깨비로 친하며는 부자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 도깨비들이 후루- 이래 오더마는, 도깨비 한 놈이 썩 나서더마는,

“아따, 여 저게 감청이 그놈은 동상(동생) 저기 얻어 묵고 살찐 기 심술이 나서 동생을 갖다가 이기 눈을 이걸 썩시갓고, 저게 뭐꼬 못 얻어 묵거로 이래 저게 그 동네 몬 가구로 이래 했네.”

이런께네로 그래 한 놈이 있다가,

“아따, 그거 뭐 별 거 없 거 없거마. 이 밑에 여 저 큰 못이 있는데, 못 가에 버드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 내일 가서 저게 찢고 버드나무 이파리로 딱 요래 붙이몬 세상을 딱 본다 카더라.”

카는 기라. 토깨비가 그래 와서 얘기를 하더라 카는 기라. 그래 가만히 죽은 듯이, 죽은 듯이 떡 누워갖고 있는께네로 또 한 놈이 썩 오더마는,

“아이, 세상에 아무 데 아무 골에는 그 너른 들에 농사를 몬 지(지어) 문다네(먹는다네). 물이 없어갓고.”

그래가 올라컨 저게,

“그 뭐 별 거 아니다. 그 위에 큰 정기나무가 있는데, 그걸 베내빠리고 파내며는 산땀걸이(산더미같이) 물이 내려와갖고 물도 흔하게 물(먹을) 끼고(것이고) 농사도 흔하게 질(지을) 낫는데, 그 농사로 갖다가 봉답을 맨들고 사람도 물도 십리 밖에 가서 사다 먹고 그래한다네 에이.”

이런께네,

“그래 뭐 파고 그래갖고 인제 다 농사 지 묵고 저게 뭐꼬 흔하게 물 끼라고.”

또 그래쿠더라네. 또 한 놈이 또 획- 토깨비 하나 오더만은,

“아요 아무 데, 저게 뭐꼬 아무 데 뭐신 골에는 정승을, 정승 딸이 자꾸 죽었다가 깨나고 죽었다가 깨나고 시를 두고 다투고 죽는다네. 그거 딱 기 그런 기 아니고, 달기(달리) 그런 기 아이고 그 상지동(위의 기동) 우에 그 제가 있는데, 상지동 우에 제가 있는데, 그 큰 지네가 그 저 구보를 칠 때마당 그 처녀가 장가지고(기절을 하고) 장가지고 그렇다. 그 지게 그걸 갖다가 지네 그거만 없으면 처녀 살아난다.”

그래갖고 또 그 소리 들었다. 또 인자 석달 그믐끼(그믐에) 또 한 놈이 나오디마는,

“선달 그믐날이 되며는 아무 동네, 그 동네는 선달 그믐날이 되며는 그 병막이라고 있는데, 병막에다가 사람을 하나, 석달 그믐날은 잡아 열어야 그 동네가 일촌이 일년이 편코 참 잘 넘어가는데, 아이 그걸 갖다가 누굴 잡아 열어도 잡아 연다(넣는다) 카대.”

그래 그쿠더라네. 그래서 요거 듣기는 들은 기고, 감천이 그거는 딱 데로 가빠고 없고, 듣기는 들은 기고 쟈 참 인제 뒤 가갖고 여 밑에 기 가갖고 못에, 못이 있더라 캐. 그래 찢고 버드나무 이파리로 딱 때갖고 붙인께, 고마 세상을 딱 보더라 카는 기라.

야아 이거 있다 싶어서, 그래서 인자 그대로 찾아가서 들, 들에 물 귀한 동네를 찾아갔어. 뭐 알구진 거지걸은 기 찾아가간께로 뭐 듣도 안 한다. 그래,

“밥좀 도라.”

쿠며는 밥은 쪼개 주는데 물을 안 줄라 카더라 카는 기라.

“야 이놈아, 우리도 몬 묵는 물을 갖다가 십리 밖에 가서 사다 묵는데, 너 줄 물이 어데 있노. 물 못 준다.”

이런께, 또 한 집에 가이께 또 그 쿠고. 그래서 인자 야가 여럿이 인자 여 저 모이갖고 있더라네. 남자들이 뭐 풀 뜯으러 가고 뭐 하러 감서. 그래,

“아이고 이 어르신들 여 와 여리 모두 다 이래갖고 있습니까?”

이런께,

“아이구 니 알건 아니다.”

이런께,

“제 말이 아무리 제가 그 하지마는 함 들어보이소. 이 동네는 온께네로 밥은 쪼개씩 주는 데 물을 안 준다꼬. 세사 물 없는 동네가 오데 있느냐고.”

이런께,

“야 이놈아, 여는 이 동네는 없다.”

이러 쿠고, 그런 소리 해삿고.

“그럼 지 말 들을람니까?”

그러이,

“니가 내 일 뭘 아는데?”

“그래 우쨌거나 그냥 지 말 들어보라고.”

딴 사람들 픽픽 가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야이 이 사람아, 하문 들어나 보자.”

이래갓고 가가 인자 거두. 베는 거. 낫 말고 거두라고 있어. 베는 거. 나무 큰 베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저게 깨이하고(깡이하고), 깨이하고. 그래 모두 탁 그리 오라 카더라네.

“그래 뭐 지게하고 이래갓고 지고 오면은 아무데 거 나무로 비내고, 그 뿌리로 파내빼고 나면은 그 너른 들 다 농사 지 물 끼고 말도, 물도 혼전하게(흥건하게) 물 낀데, 어 저게 뭐꼬 오찌 사람이 그래 미련하냐꼬.”

이람서 그란께네.

“예이, 니놈우 자석 니가 뭘 알어.”

이래사면서 통통 해쌌더니,

“게나 제나 한 번 해보자.”

또 그서도(그곳에서도) 그거 한 사람이 있어.

“그래 해보자.”

그래갓고 가와갓고는 동구이 싹 다 올라오는 기라. 올라와서 그래갓고 비내빼리고(베서 내버리고) 뿌리를 파내빼리니께네로 그 삼땅 그거 인자 약속을 했어.

“만약에 내가 이래갓고 물이 내려와갓고 농사 다 지 묵고, 물을 혼정키(혼하게) 무면은 널로 갖다가 반틈(반턱) 도라. 들을 반틈 도라.”

이리 약속을 하고, 그래갓골랑 그걸 봤어. 판께네 마 산땀같은 물이 막 내리 쏟아지는 기라. 그런께 그 너른 들 다 농사 지 묵고, 또 저게 뭐고 물도 혼정케 먹고 그랬대.

거 인제 눈 봤제 또 인제 너른 들도 내가 벌여놨제. 그래서 인자 처녀한테로 갔어. 처녀. 처녀 인제 그러구로 돌아댱기다 돌아댱기다 본께네로 그믄날이 됐어. 그래 들어간께네로, ‘오늘 저녁에 뉘로 잡아여도, 동네사람을 하나 잡아 열어야 이 우리 동네가 편할킨데, 이 어떻게 해야 되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지겅은 게 하나 마 들어간께네 마 좋아갓골랑 그 동네 사람이 마 거허게(거하게) 차려주더라 캐. 그래 걸기 차려주고 잘 묵고, 그래갓고 인제 저녁 묵고 난께네 쪼깨 있는께로 우시시 샅터만은 데빌러(데리러) 오더라네. 그래갓고,

“갓다 쳐 열더라.”

캐. 쳐 여논께네로 쳐 열어놓고 마 이 사람들은 싹 가빠더라 캐. 그 문 싹 잠귀놓고 가빠더라 캐. 그래갓고 인자 한밤중 된께네로 그 뭐 때민에 그러냐 할 거 겹으면 토깨비가 그 췌어.

“그 저게 터가 얼마나 세던지 그 사람을 하나 잡아여야 되는 거는 뭐 때민에 글노. 금이 사(邪)가 되갓고, 귀신이 사가 되갓고 그 금이 여 저 백마, 그 신방돌, 돌 있제? 디디고 올라가는 그기 이런 사람 눈엔 안 비도 그기 금이라. 그기 금인데, 그거를 고마 밤중 되든 사가 돼갓고 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 한다.”

카더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고것도 알았다. 그래갓고 인자 거기 딱 들어가 있음께네로 한밤중된께네 고마 획획 삼서 마 집이 뒤비, 꺼꿀로 서고 윽게 서고 이래 카더라 캐. 그때 마침 저거아버지가 그 저 뭐꼬 학자라. 그래도 쪼깨 학자라서 이놈아들이 진언을 치는 거, 진언을 치면 귀신을 꼼짝 못하거든. 진언을 치는 걸 배았어. 야가 그래도. 그래서 인자 한밤중 돼서 그라문 저거 아버지 밑에 한 개 배안(배운) 거 진언을 이리 탁 이리 일으코(읽고) 일으코 일으코 나몬 사르르 가라앉고, 또 좀 있다가 또 화딱 디비지고 소리가 나고 그렇다 캐. 또 진언을 일으면 사르르 가라앉고, 밤새도록 진언을 일으코, 그래갓고 그려고 날이 섰어.

날이 세눈께네로 이 사람들이,

“봐라. 이 사람 들어간 사람은 죽었을 끼고 하문 가보거나 가보자.”

하문 이 살살 가본께,

“니가 열어라.”

“아이고 안 한다. 니가 열어라 아이고.”

이래썬더라네. 그래갓고 문을 삭 열고 들어간께, 딱 이래갓고 앉아갓고 있거든. 앉아갓고 있음께네로 [놀란 듯이] 아이고! 그때는 마 놀래갓고,

“니 어찌 살았냐고? 여 들어오믄 죽는데 우찌 살았냐고?”

이러 쿠더라네. 그래서,

“다 사는 수가 있다꼬.”

이러쿠면서,

“저 지게 하나 지고 저게 저 뭐꼬 깨이하고 지게하고 지고 오라꼬.”

이래칸께네, 그 신방돌 그걸 봤어. 그 금이라 그기 싹 금덩거리라. 그래 그 지갓고, 지고 인자 처녀집에 갔어.

처녀, 내 그거는 참 잘 문 했고, 그거부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처녀가 봐라, 사가 돼갓고, 아 참,

“그 저 죽었다 살았다 나는 그거 와 그러냐?”

한께네로,

“그래가 인자 지네가 있음께 글태(그렇대).”

그런데 그래 인제 동네사람한테다가 장작 좀 하고, 세덜이 하고, 또 집게, 큰 집게하고 가 오라 캐갓골랑, 그래 지가 올라가갓고 젼장 천장 들신께네, 지네 큰 게 있더라 캐. 그래 그놈을 잡아갓고 인자 장작불 안 있나 거다(거기다) 틱 내빠리께네로 고마 오그리지 죽어뻗어. 그리 처녀가 살았어. 그런께, 우리 사우한다꼬 마 그 집에서 정승네 집에 사우가 뻗는 기라.

말하자면은 그래갓고 뻗는데, 그라고 인자 저 그 인제 그러구로 하다 본께네로 그믄이 뻗어. 그래 그 인자 백마 인자 갔는 기라. 그래가 거 금 그거 저 파갓고 짚어지고 처녀집에 왔어. 처녀집에 와갓고 겁나게 잘 살았어.

잘 살고 있을께네로, 아이고 그래도 언칭 맘이 지성이나논께네로, 지성이라논께, 나는 이리 참 잘 사는데, 잘 묵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우리 형님은, 그래 노믄 께썸해서 그거 할 낀데, 맘씨가 좋아논께 착해논께, ‘아이고 우리 형님은 오데 가서 얻어 잡숫는가? 밥을 잡숫기나,

밥이나 얻어 묵는가 굶는가? 오데 가서 죽었는가?’ 막 만날 저는 인자 편하게 그래 잘 있으이 걱정이 되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그러고로 좀 세월이 가고 한께네로 한 문은 거지가 들어왔더라 카는 기라. 거지가 오는데 본께네로 저거 새이더라 카는 기라. 저거 새이, 저거 새이라. 얼굴에 마 깜짝 놀래서.

“아이고 행님.”

행님 하는 순간, 이래 영접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갖고,

“넌 어째 하고 이리 저게 뭐꼬 이래 사노? 어째 그래 부자 됐노?”

“그래 이만저만하고 난 행님이 나로 갖다가 눈을 쭈시서 앞을 못 봤는데, 토깨비들이 와갖고 다 갈치 쥐갯골랑 내가 딱 들고 시킨 대로, 요리 딱 들고 시킨대로 하고 난께네 이렇더라. 이런께 이 저게 뭐꼬 그래 그리 됐다.”

이래 쿤께네로, 그래 요놈이 봐라 저도 그래 될라꼬, 고마 그 아이고 막 저거 새이가 온께네로 명지바지 저고리에다가 막 저 좋은 밥에다가 이래 막 상을 차리서 이래 준께네로 묵고는, 또 인자 고기 생각이 나는 기라. 잘 사는 욕심이. 그래, 그래,

“그래 동생은 우째 갖고 이래 됐노?”

“이리 됐다.”

쿤께네로, 내나 그 동생, 눈 쭈신, 동생 그 저게 뭐꼬 재에 가갖고, 그래갯골랑 올라갖고, 가락을 쪼깨 하는 걸 가갖고 지 눈구녕을 지가 쭈시갯고 고마 봉사가 돼뻘어. 그런께네로 도깨비들이, 도깨비들이 와- 모이들더만은,

“헤! 요놈 저거 동생이, 어 저 동생 눈을 쭈시갯고 그래갯고는 저저 우리가 이러 쿯더마는, 그래도 잘 사는 거 보고 요놈이 심사가 나서 또 요놈이 왔구나.”

요런 놈은 그냥 있음 안 된다고, 요놈을 마 뚜디리 팼다. 도깨비방망이로 갖고 마 때리 패주니까 고마 죽어빠더라 캐. 고마 동생 집에 갔고(가서) 살았으면 될 낀데, [조사자: 그래 더 욕심을 부리가.] 한 분 더 욕심을 부리가. 그런께 지성이면 감청이라. 지성을 무야 돼. 마음을 지성으로 무야 될 낀데, 감청은 그리 마음 나쁘게 묵다가 그래 마.

[사하구 설화 107]

## 욕도 잘 하면 죽을 목숨도 살린다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사는 저 어느 산골에 아무것도 없이 모자가 살았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살았는데, 살았는데

그래서 인자 촌에는 언제든지 저 질(길) 닦으러 나오라 카거든. 질 닦으러. 질 닦으러 이래 도로, 질 닦으러 나오라 캐서, 인제 아들이 갔어.

아적도(아침도) 문동만동(먹었는지 말았는지) 하고 이래 없이 살아가지고, 문동만동 하고 질 닦으러 갔는데, 그러고로 질을 닦다 본께네 점심때가 됐어.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아적도 저우(겨우) 쪼깐 묵거든. 그래논께 배가 고파서 그자 질을 닦다 보면은 높은 사람 그 전엔 감사라 했어, 감사. 아이구 저게 하도 배가 고파서,

“아이고 감산가 좍인가 지이미 왔다 가야 우리가 밥 무러 갈 낀데, 점심 무러 갈 낀데 배가 고파 죽겠네.”

이러 켜거든. 그런께 어느 놈이 마 감사로 갖다가 좍이라 칸다고 일러뵈어. 감사한테다 일러뵈어. 그래갖고,

“그래, 그놈 참 고얀 놈 그놈 날로 갔다가 그러 캐. 그래갖고 그놈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고 딱 그렇게 해뵈어. 그런께네로 인제,

“너는 날로 그러 켜담서 어 너는 아무 날 아무 시에 니는 사형이다.”

고마 옛날에 말 한 마디에 죽고 산 그런 세월이라. 그럴 때 그런께네로 그래 인자 앓고 드러누워갖고, 그 질로 갔다가 앓고 드러누워갖고, 일도 하도 안 하고 드러누워갖고 있는 기라. 그래 저거 엄마가 애가 터져서,

“너 와 그라노? 질 닦으러 가서 넘하고 싸웠나? 와 니가 뭐 때민에(때문에) 내 이리 밥도 안 묵고 이리 드러누웠노? 일어나서(일어나서) 저 밥 묵고 일하러 가라.”

이러 캐도, 그래고 인자 앓고 드러누웠어. 앓고 드러누웠는데 그러고 며칠 뒤

“저게 나는 죽을 놈이 밥 무서 뭐 하겠소. 어머니나 잡수소. 어머니 잡술 것도 없는데.”

이러쿠면서 인자 무어라 산께 묵기야 못겼지. 하 문 그날 인자 사형 날이 닥쳤어. 사형 날이 닥치갓골랑 그때사,

“야야, 니 뭐 때민에 그라노? 와 그라노?”

이란께네,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때 저게 질 닦으러 가갓고, 내가 나는 배가 고파서 하도 배가 고파서 감산가 좍인가 지이미 왔다 가야 내가 밥 무러 갈 낀데, 그래 그 저기 뭐고 그러 켜터마는, 그게 고마 내가 딱 찢러가고 마 감사가 날로 갖다가 그놈 아무 날 아무 시에 사형 이러면서 내일 모레 나는 사형이요.”

이러쿤께네, 그래 저거 엄마가,

“아이구, 야야 야 이놈아, 그걸 갖고 그래 썩나? 아무도 말고 밥 무라 괜찮다. 밥 무라 괜찮다.”

그래 밥을 무라 카더라 캐. 그래서,

“내가 내가 가꾸마. 내가 가갓고 저게 내 대신 가꾸마.”

이러니께,

“대신 가몬 안 된다꼬. 가야 된다고.”

내 그래 인자 대신 딱 갔어 그날.  
 “그래 넌 있거라. 내가 가꾸마.”  
 대신 가갓골랑,  
 “와 아무것이가 와 안 오고 당신이 왔소?”  
 이래쿰께네로,  
 “예, 감산가 좃인가 온다꼬 질인가 좃인가 닳다가 뺨가 좃인가 고파서 병인가 좃인가 낫는 데, 밥이나 좃이나 있어야 쌀이나 좃이나 있어야 밥이나 좃이나 해묵지, 돈이나 좃이야 있어야 약이나 좃이나 쓰지요.”  
 그러 캐논께네로, ‘아, 요 사람이 날로 밍어서 욱한 게 아이고, 아 자기 말 습관이, 말투가 그렇다.’ 그래갓고,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괜찮다 가라.”  
 해서, 욱도 잘만 하면은 죽을 목숨도 살아나는 기라.

[사하구 설화 108]

### 시아버지를 푸대접하는 부인의 버릇을 고친 남편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시아버지 혼차. 홀로 사는 시아버지로 저게 뭍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모시는 기라. 모셨는데 시아버지로 얼마나 배로 골랐던지 뻘뻘 야비갓고(아위어서) 일도 몬 하고 만날 딱 앉아있으이께네로, 앉아있으이께네로, 안자 그른께노 아들은 참 효자라.

아들이 효자라서 마 애가 터지가, ‘아부지 몬 잡숫고 저 애빈(야원) 기 참 애가 턴진다’ 싶어서 그리 해도, ‘마누래가 일도 안 하는 사람, 일 하는 사람, 일 하는 사람도 물(먹을) 기 없기라. 없는데 일 안 하고 노는데, 뭇시 아부지로 갖다가 마이 먹이노’ 싶어서 저거 남자나 먹이고 지나 묵고 이래갓골랑 그래 시아버지가 뻘뻘 애빈께네로 옛날에는 장이라꼬 몰랐거든. 옛날에는? 여자들 장애 안 갔어. 안 갔는데 저거 아부지가, 아이 저거 아들이 말 하기로, 하루는,

“야 이 사람야. 오늘 내가 장애로 가본께네로 참 영감들을 갖다가 살을 올리갓고 아이구 갖다 파는데, 돈을 갖다가 많이 받더라.”

꼬 이러 켜터든. 그런께네로 그래 그 소리를 들은께네로 메느리가, ‘우리 시아버지도 그라모 잘 먹이갓고 갖다 팔아보까?’ 싶어서 그래갓고, 그래갓고 잘 먹있어. 뭇이든 해갓고 잘 먹있어. 그래갓고 저게 한 문 인자 쪼깨 인자 해먹이갓고 살이 올상 싶어서 또 한 문 고갓어(그렇게

했어). 장 구경 시킬라꼬.

“야 이 사람아, 오늘 장 간께네로, 아 그런데 그람 우리 아버지도 데꼬 가보까?”

카이,

“데꼬 나가라.”

카더라 카는 기라.

“갔다 오소.”

그래 갔다 와가꼐랑 맛있는 거 사드리고 구경 시이갓고(시켜가지고), 그래갓고 인자 도로  
덱고(데리고) 왔어. 데꼬 와가꼐랑 마누래한테,

“아고야 이 사람아. 참 오늘 언간하면 만나리, 팔라 켜터마는 올 아버지카모 얼마나 살찐  
사람이 많고 그따다 갔다 대노이께노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이대, 이 사람아. 쪼깨 살을  
더 올리갓고 그래갓고 우리 갓다 파자.’

이래논께,

“그라자.”

카더라네. 그래 마 맛있는 거 사 먹이갓고 그래 데꼬 왔어. 장 구경 시기고, 그래갓고 맛있는  
걸 사서 마이 디리논께, 살이 찌갓고 기운이 나논께네로 마당도 찢어주고, 옛날에는 와 나락,  
보리 늘어놓으모 채 덩고 담고 이래 했거든. 이렇는데 그것도 하제, 아도 봐 주제, 청소도  
하제, 사살 꼐도 배제, 사살 꼐로 베로 댕기제. [청중: 꼐이 뭇지 모르쥬?] (조사자가 대답을  
하기 전에) 꼐. 소로 믹일라 쿠모 꼐를 베야 되거든. 그래 인자 그래 베제, 소로 미로(먹이리)  
댕기제, 소 죽도 끼리제, 일을 마이 하는 기라. 일을 많이 하는 기라. 하모 하모. 그래가꼐랑,

“오늘 장에 아버지로 하문 덱고(데리고) 나가보고 싶은데, 이 사람 어뵤고?”

“아이고, 데벼다(데려다) 파지 맙시다.”

[조사자: 일을 너무 잘하니까.] 하모.

“아이고, 파지 맙시다. 우리 마 일손도 달리고 한데, 아이고 마 우리 아버님을 갓다가 같이  
살구로 합시다.”

그래갓고 효도를 하더라 캐.

[사하구 설화 109]

## 자기 새끼 좋아하는 줄 아는 호랑이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저 산골에 그 뭐꼬 나물 뜯으러 마이(많이) 가거든. 둘이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나물을 뜯어 갖고 인자 한 보따리 싸갖고, 그래갖고 인자 인자 쉬갖고(쉬어서) 집에를 올라 카는데, 그래 처라본께네(쳐다보니까) 쉬갖고 올라쿤께네로 아무 데도 그늘이 없어갖고 쫓개 올라가, 쫓개 옆에 간께네로 큰 바우가 있더라 카는 기라.

바우가 있어갖고 나물도 뜯어싸서 없어, 마 여 지핀(깊은) 산중에 들어갔지 하모. 큰 바우가 있어가꼐랑 그래서 인자.

“그 바우 밑에 좀 시이갖고(쉬어서) 가자.”

이러쿤서 나물 보따리로 안자 한 보따리로 싸갖고 여 내라놓고, 요래 가갖고 바우 밑에 요래 본께네, 호래이 새끼가 저게 뭐꼬 호래이 새끼가 거 있더라 칸께, ‘아이고!’ 놀래서, 놀래서, 놀래서 마 나물이고 뭐이고 거 내빼고 왔어.

내빼고 집에 온께네로 지 새끼로 갖다가 범도 지 새끼는 저게 뭐꼬 곱다 쿤다 하모. 근데 지 새끼 좋다 켜는데, ‘내가 해꾸지면(해코지 하면) 안 되지’ 싫어서, 그래갖고 인제 마 ‘어 어흥-, 어흥!’ 칸께로, 놀래갖고 마 쫓아 집에 왔더라 캐. 온께네로 그 이튿날 자고난께네로 나물 보따리로 탁 갖다 뵈다 뵈더라네요.

[사하구 설화 110]

### 송장 삶아 먹여 어머니 병을 낫게 한 딸[산삼동자]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엄마가 아파서 죽을 병이 걸리갖고 온갖 약 해도 안 되고 이래서 하다하다 안 돼서 오데 가서 물어본께네로 누가,

“영장 뿌리, 영장, 송장 뿌리, 송장 발, 송장 다리로 갖다가 파다가 파다가 저기 뭐꼬 삶아 먹이며는 낫는다.”

이래 논께네로, 그래 인제 그 밤에 얼마나 옛날에 산도 으시노(으스스 하노)? 저 우에 갖다 쓴다 아이가. 가에 안 쓰고. 그 인자 그 파다가 인자 저 엄마 삶아 먹일 끼라꼬 갔어. 산에 올라갔어, 혼차(혼자).

그놈을 막 파갖고, 파갓꼐랑 그 이튿날 삶아먹일라꼬 인자 거름 무디(무더기), 거름겉은 거 풀겉은 거 마이 안 있는가배. 촌에는 그름할라꼬. 그때다 딱 묻어놓고 아즉에 삶알라꼬(삶으려고) 가서 본께네로 삼이 막 이만하더라 카대. 삼 뿌리. 동삼(童參). 그래갖고 그 삶아 미이고 낫았다 카대.

[사하구 설화 111]

### 이상한 높임말을 하는 며느리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송아치가 날아 온 마당 뛰댕끼께네로 개가 마 자꾸 짓거든. 자꾸 짓어싼끼네로 시오마이가 문을 열면서,

“아 야야. 저 개가 와 저리 짓어삐노? 저게 뭐꼬, 개가 와 그리 자꾸 짓어삐노?”

이란끼,

“예 어머이. 송치씨가 꺼치씨를 씨이시고 띠신끼 개씨가 보시고 지이시네요.”

이리쿠더란다.

[사하구 설화 112]

### 이상한 팔자타령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낮에는 못 박고 저녁에는 쫓 박고 그런 팔자라.”

쿠거든. 그래, 그래, 그래갓골강 또 저게 한 여자가, 청소하는 여자가 있다가,

“내 팔자도 그런 팔자요. 낮에는 걸레 빨고 저녁에는 쫓 빨고.”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13]

### 뒤로 당해서 못 봤다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파출소 막 쫓아가면서,

“아이고. 나 강탈 당했소. 나 강탈 당했소. 저 놈 좀 잡아주소.”  
이러쿤께네로,  
“어떤 놈이? 아무도 없네?”  
이런께,  
“아이구. 뒤로 당해논께 모르고 못 봤네요.”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14]

### 이상한 팔자의 중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중이, 또 중이, 중이 또 똑똑똑 치고 중이 하나 나서더만은,  
“이 놈의 팔자도 그런 팔자. 낮에는 묵탁 치고 저녁에는 쫓 치고. 저녁 치고.”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15]

###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은 이유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경상도 사람하고 사돈을 만났는 기라. 사돈끼리 인자 저게 거 딱 사돈이, 전라도 사돈이 경상도 사돈한테 딸네 집에 왔지.

인자 땡기러 왔는데, 그래갖고 인자 그 그석 말하자문 전라도 사람이 땡기러 왔는 기라. 땡기러 왔는데 신을 한 커리(결레) 사 쫓어(주었어). 이 사돈끼리. 저게 친정엄마하고 시오마 이하고 신을 한 커리 사 쫓어.

그래갖고 인자 신을 사줘갖고 갔는데, 그래 인자 일년만에 만났어. 일년만에 만났는데, 그래 신을 본께네로 전라도 사돈은 한 개도 안 닳았어. 일년을 신었는데. 그래 경상도 사람은 쫓개 닳고. 그래,

“아이고, 사돈. 아이고 똑같이 저 사 신었는데 와 이리 저게 뭐고 신이 안 닳았소?”  
이래 쿤께네로,  
“아이 사돈, 사돈도 뭐 빌로(별로) 안 닳았네.”  
이런께,  
“사돈은 오찌 신어서 그렇소?”  
이런께,  
“나는.”  
저 경상도 시오마이가,  
“나는 사람이 오며는 신고 가고, 사람 지내가고 나몬 싹 벗어 들고 가고.”  
전라도 사람은, 전사도 사돈은,  
“사람이 오몬 우두커이 서갖고 있다가. 가고나면 신고.” [일동 웃음]  
그런께 전라도 사람이 더 머리가 좋은 기라.

[사하구 설화 116]

### 조치원이 된 유래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조치원 그 역이 있는데, 와 조치원이 댘나 할 걸으면은, 그 인자 아버지하고, 저게 뭐꼬 삼촌하고, 또 손자하고 근께로 서이 목욕을 갔는 기라.  
목욕을 간께네로 손자라 카는 기,  
“엄마, 할무니 내 거는(것은) 저게 뭐꼬?”  
본께네,  
“아, 니거는 꼬치 아이가?”  
너거 삼촌은 [웃음].  
“삼촌은 대길이던데(큰 길이던데), 와 삼촌은 뭐인데?”  
“[웃으며] 그거는 좃 아이가.”  
“할아버지는 그라몬 뭐이고?”  
이런께,  
“아이고, 너거 할아버지 그어는(그것은) 좃도 아이다.”  
이런 캐논께네로, 좃도 아니다 이런 캐논께네로, 그래갖고 조치원에 차 오는데 가서 좃을 내놓고, ‘이 좃도 아인 거 이까짓거 뭐 하구로.’ 싶어서 좃 치갓고(치어서) 마 없애빨라꼬 이라고 있던께네, 저 저서 오민서 차가 오민서,

“좃 치아! 좃 치아!” [일동 웃음]

좃 치아 좃 치아, [일동 웃음] 그래 조치원이 됐다 캐.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17]

### 혀가 짧아 욕으로 들리는 사돈 말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아이고. 사돈이 오시시오. 졸구지가 아프시지요? 청에 기띠 오르시오. 진 좃 빠르시오. 야야 메늘아, 나 몽대이 가서 뒷밭에 가서 좃 몽대이 끊어갖고 온나. 사돈 좃밥 해주거로.

[사하구 설화 118]

### 자기 아이를 먹여 남편 문둥병을 낫게 한 부인

우재순(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남편이 문디 뱅(병)이 들었는데, 그래 인자 여자가 아로 나갓고(나아서), 바로 나갓고, 그걸 태꺼장(태까지) 술을 해 영는 기라.

술을 해 영고 그걸 영감, 남자로 갓다가 마이 미이고(먹이고) 미이고 하모 벌거이 또 취해 갓고, 벌거이 취해구로 나쌌다(낫게 했다) 쿠더라.

[사하구 설화 119]

### 호랑이에게 딸을 대신 주고 시아버지 호식 면하게 한 효부

이순선(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옛날에 시어무는 돌아가고 딸아 하나 낳거든. 세 살이고, 시아바이하고 신랑하고 너이 아가 그라몬. 신랑하고 딸 하나 낳고. 그래 인자 시아바시가 혼차 사는데, 시어매는 돌아갔고, 어느 산, 산중 원님에 날이 지내는 기라. 날로 지내려 갔는데, 친구들 가몬 ‘우리 와 아무것이 날이 우리 무려 가자’ 카고 갔거든.

가는데 이 시아바시는 술을 너무나 좋아해. 따른 시아바시는 다 왔는데, 자기 시아바시는 안 왔어. 그래 가서,

“아부님, [말을 바꾸어] 어르신네, 우리 아부님은 와 안 오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자네 시어른 큰일났네. 지금 그곳은 호랭이 곳이라. 마 호랭이가 물고 갔는 기라. 그래서 자네 큰일났네. 자네 시아버지는 아무리 깨워도 술을 너무 자셔 놓으가 있으니께, 그냥 자네 가보게.”

이라니까, 그래 참 이 메느리가 신랑은 나무 하러 가고 딸을 업고 가니까, 호랭이가 그래 그 산신령이라 칸다. 호랑이를 그래. 그래 가이까 할배로 술을 먹어 놓어가 있는데, 우에 내려다 보고 있거든. 잠을 잤으니까. 호랭이가. 그래,

“산신령님요, 우리 아부님 혼차 계세요. 우리 아부님은 다시 가면 우리 아버님 볼 수 없은께, 우리 딸은 놓으몬 자식인께, 우리 딸로 요기 하시오.”

카고, 두디기(두대기, 즉 포대기) 아로 놔두고 갔어. 그라니께네 신랑이 나무 해가 왔어. 세 살짜리 마 아빠 아빠 안 와서,

“이 사람, 우리 아무것 어데 갔는고?”

하이까,

“이고 여보.”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래 이래서,

“아이고, 잘했다.”

고. 마 신랑이 막 마누래 튼들여주고 영 잘했다 이라거든.

그래서 그래 지내다 밤중이나 됐는데, 대밭에 풀대기가(포대기로) 싸서 딸로 업어다 났더란다. 너무 호부라서(효부라서). 그 호자 호부라서, 그 아로 몬 묵어. 그래가 세 살 짜가 귀하게 대밭에 있거든. 엄마- 커고 그러더란다. 그래가이고 푸대기로 싸가지고 딸로 갖다 났단다. 그래서 또 그 메느리가 호자상을 받았어. 아들도 호자상 받고.

[사하구 설화 120]

### 못된 며느리에게 양갓음 한 시어머니

이순선(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몇 년 전에 참 시아버지(시아버지), 아버지는 내우간에 살았는데. 메느리하고 시엄마 아들하고 살았는데, 머스마 하나 낳았는데, 호불 시어마이가 아를 만날 보러 갔어.

가이께, 집에 업어져가지고 이마에 팔철을 갈아 갔는 기라. 가이께 이 며늘년이 마 시어마이 불테기로 때리더란다, 메느리가. 아를 보다가 업어져가 팔철을 갈았다꼬. 죽어도 할 수 없지 우야겠노. 그래 낮으면 되고.

그래가 얼마나 분한지 괴정에 그런 일 있었어 몇 년 돼. 그래 하도하도 분해서 신량이 내 손에 났다고,

“아무것아, 너거 아들을 내가 보다 팔채를 갈아 낮은데, 너거 마누래가 나 뺨을 때리.”

“잘 맞혔네.”

카더란다. 아들놈이 잘 맞았다 카이, 그 어마이가 그래도 속으로 낯은께네, 아이고 마누래 뭐라 칼 줄 알고 아들하고 했는데, 잘 맞았다 하이 얼마나 분할 끼고.

그래가 저 아버지가 죽을 때, 영감이 죽을 때 집문서를 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이 이놈들 맛 좀 봐라’ 카고 마 동네에서 우사를 시키고 마 집을, 복덕방에 퍼떡(금방) 팔리거든. 복덕방에 내 날라뻘단다(나가게 했단다). 그래 그 동네서 띄았뻘단다(“떨어져 나가게 했단다”의 뜻으로 보임). 띄우고 나가야 되는데, 집도 없는데. 그래 몬된 며느리가 있어.

[사하구 설화 121]

## 손자 죽게 한 할아버지 죽을 마음 되돌리게 한 아들 내외

이순선(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할매는 없고, 할배가 손자를 보다 차에 갈리 죽어뻘는 기라. 그래노이께 그 할배가 어땡 겠노? 죽을 마음이 있지. 밥을 안 묵고,

“나는 죽을란다.”

카고 밥을 안 묵고, 아들하고 메느리하고,

“아부님 아부님요, 우리는 젊으니까 놓으몬 자식 아닙니까? 아부님이 일어나이소.”

그래 사다가 시아버이를 살린 것도 있고, 요 몬된 것도 있어. 그래 그것도 호부상(효부상), 호자상(효자상) 다 받았는 기라.

[사하구 설화 122]

### 자식 죽여 시어머니를 살린 효부

이순선(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시오마이가 나쁜 병이 있어 시어마이, 메느리가 호불 엄마를 시어마이를 살릴라고 아로 한다 카니 도와가지고, 그래 인삼을 고와가지고 엄마를 주고 아는 살아가 왔지. 엄마- 카고 하매 살아왔지. 그래 됐어.

[사하구 설화 123]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순선(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고려장이 법이 그래 있었는데, 참 아들이 엄마를 인제 고래장 시키러 지게 업고 짚어지고 갔는 기라. 짚어지고 가면서 이 엄마가, 지고 밤에 갔는 기라.

가이꺼러 그래도 이 엄마가 아들을 질 잃어뿔까 싶어서, 솔 날개비를 꺾어가지고 놓고.

“엄마, 와 그래?”

“니 갈 때 질 잃어버릴까바, 이 솔잎만 따라 가거라.”

이 솔잎만 따라 아들 가라고 그란다. 그란께 그래가지고 인제 또 이 손지가 같이 갔는 기라. 손지가,

“와 지계를 내빼리고 가요? 아부지도 그라면 저가 그랄 낀데.”

카이께, 그래가지고는 고마 앓다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엄마를 모시가 왔어. 그라고 나서 고래장 없어졌다는 말이 있더라.

[사하구 설화 124]

### 자기 아이를 먹여 남편 살린 효부

이순선(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저게 자기 남편이 나병환자로 누웠는데, 어디 가서,  
“아로 술로 담어가 무몬 병이 낫는다.”

캐서 그래가 저 머스마 아로 갖다가 손톱을 다 이거 다 빼고, 머리를 깎고 술로 담어가  
무면 낫다 카더라네.

이래가지고는 이 어마이가 아들 네 살 무은 거를 문디한테 끌리가는 거를 얼마나 애간장이  
타서 막 점을 하러 땡겼는 기라 마. 온데 사방을 마, 요새는 그렇지만 옛날엔 점을 얼마나  
했노? 마 굿도 하고.

그래서 어느 용한, 그 어마시가 그 아들 하나 살릴라꼬 좋다 카는 점을 다 하이께, 이  
점쟁이가 얼마나 용하나.

“어는 곳에 어디 어디를 가만(가면) 지금 아로 갖다가 손톱 빼고 술로 담을라 카만 꼬두밥  
(고두밥, 즉 술밥) 찌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안 가면 아를 놓키, 놓친다.”

카더라네. 그래가지고 참 가이께로, 어디 어데마꼬 마 희안하이 점쟁이 말끔(모두) 알아.

“어디 쪽에 어데 가몬, 아는 하매 갖다 놓고 술로 담을라꼬 꼬두밥 찌내. 빨리 가야 이  
아들로 자식 찾지 안 그라만, 손톱 빼가 머리 깎고 술로 담고 꼬두밥 찌러 빨리 가라.”

그래 가서 아무것이야 부르이께, 엄마- 카고 나오더라네. 그래가 그 아를 살렸다 안 캅니까.

[사하구 설화 125]

## 콩쥐와 팥쥐

이순선(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얼마나 그 서모가 와 거게 물로 여다 놓으만, 구영(구멍) 뚫어 여다 부으라 카만, 그 또 뭐  
뚜꺼비 가서 막어 주가지고, 물 여다 놓고 나락 다 찌(찌어) 놓으라 카만 새가 와서러 그 밭  
다 새가 다 까주고 가고 그래 했다.

그 콩쥐팥쥐 그 서모가 얼마, 그래서 저거 아들 그거 바보겘은 걸 해가지고, 저게 외박  
해가 딸아가 아 뻘다고 쥐로 갖다 하고, 그래 애만(영똥한 또는 억울한) 소리 했는 기라, 그  
서모가.



옛날에 우리 동네는 산 넘어 넘어야 밀양 읍에 자양(장애) 가거든. 밤에 자양, 아츰에 새벽에 일찍이 가야, 지 날 갖다 안 오나? 오는데, 저녁에 갔다가 할배가 술로 느즈늑이(늦게까지) 묵고, 늦까 저물게 컴컴 어두븐데, 산 고개를 넘어 오이, 해치가 불로 켜가 마 막- 달라들이며 치더란다.

그래서 같이 쳄단다 막. 막- 안고, 끌어안고, 싸움을 하고. 이래 쳄는데, 널 아츰에 자고 가보이까, 모지랑 빗자리가(몽당 빗자루) 그 놈이 힘이 세, 모지랑 빗자리로 밤에 끌어안고 싸움을 쳄단다. 늦까 자양 갔다 오이. 그런, 그런 얘길 다 하대. 그거는 직접 입이 쳄다.

자양 갔다 오이꺼네 그라더란다. 해치가 돼가이고 마 달려드는데 마, 널 아츰에(다음날 아침에) 가보이 말-짱 모지랑 빗자루더래.

[사하구 설화 129]

## 날이 굶으면 나오는 도깨비불

이일화(여, 1927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기(계)로 그때, 꽃기(꽃계), 거기 동네 저 고개 넘어 잡았거든. 이고 이래 내려 오면은, 또깨비불이가 그 바다에 그한테 시운물이 내리지면, 매물이 지면 기가 다 죽거든. 초저녁에부터 잡아 오면 넘어 와. 고개로, 먼데이로 해서 이고, 태산같이 이고 내려오이, 요계는 시운물이 안 내리니까 요 갖다 채우고, 날이 썰라 하면은 자갈치에 갖다 팔로 가고. 그랬다.

[조사자: 그때 도깨비불을 보셨습니까?] 그때는 불이 없어도 날이 굶힐라 하만, 불이가 히뜩버뜩 해가 마, 퍼뜩퍼뜩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래. 우리가 요 볼 때는. [청중1: 불은 보는 봤지. 이래 한 덩거리 댘다가 쪽- 헤졌다가 고런 거는 봤어예. 도깨비불 나왔단다. “나온다.” 카이. 캄서.] 보기는 마이 봤지. 한 덩거리 댘다가 붕- 날라가, 저-쩍에서 똥- 내려 오고 이래.

“도깨비불이 나온다.”

이래.

“날이 굶힐라 하이까, 저 해치불이 난다.”

이래 썸다. [청중2: 해치이 불이가?] 응.

[사하구 설화 130]

## 산에서 자갈을 던지는 갈갱이

이일화(여, 1927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옛날에는 고개 너머로 산이 있었다 아이가. 전부 다 요게도 인자 롯데도 저 저 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지. 고개 너머로 가서러, 제사 지내러 간다고 가이, 그 자갈치 그놈의 꺼, 돌로가, 자갈로 가이고(가지고), 두루매기를 하얗이 입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두루매기로 입고 가이까, 자갈로 가지고 마 마 갖다 가슴에다 돌로 앵기더라대, 그기가 살갱이, 고양이 늙어서 범도 아이고. [청중1: 그때는 갈갱이가 그런 짓을 한다. 갈갱이가 그 그런 짓을 했다. 그 사람인데다 해꾸지 한다] 갈갱이라대. 어. 갈갱이로 자갈 갖다가 걸머잡고 마 가슴에 갖다가 앵기고, 이 두루매기 마 입었던 기 마, 전부 지더키 묻어가이고 형편이 없었다 이라대.

[조사자: 갈갱이가 뭔데요?] [청중2: 갈갱이라고.] 고냉이 늙어가이고 산에 가 있으나, 거기 늙으면 갈갱이라 해. [조사자: 호랑이 새끼?] 호랑이도 아니고. 똑- 호랭이 새끼 맨쿠로 그래. [조사자: 저기 산성에는 갈가지라 하데예.] [청중1: 어, 여는 갈갱이라 했어.] 요게는 갈갱이.

[청중2: 우리 이전에 젊을 적에 팔죽 팔고 밤에 늦까 저물게 오면, 장미고개 저게 오면 막, 자갈이 막 주루루 줄줄 내려간다. 광주리 이고 오면, 집에 와서 보이 자갈이 광주리에 세나 네나 된다. 자갈이. 갈갱이가 떠났어. 사람 오는데 해치 한다고.] [청중3 : 옛날에 뿐 아니라 우리들 땡길 때도 그랬다.] [청중4: 갈갱이가 오면은 불로 환하게 키주고 데리다 주고 그란다.]

불로 환하이 눈으로 비차 가지고, 잘만 세기니까(사귀니까) 집에꺼지 제사 지내러 가는 그 집꺼지 모시고, 불이 초롱초롱해서. 산골짜 불이 있다. 이러마, 대강 이래 잡고 가면은, 불로 훗-하게 케지고, 그 집 꺼정 데부다 주고 가고 이랬다고. 삼촌들이가. [조사자: 여기도 갈갱이가 많네요. 그지요.] [청중3: 그때는. 요 동네가 지금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뒷산 여게도.

“으으으으으으으으”

하고, 늑대가 울어 싸이. 개가 늙은 게 늑대가 있는데, 콩지가 지다라이(길고), 우는 소리가 “으으으으으으”

이래쌌다. [청중1: (제보자와 동시에 구술) 지금은 동네가 컸지만 그때는 동네가 쏘-꺼이 요래가 되가 있어. 버스가 있으면 저거하지만은 차도 없고 이래했기 때문에, 고기를 이고도 가고, 이고 가서 팔고, 올 때는 또 걸어오는 거라.]

그 때는 차가 있다. 걸어갔다 걸어오지. [청중1: 차가 있기는 가끔 있어도 인자.] 하리 두

대 백에 안와. [청중1: 아다리가 안 되는 기라. 아측에 몇 시면 몇 시. 저녁에, 오후에 몇 시. 고래만 있으니까네.] 고래만 있으니까네. [청중1: 그 때는 차가 없었어.]

[사하구 설화 131]

###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조두리(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자 저저 장림에 그 한 분이가, 저저 할맨데, 도깨비 홀리가가이고(홀려서) 그 쫄 정신이 가뻘더라고. 정신이 그 영(아주) 가뻘어. [청중1: 혼으로 빼가 가뿌며 사람이 혼이 이래] 그래갖고 밤에 자다가 홀리 갔는데, [청중2: 그래.] 그 아침에 인자, 그, 그 쪽에 있다가 들어 왔는데, 그래 그런 사람을 봤어 우리가. [청중1: 뭘은(말은) 정신이 다 빼앗어 빠져] 응, 정신이 엄서(없어). 엄서졌더라고. [조사자: 어떻게 홀키가 갔는가예?] 뭐 어찌 홀키 갔는 지 [청중2: 모르지 우리가.] 그 할매가.

“그 아이구 아무것이 저거 엄마가 저 해치에 홀키 가가이고, 저래 저래 바보가 됐다 바보가 됐다.”

이래, 그라는 소리만 들었지.

[사하구 설화 132]

### 고려장 이야기

조연순(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옛날에 가령 말하자면은 어, 모지기, 에- 고부간에, 에- 시집을 되게 살리고, 어, 저란 그런 상태랐는데. 그 저 아들이 먼참갔다(먼저 갔다.) 했지. 아들이 먼참갔는강 메느리 맨참 돌아가셨는가 했는데, 그 옛날에는 지게로 지고 갔다 무덤에 묻었던 갑대.

그랬는데, 그래 그 지게를 버리고 들오니까,

“엄마, 그 지게는 가 들어와야 됩니다.”

캐서,

“왜 그라는데?”

카이,

“나도 엄마 죽으모, 그 지게로 지고 갖다 버리야 되니까.”

그 그라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그래 그기가 전설의 얘기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잘 묻하문 밑에 자석이 받는다는데, 그 지게를 버리면 안 되이깐 가져와서,

“이 지게로 가지고 모친도 돌아가면은, 내가 그 지게로 인자 버릴 겁니다.”

카는 소리다.

[사하구 설화 133]

###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조정열(여, 1924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우리가 자랄 때, 그때 그 청승(천성), 가덕, 그 면사무소 있는 데는 성북리 동설리가 이래 갈라지가 있어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야 청승이라 카는 데가 이래 있어. 그 청승이라 카는 데는 일본 해군 기지가 있어.

그래가 함목이라 카는 데를 또 넘어가몬 해군 기지가 있고 그랬어. 그랬는데 우리가 아주 예릴 짝에는(어릴 적에는) 우리 동네 사람이 그 청승 고개를 넘어 오다가 해치한테 끌렸어. 그래가 맨발로 와서. 맨발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 신이 청승 고개 있다. 청승 고개 있다.”

이래가지고, 그 안날, 그래가 이 지금 걸으면 청년들이 가서 그거 하이까, 그 돌팍, 돌팍 밑에 한 짝이가 있어. 그럼서 그 돌로 안고,

“내 신 내라. 내 신 내라.”

그래, 그래 곳을 하는 거로 봤어. 우리가 어릴 짝에.

[사하구 설화 134]

### 할머니를 태워 집에 데려다 준 합천 해인사 호랑이(1)

조정열(여, 1924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자: 옛날에는 뭐 호랑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했습니까?] 안냐(그래), 호랑이는 합천 해인사 사람이 호랑이가 있었다 카더라. [조사자: 어, 그 이야기 좀 해주이소.]

그거를 우리 동생이 하나 합천 해인사로 시집을 갔는데, 그때 석달인데(선달인데), 마 눈이 와서 이래 그거 하는데, 그래 그러더라꼬, 운 할무이가(웬 할머니가) 앉아서. 아이고 그래 내가, “하이고-이, 산골에 우째 사노?”

자꾸 이래 싸이까,

“아이구, 이 사람아, 합천, 그 합천 해인사 그 고개 넘어 또 가는 데가 있는데, 호랭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래예. 그래,

“할무이, 호랭이를 우째 타고 당기노?”

카이, 그 사람이 아주 이 효잔가 봐. 그래인가 이 마을에서 잔치 걸은 거 하면 거들아주고, 그래가 그 밥을 소쿠리에 얻어가서 부모를 주고 이러이까. 그랬는데 가다가 인자, 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인자 마 이 옛날에는 잔치해가 열두 시가 넘도록 그거하고, 그거 수발하고 가면 얼마나 어렵겠노? 그 눈밭을 가다가 그거해서 그 소쿠리, 이 소쿠리가 요래 생긴, 옛날에 요래 소쿠리 고다 밥을 이고 가다가 그다 내라냥고,

“아이구-이, 언제꺼정 가야 되노?”

이러이까, 호랭이가 퍽- 누우가 있더라. 그래 할무이가 한다 말이,

“아이구-이, 밤중에 가는 이 몸이 뭐 그거 하겠노. 나를 잡아묵고 싶거든 잡아묵고, 니 맘대로 해라.”

밥숟가락 내라놓고 그러니까, 호랭이가 고개를 쭈-욱 내라가가지고, 그럼서로 한 쪽 다리로 가가지고 지 등에 타라 카더라. 그 호랭이가. 그러이까,

“아이구-이, 내 사정을 알아주는 거는 닐갑다.”

캄서, 등에 타이까, 그래 소쿠리 들고 집에 가서, 그 밥 그거 해가 내름서 한다 말이,

“아이구-이, 호랭이가 다 자는데, 호랭이가 내 사정을 알고 여꺼정(여기까지) 태와준다.”

카고 그랬다. 그랬다 캄서 이야기로 하더라 우리 동생이. 그 해인사 시집을 갔는데.

그래 그래 눈이, 눈 속에서 그래 내가,

“아이구 이런 데도 사람이 사나?”

이러이까, 그래 그런 이야기로 하더라.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 해인사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예.

[사하구 설화 135]

## 할머니를 태워 집에 데려다 준 합천 해인사 호랑이(2)

조정열(여, 1924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호랭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래, 그래 그 동네에서 그 할무이는 호랭이, 호랭이 타고 다니는 할머니라꼬 그래 그, [조사자: 별명입니까?] 이 이야기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그게는 가이까, 그래 인자 그 절에, 그 해인사 절에 전설이 있는데, 그 할무이 한 분은 그래 절에 땡김서 고양을 하고 고양주로 하는데, 한 번은 가다가 호랑이로 만나서 그거 하이까 할무이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래가 사니 호랑이 밥이라도 돼라.”

캄서, 호랑이 앞에 누우이, 앉으니까 호랑이가 한다는 말이,

“어흥.”

캄서, 그거해서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할무이가 그러더라.

“아이구-이, 내 사는 거로 아는, 호랑이 니가 아는갑다.”

호랑이 등에 얹히가주고 저거 집까정 갔다꼬. 그런 전설이 있는 동네라꼬 그런 소리를 하더라.

[사하구 설화 136]

### 효자가 많아 호식이 없었던 마을

조정열(여, 1924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해인사 그 밑에 산에는 이 호식이 없었다꼬 그러더라. [조사자: 와예?]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효자가 만에서(많아서) 그렇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그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로 하더라.

[사하구 설화 137]

### 귀신불이 나오는 가덕도

조정열(여, 1924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이, 그 구신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다 카더라. 그 가덕이라 카는 데는, 이 멘사 무소 있는 데서 한 고개 넘어야 청승이고, 청승에서 한 고개 넘으면 함목이라 카는 데가 있어 그게는. 그러니까 함목은 일본 사람 해군 기지가 있어. 그 땅 밑에 해군 기지가 있어.

그래, 내가 이 한국에 나와서, 그 이 일본서 나와노이까, 일본 사람, 일본 그 해군들하고 친해가지고, 그래 내가 참 문제 종자다. 그래 막 해군 기지 드나들고 이런다고 막 동네에서 가시나가 그런데 땡긴다꼬 얼마나 야단을 만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 안에는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이 땅 밑에, 그때만 해도 해군 기지 안에 드가이께 땅 밑에, 청승하고 함목하고 이 군 거기 있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랬다.

그랬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그래 그거 했는데, 그게 그래 옛날에는 구신이 있고 그랬는 가봐. 우리는 구신을 못 만나 봐서 모르는데. 그래 그런 소리로 하더라.

[사하구 설화 138]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조정열(여, 1924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그래 인자 옛날에는 시주를 걷아가주고 종을 만들었는데, 그래 인자 뭐 십시일반으로 뭐 마이(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거 했는데, 이 시님이(스님이) 가서 시주를 따 이,

“우리가 시주를 걷아가주고 종을 만들 겁니다.”

이라이까,

“아이구-이, 시주를 해가지고 종을 만든다.”

카이까,

“내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켰는데, 그런때미 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말, 여자가 말로 함부로 하면, 거기 안 좋다 카는 그기지. 그러이 아이구 그래 아를 보듬고 이래이래 카다가,

“아이구-이, 시주를 주야 될 께데.”

아, 자기 아 이름을 부름서,

“아무것이를 주까? 쌀로 한 말 주까?”

이래 해서, 그래가 쌀로 가갔는데, 그 종을 암-만 만들어가 쳐도 소리가 안 나는 거라.

그래 그제, 옛날에는 뭐 도사야, 지끔이야 그런데. 도사가 한다는 말이,

“너거가 이 시주 걸을 짝에 무슨 소리로 들었노?”

이라이까, 그래 그 그거 한 시님이 한다는 말이,

“한 집에 시주를 걸으러 가이까, 그래 저, 바가지로 가지고 드감서, 아이구-이 내가 쌀로 줄까? 아무것이로 주까? 이러던 그 소리를 하더라꼬.”

이라니까, 그러인까 그래 그 스님이 도사가 한다는 말이,

“이 종은 그 애가 들어야 소리가 난다.”

그래 애가, 그래 인자 그기 우리가 듣기에는, 여자라 카는 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카는 그 주의사항이겠지. 그래, 그 우리가 입에서 오만 거를 씹어서 넘구면 그거 하지만은, 말을 한 번 받으면(뺄으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야. 그란따미 내가 어던 쪼끔 그거한 좌석에 가서는 말 주의하고 하라 카는 그, 아마 그런 거겠지.

그래, 그래서 그래 아를 녹하가지고 그 종을 만들안 기, 에밀레종이라 카는 기. 그래 그 종을 두드리면,

“에밀레-, 에밀레-.”

이러던 소리가 난다꼬. 그런 소리를 하더라.

[사하구 설화 139]

### 처녀로 둔갑한 야시를 죽인 순경

황남순(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옛날에 우리 동네서 살고 있는데, 영감 할마이가 자석이 없어. 자석이 없어가주고, 골, 골 먼 산띠, 그 동네가 그 있는, 산이 있는데, 이 할매가, 어마이가 공을, 공을 들있어. 공을 달이 가지고(그려서), 저 큰- 바우 밑에 그 계가(그곳에), 집으로 가는데, 그래 공을 달이 나노이, 나노이 딸이더라 카는 기라. 딸 하나만 탁- 낳았어.

그 딸이가 너무도 너무도 인물이 좋아서. 옛날에는 머리를 주성주성 띠아가지고 학교 땡겼는데, 핵교를. 이런데. 너무 인물이 좋았는 기라. 근데 마, 사람 보면 마, 그때는, 옛날에는 일제강점기고, 일제강점기 때가 되어가지고 지서마정 왜놈들이가 긴 칼 매고 전신에(전부) 다

그 해가 있었어.

그래 그 집 샘이, 통 요 밑, 산 밑텐데, 여 박이, 타리박 가지고 물 질으러, 그 물이 참 맛있어. 물 질으러 가고, 학교 그거 해가지고, 그 물로 저거 해가 하고 이라는데.

왜놈이가 그 처이로 보고 참- 저거로 했어. 고 왜놈이가 자꾸 그라이 너무 너무 좋아해가. 수로 그래 잘 놓는 기라 그 아가씨가. 수로 똑- 놓고 있고, 골미 짓고, 옛날에 계가, 요 골목 바양 요래 계가. 그래 딸로 게 해가지고, 이 왜놈으는 한 번 오면 마, 그게 뭐 뭐, 그 뭐 딸 그저 그 아가씨 불러꼬 막 이러 캐가 있는데, 하도 고방 수만 놓고 있는 기라. 골미 짓고, 수로. 그래 수로 그래 잘 놔.

그래가지고 가마(가만히) 어떻게 해가지고 있으며, 낮때는(낮에는) 절대로 안 나가 야시가. 야시 난다 날씨 카제. 옛날에는 처이가 너무 이쁘면 야시가 된다고. 콩지를 해가 나온다고, 그래칸대. 이거는 직접이거든. 응, 이리 해가.

그래가, 그래가 밤만 되면 초상만 나몬, 벤독을(변신을) 해가지고, 엄마캉 아버지캉 다 큰 방 누버 자. 요 골목방에 누버 자면. 살-살- 나가갖고.

구름 낀 날 비오고 저라면, 초상이 났다카면, 그 저거 담 인데, 박살로(뒤집어 뒤기를 말함), 마당서 박살로 막- 이래 저거로 해가. 펄떡 뛰는데, 박살날 때 이 콩지가 나, 콩지를 나, 박살 세 번 할 때에 콩지 나는데. 머리 그기가 전신에 다 꼬랑대기다. 그래가 마, 담 그계를 아버이가 자꾸 봤는 기라. 이상서러. 그래 희뜩 넘어서 나가뿌는 기라. 계가(그 아이가) 나가 뿌고나면, 그 바양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어. 아무 것도 없고 요 살키 다-, 낮때는 불러카면 그 밑에 내 몰라 그카이.

그래가 아버이가 딱- 이래가지고 초상만 나면, 저거 어째가 해가 발견을 하꼬 싶어서러 그해. 딱 절대로 저거를 안 내고 이라는데, 잡을라꼬 등불로, 옛날에 등 들고 이래가지고, 산에 그 초상나면 사흘까지 일주일까지 산에 가가지고 기대하고 있어. 야시가 파싸서러. 파가지고 와. 그래가 낮때는 하나도 없는데 구름끼고 비 올라 카면 마리 밑에 마, 그 신체(시체) 입은 옷을 마 전신에 뺏기가 보따리 싸서 전신에 여놔, 밀어 여놔.

그래가 그 수로 놓으면, 할만 그 할무이 꽃 그, 그거로 수로 놔. 수로 놔가지고 이래 팔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하리는, ‘요 어째 가지고 잡을꼬?’ 싶어서, 엄마이 아버이가 내 저거를 했어. 그래 잠을 안 잤어. 가마이 인자 그. 그래 누가 어지아래(그저께) 초상이 났는데, 뒀에 가서 묻었는데, 사흘만에 야시가 나타나가 그거를 파디비가, 시체 다 끄집어가, 옷캉마 전신에 다 그래 여놔는데, 그래 열매나 부모가 골병이 들어가지고, 저 어째 해가 잡아가지고, 쪼개 저거 해 줄라고 그래.

그래 파출소서 갔는 기라. 파출소 가가주고, 그래 사실로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그래 할매캉, 아, 아버지캉 엄마캉,

“틀림이 없습니까?”

그라이.

“이거 공을 들어가 이리 서로 기했는데예, 틀림없습니까?”

“틀림없다.”

꼬,

“이것도 할 짓 아이고, 파디비이(뒤지니) 그것도 할 짓 아이고, 이것도 할 짓 아이고 우 짜겠습니까? 내 원대로 캐야지.”

그래가 총을, 권총 가지고 그 해가 왜놈들한테 가서 저거를 했는데, 저거 집에 낮으로는 야시가 그거로 안 하이, 밤에 비오고 구름 낀 날 언제든지 헤메이고, 나가기고 하니까네, 잡게 해줄라고. 그래 문 닫고 수를 놓고 있는데, 왜놈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더꼬 오가지고, 엄마이 아버지 안 불러꼬 나간께.

그래 집집 아버지는 봐도 자석을 그거를 몬 하지. [청중: 몬 하지.] 응, 그래가 인자 파출소 가가지고,

“쫓개이 잡아, 총살 시키가 직이 줄라꼬. 직일 줄라”

꼬, 직이 줄라이, 그래가지고 둘이로 더꼬 와가 그래 이, 파출소 순경이 하나 왜놈이가, 너무 그 처녀로 [청중: 사모하고 있었구나] 응. 어찌 인물이 잘 나고 어찌 좋은지. 절대로 총살을 못 하겠더란다. [청중: 총살 몬 하고.] 그래 탄 사람을 시키가지고 총상을, 그 방에 들어가 (들어가) 수놓고 있을 때, 탁- 가디 총 싸가(총 쏘아) 죽있어. 그래가 죽있어.

그래가 엄마이 아버지 직이고 나이까네, 참- 가슴이, 엄마이 속에 골병이 들어 올, [청중: 그거 야 자석이, 그래 그거이깐.] 그래가 자석이 아이라 자석도 아니라. 원수라 카이. [청중: 원수지. 원수가 멧히면 그렇게 한다.] 자석이 아니고. 원수가 맥히가 그래. 말 또 몬 하고 그 죽이뻘다.

[사하구 설화 140]

## 윤공단의 유래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에 여 윤공단이라고 있거든. 그 윤공단이 와 생겼노. 여 윤공단 캐놔제 우리. 이 윤공단이 윤흥식이가 여기 옛날에 애정 때(왜정 때) 저 다대 초등학교 저 살았더라요.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왜정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 윤흥식이 동상하고 형하고 살았더라 카대. 거기 여 전설에 보면 있어. 저 가면. 그래 있었는데. ‘내가 너거한테 어 목을 비가 죽니, 차라리 여서 내가 죽는 기 낫다.’ 싶어가 그 샘이, 우물물에 빠져 죽었다요.

그래서 이 윤공단이 4월 달 되면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계 새로 질 때 다대 포서, 동사무소, 구청에서 지 주는 거는 요것백에 없거든. 그래서 윤공단이라고 짓어. 내가.

예, 내가 그래서.

“뭘 지면 좋겠소?”

카이, 윤공단을 질라 켜소. 내가 원해서 지은 이름. 윤흥식 거기 있어요. 예릴 때부터(어릴 때) 거기 전설이 돼 가 있어. 그래서 사, 시 월로. 아, 시월에는 정동영이라고, 정동영 이름, 제사 지내고 사월 달에는 여 제사 지내고. 두 번을 지내요. 다대포서. 그럴 때는 구청장님도 오고 다 와요.

[사하구 설화 141]

##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중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들에 밥을 이고 가다가 어찌 오줌이 누릅은지, 어느 언덕 밑에서 오줌을 뉘어. 누고나야 마, 뉘이 짝 물어떠는데, 띠도달또(떼지도 달지도) 못 하겠거든. 그래서 죽는다고 있는께, 언 놈이(어느 놈이) 지나가다,

“와요?”

카거든.

“여보소, 물어서 죽겠다.”

카이,

“함 봅시다.”

카이, 그래 나발쟁이던 기라 해필. 지내가다가 그다 대고 나발로 “때깨” 분께 끼가 더 물어 떠 뵈는 기라. [웃음] 더 물어떠노이, 여 가만 본께네,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중놈이 지나가다가 아, 나발쟁이가 아니라 중놈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절을 해야 되겠다”

고, 그다 마 절을 해싸이,

“아이고, 내 몇 년 없이 밥 이고 대니고(다니고), 저 그거 해 봐도, 중놈 대가리만치 꺼끄럽은 건 처음 봤다.” [일동 웃음]

그래 참말 나발로 불어서 그기 끼가(게가) 떨어졌다 카더라네. 나발로 떼떡 불어뿌니, 끼가 놀래서 떨어졌다 카더라.

[사하구 설화 142]

### 신식으로 할 때 알아봤다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신식을 한번 하자 캐가, 벽에다 세와 놓고 막 발휘해서, 여서 나쁜 말이라서 몬 하겠다. 한번 했는 기라. 재밋게 한-참 하는데, 옛날에는 뭐 요새멘큼(요즘처럼) 옷 영을 데가 별로 없으니, 농 우에다가 마 냄비에 뭇이 갖다 언저놓이, 마 이려다 냄비가 우당탕탕 널찌가 아 머리에 박은 기라.

그러인께네 일나가 아들이 뭐라카냐면,

“고마 옛날 식으로 할 낀데, 신식 할 때 알아봤다.”

카더라네.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43]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옛날에 무슨 내가 들어봤는데, [조사자: 저게 불이 났다고.] 아, 있다.

“불이 얼마나 손해가 났더노?”

그래 물으니까, 그래 불알로 탁 쥐면서로 저 고추를 탁 집어뿌이,  
“아, 불 다 타고 지등만 남았다.”  
[조사자: 그 이야기 좀 해 주시소.] 그 내 모른다. 옳키.  
“지등만 남았다.”  
“얼마나 피해가 났노.”  
카이, 지 여를 그래, 뭐라 칸다 카더노? [조사자: 집 기등뿌리만 남았다.] 남자는 지께 기등  
뿌리만 남고. 아,  
“십 만 원치 남았다.”  
카더란다. 지 꺼를 갖다 댕께네,  
“아, 십 만 원치 손해가 났더라.”  
칸다 카대.

[사하구 설화 144]

### 잘못된 자식 교육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운공단경로당]

옛날 옛날에 자석을 하나 낳아노이 너무너무 귀한께네, 나무를 하고 산에 갔다가 오면  
아들이, 저저  
“저거 엄마 한 차리 썰리라(때려라).”  
카거든,  
그래 엄마를 한 차리 썰리, 엄마도 좋다고,  
“하하하.”  
“너거 아버지 한 차리 썰리라.”  
아버지도 탁 썰리고. 그 한 날부터 인자 갔다 오면 엄마 패고, 아버지 패고 질이 들었어.  
그리 패 썰께, 한 번은 다 숨어뿌고 없거던. 그래 이거 어찌 댘시면 인자, 이 사람이 호자는  
(호자는) 호자던 모양이라. 어마이 아버이가 질로 그리 들인 기라.  
“니 가서 저 엄마 한 차리 썰리라.”  
한 차리 썰리주고  
“아버지 한 차례 썰리라.”

째리고. 그리 질이 들었는 기라. 한 번은 아무도 없으이 인자, 고기를 받아 팔로 갖는 기라. 팔로 갖으이, 이 집 저 집 땡겨 어떤 집에 간께,

“고기 사가 내가 엄마한테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감서, 가가서 저거 엄마 아버지 잘 삶아 자시라고 대접을 하인께네, ‘아- 저런 사람 저러는데, 나도 집에 가서 그래야겠다.’ 싶어서 그 질로 고기 사가,

“엄마, 아버지. 내 잘못했다.”

고, 그래 빌고 그리 하더랴요. 그래 부잣집 뽀을 봐야 자석이 깨우치지만 썩뚝 나가 아무 것도 모르는 기라. [조사자: 그래 때리는 게 나쁘다는 걸 모른다 그지예.] 그래, 모르는 기라. 그러께네 귀한 자석이라고 엄마 한 차리 썰리라. 아버지 한 차리 썰리라. 그리 질이 들었는 기라. 그러자 지가 나무를 해가 팔아가 고기를 사가 감서로 엄마 아버지 드일라꼬 사가는 걸 보니께네 그 정성이 대단하이. ‘아, 나도 집에 가서 그래야겠다.’ 그 질부터 버릇을 근치더라 카대.

[사하구 설화 145]

### 천석군할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면 아주 옛날 옛날에 관상쟁이가 왔는 기라. 그래 공주를 하나 낳는데 아주 귀한 집에서. ‘아하’ 사주재이가 보더이,

“야는 천서방을 할 사람이다.”

그러 카는 기라. 그래 양반집에서 천서방을 하면 저걸 어짜겠노 마.

“갓다 내빼리라.”

이랬는 기라. 그래 산 천지 어디 갓다 내빼리뵈어. 갓다 버려뵈는데, 야가 인자 어디 가서 있으니까네, 참 이거 그거 맨키로 이 뭐시고? 어느 산골에 가가 있으이, 남자가 하나 숲을 끊는 기라. 그래 지도 그 거들고 마누래가 뵈는 기라. 숲 끊고 이래 썩는데, 어느 숲 끊는 데 떡 가져 보이, 숲 끊는 그 돌이 뽀덕뽀덕 하이 지 눈에 좋거든.

“보소 보소. 내일은 숲을 가 가지 말고, 이 돌로 한 덩어리 가 가서 팔아 오라.”

카거든.

“이 돌로 말라꼬(뭐하려고)?”

이래 카이까네. 그래 인자 돌로 가(가기고) 갔어.

“돌로 가 가서 얼마나 받을꼬?”  
하이,  
“금 지 꿈대로 줄라 카소.”  
그래 떡 가 가이 누가 와서 묻거든.  
“이 돌 얼마 줄라 캡니까?”  
이란께,  
“아이 마 주는 대로, 금, 지 꿈대로 주소.”  
카이, 마 한 덩어리 돈을 마이 주고 사 가는 기라. 그래 가다가 돈을 이러케 주더라 카고  
가 왔는 기라. 그래 마누라가,  
“됐다.”  
그 안날,  
“또 하나 가 가라.”  
카거든. 그래 또 하나 또 짊어지고 갔다. 지고 가이 또 누가 오더니,  
“오늘은 얼마 받아?”  
“아이 금, 지 금대로 받아오소.”  
그래 주이, 마 그 돌이 전부 금덩거린(금덩어리) 기라. 그 여자 눈에는. 그 여자 눈에는  
금덩거린데 이 미룩한(미려한) 사람은 안 보이던 모양이라. 그래 모르는 기라. 그란께네 또  
가서 팔고 부자가 됐어.  
그래가 니비 종을 들이고 인자 그래가, 친정을 찾아갔는 기라. 지 한시에 갖다 내 빠린  
아버지, 엄마를 찾아갔다 카대. 찾아가이 인자 문을 떡 열고,  
“아이 니가 어짘 일이고.”  
인자 클났거든. 뭐 서방을 해야 산다 카이, 천 서방을 해야 이 딸이 산다 카이 우찌 할  
꺼꼬. 근데 왔는데, 사우라 캄스 하나 더꼬 왔거든. 그래 가지고 인사를 떡 드리니께,  
“자네 성이 뭇고?”  
그런께네,  
“아이고, 내가 천서방 올씨다.”  
천가라 카더란다. 지 서방이 왔는 기라. 그래가 천서방이라고. [조사자: 그 천서방이 그  
천서방이었는데 그지예?] 그런께네 이해를 잘못하면, 그게 그리 되는 기라. 지리로, 안 그라면  
천서방을 하라 카는데 어째 이 양반집에서 천서방 하도록 놔 둘 수 있나. 그래 갖다 내빠린  
기 천서방을 만났어. 그래 천서방 했다 카대, 옛날에 그리 그 카더라.

[사하구 설화 146]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옛날에 할매가 며느리 하나 데꼬 살고, 아들이 어디 가고 없는 기라. 근데 이 며느리가 항-상 반찬을 해 주는 기, 너무 맛있는 거로 해 주더라 카대. 그래서 지 혼차 먹을라 카이 너무 아까바서(아까워서) 쪼끔씩 쪼끔씩 남가 숨카(숨겨) 났는 기라. 그래 아들이 딱 와서,

“엄마, 우째서 이리 얼굴이 좋고 좋아졌소.”

카이,

“아이고-이, 너거 너거 사람이 이리 맛이는 걸 해 주더라.”

내 놓으이 지렁이거든. 그래 아들이 껌쩍 놀래,

“우째 이걸 해 줬노?”

이카이, 그 지렁이가 보약이라. 그래서 이 할매가 살이 찌고, 눈도 밝아지고 그렇더라 카대. 그래 이 며느리가 하도 해 줄 끼 없으이, 남자는 집 나가고 없제, 시어마시는 모시고 있제. 지렁이를 파서 삶아서 뿔아서 쫄는 기라. 그래 그기 맛있어 노이 아들 오면 줄라꼬 여 났다 카대.

[사하구 설화 147]

## 딸로 태어난 매구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그래 어느 집에, 한숨 자고 나몬 닥키(닭이) 없어지고, 닭을 마이 댓는데. 또 좀 지내고 나면 닥키 죽어지고, 죽어지고 있는데. 아 가마히 있은께 닥키 다 죽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 있으이께네 시아바시도 잡아무우뿌고, 시아바시도 잡고, 시누부 요기 마 놀래가 달라빠 뵈는 기라.

세월이 열-마나 가고 나서 집에 함 찾아 와 봤어 어찌 뵈는가. 그기 언덕 밑에서 이로 직이 썩거던. 그래 오이께네,

“하하-.”

이라디.

“한 땀, 세 땀꺼리 생겼네.”

카면서, 좋아 이기는 거야. 시누부 자아무울라꼬(잡아먹으려고). 그래서러 이 시누부가 뭐 우쨌다 카던가 모르겠다. 맞나?

[사하구 설화 148]

### 제 새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옛날에 여자 둘이가, 이걸 아무라도 아는 이야긴데, 나물로 캐러 갔어. 서이가. 나물을 캐러 방구 밑에 가이께, 너-무 예쁜 강아지가 세 마리 있거든. 어-찌 이쁜지,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카이, 씨듬고(쓰담듬고) 막 쭈무리고 보고 있었는데, 우에서 뵈이,  
“어흥-.”  
캐서 본께, 호랑이가 이리 딱- 내다 보이거든.  
‘와이고 무시라.’ 싫어서 막 다 내빼리고 마, 집으로 마, 끈두박질치고 집에 돌아와뵈어. 그래 밤에 자고 난께네, 우째 아는지 그 호랑이가 지 줌 강주리를 지줌 집에 딱 갖다 뵈더라대. [청중: 저거 새끼 이뻐 했다 카면서.]

[사하구 설화 149]

### 며느리 방귀의 힘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어느 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말-꿈 피난을 갔는데, 목을 꺼가, 무을 꺼가 (먹을 것이) 없었어. 무을 끼. 그래가 메느리가 너무 방구를 잘 끼는 기라 마. 시집왔는, 방구를 끼싸서 할 짓이 아닌 기라. 그래가주고 방구 펼 때 되면 아버님, 어머님 저 지등 잡으라 카거든. [웃음]

그래 이 메느리를 더꼬(데리고) 인자 피난을 가게 뵈어. 배가 고파 톱 죽는데, 거렁 밑에

떡 앉아 있으이.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그래 단디 나무 잡고 있으라.”

카더란다. 지고(쥐고) 있으이, 보이까 배가 조렁조렁 했거든. 옛다 들고 뚜껑을 열고 방구를 붓- 끼이, 배가 수두룩 쏟아지더란다. 그래 묵고 배를 채웠다 카대.

[사하구 설화 150]

### 한 동네가 두 동네 된 사연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이 며느리가 밥을 채리 주기만 하몬 화장실을 갔는 기라. 변소 가가 안 오는 기라. 그래 시아바씨가 가마히 생각한께, ‘이놈을 질로 좀 들이야겠다.’ 싶어서, 옛따, 옛날에는 짚으로 닦고 이래 썩게, 베력바닥에 닦던 모양이라. 베력바닥 칼날로, 칼날로 해가 딱- 꼽아 났어. 이 며느리가 거 가서 닦다가 마, 이 짜지 뽏는 기라.

“아이고- 두 동네가 한 동네 되네요.”

카면서, 그래 피를 철철 흘리고 나오더라 카대.

[청중: 그래가지고 물 좀 떠갖고 온나 한께네 어, “물이나 씹이나 어? 한 동네가 두 동네가, 두 동네가 한 동네가 돼뽏는디, 뭐 물 떠기 오라 쿠냐?”고. 요 새이(이 사이가) 짜지 가지고.]

[사하구 설화 151]

### 도둑과 합방한 사람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도둑놈이 하나 떡 어느 집에 드가이, 호불애비 할마이 혼자 떡- 살거든. 그래 이 디다 보이,

“개똥도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네. 마 가야겠다.”

칸께,

“와, 나는 사람 아이가. 온나, 온나.”

카거든. 그래 드갔어. 드가이께네,

“한 번 해주고 가라.”

카거든.

“할매, 내 딱 다섯 번만 해주고 갈란다.”

카이,

“알았다, 다섯 번만 하고 가라.”

카거든.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세아린께네, 마 다섯 번을 안 넘구는 기라. 세 번 하고 네 번 내려가고, 네 번 하면 세 번 내려가고, 안 넘어 오는 기라 다섯 번을. [조사자: 그래 갖고예.] 한 번이라도 더 할라꼬. 다섯 번을 못 넘가더라 쿠대.

[사하구 설화 152]

### 쑥 뜯으러 간 진짜 이유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어떤 노인정에 함 가서러, 할매들이 어느 날,

“아이고, 어제는 마, 쑥 캐러 갔디, 어느 놈이 와서 한 번씩 다 했다.”

카거든. 안 가는 사람이 가마이 생각하이께 용심이 나거든. 그 안날 된께(다음날이 되니), 그 경로당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대. 쑥 캐러 다 가뿌고. [일동 웃음] 그 한 번이라도 할라꼬 다 다알랐어(달려갔어). [웃음] 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노.

[사하구 설화 153]

### 은혜 갚는 호랑이

김금만(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에 어느 고개로 이래 넘어간게네, 호랑이가 입을 콰-악 벌리가 잡아묵을라 카거든. 아, 이 청년이 딱 보이 지가 잡아먹힐 판이라.

“아이고! 내가 인자 천상 잡아먹혔다.”

꼬, 마 벌벌 떨고 있으이께네, 자꾸 입을 대면서 이라는 기라. 그래 날 잡아무올라꼬 양식이 그 했으이 내 달아나도 문 하겠고 이란게네, 아이고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을 하며] 이래 있거든. 그래 가마히 본께 입 안에 뿔이 천장에 탕기를 찌르고 있는 기라. 그래가 ‘아- 이거로 빼줄라꼬 그라는갑다.’ 손을 여 가 빼준께, 여자를 잡아무서 옛날에 비네(비녀), 사기비네 그기 이리 거꾸로 탁- 치가 있더라. 그 비네로 이 사람 빼준는 기라. 빼준께 고맙다꼬, 그 날 밤에 어데서 돈가방을 물어주더라 카든가? 집에 갔다 났다 카대.

그 짐승을 구하몬, 옛날은 사람을 도와줘.

[사하구 설화 154]

### 벌통에 숨어 호환을 면한 아이들

배연희(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에 인자 벌통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벌통이 다섯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벌통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래 있어. 그래 인자 애들이 인자 숨어서 인자 들어갔는 거라.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잡아묵을라 한께네 잡아묵을라 한께네, 들어가서 벌통 속으로 들어갔어. 쟈로 큰 벌통으로 들어갔는 거야.

큰 벌통으로 들어갔는데, 그 벌통이, 벌통을 인자 호랑이가 와갖고, 인자 그것을 인자 여기 인자 할아버지가 인자 그래 인자 낮을 속속속속 갈고 있는 거야 인자. 그 애기들을 인자 할아버지가 잡아먹을라고. 그것들이 인자 호랑이야.

잡을라꼬 인자 요렇게 속속속속 갈고 있는데, 다 떠덜라봤어(뜯어봤어). 다 떠덜라봤는디 두 개는 안 떠덜라봤어. 하나는 할멈 벌통이고 하나는 할아버지 벌통이야. 그런께네 인자 벌통을 요리 떠덜라본께네,

“요거는 우리 영감 벌통인께 안 떠덜라봐. 이거는 인자 내 벌통인께 안 떠덜라봐.”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한께 그 중에 두 군데가 들었어. 그래서 인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하고 인자 들어간 역에. 들어갔는데 인자 안으로 들어갔는데 동생하고 인자 누나하고 둘이서 인자 나와서 그 대밭이 있는데, 대밭에 거기서

“하나님, 하나님. 날 죽일라면 헌 줄을 내라주고 나를 살릴라면 새 줄을 내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께네, 하나님이 새 줄을 내라줬어. 새 줄을 내라줘서 인자 두 형제는 올라갔는 거야. 올라갔는데 이 인자 호랭이 요것도 인자 요것도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날 갖다가 죽일라면은 헌 줄을 내라주고, 살릴라면 새 줄을 내라 주고.”

반은 인자, 밑에는 인자 새 줄이라. 중간에는 헌 줄, 헌 줄이야. 그래서 인자 그거를 타고 올라가다가 등- 떨어버리논께 대글통에 그냥 마. [정중: 쭈시가지고.] 똥굴통이(항문을) 막 쭈시가지고, 띠띠, 입으로는 캥작 캥작, 똥구녕을 띠띠, 캥작 캥작, 띠띠. [일동 웃음] 그거밖에 몰라.

[사하구 설화 155]

###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사또

배연희(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운공단경로당]

아줌마가 인자 점심을 모 심기는데 점심을 해갖고 이고 가는 거야. 그래 가다가 오줌이 매려와. 낮어. 누고 있는데 저기 그냥 냄새도 나고 그렇게 한께 게가 구녕에서 나와가지고 그 물어뿔어. 여 물어뿔는 거라. 물어뿔었는데,

“아이고-, 죽는다-.”

고 약을 썬께 사또들이 나팔을 불고 가다가,

“왜 그러냐?”

고 해서,

“요 게가 물고서 안 놔준다.”

하인께네,

“어디 보자.”

함서로 나팔을 갖다가 여기가 대고 팍 불어 뽕께네 게가 떨어졌어. 그리고,

“사또 십 년에 십나발 불기는 생전 처음이다.”

카더라.

[사하구 설화 156]

### 무엇이든 크게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

배연희(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그래 산으로 인자 지게 목발을 딱- 들고 가다가, 동땅똥땅 요렇게 두드리면서 가는 거야.  
“명절은 다 돼간데, 우리 부모 어쩔꺼냐.”  
하면서, 노래로 부르고 가는 거야 인자. 가는데 깨금, 요게 보이까네 깨금나무가 있어.  
깨금을 하나 툇 따가주고,  
“아따, 이눔은 우리 아버지 주고.”  
그래 또 툇 따갖고 입에다, 그거 함서로,  
“이거는 우리 어무이 주고, 와-따 이눔은 내가 묵고, 와-따 이눔은 우리 각시 주고, 와따  
이눔은 우리 동생 주고. 와따 이눔은”  
차례차례 요렇게 했는 거야. 차례차례 요렇게 하는데, 했는데, 그래서 인자 소자(효자)라.  
역수로 인자 소자야 이 인자 아들이. 너무다가 소자야. 그래서 인자 가다가 너무너무 무엇을  
그냥 막, 막 돈, 돈, 돈이 그냥 막 역수로 많이 인자 마, 도깨비가 갖다 주는 거야. 도깨비가  
갖다 줘서 인자 그눔을 인자 갖고 갔는데, 저거 동생이 있다가,  
“행님야, 어째서 이 돈을 이렇게 거석해갖고 왔느냐?”  
한께네,  
“그래 이리이리 했다. 가다가, 산에 가다가, 목을 끼 없어서 산에 가다가 그래 거석 했는데,  
깨금나무가 있어서 이리이리 했다.”  
한께네, 지도 인자 간다고 갔는 거야. 간다고 갔는다, 가갖고 딱 본께네, 깨금나무가 있어.  
깨금을 탁 따갖고,  
“와-따, 이눔은 우리 각시 주고, 아따 이눔은 내 먹고, 와따 요눔은 행수 주고 와따 요눔은.”  
그눔을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야. 기린데(그런데) 마 도깨비라는 놈이 밍다고  
그냥 마 자지로 그냥 마, 쉰 댕발이라 뺨뿌렸어 마 인자.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리갖고 쉰  
댕발이나 빼갖고, 요 한낫 짹어지서 보내는 거야 지게에다가. 짹어지서 보내. 그래갖고 이기  
인자 안 들어가거든. 그런께 도깨비 방망이 그눔을 인자.[웃음] 저거 형님의 도깨비 방망이  
딱- 거석 하면서,  
“한 발 들어가거라 똑딱. 두 발 들어가거라 똑딱.”  
그러고 인자 자꾸, 이 인자 때리는 거야. 그래갖고 쉰 댕발이 다 들어가고 쪼끔만 남았어.  
저거 마누라 오라 해갖고 따보니 맞잖아. [웃음] 저거 마누라 오라 해갖고 맞차가지고,  
“됐냐, 됐냐.”  
그런께,  
“됐다.” [웃음] [조사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이 나네예.] 응, 그래갖고 그걸로 끝이야.

[사하구 설화 157]

## 마루 밑에 숨은 도둑

배연희(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도둑놈이 와서,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왔는데, 저거 서방이 저 나무 하러 갔거든. 산에 나무 하러 갔는데, 온께 이 마루 밑으로 들어가뿌서, 그래갖고 그놈이 아, 도둑놈이 요래 있더라.

여자가 요 팬티를 안 입었어. 그래 요래갖고 앉아갖고, 거기서 그냥 막- [일동 웃음] 한께네, 그를 갖다가 썩- 갖다가 얹풀떼기 썩시 여준께, 좋아 갖고 막- 패악을 친께. [청중: 이런 걸 어데 할라꼬.]

“당신 왜, 왜, 미쳤나?”

고 그란께네,

“아니, 그냥.”

그래갖고,

“일어나서 물 좀 떠 갖고 오라.”

한께네, 일어난께 그게 그대로 곳곳하게 그란께, 어머이 일어나서 젓가락을 갖고 납풀대 가리 널짚다 하면서 콧- 썩시 뿐께네, [청중: 아이구 참네.] 그래갖고 도둑놈이 안 들키고, 콧, 젓가락갖고 콧 썩시 뿐께네 푹- 들어가뻘어 팽이 속에.

[사하구 설화 158]

## 여자 밑을 대신 닦아준 사람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이사 와서 인자, 그 들에서 일하는데, 점심을 딱 이고 인자, 많아 가이고 이고, 물 주전자는 인자 씨아제비를 들고 가자 쟤어. 들고 저 가이 퐁이 매렵거든. 그래 그 무거운 거는 내루도 못해서 이고 퐁을 누고, 그서 밑구녕을 땀아야 되는데, 이고 못 땀아서 이제 시아제비보고,

“대련님, 나 밑구녕 쪼께 딱아 주소.”

이란께, [청중: 마 그냥 올 일이지.] 디다 보이 두 개거든 구녕이.

“형수님, 앞에 꺼를 딱급니까, 뒤에 꺼를 딱급니까.” [일동 웃음]

물어보거든, [조사자: 그래 가지고.] 근께,

“앞에 건 딱지 말고, 뒤에 중 바랑걸이 쪼롬쪼롬한 거 고거를 딱아라.”

하더라.

[사하구 설화 159]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에는 인자, 저 호롱불이 없어가이고 산에 솔나무 가지, 그기 디나 불로 땡기면 많이 닳거든. 그래 인자 그런 솔가지를 해가 와서 불 캐는 땡데. 그래 인자 아들도, 아들이 서이던 가배. 근데 씨아바세 그 제사 지낼라꼬 솔로 한 바양(방) 한 독 해 여 낳는데, 그래 인자 쯤 마 실컷 뭐 우째 하다가, 솔가지 요 불로 켜가 디다 보다가 디다 본께네, 디다 보다가 마 지름 뽀골뽀골 그기 빠지뻘어.

그래 마 뜨겁어 가지고 마 발로 파닥파닥 한께, 술독을 차가 깨뻘어. [웃음] 깨뻘어. 제일 큰아들이 일어나더만.

“할배 제산데 좇을 빼놓고 지낼 켜가.” [일동 웃음]

그라더란다. 둘째 아들이 딱 일어나더만,

“나 내일 솔가지 하러 가면 내 둘립니다”

그러거든. 막내가 일어나더이만

“보자쿨 때 알아봤다.”

카더란다.

[사하구 설화 160]

### 꼬꼬댁하면 삐약삐약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그 하도 아들이 많아가, 밤에 방에서 문 해서 마누라 보고,  
“내가 꾸꾸하고 나가거든, 꼬꼬댁 캄서 따라 나오이라.”  
이랬거든. 그래 인자 밤에 저 야밤이, 남자가,  
“꾸꾸.”  
이라면서 나가거든. 인자 마누라가,  
“꼬꼬댁”  
하면서 나왔다. 이란께 아들이 전부 다,  
“삐약삐약.”  
하면서 다 따라 나오더란다.

[사하구 설화 161]

### 이왕이면 큰 고무신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옛날에 어떤 할매가 지 고무신 사러 갔거든. 장에. 그래서,  
“큰 기나 작은 기나 한 값이라 쿠거든.”  
이왕이면 한 값이라 큰게, 큰 거를 사야 되겠다 싶어서러 크다큰 걸 샀어. 인자 한 이십  
문 쯤 되는, 지는 십팔 문쯤 신는데, 이십 문쯤 되는 걸 샀어. 사가 신은게 헐떡헐떡 하거든  
쯤. 그래 인자 빠수(버스) 타다가 마 버어지뻘어 신발이. 그래서 아깝아가이고,  
“아깝아라 내 고무신. 메이카나 안 좋나 태화고무, 문수나 안 좋나 이십 문(청중들이이  
함께 외침). 한 나절도 못 신고 마 빠자뻘다고.”  
원통해서.

[사하구 설화 162]

### 잡을 것이 있어 다행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옛날에 애비, 아들이 인자 그 목욕탕 갔어. 아가 마 엉겁짐에, 아가 마 목욕탕에 풍당 빠졌어. 그래 마 잡는다고 잡는 기, 저거 아바이 이걸 잡고 일났어. 제구(겨우) 끌고 나와서 저거 집에 와서 마누래 보고,

“여보, 온 아즉(오늘 아침) 저거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오늘 아가 잡을 끼 있어가고, 잡을 끼 있어가고 올라왔다. 안 그랬으면 온 아 저 빠질 뻔 댘다.”[일동 웃음]

그래.

[사하구 설화 163]

### 삼십 년 동안 조개에게 물리면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그 저 목욕탕 간께, 지는 곳곳 하는데 저거 아버지는 축- 늘어져 가 있거든. [청중: 저거 할아버지다.]

“아버지, 나는 이리 곳곳한데, 아버지는 이 이리 저 늘어졌나?”

이란께,

“내 또, 저 조개한테 한 삼십 년 물리 봐라.

[청중: 아이고 마! 니도 조개한테 한 삼십 년 물리 봐라. 니도 안 그렇는가.? 안 그렇는가.]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64]

### 부끄러움이 많은 감 장사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어떤 아범이 감을 한- 소쿠리 따놓고 부끄러워서 팔로 못 가졌거든. 그래 가만 우째 갈꼬 싶어가 앉아있은께, 마침 소금장수가.

“소금 사소-.”

이라면서 가거든. 그래서,

“에-.”

그라며 따라갔다. 따라가서 앞에 감서,

“소금 사소-.”

이란께 뒤에서,

“감조차.” [일동 웃음]

지는 앞에 가서,

“감 사소.”

이래 몬 하고 인자, 소금재이로 뒤에 따라감서,

“소금 사소-.”

이라면,

“감조차.”

[사하구 설화 165]

### 며느리 방귀는 복 방귀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어떤 며느리 인자 시아바이 요 밥상 들고 가다 방구를 뽕- 끼거든. 그란께 시아바이가 며느리 부끄럽다꼬,

“우리 애기 방구는 복 빵구라.”

이란께네,

“보이소, 두 방 찢어요.”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166]

### 뭐든 잘 잊어버리는 사람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잘 잊어빠리는 놈하고, 역수로 잘 달리는 놈하고, 또 힘이 되게 세는 놈하고, 세 놈이서 어데 쪽- 질로 간께네, 노루가 한 마리 막- 뛰 가거든. 그래서 인자 잘 달리는 놈이 마 각- 뛰간께, 노루가 굴 속으로 쏙 디가, 디가거든. 잘 달리는 놈이 노루를 쫓가가가 마, 굴 쏙 드가 다리만 딱 보이거든.

그런데 힘 센 놈이 다리를 딱 땡기니까, 대가리 푹 떨어져 나오거든. 그라이 잘 잊어빠리는 놈이,

“올 때 대가리가 붙어 왔나.” [일동 웃음]  
문더란다.

[사하구 설화 167]

## 우는 여자 웃기기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인자 또 어떤 놈이, 두 놈이서 저 간께 마, 어는 이기 산소가 있는데, 마 어떤 여자가 마 되기 마 설께(서럽게) 울어짰거든. 그래서,

“니 저 사람, 여자 웃길 수가 있나?”

그래. 그란께 한 놈이 있다가 내기를 했어. 서로 저 여자로 웃끼느냐, 안 웃끼느냐. 그래가 인자 한 놈이 가서 마, 곁에 가 똥을 한- 바지가 싸놓고,

“하이고-!”

울었다. 울어짰는데 그 여자가,

“젊은이가 왜 그리 우노?”

카거던.

“모친은 왜 그리 읊니까?”

그란께,

“내 간에 붙었던 자석이 이래 죽어서, 원통해서 운다.”

그란께,

“그럼 너거는 왜 그러노.”

“내도 속에 붙었던 똥이 이래 나와가이고 원통해서 운다.”  
이란께,  
“허허허.”  
웃더란다. 그래서 이겼어. 그래 이겼다.

[사하구 설화 168]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순악(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어떤 아가 하-도 울어싸가이고, 저거 엄마가 뭐 줄꾸마 캐도 울고, 뭐 줄꾸마 캐도 울고, 호랭이 온다 캐도 울고 그라거든. 그란께,  
“꽃감 주꾸마.”  
그란께, 아가 안 울거던. 그래서 호랭이가 가마이 들은께, ‘나보다 꽃감이 더 겁나는가.’ 싫어가 마, 마마 도망을 가 뻘어. 그 집을 헤칠라고 왔는데 마마, [조사자: 꽃감이 뭔지 모르고 그지예.] 어, 꽃감이 마 저보다 더 겁나는가 싫어가 마, 마 도망을 갔다.

[사하구 설화 169]

### 오누이와 호랑이

김옥순(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인자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떡을, 고개를 넘어야, 인자 산으로 넘어야, 장에 가서 떡을 팔고 오는데, 아, 가는 데 그랬제. 가는데,  
“어흥.”  
그러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  
고 그러니까, 하나 주고. 응, 또, 또 한 고개 넘어가니까,

“어흥, 또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하는데, 떡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엄마를 잡아먹어뵈고, 애들만 오골오골 오골허이 방에서 노는데, [청중: 너거 엄마 왔다 문 열어라.]

“너거 엄마 왔다고 문 열어라.”

고,

“아들아 문 열어라. 엄마 왔다.”

그러니까, [청중: 울 엄마 음성 아니네.]

“우리 엄마 음성 아니라.”

카이까네,

“맞다.”

그니까, 한 놈, 똑똑한 놈이,

“그러면 손을 내 보이라”

고 그러니까, 손을 내었는데 터레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 잡아먹었는 지, 그 다음에 몰라. [웃음] [청중1: 호랭이 담배 묵던 시절에 그래 했다.] [청중2: 그런 일이 사실 있을까?] [청중1: 옛날에는 있었겠지 말도 하고.] [청중3: 하! 기억이 다 총명하네.]

그래가지고 뭘시 어째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두루바기(두레박), 하늘에서 두루바기가 내려와가지고 애들을 올리고, [청중1: 그래.] 올리니까 인자 호랑이가 애들을 잡아먹으러 올라가다가 줄이, [청중1: 떨어졌다.] 썩은 줄이 응, 저 애들이 그러는 기라.

“하나님 아버지, 저 살릴라면 새 줄을 내려 주시고, 죽을라면 저기, 죽게 할라면 현 줄을 내려 주세요.”

그랬는 기라. 그래, 새 줄을 짝- 내려줘가지고 애 셋이 타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이래 쳐다보다가 지도 그걸 들었거든. 그래가, [청중1: 거꾸로 말한다 아이가 지가.] 응, 그래가 지가 인자 응, 현 줄을, 지가,

“살릴라면 현 줄을 내려주고 응, 안 살릴려면 새 줄을 내려달라.”

고 그러니까, 중간쯤 올라가다 똑 떨어져서 수수깡이에한테 똥구멍을 팍- 썩시서러 죽었다 그 말이라.

[사하구 설화 170]

## 말 피를 무서워하는 도깨비

김옥순(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아-주 가난한 총각이 도깨비들하고 막 노는 거야. 놀았는데, 생각이 그리 안 나네. 살았, 놀았는데, 그 도깨비가 하는 말이,

“니는 뭐를 제일 좋아하느냐.”

총각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저, 뭐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물으니까, 뭐, 뭐라 쫓다더라. 뭐 했어. 하여튼 그 집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총각이, 인자 도깨비가 총각한테,

“니는 무엇이 제일 갖고 싶나?”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갖고 싶다.”

이랬는 기라. 그래가지고, 도깨비한테 인제,

“니는 뭘 제일 싫어하느냐? 좋아 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닭, 닭 모가지, 피 나는 거 그거를 제일 싫어한다.”

고. 그래 도깨비하고 막 싸워가지고, 애가, 총각이 지게 생겼는 기라. 지게 생겨서, 용심이 나니까 인자 억울하잖아. 그래서 싸워가지고, 아 도깨비가 닭을 제일 좋아 한다 카더라. [청중1: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싸워가, 씨름을 했,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기 참 재밌던데. [청중1: 옛날 얘기도 도깨비는 존재가 안 되제. 실제 인물이 아이제. 반딧불은 우짜노?] [청중 2: 반딧불은 지금도 있다.]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남자가 졌어. 인자 총각이 졌는데,

“에, 이노무 자식이 응”

이노무 자식이, 저, 피를 제일, 도깨비는 닭을 좋아한다 카더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닭을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찢라가지고 막 집에 다 이래 뿌려 났는 기라. [청중2: 도망가겠네.] 응. 그래가서 그래 금은보화를 많이 졌는데, 뭐를 잘못해가지고 그거 가져간다 카니까, 인제, 지, 아 피를 제일 싫어하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 어찌게나, [청중1: 발라났네.] 뿌려가지고 개들은 다 도망가빠고 금은보화 잔뜩 있어서 잘 살았단다. [조사자: 도깨비도 잘 다스리면 그지예] 응. 잘 다스리면 괜찮은데, 뭐 거기서 같이 인제 트라블이 생기면, 저거 맘대로 안 되면 인자 사람을 해꼬질 하는 거라.

[사하구 설화 171]

## 도깨비와 싸운 사람

김옥순(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도깨비는 진짜로 있었어. 왜 있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게 여자들이 이 몸에 거를 하면은, 없어서 못 하는 기라. [청중: 피가 묻으면 해.]. 그게 인자 빗자루에 묻으면은 빗자루 있지요, 옛날에 수수깡이 빗자리. 또 대나무 빗자리 긴 거. 그기에 거기서 쪼끔 우리 몸에 것이 묻으면, 그기 도깨비가 되는 기라. 된다하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청중: 수수깡 빗자리에 잘 올라간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도깨비하고 싸웠다 카대. [청중: 싸우고 아침에 나와가서 보이, 그기 피가 나온데.]

우리 집이, 우리 동네가, 저- 시골에 가면 있고, 저쪽에 가면 있고, 이 산으로 넘어가면 있고 이런데. 술을 잡수고 말을 타고 오는데,

“어이, 어이.”

뒤에서 부르더라 카대. [청중: 자기한테만 들린다.] 사람이. 응.

“어이, 어이.”

그래서,

“왜 그러냐?”

카이까,

“저기 내려와서 씨름 한 바탕 하고 가자.”

고, 그래가지고 씨름을, 우리 아버지가 힘이 췌대. 그런데 딱- 이거 왼발을 들으면은 적어 지고 이 오른발을 들으면 점점 커지는 기라. 이 도깨비가. 응 그래 꺾가, 그거를 책에도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겨가지고, 옛날에는 수건도 없고,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거 있잖아? 그걸 클러가지고(풀어서) 꼭- 뭉겨가지고(묶어서) 나무에다 이래 딱 묶어놔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게 대나무더러 안하나. [청중1: 그러게.] 응, 대나무더라고.

[사하구 설화 172]

## 도깨비에 흘린 사람

김옥순(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청중1: 약한 사람한테 달라드는 기라.] 우리 친구도 양, 그때 우리 그, 우리 동네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저 쪽에 큰 동네 있고 이쪽에 있고 이런데, 저녁에는 우리 열두 살 때 학교가 없었으니까, 저 인민군들이, 저 일본놈들이 다 태우고 갔다 카대. 그래서 저게 인자

그 동네에서 학교 지을 능력이 안 되는 기라. 학교가 열, 열두 반까지 있었는데, 그럼 크잡 아요? 삼층까진데 다 태우고 갔어. 우리 어릴 때다.

다섯 살 때인가 언제, 희미하게 생각이 나는 기라. 불을, 막 불난 거를 봤거든. 그래 갔는데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모여가지고, 선생이 하나 와가지고, 동네 저 저 이런 사랑방이 크게 있어. 그런데 모여가지고 인자, 우리 나이가 열두 살이면 인자 열두 살짜리 모여지면, 한-방 모여서 공부하고 인자 가는데.

우리 친구가 몸이 약한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 가면은 또랑이 있으니까 또랑에 요래 저기 건너가는데 있잖아 그냥. 또랑에 여기 밑에는 물 내려가고. 그냥 흙으로 요래 만든 거. 그 때는 세면도 없었고.

실지가(사실), 내 친구가 그 인자 여럿이 가다가 복판에 갔어. 거기 개는 꼭 복판에 가는 기라. 그 인자 복판에 가는데 다리로 툭 떨어졌는 거야. 다리로 툭 떨어졌는데, 그 이튿날에 인제 읍씨(없어). 애가 행방불명이야. [청중2: 물에 떠내려 갔나?]

그 날은 인자 아무 때도, 인자 얘기 들어 봐 끝까지. 그 날은 인자 아무도 몰랐어. 인자 어느 동네 누가 없어졌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이튿날 또 학교를 오니까 개가 안 왔거든. 그래가 물었어. 인자,

“아, 애는, 왜 아무개는 안 왔노?”

그러니까, 그래,

“어제 저녁에 다리로 툭툭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인제 저 애가 없다.”

인자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마, 전신에 어른들이 햇불을 키고 찾았어. 찾아도 없는 거야. 애가 삼일 짜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동네 머슴들이 나무하러 가잖아. 산으로 나무로 하러 가는데 이, 저 애 우는 소리가 나더라.

“살려줘요. 살려줘요.”

소리가 나더라. 그때는 인제 혼이 나가서 자기의 혼이 들은 거야. 그런데 이런 큰- 바위가 이래 있는데, 바위틈에다 요래 깽가(끼워) 났더라.

[사하구 설화 173]

## 처녀귀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

김옥순(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택시를 하는데, 어떤 처녀가 차를 세우더라 하얀 소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청중1: 아, 귀신이다. 귀신.] 그 사람 태우고 어디까지 갔어. 자기 집까지 갔는데 아저씨 있으라고. [청중

1: 맞아, 맞아.]

“내 저기 가서 차비 가져 올 꼬마.”

[청중2: 누이라꼬(누구라고)?] [청중1: 귀신.] [청중2: 귀신요?] [청중1: 응. 귀신.]

하고,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시골인데, 그 저 집에 찾아 갔어. 찾아 갔는데, 이런 사진을 이래 놔두고 막- 울더라 캐. 우는데 이래 보니까 그 여자 더러 안 하나. 돈이고 뭐시고 못 받고 마, 줄행랑을 쳤지 뭐. 그랬다 카대. [조사자: 그래가 어떻게 됐는데예?]

그래서 또 그 찾아러 받아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께 인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니까,

“우리 딸인데 죽어서 오늘 밤에 제사라.”

고, 이라드라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차비를 주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아저씨 어디까지 갔는데 태워다 주면 안 되느냐.”

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사람도 담이 크던 사람이겠지. 그래도 또 태워다 그기까지 줬다는 말이 있고. 그런 말도 있고.

[사하구 설화 174]

## 사람 다리를 먹여 문둥병 남편을 낫게 한 부인

김옥순(여, 1942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그게 아 시아버지가 아니고, [청중: 계모 아이가? 계모.] 시집간다고 시집갔는데 남자가 문둥병이 걸렸는 기라. 옛날에 응.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참 착한 여자든 강제. 자기가 다 벌어서 멕이고 이라는데, 남자가 막- 인제,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노.”

죽을라 카니까, 자기, 여자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디어디 가모 약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삶아 먹으면 된다.”

고 하면서, 꿈을 선명을 해서 가니까, 어떤, 가니깐은 공동묘지 더래. 공동묘지인데 공동 묘지를 파가지고, 인제 일찍 죽은 사람은 안 썩었잖아. 그래 공동묘지 가서 다리를 하나 푹 찢라 가지고 가서 삶아 멕였어.

삶아 멕였는데, 차차, 차차 나아지고, 그래가 삶아 먹여가지고, 뼈따구를 어디다 묻었냐면

저기들은 집이 좀 크던 갑지. 그 앞에 하단이 있는데 거기 다 묻었는 기라. 그랬는데 자-꾸 내 꿈에, [청중: 내 다리 내나라.]

“내 다리 내나라. 내 다리 내나라.”

하-도 그렇고 그러디만은. [청중: 내 다리 내나라.] 그 응, 그래서 인제 남자는 그래서 나왔는 갑대. 그래가지고 거기를 파보니까는, 하도

“내 다리 내나라.”

해싸서, 그거를 파보니까는 인삼뿌리 더래. 인삼뿌리. 인삼뿌리가 딱- 들어가, 그걸 고아 먹어 가지고 낫다고.

“내 다리 내나라.”

라고, 저녁에만 자면,

“내 다리 내나라.”

고, 괴롭히고 그랬다. 음 그게 인자 여자가 너무 효심이 깊으니까, 그래 선명을(선몽을) 해줘가지고, 약을 해 줘가 살았다 카대.

[사하구 설화 175]

### 오는 손님 막으려다 망한 집안

박용순(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조사자: 어떤 집에는 집이 망해뿔다 하데요.] 아니, 그 옛날에 스님이 와가지고, 저 저 이 사람이 참 부자로 잘 사는데,

“아이고, 스님, 스님.”

저- 동냥을 주면서,

“아효! 우리 집에는 찢 밥이 남아싸서 몬 살것다고. 밥 좀 안 남게 할 수 없냐?”

고 쿤께네, 저 저 그거 옛날에는 한 달에 조금 있고 패일이 있거든. 그래갖고 그거 인자 스님이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를,

“조금, 조금 재 치고, 패일 패일 머리 꺾고, 그라먼 식은 밥이 안 남을 것이오.”

이랬거든.

그래 인자 스님이 시킨대로, 맨날 고 때만 딱 했는 기라. 재도 그 날은 재 치면 안 되고 옛날 어른들은, 그 날 머리 꺾으면 안 되는 날인데, 인자 그거로 스님이 반대로 인자 딱 가르쳐 주나난께, 이 사람들이 곧이듣고 조금 되면은 재 치고, 패일 되면은 머리감고, 칸- 하고난께.

고마 살림이 짝- 다 망해 뺏어.

그래난께네 식은 밥 나올 게 어딴노? 살림이 다 가뺏은께. 그래서 인자 그 소리가 옛날 얘기라 그기.

[사하구 설화 176]

### 꼬부랑 이야기

박용순(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산길을 가다가, 꼬부랑 지패이로(지팡이로) 꼬부랑 개를, 꼬부랑 지패이로 두드려 패니 개가,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하며 죽어뺏어. 그게 꼬부랑깡이지 뭐.

[사하구 설화 177]

### 오누이와 호랑이(1)

박용순(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엄마가, 엄마가 떡 장사하러 가면서, 애들로 바양에다(방에) 가다놓고(가두고) 가면서 인자,

“누가와도 엄마가 오기 전에는 문 열어 주지 마라.”

인자 이려고 인자 갔는데, 호랑이가 아들 그 자아물라고 와서,

“문 열어 달라.”

쿤께네,

“손 한 번 내보라. 우리 엄마 손인가 손 한 번 내보라.”

쿤께네, 호랑이 발에다 밀가루를 한거(많이) 묻히갖고, 손을 문꾸멍에다 영주니까, 이 아들이 손을 만지 보니까, 저거 엄마 손이 아니거든. 그래,

“우리 엄마 손이 아니다.”

큰깨네, 그래 또 거기다 막 이래 감아가지고 또 여어주고 해갖고, 그래갖고 아들로 막 자  
아목꼬, 나중에 늦까(늦게) 엄마가 오니까, 아들도 없고 그런 얘기도 있다.

[사하구 설화 178]

### 오누이와 호랑이(2)

박용순(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두 남매를 낳두고 어무이가 떡 장사 땡기는데, 그래 호랑이가 밖에서,  
“엄마 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나 그래. 그런 나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조사자: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주고, 이 딸아들이 참 문구멍으로 내다보고, 손을 엄마 손인가 맨져보자 하니, 그래,  
호랑이 손은 걸끄럽잖아. 그러니 인제 밀가루 묻혀가지고 호랑이를 인제. 그래 인제 떡 하나  
주고, 그래다가 낸주는(나중에는) 자꾸 잡아먹을라 하니, 나가서,  
“하느님, 하느님, 나를 살리라면 새 동지를 내려주고 직일라면 현 밧줄, 현 그 바구미를  
내려주라.”  
하니, 그래 하늘에서 그, 새 줄에다가 새 바구미 내주니, 그 두 남매가 타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인제, 그래 오빠가,  
“너 밤에 땡기라.”  
하니,  
“오빠, 나는 밤에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동상은(동생은) 인제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됐다 이래. 그래노니, 요 호래  
이가 지도 인제 그 하는 걸 배워가지고,  
“하느님 나를 살릴라면 새 밧줄 그거 내려주고, 직일라면(죽으려면) 현 밧줄 그거 내려주라.”  
이러니, 하늘에서 현 밧줄을, 현 그 둥그이 내리, 타고 올라가다가 탁 떨어지니 수수껌  
거리 있지 수수. 그게 탁 떨어져가지고, 거기 지금도 빨건 기 호랑이 피라고 해, 그래.

[사하구 설화 179]

### 쓰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감투

이숙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저 저 저거 선비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밤 질로 많이 걸었잖아. 그래 밤에 인자 가다가 보니까.

이야기 그거 할라쿠먼, 그 얘기책 백가지 얘기 내 다 봤거든. [조사자: 아, 그거 좀 해주이소.] 그러는데 그거 한 가지만, 지금 내 제일 첫 대가리 하는 그거만 내 해주께.

그래가 밤 질로 가는데, 그 인자 밤 질에 가다보니 날이 저물았어. 그래갓고 인자 그서 인자 본께네. 뒷등 마이(많이) 여러 개 있더라. 본께 참 잔디가 참 아늑하고 좋아서 ‘아 여계서 좀 자고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인자 뒷등잡에, 잔디밭에 인자 그서 누워 잤어. 거서 잠이 살- 드니까, 저 꿈인가 생신가 뭐, 저 건네 편에서,

“아무거씨, 저 아무거씨네 집에, 저 재 넘어 아무거씨네 집에 제사가 든다는데, 그 제삿밥 무려(먹으리) 안 갈란다?”

그라니까,

“아니 나도 가고 싶네만은, 우리 집에 손님이 있어서 못 가겠네. 자네들끼리 갔다 오게.”

그래 이리 뒷는 기라. 그런께,

“아휴! 그거 늘른 감투, 감투를 하나 씌어갓고 가세.”

이라거든.

“그래 볼까나.”

이라고, 인자 뭐로,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한께, 모자를 하나 톱 씌어(씌워) 주는 기라. 그래가 따라 오라 쿠더라. 그래인께 뒷등마다 한 사람이 슬슬 나와 가지고, 마 여러씨서(여럿이) 인자 고개를 넘어서 인자 날라서 가는데, 골짜기 넘어간께네, 어느 부자집이 제사 지내는데, 그 고마 썩- 들어갔어. 들어간께네 제관들이 마, 제상 채리놓고 앞에 쪽- 앉았는데, 옆드리가 있는데, 자 저거는 귀신이 되나난께 안 보인다 아이가.

이 사람은 산 사람인데, 감투를 써놔 뉘께네 산 사람이 안 보이는 거라 인자. 그 사람하고 귀신들하고 같이 가서 인자 제사 가서 세 사람이 쪽- 앉아가 있는데, 귀들은 아무리 무우도 이놈의 음식이 안 굳는데, 이 사람은 산 사람이 되논께, 음식을 무노니까 음식이 다 굳은께는 기라. 굳은께니깐 제관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라 인자. 음식이 구니까. 그래든가 말든가 실컨 목고는 인자 밖에 올라간께네,

“자, 인자 가세.”

이러는 기라.

그래 인자,

“가자.”

그래가 나와가지고, 인자 귀신들은 산으로 막 가는데, 이 사람들이 산으로 따라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인자 날도 다 췌는데, 산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옛, 마 우리 집으로 가야지.’ 하고 마, 감투 씌 채로 마 집에 냅다 들고뺨께네, 이 귀신들이, 옛날에 늙어 죽은 귀신이 되놔논께네, 늙은 귀신이 되놔께,

“감투 주고 가라.”

고, 해도 못 따라 오는 기라, 이 사람 따라. 그래갖고 인자 마 집 꾸덕 꾸덕마다 돌아다 안 보고 저거 집에 썩- 들어갔어 인자. 저거 집에 썩 들어간께네,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기라 온 줄을. 그래갖고 인자, 지 간 줄도 모르고 온 줄도 모르고 해서, 그거로 툅 벗어뺨께네, 아들이,

“어마마! 아빠 언제 왔어요?”

그러고, 또 마누래도,

“에구머니나 당신 언제 왔어요?”

그라는 기라. 그란께네, 그래 인자 그래 감투를 벗어놓고 그래 있다가, 그 사람이 그 감투를 썩고, 그 지 혼자서 제사만 드는 집마다 가서, 그거로 썩고 가서 제사밥을 묵는 거라 인자. 그라다가 인자 하루는 벗어놓고 인자, 지 볼 일 보러 낮에 갔는데, 마누라가 청소하다 보니까 알구진 감투가 하나 있는 기, 모자 같은 기 하나 있는 기라.

“뿔이 오데 거지같은 거 이런 거로 오데 주어다 뵈노.”

이라고, 불에다 흘랑 태았뵈어. 불에 다 태아놓고 난께, 이 남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로 와 태웠노?”

쿵께

“그지 걸은 거로 오데서 그래 주워와갖고 그랬냐”

고,

“태워뵈따.”

그라거든. 고마 그 남자가 포기를 하고 말았으면, 우사로 안 할킨데. 그거를 갖다가 몽땅 옷을 훌쩍 벗어뵈고 그 재로 갖다가 온- 몸에다 쳐 발랐어, 그 재를. 손에고 어데고 뽀뽀 얼굴에고 눈에고 마 다 발라가지고, 녀의 소대상 집, 옛날에는 와 사람 죽으면 소상, 대상 다 지내, 소상 지내는 데 가가지고, 그거를 마 실컨 주워 먹었는 기라. 앉아서 마.

그, 그거를 재로 발라도 사람한테 안 보있어. 그래갖고 인자 가서 인자 주우 무우이께네, 이놈의, 그거 감투를 씨면(쓰면) 아무 주우 무도 손이 표가 안 나는데, 재로 발라 나난께네 그래, 손으로 주워 무응께 재가 벗거지뵈는 기라. 재가 손에 벗거지뵈께네, 손바닥, 하얀 손바닥이 제상에 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께네, 제관들이 보고는,

“뿔이 손바닥 저기 왔다갔다 하느냐고, 뭘시 이런 기 있나?”

카면서 그 손바닥을 딱 낚아챈 사람이 따라 온기라 인자. 그래갖고 꺼내가 보이께네, 사람이 알몸띠로, 그 재로 두집어 써나난께네, 그래갖고 인자 뚜드리맞고, 그서 우사로 당하고, 그래갖고 인자 와가지고, 그 그 사람들이[웃음] 그거 저 저 감투만 썩고 땡기씨면은, 우사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를 낀데, 그 재로 뒤비 써갖고, 그것도 알몸띠로 가갖고, 그래 동네 우사로 하더란다.

[사하구 설화 180]

### 알강 달강 밤 한 톨

이숙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서울 갔다. 서울 갔던 오빠가, 저 저 밤 한 되를 사 왔는데, 채독 안에 열났더니, 저 무슨 새앙쥐더라 새앙쥐가 들명날명 다 까묵고, [청중: 생쥐.] 새앙쥐가 들명날명 다 까묵고 한 톨이가 남았는데, 그거로 인자 껍데기는 오빠 주고, 밤 사온 오빠는 껍데기 주고, 저저 고니랑 언니 주고, 알맹이는 너랑나랑 갈라 묵자. 이라더라.

[사하구 설화 181]

### 바닷물이 짠 사연

이숙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데 가가지고, 저 저 저거한테, 도깨비한테, 인자 도깨비로 만냈는데, 도깨비한테 선물을 받았는 기, 멧돌로 받았는 기라. 그래갖고 그거로 인자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 지가 인자 저거 집 주도 안하고, 지가 그 배로 가서, 오데 저 따른(다른) 나라 가서 인자, 그거 가지고, 거기 멧돌이.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는 이런 멧돌이라. 그랬는데.

그거로 싣고, 배에다 싣고 간께네, 옛날에 그때는 소금이 역수로 귀했는 기라. 인자 소금이 제일 좋다 싶어가, 배를 타고 감서로,

“소금 나오이라. 소금 나오이라. 소금 나오이라.”

칸께네, 이 놈 멧돌에서 소금이 자-꾸 나오는 기라 인자. 근데 배, 한 배 실어도, 실어도 그냥 이기 사람이 깔아앉는 지도 모르고 자꾸,

“소금 나오이라”

케라 난께네, 소금이 자꾸 나와가 배가 마 깔아앉아뻘어 고마. 그래 죽었다 아이가. [조사자: 그래갖고예?]. 그래 바닷물이 그때부터 짹아진 거라.

[사하구 설화 182]

### 몽당 빗자루가 변한 도깨비

이숙자(여, 1943년생) 구술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여자들이 빗자리로 깔고 앉으면은, 인자 그 뭐시 뭐 묻는다 아이가? 그런 거를 갖다가 내빼놔노면(버리면), 그기 인자 밤에, 밤에 가다가 도깨비가 돼가지고, 둔갑을 해가지고, 인자 어떤 사람이 밤 질로 가면은,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하고 씨름 한 번 하자.”

그래.

그래갖고, 그거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마 마 허리끈을 풀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마 이거를 갖다가 마, 탁- 허리끈으로 갖다가 딱 짜매놓고 왔는데, 아침에 가 본께네, 나무에 허리끈만 딱 짜매져가 있다고, 도깨비가 둔갑을 해가지고 그라는 거라. [청중: 빗자리 몽댕이.]

그런께네 여자들이 앉으면은 빗자리 같은 거 몬 깔고 앉으라 하고, 그 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래 손가락 비가(베어) 피가 나도, 그런 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몬 버리구로 하는 기 도깨비 나타난다고.

[사하구 설화 183]

### 자기 새끼 좋아하는 줄 아는 호랑이

김두저(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친구들이 산에 나물 캐러 간다꼬 이래 가이깁, 가가지고 호라이새끼가 바위 밑에 호묵이 (오복하게) 있어서 그걸 예쁘다꼬 그 씨담고(쓰다듬고),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카매 씨담으니까네, 바위 우에서 호랑이가 자기는 인자 좋아가지고 ‘어흥’ 카는 기 이 할매 들은 놀래가지고 마 신발이고 소구리고(소쿠리고) 내빼리빼고 집에 쫓아 왔는데, 밤 자고 나이꺼네, 소구리하고 신발하고 호랑이가 집집마중(집집마다) 딱 갖다 뵈더란다.

[사하구 설화 184]

### 늑대에게 물려간 아이

김두저(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저저 오두막집이 저 꼴짝에 한 집이 있는데, 모심기 할 때, 모 숨굴라꼬 인자 일꾼 데로 (테리러) 가야, 니러 가야 되는데, 그래 쪼끄만한 머스마가 하나 있는데, 아를 업히놔코(업혀 놓고) 아를 업히놔코. 그래 인자 일꾼 데로(대러, 즉 구하러) 엄마는 니려가뿌고 큰 거 고는 인자 지 동생을 업고 이래 있는데, 마당에 이래 업고 있으이 자꾸 개가 뽕뽕 돌민서 자꾸 짹짹이(집적거리)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개로 아로 업고 아무리 후차도(내쫓아도) 안 가고, 고기 개가 아이고 늑대라. 그래 아무리 후차도 안 가고 강 지 짚을(결을) 자꾸 뽕뽕 돌아가지고 귀찮게 해서서 ‘요놈의 개로 내가 꼬재이로(꼬챙이를) 주우가지고 마 뚜두루 패야 되겠다’ 싶어 애로 니라 놓고 꼬재이 주우러 간 역에(사이에) 아로 딜꼬(테리고) 마 흑닥(휘딱) 가뵈다요. 진실이라 그어는 (그것은).

[사하구 설화 185]

### 호식할 팔자의 사람

김두저(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군에 간 사람이 군에 인자 가가지고 식모로 대가지고 떡 있는데, 그래 이 식모가 군에 그 집에 인자 군인 집에 살림을 살아주는데, 뒤에 웅당샘이에(웅달샘에) 있는데, 물 뜨러 갔어.

물 뜨러 가이까네 호랑이한테 물리가지고, 그 때는 물리가지고 이기 살아나왔어. 집에 살아나와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텍에(턱에) 물리가 살아나오가 있다가 일 년 딱 돼가 고 시간에 또 물 뜨러 갔는 기라. 물 뜨러 가가 결국 그 호랑이한테 물리갔부고 호랑이 밥이 됐부.

[사하구 설화 186]

### 시아버지를 팔자고 해서 부인 버릇 고친 남편

이분희(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시아바시가 하도 밥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오늘 봐라 아버지 몇 장달 먹이가 살찌가 팔러 가자.”  
카이,  
“하, 파는가요? 사는가?”  
카이, 그란다.  
“아 그럼, 산단다. 오늘 자아(장애) 팔러 가구로 한 서너 장을 잘 먹이문 좀 살 안 지겠나?”  
이캐노이,  
“아 그라몬 그라지요.”  
이러 카더란다. 그래가지고 살 참 찼더란다. 잘 미기놓이 살이 찌가 있으이, 마 영감이 마  
오옥에도 들시고(들추고) 했는 거 쳐 저지주고(뒤집어주고) 아들도 거다주이(거두어주니),  
“하이고 오늘 아버지 팔러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캐이께네,  
“아이고, 당신 가지 마소.”  
“와? 아버지 팔라고, 잘 먹이놓고 팔라 칸데(하는데) 와 그라노?”  
카이,  
“하이고 아버지씨 이래 봐라 요 옥게 들시도 거들어주고 아들도 거들주고 소 죽도 거들  
주고 한데, 팔로 가지 마소.”  
하이,  
“아, 글면 팔로 가지 마까.”  
카매, 그래가 살 찌아가지고 살리더란대요.

[사하구 설화 187]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복수(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할매로 인자, 저거 저거 할매를 저거 그라이까네, 저거 아버지한테, 저가부지한테(자기 아버지한테) 저검마지(자기 엄마지). 저거 엄마지 저거 아버지한테는. 저거 엄마로 업고 고래장하러 산골짜에 갔어.

그래 손지가 저거 저거 아들이 인자 저거 엄마 매고, 업고 가는 아들이 보고, 그 지게로 받아가, 그 지게로 인자 저거 엄마로 산골작에다 내빠리고 고래장을 하고 내려오이까네, 지게로 뿌사뿌, 뿌술라 카이까네, 그래 손지가 보고,

“아버지. 지게 뿌시지 마소. 지게 내가 가가요.”

이라대. 그래,

“와?”

이러 카이까네,

“아버지도 난중에 늙으모 고래장하고 지게 지고 가야쥬.”

카이, 손주 그라더란다. 그라이께 그 아버지가 느꼈어. 느꼈어. 느끼서 그 고려장했는 엄마로 다부 데꼬 왔단다. 집에.

[사하구 설화 188]

### 지령이 고기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윤순분(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에덴경로당]

시어무이가 눈이 봉산데, 해줄 끼 없어가지고, 그래 인자 메느리가 인자 저게 거 뭐꼬 그 지령이를, 지령이를 잡아다가 인자 꾸아주고(굽어주고) 꾸아주고 해나노니까 참 살이 봉통하이 (통통하게) 찌고 참 몸이 좋아지더라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인자 어데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어무이요. 얼굴이 참 좋고 살이 찼네요.”

쿤께,

“야야 너거 마누래가 이래 고기로 잘해 조서(주어서) 그래 내가 묵고 살이 찼다.”

이러카니까, 그래,

“그 고기가 어떤 고긴데요?”

코매,

“아나 이기다.”

카면서 보여준게 지령이라. 그런께,

“아이고, 엄마 지령이네요.”

쿵께네, ‘어이!’ 커매 눈을 퍼떡 뜨더랴요.

[사하구 설화 189]

### 죽은 사람 혼령을 태워준 택시기사

하위년(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에덴경로당]

그런데,  
“돈을 가지고 온다.”  
택시비로 가져온다 하디 안 가져오거든?  
그래서 거 드간 집으로 따라 가봤더니 그날 마침 인자 자기 딸이 죽은 날이라서 제사를 지낸다고 음식을 장만해 놔노코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인제 그 인자 실어다 줬으니 고맙다고 대접을 후하게 하고 그랬는데.

[사하구 설화 190]

### 줄 지어 다니는 귀신 불

김갑수(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신평본동경로당]

밤에 마 한 아홉 시나 열 시나 되몬은 저 비가 오더니 날이 좀 그거 할라 카몬 저쪽에 저기 다 눈발이었거든. 요래 밑으로는. 근데 귀신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마 저 줄로 지아가 지고 땡겨. 우짜다가 보몬은 없는 기라. 그 그라몬 인자 할매, 우리들이 할무이들이 있고 이라몬 이야기로 하몬,  
“저 그렇더라.”  
카몬,  
“아이고, 그럴 적에 함부래(함부로) 나가지 마라. 거 귀신이다.”  
이라거든. 그럴 적에 그 불로 봐샀어.

[사하구 설화 191]

### 오늘은 밥 먹으러 안 가나요?

정옥자(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신평본동경로당]

옛날에는 이래 새댁이가 오몬, 이 집에서 밥 한 때 해 미고(먹이고) 저 집에서 친척들이 저녁을 다 초대를 해가 해 먹이거든. 그래 내(계속) 먹고 땡기다가 인자 다 지났는데, 이 며느리가 밥 할 생각을 안 하이께네,

“야야, 니 와 저녁 안 하노?”

저저 시어머니가 그라이카네,

“오늘은 밥 얻어 무러(먹으러) 안 가나요?”

그라거든. [일동 웃음] 집집마다 친척들이 인자 새댁이 시집왔다고 인자 저녁을 다 한끼씩 해 먹이니까, 맨날 그래 묵다가 저녁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니 와 밥 안 하노? 야야 밥 해라.”

이라 카이께네,

“오늘은 밥 또 먹으러 안 가나요?”

그라더래. [웃음]

[사하구 설화 192]

### 귀신에게 홀린 사람

정옥자(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신평본동경로당]

작은 오빠 친구들이 비가 오는데 이래, 가을이, 늦은 가을쯤 비가 이래 부슬부슬 오는데, 친구들이 와 어불러(어울러) 놀다가 큰 도로를 추욱 걸어오는데, 한 애가 종수라 카는 그 오빠가 안 오더란다.

그래 늦까지 안 오서 그래 가다가 이거 하도 쳐지기 때문에 함 가보니까 막 우산을 갖고 전봇대를 막 이래 치고 있더란다. 전봇대를. 그라는 거 탁 때린께네 마 탁 쓰러지는데, 그 질로(길로) 집에 덕고(데리고) 와서 인자 병원에 가서 막 그랬는데,

“그래 종수야 왜 그랬노?”

이래가 물으이카네,

“걸어오는데, 그 저 사상서 도로 이래 보몬 효자비가 있었다. 열녀비가 있었어. 거서 여자가 흰옷을 입고 짝 나오더마는 우산 밑으로 쏙 들오더란다(들어오더란다). 들어오서,

“어데 갑니까?”

그러더란다. 그래서,

“나는 저 산다.”

카이께네, [조사자: 아이구 무시라.]

“내좀 덕고(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

이라더란다. 그러키 인제 야는 볼 때, ‘아 이기 귀신이라’ 카는 거 이 사람이 알았는 거라. 그라이께 우산 같이 안 쓰고 간다꼬 막 휘젓고 이러니 혼이 완전 빠졌졌지.

그래가 친구들이 가이, 그래 전봇대가 있는데, 우산이 마 산산조각이 났는데 짝대기 그것만 갖고 젓고 있더란다.

그래 때리갓고 집에 덕고 와서 병원에 입원해갓고 왔는데, 그거 얼마 몬 사다가 죽었대이. 혼이 완전히 빠져뿌갓고.

[사하구 설화 193]

## 귀신을 본 사람

정옥자(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신평본동경로당]

응. 명줄이 덕고(데리고) 새복에(새벽에) 딱 이고 가는데, 그거 갈대 있었다 카대, 옛날에 갈대밭에 거게. [청중: 전신에 갈대밭이다.]

그래 가는데, 이 명줄이가 봤던 모양이라. 둘이서 암(아무) 말도 안 하고 인자 가는데, 그 갈밭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오더란다, 여자가. 나오이 야도 봐나논케네, 저거 엄마 딱 여래 들어붙고 이랬는데, 자기도 봤다는 기라. 그래 봐가 인자 유황을, 몬 돌아서 유황을 먹이고, 오면서 그래 명줄이가 그러더란다.

“엄마 아까 귀신 봤제?”

이라더란다. 그래 확실히 자기도,

“봤다.”

카이께네, 그래 우리 명줄이도 보고 해나노이케네,

“엄마, 그 아까 갈대밭에서 아줌마 하얀 옷 입고 나왔제?”  
그라더라 안 하나. 그래 자기도 봤다 카더라.

[사하구 설화 194]

### 부정 타면 안 되는 당산제의 제주

정옥자(여, 1930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신평본동경로당]

날 딱 받아노몬 전부 다 막 어데 안 나다니고. 딱 그래 장 보러 갈 때는 마스크 딱 요래 하고, 이래 딱 끼고 가서러 마 얼마 줄라 카몬 그대로 다 주고 사갖고, 그래가 인자 내일같이 제 지내몬, 오늘 저역에(저녁에) 산에 가서 찬물을 가서 겨울인데도 모욕하고(목욕하고) 오더라고. [조사자: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래가 당산제 지내고 그랬다.

[조사자: 개인적으로 아까처럼 지냈다고.] 아니야. 그거는 우리 동네에, 동네에서 정해 줘. 그것도 아무나 안 해. [청중: 정신이 좋고 그 사람들이.] 정신이 좋고.

모욕을(목욕을) 하고 오는데, 돌아서 모욕하고 오는데 배미(뱀) 꺾데기가 있더라. 그래 그거로 보몬 다시 가서 모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에 왔뽀는 기라. 그래 부정 타갖고 그 사람 아파가 돌아가셨대이. 그라몬 다시 그 찬물에 다시 드가갖고 다시 해야 된단다. 근데 이 양반들이 모르고 그냥 왔뽀는 기라.

[사하구 설화 195]

### 살기 어려웠던 신평

김귀남(여, 1929년생) 구술  
노봉학(여, 1932년생) 구술  
임모덕(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임모덕]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요. [조사자: 그래 그래, 왜 그런가요 그라몬?] 길이 없이, 길이 나빠서. [김귀남] 우물이 마이(많이) 없어노이까네, 물도 줄 서가지고 밤 세아감서

러는(세워 가면서) 물도 따라가지고 줄 서가지고 물 뜨고.

[임모덕] 비가 오면은 뽕땅이(벌땅이) 되는 거라. 그라인께 장화 신고 땡기고. [노봉학] 그래가 인자 그거로 매립해가지고 요래 모도 한 집에 밋(밋) 팽씩(팽씩) 얻어가지고 고래 지금 요래 있는 거라.

[김귀남] 그래가 요 앞에 저- 밑에는 갈대밭이었어. 예. 갈대밭이었어. 그래가지고 고 앞에 거 강이 있는데, 거게는 머 모두 제칩(제칩) 팔고 이랬어. [노봉학] 그래 순천면맨치 그런 거로 매립시이가지고 그래 신평역이 생긴, 요기 지금. [김귀남] 그래가지고 신평공단도 생기가 지고 사람들이 이래 많이 몰리고.

[사하구 설화 196]

### 귀신이 따라오는 곳

노봉학(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뒤에서 장사하는 아줌만데, 붓다리를 이고 이래 오는데, 그 인자 만날 거 뵈이 나온다 카는 소리 들어도, 고마 이거 이뵈노이(이고 있으니) 무겁아가지고 그냥 오는데. 온께네, 그 모루이(모퉁이) 돌아온께, 발자국이 자국자국자국 개쌌대. 갠가 했나 캐. 동네 들어가갓고.

그래 인제 갠가(개인가) 이겼는데(여겼는데), 난제(나중에) 인자 하다 오다 본께네, 이게 뭐 이게 여 뵈이 집는 거 걸이 그런 기분이 나더라 캐. 그래가 기분이 나디,

“이 와 이라노? 이 와 이라노?”

이카고 그냥 이뵈논께, 그냥 왔다 캐. 왔는데, 오다가 보이, 저 건너서(건너에서) 뭐 인자 일하는 사람이 보고 막 그래가 괄을(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이 아줌마가 마 놀래가지고 보따리로 마 농에다가 마 받아뿌고 자기는 마 폭 주저앉았다 카더라고. 그때사 본께네, 그래 그렇다 카미 그래서 알았다 카는 그래 이야기만 들었지.

[사하구 설화 197]

### ‘절에 갈 때는 고기 먹지 마라’는 까닭

독거노인 요양사(여, 40대) 구술<sup>15)</sup>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절에 갈 때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전해온 얘기가, 옛날에는 산속에 절이 많았었고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호랑이가 유독 개고기를 그래 좋아하는답습니다. 그래서 그 개고기를 먹은 사람을 그 냄새를 맡으면 집요하게 그 사람을 잡아먹는대요.

그리고 또 절이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고기를 먹고 가면 그 전날에 고기 안 먹고 정갈하게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 고기를 먹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독 그 고기를 먹어 온 사람만 호랑이가 유독 그래 집요하게 그렇게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그 유래가 지금도 ‘절에 갈 때는, 절에 갈 때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래 그 유래가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 얘기가.

[청중(노봉학): 고기 묵지 마라 카는 거는 절에서는 절대로 살생을 하지 마라 카거든. 첫째(첫째), 첫째 살생을 하는 기 고기 먹는 거기 살생이거든. 그래 노이 그카지. 거 돼지고기 개고기 그거는 소용없고.]

[사하구 설화 198]

###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석남사

독거노인 요양사(여, 40대)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석남서 맞아예, 맞아예. 예 예. 그 유래가. 아니 그 절에 그래 어느 날 그 스님인가 워낙 기도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옛날에는 많이 먹고 이런 유래가 아니라, 그래서 저 딱 우리가 누가 이렇게 그 절에 기도를 하러 오는 분들이 오면 뭐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딱 오는 만큼 사람 수만큼 그 구멍에서 쌀이 그리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사람이 인자 많이 그거를 할라고 그걸 다 파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나중에는 쌀이 아니라 흙이 다 메워져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나온 그게 없다고. 성남사 맞을거예요 그.

[청중(노봉학): 그 바위는 그 모도 손대면 병 낫는다꼬. 그 바위 밑에서 쌀이 나왔는 기라, 옛날에는. 석남사 요 저 양산에 안 있어요.]

15) 제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주위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라고 했으나, 40대 정도의 요양사 신분으로 보아 ‘독거노인 요양사(여, 40대)’라고 표기했다.

[사하구 설화 199]

###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준 사람

노봉학(여, 1932년생), 독거노인 요양사(여, 40대)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호랑이가 턱 입을 벌리가지고 어영 이카미 앉았은께, 그 할아버지가,  
“와 내가 니 밥이 되거든 니 밥으로 해라. 니 요 와 길로 안 비키 주고. 길 비키 도라.”  
이캐도, 학- 이래가 있으이. 그래가,  
“요 와 길도 안 비키 주고, 안 그래도 사람 잡아물 낀지 잡아묵도 안 하고.”  
본께, 모가지 이래 막 뿔이 탕게를(탕개를) 질러가 있어. 그래 본께, 옛날에 와 여자 비네(비녀)  
찌르면 비네 거기 턱 걸러가지고 이래갖고 그래 있다고. 그거 빼준께로 그래가 간다 안 카나.  
호랑이는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몰라도 호도하고(효도하고) 잘하는 사람은 해꼬지(해코지)  
안 해요.

[사하구 설화 200]

### 혹 떼려다 혹 붙인 흑부리 영감

노봉학(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전에는 알아. 만날 놀다가 그도 인자 도깨비걸은 게 나오는데, 그래 춤을 추고 노다가  
갓부고. 갓부고 이런데, 그래 도깨비들이 가만 숨어가 본께네 재미가 나거든. 이래가지고  
인제 재미가 나서 지도 인자 한 분 그 힙쓸리가 같이 놀았다 카더라꼬.

놀았는데 이 사람이 우째 됐는고 모르지. 모르겠고. 그래가 이 사람이 잘해논게네, 인자  
흑부리 거기 인자 혹이 있는 이기 지(자기) 탄에는 걸거치가 그래났는데 한 날은 놀러가 같이  
놀다가 혹을 잡아 띠뿌고 그래 인자 혹이 없어졌다고.

[요양사] 재물을 많이, 이 도깨비 방망이가 그냥이 아니라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이라니까, 그 흑부리 영감이 혹도 떼고 금은보화를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옆에  
할아버지가 욕심이 너무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 샘이 난 거야. 그래서,

“어찌 된 거냐? 어찌 되서 그래 부자가 됐느냐?”

하니까, 인자 도깨비하고 상황을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자기도 거게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니까 인자 도깨비가 떡 인자 그 전에 당한 도깨비가 금도깨비를 그 방망이를 준 도깨비가 사기를 당한 걸 알은 거예요. 근데 이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거게 와서 똑같은 행위를 하니 까, 그게 더 벌을 주겠다고 할아버지는 굉장히 뭐뭐 재산도 다 날리고 거지가 됐다, 혹 두 개 붙였다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하구 설화 201]

### 영험 있는 샘물

독거노인 요양사(여, 40대)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그 그계 물이 나온다고 내가 들었어요. 지금은 저 몇 년 전에 가니까 물은 그래 나오지는 않던데, 거기서 물은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거게 가서 그 물을 먹고 기도를 하며는 아들을 가졌다 해서, 거게가 굉장히 유명한 그걸로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전에는 가니까 물은 말라서 그래 안 나오던데, 고계 굉장히 좁은 협곡이더라고요. 안예가 그래도 거기서 물이 생긴다는 게 참 귀이할 정도로. 마이산에, 마이산 가는 길 그 산 넘어가는 중턱으로 거게가 있더라고.

[사하구 설화 202]

### 아들 소원을 비는 당산

김귀남(여, 1929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저 뒷산에 가문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는데 당산이 있거든. 고 가서,  
“나는 아들을 너무 나서 딸이나 좀 낳아 주이소.”  
카이 안 되더라.

[사하구 설화 203]

### 신비한 돌장승

독거노인 요양사(여, 40대)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돌할머니를 인제 하도 처음에 그때 막 돌할머니에 대해, 신비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우리도 한 분 인자 간 적이 있어. 인자 사람이 모아서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그 돌할머니 가는 길목에서 새벽에(새벽에) 갔어.

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있잖아요, 몇 바퀴를 돌았어. [조사자: 약간 홀린 것처럼.] 정말로.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 길을 갔다가 오면 자주 제자리고, 갔다가 오면, 정말로 몇 번을 그 자리를. 그리고 그 길을 안내했던 사람은 늘 그곳을 다니던 사람이고 안내했던 사람인데. 그날 우리가 간 그날에는 정말로 귀신한테 홀린 거 같이 계속.

거 거 무당이라 합니까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 그분이 잠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길이 트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사하구 설화 204]

### 조상 덕분에 병이 나은 사람

임모덕(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우리 딸이 회사에 댕기다가 갑자기 애기 얼굴이 알구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막 마후라개 ('마스크를'의 의미로 말한 듯함) 썼어. 니가 이거 꼭 달, 닭 털 뜯어 놓 거 같더라고 얼굴이. 그런디 밀가리, 설탕을 담당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 나간단 한 기라. 바빠서. 아가씨들한테 맬기 노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하루는,

“니 오늘 안 나오면 내가 회사에를 가꾸마. 높은 사람을 만나려.”

그라이까는,

“어무이 오지 마이소. 내가 오늘 얘기해서 나가께.”

이래 그날 딱 나와서 청십재, 저 부산역 앞에 [조사자: 예, 청십자병원.] 있제. 그거를 인자 가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당신 암이요.”

이라대.

“그런데 암인데, 저 어서 저 저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인자 그날 병원으로 가니까, 또 거 가니까 사진을 찍더마는, 송도병원에 가니까는

병원에를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는,

“급하다고. 4기가 넘었다고. 내일 여덟(8) 시에 수술을 하자.”

하는 기라. 그래서 인제 그라기로 하고 인자 내가 인자 우리 여기 저저 다대포 그거 저 백삼번(103) 종점 있는데 있거든. 거기 야시골이라 하대 거가.

가는데 거거를 내가 인제 장사한다고 들어가서 살았거든. 사는데, 거기 야시골이 샘물이 이렇게 참 좋았다고 하는데, 공장 들어선게네 그 물이 끊어졌부리지. 물이. 그래서 내가 인제 그 물을 찾으라고 그 담 밑에를 어덕인데(언덕인데), 헤맨꺼네(헤매니까) 거서 물이 쪼꺼씩(조금씩) 나오는 기라.

그래 그놈을 내가 잡아갖고 거기다가 인자 저쪽으로 인자 그거 벽을 해냈는데, 저쪽으로 가서 사람을 사가지고 그거를 봤어. 파니까 그 바우 틈에서 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물을 인제 내가 저 뿌라지(‘연결’의 일본어) 호수를 대갖고 내가 그렇게 딱 물을 요쪽으로 인제 나오겠구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참 먹는 물은 여기 해놓고 밑에는 인자 형님 말대로 쓰는 물을 이렇게 해놓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할 짓이 뭐지 어디 자석이(자식이) 안됐는데 4기가 넘었다 하는데, 임파선과는 못 찬다 카는데, 거거다 내가 이 큰 초를 사다가 놓고 일 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보고 그래 인자 비는 기라. 밤낮으로 없이. 시간만 넘으몬(남으면) 가서 빌어. 장사하다가도, 마 장사할 정신도 없고 ‘어짜든지 우리 아 살리주라’고. 막 마 딱 마음이 없고 그거뻑게 내 머리에 안 들은 기라.

빌었더마는 하루 지녁에는 잠을 자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런 할아버지가 짝대기를 두코(들고) 나를 와서 까배는(깨우는) 기라. 탁탁 이래 방을 때면서 작대기로. 까배면서(깨우면서),

“웬 잠을 이렇게 자냐?”

이기라. 그래 내가,

“내가 고단해서 지금 못 일어나거든예. 할아버지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해도,

“꼭 일어나라.”

캐. 꼭 일어나야 된다는 기라. 그런데 내가 못 일어나, 너무 고단해서. 못 일어나고는 내가 인자,

“할아버지 나 지금 몬 일어나겠다고. 아무래도 못 일어나겠다고.”

한꺼네,

“그럼 내 얘기를 들으라.”

하는 기라.

“얘기 하이소. 내 들을게.”

했더마는, 내일 그 참 희안하제.

“너거 샘에서 여자들 서이가 와서 굿을 한다. 굿을. 굿을 하는데 하나는 장구를 두들고,

하나는 빌고, 하나는 그 옆에 청소를 해주고 이란다.”

하는 기라. 그 소리를 들은께 해안한(희안한) 기라. 내가 자다가도.

“그라몬 어짜라고요. 내가 잠시로 우짜면 되겠냐고?”

물으니까,

“내 얘기를 단단히 들으라 안 하나.”

이라는 기라. 그래서,

“하세요. 내가 들을게.”

이런께는,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기라.

“거가 아무리 빌어도 그 사람이 빌어도 안 된다.”

하는 기라.

“거 안 되믄 우쩍 하라고?”

내가 이란께는, 그라고 내가 정신이 좀 든 기라, 그 잠절에(잠결에). 그 잠절에 내가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보िका 그 할아버지는 없고, 간 곳이 없고, 인제 잠이 안 와서 ‘이거이 참 꿈이 예사일이 아니다’ 예사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전자를 들고 무섭아서 산 밑이라 저 보리냥 뒤였거든. 그 보리냥 있제. 고솨에서 보리냥. 그 뒤저 산 밑에라 내가 무섭아서 밤이면 못 나가.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섭고 내 주전자를 들고 가서 인제 내가 불 캐 논 데 가서 물을 떠다가 그래 우리 인자 싱크 독에 얹어놓고 잠을 안 잔 기라, 내가. 그런데 새벽에 잠이 사르르 하이 오대?

그 자고 있던께노 어디서 새벽에 궁닥궁닥 궁닥궁닥 굶하는 소리가 나는 기라. 그래 내가 이래 내다보니까, 참 여자 서이가 와서 굶을 해요. 그걸 와가 용왕을 믹에(먹여). 그래 내 나가서,

“아이 집이가 어째서 여기 샘 있는 델 알고 용왕을 멕이느냐?”

“옛날부터 여기 물줄기가 있는 것을 아는데, 물줄기 없어졌는데 어서(어디서) 소문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산, 내가 물을 잡아서 물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이거 우리 식수니까 절대 밥떼기 빠친다든가(빠뜨린다거나) 저 안 된다.”

하면서 하는데, 그 여자가 이 촛불을 키요(켜요). 인자 굶 할라 카이 촛불 키야 될 거 아이요. 절대 불이 안든 거. 절대 안든 거. 하도 내가 보기 답답한 기라. 그래서 내가,

“이리 쥘보소. 우찌 그래 불이 안 든건대요(들어붙어요)?”

바람도 많이 안 불어도 그래. 그래 내가 탁 불을 놓은게 첫 불에다 듣는 기라. 그래 촛불이 이래 당겨준까네 그 여자들이 날 쳐다보더마는 곳도 안 하고 싹 짙어진 기라. 곳도 안 하고 싹 짙어지고 고마 가더라.

“왜 굶 안하고 가냐고? 용왕 안 믹이고 가냐?”

한께, 한데, 거 용왕 믹이러 온 사람 내가.

“어디서 왔나?”

물어본께, 고성에서 보린냥, 옛날 보린냥 사장이 거기를 보냈어.

“가서 거 가 용왕 믹이라. 물이 깨끗하이 참 잘해냈다고.”

그랬는데 그라고는 잡아 싸갓고 가베는 기라 다. 안 돼. 그래갓고 가불고 나서 내가 가만이 생각해본께,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굶을 안 하고 가지? 내가 불을 키주께는 기분 나뻐나? 나는 생각하기에. 기분 나뻐나?’ 이라고는 말았더마는. 거기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조사자: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응. 나한테 해준 얘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인자 그 수수께끼를 풀라고 몇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 수수께끼를 안 풀어주는 기라. 그래서 내가 저 함안에 그 백암사라고 있어. 그거 스님한테 인제 그전에 스님한테 가서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 하니까 그래,

“보살님 자식 살리라고 그랬다고. 자식 살리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횡방을 못 놓게 할라고. 횡방을 못 놓게 할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굶을 많이 하고 무당질을 많이 한 사람도 그런 꿈편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기라. 그런 꿈편 사람이. 그런데 나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인자 그래서 내가 인자 그 스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본께,

“거기 귀신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이고 조상이라.”

개.

[사하구 설화 205]

## 시신을 먹고 병이 나은 사람

임모덕(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새댁이가 남편이(남편이) 폐병이 들었어. 하는데 자석을 하나도 못 낳아. 못 낳는데 어찌 그 병이 들어, 원래 들어갓고 있는 사람인디, 지가 시집을 가서 사니까는 집안에서 그 박씨 집안이라. 집안에 전부 다 익히 여자가 들와서 안 된다고, 남편이 저런 병이 들어 안 된다고 난리 내는데, 어디 가서 들으니까, 참 ‘사람을 그래 삶아 믹이몬 그래 산다’고 이라니까는 그 새댁이가 인자 궁리를 했는 기라.

어찌케 궁리를 했다면, ‘인자 오늘 죽어서 내간 사람, 오늘 죽어서 내간 사람, 안 씩어야 될 끼, 내간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가서 다리를 짤라다 맥이든가 팔을 짤라가 맥이든가 내가 해야지.’ 이라고는, 밤에 혼자 가가지고 그 못을 팅어. 인자 물어노니까는 그거는 진짜배기야.

파가지고는, 인자 곱을 열라 한께 그래 안 열리지더라 개. 막 원래 나무를 해노니까. 그래

그놈을 끼를라께(열라고 하니까) 암만 해도 안 끼리져서 도로 집에를 도로 돌아와서 그래 하나도 안 무섭더라네. 집을 돌아서 인제 그저 무시기 뺨찌같은 거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어떻게 열킨께는(여니까는). 빠루, 빠루. 일으께까는 벌어지더라네. 그라고 이라고 있는 놈을 옷을 이래 딱 뺨기뺨고 팔을 찔렀다대. 이 팔을.

이 팔을 찔렀다가 그놈을 이렇게 인제 앞에다 탁 안고 인제 풀을, 풀을 살라놓고 왔는 기라, 저거 집에다가. 안고 인제 오는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네. 그라고 갖고 와도. 그래갖고는 와서 그놈을 밤에 아무도 모르게 샅었다. 샅아서는 빼는 어따 감춰뺨고, 곰 쳐났다가 그 팔을 난중에 더 갖고 올라고, 빼는 인자 나뉘었다가 그 빼 찔라 온 데 갖다가 인제 도로 그 자리, 이렇게 빼는 놈을 인자 또 다리를 찔라 왔는 기라. 여거 오금자리를 찔라갖고 여자가 톱을 갖고 와서, 와서네 그놈을 찔라서 인자 막이고 한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더라. [조사자: 그래서 나섰어?] 나섰어.

[사하구 설화 206]

###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문둥이

노봉학(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우리 쪼깬혈(조그만 할) 때는 문디가 아 잡아 묵는다고 해만 지문 들오라 카거든.

그거는 와 글노 카만, 옛날에는 나병환자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얻어 묵는 사람은 대부분 나병환자라. 인데 나병환자 그런 거는 부잣집에 아들이 그 걸렀다 카만 부잣집에는 버시러 (벌써) 아 하나 잡아다가 인자 술 담을라고.

술 담을라고 인자 꼬듬을(고두밥, 즉 술밥을) 찌(찌) 놓고든. 찌 놓고 아들 잡아갖고 인자 가(가져) 가만, 이 손톱발톱 다 뺨뺨고 독에다가 열어놓는 기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 문디들이 여 얼굴이 부품부품하다 아이요? 그래 아 자아묵고 그걸 갖다가 인자 술로 담아갖고 무만 그래가 체해가지고 늙어 노오만 여 피부 안에서 전부 벌거 지가 받게요.

[사하구 설화 207]

### 시집간 딸의 거짓 투정을 고친 아버지

양이순(여, 1932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넘의집 메느리 아입니까? 딸로 시집보냈으니까. 그런께네,  
“아버지. 시집 고마 배고파서 못 살겠다.”  
만날 지짜더랍니다(쥐어짜더랍니다). 그래서,  
“야야. 니 하루에 화장실에 몇 번 가노?”  
옛날에 통시라 했잖아.  
“니 통시에 몇 번 가노?”  
“하루 세 번씩 갑니다.”  
그라더란다.  
“이노무 까시나. 하루 세 번 누만 배고픈 놈이 아이다. 다부(도로) 가라.”  
캐가지고 쫓가보냈다 카는 기라.

[사하구 설화 208]

### 며느리의 방귀 힘

이여지(여, 1941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메느리가 하도 빵구를 잘 끼가지고, 앞에 가서 빵구를 풍 낄께네, 집이 막 뒤로 넘어가는  
기라.  
“야야 야야, 어지럽다. 와 이러노? 와 이러노?”  
“가마이 계세요. 내 뒤에 가서 한 번 꾸만 발라집니다.”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209]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복지(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인간 칠십에 고래장이라꼬, 그래갖고 인자 인간 칠십이 됐던가, 인자 저저 어머니로 인자 지게에다 업고 저 어던(어떤) 외진 산골에 인자 갔던갑디예. 그래 가갖고 인자 그란께, 손주가 인자 따라갔는가, 근께 지고 가는 사람 아들이지요. 할미한키는 손자고.

그래 가서 인자 할머니는 거따 풀어놓고 지게도 계따 낚주고, 그래갖고 이리 돌아서 온께나 손녀가, 그 손녀가 아 지게를 다부 이래갖고 온냐,

“그래 그거는 안 가올(가져 올) 낀데 왜 가오냐?”

큰께네,

“이 지게로 갖다 났다가 저거 아버지 돌아가시모, 거 하모, 그때나 되모, 아버지 그 해다가 똑 그 갖다 놓기라(놓을 것이라).”

큰께, 그래 고래장을 없앴다고 그런 말이 있대예.

[사하구 설화 210]

### 꼬꾸랑 이야기

조복지(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아이구 저저 저 꼬꾸랑개를 키웠는데, 꼬꾸랑개로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인자 저 어데 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걸어댕기께나 재로 넘어감서로 개로 덕고(데리고) 갔는, 아이 그 개가 똥이 매렵던가 우짜든가 이 뒤를 불라고 이래 거한께네, 짝지로 자기 인자 짚고 가던 지팡이로 갖고 때리준께네, ‘꼬꾸랑 깡깡 꼬꾸랑 깡깡’ 하면서로 [조사자: 꼬꾸랑개가.] 예. 짚고 도망을 가는데.

[사하구 설화 211]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남일옥(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평새동네경로당]

애기를 못 달개서, 애기가 울어가이 못 달래서,  
“호래이 온다. 호래이 온다.”

해도 자꾸 울거든. 밖에 호랑이 와 있는데도. 자꾸 운께,  
“꽃감(꽃감) 주께. 꽃감 주께.”  
그래 안 울었다 말이요. 애기가 그쳤잖아. ‘하, 꽃감이 내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 하고 도  
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고.

[사하구 설화 212]

### 며느리의 방귀 힘

남일옥(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평새동네 경로당]

메느리 얼굴이 노래져서,  
“니 와 그렁노? 그래 얼굴이 자꾸 상하노?”  
이라이,  
“아버님, 내 빵구를(방귀를) 참아서 그래요.”  
그라니까,  
“그래 니 맘 놓고 함 끼 봐라.”  
그런께, 시아비라 카나 시애비라 카나 보고,  
“문고리 잡아라.”  
캐 잡았는데,  
“그래 맘 놓고 끼라.”  
카이, 방구를 얼마나 끼는지 잡고 있는 문고리가 덜렁덜렁 하더라 카고.

[사하구 설화 213]

### 개똥을 찢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남일옥(여, 1933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평새동네 경로당]

가난한 세상 그긴데, 메느리가 념의 모를 숨구러 가서 점심밥을 먹다 보이, 시어머이 걸  
남기(남겨) 조야(주어야) 되는데 못 남기고 다 먹었어.

그래 걱정이 돼서 어데 돌맹기당께 개가 생보리쌀을 먹고 하얀 보리쌀 톱을 논 거를, 그걸 갖다 깨끗이 씻어가이 밥을 해가지고, 그양(그냥) 주면 죄 받을까 봐 자기가 먹어 보고, 시어 모를 쫓는데, 주고 모를 숨고러 가 모를 숨다니까 막 노성백약을(뇌성벼락을) 하더래요.

‘하, 이거 내가 죄를 받아서 그런가.’ 하고 ‘죽어도 내 혼자나 죽어야지.’ 하고 논가에 떡가가 서가 있다니까, 뭐가 막 꺾바우에 와서 이런 기 하나 와서 붙어서 본께, 돈, 돈 꼬방이 더라(고방이더라) 카고 그런 이야기는 하대요.

[사하구 설화 214]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최학연(여, 1928년생) 구술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평새동네경로당]

호랑이가 옛날에 집에 아 물라(먹으려) [조사자: 자아(잡아) 물라고.] 자아물라고 들오는데, 그래 머시 인제 아저씨 말따나 꽃감(꽃감), 꽃감이 그놈 자식이 꽃감이 디게(매우) 무섭았는 모양이라.

“꽃감 온다.”

꼬, 그거 하이까네 마, 벌떼 걸음을 하고 도망 갔부랏어.

[사하구 설화 215]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덕념(여, 192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옛날에 알라, 솔녀가(손녀가) 그래 하도 울어싸서러, 오만 거 다 주께 캐도 인자 안, 울음을 안 그치니까네, 또깨비, 호랑이가 뺨에서(밖에서) 자아 묵을라꼬(잡아먹으려고), 안에 사람 자아 무을라꼬, 오가 기다리고 있으이꺼네,

“호랭이 온다.”

카이께네, 똑 그치거든. 아,

“또깨비 온다.”

카이, 근친다(그친다) 카던가 이래. [청중: 호랭이 온다, 뿔이 온다. 꽃감을 주까 꽃감. 그러

인까네.]

“꽃감을 주께”

이라이께네

“온다.”

이라이께네, 똑 그치거든. 와따 호랭이가 백에서,

“와이고! 꽃감이 내캄(나보다) 더 겁나는갑다.”

함서, 도망을 가뿌더란다.

[사하구 설화 216]

### 장림 본동의 입향조 김건만

김홍문(남,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옛날에 여, 그, 김, 이름이 김건만, 그 분이 정삼품 벼실을 하시고, 저 동래에서 살았는데, 임진왜란 때 딱 되니까, 짹히면은 귀양 아니면 사형이다.

말로 일곱 필로 가지고 피란을 오다 보니까, 장림 본동 요기 섬이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집을 한 가구 짓고 보니, 자갈이 많고 숲이 많아서, 길 장(長)자, 수풀 림(林)자 이름을 정한 분이, 정착을 한 그 분이 바로 김건만. 정삼품 벼실 분이라. 그 후손들이 여기 다 살아요.

[사하구 설화 217]

### 사상구 장림동 당산의 내력

김홍문(남,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당산 모시는 거는, 그, [조사자: 할매납꺼? 할배납꺼?] 할머니인데, 에- 나물 채자(菜) 채씨 할매납니다. [조사자: 어떻게 그 할머니를 모시게 됐는데예?] 그 할머니를 모시게 된 동기는, 역시 이 김건만 씨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 이 앞에 저기 바단데 건너보니까, 그 이 시누리 대라고 쪼끄만 대가 짹- 있는데예. [조사자: 시누리가?]

대나무가. 예,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밤에 보니까 불이 반짝반

짜 해서 그 다음번에 글로(그곳으로) 갈라고 보니, 이게 섬이니까, 물이 빠지야 건너니까, 요 리 나가면 그 볼퐁굴이라고 옛날에 있습니다. 고계서 이게 물이 빠지면 사람이 이 정도로 건너는 기라.

그래 건니가 가보니까, 그 할무니가 나물 채자 채씨 할머니인데 그 무속인이었어요. 그래 자석도 없이 혼자 살아서, 그 할무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이 김건만씨가 그 제를 지냈는 거요. 그래서 당산을, 저게 당산제를 지내게 됐어요. 역사가 그리 됐습니다.

[사하구 설화 218]

### 영험한 당산신

김홍문(남,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영검한 얘기는 인자, 거기 가서 공을 들이면은, 인자 그 자제분을 문 놓는 사람들은 자제 분도 놓고, 그 공을 잘 들이면은 동네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이래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조사자: 옛날에 그 공을 못 들이갓고 우환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음, 인자 공 못 들이고 당한 거는 없었습니다.

[사하구 설화 219]

### 사람의 수명을 잇는 명주실

손여옥(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조사자: 그게 무슨 말인데예?] 명주실이라꼬 실이 얇은 기 있거든. 그래 그 명주 꾸리 응, 꾸리라꼬, 옛날에는 이래 꾸리 감는다 안 카는가?. 이래 감으몬, 손가 이리이리 해갓고 이거, 그 명주실로 갖다가 샘물에다가 샘물이라 카는, 풍덩 웅디에 빠준단다. 빠주면 인자 그 명주 실로 우에서 하나하나 감는데 그거 풀어낸단다. 풀어내몬, 거기 다 풀어내면은 우리 인생이 인자 끝나는 기라. 그와 같다는 기라. [조사자: 사람마다 한 명 한 명씩]

응, 한 명씩 응 다. 그래 그 명주실이 뭐 일찍 태어났으니까, 일찍 명주실로 물에 빠졌고,

나는 늦게 태어났으니 늦게 빠졌고, 아무튼 그런 식이 아인가배. 그래 그 명주실이 다 풀리면, 우리는 인자 세상이 끝나뿌는 기라.

[사하구 설화 220]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옛날에 클 때 그 그랬는 기라. 우리 인자 마을에 사람이 억수로 인자 남자 부자거든. 근데 저 등넘에 인자 잔치로 갔는데, 술을 한 잔 탁- 묵고 고개를 넘어오는, 우리 고개가 좀 뭐 짐승 걸은 기 마이 나타나고 하는 고개라. 그 고개로 인자 떡- 넘어오니까, 뭐 어디서 불이 뼉뼉뼉뼉 하더만은,

“어이, 김, 김, 김 서방. 아, 김, 김 군.”

뭐 이라더란다. 그래서,

“그 왜?”

카고, 쳐다보이,

“오, 니 오데 갔다 오노?”

이래가,

“그래 오늘 잔치 가서 술 한 잔 묵었다.”

“어, 그래.”

둘이서로 인자 그래갖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마 둘이서로 거서로 인자 니니, 내니 인자 다투고 씨름을 했어. 다투고 막- 치고받고 이랬네 마. 둘이서 고개서 내- 그래 하다가 우짜다 보고, 이 인자 우리 동네 있는 그분이 마, 그거로 마 해치걸은 불이 뼉뼉뼉뼉하는데, 사람 걸이 보있는 기라. 덜렁 들고는 마, 우데 마 논가에 웅둥(웅덩이) 같은 기 있는 기라. 그따다가 마 집어 떼지뽀는 기라. 그래 떼지뽀고 정신을 채리고 집에 꺼떡 와가지고는,

“아따 내가 오늘 오다가 친구 한 놈을 만나가고, 오늘 마 옷도 마 엉망진창이고 이래가지고는 화갑을 와 가지고는 인자.”

그리 하니까,

“아, 내가 오다오다 친구 한 놈을 만내가, 오늘 마, 내가 마, 거서 사생결단을 하다가 내가 오다가 오데 마, 주 마, 웅덩이다 마 쳐박아뽀는데, 아 그놈이 살았나 우째뽀노? 아침에 내가 가봐야겠다.”

일나서로 실-컨 자고 일어나서, 아척에(아침에) 떡- 자기가 갔는 그 길을 아니까, 가니까, 저

어데 논, 저저 논 있는데 그 구멍에 큰 웅덩이 안 있나? 농사 짓는다꼬. 있는데 그따가 집어  
편졌다 캐. 편진 데 본께네, 빗자루. 빗자루가 몽댕이 이기가 우물에 동동동동 떠고 있더  
란다. 거기 피 같은 기 묻으면은 번쩍번쩍 하이 사람이 되고 이랬는 기라.

[사하구 설화 221]

### 업구령이를 구해 복 받은 할머니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그런데 그 저저저, 우리 동네 사람들도 불이 났거든 집에. 불이 인자 큰집 불이 딱- 났는  
데, 그 마 전부 뭐시 다 녹았는데, 지불딱 먼디에(지붕 꼭대기가), 썰- 우에 인자 거게 큰-  
구리이(구령이) 이기가 나타났는 기라. 인자 불로, 인자 불이 나뉘노이. 그래갖고 그 구래이  
그기가 마마마 불속을 둘둘둘 널찌대. 이리 쳐다보니까, 구리이가 널찐께, 할매가 할매가 이  
치매로(치마로) 갖고 그 구리이로 받았는 기라. 집 불 났는데.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래 놓니까, 이 구리이가 어데로 불불 기다 뒤에, 바로 뒤에는  
인자 발인데, 그 인자 저저, 상추. 상추 이기가야 디인(데인) 데는 잘 났는갑더라. 썩거로.  
그기 상추밭에서 마 더글-더글- 구불고 있더라. 구리이가. 그리 구불고 있더니만은 한  
사나흘 넘게 이리 구불이썩터만은 마, 구리이가 가뿌고 없더라. 들어가뿌고 없더라. 그래도  
그 집은 불이 나도, 그 인자 찌키미(지킴이) 거기 안 죽었신께네, 새로 다시 그 집을 짓고  
거서 잘 살았다 안하나.

근데 이거 인자, 구리이 불 나면은, 나도 생각이 나는 기라. 상추. 상추 그거로 떠실 때  
(뜨거울 때) 때비내면은(떼어내면) 이기 까라 얹는가 봐.

그 상추밭에서러 구불다 구불다가 그래갖고 없더라. 거기 다 났았는가. 났았건데 갔제?  
그래 구리이가 엄서가(없어서), 그 집도 그 자리에 새로 짓고 그래갖고 잘 살았다.

[사하구 설화 222]

### 업구령이가 나가 망한 집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고거는 지키미 나가면은 집이 안 된다 안 카나. 사람 눈에도 보이고 안 되는 거는 또 안 돼. 우리가 클 때 바로 담이 요래 인자 있거든. 그런데 집이 마 오두막채라도 괜찮은 집인데, 구리이가 구리이가 우째- 그리치 그 집에는 많겠노. 우리 어릴 때 마, 너무너무 구리이가 많이 나오는 기라. 우리 집강 붙은데, 그 집엔 마 구리이 발이라 마. 지붕때 먼디 보면, 밥 무을 때 보면, 누렁이가 이리 마 등실등실 있제. 부엌에 밥 한다고 이래 보면은 소쿠리에 보리쌀 담아가 줄로 떡- 했는데, 보리쌀 소쿠리 거도 구리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다. 들어가 있제, 불로 떼다 보면은, 툭- 떨어지는 거 보면은 연개에(연기에) 구리이가 떨어지는 기라. 내 - 그래 썩더만은 그 집이 망하는 기라.

그래가 아들 그 갓날아가지고 머스마 여섯 살 묵었는데, 그 갑자기 맹장 그기 걸린데 몰라가지고, 오늘 지낙 때 요때 아팠는데, 그 담날 요때 죽는다 아이가. 그래도 그거로 갖다가 모르고 촌 할매들은. 우리 클 때 모르고. 막- 점쟁이한테 가서 굿을 하고 그 날 저녁에 물로 떠가지고 와갖고 빌고 이래 썩는데, 저녁에 안 죽었나. 고 시간 돼서. 그래갖고,

아이고 세상에는 병원을 데꼬 가야 낫알 낵데. 비는 거 인자, 저거 인가 동새가, 이 인자 할마이는 아파서로, 우리 아지매는 그냥 있는데, 저거 동새가 와가지고 마 물로 떠가지고 점하는 사람 데꼬 와갖고, 부엌에다 채리놓고 빌고 그래 썩는데, 아가 안 죽어뿌나. 그래 그 집이 안 되는 기라. 그 어마이도 그래 아파갖고 마 죽고.

그 구리이 집이라. 말하자면은. 아이고 그리 많은 건 침 봤다. 침 봤어.

[사하구 설화 223]

## 뱀 각시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옛날에 문 사는 집 총각이 그래, 저 나무하고, 뭐 일하고 오면은, 오면은 밥을 딱- 채리 놔 놓고는, 그래갖고 묵고 묵고 내 인자 이리 하다가, 한 번은 마 그거로 잡을라꼬, ‘우째서 이러는가.’ 싫어서러, 담 넘어서 숨어서 그걸 보니까,

그래 젊은 썩시가 나와가지고 밥을 해 가 그래 채리놓고 채리놓고 이래 하더라 카대. 그래 하는 거로 갖다가 보고는, 몇 번 봤는데, 난중에 두 번, 서너 번 보고는 그로 갖고 마, 가가 주고 채리놓은 걸 잡았다 안하던가배. 붙잡아놓이 마 그 사람이,

“안적(아직) 그거 때가 멀었다.”

꼬,

“놔 도라.”

꼬 캐도, 그거를 안 놔주고 그거를 하고 있어갖고, 결국은 그 인자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

는데, 그 사람들이 난중에는 지 한생할(환생할) 날가 멀었는데, 그래 돼가주고, 난중에는 결국에는 뱀이 돼서 가더라 안 카던가배.

뱀이 돼서러 뭐. 지 그거로 환승을 못하고 도로. 그래 마이 슬피 울고 그래 하더라 안 카던가배. 그치? 그래 조금만.

[사하구 설화 224]

### 뱀 서방 이야기[구렁덩덩 신선부]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옛날에 인자 저저저 형제간에 저거 동생캉 언니캉 이리 살았는데, 한 두 살 터불이(터울이) 이리 되는데, 밑에 아랫집에 밑에 옆집에 밑에 집에서 아로 낳는데, 아 구렁이를 낳았는데, 구렁이로. 구렁이로 낳았는데, 이 구렁이가 시커먼 진대, 큰 구렁이라.

그렇는데 구렁이 이기가, 그 집에 아 낳았다 카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시 아는 보이도 안하고, 아무도 아 낳았다꼬 소문은 낳는데, 배 부르이 낳았다 카는데, 우째 구렁이를 낳았는데, 그래 한번은 인자 이 구렁이가 아를 낳았다 캐도 그 집 아로 구경을 아무도 몬 했는데, 한번은 마 그 구렁이가 저거 담을 타 가지고 저거 밑에서러 옷집에 담을 타가 쪽- 오는데, 큰 구렁이, 진대, 검은 구렁이라 카대.

근데 저거 언니캉 동생캉 둘이 있는데, 그래 빨래를 널고 이리 있는데, 구렁이가 담을 타 가 넘어 옴더라 카네. 그런데 저거 언니는 보고는, 저거 언니는 암말도 안 하는데 똑 저거 동생 이기.

“하이고, 저저저 송실봤다(?). 저 구리이 왔다.”

고, 마 작대기갓고 이래가 쫓갈라 카고 이러는데, 저거 언니는 하는 말이,

“아이고-이, 그래 하지 마라.”

것도 저저저 그 구렁이는 이 처녀 눈에서 어떻게 봤는지.

“하이고, 봉두각시 같다.”

하면서로,

“그 구렁이로 손 대지 마라.”

함서, 저거 언니는 절대 그 구렁이로 갖다가 해롭게 안 하고 그래 좋은 말만 하고 이라는데, 이 구렁이가 그래 만날 갔다가 낮으로도 한번씩 이리 담을 타가 오고 오고 이리 하는데.

그래 하리는(하루는) 이 구리이가 저게 인자 넘어 와가주고는, 이 처녀가 머리를 감고 이리 하는데, 구리이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지 눈에, 인자 밤에, 눈에, 구리이가 아이고 아주

잘난 남자라. 아주 용왕에 있는 용왕국에 있는 남자 총각이라. 그래 지 눈에 그래 나타났는 기라. 그람서러,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거 허물로 입어서 그래서 왔다.”

하면서, 그래 저 지가 그 허물로 벗고는, 이 총각이 허물로 벗고는, 이거를 주거들랑 절-대적이 이거를 이 세상에서 이기서 태우면은 노랑내가 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몬 오니까, 지가 후 세상에 용왕국을 가야되고, 거서 몬 나타나니까, 이 구령이 허물로 갖다가 이 처녀를 주면서,

“우째도 간수를 잘 해가 있어야 내강 인연이 된다.”

하면서, 이래 이래 하거든.

그래 그리 했는데, 이 인자 그거를 알고, 이 인자 허물로 벗고 난께네, 아 참- 봉두각시 잘난 남자다 아이가. 그런데 이기 잘난 남잔데, 저거 집에서 아래 우채 이리 있는데. 이 동생 이게 마 새가(쌈이) 나서 못 살거든. 새가 나서 몬 살고. 이상하다 저거 언니랑 잘 구령이를 보고도 마 그거로 안 하고 그란께, 요게 새로 내가지고 인자 그 허물로 벗고 한께 그 총각이 이 처이를 보고 그거로 하고 그러니까, 마 요게 마 새로 내가지고

“하이고 우짜든 내가 마 허물 벗은 저거를 마 우째도 내가 찾아가 마 태아야지, 태아야지.”

동생이 마, 아이 마 어디로 찾고 찾고 해도 없는데, 이 처녀가 동정 속에다 열어가고 인자 옷을 집어갖고 입고 땡기는 기라. 그 구리가 꺾디를. 그래 그거를 가지고 있으이 결혼 해가 살 끼라꼬.

그래 태아지 말라캐서(태우지 마라해서) 놓을 때가 없어서 동정 이거를 속에다 열어가 동정 해가 있는데, 한번은 저저 동생도 어디 가고 없고 해서로, 그때 이 저고리를 벗고 머리를 감는다고 이래 감는데, 아 고새 저거 동생이 어데서 나타나가지고 마, 동정 이걸 후딱 따가지고 마 그거를 마 태워뵈는 기라. 노랑내가 노랑내가 나이 마, 이 총각이 그 질부터 마 없는 기라. 저거 집에, 그 집에도 없고 마, 안 나타나는 기라 마. 아무리 아무리 봐도 찾아도 엄포 안 나타나고 한께네, 이 처녀가 마 인자 머리를 깎고 중이 났는 기라. 저거 집을 나갔는 기라. 중이 되고. 그래 중이 돼가 나가면서 오데로 오데로 땡기면서 마, 동냥을 하고 오데로 땡기면서 동냥을 하고 이라먼,

“뭘 줄 끼 없다.”

카고, 안 주고 이랬는데, 한번은 인자 마 저저 뭉꼬. 동냥을 하다가 하다가 마 이래 안 돼가지고, 바닷가 가에 가가지고 마, 사람이 이래 탈약(탈진)을 하고, 이래 쓰러지고 있는께네, 어떤 용궁에서로 말하자면은 마, 저 거북이 곁은 그런 기 마 나타나 가지고 마,

“눈을 감고 마 있으라.”

카면서, 마 이래 껌아가주고 마 어데 용왕국으로 마 땡꼬 갔는 기라. 그래 인자 가서 껌 보니까, 껌 보니까 탄 세상이라. 그래서 거계서는 할 거는 없고, 자기가 중이니까 거기도 말하자면 이 세상 맨치로 동네가 있고 이렇더라네. 그 인자 가서로 인자 집집마장 동냥을 이리 얻고 얻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한번은 인자 어떤 집에 가서,

“동냥을 좀 두라.”

칸께, 이려더란다.

“하이고 동냥 줄 끼 없는데.”

카면서, 그래 마,

“아무 끼라도 좀 도라.”

칸께,

“우리 집에 줄 끼라 캐 봐야 좁쌀, 좁쌀 그거뻘이 없다.”

하면서 좁쌀로 선낫 바람에다 주는 기, 마 좁쌀이 잘아놔놓이 구멍에 줄- 다 흘려뺐어. 그래 구멍에 다 흘려뺐는 기라. 그러니까 그거를 인자 줍고 있는데. 아, 그럭하기 전에, 딴 집에 여러 군데 인자 이래 동냥을 하러 간께네, 하는 말이 이려더라네.

“아이고, 그 동냥 줄 시간 없다면서러. 저 건너 봉도각시 집에 저 잔친데, 잔친데, 잔치 가야 되지 그 동냥 줄 여개도 없다.”

하면서 문 준다면서로 마 그래 가 뿌더라네. 그래 이상하다. 봉도각시 잔치를 한다간께 이게 암만해도 저거 신랑 이름걸고 이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래 그 집을 찾아가가주고 잔치 한다 카는 그 집을 인자 가서로 동냥을 좀 돌려칸께,

“하이고! 우리가 바쁘고 이란데, 뭐 줄 낀 없고.”

좁쌀 그거를 한 움큼, 이 동냥을 줘는 거라. 주니까, 그 좁쌀 그기 마 바람에 마 줄- 다 흘려 뺐는 기라. 그 흘린 이거를 주야 되는데, 주야 해가 지야 하고 한께네, 그래 이거를 줍고, 하나씩 줍고 있는께네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구, 이거를 그 저저 언제 주워 갈끼냐.”

고,

“그냥 가라.”

하면서로,

“쪼개 더 줄께네 그냥 가라.”

카면서로,

“아이고 우리 절에서는 한 알이라도 널어진 게 있으면 다 좇어갖고 공양을 해야 된다.”

카면서, 그래 젓가락 하나 돌려 캐가지고 그래가 하나하나 줍고 있는께네, 해가 마 쪼뺐는 기라. 거문거문 해가 쪼는데, 그래 갈라하이 갈 데는 엄꼬 그래서,

“하이고, 그래 오늘 저녁에 요 좁 하리 묵고 가문 안 되겠나?”

이리 물으니까, 그래 그 엄마라꼬 하는 주인아줌마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에는 내일 잔치고 무을 때가 없다.”

꼬,

“문 잔다.”

이라거든.

“그래 마 아무데라도 좀 좋으니까, 오늘 저녁 하루만 좀 자고 가문, 좀 재워 돌려.”

이리 한께네,

“하이고, 저 밑에 우리 누룩방, 헛간에 저나 잘라몬 잘까, 잘 데가 없다.”

이라거든. 그래 이거,

“하이고, 거라도 좋다.”

꼬,

“좀 재워도라.”

쿠니까, 그래 인자 헛간에 그 누룩방에 가서 떡- 앉아 있은께, 창문에 보이 달이 마 반달 같은 큰 달이 떠갔고, 달이 밝고 이래 떡- 있거든. 그래 그 총각이 난데없이 그래 늦가 밤에 보니까, 참 보던 지 그 남자라. 그래 이래 이래 보니까 달빛에 이래 본께네, 마 마리에 떡- 앉아가 그 총각이 하는 말이,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저 달 따라 나도 가면 봉도각시를 보련만은, 저 달 따라 못 가니까 봉도각시를 못 본다.”

카면서, 그 마루에 앉아서 그래 한탄을 하고 그리 말을 하더라. 그런께 이 여자가 들어 보니까, 지 보고 하는 소리라.

“봉도각시 불라 하거든 누룩방으로 들와(들어와) 보지.”

이라거든. 그 그라니까 또 인자, ‘이 소리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싫어서 또 한 번 더 카거 든. 그카이 또 그래 인자,

“봉도각시 불라하든 누룩방을 들와 보소.”

이라거든. 그래 저거 엄마를 보고,

“어머니 어머니, 오늘 누가 우리 집에 왔다 갔냐.”

물은께 ,

“아-무도 온 사람 없고 스님 한분이 오시가지고, 잘 데가 없다 해서 누룩바양 그래 자라 캐서 잤다.”

그래 세상 총각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야 누룩방에 가서 본께, 자기가 저 세상에서 만났던 인연이라. 그래갖고 겹흔식 하는 그거 인연을 그만두고, 그 여자캉 그 용궁에서로 백년하례 하고 잘 살았단다. 그런 전설 이야기가 있더라꼬. 그래갖고 옛날에 그 들은 이야기가 그래 있어. [조사자: 이승에는 못 왔네예. 이승에는 못 오고 마 용궁에서 살았네예.] 어, 용궁에서 살았어. 그 냄새 나서 이 세상에는 못 노오는 기라. 그 노랑내가. [조사자: 동생이 그렇게.] 동생이 욕심이 많아갖고. 새가 많아갖고. 그 불로 하고는, 그 날부터 마 몬 오는 기라.

[사하구 설화 225]

## 개로 환생한 어머니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하도- 할마시가 돈만 알고 구경이라꼬는 모르거든. 놀러가고 구경하고 이런 거는 몰라 가져 세상 간께네.

“할매는 어데 관광을, 구경을 했노?”

물으니, 구경 한 번 한 기 없는 기라 이 할매는. 죄가 많은 기라. 그러이 저거 집으로 개로 태아갓고 보냈는 기라. 환승한 기 개가 태어났는 기라. 그래 그 집에 인자 마침 개가 태어났는 기라. 개가 인자 태났는데, 그래가 강아지가 인자 그런께, 부엌에다가 강아지 집을 지이놓고 인자, 그란께 강아지가 뭐 고기 곁은 거 꿈으론 먹고 싶어가 냄새 맡고 주디(주둥이) 대고 이란다 아이가. 그란께네 메느리라 카는 게가,

“요놈의 개가 뭐뭐 묵는다.”

꼬, 부지깨이가 입을 이래 찌지갓고, 입이 당나발같이 이래 돼가 있고, 만날 그 개로 갓다가 마 그래 그걸로 하고 이리 그랬거든. 그라니까 인자 이 인자 꿈에 꿈에 인자 저거 아들한테 꿈에, 그래 저거 엄마가 나타나가고,

“그래 내가 저 세상 간께 구경 한 번 몬 하고 그래 날로 죄가 많아서, 이 개로 태아 가지고 이리 나와 가지고 내가 이렇다.”

꼬, 그래 꿈에 선몽을 하고 나왔더란다.

그래서 저거 엄마 꿈을 꾸고 난 뒤 참 본께네, 저거 마누라 그런 거를, 입 딴 것도 모르고 했는데, 또 입이 대가(불에 데어) 개가 입이 대 가 이래가 꿈에 그리 나타나 그러더란다. 그 래갓고 저거 아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래 부엌에 디다 본께, 강아지가 입이 마 당나발같이 뒤비지고 이렇더란다.

그래가이고 아들이 죄가 많아서 세상 구경도 한 번 못 시키주고 그랬다 싶어서, 그 개로 짚어지고, 싹- 조선 팔도로 다 땡기면서 구경을 시켰다 안 하던 가배. 그 다 시키고 난께, 나머지 저 어데로 카노? 그 산 밑에 좋은데 그 인자 쉰다꼬 내리가 있는께네, 그래 개가 환승을 해가지고, 마 개가 그래 없어지더라 안 하나. 꺼물만(허물만) 벗고는 혼이 가뿌고 없더라 안 카던가배. 그란께 이 세상에도 구경도 마이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돼.

[사하구 설화 226]

## 오누이와 호랑이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옛날에 인자 촌에서러 얼-매(얼마나) 할매가 몬 살고 떡 장사로, 인자 떡 장사로 하고 인자, 만날 고개 넘어 떡을 팔고 떡을 팔고 인자 이라다가, 한 번은 인자 떡 팔러 간다고 간께네, 호랑이가 나타나 그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묵지.”

해가 또 한 개 주고, 또 그 답에 가서도 또 그래가주고 또 하나 주고, 난중에는 인자 그거를 다 주고 난 뒤는, 이 할매가 인자 줄 끼 엄서(없어) 놔논께, 저거 집에 인자 떡 한다고 인자 그래 떡- 와가지고 있으이께네, 그 호랑이가 나타났더라 안 카던가배.

가가주고 인자 그날 저녁에 인자 안 주문 할매를 잡아 무울(먹을) 판이라. 근데 이 할매가 인자 그 뒤에 인자, 뭐 무슨 나무? 황나무겘은 나무에다 올라가가고 인자, 딱- 인자 그거를 보고는 인자, 그 호랑이가 인자 떡- 잡아 묵을라꼬 그래 하는 순간에 뒤로 돌아가가고, 그 인자 나무에 할매가 타고 올라 갔는 기라.

그 나무에 떡- 타고 올라가가 있으니까, 마 이 마 호랑이가 마마마 잡아 무울라꼬, 몬 잡아 무우서 마 애로 애로 터가 거삿티(그렇게 하더니), 고날 새벽만(새벽만) 지내면 닭만 울면은 이거는 마 호랑이 이거는 마 가 뿌거든. 환승하는 데로, 밤새도록 그러면서 새벽같이 닭이 꼬꼬덕 울고, 새벽이 되께네 마, 그 호랑이가 가뿔다 카대.

그래 가고는 할매가 다시 살고, 그래 그 집에서로 안 살고 딱 마을로 이새로(이사를) 갔다 안 카던가배. 그런 이야기도 또 할매들이 우리 보고 해 썼더라꼬. 전에도.

[사하구 설화 227]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아, 에밀레종. 그것도 그런다 안 카더나. 그 어데로 땡기다가 땡기다가, 이 집 저 집 다-땡기고, 뭐 그 어마이라 카는 것도 입도 또 무섭아. 이 집 저 집 땡기면서 동냥을 해가주고 전부 다 인자 에밀레종 거 만들라고 절에서러 그거 왔는데, 어마이도 입이 인자 보살이라.

“아이고, 우리 집엔 줄라 해도 줄 꺼 없고, 우리, 이름을 갖다가.”

저거 아, 에밀레가 뭐꼬?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사자: 봉덕이. 봉덕이.] 아,

“우리 봉덕이나 주면 줄까 줄 꺼 없다.”

카고, 이렇게 해가주고, 그 시상 종을 그래 만들어가 만들어가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 더라 안 카던가배. 그래갖고 결국은 결국은 안 돼가 스님이 그 집에 가서 그 봉덕이 그로 그 종 만드는데다 같이 그거로 열다 안 하던 가배. 그래 하고 난 뒤부터는 그 종이 울렀다꼬 이런 말도 있대.

그 종소리가 그래 났다대. 봉덕이 그거 열어가지고 그래 그기 봉덕이,

“에밀레-, 에밀레-.”

어마이 그 인자 말해가 그랬다꼬, 그제 에밀레, 애미 땀에(엄마 때문에) 그렇다꼬 그 소리 지 뭐.

[사하구 설화 228]

### 고려장 이야기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옛날에 그 저저저 뭐꼬?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거 아 손주가 있는데, 아바이, 저거 아버지를 칠십 돼이, 젊어지고 인자 고려장 한다꼬 인자 음식하고(음식하고) 뭐 하고 인자, 한 달, 두 달 무을 꺼는 쪼깨(조금) 열어 가는 기라 젊어지고. 그래갖고 구멍을 쪼깨 내 놓고 이래 인자 그 하는갑대.

지계를 지고 갔는데, 손주가 따라 갔는 기라. 그래 인자 그 지계로 인자 놔두고 오야 되는 데, 그 자기 아들이 인자 지계 그거를 들고 오거든. 지고 오거든. 그래,

“이거 지계는 거다 두고 와야지 와?”

칸께,

“나도 이다음에 커서, 다음에 아버지 지고 와야지요.”

그러 칸단다. 그거 아들이 보고 그 소리도 한다.

[사하구 설화 229]

### 개 서방하다 남편을 잃은 여자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남자가 마도로스 배 타고 땡기는데, 여자가 집에서 개로 키웠는 기라. 개로 키와갖고 인자 내- 인자 이래 하는데, 결국엔 개로 갖다가 인자 지녁으로 데꼬 자고 이랬는갑대.

그래 자고 이런께, 개강 인자 마 정이 들어가주고 마 이랬는데, 남자가 인자 배 타고 인자 내리가이고 저저 집으로 인자 와서 저녁에 같이 남편과 한 바양에(방에) 있는데, 개 이게 마마 새로(쌌을) 내가지고, 새로 내가지고 마, 남자로 갖다가 마마 문을 마 뚫고 들어가, 남자로 마 목을 물러갖고 직있다 안 하는 가배. 일본서 전에 옛날에 그랬다 카더라.

그래 갖다 죽이고, 그래 놔놓이 인자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로 다 하니까, 누가 그랬는지 그것도 모르고 조사를 다 하니까, 저저 집에 전-부 단수고(장롱도) 뭐고 디빈께(뒤지니), 여자가 개 발 네 개 토시가 있더라.

토시로 인자 지녁으로 인자 마 개가 방 들어오면은 인자 끌코 이라면은 아프잖아. 그래가 토시를 딱- 찜가갖고 밤으로는 놔두고, 그래 인자 낮으로는 빼가 감차뿌고(감추고) 이랬는 갑대. 이웃지 살며 탄 사람 모르께. 그래가 온- 집을 디비니까, 개 인자 토시가 네 개 있어가. 그래 그 여자가 그기 범인인 기라. 개강(개와) 그래가. 그런 것도 다 있고. 이야기 해췌대.

[사하구 설화 230]

### 양밥으로 도둑 잡으려다 봉변당한 사람(1)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그 인자 그 저저 저저 조카가, 조카로 둘이 키웠거든. 저저 저 숙모 집에 인자 일 해주고 그래 있는데, 자꾸 돈이 엄서지는 기라. 돈이 자꾸 인자 엄서지니까(없어지니까), 저저 딸이 인자 가스나가 인물도 잘난 기 마, 집에 마 그것도 안 있고, 학교도 마 땡기고 인자 졸업도, 중학교 졸업하고 마마 끼미갖고(꾸며서) 말하자면은 마 놈팽이맨치 돌아땡기는 기라. 인물도 좋다. 그런데 마 저저 집에 돈 놔놓면 돈이 엄서지고 엄서지고 이란께네 인자, 저저 조카 그것들로 가 갖다고 숙모가.

그래가지고 인자 소고기를 사가지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콩을 거 박아가지고, 콩을 똑똑똑 찜가가지고, 수채 그 물 내려오는데, 썩는 데다가 파묻어 났거든. 그라이 마 그기 한 일주일 되니까 콩이 붓는다 아이가. 썩은 물에 있으이.

아 난주 없이 자고 일난께, 저저 딸 얼굴이 이 콩만한 게 이런 기 부르킨다 아이가. 얼굴이. 부르킨다 아이가. 그래놓이 저저 엄마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가서, 하수구 파가지고 그거 다 씻거 내고, 이래갖고 병원에 땡기면서 그래가 낫았다. 그 도둑놈 표를 내뵈이는 기라. 양밥

그것도 무섭디.

[조사자: 딸이 도둑이었네요.] 딸이 그래 도둑이었다. 그래갖고 저저 조카 그거, 엄마 없이 만날 가갔다고(가져갔다고) 그러다가 저저 딸이 그리 나타나. 그래 딸 가간 걸(가져간 것을) 알고 놀래 자빠져가, 이우지는(이웃은) 다 안다 아이가. 저저 딸이 인자 그래가 그런 걸로. 이만하이 이래 부르키가 얼굴에 문디 됐다 아이가. 그 부르키가 그거 놔놓으몬. 그래가 파내 갖고 씻어가. 그런 것도. 양밥은 아무 때나 몬 해.

[사하구 설화 231]

### 양밥으로 도둑 잡으려다 봉변당한 사람(2)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그 내나 저저 저저 얼라(아기), 술단지 안에 거 저저 밥그릇 그 빠자고(빠트리고), 얼라들이 디다 보고, 밥그릇 그 단지에다, 이불 밑에, 옆에 저따대(저기다) 단지에 술 담가거든 촌에는. 그럼 늦그릇같은 그런 거 방끝에(방에) 있시몬 아들이 그 좋다고 하다가 빠잔단 말이다.

그래 그 잊어뻘다꼬, 그래 잊아뻘다꼬, 고양이 잡아갖고, 이우지 사람 가 갔다꼬 찌다가, 고양이가 쥐틀리고 한께, 아가 바양서(방에서) 쥐틀려가 죽는다. 죽었다 안 하나. 잘난 놈, 그 밥그릇 그.

이우지 사람 인자 그거, 옛날 늦그릇 그그 가 갔다꼬. 그래가 그 저저 아 그 사죽이(온몸이) 틀려가 죽었다 안 하나. 그런 것도 있다. 촌에서.

[사하구 설화 232]

### 양밥으로 도둑 잡으려다 봉변당한 사람(3)

송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우리 동네 사람도 우리 아버지 친구 분들인데, 나락이, 몬 살아 놔논께네, 나락걸은 거 찌놔 놓고 이래 재냈는데, 몬 살아 놔논께네 마, 그 집에 인자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저저 집에 그 만날 일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 그 마 한 섬을 마 밤에 멀리 가 갔는 기라.

그래 가 갔시몬 마 그냥 그 놈들 낀데, 그 마 몬 살아서 그런 거로 갖다가 일 해주고 하는 사람 목었다고 놈 둘 낀데, 촌사람도 문뎨 거는 문뎨 사람도 있어.

그래 새로, 새로, 참새로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눈에다가 바늘로 꼽아갖고 날라뽀는 기라. 그 날라뽀놔논께네,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도둑놈 잡는다꼬, 인자 이리 이래갖고, 그 눈을, 세상 그 눈을 똑- 새 그 눈갈에 꼽은 거, 눈 안에다 하얀 못이 이래 딱 박히기 안 보인다가. 눈은 떠도 하얀 못이 백히(박혀) 눈이 실명이 안 났나.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놓이 동네서도, 우리가 그 나 클 때까지 그 사람들 그래 눈이 그리 된 거, 그래 살고 있다. 그래,

“저 사람들 눈은 새 따 못다. 만날 새 따 못다.”

고, 난 그 뭘 소린가 했다, 그래서 그랬다 카대. 그 도둑질 해 그거 한 섬 지고 간 거, 그 목은 거 그거 인자 양밥 한다고. 그 눈에다가, 참새 눈에다 바늘로 꼽어가 기워 보내가지고, 날라 보내, 참새도 죽고하이, 눈이 그래 새 눈맨치로 딱 그리 났다 캐.

[사하구 설화 233]

## 나무꾼과 선녀

이을순(여, 1944년생) 구술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청중1: 선녀가 목욕 내려 와갖고, 목욕하는데 나무꾼이 옷을 가 갖다 아이가. 그래가주고 목고 왔던둥 우째 하노?] [청중2: 그래가 문 내려가고, 삼 년인가, 아(아기) 두 찬가?]

아, 나무꾼이 그 옷을 숨겨가주고 그래 살다가, 살다가 애 셋을 낳았거든 셋. 그래 그 저저 어느 도사가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 옷을 훔치스니께, 그 옷은 애기 둘 낳(낳을) 때까지 주지 말고 셋 낳거든 주라.”

캬는 기라. 그래 주라 캬는데, 그래 그 사람이 너무 아가씨를 좋아하다가 보니께, 두 개 낳았을 때 쥐 뽀는 기라. [청중1: 맞아. 맞아.] 그러니께 아, 애기 둘이 옆으락 끼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허- 되고 하늘로 쳐다보고 그기 고마.

[청중1: 서이(셋) 놓으면 인자.] 서이 놓으면 안고 못 가니께,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 도사 말을 들었시면은 그래 자기가 마누래 안 잃고, 자석도 안 잃었을 낀데, 그 자석은 고마 잃고, 마누래도 잃고 마, 자기는 하늘나라 올라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기 끝이라 그래.

[사하구 설화 234]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박대선(여, 1935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그 이 에밀레종이가 이 어째서 그래 그거 했나면, 저거 엄마콩, 저거 엄마콩 아버지콩  
그래 그거 해갖고, 그 갈릴 때 이 죽으면서러 지가 이 그래 그거 해갖고, 그래갖고 인자 살기는  
살았는데, 살았는데, 에밀레종으로 갖다가 탁- 탁 그 인자 절에 가서러, 그 진주 무슨 절이지,  
그래 그거 해갖고, 절에 가갖고, 가갖고 인자 그거 할 때, 지가 인자 이 에밀레종한테, 밑에  
내려가서러 그래 그거 해갖고, 지가 인자 염불로 하면서러,

“에밀레-, 에밀레-”

카면서러, 그래갖고 지가 그 질로 크면서러, 그렇게 해가 에밀레종이 역사가 참 깊었어예.  
역산데, 에밀레종 그기, 내가 이 참- 그 책을 보고 일러갖고 그거 했는데, 그기 말강 다까  
뚫다.

[사하구 설화 235]

## 고려장 이야기

방옥순(여, 1944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그 아가 따라가감, [청중1: 따라가감고.] 자기 아버지가 지게로 버리고, 아버지, 그 인자  
버리고 올라 커이까네,

“아버지, 왜 지게를 버려요?”

[청중1: 아들이가 그래.]

“버리지 말고 갖꼬 갑시다.”

이란께.

“왜 갖꼬 가냐?”

하이.

“난중에 아버지를 저다 버려야 될 꺼 아니냐.”

고. [청중1: 아버지도 저다 버려야 될 꺼 아니냐고, 그래 그런 말이 있었다. 있었어.] [청중 2: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다.]

[사하구 설화 236]

### 꼬부랑 이야기

배소선(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꼬부랑 개가 있었는데 촌에. 있었는데, 그 꼬부랑 개가 희안-하게 그 꼬부랑 나무만 자꾸 올라가더라.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싸서 인자 할매가 꼬부랑 개를 떼지빠리고, 지 인자 할매가 인자 그 꼬부랑 나무에 올라갈라꼬 막- 이리 했는갑대.

그랬는데 우짤 개가, 그기 뭐 우째 우째 해가 우째 발이 올라가뻘어 그냥 쪼깐 올라갔어. 그서 우째 또 똥이 매려버가 똥을 또 쫓는가봐 할매가. 아 그런께 꼬부랑 개가 와가지고 문 올라가니까 애가 터져서, 그 똥을 날름날름 주서 무 뺏는가봐(먹어 버렸는가봐) 할매 똥을.

그란께 인자 할매가 보골이 나이까, 그 꼬부랑 짹대기로 머리를 탁 때리줬는갑대. 개 머리로. 그래 때리준께네,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카면서, 도망을 가더란다. 그 옛날 말이 있대 그래.

[사하구 설화 237]

### 칠국 먹는 개구리

배소선(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할배가 저 논뜰에, 논뜰에 슬슬 인자, 옛날에 할배 때 논뜰에 잘 덩겼다 아닌가배. 논뜰에 이래 술-술- 나가니까 어데,

“쓰읍 카- 쓰읍 카- 쓰읍 카- 쓰읍 카-”

이래 찼더래.

그게 우데서 이라는가 싶어가 가마이 숲을 요래 보니까, 세상께, 그 저 저 그 뭐꼬? 뭐라 카노? 그 짐승 이름이. 풀째미라 카나? 뭐라카노? 하이튼 그기 깨구리라 카더나? 깨구리다 그래 깨구리. 깨구리가 새끼로 놔놓고 그 칠꼭 묵는다꼬, 칠꼭, 칠꼭이라 카대 그거를 또. 칠국 묵는다꼬 그래가,

“쓰읍 카- 쓰읍 카- 쓰읍 카-”

거꾸로 소리가 난다 이래 찼대. 옛날에 할배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다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사하구 설화 238]

## 죽어서도 뱀이 돼 쌀독을 지킨 구두쇠 시어머니

배소선(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니가 뱀이 이야기가, 또 뱀이 한다. 뱀이가, 뱀이가, 아, 뱀이가 아이라 인자 그 집에 할매가 시어무이가 어-찌 나이가, 연세 많도록 막, 옛날에는 팔십까지 살면 굉장히 연세 많았거든. [청중1: 그래, 그래.] 칠십에 고려장 할 시절인데, [청중1: 맞아.]

팔십이 넘었는데 안 돌아가시고 이라더만, 만날 씨 메놀로(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키고 마, 마, 옛날에 저 두지, 저 저 창고 그, 그거 뭐꼬? 고방, 고방, 고방이라 칸다. [청중1: 고방.] 고방 안에다가 쌀 두쥐(뒤주)에다가, 쌀로 또 이런 독에 다가 쌀로 열어놓고, [청중1: 그래, 그래.] 큰- 이 독 있잖아 와. 독 같은 거, 마 두쥐 같은 거 있고. [청중1: 옛날에 그 마이 넣어 뒀다.]

그로 쌀로 열어놓고 그 인자 떠다가 인자, 할매가 내주고 내주고 하다가 인자 몸을 문 씨니까 문 내주는 거라. 문 내줘서 인자 메느리가 가서 내가지고 고방가서, 열쇠도 인자 할매한테 받아가 가서 열쇠 깨라가(열쇠로 열어서) 들고 내고 이랬는데. 만-날 쌀 내 가면,

“쫄끔, 쫄끔, 쫄끔, 쫄끔 만날 쫄끔만 하라.”

캐. 만날 쌀 쫄깨만 내라꼬 인자,

“쫄끔, 쫄끔.”

[청중1: 그래, 그래.] 그 소리로 마, 며느리가 귀에 못따까리가 앓도록 들었는데, 그래 인자

시어머이가 돌아가셨어. 돌아, 인자 연세 많아 돌아가싶는데, 세상에 쌀 뜨러 가면 그 두지 밑에서,

“쪽, 쪽, 쪽, 쪽, 쪽, 쪽.”

소리가 자-꾸 나더래. 그 이상하다 싶어서 인제 며느리가 저거 영감,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는 거라.

“하이고 여보 여보, 왜 저저 두지 밑에 저게서, 쌀 두지 밑에서 자꾸 쪽 쪽 쪽 소리가 자꾸 난다꼬. 내가 쌀 뜨러 가면 쪽 쪽 쪽 소리가 난다.”

개, 그래 인자 그 집의 아들이 인자, 할매 아들이,

“그 이상하다. 함 보고, 쌀 두지를 한 번 들어 치아 보자 한 번.”

그래가 인자 그 쌀 두지 쌀로 다 퍼내고, 막 인자 꺼낸께 큰- 뱀이가, 이래 큰 기 마, 따바리 틀어가 마 딱- 앉아 있더래. [청중1: 지킴이다. 지킴이, 지킴이.] 그래 도망을 가면, 사람이 가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 그래가 있어 [청중2: 그거 직이면 안 된다.]

그래 직이면 안 되지. 그래 어디가 물으께네 어디가서, 옛날에 점재이들한테 마이 땡깁다 아이가. 물으러 땡기. 물으러 땡께,

“그게 당신, 저 모친이라.”

카더란다.

“당신 모친이니까.”

[청중1: 그거 직이면 안 된다.]

“모친이 딱- 살림베께 모르고 집 안에서 똑- 이래가지고 만날 집 안에서 이 빌고, 만날 집 안에백에 못 살았으니까 이, 구경이라고는 몬 해봤으니까나, 그 뱀이로 절대 쫓지 말고, 직 이지 말고, 딱- 그 뱀이를 데리고 팔도강산을 땡기면서 구경을 시키주라.”

카더래. [청중1: 예-구! 세상에]

그래서 인자 그 말로 듣고, 그 점쟁이 말로 듣고, 옛날에 뭐 차가 있나 뭐가 있노? 바지기 다가, 바지기에다가 그 뱀이를 탁- 들어가 담아가 바지기에다 담아가 그 바지기를 지고 팔도 강산을 타고 다님서 구경을 했어. 유람을 했어. 그 뱀이로 담아갖고 지게다가. 그 옛날 이야기라 이게. [청중1: 그래, 그래, 옛날 얘기다.] 부모들이, 할매들이 이야기를 했어. 이기 참말이, 실화라 카대 이기. 실화라. [청중1: 실화라.]

그래갖고 세상 팔도강산을 땡기면서 그 뱀이로 아들이, 아들이 인자 바지기다 담아갖고 인자 구경을 탁- 시키가 집에 딱 모셔다 났는데, 밤새 고마 어디로 가뻘는지 없어. [청중1: 아이고!] 그 인자 뭐 인자 극락세계로 갔지 인자. [청중1: 지대로 가야되지.] 어, 지대로 인자 극락세계로 인자 갔는 거라 뱀이가. [청중2: 극락세계로.] 어, 못 가고, 그 만날 그 구경도 몬 하고 집 안에만 살림만 살고 그것도 안 좋다요. 그래. [청중1: 맞아.]

옛날 할매들이 그러는데 너무 살림만 살아도 안 좋다꼬 구경도 하고 또 인자 돌아 땡기

면서 놀기도 놀고, 좀 메느리들 인자 좀 그래 하라꼬 [청중1: 그렇지.] 시키는 기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구경도 하고 돌아 댕기고 이래라꼬. 구경도 마이 하고 해야 된다고. [청중1: 맞다.] 마 그래가지고 마 인자 우리나라가 인자 구경을 막 하러 댕기고 이랬다 카대.

[사하구 설화 239]

### 개에게 누명을 씌우는 며느리

배소선(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또 하께예, 메느리가 만날 시아버지가 밥상을 딱- 이래 들고 오더이, 밥상을 딱-, 이전에는 밥상 해가 쭈뚝, 쭈뚝 그거 담아가 또 마루, 대청마루로 해서 방에다 올라가고 그랬잖아.

[청중1: 앞앞이 다 상을.] 앞앞이 다 상을 차리잖아요. [청중1: 그라모.] 어른들은 전부 다.

[청중1: 옛날에 다 했다.]

그래 밥상을 들고 올라가다가 이, 인자 메느리들이 너무 피곤해서 방구가 나왔겠지. 방구가, “뽀옥.”

마 나와가, 시아버이가 눈을 퐁그레 쳐다보이, 개로 보고,

“떼끼, 요노무 개새끼 니 오디 이 방구로 꺾나.”

인자 며느리가 그래 뺏는 기라. 그래논께나 아이구 우습아. 이걸 우스운 이야기라. [웃음]

[청중2: 메느리가 개로 보고. 하이고 그래논께, 시아버지는 벌써 며느리가 방구 꺾 거를 아는데, 알고 있는데 벌써러. [웃음] 며느리가 부끄러버논께나, 개로 보고 청, 청 옆에 그제 인자 죽담에 개가 딱 죽담에 개가 딱 누우가 있어놓으이, 개로 고마 팔리뺏는 기라. 지가 부끄러바논께네. 그래,

“에잇, 이노무 개새끼 와 니 방구를 꺾노?”

이래. 그래 지가 꺾나 놓고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면서 그래 역사가. 옛날이야기가 있더라 고요. 그래 시아버지가,

“뻑지놈, 니가 저저, 니가 그 방구 꺾놓고, 어데 개한테다가, 말 못하는 개한테다가 그리 죄로 뒤집어 씌우냐?”

[청중2: 시아버이가 그러던가배.] 응 그러더라대 그래, 그 말 못하는 개한테는 죄를 뒤집어 씌면 죄를 도리(도로) 받는다. [청중1: 맞소.] 그리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인자, 그런 뜻으로 말을 하시이.

[사하구 설화 240]

## 부잣집 딸 병을 낫게 한 스님

이진늬(여, 1945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스님이 마이, 그거 동냥하러 다니잖아요. 그래 동냥하러 하도 부잣집에 딱 가니까, 부잣집 딸이 아파. 아파가 아무리 병, 돈을 써도 못 고치는 기라. [청중1: 그래. 그래.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 아무리 돈을 써도 못 고치는데, 이 스님이 딱 가가지고 인자 보니까, 인자 ‘뭐 하면 고친다.’ 이래 생각을 딱 하고, 인자 시주만 해가 나왔는 거야.

나왔는데, 인제 딸 곤칠라고 오-만 산을 인자 가는데, 가다가 보면은 와 절 말고 이런 거 있다. 기와겘이 쪼깨나이 지어난 기. [청중1: 그래, 그래 있다. 그래 쪼깨낸 거 있다 그계. 그래.] [청중2: 제 지내고 하는 데 있다.] 그래 해가 저물어갓고 그 옆에 가가 딱 들어 가가, [청중3: 생이집. 생이집.] 새이지(생이집: 상여를 보관했던 집)다 그래. 그 안에 고, 고 인자 못 들어 가고, 옆에 딱- 인자 날로 세울라고 딱- 있으이, 그 안에서로 하는 말이 뭐라커노. 그래,

“무슨 정승집 딸이.”

저거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승집 딸이 아픈데, 그래 인자 그 기와로 올라가갓고 기와장을 열 개만 딱 디끼면(뒤집으면), 뱀이가 들어 있다. 그 뱀이를 들어내면 그 딸이 산다.”

하더란다. 그 말, 그 말로 옆에서 들었는 거야. 그래가 인자 날만 새도록 딱 기다리는 거야. 그래 가가, 그 정승 집에 가가, 그 집에 가가, 정승집 사우가 됐다더나. 그 딸 곤치주고.

그래 그기 인자 우리 엄마가 했는데 상세하게 못하겠어. 모르겠어. [웃음]

그래가지고 기와장 열 개를 딱 디끼가(뒤집어), 진짜 뱀이 마, 딱- 따배기 틀듯이 이래갓고 들어앉았는데, 그래 그 뱀을 들어내고 그 하니깐, 그 딸이 낮아노이까, 그 집 사우가 됐다 캐 그 남자가.

[사하구 설화 241]

##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진늬(여, 1945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아니, 저거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기로 그 경주, 저 저거 에밀레종을 치면,  
“에밀레-, 에밀레-”

[청중1: 옛날에 그랬다. 그래. 옛날에.] 근데 에밀레종 만들 때, 아-무리 만들어도 안 돼  
갖고, 저게 저 저 절에 부처님이, 스님이 시주를 가니까, 한 집에 떡 저녁 들어가니까, 시주  
하라 하니까,

“시주 할 건 없고 우리 봉덕이나 주까?”

이랬거든. 자기 딸로 안고. [청중2: 그래 그런 말이 있었다.] [청중1: 야, 그래 말이야.]  
그래니까네, 그기 마 봉덕이를 열어야 이 에밀레가 종이 쳐지는 거야. 그래가 그 봉덕이가  
에밀레종에 드갔다 하던데. [청중1: 그런 말 있다.] [청중2: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 있었  
다.] 에밀레종을 만들 때 봉덕이를 넣었다 말이야. 그래노이 지금 치는 게,

“엄마”

카는 게 아이고,

“에밀레-, 에밀레-.”

[청중1: 에밀레, 에밀레, 그래. 그래. 경주.] 그래서 에밀레종이라.

[사하구 설화 242]

## 고려장 이야기

이진늬(여, 1945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경주에 누기가(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를 지고 산에 가가 버리고, 그래 인자 지계를 버리고  
오니까,

“아버지 지계 버리지 마라.”

카이, 그래,

“왜 안 버리냐?”

카이,

“지계 내가 가져가야, 아버지 갖다놔야, 아버지 후제 저다 갖다버릴 거 아니냐.”

고, 그 소리 마, 그래 고려장이 없어졌다 하대.

[사하구 설화 243]

## 봉사와 병어리 부부의 대화

이진늬(여, 1945년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할매는 병어리고 할배는 봉사고, 이래가 딱 둘이가 살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불이야!”

커이까, 할매는 듣길걸. 할매가 귀가 어둡제? [조사자: 할매가 병어리니까 귀가 어둡겠지예]  
귀가 어둡고. [조사자: 남편이 이제 봉사니까, 귀가 들리니까.] 그래 들리니까, 이 할매가  
인자 눈이 밝으니까 밖에 불난 데 가봤는 거라. 그래,

“어데 불났드노?”

커이까네, 여대[여근부위에 손을 대며] 손을 딱- 대니까네,

“아, 보독께 불났더나.”

이라더란다. [일동 웃음] 그래갖고 인자 또,

“그 얼마나 탕더노?”

그라이까네, 여게 인자 또 꼬추로 이래 있는데, 영감 꼬추로 만지이까네,

“도리 기등만 남았더나.”

이라더란다.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244]

### 목을 달라는 호랑이

배분이(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안자 목을 한 동이 이고 가는데, 한 모랭이(모통이) 돌아간께, 호랭  
이가 나타나갖고, 그래,

“할무니 할무니, 그 목 한 덩거리(덩어리) 자문, 주먼 내 안 잡아묵-지.”

그란다네. 그 이야기 들었어예.

[조사자: 그래가지고 자 뭇는가?] 몰라예, 그랬는둥.

[사하구 설화 245]

###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배분이(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우리 안방에 마 방이 비잡아서, 만날 우리 엄마 배 우에 누 잤다 현다. [일동 웃음]

[사하구 설화 246]

### 며느리의 방귀 힘

배분이(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시집을 갔는데 참, 메느리 얼굴이 노라텐게(노랑게 되니까), 시아버이가 있다가,  
“메늘아, 야야 와 얼굴이 노라지노?”  
“아부지, 방구를 몬 끼서 그렇심다.”  
“야야, 내가 기둥 잡으꾸마 방구로 끼라.”  
كنته, 열두께 마 기둥이 희뜩 넘어가뻘다 카대. 저짜(저쪽에) 앞에 가서 또 뽉! 끼니까  
빠딱 섰부더라요.

[사하구 설화 247]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배분이(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저 오데 갔다 오더마는 술을 묵고 체했든강(취했든가) 어졌는강 술도 안 묵거든, 한 모래이  
(모통이) 온께, 고마 씨름 하다 마. [이 일을 당한 사람을 지칭하며] 재봉이 그런께 있어.

그래 안날(다음날) 아직에(아침에) 날이 새서, ‘이놈의 요 뿔이 있는고?’ 싶어 간께네, 빗자루  
몽댕이 콩콩 한 개 서가 있더라요. 거기 그랬어예.

[조사자: 도깨비가 아이고.] 예. 토깨비가 아이고 거기 그랬어.

[사하구 설화 248]

## 죽었다 살아난 사람

배분이(여, 1934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옛날 죽었다꼬 막 곱 안에 여가(넣어서) 염을 해 냐는데, 그 앞방에 요 요 서 있음께 마, 지적복복 한께 쳐다 본께네, 곱이 마 쪽 서더라 카대.

그래 그 사람 오래, 오래깁(오래도록) 살았다. 그런 기 짤룬(잘룩한) 데 포가(표시가) 있다 쿠대. 짤룬. 옛날에 삼을 가이고 얼마나 자르노 염 한다고. 잘룩잘룩 이런께, 그래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우리 클 때, 쯤깁할(조그만 할) 제.

[조사자: 그 곱이 서던가?] 예. 곱이 여 평풍을 쳐 냐는데, 평풍 뒤에 쪽 머 서더라 카대. 그래 마 놀래서 마, 그것도 상주가 옛날에 가 안찬다(얕게 했다) 쿠대. 그래가 기어이 안찻다 카대. 그래가 곱을 인자, 곱 문을 열어가이고.

[조사자: 곱을 터준카네(터뜨려 여니까) 아죽 살아 있어?] 예. 그래가 오래 살았다 아이가, 그래가이고.

[사하구 설화 249]

##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예종순(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그래 아들이,

“어무이 모시라.”

이렇게 놔놓고 왔는데, 그래 지령이로 파가 무이 어찌 맛이분지예(맛있는지) 자리 밑에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놔다가, 그래 아들이 아갓고(와서),

“하이고 어무이, 우찌 이래 저 살이 이래 좋습니까?”

카이께네,

“야야 내가 이거로 무서 이렇다.”

“[놀라듯이] 어마야!”

캄서러, 지렁이, 지렁이라 하대. 그런 소리. [조사자: 그때 눈을 깜빡 떴는가?] 예.

[사하구 설화 250]

###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예종순(여, 1937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처갓집에 인제 왔다고, 우리 영감이. 그래 큰집에 간다고, 저녁에 저녁 때 저녁 시간에 올라가는데, 막 술이 한 잔 되노이, 마 토째비한테, 그 토째비라 카던데, 토째비한테 마 흘키 가지고예 막 산에꺼정 저리 올라 가.

거기 원 도로걸으몬 여 인자 공동산인데(공동묘지가 있는 산인데) 고(거기), 고 인자 오리 가는 고 인자 사이데 산인데, 막 과-암을(고함음) 지르며 올라가더라 카네.

그 저 우리 동네 사람이 보몬, 거 인자 눈고(누구인가) 하몬, 우리 남동상이 인제 의를 정해가 형아 동상아 카고 지내는 가가(그 사람이) 해필 봤는 기라.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형님. 저 명대 자형이 산에 마 흘키 올라가미 막 괄을 지르고 그라더라.”

그래가 막 뛰어 올라가가 사람을 텍고(데리고) 내려(내려) 와가. 그래 안 그랬으면 죽었다 캐샀대.

[사하구 설화 251]

### 하늘이 도와 호식 면한 아이들[해와 달이 된 오누이]

용금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엄만 줄 알고 그라니까 호랑이라. 그래갖고 저저 아 둘이가 얼마나 놀래갖고 이래봤던지, 우에서 하늘에서러 뭐 새끼로 내려주갖고 그거로 타고 하늘에 올라가 살았다 이라더라. 옛날에.

[조사자: 호랑이는 타고 올라가다가 우쨌노?] 호랑이는 타고 올라가다가 널찌서, 썩은 줄로

주가지고 호랑이는 널찌고, 아는 올라가 살고 이랬다. [조사자: 올라가서 살고.] 어. 그런 우리 옛날에 들었어.

[사하구 설화 252]

### 자기 새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용금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진할매라 카던가 이렇는데, 산에 나물 캐러 올라가니까, 마 새끼가 요런 기 마 오글오글 하이 있더라 카네. [조사자: 호랑이 새끼가.] 예. 그기 어찌 좋은지,

“아이고 요 요놈의 새끼 좋다.”

카민서 막 그거를 하니까, 인자 지 에미가(어미가) 어데서 허어- 커다 보니 호랑이라. 썩가 빠지게 뛰내리 와갖고 오이, 그래가 나물 캐는 거, 바구미도(바구니도) 다 띠(떼어) 내빼리고 오이께네, 그 안날에 집집마다 다 갖다 주더라 카네. 호랭이가 다 물어 주.

호랭이가 [조사자: 귀여워한다고.] 귀여워한다고 그거로 우찌 알고 다 지저금(제각기) 집 앞에 다.

[사하구 설화 253]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용금자(여, 1938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고래 인자 마 할매로 갖다가 거 딱 문을라고 짐을 지고 있으이께네, 지게로 내빼리고 저거 아버지가 내려오이께네, 지게로 아들이 딱 다부(도로) 지더라 카네.

“니는 이 새끼야, 이거 와 지고 가노?”

카이까네,

“나도 아버지 그거 하모 나도 지다가 내빼리야지.”

하더라.

[사하구 설화 254]

### 고려장을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김영순(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어머니로 좋은 옷을 해가지고,  
“어머님, 오늘 날도 좋고 그러니까, 어머님, 꽃구경 가자.”  
이래면서 어머니를 업고 인자 가는데, 산길, 산길, 산길, 산길, 산길 자꾸 가는데,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니깐, ‘아하 이기 꽃구경이 아니라 이기 아무래도.’ 자기가 고래장이라는 얘기는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인께네 이 갈 때마다 구비마다 솔잎을 한 잎씩 한 잎씩 이래 놔갖고 그래 갔는데, 갈 때는 그래 저저 무엇이고 아들이(‘아들에게’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함.) 갈 때는 그 솔잎을 주면서,  
“이걸 따라, 그래 따라 집을 잘 찾아가라.”  
하더라 카대.

[사하구 설화 255]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문순이(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돌보라꼬 이러 카고 갔는데, 하도 인자 갔는데, 물(먹을) 것도 그 당시 없는데, 그래 메느리가 참 돈도 업고 해서, 꺼시름(지렁이를) 잡아다 단지다 고아가지고 자꾸 시아마시 봉양했네. 그래 얼굴이 부혔는(보양게 된) 기라.  
그래갖고 인자,  
“하이구, 힘드나 보네.”  
허이께, 시아마시가,  
“아이구 내가 열매나(얼마나) 우리 메느리 좋아, 맛이 있는 기 싶어서 그거 꺾디를(건더기를), 참 형님한테, 자리 밑에 열어 놔어예.”  
그래 신랑이 군에 갔다 왔는데, 그래 아이구 엄마를 보이, 너무 얼굴이 훗 좋거든. 자리

들시 보이,

“여보, 우째서 어무이가 저렇게 얼굴이 좋노?”

카이꺼네, 그래 저 시아마시가,

“아이고 야야, 내가 니 가고 난 뒤에 메느리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이 힘이 나고 좋다. 니 자리 밑에 함 봐라.”

캄서러, 이 자리 보이께, 꺼시 말란 기랍니다. 그래가지고 저저 신랑이 탄복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다.

[사하구 설화 256]

###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문순이(여, 1936년생) 구술

정두련(여, 1936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문순이] 밖에 있는데, 그래 아가 울어사이께네 그래, 울어사니께네, 호랑이가 [정두련] 호랑이가 듣고 있으니까. [정순이] 듣고 있는데, [정두련] 아가 울어싼게,

“뭐 주꼬? 뭐 주꼬?”

캐도 자꾸 운다. [정두련] 자꾸 운께,

“꽃감(꽃감) 주까. 꽃감 주까.”

쿵게, 딱 끄치더란다. [정두련] (자신의 말에 동의를 구하듯이) 그래서 호랑이가 ‘아이구 꽃감이 내카마 더 무십구나’ 이래 생각했다 어이.

[사하구 설화 257]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박옥련(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올라가가지고, 호랑이가 소낭구예(소나무예) 올라가가지구, 아를 잡아, 안자 다 잡아먹고, 아를 마주(마저)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못 잡아먹으니까이,

“손 한 분 내밀어 보라.”

고 했는데, 문틈으로 들이미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 손이 아니라.”

고 한 거라.

썩은 줄을 내려 미른(밀은) 거라 호랭이는. 호랭이는 썩은 줄을 내리 밀어서, 아가 타고 올라가다가는, 인제 툇 떨어져가지고, 응글 안에 툇 떨어져서 그거는 직살이 돼고 죽고 호랭이는.

이 아는 하늘에서 그저 도와가지고 하늘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희졌다는 거야.

[사하구 설화 258]

###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옥련(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아들이 군인을 갔는데, 사는 기 칸칸한(가난한) 거라. 가난하게 살았는데 메느리가 자꾸 이제 시어머니를 인제 고기국을 끓여주더래. 고기국을, 고기국을 끓여줬는데, 신랑은 인제 군인 가고.

고기국을 끓여줬는데, 이 할매가 견대기는 자리 밑에다 너난 거라. 자리 밑에다 너놔가지고 이눔이끼 삐쩍 말른 거라. 말르니까, 아들이 휴가를 오니까,

“아이고, 애미가 이렇게 나를 만날 때마당 고깃국을 끓여줘서 이렇게 잘 먹었다.”

고 그러니까,

“니도 좀 먹어봐라.”

하고서는 내노니까네 찌렁이더라네(지렁이더라네). 찌렁이를 그렇기 잡아다가 그렇기 끼리(끓여) 먹여서 어머니를 아주 부형을 맨들어 놔드래요. 살이 저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무이가 눈을 떴다는 거여.

[사하구 설화 259]

###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옥련(여, 1935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자꾸 고려장 감이 많잖아요. 빨리 안 죽으니까이. 그래서 아들이 저 어무이를 델고서는 (데리고) 지고서는, 인제 지게다 업고 인제 가니까, 손주가, 손주가,

“할머이를 왜 업고 가냐고?”

그러니까는,

“저게 가문 집이 좋은 기 있다.”

고 그래가지고 가다가가다가 보이, 야가 뒤를 따른 거여. 뒤를 따라가지고서네 보니까 구덩이로 파놓고 할무이로 고거다 놓고, 밥그릇을 요렇게 놓고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가지고서네 아버지가 먼저 오는데, 아 이 지게를 내빼리고 오니까,

“이 지게를 내가 가져가서 우리 아버지 저거 해서 할무니처럼 그렇게 한다.”

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 고려장 감이 없어졌대요.

[사하구 설화 260]

###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꽃감

이망래(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말로 안 하고, 아가 안 울고 자꾸 우더란다. 안 끈치고(그치고). 그래서,

“꽃감(꽃감) 주면 안 울래?”

쿵게, 그래 꽃감 주이 똑 끈치더란다. 호랭이부텨(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좋다 쿠더란다 그제. [웃음] 안 울고 똑 그쳤어, 아가. [웃음]

[사하구 설화 261]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망래(여, 1926년생) 구술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그 풀뽀기라꼬, 키가 팔대장산 겘은(큰 산같이 매우 큰). 만날 밤에 오는 기라. [청중: 남자 가?] 남자가. [조사자: 무슨 이름이 뭐라고?] 풀뽀기라예. 남자 이름이 풀뽀기라. [조사자: 아하.]

그래가 만날 밤에 오몬, 저 시모 중 응덩이 있어 그 녹이 찌고 글타 그 오몬 커다큰 키가 커다란 팔대장산걸은 사람이 지하고 대하자니(대결하자니), 저 그석하고 할 때는 토깨비하고 씨울, 싸움할 적에는 지가 높은데 서야지, 사람이 높은 데 서야 되지 낮은데 서면 못 이긴 단다. 그 높은데 서갓고 그놈을 썰리 잡아 넘가빼고, 집에 오서 그 이튿날 가본께, 부작댕이 [조사자: 부지깽이.] 빗자루 몽댕이, 예 그런 기더란다. 그런, 여자 그 뭐 있을 제 피 묻은 거 그런 거 깔고 앉이몬 그기 토깨비 된단다.



##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 박경수의 현장조사 설화 -

1. 복구 설화
2. 사상구 설화
3. 사하구 설화



## 1. 복구 설화

[복구 설화 1]

### 온갖 물건을 갖다 주는 도깨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LB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복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깨비이야기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유도하였다.

줄거리 : 사람이 도깨비와 사귀면, 도깨비가 온갖 것들을 잡아서 사귀 사람의 집 사립문에 걸어 두었다.

옛날에 진짜 참말로 이거는 진짜 전한 일인데. 우리 외삼촌이 장심이 역수로 세다고. 함안 이거든 고향이. 그런데 토채비하고 진짜 상대를 해.

보로 물꼬가 터졌는데 아무리 마카도(막아도) 안 되더마는, 그 토깨비 거기 물꼬를 마카는 께네 거기 생전에(결코) 안 꺼지는 거라. 그래 안 꺼지고.

그래 그 옆에 토랑(도랑, 개울)가 살았는데. 자고 나면 대문에 있제 저저 대로 갖고 이리 엮어갖고 한 대문 있제, 그때다가 뱀이 잡아다 끼놓고, 또 저저 고기도 잡아 끼놓고 온갖 걸 다 갖다 놓는 기라. 도채비를 갖다 놓는 기라. 토채비를 세기모(사귀면) 그런 기라 인자. [청중: 와아.] 그래 갖다 나 놓고는, 그전에는 자(字)거든. 자 자를 불렀거든.

“연이! 연이!”

부르는 기라. 저기 또 왔다쿰시로 말 안하고 있다가 아적에(아침에) 나가보면 고만 달아 놓고 마 갖부고 없고 이런 기라.

세기노모(사귀어 놓으면) 온갖 거 다 갖다 주는 기라 뭐 깨구리도 잡아 걸어 놓고 대 그때다가 사래문에다가(사립문에다). 어어어. 우리 함안에 살았거든요. 어 거기 안 터져.

[조사자: 그런 도채비가 있으면 부자되겠는데요 금방.] 아니. 세기모 부자되고 몬 세기모 안 돼. 세기모 부자되는 기라. 그런 기.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292-283쪽.

[복구 설화 2]

## 사람을 홀리는 여우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1\_PKS\_LB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복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먼저 여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해 주었다.

줄거리 : 담이 약한 사람이 있었다. 예전에 밤마다 혼자 다니면 무엇인가가 뒤를 따라 오면서 발꿈치를 물었다.

장심이 약한 사람 있제. 산에 갔다가, 장심 약한 사람 우리 외숙모가, 외삼촌이 별미가 (별명이) 면장이거든 통통하이 억수로 간판이 좋은데, 장심이 없는 기라. 해만 지면 못 나가는 기라. 뒤에 뭐 따라싸서. 발꿈치를 까치까치 따라사서. 그런데 우리 외숙모는 또 여자라도 억수로 장심이 센 기라.

할라고 따라가몬 아무것도 없어. 할라고 있어모 또 없어모 고마 마 또 시잡는 기라. 그래 갖고 밤에 못 나가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지금은 없지마는 옛날에는 그런 거는 맞아요.

[조사자: 여시가 썩서 그런갑니까?]

야신가 뒷인고 모르겠다. 헛것인가 야신가 그거는 모르겠고, 발꿈치로 까끔까끔 물어뜯는 (물어 뜯는) 기라, 발꿈치로.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294쪽.

## 2. 사상구 설화

[사상구 설화 1]

### 잠자리도 모르는 바보 남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KBL\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김복림, 여, 83세

구연상황 : 다른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보자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다며 바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바보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바보라서 아무리 부잣집이어서도 시집을 오는 처녀가 없었다. 한 가난한 집에 재산을 떼주고 딸을 데리고 왔다. 하지만 아들이 워낙 바보이다 보니 잠자리를 하는 것도 몰랐다. 부인이 나이가 차서 바보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나니, 바보가 그것이 참 좋았다. 바보 남편이 부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어제 밤에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며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부인이 ‘한잔’이라고 하자, 그 다음부터 한잔 달라고 하면서 부인을 쫓아다녔다. 바보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이 하는 말뜻을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한잔은 잠잘 때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다.

옛날에 실은 저, 대기(매우) 없는 집에 딸하고, 대기 이래 돈은 부잣집인데, 아들이 바보 비수름한(비슷한) 이런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 그런게네 인자 좋은 아가씨들 똑똑하고, 그한 거는 그런데, 아만(아무리) 돈이 많애도 안 가거든, 옛날에도.

그러게는 이 집을, 대기 처이집에는 무을 기 없고, 이집 아들이 있는 집에는 대기 부자고 이랬는데, 메누리로 못 봤어.

그래 인자 대기 없는 집 딸로 갖다가 재산을 한 모금 띠주고 며느리를 데꼬 왔는 기라. 데꼬 왔는데, 이기 신랑이 아무것도 모르는 기라. 와가지고 갯혼을 해가 와 봐도, 이래놓이께, 색시가 하도 인자 나이도 차고 이래 그해 나놓으니까, 그래 인자 색시가 참 애기 놓을라고 잠자리로 했는가 봐.

그리해보이커네 이 바보 신랑이 한 번 자고 나보꺼네 대기 좋는가 봐. 그래 저 색시가 정지에 밥을 하러 나왔는데, 부엌에 밥을 하러 나와놓이 따라 와가,

“어야, 어제 한 거 그거 머꼬 어? 어제 한 거 그거.”

자꼬 그래싸이카이 똥이라고 이름을 갯카 줄라 카는 기라.

“어제 한 거 그거 뭐꼬? 이름을 갯카 줄거다.”

“그거는 이름도 모른다.”

커이, 샘이 가도 따라와가지고,

“그거 뭐꼬? 그거 께카 주가. 어?”

카고, 또 밥 하러 와도 또 정지에. 그래 저거 내가, 신랑 어마시가 가만히 들으이,

“저거 무슨 소리고. 저거 그거 뭐시라 카노? 뭐시라 카노?”

캐싸가지고, 그래 한 분은 또 정지에 와서 자고 나서 그러 캐서, 그래 색시가 한단 말이,

“그거는 이름이 없고 한잔이다, 한잔이다.”

캐거든. 그니 한잔 소리 들었다고 질가 가도, 샘이질에<sup>16)</sup> 가도,

“한잔 주가 응!”

부역에 와도,

“한잔 주가 응!”

자꾸 이래 싸. 그래가 인자 시어마시가 가만 듣고 보이 ‘저기 무슨 소리인공?’ 싶어.

그러그러 자꾸 따라 댕기 한잔 주까, 그기 한잔이라고, 이름이 한잔이라고, 하도 이름 께카  
줄라 캐서 한잔이라 캐는데, 따라 댕김에 한잔 주가 한잔 주가 캐쌌더니.

그래 신랑은 바보가 되가지고 그거로 모르는데, 색시가 인자 나이도 차고 이라이꺼네 인자  
그했는가 봐. 그래가 임신이 되가지고 배가 불러 오이께, 그래 인자 시어마이가 눈치로 알아  
채고, 그래 그거로 ‘아들이 저러 카는 그 소리가 그 소린갑다.’ 하고, 그래 그거로 아들 입으로,

“거기 한잔이라 카는 거는 잘 직에만 그거 한잔이지, 따라댕기매 하는 소리가 아이다.”

캐놓이, 그러고 그 인자 나이가 차고 인자 나로 먹고 아도 놓고 그란게, 그거로 좀 깨달  
더란다.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51-353쪽.

[사상구 설화 2]

## 꼬부랑 이야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Ss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손순자, 여, 71세

---

16) ‘샘에서 물 길는 일’의 뜻임.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가 꼬부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더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보자가 나서서 하나씩 말로 구술했다. 청중 한 명이 자신도 아는 이야기인 듯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끼어들어 말하기도 했다.

줄 거 리: 꼬부랑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꼬부랑 똥을 누자 꼬부랑 개가 와서 똥을 먹었다.

꼬부랑 할마시가, [청중: 꼬부랑 할매.] 꼬부랑 길로 가다가, 꼬부랑 똥이 누룩아서(누고 싶어서, 마려워서), 꼬부랑 똥을 누이꺼네, [다시 기억하여] 아, 꼬부랑 할마시가, 꼬부랑 짹대기로 짹 치고, 꼬부랑 길로 가다가, 꼬부랑 똥이 누고짹아서, 꼬부랑 똥을 누이꺼네, 꼬부랑 개가 와가, 꼬부랑 [웃으며] 똥을 무이꺼네(먹으니까), 꼬부랑 짹대기로가 꼬부랑개로. (청중: 꼬부랑 꺽꺽 꼬부랑 꺽꺽 한다 그러대.)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53쪽.

[사상구 설화 3]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자료코드: 04\_21\_FOT\_20100123\_PKS\_SSJ\_0002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2010.1.23

조 사 자: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손순자, 여, 71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도깨비 이야기도 좋고 호랑이 이야기도 좋으니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라고 하며 다음 도깨비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옛날에 한 사람이 저녁 무렵에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 오는 길에 도깨비를 만났다. 도깨비가 따라오면서 계속 씨름을 하자고 했다. 밤새도록 도깨비와 씨름한 끝에 도깨비를 이겨서 나무에 허리 끈을 풀어 묶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허리띠를 찾으러 가보니 도깨비는 없고 몽당 빗자루가 묶여 있었다.

날이 인자 이래 저녁답 됐는데, 논에 인자 물 대로 갔는 기라. 물 대로 갔는데, 아이고 마 물 대로 가가 인자 오이꺼네, 자꾸 뒤에서 따라오미 씨름 한번 하자 카더라 카네. 자꾸,

“내캉 씨름을 한분 하자. 씨름 한분 하자.”

그래, 우리 할배가 담이 컸는 모양이라. 그래 인자 물 대러 가께네 짹대기는 가(가지고) 땡기잖아. 그래가 돌아보니까네 뭐 시근에(눈 짐작에) 키가 마 자기, 우리 할배가 큰데 마 할배캉 더 커비더라 카네.

[청중: 헛깨비가 헛깨비.] 그래갖고 오다가 마 돌이 마 함 붙었는 기라. 그 도깨비하고 붙어가 마 밤새도록 싸우고 마 이래가 마. [청중: 그때 술이 좀 취했던갑다 술 한잔 먹고.] 야, 야. 그래가 마, 거 마 눈에 마 마 또 거기 한번 물에 한번 쳐박히문(쳐박히면) 또 우리 할배가 한번 또 쳐박히고, 이래가 마 마 참 마 굉장했다 카대.

이래가 한참 마 그래 하다가, 하다가 그래 그 옷 얼매만 오이께네 나무가 하나 있더라 카대. 그래가 마 나무에다가 마 요거로 마 독, 그 그거로 키가 팔대장 그거로 마 이 허르끈을 빼가지고 마 딱딱 흘까 매나놓고 그 질로 집에 왔는 기라.

그래가 인자 날이, 날이 새갖고, 내 허르끈을 찾으러 가야 되는 기라. 인자 옛날에 허르끈 뭐 형겁때기 그 허리끈 거기 되노이, 그래가 가이꺼네 세상이 몽당빚자리, 몽당빚자리 그거로 그래 아무치게 매났더라 카네.

그러꺼네 지금도 그라지마는 여자들 그 맨서 있을 직에 빚자리 같은 거, 이런 거 못 깔고 앉잖아. 그거 맨서(menses, 생리) 피가 그런데 문으문 밤에 거기 둔갑을 한다.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54-356쪽.

[사상구 설화 4]

## 고동바위와 여우고개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S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옛날감자탕집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손증식, 남,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또 해줄 이야기가 있는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구술된 것이다. 모라동의 뒷산에 있는 고동바위와 여우고개에 관한 짚막한 지명답이다.

줄거리 : 옛날 모라동 뒷산 아래에 몇 집이 있는 곳에 고동같이 생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를 고동바위라 했다. 이 고동바위에서 조금 더 가면 여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여우고개가 있었다. 이 여우고개를 넘어 구포2동으로 갔다.

경로당인데, 요걸 왜 글나면, 고 산 밭이 이래 돼 있고, 산이 요래가 또 고동같이 생긴 고 고 집이 몇 집 있었어. 개서(거기서) 고동바우라 캤는데, 그 위에 고서 조금 넘어가몬 야시고

개라 하는 기 있어. [청중: 야시고개, 네.]

야시고개를 넘어가면 야시가 그때는 많애. 많애가 마 야시가 거기 인자 어떤 거는 콩지가 하얀 기, 요런 기 콩지로 하얀 걸 내놓고 또 사람을 보몬 팽 팽한다고, 야시들이.

그래가 뭐 야시들이 인자 돌아가고. 그라모 사람들이 거 그래가 구포2동을 넘어갔지.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56쪽.

[사상구 설화 5]

### 처녀귀신을 피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3\_PKS\_SS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손순자, 여, 7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도깨비 이야기를 구연한 후,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영감이 시골에서 논둑길을 오는데, 소복을 한 여인이 뒤를 따라왔다. 영감이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온 성냥으로 계속 불을 켜니 독 아래로 사라졌다.

우리 영감이 촌에 있을 직에, 그 인자 금동이라 카는데 거서 절로 저저 예릉꺼정 이래 땡기는, 그 도로는 도로고 또 우에 똑이 요래 있거든, 지금도 있어.

그런데 그래가 그 인자 어데 갔다가 이래 오이꺼네, 뽀한 소복을 해가 자꾸 뒤에 따라오더라 카는 기라. [조사자: 여자가?] 우리, 우리 지금 우리 할배한테 자꾸 따라오더라 카는 기라.

그래갓고 우리 할배가 마 소리 막 지르더라 카대. ‘이상하다’ 싫어서. 그래가 인자 성냥을 가오미 내다(계속) 불로 켜는 기라. 이래 키고 키고 이라이께네, 그래 마 똑 밑으로 살 내려 갔부더라 카네. 똑 밑으로, 똑 밑으로 내려갔부더라 하네.

그래가 그래가 그 질로, 그 질로 지금 인자 그 그기 인자 지내오몬 아직꺼정 무섭다 카네.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57쪽.

[사상구 설화 6]

## 처녀귀신을 태워 준 운전기사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3\_PKS\_S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손순자, 여, 7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한다고 부추기자, 제보자는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고갯길에서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차를 세웠다. 차에 여자를 태워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사람이 앉아 있고, 백미러로 보면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가다 그 여자가 세워 달라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주었다. 여자는 잠시 기다리면 차비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갔다. 아무리 기다려도 차비를 가져오지 않자, 운전기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집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 날이 그 여자의 제삿날이었다. 운전기사는 제사 음식을 대접 받고 차비를 두둑하게 받았다.

운전기사가, 영업하는 기사가 또 인자 차로 몰로 이래 가이꺼네, 어느 길모퉁이 이래 고개 이래 넘어가이꺼네, 뽀한 소복을 해가 차로 좀 서자 카더란다. 그래가 ‘이 밤중에 우짤 아가 씨가 저래 거하는공?’ 싶어가지고 차로 대가 실고 갔는 기라.

분명히 실었는데, 뒤에 쭉 보이꺼네 사람이 뒤에 이래 돌아보이 있고 백미러에 거게 비지를 안 하는 기라 거는. 비치지는 안 하는데, 또 가다가 이상해서 함 돌아보이, 그래 아무 데 가디마는,

“요 좀 시아돌라(세워 달라).”

카더란다. 그래가지고 거 딱 인자 기사가 시았는(세웠는) 기라. 시아꺼네 처자가,

“그래 내가 안에 드가가 저 차비로 가나올까네 요 좀 기다리라.”

카더라 카네. 그래가 이놈의꺼 처자는 그 집에 드갔는데, [힘을 주어 말하며] 아무리 기다리도 차비 가 나오는 사람이 없는 기라.

그래가 인자 이 기사가 ‘이상하다’, 그러니 사람이 그 돈을 받으러 가야 될 꺼 아이가. 그래 안에 드간꺼네, 안에 드간꺼네 집에 드간꺼네, 그래가,

“아이고 우예 왔는고?”

물으이꺼네, 그래,

“요 마 아가씨로 태아왔는데, 차비로, 차비로 그래 저 갖고 나올라 캐서, 안 가 나와서 그래 내가 이란다.”

그래가 그카이꺼네 주인집에서 인자 퍼뜩 인자 알아채고,

“아이고 요즘 앓으이소. 술이나 한 잔 하이소.”

카맨서러 그래 이라는데, 방을 이래 드다보이까네 그 처자 사진이 딱 거 걸리가 있더라네.  
[청중: 영혼이다.] 응. 그래가 그 처자 그날 인자 제삿날이라.

그래갖고 그래 저거 엄마가, 그 집에서 차비로 툭툭하이 주더라 안 카나.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58-359쪽.

[사상구 설화 기]

### 시골 노부부의 서울 구경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3\_PKS\_S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정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손순자, 여, 7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그냥 우스개 이야기인데 괜찮느냐고 물어보았다. 조사자가 괜찮다고 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거리 :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서울로 나들이를 갔다. 여관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쪽쪽거리며  
맛있게 먹는 소리가 났다. 무슨 음식을 맛있게 먹는지 몰래 보니 두 사람이 옷을 벗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영감 부부가 따라 해보았으나, 찢지 않은 영감 때문에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 입은 개 주둥이보다 못하다고 흉을 봤다. 하루는 영감 부부가 어떤 건물을  
구경하고 있으니, 누군가 와서 몇 층까지 보았느냐고 물었다. 2층까지만 보았다고 하며, 돈을  
조금만 냈다. 영감 부부는 사실 꼭대기까지 보았는데 하면서, 서울 사람들이 툭툭하다고 해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흉을 보았다.

옛날에 영감 할마이 둘이서 인자 서울 나들이로 갔는 기라. 서울 구경하러 떡 갔는데,  
가가 여관방을, 여관방을 하나 얻어가 둘이서 떡 놓어있으꺼네, 그저 마마 쪽쪽쪽 소리가  
나고 마 알긋거든.

옛날에는 불, 이거 애긴다고 궁계로(구멍을) 내갖고 이래 저 다마로(전구를) 이래 걸치가  
이제 이 방도 이 방도 밝고, 이 방도 밝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마 마 마 마 어찌기 맛있기  
뭐 묵는가 쪽쪽 해싸서, 그래 영감이 저저 할마이가,

“영감, 요 한번 엮디리 봐라. 저 뭐러 저렇게 맛있기 묵는고 함 보자.”

그래가 [웃으며] 참 영감 지는 엮디리갖고 할마시가 이래 넘바다 보이 마 둘이서 흘랑  
벗고 마 서로 빨고 마 난리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렇게로 맛있는가?’ 그래 인자,

“영감, 우리도 한 분 해보자.”

그래가 인자 둘이서 머 촌에서 옳기 씻나. 둘이서 인자이 내리와가 흘락 벗고 그짜매꾸로 (그쪽처럼) 서로 빨아보이까네 마 꿀, [웃으며] 냄시가 마 나서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가 그 할마시하고 영감하고,

“에이, 서울놈들 입은, 입은 주디이도 아이고, 그 개, 개 주디이카마도(주둥이보다) 문 하다.”

카더란다. [웃음] 그 냄새 나는 거로 빨다고, 씻고 빠는 주는 모르고, 이 뭐 촌에 있다가 오이 저것도 뭐 저 머 그래놓이께네 마,

“아이고, 저 개, [웃으며] 개, 개나발카마도 못하다.”

카더란다.

그래, 그래가 인자 하나 서울 구경을 한다고 이리 쳐다보고 이래 있으이께네, 어떤 사람이 떡 오디,

“보소 보소, 몇층꺼정 봤는교?”

“내 인자 이층꺼정뻘이 안 봤다.”

“이층꺼증 봤은 돈 얼마 내소.”

그래 인자 얼마 줌는 기라. 주디마는 떡 방에 들어갔고,

“아이고, 서울놈들 똑똑다 캐싸도 내가 꼭대기꺼정 다 쳐다봤는데 내 2층꺼정뻘이 안 봤다 캐도 모르고.” [손뻘을 치며 웃음]

그래, 서울놈들 똑똑은 기 아이고, 지한, 지가 더 똑똑다 이기지. 끝까지 봤는데도 이층꺼 정뻘이 안 봤다 카이께네, 그래 돈 이층꺼정 막 받 거뻘이 안 줌다 안 카나 그래. [웃음]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59-361쪽.

[사상구 설화 8]

## 일본인과 중국인이 살 수 없는 모라동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3\_PKS\_S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옛날감자탕집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손증식, 남, 7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라동에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살 수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를 물어보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다.

줄거리 :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모라에 들어와서 살면 죽거나 사업이 망한다. 산 형세가 그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인과 중국인은 모라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모라동이 생긴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모라 내에 들오가 못 살아요. [조사자: 왜 그래요?]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오몬 죽어뿌.

[조사자: 죽어버려요? 음.]

그러면 일본인이 우리 한국에, 요 우리 요 다리, 지하철 일번 출구고, 인제 옛날에 도로 확장하기 전에 일본 사람 집이 이층에 가지고 있었는데, 거 오가 마 이사와가 살다가 마 다 죽어뿌.

죽어뿌이까 일본 사람이 여 사상에, 덕포하고 저는 일본 사람이 살아도, 우리 모라는 일본 사람이, 또 개울 건너 삼락에는 일본 사람들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모라는 들오몬 죽어뿌. [조사자: 그 왜 그런지 그건 흑시.] 그거는 머 전설이 인자 그 이 뭐 뒤에 산이 뭐 어땡고 뭐 뒤에 산이 그고.

거 또 중국 사람도 요 오가,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음식점을 해도, 중국 본토 사람들은 오모 문 해. 문 하고, 요 저 일동 옛날 사무실 앞에 거, 일본, 인자 중국 사람이, 진짜 중국 사람이 오가 있었는데, 오가 마 언제 죽고 아들이 안 되노이 사업하다가 탄 데로 이사가뿌.

그라고는 중국 사람도 안 되고, 일본 사람도 안 되는 동네가 우리 모라이라.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361-362쪽.

### 3. 사하구 설화

[사하구 설화 1]

#### 며느리 방귀의 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KSD\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김성득,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들이 방귀 이야기를 하자 신이 난 듯 생각나는 대로 막힘없이 구술했다.

줄거리 : 시집 온 며느리가 방귀를 못 끼어 얼굴이 노랗게 되었다. 시부모가 방귀를 끼게 하자 방귀 힘에 절구통이 굴러갔다.

“와 그렇노?”

카이카네,

“아. 나는 친정에서 방귀를 많이 끼다가, 방귀를 문 끼가 얼굴이 노랗다.”

카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구! 야야. 저, 저 방귀 저 끼라.”

그래,

“도구통 절에(결에) 가서 가만히 있으소.”

카더란다. 그라까네,

방귀를 끼모 도구통이 데굴데굴 구불러 갔다요. 얼마나 방귀를 많이 낀는지.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0쪽.

[사하구 설화 2]

####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아이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MH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 보 자: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소재들을 제공하자 제보자가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구연을 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뒷부분이 변형된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앞뒤의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았다.

줄 거 리: 홀어머니가 일 하러 간 사이에 호랑이가 아이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서 기절을 해서 죽어 버렸다.

옛날에 옛날에, 저게 아들 둘이하고 이 거스게 저게 호불애비가, 저 호불애비가 아니고 여자가 살았거든.

[조사자: 아들 둘이 하고?] 아들 둘이 하고. 그 인자 재너매 일로 해로 가와 그 인자 거덜 어주고 떡을 얻어가 오는데, 딱 - 저게 아 거 자아물라꼬.

“야야, 내가 왔다. 문 좀 열어라.”

쿵께,

“손 좀 봅시다.”

쿵께, 손이 아이거든.

“울 엄마 손이, 울 엄마 손이 아이요.”

쿵께,

“기다. 내가 마 베를 매고 풀이 묻어서 그렇다.”

그렇쿠더란다. 그래갖고,

“아이요. 아이요.”

쿵께네, 그라고 인자 저 그 사람은 인자 아 그거를 자아묵고 가고 저엄매 온께네 문 열어라 쿵께네 아 하나 있어야제. 그래가 그 사람이 기절을 하고 죽었다 쿠대.

[조사자: 아 잡아무서 기절하고 죽어뵈었어?] 아 마, 죽어뵈어 고마. 기절하고 죽었어예.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1-412쪽.

[사하구 설화 3]

## 며느리의 방귀 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MH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 보 자: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방귀 이야기가 나오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바로 구연했다.

줄 거 리: 방귀를 못 뀌어서 얼굴이 노랗게 된 며느리가 방귀를 뀌자 집이 날라 가버렸다.

그래 메느리가 노랑 방구가 앉아가서,

“야야, 와 그리 니가 노랑노?”

이러쿤께네,

“아부님 지가 방구를 못 끼서 그래요. 아부님 때문에.”

그러쿠더라요. 글개서,

“아이구 야야, 방구를 끼라.”

“내 방구 끼면 집이 날라가는데요, 아부님.”

쿤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아부님 저 기등을 꼭 잡고 있으쇼.”

쿠더란다. 그래 있는대로 방구를 낀데 집이 날라가뵈는 기라. [일동 웃음]

[조사자: 그 다음이 어찌 됐습니까?] 그 다음이 집이 날라갔는데, 영감하고 메늘하고 우찌 살았는고 모르지.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2-413쪽.

[사하구 설화 4]

## 나물바구니를 가져다 준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MH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 보 자: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이야기판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말을 끊고 직접 이야기했다.

줄 거 리: 처녀가 산에서 나물을 캐다가 호랑이 새끼를 예쁘다고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자 어미 호랑이가  
“어흥!”하고 소리를 내자 처녀들이 깜짝 놀라 나물바구니도 팽개치고 도망쳤다. 다음 날 일어나자  
호랑이가 나물바구니를 집에다 가져다놓았다.

옛날에는 처이들이 산에 나물 캐러 갔거든. 나물 캐러 강께네. 나물 캐다 본께는 호랭이 새끼가 있는 기라. 호랭이 새끼로 예쁘다고 요요 찢어싼께네(쓰다듬으니까),

“으흥!”

좋다고 이러캐뵈는 기라. 이렇게노이마, 나물 그릇하고 말키(모두, 다) 내놓고마 도굴도굴 구불러 가 집으로 왔는 기라.

와가 있은께네, 누 자고 난께네 나물 소꾸리하고 다 갖다 뵈더란다. 갖다 뵈더란다. 거 호랭이도 지 새끼를 좋아한께.

[청중: 지 새끼를 좋아하니께네 범이 좋다고 우는 소리에 갖다 뵈다.] 하모, 그래. 그래 그랬어.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3쪽.

[사하구 설화 5]

## 며느리의 방귀 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PP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박복선,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문호연 제보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구연하였다.

줄거리 : 방귀를 끼지 못하던 며느리가 방귀를 끼자 집이 넘어 가버렸다. 그러자 다시 반대 쪽에서 방귀를 끼니 집이 똑 바로 섰다.

“이쪽에 와야 안 된다. 요요 집이 넘어간다.”

이러카이,

“오오! 넘어간다. 집이 넘어간다.”

카이,

“이제 단디 잡으이소.”

캐놓고,

“거 이쪽 와서러 저쪽으로 가이소.”

카이, 저쪽 모서리 가 잡고 서서 이 카네. 탕 이쪽 와서 끼뿌이까네 집이 딱 바리 서더라 하대. [조사자: 다시 저쪽에서 한 번 더 끼니까 집이 또 그대로 바로.]

많이 끼, 씨게 끼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거든. 넘어가이카네 이쪽을 와서 바리 끼야 바리 설 거 아이가.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4쪽.

[사하구 설화 6]

### 며느리의 방귀 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P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박영순, 여, 8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것을 듣고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면서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줄거리 : 며느리가 방구를 끼니까 집이 한쪽으로 넘어졌다. 그러자 시부모가 방에서 가서 끼라고 해서 방에서 방구를 끼니 그제야 집이 바로 섰다.

며느리가 방구로 끼가. [웃으며] 그래 인자, 이쪽에서 방구를 끼니이카네 집이가 일루(이쪽으로) 씨러지고 저쪽에서 방구를 끼이카네 집이 일루 씨러지고.

“아이고! 아가 아가, 방아 가서 끼라.”

이래가지고.

방에 가서 끼이까네 집이 딱 바리 되더라 카고. [웃음] 그래 이야기가 웃을라고 했는갑더라. 어찌 우습운지.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4-415쪽.

[사하구 설화 7]

### 부모의 생명을 구한 바리데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BSM\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배삼문, 남,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바리데기 이야기를 아시느냐고 묻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제보자는 이야기 도중, 이것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구연하였다.

줄거리 : 일곱 번째 낳은 막내딸을 내쫓아 버리자 아버지가 병에 걸리게 된다. 이에 막내딸은 서천 서역국에 가면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구하러 간다. 막내딸은 도사의 도움을 받아 약인 천도복숭아를 따게 된다. 하지만 그 곳의 누군가에게 잡혀 집에 오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몇 년 후, 막내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관이 하나 나오고 있어서 물어보니 막내딸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딸이 그 복숭아를 아버지의 몸에 대니 아버지가 살아났다.

그런데 막내이 딸로 갖다가 후도차(쫓아) 내뿔어. 인자 울곱째를(일곱째를) 놓인카네 딸이라 서러 마 버렸뿌라 켜어. 이 딸이 안 죽어 살았어. 넘어(남의) 집에 살았어. 살았는데.

저저 아버지가 뱅이 들어가이고 죽을 모티에(순간에) 거 인자 무슨 말을 했냐 카모..

“서천 서역국에 약을 질어가 오며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 그 할배를, 살릴, 아바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서천 서역국이 어덴지 모르고 이 딸이 찾아갔는 기라. 내빠린 딸이 막내이가. 막내이가 저저 아버지를 인자 살리겠다고 찾아가가지고. 이거 이야기라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이야기인데, 그래 찾아가가지고. 참 서천 서역국이라는 데를 갔어.

가가지고 그래가 인자 그 천도복숭이라 하는 거 그런 거 땀다 카든가, 마 이야기하는데 도사가 걸차주는(가르쳐 주는) 약을 땀어.

따가지고 그양 오지를 몬 하고 거게 사람이 사람하고 께흔을 했어. 께흔을 해가지고 아 둘이를 덕고(데리고) 내려왔다 갔다. 가가지고 오니까 마침 오니까 행상이 나가더라 이기라. [조사자: 아, 상여가.] 어, 할배가 죽어가지고 나가더라. 나갔는데 나갔는데, 근데 이거 옛날이야기라 옛날이야기인데, 그래 인자 나가는데 그 죽은 행상에.

“죽은 사람이 누구요?”

이래 물었어. 딸이 그 약 지어 오는 딸이, 아 둘이 덕고 물으니까네 역시 저저 아버지더라 이기라.

그래가지고 행상 내려가지고 그 각구에(곽을) 뜯고, 뜯고 그 자기가 약 가안(가져 온) 그거로 갖다가 불랐다 카든강 허쳤다 카든강 그거를 몸에 칠해서 입에도 열고, 그 할배가 살아났다 카는 그런 얘기.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5-417쪽.

[사하구 설화 8]

###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ABG\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안봉기,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아는 이야기를 짚막하게 하나 한다면서 구연하였다.

줄거리 : 우는 아이가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그치지 않다가 꽃감을 준다고 하니 울음을 그쳤다. 그 말은 들은 호랑이가 자신보다 더 무서운 꽃감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갔다.

그런 말이 있대요. 범이 인자 아를 몰라꼬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 문 앞에 가만히 있으니까네 그 방 안에서 아가 자꾸 울거든예.

우이까네 그 부모들이 암만 달개도 안 근치디만은(그치더니만), [웃음] 그래가,

“아이고! 저 범 온대이, 호랑이 온다.”

캐도 안 근치디,

“아이고! 꽃감 주꾸마.”

그래 그친다 카대.

그래 범이 ‘아이고, 내가, 범이 온다 캐도, 호랭이 온다 캐도 안 근치디, 꽃감 온다 카이 근치는 거 보이, 내보다 꽃감이 더 무섭운갑다’ 카고 그래 마 내뻘다 카대요. 난 그것뻘에 모릅니더.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7쪽.

[사하구 설화 9]

###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JJR\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조정렬,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가가 호랑이 이야기를 해 달라 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 시작하였다. 제보자 자신이 시집을

가서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만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출 거 리: 제보자가 예전에 남의 집에 갔다가 밤늦게까지 부엌일을 하는 여자를 보고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고개 넘어 사는데 아이가 돌이고 남편이 병들어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음식을 얻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가 하루는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집에  
까지 데려다 줬다.

김해서 그꺼정 가이까, 이기 그때 정월달인갑다, 눈이 와서 태산같은데, 하이구 - 이놈의  
거 뭐 사돈에 팔춘꺼정 하나하나 앉아서, 오새는 뭐 이 저 합동으로 그거를 절로 받는데.

하나하나 앉아서 그거는데, 이놈의 거 뭐 칩어서(추워서) 죽을 판인데, 죽자고 하나하나 앉아.  
그것도 인자 방에는, 촌방이 얼마나 작노, 쪼끔하난 방에 포개서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찢데.

그때 우리가 낀 저 그거로 보이까, 시계로 보이까, 새벽 1시가 다 되가. 근데 부엌에서  
하는 아주머이가 꼬추리이 해가지고, 그래 뭐 임석을(음식을) 갖다 나르고 열추 칩어노이 다  
가고. 그런데 그 할매가 있는데, 그래 내가 그게 그 집안사람겘에서(같이서)

“아이구이! 저 할무이는 우째 집에도 안 가고 저래 이래 늦게꺼정 저라고 수발로 들고 있노?”  
이라니까,

“아이구이! 저 할매는 호랭이 타고 땡기는 사람이요.”

이라더라고. 그래 내가,

“호랭이로 우째 타고 땡기노?”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호랭이로 우째 타고 땡기노?”

그래가 난주께는(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먹던 거 뭐 임석을 소쿠리도 오새 이런 소쿠리가  
아이고. [손으로 바닥에 그리면서] 여기 요래 되가, 요게 요래 된 그 소쿠리에다 밥도 담고  
머도 담고 음식 묵다가 남안 거 뭐 그래도 은수시드는 게 아이라 묵다가 남안 거는 그 사람들  
다 가가는 거라. [청중: 호래이 줄라 그런다.] 아니, 그래 내가,

“아이구이! 저 사람들 뿔을 저래 저런 것만 가지 가노?”

내가 이라이까,

“아가 돌이고 남편이 오래오래 병 그거 해서 저 고개 넘어 산다.”

이라더라고.

“아이고! 이 저저로 들고 저 눈 속에 고개너매 우째 가느냐?”

고 하니까,

“아이고! 저 고개만 올라가면 저 할매이는 저 호랭이로 타고 가는 때문에 괜찮소.”

모두 이러더라고. 그게 있는 사람마정 그래.

그래, 내가 그때만 해도, 내가 그때만 해도 한 30이나백게 안 됐는데. 그리고 나는 본대  
가덕서 김해로 가가 김해서 사이까 그 호랭이가 우째 생겼는등 그거로 모르고 이래 그거  
하이까, 그래 인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 사람들이 넘우(남의) 대사집<sup>17)</sup>에 댕김서 그래가 이 임석 얻어가지고 그래 가서 그 병든 남편하고 그래가 산다.”

고 그래.

“아이고 답답해라이.”

그래가 저거로 이고 아이고 오새는 똥구루하기는 하제 소쿠리 이래 생긴 이거는 요쪽은 낮고 이쪽은 높고 이래. [청중: 채이맨꾸로 이제.] 채이맨꾸로 연상 채이맨꾸로 그리 생겼어.

“아이고! 저걸 이고 우째 가노?”

카이 고개 너머만 가몬 호랭이가 그거 한다고. [청중: 호랭이가 타다 준다. 불쌍타고.]

그래 인자 그 고개 너머는 호랭이가 나오는 덴데 그게 가몬 그 할매가 어쩐 게 아이라 맨날 그라고 댕기이까, 한 분은 가이까 호랭이가 턱- 누우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아이구이! 짐승아, 나는 이 세상 살기도 구찮다. 날 잡아갈라 카거든 잡아가라.”

카문서, 임석을 놔놓고 앞아가 있으이까 호랭이가 와서 저 - 옆드리가 있다, 한참을 었디 리가 있어서,

“그러면 니가 날 태아다 줄래?”

카이, 고개로 끄떡끄떡 하더랍니다. [청중: 불쌍타고 그라제.]

그래가지고 그 호랭이가 타고 그래 저거 집앞꺼정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 인자 그 할매가 아무데로 댕기도 늦게만 가몬 그 호랭이가 나타나서 그래 [청중: 실어다 준다.] 실어다 주더 랍니다.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18-420쪽.

[사하구 설화 10]

## 해인사에 호식이 없는 이유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JJR\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조정렬,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호랑이 이야기를 한 편 하고 난 후, 조사자가 하나 더 없느냐고 하니 제보자가 또 다른

17) '대소사(大小事)가 있는 집'의 뜻임.

호랑이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줄 거 리: 합천 해인사에 스님과 동자승, 그리고 호랑이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겨울철에 절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스님이 동자승과 호랑이를 남기고 먼 길을 떠났다. 어느 날 동자승이 손을 베이고 피를 흘리게 되자 동자승은 호랑이가 배고플 것을 염려해 자신의 피를 호랑이에게 먹게 했다. 피 맛을 본 호랑이는 배가고픈 나머지 급기야 동자까지 잡아먹었다. 절에 돌아온 스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랑이를 절에서 쫓아내면서 ‘합천 해인사 안에서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 후로 해인사에서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다.

그래 합천 해인사 가이까, 이거는 합천 해인사 절에 얘긴데. 합천 해인사 저 우에 올라가면은 산지당이라고 있어예. 예, 산지당. 그 합천 해인사하고 굉장히 멀어예. 그 산지당은.

그게 그렇디다. 그 그때만 해도 이 지금은 절이라 카몬 신도들이 많아서 벽덕거리는데, 그때만 해도 참 신도들도 없는데, 한 시님이 그 산지당에서 동자 하나하고 호랑이하고 키웠답니다.

그러이까 서로 노뉘 먹고 이랬는데 저실이(겨울이) 되어서 아무것도 묵을 기 없으이까 시님이 한다는 말이,

“너거가 이 내 올 따네에(동안에) 이 산지당을 지키고 있거라. 내가 밑에 마을에 가서 묵을 거로 해가 오꾸마.”

이라고 내리갔는데, 스님이 아무리 그거 해도 눈 속에는 문 올라와서 제법 시일이 걸렸답니다. 그러이까 묵을 기 없으이까, 그러고 이 뵈을 풀뿌리로 뿔아가지고 이래 뵈을 하다가 고마 그 동자가 이 그 손가락을 비었어예.

그래 이래 널찌는 동안 동자가 생각하기는 이것도 내가 핀데 호랑이를 보고,

“니가 빨아 무우라.”

캐서, 빨아 믱이 놔놓으이까 이 호랑이가 아니 아직거도(아직까지) 안 묵어 받 고기고, 그 피가 굉장히 맛이 있어예. 그런데다가 배가 고프이 며칠 지내이 꺾국 그 동자로 물어서 피로 빨아 묵고 그 동자는 죽고 그래.

그래 시님이 그 절꺼정 오이까 그 근치가 확 - 비린내가 나더랍니다. ‘아차! 내가 너무 와서 너무 오래 있다가 와서 일이 생겼구나.’ 그래 근는데, 그 호랑이도 배가 고프 적에는 아무 생각을 없고 피로 빨아 묵었는데 지가 피로 빨아먹고 생각커이 ‘아! 스님이 시기던..’ 이 짐승이지만은 형지간 곁이(형제간 같이) 자랐는데 저거를 피로 빨아먹고 그거해서 그 시체로 안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 그 스님이 한다는 말이,

“내가 이적꺼정 너거한테 가르켜서 그거 해놔도 꺾국은 니는 사람이 안되고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지키는데 니는 그거로 못지킴이 니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라이 그림서 한다는 말이, 호랑이로 보고,

“니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합천 해인사 안에서는 절대로 호랑이가 사람 자아묵는 짓을

없도록 해라.”

카이까 그 호랭이가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랍니다. 그럼서 내보냄서 그래고 나서는 그 합천 해인사서는 호랭이가 사람을 자아먹는 일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입디더. 그것도 나도 들은 이야기고.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20-422쪽.

[사하구 설화 11]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JS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1층 낙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진석춘, 남,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도깨비 이야기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피 묻은 빗자루가 개울에 떠내려가다가 구멍에 끼이면 그것이 도깨비로 변해서 사람에게 씨름을 권한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도깨비에 홀려 씨름을 하다 쓰러져 있는 것을 거기에 가 보니 빗자루가 끼어있었다.

이 도깨비, 시골에 가면 빗자루 있제.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에 피 묻은 빗자루가 어디 개울가나 이런데 떠내려가다가 박혀요. 어느 구멍에 바위틈에가 박혀요.

박히며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예… 자기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도깨비라 카는 게 나타나요. 사람같이 사람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기라. 그래 오며는 씨름을 자꾸 권한다.

씨름을, 씨름을 하자. 씨름을 하자. 그러면 그러면 씨름을 하자 카면 사람을 끌고가 가요. 가갖고는 사람을 갖다 거서 마 케이오(KO) 시켜버리(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거 정신을 잃고 그대로 거 잤뿌리는데, 그 이튿날 사람이 식구들이 없으이께네, 찾아가보이꺼네 거 있더라. 빗자루가 하나 찝기 있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마을에 그런 일이 한 분 있었어요. 거기 뭐 확실히는 모르겠고.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22-423쪽.

[사하구 설화 12]

### 마음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여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5\_PKS\_JSC\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1층 낙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진석춘, 남,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 술 취한 사람이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여우가 사람을 넘으면서 혼을 뺏다고 한다. 만약 정신을 잃고 혼을 빼앗기면 여우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내장을 먹어버린다고 했다.

이 마을에서 한 1km쯤 되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고개가. 고개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합천에서 시장에 갈라카맨은 한 40리는 조금 못돼요. 40리는 조금 못되는데 거기 고개 넘어가면은 짐승이 많았어요. 전부 그 당시에는 인자 걸어다녔죠.

걸어서 다니네께네 한 분은 이 늑대가, 아 저 여우가 두 마리가 나타나고 이 사람이 술을 은근하이 이래 인자 목고 이래 오이께네 사람을 이래 자꾸 넘는다 카네예. 혼을 뺏다 이기라. 혼을 뺏다 이기라. 혼을 빼는데, 이 사람이 원체 인제 마음이 강한 사람이야. 모면한 얘기 있고.

[조사자: 거 만약 거서 혼이 뺏기면 어찌 됩니까?] 죽죠 뭐. 죽우면은 사람이 넘어지면은 인자 그때는 내장을 내먹는 기라. 내장을 내 무요.

[조사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네예? 그런 거를.] 그 실화 얘기 있었어요. [조사자: 그런 실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조사자: 사람을 히득히득 앞뒤로 이래 마 여우가 넘어가지고 사람이 혼을.] 그래 혼을 빼면은 쓰러지면은 그때 사람을 해치는 기라예. 그런 기 있어.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23-424쪽.

[사하구 설화 13]

### 무덤을 파서 시체 옷을 훔친 여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HN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황남순, 여, 82세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들이 호랑이 이야기를 구연하자 제보자도 자신이 예전에 직접 경험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여우 이야기를 해 주었다.

줄 거 리: 한 부부가 자식을 낳기 위해 정성을 들여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여우였다. 초상만 나면 무덤으로 가서 시체의 옷을 훔쳐 와서는 그 옷으로 자기 방안에서 골무와 수를 놓았다. 마을에 여우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의심하게 되었다. 비만 오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자 따르이 어머니도 자신의 딸을 의심하게 되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순경이 와서 딸을 총으로 쏘 죽였다. 그 이후로 마을에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저거 옛날에 일제 시대인데. 그래가 사상 그 동사무소 뒤 거 있었는데, 영감 할마이가 살았는데, 그래 자석을 못날어예. 자석을 못 날아가 공을 공으로 산 대배가지고 산재에 가서러 공을 들였서러 그래 아로(아기를) 가졌어.

영감 할마이가 가졌는데, 참 공을 내 - 밤낮으로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슴 큰 개가지고 갔는데 그 큰 바우가 있어요. 그래 있는데 거서 공을 만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들어가지고 아를 가졌어예.

그래 인자 참 아로 가져가지고 인자 놓을 달 되가지고 아로 낳았는데 딸로 낳았어요. 딸로 하나 낳는데, 딸이 나노이 마 너무너무 인물이 좋았어예.

참 인물도 좋고 마 그래가 옛날에 그때는 국민학교 땡길 때는 머리도 지라가 이래가 땡기고 이랬는데 처이가 너무 너무 인물이 좋았어.

그 집에 동사무소 뒤에 해가 거 있는데, 여는 웅동새미(웅달새미)가 있어요. 웅동새미가 있는데 그 물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서러 인자 물로 질러가는 사람들도 웃다 갔다 그 다 질러 오고 인자 그 물이 참 맛이 좋고 이래서러, 근데 그 처이가 생긴 배결에(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처이가 참 인자 건건히 학교 6학년꺼정만 마쳐가지고 만날 앓아가 뒷방에 앉아가지고 골미같은 거 이런 거 집고, 수로 놓고 수로 내 놓고 앓아가지고 생긴 암만 한 분 볼라 캐도.

그런데 한 인지 나가(나이가) 많애가 쪼깨 한 열 여덟 이럴 적에 거 고 이부지(이웃에) 초상이 났어요. 났는데, 처이가 너무 인물이 생전 볼라 캐도 옛날에 일제시대가 되어 놔논게 파출소가 전신에 일본 사람만 다 저거 했어. 근무로 했어요. 그랬는데, 처이로 불라고 아무리 해봐도 몬 봤지요. 안 봐지는데.

그래 그 이부지 초상이 났어요. 영감, 할마니 참 공을 공을 들어가 딸로 낳아 오만 사람 딸 놓고 한 분씩 보모 마 말도 못 하고 보도 안 하고, 마 보모 마 소문나 또 달처이라고 (달 같은 처녀라고) 이래 소문이 났어예.

그래가지고 한 분 그 이부지 초상이 났는데, 영감쟁이가 초상집에 갔는데, 인자 옛날에는 대문을 인자 나무 대문을 가지고 저거로 대문을 했어요. 그래 인자 참 그날 참 달밤에 저,

저, 달이 떠서 참 좋은데. 십오일쯤 이래 됐는갑네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누가 영감쟁이가 한번은 아따 누가 해가 영감님이 초상집에 가고. 그래가 할마이가 인자 기도를 했어. 그래 내도 소문이 귀에 들어오는데 도저히 못 참는 기라.

그래 그 초상이 나가지고 그 초상을 출사를 시키가지고 그날 갓는데. 뭐 갔다 산에 갔다 묻었는데, 이 처이가 참 달밤인데, 출상, 딱 저녁(저녁) 놔놓고. 고날 저녁에, 마당 저거 대문 앞에 마당 앞에서러 박세로(박수로) 한 새벽 3시, 2시 반이나 요정도 돼서러 마 온 데를 돌아 데고 돌더만은 박살을 딱 세 분을 치더라요.

그래 칠 때 이 처이가 아이고 난중에 머리를 풀고 야시 꼬랑대기, 꼬랑대기줄 나가지고 야시가 됐어요. 그래 저걸로 해가지고 그 뉘무덤에 마 아무리 이 뉘로 초상만 나모 보까 문 잡는 기라. 그래 인자 이거로 파출소다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잡을라고 인자 ‘야시가 나타났다.’ 인자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청중: 그 처이가 야시다.] 어, 어. 그래가지고 그때, 사상면에 그 큰 소문이 안 났어요? 요 소문 다 났어요. ‘야시가 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머리도 마 똑 치성같이 땅아가지고 마마 이래 처이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야시를 잡을라고, 인자 파출소가 그때는 일제시대가 되노니 왜놈들만 다 있었는데 총을 매가지고 막 잡을라고 그래.

그래 인자 어마이는 공을 들여가 딸로 낳았는데에. 도저히 저거 자식인지 몰랐다 카는 기라. 그래 뉘 가모 저거를 해서러 가모. 밤에 그 뉘로 깔잡아뜰어가 저거 집 마리 밑에 전신에 옷을 다 뺏기가 다 갖다 여났다. 그래 여났는데, 그래가 인자 그거로 가 골미도 짓고 수도 수고로 그렇게 잘 놔요. 솜씨가 좋아서. 처이가 너무 인물도 좋고 이랬는데.

그래가 인자 왜놈이 하나이가(한 사람이) 그 처이로 한 번 불라고 마 내 그 근방로 돌아어. 안 나오거든. 안 나오는데, 초상이나 겁나 개가지고, 그 뉘만 그해가지고 전신에 옷을 다 뺏기가지고 저거 지 방 밑에 바리 밑에 전신에 갖다 재났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로 도저히 문 개서 동네사람들이 등을 들고 산 중에서러 막 모두 몇이칸 거 근무를 하고 다 잡을라고 인자. 그때는 또 나타나도 안 하고.

그래가 하리는 할 수 없이 이래가지고 아, 해가지고. 누가 떡 보이까네 아 그 집에 대문 쪽으로 해가 넘어 드가더라. 인자 요래 봤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어마이는 그런 훈터로(김새를) 안내고 몰랐는 기라요. 몰라가지고 이랬는데, 그래 인자 순 파출소에다가 할 수 없이 어마이로 갔다가 어마이가 뒤로 돌아가니 마 내미가(냄새가) 쿼쿼한 내미가 나고 마 마루 밑에 비가 올라 카몬 썩는 내가 나고 내미가 나더라.

그래가지고 파출소 어마이가 가가지고,

“우리집에 한번 오가지고 요 마리 밑에 조사를 한 분 해봐라”

인자 이래 해서,

“그래 내 딸 하나 안 낳는 자석 없는 요랑하고 직이주가 마. 총살하고마 직이주가 마.”

이랬어.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 인자 그 순경 갖다가 짜서러 저거를 해냈는데. 인자 낮

때는 인자 안 가거든 마 내 수만 놓고 앉아가지고 이래가 머리를 철썩철썩 너무 인물도 좋고 이러는데, 차마 이 순경이가 총살로 시킬라카이 너무 인물이 좋아서로 보니 문을 여이 마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러 그래가 어마이는 뒤 숨어가 있고, 그래 밑에부텨 조사를 하이카네 전신에 각에 (곽에) 그 영던 시체 옷으로 전신에 뺏기가 저거 집에 갖다놓은 기라. 비가 올라 카면 날이 굿을라 카모 냄새가 막 쿵쿵함서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인자 어머니가 마 신고를 해가이고 그 순경강 짜서러 인자 순경이가 거, 거, 순경이가 총을 가지고 살 뒤로 돌아가이. 차마 순경이가 그 문을 문 열고 한 번 보이 어찌기 인물이 좋고 너무 좋아서러 마 순경이가 껌쩍 놀랬다 카이. 너무 좋아서로. 그래가지고 문 새(사이) 거다가 딱 저거로 해가지고 전자가(겨누어서) 총을 쏘다 그러더라.

그래 직있어요. 어 총살로 시켰어요. 그래가 죽여가지고 그 야시로 직이고 나이카네 동네가 야시도 없더라고요. 그래가 그거로 범인을 잡았다 캐. 그래 어머니가 미쳤됐다.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24-428쪽.

[사하구 설화 14]

## 밑 빠진 바가지를 주면 해코지를 하지 않는 해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HN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황남순,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바다에 사는 도깨비 이야기나 해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줄거리 : 큰 달이 지려고 하면 배에 해치가 나타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바가지 좋까?” 하면서 깨진 바가지를 해치에게 줘야 한다고 한다.

거 가문 우리 아버지가 그라는데 해치가 옥신옥신 노로 젓고 배에 온다요. [조사자: 해치 가요?] 해치가. 그라모,

“바가지 주가.”

이라모 바가지를 미끼를 빼갖고 주모 물을 퍼붓다가 퍼붓다가 가는 기 이기 해치라요.

[조사자: 아 그러면 제가 배를 모고 가는데 저서 배가 하나 와가지고.]

배가 육신육신 노를 젓고 오더라요. 오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바가지 주가.”

이라거든, 해치가.

“그래 저게 해치다.”

바가지를 미끼로 빼뿌고 주이 물이 퍼여이 물이 퍼지나. 그래가 배에서러 이래 상투를 옛  
날에 다 쪼지가 다 늙어자이까네 상투를 마 땡기가지고 물에다 끌고 드가고 그래하더랍니다.

[조사자: 해치가?] 예, 해치가. 그래 큰 달이 질라 카몬 해치가 그래 난답니다. 그래 우리  
보고 앉차놓고 그래 이바구로 하대요 그래 우리가 아이구 큰 달이 질라 카모 배에서러 배에서  
사고가 나몬 그라거든. 거기 해치, 해치배가 되가고 그래.

[조사자: 해치배는 누가 땀는지도 모르고 와서.] 그래 인자 그거로 아작 캐놓으이 바가치를  
미끼로 빼부고 주거든. 그래, 그래, 그래, 거기가 안 그라모 배에다 물을 퍼부몬 사람이 죽을  
거 아인교.

그래 그 옛날에는 그래 많이 했습니다. 인자는 기가이배<sup>18)</sup>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는 풍석배  
(돛단배)거든. 노 저어 땡기는 풍석배가.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 해치가 많이 나더랍  
니다. 바다. [이후 청중들이 해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음.]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28-430쪽.

[사하구 설화 15]

### 아파트 개발로 마을을 떠난 당산할매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5\_PKS\_PP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박복선, 여, 8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당리 마을에 있는 유명한 제석골 할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느냐고 구연을 유도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 제보자와 친하게 지냈던 어떤 할머니의 꿈에, 당리마을을 지켜주던 당산할매가 나타나 마을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하고는 마을을 떠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당리마을이 재미가 없다.

18) '기름이나 전기 등의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의미하는 듯.

이 당산에는 우리가 온 뿌리를 모릅니다. 내가 나기는 여기서 나고 크고 했습니다. 나고 크고 해도, 우리 애릴서부터 이 나무가 다 썩고 우리가 저쪽 소나무 저게다가 군대줄(그네 줄)을 매놓고 그네를 타고 했어요.

내가 나가 팔십 여섯인데. 이래도 이 당산은 여기는 할매고, 저 우엔 또 산에 또 할아버지가 계시오. [조사자: 아! 여긴 할매당산 나뭇니까?] 여긴 할매 당산이고. 저 우에서는. [조사자: 우엔 할배가 있으예?] 할배가 계시고. 또 애나 저 골짜기에는 큰 제당이 있지.

[조사자: 아! 거기 그 승학사 절 맞은편에 그 제당이.] 예. 그 제당이, 그 제당. 옛날에는 그 할매 계실 때, 애나 우리 애릴 때는 우리가 애리서 스무살 먹고 시집을 가도 우리가 제당 앞에 거기 마음대로. [다른 청중이 끼어들어 말함] 건니 갔다가, 건니 갔다가 몬했습니다.

[조사자: 군대를 매가 띄고.] 거게가 어찌 우임한고(위험해서) 거 당산 앞에 가면 시퍼러이 물이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가 있는데, 그 제당 앞을 지나갈라 카모. 아저씨들 앞에 이런 소리 하기 망한타(망칙하다)만은, 여자 생계(생리) 있제. 거 생계 있는 사람은 그 앞을 못 지나갔는 기라.

[조사자: 부정 탄다고?] 응. 부정탄다고. 근데 그 몇 년 전에 애나 여게 참 고토백이로 와서 시집 살고 한 사람들이, 그 할매가 있었는데, 그 할매 꿈에, 할매가 시끄럽아 못 살겠다고 이사로 가. [조사자: 아- 제당에 있는 할매가.] 어. 재당 온 할매가. 근데 거게 왜 시끄럽었냐 하몬, 그 앞에 지금 거 아파트 크게 지아났죠? [조사자: 예. 동원베니스티.] 그 뭐, 난 아파트 이름도 모른다. [조사자: 예. 산을 깎아가 지아났다 아입니까?]

어. 그 산 깎을 적에 그 할매가 이사를 간다꼬. 반석 우에 나 앉았더라요. 그러니까네 이제 재미가 없지. 그래 재미가 없지.

[조사자: 그러고 나서 이 마을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그래 마 크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지는 안 했는데, 그래 갔다고 소문이 나가. 그 할매가,

“우리가 시집을 때 승아동상아(형님아 동생아) 지낸 사람이다.”

무슨 말 끝에 그런 말을 하니까,

“아이고! 야. 제당 할매가 마 떠났다.”

“와? 새이 어째 아노?”

카이,

“내 꿈에 와서러 꿈에 하얀 서갔는데.”

그 우에 가몬 제당 뒤에 가몬 큰 방구가 있죠? 그 방구 우에 그 고개가 무슨 고개고 하몬 문바우고개라 카요. [조사자: 문바우고개?] 예. 문바우고개라 카는 그 고개, 방구 우에 앉아서러,

“내가 이사로 간다.”

[조사자: 아! 거게 앉았다가.] 예. 그래 그러커더라요. 그래 칸다꼬 할매가 마 온창 시끄럽 어노이 떠났는갑다. 그래 카대.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31-432쪽.

[사하구 설화 16]

### 개를 잡아먹으러 온 늑대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6\_PKS\_BSM\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배삼문, 남,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들었던 여우 이야기나 호랑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제보자는 현재 노인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조사자의 방문을 반가워하지 않은 듯했다. 처음엔 이야길 할 것이 없으니 1층 할머니들에게 가서 노래나 듣고 가라고 하다가 조사자가 계속해서 구연을 유도하니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줄거리 : 어느 날 밤, 개가 심하게 짖어서 내다보니 커다란 개 같은 것이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이 개를 잡으러 온 늑대였다.

집이 개집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마리(마루) 밑이라. 마루 밑에. 마루 밑에 인자 가마이 (가마니) 탄 거 하나 깔아놓고. 거서 저 아침에 일어나 자기도 또 바깥에 나가고.

그래 인자 어마이가 밥을 주고 이래 했는데, 하룻 밤에는 늑어자는데 개가 마 죽는다고 광을(고함을) 터주고 짖는 기라. 마 막 이름을 부름서,

“독구야, 독구야.”

카고 막 부르는데 불려도 마 꿈쩍도 안 하고 막 내리 짖어대는 기라. 빛이 빛이 들어왔다 카고. 그리 내가 방문을 열고 속옷 바람으로 속옷 바람으로 탁 나가니까 삼작거래(삼작거리에) 커다란 개 맨쿠로 한 마리가 들어왔는 기라 삼작거래. 마주 보고 개 하고 마주 보고 그러이 거 알고보니 늑대라. 늑대가 개 자무러(잡아먹으러) 왔어. 개를 잡으러 왔어.

[조사자: 아 - 늑대가 여 와가지고 어른신 개를.] 어. 개를 인자 잡아무으라고.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34쪽.

[사하구 설화 17]

### 차표 받는 사람에게 영덩이를 내준 할머니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5\_PKS\_JD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1층 낙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정덕순, 여, 86세

구연상황 : 청중이 제보자에게 이야기 하나 해 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조사자가 음담이나 야한 이야기도 된다고 하자 제보자가 한 이야기이다.

줄거리 : 어떤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여 몸이 아주 피곤한데도 밤마다 할아버지에게 시달리는 바람에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기차에 타고는 기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표 받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차표를 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비몽사몽간에 그 사람이 할아버진인 줄 알고 옷을 내려 영덩이를 보여줬다.

옛날에는, 요새는 도가(세물전) 가스로 물건 띠가지고 차가 마키(모두) 운반해주거든. 요파는 데까지. 옛날에는 열차로 탈라카모 타고 새벽에 가가지고 물건 떼가지고 와가지고 점도룩 파는 기라. 그래 밤에 또 아침에 별 보고 나오고 저녁에 달 보고 드가거든.

그래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드갔다. 잠이 새이잖아(‘밤을 새게 되었다는 뜻). 잠이 와서 잠이 와서 못 사는 기라 마. 근데, 하루 지역에는(저녁에는) 자다본께네 영감이, 할마이 생각이 나거든. 시부지기(슬며시) 가는 기라.

그런께네 할마이가 마마 귀찮거든. 그래 마 차뿌고 차뿌고 하다가 인자 하루 아침에도 캄캄한데 나와가지고 열차로 탔어. 인자 도가 간다꼬이 타다 본께네, 마 열차 안에서 잠이 와가지고 이래 구부러졌다, 요로키내(오렇게).

그래 옛날에는 차포(차표) 조사를 했거든. 그래 인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지메, 아지메, 차포 좀 봅시더.”

칸께네, 밤에 영감이 하던 짓으로 째적거리는가 싶어가지고,

“아휴 귀찮아 죽겠다마는 또 하자 카나. 시바거 할라 카거든 맘대로 해뿌라.”

카고,

아 옛날에는 몸뻐 입었거든. 내라뿐 기라. 궁디로 내가지고,

“아나 할라 카거든 맘대로 해뿌라.”

이라고. 이 차포 조사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고, 할매, 할매요 아지메요. 차포 봅시더.”

영똥 소리 한께네 질겁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고. 할매는 그런 이야기뻘에 몰라요.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34-435쪽.

[사하구 설화 18]

###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5\_PKS\_JD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1층 낙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정덕순,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어릴 적 들었던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주위에서 다른 청중이 ‘할매 심심한 소리한다.’하고 만류했지만 제보자는 이야기를 끝까지 구연해 주었다.

줄거리 : 할아버지와 5살 난 손자가 목욕탕에 갔다. 물에 들어간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라고 하자 손자도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나와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닷(다섯) 살 묵는 손자하고, 할배 저 저 할바이하고 모욕(목욕) 갔거든.

옛날에 목욕 아 있었는가 몰라도. 간께네, 뜨신 물에 할배가 썩 드가가지고 아이고 뜨겁다 캐야 됐겐데,

“아이구! 시원하다.”

카거든. 그랑께는 손자가 그 시원하다 소리 듣고 지도 풍당 빠졌어. 쫓아나오디마는,

“에이고! 믿을 놈.”

할바이보고이,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뜨겁아 죽겠다마는 시원하다 칸다.”

고. 그래 손자가 그란다. 그래 마 할바이가 손자한테 모함을 당했소.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35-436쪽.

[사하구 설화 19]

### 범 가족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부자(父子)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5\_PKS\_JS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1층 낙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진석춘, 남, 75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구연했다. 제보자는 이야기의 상황에 맞게 몸동작과 손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해가면서 구연하였다.

줄 거 리: 한 사람이 함정을 파서 범을 잡았는데 그 부친이 잠으로 범의 가죽을 팔러 다녔다. 그 후 밤만 되면 범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집에 와서 울었다. 구텐데 그 부자가 2-3년 만에 다 죽어 버렸다.

해방된 그 그해라요. 1945년도에. 우리 친구가 예, 산 밑에 살았어요. 산중허리에 살았어요. 거게 쪼그만한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거게 범이 많이 있었어요.

산에 범이 많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아이고 범이라. 호랑이하고 범하고 조금 틀리지요. 이 범은 꼬리가 길고 호랑이는 몸집이 크고.

그 산에 호랑이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어요. 함정, 함정을 팠는데 호랑이 그 범이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놓이 이놈이 고함을 지르면서 울고 난리 났단 말입니다. 이제 성공을 했지 잡았으이께네. 그래 그걸 인자 몽둥이로 가지고 패서 죽였어요.

죽여가지고는 그 호피, 껍질 그걸 우리가 한번 보이께네, 그 사람 부인,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 아버지가 그걸 지게로 지고 그 거리가 얼마 되냐면 40리길이라. 그 당시 40리 길 장 보러 다녔거든요.

그때는 보행이지 차가 없으이께네. 40리 길에 차를 왔다갔다 이래 했단 말이요. 그래가 그 범 껍질을 지고 팔러 가더라고 그걸 한 분 봤고. 그러고 나서는 범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밤만 되면 그 집에 와가지고 문을 끌어요.

아! 진짜로. 실화 얘기라. 문을 꺾고 그 와가지고 울고 이래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부자 간이 한 2,3년만에 다 죽어뻘어요.

[조사자: 아 그 범 가죽을 판 그 ……] 그렇지 암놈인지 수놈인가 그거는 모르겠고. 두 마리가 인자 한 한 쌍 있었겠지. 한 쌍 중에서 하나가 그렇게 되노이께네, 그 집에 와서 보복 하기 위해서 밤마다 내려와가지고. 그래가 결국 그 부자간 다 죽어뻘어요.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436-437쪽.

## Ⅲ. 문헌 소재 설화

1. 복구 설화
2. 사상구 설화
3. 사하구 설화



## 1. 복구 설화<sup>19)</sup>

[복구 설화 1]

### 병어리 삼년(三年啞婦傳説)

어떤 사람이 딸을 아주 귀엽게 키워 시집보낼 때 “며느리의 책무는 무겁다. 보고도 안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을 적게 하는 법이다.” 하고 가르쳤다. 딸은 시집을 가서 조금도 말을 하지 않았다. 봉사처럼 병어리처럼 3년을 지냈다. 그래서 시집에서는 병어리인 줄 생각했다. 그래서 친절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친절으로 가는 도중 가마 안에서 꿩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듣고 며느리는 혼자말로 “아아 그리웠던 꿩의 울음소리!” 했다. 함께 갔던 시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 집으로 도로 왔다. 하인더러 꿩을 가져오게 했다. 며느리는 꿩 요리를 하면서 “감싸주는 이 날개는 시아버님께 드리자, 말 많은 입방아는 시어머니께 드리자. 그리고 빙글빙글 돌리는 이 눈동자는 시누이에게 주고” 하고 노래했던 것 같다.

- 1923년 11월, 경남 동래군 구포 박씨부인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69쪽. 이는 최인학이 孫晉泰, 『朝鮮民譚集』(日文), 東京: 郷土研究社, 1930, 54쪽에 수록된 것을 번역한 것임.

[복구 설화 2]

### 나비가 된 유래(蝴蝶の由來)

옛날 어느 곳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결혼할 상대자가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남자는 결혼 전에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녀는 흰 가마를 타고 시집될 집을 찾아가 머리를 풀고 울었다.

19) [복구 설화 1]부터 [복구 설화 4]까지의 설화는 孫晉泰, 『朝鮮民譚集』(東京: 郷土研究社, 1930)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조선설화집』(민속원, 2009)에 번역한 것이다. [복구 설화 5]부터 [복구 설화 47]까지의 설화는 손진태의 유고 원고를 옮긴 것이다. 손진태의 유고 원고는 손진태, 『남창손진태선생 유고집3: 우리나라의 문화』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7로 출판되었다. 이 유고 원고 중 복구의 설화([복구 설화 5] ~ [복구 설화 16]과 [복구 설화 25] ~ [복구 설화 47])는 ‘손진태선생이 채록한 우리 고장의 설화(說話)’라 하여 『부산광역시 복구향토지』(부산광역시 복구, 2014)에 원문대로 수록한 바 있는데, 해당 설화는 이 책에서 옮긴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빠진 설화([복구 설화 17] ~ [복구 설화 24])는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지식산업사, 2012)에서 옮겨 온 것이다. 이하 각 설화 자료마다 별도로 출처를 밝혀 두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아침저녁으로 남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울며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을 돌았다. 사실 그녀는 남자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 얼굴 한 번 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시 시집을 갈 수는 없다. 더구나 양반집에서 이러한 규범을 무시하고 시집을 간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물론 모든 일족이 천대를 받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옛날엔 어느 가문에 젊은 과부가 생기면 음독 시켜 죽이는 수도 있었다.

“저승에서나마 부부가 되겠어요. 만일 그런 인연이라도 있다면 제발 이 무덤이 갈라져 주십시오.”하고 그녀는 매일같이 울부짖었다.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울고 있으니 갑자기 무덤이 두 동강이 나면서 갈라졌다. 그러자 그녀는 그 무덤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몸종이 급히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저 찢어진 한 가닥의 치맛자락이 몸종의 손에 잡혀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치맛자락은 푸시시 사라지더니 이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훨훨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지금의 나비는 모두 이때의 나비로부터 번식한 것이라고 한다.

- 1923년 11월, 경남 동래군 구포, 박씨부인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82-83쪽. 이는 최인학이 孫晉泰, 『朝鮮民譚集』(日文), 東京: 郷土研究社, 1930, 63-64쪽에 수록된 것을 번역한 것임.

[복구 설화 3]

### 구포동신 전설(龜浦洞神傳說)

옛날, 구포의 이웃 마을 대리(大里)라고 하는 마을에 최씨 조모라고 하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동래로부터 100량의 돈을 가지고 구포에 돌아가려고 동래고개까지 왔을 때, 5, 6명의 산적이 나타나 할머니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어쩐지 발이 땅에 붙어 움직여지지 않았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걸하는 바람에 그들은 겨우 무사했다.

최씨 조모는 큰무당이였다.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거든 복금당(福金堂)에 모시거라.” 하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구포의 사람들은 유언대로 신당을 세워 이것을 복금당이라고 칭하고 이곳에 동신으로 할머니를 모셨다. 할머니를 모시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구포 사람들에 의해 할머니는 “복금당 최씨”라고 불리고 있다. 구포의 불신(村神祭)은 최씨 할머니 때문에 매년 1회 혹은 3년에 1회씩 제사를 지낸다. 할머니는 구포의 창건자이기도 하다.

- 1922년 8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석 무녀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84쪽. 이는 최인학이 孫晉泰, 『朝鮮民譚集』(日文), 東京: 郷土研究社, 1930, 65쪽에 수록된 것을 번역한 것임.

[복구 설화 4]

### 바늘과 큰 뱀(針と大蛇)

옛날, 어느 부자 집에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딸 방에 밤이 되면 잘 생긴 미남자가 문창호지 하나 건드리지 않고 들어왔다가는 닭이 울기 전에 또 사라지곤 하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사나이의 몸은 체온이 없었다. (邪物이니까 체온이 있을 리가 없다.) 어쩐지 딸의 거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밤중에 몰래 딸 방을 둘러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창가에는 이상한 남자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다음날 딸을 불러 엄히 문책하니 딸은 순순히 있었던 일을 자백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담, 오늘밤도 그 놈이 올 테니까 명주실을 한 다발 준비해서 실 끝에 바늘을 꽂아두었다가 그놈의 목덜미에 꽂도록 하여라.” 하고 일렀다. 과연 그날 밤에도 그 남자는 나타났다. 딸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했다. 사나이는 목덜미에 바늘이 꽂히자마자 감짝 놀라며 도망쳤다. 날이 밝자 실을 따라가 보니까 뒷산 큰 굴속에 큰 이무기가 한 마리, 바늘에 비늘 아래가 찢려 죽어 있었다. 쇠와 뱀은 상극이니까 아주 작은 바늘에 찢려도 큰 뱀이 죽는 법이지.

- 1923년 11월, 경남 동래군 구포, 박씨부인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154-155쪽. 이는 최인학이 孫晉泰, 『朝鮮民譚集』(日文), 東京: 郷土研究社, 1930, 142-143쪽에 수록된 것을 번역한 것임.

[복구 설화 5]

### 나쁜 범 잼이

옛날 과부 할머니가 조그마한 밭을 갈아 겨우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늘 한 마리 나쁜 범이 와서 “할머니, 너하고 나하고 누가 먼저 이 밭을 가는지 내기를 해 보자. 내가 지면 아무 것이나 네가 원하는 것을 주고, 네가 지면 나한테 팔죽을 다오.” 하였다.

그래서 밭을 둘에 나눠서 내기를 하지만 범은 그 밭로 죽을힘을 다 해서 흙을 파내므로 할머니는 항상 팔죽을 빼끼지 않을 수 없었다. 범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범이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르므로 할머니는 할 수 없어 그 말을 듣곤 하였다. 어떤 날도 또 범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날 밤 팔죽을 끄려 놓고 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파리가 한 마리 날라 오더니 “할머니, 나한테 그 팔죽을 한 그릇 주면 할머니를 도와주지요.” 하므로 할머니는 그것을 한 그릇 주었다. 좀 있다가 또 달걀이 하나 굴러 오더니 죽을 청하였다. 또 그 다음에는 소똥이 오고, 샷자리가 오고, 나중에는 지게가 왔다.

할머니는 모두 팔죽을 먹여 보냈다. 그러니까 범이 “어두워서 먹지 못하겠으니 불을 켜다오.” 하였다. 할머니는 “부엌 화로에 불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가져 오려무나.” 하였더니, 범은 중얼거리며 부엌에 나갔다. 범이 불을 얻고자 화로 불을 헤치니까 그 속에 숨어 이써 달걀이 빵 하고 터져서 범의 눈을 찼다. 범은 눈이 어두워서 째째 매면서, 그 옆에 있는 물통 물에 눈을 씻으려고 하였더니, 그 때 통 속에 숨어 있던 거북이 뛰어 나와서 딱 범의 눈을 물었다. 범은 놀라서 달아나려고 마당으로 나오다가 소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러니까 그 때 뜰에 있던 샷자리가 콩콩 범을 싸서 대문까까지 가니, 거기에 있던 지게가 기다리고 있는 듯이 덩석 범을 지고 가서 바다 물속에 던져 버렸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 씨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14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77-578쪽, <못된 호랑이 물리치기>.

[북구 설화 6]

## 처녀의 원혼

어떤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돼서 어떤 곳에 혼인 말이 있는 것을 처녀의 삼촌이 굳이 반대해서 마침내 파혼이 되었는데(처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처녀는 그것을 슬퍼하여 그만 물에 빠져 죽어 버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처녀의 원혼은 밤마다 그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서 괴롭게 하고, 부엌에 있는 그릇을 내던져서 깨뜨리고, 문을 흔들기도 하고, 갑자기 불을 끄기도 하여 집안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또는 집을 태우는 시늉을 하였다. 집안사람들은 백방으로 빌었으나 듣지 않으므로 참다못해 무당에게 부탁해서 처녀의 혼을 잡아서 향아리 속에다 넣어 버렸다. (무당은 처녀가 몸을 던진 곳에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밀봉한 향아리에 끈을 달아서 이것을 강물 속에 던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처녀의 혼을 향아리 속에 잡아넣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밀봉한 향아리 속에 여자의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 간 증거가 된다.) 물귀신은 이렇게 하여서 잡는 것인데 그 처녀의 원혼도 이렇게 향아리 속에다 잡아넣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처녀의 혼은 다시 나타나서 가족들을 더욱 괴롭혔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이사를 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이사 간 그 날 밤 어머니가 불을 켜려고 어두운 부엌에서 성냥을 찾고 있으려니까 저도 따라 왔다는 것을 알리노라고 처녀의 혼은 어머니 손에 성냥을 가져다 쥐어 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처녀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를 지내고 굿을 하고 무당과

점쟁이들한테 지방을 받느라고 재산을 모조리 없애고 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14-1015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79쪽.

[북구 설화 7]

### 도깨비 이야기

옛날 서울에 한 가난한 노인이 예쁜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총각이 와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하여 주므로 노인은 마침내 총각의 청을 들어서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예장을 가져 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고 모조리 이상한 것뿐이었다. 정말 기괴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하여간 노인은 이것을 받았다. 그리고 혼례식은 언제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날 밤 오겠다고 대답하였다. 혼례식을 밤에 하다니 이것도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총각이 좋아하지 않을까 봐서 노인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캐지 않았다.

그런데 혼인한지 며칠 안 돼서 그 딸은 점점 말라 가서 이대로 두다가는 몇 달 안가서 죽을 것 같기에 하루는 노인이 점쟁이한테 점을 쳐 보았다. 그랬더니 점쟁이는 “이것은 도깨비 장난이요.” 하면서 사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인에게 물은 뒤에, “어쩌면 당신 사위가 도깨비의 화한 것일지도 모르겠소. 도깨비는 무엇보다도 술을 싫어하니까 오늘 밤에 오거든 술을 권해 보시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거든 술병으로 그를 때려 보시오.” 하였다. 그래서 그 날 밤 그대로 하여서 노인은 술병으로 사위를 때렸다. 그랬더니 술병이 맞아서 깨어 지자마자 사위는 그림자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을 듣고 점쟁이는, “그럼 그 도깨비는 죽어 버렸을 것이요. 저기 있는 물푸레나무 밑에 굴을 파고 사흘 뒤 밤에 몰래 그 속에 숨어서 보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하였다.

그렇게 하고 노인이 숨어 있으려니까 과연 여러 도깨비들이 모여 와서 나무 밑에 잔치를 차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젊은 도깨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놈 왜 조금도 안 보일까.” 하고 한 놈이 말하니 다른 도깨비가 “그 놈은 이러 이러한 나쁜 짓을 하여서 술병에 맞아 사흘 전에 죽어 버렸단다.” 하고 대답하였다. 과연 그 뒤로는 사위가 오지 않았으나 딸은 얼마 안 가서 죽었다고 한다.

- 1931년 4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15-1016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80-581쪽.

[복구 설화 8]

## 시자와 무당

숙종대왕(肅宗大王) 때에 장동 김 씨에 시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에 나고 또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여 같이 과거에 급제하여 그 사이는 정말로 형제 이상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불행하게도 열여덟 살 때에 죽어 버렸다. 시자의 비탄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꿈에라도 한 번 그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자가 스물세 살이 되었을 때 경상도 감사가 되어서 대구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그는 무당이 무엇보다도 싫어서 무당만 보면 모조리 잡아서 죽였다. 그 때문에 대구 근방에는 거의 무당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날 밤 중에 혼자 방에 앉아서 무얼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무당의 굿하는 소리가 나므로 곧 역졸을 보내어 주이노가 무당을 잡아 오게 하였다. 데리고 온 것을 보니까 주인은 의외에도 감사 부하에 있는 도통인(都通引)이었다.

그는 불같이 성을 내어 통인을 꾸짖고 무당을 때려죽이라고 명령하였다. 통인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식이 중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울며 애소하였으나, 무당은 조용히 감사 앞으로 가까이 가더니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보기에 대감께서는 일생을 두고 이루지 못할 소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은 것은 조금도 한이 없습니다만 죽기 전에 대감님의 그 소원이나 풀게 하여 드렸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감사는 무당의 신기한 말에 깜짝 놀라서 그 노염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나의 일생의 소원은 죽은 아무개라는 친구를 이 세상에서 다시 한 번 만나 보는 것이다. 과연 네 힘으로 이 원을 풀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다.

무당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묻더니 이튿날부터 큰 굿을 동헌 넓은 마당에서 시작하였다. 무당은 큰 머리를 엮고 쾌자를 입고 이레 낮 이레 밤을 두고 춤추고 노래하며 귀신 내리는 굿을 하였다. 이렛날 아침, 과연 감사의 죽은 친구는 그 영혼을 굿터에 나타내었다. 감사는 너무도 기뻐서 맨발로 대청에서 뛰어 내려서 친구를 맞아 손을 잡고 자기 자리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서로 가슴을 풀어서 그리운 정을 터놓았다. 그러나 이 광경은 다만 무당과 감사만이 보고 알 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이야기 가운데 죽은 친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나는 저승에서 사람의 수명을 맡아 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를 비일 수가 없으나 이레 전부터 곱게 차린 많은 무당들이 와서 귀찮게 조르므로 마침내 못 이겨서 명왕에게 이것을 말하고 세 시간의 말미를 맡아 자네를 만나러 이 세상으로 나왔다. 자네 정명은 몇 살이고 그 해 어느 달 어느 날에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저승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자네는 많은 무당을 죽이고 있으나 이것은 좋지 못한

일로 모두 자네의 죄업이 되는 것이니까 이다음부터는 죽이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 뒤부터 시자는 결코 무당을 죽이지 않을뿐더러 임금님께 아뢰어서 무당을 금하는 법령을 풀게 하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후세의 무당들은 시자의 덕을 찬양하고 그를 은인으로 숭배하게 되어 지금도 굿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시자-”하고 길게 불러서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한다.

- 1931년 4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맹인 최순도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16-1017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81-583쪽.

[북구 설화 9]

### 죽은 뒤의 혼

옛날 사이좋은 두 서생이 과거를 보러 같이 떠났는데 중도에 어떤 강을 만나서 갭이 어쩐지 좋지 못한 예감이 나므로 “오늘은 마음이 좋지 않으니 하루 밤 여기서 자고 건너자.”고 말하였으나, 을은 기어이 그 배로 건너겠다고 주장하여 갭을 남기고 혼자 배를 탔다.

갭은 할 수 없이 을과 갈라져서 주막에 들자마자 곤했던 참에 그냥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 을이 온몸이 물에 젖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나는 용왕나라에 일이 있어서 불러 가니까 집에 돌아가거든 내 부모에게 결코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라고 전해 주게.” 하였다. 갭은 깜짝 놀라 눈을 떠서 주막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과연 을이 탔던 배는 중도에서 파선하고 승객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또 김태사라는 동무의 말에 의하며 그는 수년 전 봄에 강 건너 김 씨 집에 안택 기도를 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그 날짜까지 정했는데 그 쪽 사정으로 이것을 연기하기로 되었었다. 그랬는데 전에 전하였던 그 날 밤이 되어서 강 건너에서 자꾸 “김태사”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기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김 씨 집에 사는 머슴인데 주인이 오늘은 기도할 날인데 왜 아직 오지 않느냐고 합니다. 얼른 오십시오.” 부슬부슬 비 내리는 음산한 밤이었으므로 서로 얼 ... 만약 김태사가 그 ... 건넌더라면 틀림없이 물귀신에 ... 죽었을 것이다. 소위 물귀신 ... 것은 물속을 돌아다니며 음...같은 때 종종 나와서 사람을 ... 것이다. ... 죽은 뒤 만약 혼이 없어진다 ... 런 귀신이 있을 수가 있을...

- 경남 동래군 구포맹인 최순도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17-1018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05-606쪽.

[복구 설화 10]

## 풍수설 (1)

옛날 어떤 부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좋은 묘 자리를 구하려고 시체를 가장(假葬)하고 지관에게 부탁하여서 길지를 찾게 하였다. 지관은 몇 달 동안을 두고 산을 찾아 다녔으나 마침내 좋은 묘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산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한 노총각이 샷자리에다 썩은 시체를 등에 지고 올라와서 그 근방에 내려놓고 묻으려고 하므로 지관이 얼른 위에서 내려와서 그 터를 보니까 세 정승과 여섯 판서를 널 길지였다. 총각은 남의 집 머슴으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서 묘지를 가릴 여유도 없고 한시라도 빨리 묻으려고 아무 데나 아버지 시체를 내려놓은 것이었다. 지관은 총각에게, “너한테는 내가 다른 좋은 묘지를 찾아 줄 테니까 이 터는 나한테 다오.” 하였다.

길지를 찾아 준다고 하므로 총각은 기뻐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지관에게 끌려서 아버지 시체를 다시 업고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다. 그러나 지관이 터를 가르쳐 주지 않으므로 너무도 고단해서 시체를 발 옆에 내려놓으면서 “지관님, 묘지를 가린다는 것은 내 팔자에 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기다 아버지를 묻고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하였다. 지관이 돌아다보니 뜻밖에도 거기는 당일로 만석군이 날 복지였다.

그래 풍수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꽤 팔자가 좋은 사람이다. 길지를 얻고 못 얻는 것은 모두 제 팔자로구나. 그러나 즉일로 만석군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일까,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총각에게, “그럼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총각은 아무렇게나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아버지 시체를 넣고 흙을 덮은 뒤에 머리를 풀고 울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조금 만에 한 젊은 여자가 그 묘지로 올라 총각 옆에서 역시 머리를 풀고 울기 시작하였다. 지관은 그 여자를 총각의 누이나 무엇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삼십 명의 사내들이 무엇을 찾는 모양으로 아랫길 쪽을 지나다가 지관을 부르며, “지금 여기로 젊은 여자가 하나 지나가지 않았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지관은 이상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아니, 그런 일은 없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젊은 사내들은 멀리 다른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묘지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가 버린 뒤에 여자는 총각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 정승의 딸인데 어떤 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불행히도 금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막대한 논·밭과 많은 보배를 남기고 돌아갔는데 친척들이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틈을 타서 보배만 이 주머니에 싸 가지고 지금 집을 달아나 온 것입니다. 아까 지나간 많은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무슨 인연이니까지와 같이 살면 이 보배만 팔아도 넉넉히 만석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총각이 두말없이 이것을 승낙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관은 감탄하면서 이 모양을 바라보았다. 이튿날 지관은 총각에게서 허락 받은 곳에 부자의 아버지를 묻게 하였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 죽은 사람의 동무들이 그 관을 들고 땅 속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빠져 나와서 무덤 속에 떨어졌으나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묘 속에 칼 같은 것이 들어가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칼이 운기를 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 뒤 몇 해 안돼서 부자의 집은 망해버렸다. 그리고 그 총각의 집에서는 뒷날 세 정승과 여섯 판서가 났다고 한다.

다른 사람 팔자에 있는 묘지에다 무리하게 묘를 써도 결코 복을 받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총각은 그가 먼저 발견한 터에다가 일단 팽이를 내렸으므로 그 터에서 받을 복도 역시 그가 받았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18-1019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83-585쪽.

[북구 설화 11]

### 풍수설 (2)

동래군 구포에서 양산군 물금으로 가는 중도에 낙동강가에 용두산이라 하여 용의 머리와 흡사한 모양을 한 산의 꼬리가 빠져 나와 있어, 거기는 대단한 복지라고 하여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묘를 쓰려고 하였으나 묘를 쓰고 돌아오면 그날 밤부터 매일 밤, 솔뚜껍이 짹짹 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모두 묘를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지금도 그 산에는 묘가 하나도 없고, 누가 이 산에 묘를 쓸 팔자를 가지고 있는지는 물론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 1931년 2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19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85쪽.

[북구 설화 12]

### 산골 색시

옛날 어떤 젊은 사람이 촌 색씨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신혼 첫날밤에, 금방 색씨가 새방에 들어오자마자 신랑은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평풍 넘어 앉은 신부,

뒷간을 가리키쇼.” 하였다. 그랬더니 신부는 “우리 고을 산협에는 짐승이 많사오니 요강을 드려 보쇼. 제가 내다 붓사이다.” 하였다.

그러나 신랑은 첫날밤에 신방 안에서 똥을 누는 것은 버릇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밖에 나가서 뒷간을 찾았다. 신부도 부끄러워서 신랑을 말릴 수도 없었다. 신랑은 겨우 뒷간을 찾아서 막 걸터앉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범에게 물려가 버렸다. 신랑의 고태치는 소리를 들은 신부는 곧 방을 뛰어 나와서 몽둥이를 집어 들고 범 뒤를 쫓았다.

범은 들을 지나고 산을 넘어서 한 곳에서 신랑을 먹으려고 땅에 내려놓았다. 신부는 거기서 한참 동안 범과 싸워서 마침내 범을 쫓아 버렸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신랑을 등에 업고 아래 마을까지 가서, 깊은 밤중에 어떤 집 대문을 두들겨서 사람을 깨우고, “길가는 사람인데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나서 넘어졌으니 미안합니다만 하루 밤만 재워 주십시오.” 하였다니, 그 집 사람들은 매우 동정하여 그들 부부를 사랑에 들여보내서 자게 하였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있기에 그 집 종년이 다시 나와서 문구멍으로 여자의 모양을 자세히 엿보니, 불에는 연지를 짚고 옷은 색옷으로 화려한 것이 조금도 나그네 같지는 않고 어디 색시 같기에 이것을 안주인한테 말하였다.

그랬더니 안주인은 자기 아들 생각이 문득 나서 ‘혹여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넘어져 있는 신랑의 얼굴을 잘 보고 오라고 종년에게 일렀다. 종년이 더 자세히 잘 보니 그 옷도 그 얼굴도 자기 집 새서방님에 틀림없었다. 그 때부터 그 집은 야단법석이 나서 의사를 불러 오고 미음을 만들고 겨우 신랑을 정신 차리게 하였다.

이 소문은 뒤에 나라님에게까지 올라가서 그 여자는 나라로부터 정열부인(貞熱婦人)에 봉하게 되고 죽은 뒤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열녀각(烈女閣)을 세워주게 되었다 한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0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99-600쪽.

[북구 설화 13]

## 기타

“...니 빨리 약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다시 살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을 빨리 두 분에게 먹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그 여자는 앞에서 본즉 예쁜 아가씨로 보이나 그 뒷모양은 전연 범이었으므로, 견양을 대어 한방 쏘았던 바 한 마리 젊은 암호랭이가 되어서 넘어졌다. 그리고 소년은 다시 거닐고 있던 중에 급히 산을 달려 내려오는 한 소년을 만났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불을 좀 빌리시오.” 한즉 그 소년은 “아니, 그럴 틈이 없소. 지금 양친과 처의 혼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나쁜 놈에게 죽었으니 빨리 제사를 지내서

우리들을 살려다오 하였소.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양친과 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하겠소.” 하였다. 자세 보니까 다리 밑에 꼬리를 끌고 있으므로 이 또한 한방으로 쏘아 죽였다. 그것은 젊은 숫호랑이었다.

또 얼마쯤 가니까 이번에는 산과 같이 큰 한 마리 흰 호랑이가 나타났다. 천년 묵은 뱀으로 털이 하얗게 세었던 것인 그 범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소년을 삼키려고 덤비므로 소년은 한 방을 그 벌린 입에다 대고 쏘았다.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어서 몇 방을 쏘았으나, 호랑이는 그 커다란 이로 총알을 받아, 총알은 일일이 도로 튕겨져 오므로, 소년은 총알이 없어질 때까지 쏘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호랑이는 마침내 총과 더불어 소년을 삼키고 말았다. 호랑이의 배 속은 마치 한 마을과 같이 넓었다. 그리고 그 배속의 여기저기에는 잡혀 먹힌 사람의 뼈가 헐어져 있었다.

소년은 그 속에서 아버지의 뼈를 찾아 내었다. 그것은 그가 여러 유골 사이에서 한 자루 총을 들어 본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고, 그 총 곁에 한사람의 유골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 낸 것이었다. 소년은 그 유골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바랑 속에 담았다. 그는 다시 그 한 구석에서 기절하여 넘어져 있는 한 처녀를 찾아내어서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한 결과 처녀를 다시 살렸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연장이 없을까?” 하고 사방으로 찾다가 그들은 유골 틈에서 한 자루 주머니칼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유골이 된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그 칼로 호랑이의 똥구멍을 겨우 조금 찌졌다. 그런즉 바깥이 좀 보이게 되었다. 처녀는 그 구멍으로 “범이 지금 들어 있는지 언덕 위에 있는지 바닷가에 있는지 또는 산속에 있는지”를 분간하여 보기로 하고, 소년은 칼을 가지고 호랑이의 옆구리를 찌기 시작하였다.

호랑이는 맹렬한 복통을 느끼었다. 그래서 산신령님인 곶에게 찾아 가서 약을 청하였다. 곶은 과실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으므로, 범은 능금 배 같은 것을 닥치는 대로 따 먹었다. 배 속에 들어 있는 두 사람은 마침 그때 몹시 굶주리고 있던 판이므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과실을 보고 “이거 되었구나.”하고 먹어 더욱 기운을 얻었다. 호랑이는 더욱 복통이 심할 뿐이므로 다시 곶에게 가서 약을 청하였다. 그런즉 곶은 “약물을 먹어라”고 하였다. 범은 그 물을 먹었다. 배 속에 있는 두 사람은 그때 마침 목이 마른 차이라 홍수 같이 밀려오는 약물을 마음껏 먹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더욱 기운을 얻어서 다시 그들의 일을 시작하였다. 호랑이는 아픈 것을 참다못하여 미칠 듯이 얼마 동안은 산과 들을 헤아리지 않고 뛰어 넘기도 하고 또는 몸을 대굴 대굴 굴리기도 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처녀는 밖을 내다본즉 그것은 넓은 벌판이었다. 범의 배때기는 마침내 찢어져 벌어졌다.

그러나 턱도 없이 그대로 나갔다가 만일 범에게 다시 물려 죽는다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소년은 범의 흉문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그 불알을 칼로 찢러 보았다. 그래도 역시 범은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그는 비로소 범이 죽은 것이 확실함을 깨닫고 벌어진 범의 가죽을 베껴서 둘이서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노파의 집에 들렀던바 노파는 그때 이미 눈썹까지 하얗게

세어 있었다. 그들은 그 노파를 데리고 셋이서 소년의 집으로 향하였다. 소년의 어머니도 또한 그 동안에 상당히 할머니가 ……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이들까지 세넷 낳았다. 그런데 하루는 그 남편이 무슨 말 끝에 첫날밤 연시 이 얘기를 안심하고 그 아내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아내는 금방 본디의 성질을 나타내어 “그럼 그렇겠지.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있나.” 하면서 남편의 상투를 후려잡아 땡겨 무수히 때렸다고 한다.

- 1931년 2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0-1022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11-613쪽.

[북구 설화 14]

### 맹인을 태사(太師) · 참봉(參奉)이라고 부름

영조대왕이 형님에 맹인이 있었다. 그는 왕형(王兄)으로 내어났음으로 아무 소원이고 다 이루었다. 그렇지만 그는 오직 맹목(盲目)임으로 이것을 대단히 슬피 여겨 나중에는 기락(妓樂)에도 모멸을 느끼었다. 그리고 어떤날 그는 내가 궁전누상에 올라가 조용히 세상 형편을 살피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문수(問數)”라고 부르면서 누하(樓下)를 걷는 자가 있는 것을 듣고 불심(不審)히 생각하고 근시자(近侍者)에 향하여 “저것이 무슨 소리인가.”고 물었다.

시자의 답으로 그도 자기와 같은 경우에 있으며 따로 생업도 없고 오직 매복(賣卜)을 하며 다니는 자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자기와 같은 경우의 자도 있구나’고 알게 되어 대단한 동정심과 호기심에 이끌려 근시자로 하여금 그 맹인을 누상에 부르게 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여본즉 말이 참 잘 맞으며 초대면일지라도 십년지기의 감이 생기므로 그는 그 후 매일 복청(卜廳)에 가서 맹인들과 교유하여서 비로서 위안을 얻게 되었다. 이로부터 복청은 영종의 칙명에 의하여 어복청(御卜廳)이라 부르고 맹인들은 태사라 불리게 되며 어복청에는 매일 칠십 일인씩의 당번 맹인을 두었다. 이 당번은 갑오년부터 폐지되어 어복청은 경성과 진주 이개소로 나뉘었는데 양소(兩所)에는 다 영조대왕[英祖大王]의 화상을 걸었다 한다. 또 경성의 어복청의 화상에는 신임(新任)의 승상(丞相)이 여기에 고배(告拜)를 하였다고 한다. 또 맹인을 참봉이라고 하게 된 것은 숙종대왕 때인데 그때 왕은 무녀와 맹인을 불러 무녀는 이것을 흑세무민의 배(輩)로서 천민으로 치고 맹인은 의사와 동등히 보고 이것을 참봉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하는 말이 있다.

- 1925년 7월 경남 동래군 구포맹인 최순도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2-1023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63-564쪽.

[북구 설화 15]

### 최가와 강가

옛날부터 최가(崔哥) 성을 가진 사람은 모질다고 한다. 그리고 최가가 앉은 자리에는 잔디 풀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 어떤 최가 할아버지가 하루는 혼인집에 가서 “돼지 꼬리는 눈 어지럼병에 약이 되니까 혼인집에 가거든 꼭 그걸 하나 얻어오시오.” 하는 할머니의 청대로 그것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산을 하나 넘게 되었는데 밤은 꽤 깊고 할아버지는 조금 술이 취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시커멓고 키가 큰 눈도 코도 없는 허청이 도깨비가 나타나서 “영감, 그 돼지 꼬리를 나한테 안 주려나.” 하였다. 돼지 꼬리는 허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마누라가 가져오라고 했으니깐 너한테 줄 수는 없다.” 하고 할아버지가 거절하니깐 도깨비는 대단히 골이 나서, “그래, 안줄 테면 보라.” 하고 도깨비는 금방 많은 동무들을 데리고 와선 할아버지를 산꼭대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산 밑으로 차 던졌다. 산 밑에 다 달았을 때 도깨비들은 또 다시 산꼭대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산 밑으로 차 던졌다. 산 밑에 다 달았을 때 도깨비들은 또 다시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다시 차 내리뜨렸다.

이렇게 끌리고 굴러 떨어지기를 수십 번이나 하였지만 할아버지는 끝끝내 돼지 꼬리를 주지 않고 꼭 손에 쥐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깨비들도 기가 막혀서, “여보 영감 성이 무어요.” 하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나 말이야, 내 성은 최가다.” 하였더니 도깨비들은 놀란 얼굴로 “아 그럼 처음부터 최가라고 말을 하지. 최간 줄 알았더라면 이런 헛수고는 안 했을 텐데.” 하면서 모두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최가 열이 한데 멍쳐도 강가(姜哥)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고 하니, 강가는 얼마나 한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전 이필남(李必南) 씨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3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68-569쪽.

[북구 설화 16]

### 안해를 잃은 사내와 독수리

옛날 한 남자와 그의 신부와 종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었다. 강을 절반쯤 건넌을 때 갑자기 도둑놈의 배가 나타나서 색씨와 종년을 빼앗아 달아나 버렸다. 젊은 사내는 분해하며 다시 언덕으로 돌아와서 이리 저리 생각하여 보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 때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어디선가 날라 와서 “도둑놈들은 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나 당신은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을 테니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비어서 내가 당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것을 한 조각씩 내 입에 넣어 주면 당신을 내 등에 태워서 데려다가 주겠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여 거진 바다를 다 건넜을 때에 독수리가 또 돌아다보았으니 그젠 쇠고기가 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팔을 한쪽 비어서 주고 겨우 바다를 건널 수 있었는데 독수리는 그를 육지에다 내려놓자마자 각 소리를 지르며 아까 삼킨 그의 팔을 뱉어서 다시 붙여주고 나서는 “이 길을 바로 가면 커다란 버드나무가 하나 서 있을 테니 그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으면 도둑놈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요.” 하고는 어디론지 날라가 버렸다. 젊은 사내는 그렇게 하여 버들가지 속에 숨어 있으려니까 밤도 깊어서 한 여자가 몰래 도둑놈의 집에서 나오더니 버드나무 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것을 단 위에 바치고는 “제발 서방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것은 분명히 그의 종년의 목소리였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주인과 종 두 사람은 그지없이 기뻐하여 함께 울었다. 그리고 차츰 종년의 말을 들어 보니 사내의 안해는 벌써 마음과 몸을 다 도둑한테 바치고 남편의 생각은 조금도 안할뿐더러 도리어 남편이 원수를 갚으러 올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는 크게 성이 나서 당장에 두 원수를 찢러 죽이고 싶었으나 종년의 말을 들어 분을 참고 얼마 동안 도둑의 광 속에 숨어 있었다.

그 동안에 종년은 틈을 타서는 장군수(將軍水)를 날라다 주었다. 젊은이는 그 물을 먹고 점점 힘이 강해졌다. 종년은 하루 몰래 큰 칼을 가져 오더니 “이걸로 한번 힘을 시험해 보시오.” 하였다. 젊은이는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었다. 얼마 뒤에 또 하루는 종년이 와서 “지금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도둑놈은 지금 술이 취해서 자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이십시오.” 하였다. 젊은 사내는 큰칼을 들고 도둑놈 방에 들어가서, 먼저 도둑놈의 코를 찌더니 도둑놈은 목에 붙은 비늘을 거꾸로 세우며 덤비려 하였다. 사내는 곧 종년이 일러 준대로 비늘 밑으로 칼을 각 찢러서 도둑놈의 목을 잘랐다. 그러니 도둑놈의 머리가 풀썩 튀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며 그 목에 도로 붙으려고 하였다. 그때 종년이 재빨리 치마 속에서 재를 꺼내서 목에다 뿌렸다. 그래서 머리는 일단 목에 붙었으나 다시 굴러 떨어져서 도둑놈은 죽어버렸다.

사내는 그 안해까지 붙들어 죽이고 종년과 함께 도둑놈이 광을 추어 보았더니 한 광에는 쌀이 하나 가득 있고 한 광에는 돈이 가득하고 또 한 광에는 금·은 보배가 산처럼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이것들을 모두 도둑놈의 부하에게 나누어 주고 잘 타일러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제일 귀중한 보배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내는 그 종 계집아이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1931년 4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 씨 답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3-1024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71-573쪽.

[복구 설화 17]

### 염소는 소의 사촌 아우

하느님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소는 어떤지 생각하여 보았으나 발과 눈을 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고, 염소를 불러 “너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동물로, 먹기만 하니 없애려고 한다”고 하니 염소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촌 덕택으로 먹고 있으니 사람에게서 폐를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느님은 이상하게 여겨 “네 사촌이 누구냐” 하니, 염소가 대답하되 “소입니다” 하였다. “어찌하여 소가 네 사촌이 되느냐” 하니, 염소의 말이 “소의 발굽이 돌이요, 나도 줄입니다. 또 소도 뿔이 돌인데, 나도 뿔이 돌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느님이 “그러면 소 꼬리는 긴데 네 꼬리가 짧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니 염소가 말하기를 “그것은 외탁입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28년 2월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 김문환 기고

\*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65-566쪽.

[복구 설화 18]

### 거짓말로 장가 든 사람

옛날 한 재상이 있었는데 매우 거짓말을 즐기어 “내 마음에 꼭 드는 거짓말을 두 가지만 하는 사람에게는 내 외동딸을 주리라”고 하였더니, 조선 팔도의 거짓말쟁이란 거짓말쟁이는 모두 모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턱없는 거짓말을 하여도 둘째 이야기가 되면 “응, 그것은 정말이다” 하고 딸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말하기를 “머지않아 더운 여름이 올 테니 지금 장안 종로 거리의 군데군데에 깊은 굴을 파고 그 속에 작년 겨울의 찬 바람을 잡아 넣어두었다가 여름이 되거든 그것을 내놓아 팔기로 하면 굉장한 돈벌이가 되겠지요”라고 하니, 재상은 재미가 나서 “그것은 훌륭한 거짓말이다. 그래 그 다음은?”이라 하였다. 그러자 청년은 허리에 차고 있던 주머니에서 흰 문서를 한 장 꺼내어 재상 앞에 펴 보이며 “이것은 돌아가신 대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빌려 가신 십만 냥의 돈 문서입니다. 이것을 값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재상은 ‘이것을 거짓말이라 하면 달을 주어야 되겠고, 정말이라 하면 십만 냥이란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고’라고 생각하여 할 수 없이 그 딸을 청년에게 빼앗겼다고 한다.

- 앞과 같음, 김문환 씨 기고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567-568쪽.

[복구 설화 19]

### 승천 못한 혼

□ 어머니가 외딸을 두고 세상에 둘도 □ 워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 려서 죽어버렸는데, 죽은 뒤 가 □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서 어찌 □ 므로 어머니는 그 딸을 위 □ 는 곳을 하였다. 이 곳은 □ 는 혼을 저 세상으로 인 □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 □ 는 것인데 곳 끝에 종이용 □ 버리는 일이 있다. 이것은 □ 그것을 타고 승천하라는 뜻 □ 그 어머니도 이 종이용을 □ 데, 그 때 어머니는 딸 □ 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단히 □ 울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 판에 가 보니까 거기에 집이 □ 있고 그 짓에 들어가니까 속 □ 자기 달이 나왔다. 어머니는 놀라 □ 아직도 이런 곳에 있는 거냐 □ 딸이 대답하기를 "□ 용을 타고 하늘에 올라 □ 때, 어머니가 너무도 제 □ 시며 우시므로 어머니 쪽을 □ 보다가 그만 용의 등에서 떨어 □ 니다. 그래서 하늘에 못 올라 □ 곳에 있는 것입니다" □ 하였다고 한다. 우구곳을 할 때 너무 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 만든 용을 곳 시작하는 처음부터 막대기에 달아 놓는데, 보통 용신기(龍神旗) 또는 용신대(龍神대)라고 하며, 용 입에 촛불을 켜는 것이므로 이것을 용등(龍燈)이라고도 한다.

-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 씨 이야기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606-607쪽.

[복구 설화 20]

### 딸의 원혼

마을 부인들에게는 최근의 일로 알려진 이야기이다. 김해군 명호(낙동강 하구에 있는 섬)에 사는 김씨의 딸이 죽은 뒤 원혼이 되어 가족들을 괴롭혔고, 집안은 이런 소란 때문에 파산해 버렸다. 이유는 이러했다. 딸에게 혼담이 있었지만 숙부의 반대로 깨지고 말았다(딸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딸은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했던 것이다. 죽은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이후 그녀의 원혼은 매일 밤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괴롭혔다. 집의 그릇들을 던져 깨거나 문을 덜컹덜컹 소리를 나게 하고 불을 끄기도 하는 등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또 집을 태우는 광경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딸에게 사죄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당을 찾아가 딸의 혼을 잡아 호리병에 가두기로 했다. 무녀는 그녀가 죽을 곳에서 용왕을 먹인 밀폐된 항아리에 끈을 묶고 이것을 강 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원혼을 호리병에 담았는데 이상하게도 밀폐된 호리병 안에는 몇 개의

여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이것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무녀가 미리 넣어둔 것일지도 모르지만,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렇게 잡아두는 것인데 그녀의 원혼도 이렇게 호리병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깨고 나온 것인지 그녀의 혼은 다시 나타나 가족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명호에서 강 하나 떨어진 동래군 하단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한 날 밤 불을 붙이려고 화촉을 찾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딸의 혼은 어머니에게 화촉을 쥐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어머니는 딸의 원혼을 위로하고자 여러 가지 제를 지내기도 하고 무녀와 맹인, 점쟁이 등을 찾아다니며 해결 방법을 묻는 사이에 재산을 탕진하고 말아 지금은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 이필남 씨 이야기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638-639쪽.

[복구 설화 21]

### 아버지의 사인(死因)을 말하다

어느 바보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조문객들이 아들에게 사인을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글쎄요. 어쨌거나 이질에 걸려 설사를 하시고, 계속 천식을 앓으시던 중 선반에 있던 호박이 가슴으로 떨어졌는데 그놈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 1931년 2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의 이야기<sup>20)</sup>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667쪽.

[복구 설화 22]

### 바보 같은 신랑

한 바보 같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재행(결혼식을 올린 뒤 3일이 지나면 남자가 일단 본가에 돌아가 며칠 지나고 다시 처가에 온다. 이것을 재행再行이라고 한다) 때에 처가를

20) 유고 원고의 원문에서 바로 앞에 기록된 설화가 “1931년 2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 씨 이야기”인 점을 고려하면, “1931년 2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의 이야기”도 당시 동래군 구포리에서 조사된 설화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복구 설화 22]부터 [복구 설화 25]까지의 설화를 구포리가 속한 현재의 ‘복구 설화’로 보았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길가에 있던 아이들을 붙잡아 “애들아! 엇그제 천막을 치고 혼례를 치른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 겨우 처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누가 자신의 부인인지도 모르던 참에 때마침 베를 짜고 있는 젊은 여인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부인이라 생각하며 “이런! 주제에 베를 짠다고” 하며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형수였다. 이것을 부엌에서 듣고 있던 그의 부인은 어이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소면을 조리로 뜨면서 “뚝뚝하니까 국수 반 줄까?”라고 말하자 그는 그다지 싫지도 않은 표정으로 “아닙니다, 팬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1931년 2월, 앞의 글과 같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의 이야기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668-669쪽.

[복구 설화 23]

### 바보 같은 신부

한 남자가 장가를 갔지만 아내의 어리석음에 고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두루마기의 고름이 떨어져 “이것을 다시 달아 주지 않겠나”라며 우직羽織을 벗어 주자 아내는 고름을 옷깃에 달아 주었다(고름은 옷깃과 앞섶 사이에 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는 화가 나 “이런 곳에 끈을 다시 다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이오”라며 호통치며 다시 우직을 던져 주었다. 그러자 부인은 그것을 다시 가져와 이번에는 동정(옷깃위에 덧대는 하연 동정)에 달았다. 그는 어이가 없어 화낼 정도를 넘어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웃으실 걸 아까는 그렇게 화를 내셨나요”라고 말했다.

- 1931년 2월, 앞의 글과 같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의 이야기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669쪽.

[복구 설화 24]

### 마누라는 함께 살아 봐야 알 수 있다

한 남자가 장가를 갔다. 그러나 부인이 옷의 모양새와는 상관없이 엉망으로 바느질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부인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해 부인을 쫓아내고 다시 장가를 갔다. 그러나 이번여자는 옷이 뜯어진 곳을 짝 조여 매는 것 외에는 바느질할 줄을 몰랐다. “이런 부인 또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여자를 내쫓고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다. 그러자 이번 여자는 옷이 터진 곳을 수선하기는커녕 멀쩡한 곳까지 뜯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깨달길 “꼭 매는 여자여, 찢는 여자여, 나의 첫 번째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마누라라는 것은 여러 사람 데리고 살아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 1931년 2월 앞의 글과 같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의 이야기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669-670쪽.

[복구 설화 25]

### 최씨 시조 금돼지 전설(崔氏始祖金猪傳説)

옛날 어느 가난한 부모에게 세상에 드문 훌륭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살림이 어려워 그녀를 다른 집의 수양딸로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산으로 들어가 야채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의 광주리를 물고 갔다. 그녀는 이를 쫓아 돼지의 뒤를 밟았는데 잠시 후 돼지는 바위 구멍으로 들어갔고 그녀도 따라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 구멍이 저절로 닫히고 작은 틈도 없는 절벽이 되었다. 바위 구멍 안에는 드넓은 별천지가 있었고 이것은 돼지가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녀는 돼지의 포로가 되었고 결국 음양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원망해하며 침울해 있었기 때문에 돼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어느 날 그녀에게 “당신도 외로웠으니 오늘은 바깥 세상에 나가 구경이라도 하고 오지 않겠나.” 라고 권유했다. 그녀가 바위 구멍으로 들어온 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그녀는 기뻐하며 돼지를 따라 바위 구멍에서 나갔다.

오랜만에 인간 세상에 나와 구경을 하니 잠시 동안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곧 고향 생각에 고향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점점 몸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무릎에 손을 얹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포수가 나타나 “이런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여자 혼자서 왔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다.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돼지는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에 먹이를 찾으러 갔던 것이었다. 그녀는 안심하여 포수와 인사를 나누고 사는 곳을 물어 보자 포수는 우연히도 그녀의 양가(養家)와 같은 마을 사람이었고 양가가 망했다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이 그리운 마음에 포수와 달아나기로 했다. 그러나 이때 운 나쁘게 돼지가 이것을 보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며 산 위에서 뛰쳐 내려왔다. 포수는 돼지를 피하기 위해 덩굴 속으로 몸을 숨겼고, 그녀는 황급히 가슴에서 실 멍치를 꺼내 그 끝을 자신의 발꿈치에 묶고 멍치를 포수에게 던져 주었다.

돼지는 콧소리를 내면서 그녀를 바위 구멍으로 데려갔다. 그 후 포수는 덩굴에서 나와 그녀가 준 실멍치를 따라 돼지가 사는 곳을 찾아냈지만 바위 구멍은 이미 닫혀 있고 실 한 가닥만 바위벽을 통과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근처에 몸을 숨기고 바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돼지는 구멍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너는 무엇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돼지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는 생금(生金)판과 동삼(童叟)과 천년 묵은 주(朱), 녹아(鹿芽)가 무섭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돼지는 급히 산에 가서 생금(生金)판 두 장과 동삼 세 뿌리와 천년 묵은 주(朱) 한 개, 그리고 사슴을 죽여 녹아(鹿芽) 수 십 개를 떼어 돌아왔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녀 주위에 나열해 두었다. 그녀는 무서워하는 기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는 꿈쩍할 수 없습니다.”라고 원망의 말을 말하자 돼지는 안도의 미소를 띠었다.

그리고 그녀가 돼지에게 “당신은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돼지는 “무서운 것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만 대답했다. 그녀가 “그래도 무엇인가 무서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끈질기게 묻자 돼지는 “사슴 가죽이다. 사슴의 가죽을 내 머리 후두(後頭) 흠통에 붙이면 즉사하게 된다.”라고 대답했다. 그 후 그녀는 집안 곳곳을 뒤져 보았지만 사슴의 가죽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순간 자기가 허리에 차고 있는 열쇠 끈이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양가에 있을 때 공간 열쇠를 묶어 두던 것이었지만 야채를 따러 나올 때 허리에 찬 채로 나왔던 것이었다.

그녀는 열쇠 끈의 한 조각을 잘라 가슴에 품고 돼지에게 술을 권한 후 “머리에 있는 이를 잡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먼저 앞머리부터 잡기 시작했다. 그런 후 “이번에는 뒷머리를 잡겠습니다.”라고 하며 돼지를 구부리게 하였다. 돼지가 잠든 사이 재빨리 가슴에서 사슴 가죽을 입 속으로 넣어 침으로 적셨다. 그리고 나서 틈을 타 후두의 흠통에 적신 사슴가죽을 붙였다. 돼지는 꿈-하는 소리를 함께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곧바로 돼지가 소중히 갖고 있던 책을 가져와 석문에 서서 돼지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책에 써 있는 주문을 말하자 문은 조용히 열렸다. 그녀가 바위 문으로 나가 포수를 불러 들은 다시 바위구멍으로 들어가 생금판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부부가 되었고 그로부터 딱 10개월 후에 남자아이를 분만하였다. 이 아이는 포수의 아이가 분명했지만 또한 멧돼지의 연도 있기 때문에 성을 김저라고 했다. 포수의 성이 되는 김을 위로 하고 멧돼지의 저를 밑으로 했다. 최씨의 최는 저와 비슷한 음이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는 저에서 최로 변하였다고 전해진다.

- 1931년 3월 29일 경남 동래군 구포, 최순도 씨 부인 창원댁 이야기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신라 시대의 어느 마을에 군수가 부임하면 부임 당일 밤에 군수의 부인이 무엇인가에서 잡혀간다는 기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마을의 군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나라에서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 전국에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방을 내렸다. 이에 응한 사람은 단 한 사람으로 최라는 가난한 선비였다. 인물도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를 군수로 임명하였다. 최는 부임 당일 밤 부인의 발목에 긴 실을 묶고, 방 안에는 수 백개의 횃불을 켜고 괴물을 기다렸다. 3경 지나고 4경이 지나도 괴물 비슷한 것 하나 나타나지 않자

지금까지 긴장했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피로로 인해 어느 샌가 잠이 들어 버렸다. 그 순간 여자의 비명소리가 났고 이에 깨어보니 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기를 기다린 후 그는 실을 따라가 적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실은 큰 바위 벽의 사이를 뚫고 지나가 있고 사람이 지나갈 만한 어떤 틈도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갔단 말인가”라고 의심하면서 우선 잠시 동안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몸을 숨겼다. 그러나 정오가 되자 바위벽이 이상하게 저절로 열렸기 때문에 그는 바로 문으로 들어갔다. 석문은 소위 자오석으로 정자 때와 정오 하루에 두 번 열리는 것이었다. 그는 안에서 별천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적의 집 근처에 있는 우물 옆에 버드나무에 올라가자 그의 부인이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버드나무 잎을 뽑아 물 향아리 위에 떨어뜨렸다. 이에 부인이 나무 위를 올려볼 때 얼굴을 내밀어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렸다. 부인이 손짓으로 그를 내려오게 하고 곳간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사닥다리에 올라가 음식을 옮겨 주고 오직 적을 죽일 생각만 하였다. 적은 소위 금돼지(金猪)라는 것으로 어느 날 그녀는 금돼지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금돼지는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녀가 재차 물어보자 금돼지는 “양의 가족이 제일 무섭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차고 있던 열쇠 끈이 양의 가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 금돼지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침을 묻혀 인중에 붙였다. 어려움 없이 금돼지를 죽인 후 잡혀온 많은 부인들을 구해 돌아왔지만 그녀는 한 명의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는 금돼지의 아이였다.

이 아이가 실제로는 우리 최씨 선조와는 거리가 멀다.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 동일, 구포, 최두해 군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5-1027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15-619쪽. <최씨의 시조인 금돼지 이야기>.

[북구 설화 26]

### 원혼 이야기(冤魂鬼四則)

구포에 김구윤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인이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했다. 그러나 재혼 당일 밤부터 죽은 아내의 원령이 나타나 고민하고 있었다.

원령은 이렇게 나타났다. 밤이 되어 그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갑자기 죽은 아내가 나타나 옆에 자고 있던 신부를 밀쳐내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한

서린 얼굴로 있었다. 놀라 눈을 뜨면 모습을 감추고 자려고 하면 또 다시 나타났다. 몇 날 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무당을 찾아가 방도를 물었다. 무녀는 죽은 아내의 혼을 불러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망령은 “억울하다. 나의 위패를 그들의 베개 옆에 두고 제사를 지내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망령의 요구대로 위패를 베개 곁에 두고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식사를 올리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드렸다. 오랜 기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이 점점 망령이 나타나는 것이 줄어들어 지금은 더 이상 원혼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양산에 어느 집에서는 며느리가 죽은 뒤 며느리의 옷을 딸에게 입히자 딸이 병을 얻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옷을 변소 옆에 두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자 며느리의 모든 소지품을 태웠다. 이에 과연 그날부터 딸의 병은 흔적도 없이 나았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의복에 미련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구포에 살았고, 나의 집에서도 자주 찾아오던 대구할머니라고 불리는 할머니는 아이도 없이 노부부 둘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오랜 병마로 폐인과 같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할머니는 나의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선 보리 세 되를 개에게 먹인 것처럼 가슴이 뻥하네”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약간의 돈을 남겨 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 돈을 나의 아버지에게 맡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중에 나의 친척인 허문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00원(円)을 빌렸는데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한 푼도 갚지 않아 할머니를 꽤나 고생시켰다. 할머니가 죽은 뒤 장례비로도 돈을 내지 않았다. 허문선은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보증인 된 허명선은 그의 종제이며 나의 외삼촌으로서 상당히 유복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명선에게 “할머니의 돈을 내가 갚아 주거라”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죽은 뒤 어느 날 밤 어머니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수많은 장골들을 데리고 와 허명선의 집에 들어가 “명선 이놈을 묶어라”라고 명령하고 명선은 포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에 놀라 꿈에서 깨고 그 길로 허명선의 집으로 가 보니 허명선은 그 시각 토하고 설사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내자 겨우 토사는 멈췄다. 다음 날 명선에게 어제 밤 꿈 이야기를 하자 명선은 놀라서 할머니의 위패를 가지고 절에 가서 혼령을 위로하는 제를 지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또한 내가 마산에 있는 여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나의 상급반에 □□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마산의 부처에 근무하는 한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다. 우연히 남자가 부산에 있는 부청으로 전근을 가게 되자 그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임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남자는 “그 쪽에 가서 안정이 되면 바로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 버렸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여자는 남자로부터 결혼 초대장을 받았고 그녀는 초대장을 받자마자 굳게 결심하고

결혼 당일 마산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결혼을 한 부부는 경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불국사 호텔에 묵게 되었다. 그날 밤 자살한 여자는 젖은 몸으로 침실에 나타나 신부를 밀어내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내 남편을 줄 수는 없지.”라고 말했다. 남자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흔들어 깨우자 남자는 즉시 짐을 챙겨 아침이 되길 기다려 첫 열차로 대구로 내려가 또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밤 이러한 꿈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목을 매어 자살하면서 “나는 너의 곁으로 간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일이 있던 후부터 우리들은 진해 등으로 소풍을 가게 돼도 배로 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혼령이 어떤 것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1931년 2월, 경남 동래군 구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7-1029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19-622쪽, <원혼 이야기 네 편>.

[북구 설화 27]

###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운명을 가진 소년과 도적 (虎食運を有つ年を大賊)

어느 부잣집에 3대 걸쳐 독자가 계속되었고, 대여섯 살 정도의 어린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탁발승이 찾아와 그 아이의 관상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만 꼰꼰 차며 나가니 이 모습을 하인들이 보고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은 크게 놀라 스님을 불러 연유를 묻자 스님은 “당신의 아이는 15살이 되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주인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청했다. 스님은 “그렇다면 이 아이가 10살이 되면 어느 절의 어느 승려에게 사미(沙彌)로 맡기세요. 그 길 밖에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아이가 10살이 되자 스님의 말대로 사미가 되었다. 그 사승(師僧)은 아이에게 학문과 불법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피륙 등을 건네며 “네가 옷간 장사로 조선팔도를 마음 가는 데로 돌아다니면 된다”라고 말하고 비수 하나를 건네주면서 “위급할 때 이것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소년은 사승의 말대로 방방곡곡으로 행상을 하며 돌아다니던 도중 15살이 된 어느 해 한 장정을 만났다. 그 남자는 소년을 불러 세워 짐을 내려놓게 하였다. 소년은 무서워하며 짐을 장정에게 건넸다. 그러자 장정인 남자는 다시 “옷을 벗어라”라고 말했다.

소년은 “이것만은 봐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지만 도적은 “그렇게 꾸물대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했기 때문에 소년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갖고 있던 비수로 적의 목을 찌르고 도망갔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부잣집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들어가 “지금 도적을 만나 집을 빼앗겼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주인인 듯한 사람이 나와 “그것 참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집에서 불 심부름이나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소년은 잠시동안 진정하려고 했지만 얼마 후 하인들과 들어온 자를 보니 좀 전의 도적이었다. 도적은 목의 피를 닦으면서 “수상한 아이를 만나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니 남자의 목에는 인(麟)이 나 있었다. 이 때 좀 전의 젊은 주인(도적의 차남)이 나와 “그 아이가 혹시 저 소년 아납니까?”라고 소년을 가리켰다.

그리하여 소년은 도적들에게 잡혀 우리에게 갇히게 되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저 녀석을 꺼내어 죽여 버려라”라고 도적의 두목이 명령했다. 소년은 밤새 비수로 우리 벽을 뚫어 도망갈 수 있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기에 집 뒤에 있는 고목에 있는 구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떤 관의 행렬이 성대한 풍악을 울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회라 생각하고 구멍에서 나와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도적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 행렬은 관의 행렬이 아니라 도적의 장남이 많은 훗친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행렬이었던 것이다.

다시 잡혀온 소년은 쇠로 된 우리에 갇히게 되어 다음 날 아침에는 죽을 운명이 되었다. 아무리 비수를 갖고 있다 해도 쇠로 된 벽을 뚫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길 즈음 갑자기 부인이 한명 몰래 들어와 먹을 것을 주면서 “나는 경성의 어느 대신의 딸이다. 적에게 잡혀와 지금은 장남의 부인이 되었다. 물론 지금 괴로운 것은 아니다. 너는 배가 고플 것이니 이 누런 밥이라도 먹고 힘을 내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너를 죽이려고 도적들이 형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때 나를 보고 “누님 어찌 이런 곳에 있습니까? 라고 하고 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형장으로 끌려왔고 이때 부인은 남편에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꼭 한번 보게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여자는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도적은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애원에 못 이겨 허락하고 말았다. 부인이 형장에 나타난 것을 본 소년은 “누나” 하고 울부짖었다. 부인도 “동생”을 부르면서 소년을 안았다. 이 모습을 본 도적은 소년의 곁으로 가 “이런 무례한 일을 저지르다니 하마터면 소중한 친척을 한명 죽일 뻔 했습니다. 이 일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사죄했다. 그리고는 소년을 손님으로 며칠 동안 환대를 했다. 소년은 적의 허락의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고 경성에 어느 대신을 찾아가 딸의 이야기를 했고 적을 토벌하기로 했다. 그들은 많은 술과 음식에 비상을 넣어 이것들을 소와 말에 실어 도적의 집에 다시 찾아갔다. 도적은 부인의 고향에서 보낸 선물이 도착했다고 하고 부하들을 모아 이것을 나눠 주었다. 이것을 먹은 적들은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보내주었다. 소년은 부인을 고향으로 보내주고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소년이 적의 감옥에 있었던 밤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운명의 날이었다. 호랑이도 철 감옥을 어쩔 수가 없어 산으로 갔던 것이다. 소년은 악운을 피하고 결혼해서 많은 자손을

نال고 잘 살았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29-1031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23-626쪽, <호랑이에게 먹힐 운을 가진 소년과 도적>.

[북구 설화 28]

### 한량과 초립동(閑良と草笠童)

옛날 한 무사가 경성에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 나루터를 건너려고 했다. 배 안에는 초립동(초립을 쓴 나이 어린 남자)이 부인을 데리고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상당한 집안의 자제로 보였고 부인은 가마를 타고 있었다.

나룻배가 중류에 왔을 쯤 험상궂게 생긴 중이 늦게 도착해 “배를 다시 돌려라”라고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쳤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배를 다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분개하는 자도 있었지만 “저 녀석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선장이 애원했기 때문에 승객은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리게 하였다. 중은 배에 타자마자 가마에 있던 여자를 발견하고 무례한 태도로 가마의 문을 열어 신부의 손을 잡고 볼을 만졌다.

그러나 그가 무서워 어느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다. 초립동도 내심 분해하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을 한 쪽에서 지켜보던 무사는 배가 중류에 다다랐을 때 승객들에게 “나는 저기에 떠있는 오리 중에 진짜 사람의 머리를 맞춰 보이겠습니다. 모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승객들의 시선은 무사에서 일제히 오리 쪽으로 옮겨갔다.

중도 여자의 손을 잡은 채로 오리를 바라보았다. 이때 무사는 힘껏 화살을 당겨 중의 머리를 향해 쏘았다. 화살에 맞고 쓰러진 중은 강으로 빠졌고 승객들은 이를 통쾌히 여겼다. 초립동이 무사 곁으로 다가가 예를 갖추어 후 “보아하건대 당신은 무과를 보기 위해 경성으로 가는 도중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포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3년 후에 문과가 있으니 그 때 응시를 하면 반드시 급제할 것이오.”라고 했다.

“나는 무사이며 학문을 닦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문과에 통과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무사가 대답했지만 소년이 끈질기게 권유를 했고 결국 무사는 3년 뒤 문과를 보고 급제를 했고 한림 학사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소년이 어느 정승의 아들로 배 안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이 정승은 바로 시험관이었던 것이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1-1032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26-627쪽.

[북구 설화 29]

###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虎より怖い串怖)

호랑이 한 마리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어느 마을에 내려와 한 집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이때 마침 울고 있던 아기를 달래기 위해 어머니가 “봐! 호랑이가 왔다”라고 겁을 주었지만 울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이에 어머니가 “봐라! 꽃감이다”라고 말하자 아이는 울음을 딱 그쳤다. 이에 호랑이는 “꽃감이란 녀석이 나보다 훨씬 무서운 녀석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 하면서 아이를 포기하고 송아지라도 한 마리 잡으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마침 소도둑이 같은 집에 소를 훔치기 위해 들어와 우리로 갔다. 소도둑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호랑이는 소도둑을 꽃감이라 생각하고 오금아 나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이 갔을 즈음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호랑이다”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타고 있던 것이 호랑이였기 때문에 소도둑은 때마침 옆에 있던 나무에 몸을 옮겼다. 호랑이는 꽃감으로부터 도망쳐 “겨우 살았네.”라고 기뻐하였다. 소도둑도 숨을 돌리고 숨어 있을 곳을 찾기 위해 나무 아래를 내려다보니 매달려 있던 고목의 줄기에 큰 동굴이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나 올려다보니 흑곰 한 마리가 꼬리로 나무를 잡고 뒷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오고 있었고 하반신은 이미 동굴의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은 곰에게 잡혀먹겠구나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곰은 큰 고환을 축 늘어뜨리고 한 걸음씩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끈을 풀어 그물로 만들고 곰의 고환에 묶여 있는 끈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래서 곰을 어려움 없이 죽이고 살 수 있었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2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27-628쪽.

[북구 설화 30]

### 강아지로 호랑이 잡는 법(仔犬で虎捕る)

강아지로 호랑이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면 가르쳐 드리지. 강아지의 몸에 참기름을 바르고 두꺼운 긴 밧줄로 묶어 호랑이가 많은 산으로 데리고 가면 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난다.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를 한 손으로 내밀면서 줄 듯 안 줄 듯 놀리면 호랑이라는 녀석은 화가 나 강아지를 먹기 위해 달려든다. 이때 강아지를 핵 던져주면 호랑이는 넝름 입속에 넣어 버린다. 그러나 강아지의 몸은 기름으로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입과 배속을 통과하여 항문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으로 호랑이 한 마리를 잡은 것이다. 호랑이의 몸에 밧줄이 관통하고 있어 꼬치가 되어있고 죽어버렸다. 이 비명을 듣고 나타난 암컷 호랑이와 다른 친구들도 모두 이 방법으로 꼬치가 되었다. 이것들을 끌고 와 가죽만 팔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떨까? 좋은 생각이니 아닌가.

- 1930년 12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2-1033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28-629쪽, <강아지로 호랑이 잡기>.

[북구 설화 31]

### 뱀 이야기(戀蛇譚二則)

흔히 상사(相思) 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자를 몹시 사모하면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이 뱀은 상당히 얇아서 이른바 실뱀이 되어 벽의 틈 사이를 오가며 점점 커져 보통의 뱀처럼 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모하던 여자를 찾아 머리는 그녀의 턱을 받치고 꼬리는 그녀의 하문(下門)에 넣어 낮이고 밤이고 여자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밥 먹을 때와 용변 볼 때 그리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외출할 때에는 잠시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뱀을 속여 몸을 숨긴다 해도 헛수고일 뿐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또 기회를 노려 몇 번이고 뱀을 죽여도 다시 원상태의 연사(戀蛇)가 되어 여자를 괴롭게 했다. 여자는 뱀을 자신의 남편과 같이 소중히 하고(남편이 있는 경우 별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남편에게 대하듯 해야 했다. 예를 들면 식사 때에는 별탁을 만들어 먼저 먹게 하고, 안방을 뱀의 방으로 두고, 식사도 뱀과 함께 해야 했다.

어느 날 양반가의 외동딸에게 연사(戀蛇)가 붙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비탄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기분 전환을 위해 집을 나섰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절 문턱에 와 있었다. 연사도 물론 그녀의 몸에 붙어 있었다. 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갑자기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고 와야겠다.”라고 마음이 생겼다. 그녀는 뱀에게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뱀은 이를 승낙하고 여자의 몸에서 빠져나와 덩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절을 올리고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법당의 벽에 걸려있던 법의가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늘을 꺼내 꿰맸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이 걱정되어 급히 가마가 있는 곳으로 갔으나 뱀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히 여기며 주변을 살펴보니 뱀은 덩불 속에서 백골이 되어있었다. 그런 후에 뱀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법의를 꿰맨 것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이다. 법의를 꿰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로 속세에서는 모두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3명의 무사가 과거를 보기 위해 경성에 가고 있는 도중 잠시 쉬기 위해 주막에 들어가 보니 주모에게 연사(戀蛇)가 붙어 있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사들이 한 가지 안을 내고, 주모에게 시장에 가서 잉어를 사오도록 하였다.

주모가 연사에게 “외출을 해야 하니 잠시 내려와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연사는 주모의 몸에서 떨어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주모가 나간 후 무사들은 죽창을 만들어 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뱀을 죽인 후 가마솥에 넣고 삶았다. 뱀의 국물이 한 그릇 정도 되었을 쯤 그릇에 옮겨 두었다. 주모는 손님들 덕분에 오랜만에 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잉어를 사러 가는 것도 잊고 신이 나 동네방네 돌아다니다 잉어를 밤 늦게서야 사서 돌아왔다.

무사들은 뱀 삶은 국물을 주모에게 내주며 “주모의 귀가가 늦어져 우리들이 잉어를 사서 국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모의 몫으로 한 그릇을 남겼으니 마시세요.”라고 말하니 주모는 그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만약 한 방울이라도 국물이 남는다면 그 한 방울이 다시 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주모가 그것을 다 마시고 난 후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사들에게 뱀을 죽인 이야기를 듣고 한 없이 기뻐하며 감사의 예를 표했다.

무사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도중 한 무녀를 만나 점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녀는 잠시동안 생각한 후 “당신들은 이번 과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차가운 바람이 불면 아랫길을 버리고 윗길로 가고, 가다가 또 다시 같은 길을 만났을 경우 따뜻한 바람이 불면 윗길을 버리고 아랫길로 가시오.”라고 말했다. 과연 그날 밤 두 갈래의 길을 만나 아랫길로 가려고 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급히 윗길로 갔다. 그런데 곧바로 아랫길에서 “참 좋은 달이다. 이런 밤에는 먹이 한 마리 걸려들면 좋은련만”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산적이었다. 또 다시 길을 가던 중 역시 두

갈래의 길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무녀의 말대로 아랫길로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윗길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이무기는 연사(戀蛇)에서 변한 것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나타났지만 길이 틀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무녀의 점에 감복했다. 과거에 가는 도중은 사람을 죽이거나 생물을 죽여서는 절대 급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3-1035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29-632쪽, <연사 이야기 두 편>.

[북구 설화 32]

### 거짓말 겨루기(嘘の言比べ)

두 사람이 거짓말 겨루기를 하기로 하고 상대의 말에 “거짓말 하지마”라고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한 냥씩 내기로 했다.

어느 날 갑이 을에게 “어제 저녁에 우리 집의 우물이 없어졌어.”라고 말하자 을은 놀라서 “왜?”라고 물었다. 갑이 “귀신이 우물물이 좋다고 가져가 버렸어”라고 대답하자 을은 어이없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라고 말해 버렸다. 이리하여 을은 한 냥의 돈을 갑에게 주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지만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어도 을이 나타나지 않자 갑은 “어쩐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기다렸다.

이때 마침 을이 다급하게 왔기 때문에 갑이 “왜 이리 늦었는가?”라고 묻자 을은 침착해 하는 척 숨을 길게 내쉬면서 “정말 큰일이 있었어. 사실은 지금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는 아기들이 나오자마자 강아지처럼 살금살금 기어서 도망치는 것이야. 이렇게 아기가 열 명이나 나가 버렸어. 이 녀석들은 하나하나 잡아야 해서 정말 힘들었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은걸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갑은 어이없어 하며 “거짓말! 그런 일이 있을 리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을은 “그럼 어제 저녁에 준 내 돈 한 냥을 돌려주게”라고 말하며 갑에게서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갔다.

- 1930년 경남 동래군 구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5쪽. 최광식 역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32쪽.

[복구 설화 33]

### 주지승들의 절 자랑(三僧의寺自慢)

3명의 주지승이 모여 자신들의 절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다. “우리 절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많은 승려가 있는지 자네들은 모를 걸세. 우리 절에는 팔죽을 만들 때 그것을 섞기 위해 배를 타고 큰 가마솥에 들어가 노로 저어야 될 정도라네.”라고 한 주지승이 말하자 다음 주지승은 “그 정도의 사람으로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절에서는 문고리의 닳은 쇠붙이를 쓸어 모으면 매일 아침 그것이 서 말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3번째 주지승은 “우리 절의 변소는 훌륭하고 크고 깊습니다. 오늘 아침 변을 보고 내일 아침 또 변을 보러 가면 그때 어제 누고 온 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절이 어느 정도 사람이 있는지 아시겠지요.”라고 하였다.

- 동인 이필남(李必南) 담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5-1036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33쪽, <세 주지승의 절 자랑>.

[복구 설화 34]

### 황새가 하늘에서 내려오다(仁鶴下青天)

옛날 어느 한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신혼 첫날 밤 신부는 신랑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신랑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註. 결혼식은 여자 쪽 집에서 치르고,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이틀 밤을 묵고 3일째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신부는 걱정이 되어 신랑에게 “내일 저의 친척들이 모여 당신의 학문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시를 짓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피를 당할 것이니 제가 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익혀 읊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첫 구의 표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황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자 신랑은 큰소리로 “황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읊었다. 이에 신부는 다른 방에서 들릴까 걱정되어 “다른 방에 들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랑은 다시 큰소리로 “다른 방에 들립니다.”라고 하자 신부는 내심 ‘이런 바보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바보야”라고 호통 쳤다. 신랑은 또 같은 말로 호통 쳤다. 신부는 어이없어 하며 더 이상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친척들이 모여 시를 지어 보기를 청하자 신랑이 “황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읊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 남자는 학문이 꽤 있는가 보군”이라 생각하고 다음 구를 기다

리자 신랑은 다시 입을 열어 “다른 방에 들립니다.”라고 읊었다. 이때 마침 옆방에 있던 신부의 아버지는 이것이 “그쪽 방에서 잘 들립니까?”라고 들었기 때문에 “예, 잘 들립니다.”라고 대답이 끝나자마자 신랑은 “이 바보야”라고 호통을 쳤다.

- 1930년 12월, 같은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6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33-634쪽, <황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북구 설화 35]

### 욕심쟁이와 우둔한 사람 그리고 바보(慾深者と愚鈍者と阿呆者)

욕심이 깊은 사람과 우둔한 사람과 바보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바위틈에서 벌집을 발견했다. 욕심이 깊은 사람은 혼자 이것을 먹기 위해 바위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 이것을 본 우둔한 사람이 욕심쟁이의 허리를 잡고 잡아당겼기 때문에 욕심쟁이의 머리와 몸은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머리 없는 몸을 바라보고 있던 바보는 “이 녀석의 머리는 원래 없었던가?”라고 말했다.

- 1930년 12월, 같은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6-1037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34쪽, <욕심 많은 사람과 우둔한 사람, 그리고 바보 이야기>.

[북구 설화 36]

### 게으름뱅이 이야기(大怠け者話三則)

어떤 게으름뱅이가 아침 집을 나갈 때 부인이 허리에 매어 준 점심 주머니를 여는 것이 귀찮아 배가 고픈 것도 참고 앉아 있는데 때마침 검은 샷갓을 쓴 남자가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보시오. 제가 귀찮아서 점심 주머니를 열 수 없으니 당신이 열어주면 반을 줄 테니 반씩 나누어 먹읍시다.”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점심 주머니를 열 정도면 내 샷갓을 고쳐 쓰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남자도 게으름뱅이였던 것이다. 또 다른 게으름뱅이는 똑같은 게으름뱅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 방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귀찮아서 열어주지 않았고 밖에 있던 사람 역시 귀찮아서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게으름뱅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싫어서 밥도 부인이 입까지 떠 먹여주는 꼴이었다. 어느 날 사정이 있어 부인이 며칠간 집을 비워야 했기 때문에 가래떡을 길게 만들어 그 끝을 남편의 입에 넣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먹으세요.”라고 말하고 갔다. 그러나 부인이 돌아와 보니 게으름뱅이는 턱 아래로 떨어진 떡을 먹지 않고 그것을 매단 채로 굶어 죽어 있었다.

- 같은 날,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7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35쪽.

[북구 설화 37]

### 한 여자를 훔친 남자(嫁を盗んだ男)

옛날 어느 한 남자가 가난하여 30세가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렵게 한 여자를 상자에 넣어 훔쳐 달아났다. 달아나던 중 잠시 상자를 내려놓고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앞집에 가서 천막을 빌리고 뒷집에 가서 병풍을 빌려오세요.”라고 하며 혼례 준비를 하게 하고 다시 여자를 넣은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던 중 또 한사람의 두부 장사가 여인이 든 상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이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갔다.

대신에 상자에는 비지를 가득 넣어두었다. 이것을 알 리 없는 총각은 다시 상자를 짚어지고 신혼의 단꿈에 상상하며 발길을 재촉하는데 상자에서 물이 똑똑 흐르기에 이것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참으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와 둘이서 상자를 열어보니 비지가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이없어 “이게 무엇이냐. 천막과 병풍 타령을 하길래 여자라도 데리고 오는지 알았는데”라고 말하자 아들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제가 언제 천막과 병풍 타령을 했습니까. 앞집에 가서 도마를 빌리고, 뒷집에 가서 간장을 빌려 와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비지에 뿌려 먹으려고 생각했는데”라고 말했다.

- 같은 날,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7-1038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35-636 <신부를 훔친 남자>.

[복구 설화 38]

### 어리석은 소금장수(愚な鹽屋)

어리석은 소금장수가 시장에 소금을 팔러 나갔지만 조금도 팔리지 않은 채 밤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를 묵기 위해 어느 주막으로 들어가니 주변에 모든 사람이 도둑으로 보여 어디다 소금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강 속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소금장수는 소금을 강 속에 넣고 무거운 돌을 올려 고정시켜두었다.

다음 날 소금을 찾으러 갔으나 소금은 간 데 없고 소금 주머니만 떠 있었기 때문에 소금 장수는 감탄하며 “대단한 도둑이다. 이런 곳에 숨긴 것을 잘도 알고 소금만 쏙 빼가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부인은 어이없어하며 내심 “이런 바보랑 평생을 산들 일생 편할 날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소금을 도둑맞은 것도 분하니 오늘은 개라도 잡아먹읍시다.”라고 하자 남편은 “그거 좋겠군”이라고 말하며 이를 찬성했다. “제가 이 끈으로 개의 목을 묶고 잡아당겨 신호를 보낼테니 신호가 오면 이 끈을 당겨주세요.”라고 부인은 말하면서 끈의 한쪽을 주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와 남편은 힘껏 끈을 잡아 당겼다. 그러나 끌려온 것은 개가 아니라 자신의 부인이었다. 이것을 본 남편은 “개가 잡히지 않았다고 이만한 일로 목을 매서 죽을 필요까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 1931년 1월, 같은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8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36-637쪽.

[복구 설화 39]

### 고양이와 쥐(猫と鼠)

옛날 어느 마을에 스승과 제자가 살았다. 스승의 집 뒤에는 작은 샘이 있었는데 스승은 언제나 이 샘물을 혼자 떠서 마셨고 절대 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제자는 어느 날 스승이 없는 틈을 타 샘물을 훔쳐 마셨다. 그런데 불현 듯 호랑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제자는 곧 호랑이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후 제자는 스승 몰래 샘물을 계속 훔쳐 먹었다. 어느 날 제자는 집에 두고 온 어머니를 만나고 오겠다는 것을 알리자 스승은 이를 허락하면서 “20일째에는 반드시 돌아오너라.”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간 제자는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것을 알고 슬퍼하며 어머니를 향해

“제가 지금 말이 될 테니 부잣집에 가서 나를 끌고 팔아주세요.”라고 말하고 홀연 한 마리의 준마로 변했다. 어머니는 이것을 팔아 돈을 얻게 되었다. 부자가 준마를 사서 기뻐하는 것은 잠시, 다음 날 일어나보니 말은 어디에도 없고 말의 가죽만 남겨져 있었다. 그는 다시 올빼미로 변해 어머니에게 팔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아침 족제비가 되어 새장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올빼미 주인은 족제비가 나타나 올빼미를 잡아갔다고 믿고 억울해 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에게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돌아가기를 단념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가 말이 되어 있을테니 누가 와서 말을 달라고 하더라도 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마굿간에서 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이 찾아와 말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거절하자 스승은 갑자기 호랑이가 되어 말을 잡아 먹으려 했다. 이것을 본 제자는 곧 타무호(タムホ: 호랑이를 이기는 동물)로 변해 여자에게 구슬을 달라고 권유했다.

어쩔 수 없이 제자는 목화나무 씨가 되어 바닥으로 굴러가 있는데 스승은 쥐가 되어 그것을 먹으려고 했다. 이에 제자는 홀연 고양이가 되어 쥐가 된 스승을 삼켜 죽여버렸다.

이것으로 제자는 목숨은 구했지만 제자의 몸으로 스승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도 고양이는 영악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고 자손을 낳아도 쥐처럼 번성하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8-1039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40-641쪽.

[북구 설화 40]

### 말괄량이 아가씨 다스리기(おてんは娘懲治)

어느 마을에 말괄량이 아가씨가 있었다. 남자도 안중에 없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며, 술을 마시고 남자와 싸우는 등 아무리 거친 남자라도 그녀에게는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러다 보니 부잣집 외동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녀에게 장가드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30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걱정하며 “누구라도 내 딸과 결혼하는 자는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들은 성실한 한 남자가 딸과 결혼하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물론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혼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말괄량이 딸은 얼큰하게 취해 입에서 썩은 감 냄새를 풍기며 신랑을 제쳐둔 채 코를 골며 잠자기 시작했다. 신랑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포에 소뿔자락에서 흥시를 몇 개 꺼내 신부의 아랫도리와 엉덩이 등에 발라 놓았다. 그리고는 신부를 조용히 흔들며 깨우고, 잠에서 덜 깨 몽롱한 신부에게 “여보! 이것을

보세요. 당신이 너무 취해 이렇게 설사를 했습니다. 신혼 초야에 개를 불러 이것을 먹게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은 제가 먹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싫은 내색하지 않고 남김없이 그것을 훑아 먹었다. 신부는 엉덩이가 축축한 것과 색깔, 형태 등 여러 정황상 자신의 똥이라는 것을 믿고 신랑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겨 다시는 술을 먹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3명의 아이들까지 태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이야기 도중 신혼 첫 날 밤의 흥시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난폭성을 드러내며 “그런 거였군!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지”라고 소리치며 남편의 상투를 잡고, 때렸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39-1040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41-642쪽, <말괄량이 아가씨 혼내주기>.

[북구 설화 41]

### 팥죽 훑쳐 먹은 시아버지(粥を盜み食つた舅)

어느 집에서 팥죽을 만들었는데 가난한 살림 때문에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죽을 만들어 모두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시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자신이 죽을 더 먹기 위해서 며느리가 우물에 가고 없는 사이 몰래 부엌에 들어가 표주박 가득 팥죽을 떠다. 그러나 너무 뜨거워서 그것을 마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천천히 죽을 먹으려고 바가지로 가지고 변소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돌아왔다. 며느리도 죽을 훑쳐 먹기 위해 바가지에 죽을 가득 담아 변소로 들어갔다.

그것을 본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팥죽을 자기 머리에 뒤집어썼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까지 죽 투성이가 되었다. 이때 며느리가 들어와 시아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내밀며 “아버님 이것 드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니다, 죽을 먹지 않았는데도 죽 같은 땀이 흐른다.”라고 대답하였다.

- 1924년 9월, 경북 대구부, 정철성 여사, 경북 김천군 이선출 씨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40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42-643쪽, <죽을 훑쳐 먹은 시아버지>.

[북구 설화 42]

### 간부 이야기(姦夫譚二則)

옛날 어느 여자가 남편이 외출 중에 정부를 불러 둘이서 우무(한천)를 먹으려고 묵방아를 찌면서 남자가 “어느 가래를 디딜까?”라고 말하자 여자가 “동쪽 가래를 디디세요.”라고 하고 둘이서 즐겁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자는 놀라 정부를 귀짝에 속에 숨겼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귀에 약을 넣어야 하니까?”라고 말하고 부인에게 기름을 끓이라고 하고 귀짝에서 정부를 꺼내어 기름을 정부의 귀에 넣어 죽였다.

한 여자도 역시 남편의 외출 중에 정부가 되는 역줄을 불러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기 때문에 부인은 급하게 정부를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급하게 되돌려 보내는 바람에 모자를 두고 가서 부인이 고민하는 중에 창문 밖에서 “햇대 안에 걸어둔 모자, 향아리 안에 넣어둔 모자, 우물 옆에 던져둔 모자” 라는 정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깨닫고, 몰래 햇대에서 모자를 꺼내 향아리 안에 넣고, 물을 길으러 나가는 것처럼 하고 우물까지 가서 우물 옆에 모자를 두고 간 후에 정부는 나중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40-1041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43-644쪽, <간통한 남자 이야기 두 편>.

[북구 설화 43]

### 여자의 원한(女の怨み)

옛날 한 사람이 부인을 얻었지만 첫날 밤 신방의 창문 밖에 중의 머리가 달빛에 비춰 보였기 때문에 그는 부인의 정부(옛날에는 중이 자주 마을의 여자들과 통했다.)의 그림자라고 짐작하고 그대로 신부의 집에서 뛰쳐나와 9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

9년 후에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경성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점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점쟁이는 “당신이 오늘 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운명입니다. 우선 지금 당장 당신이 전에 갔던 집으로 가서 아주 깊은 곳에 구멍을 파서 숨으세요. 위에는 아주 많은 판자를 겹쳐놓고 오늘 밤을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9년 전 부인을 데리고 가야 했던 지나봤던 길이었다.

그는 급히 부인의 집을 찾아가 보니 장인은 근심 때문에 벌써 백발이 되어있었고 힘없는

모습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장인에게 가 “아버님 저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만 장인은 얼굴을 들었었을 뿐 입을 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의 죄에 대해 용서를 빌고, 겨우 장인의 도움을 얻어 깊고 견고한 구멍을 파고 그 밑에 숨었다. 밤이 되자 집안에는 한 여인이 나와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주문을 말함과 동시에 몸을 세 번 날아 갑자기 한 마리의 호랑이가 되었다.

호랑이는 그의 위에 쌓아둔 판자를 치우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의 판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운 좋게 첫닭이 꼬끼오 울었기 때문에 호랑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 하늘을 향해 운 후에 다시 여인이 되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장인이 그를 향해 “저쪽에 들어가서 봐”라고 예전의 신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들어가 보니 방안에는 모든 것이 9년 전의 그날 밤 그대로였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수없이 사죄를 하니 신부 옷을 입은 부인이 대야를 집어 그에게 내놓으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흘린 눈물입니다. 이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주세요.”라고 말했다. (인간의 눈물은 짜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다.) 그는 한 번에 그것을 마셨다. 그러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백년해로를 했다. 초야에 창문에 비춰 보인 머리는 중의 머리가 아니라 신부의 집이 해변에 있었기 때문에 문어가 우연히 창문 밑에 지나가는 것이 중의 머리와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도망간 이후 칠성단을 마당 한쪽에 세워 9년간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든 매일 밤하늘을 향해 “제가 호랑이가 되어 원수를 죽이게 해주세요.”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 1931년 2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41-1042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44-645쪽.

[북구 설화 44]

### 죽은 사람의 원령(昇天し損つた死靈)

어느 외동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딸을 무척 사랑했지만 딸이 병을 얻어 요절했다. 죽은 딸이 어머니의 꿈에 자주 나타나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요쿠라는 곳을 열었다. 이 곳은 현세에 방황하는 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치러지는 것이다. 물론 무당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곳이 끝날 때는 지용(紙龍)이라는 것을 태운다. 이것은 죽은 혼령이 타고 승천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도 종이용을 태웠지만 이때 딸을 생각하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들어나가서 보니 한 집이 있어 들어가 보니 자신의 딸이 있었다.

어머니는 놀라 “니가 어떤 일로 이런 곳에 있느냐”라고 묻자 딸이 “오늘은 제가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우시기에 정에 이끌려 어머니를 돌아보다 용의 등에서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요쿠 제사에는 너무 울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 1931년 2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지용(紙龍)은 굿 시작부터 피리에 올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속칭 용신기(龍神旗) 또는 용신우(龍神芋)라고 불리며 지용의 입에서 헛불을 붙이는 것에서 용등(龍燈)이라고도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42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64쪽, <승천 못한 혼>.

[북구 설화 45]

### 아박한 딸(薄情な娘)

한 아버지가 사위를 맞았다. 어느 날 그의 딸이 단자(團子)국을 만들어 남편 그릇에는 단자를 가득 넣고, 아버지의 그릇에는 국만 가득 넣은 것을 본 아버지는 “떠있는 단자는 모두 사위의 그릇에 있구나. 마누라는 어디로 갔나. 딸년에게 맡겨두고, 국물만 마시는 것이 서럽구나.”라고 말했다.

- 1931년 1월, 경남 동래군 구포리,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42-1043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79쪽, <박정한 딸>.

[북구 설화 46]

### 맹인의 허튼 꿈(盲人の九九)

한 맹인이 길을 가던 중 지팡이에 걸린 엽전 한 개를 주워 생각하길 “이 엽전 한 개로 달걀을 하나 사서 옆집에 부탁해 닭장에 넣어 부화시켜 병아리를 교배시켜 달걀을 낳게 하고 그 달걀을 또 부화시켜 많은 닭을 얻어 팔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송아지가 크면 또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가 또 송아지를 낳으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밭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자를 두 명 정도 사야지. 그러면 서로 질투를 하고

싸울 것이니 이때에 이렇게 때려주어야지.”라고 꿈꾸듯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이 년들아! 또 싸우는게냐.”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른 것까지는 좋았지만 마침 그때 맹인의 옆에 놓여 있던 향아리 장수의 짐을 건드려 지계를 쓰러뜨렸다.

이 때문에 짐은 엉망이 되었고 향아리의 대금까지 변상해야 했다.

- 같은 날, 이필남(李必南) 양 이야기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43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79-680쪽, <맹인의 속셈>.

[북구 설화 47]

### 바닷물이 짠 이유(海水의鹽理由)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다. 형은 부자지만 탐욕스럽고, 동생은 가난하지만 착했다. 해가 가고 동생은 신년을 맞이해야 하지만 돈도 없고 떡도 없었기 때문에 부인의 청으로 실지만 형 집에 가야했다. 그리하여 겨우 형수에게 약간의 떡과 쌀을 얻어 자루 속에 넣어 집으로 향하였다. 도중 땀감을 패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그가 메고 있던 짐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나”라고 물었고 동생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하자 노인은 “그렇다면 너의 떡과 나의 보물을 바꾸자.”라고 말했다.

“보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노인은 “나는 멧돌 하나를 갖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든 갖고 싶은 것을 말하면 그것을 내놓는 멧돌이지”라고 대답했다. 그는 기뻐하며 자신의 자루 속에 있던 것을 모두 노인에게 건네고 이상한 멧돌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떡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자 멧돌이 빙글빙글 돌면서 떡을 내고, “쌀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자 쌀을 내 놓았다. 이렇게 땀감과 생선, 고기와 술 등을 내어 즐거운 정월을 맞이했다. 이후 그는 고생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전해들은 형은 동생이 가지고 있던 멧돌을 빼앗을 온갖 계략을 가지고 유혹하여 결국은 “나의 유산 전부와 너의 멧돌을 바꾸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동생은 이를 승낙했다. 그리고 멧돌 덕분에 동생은 물론 형도 다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국을 먹이기 위해 멧돌을 꺼냈다. 그러자 형은 멧돌을 빼앗으면서 “국은 내가 낼 테니 당신은 밭에 나가 일꾼들 감독이나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밭으로 갔다. 형은 멧돌을 향해 “국을 내놓거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멧돌이 빙글빙글 돌면서 뜨거운 국을 내었다. 그러자 형은 멧돌을 처음 써보았기 때문에 멧돌을 멈추게 하는 말을 잊어버렸다.

이 멧돌은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멈추는 것이었다. 국은 넘쳐 마당이 마치 강처럼

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말해 보았지만 맷돌은 돌아갈 뿐이었다. 뜨거운 국으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다리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다. 이때 마침 부인이 국이 늦어진다는 것이 걱정되어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높은 굽의 나막신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 겨우 남편을 구해냈다. 그러나 형은 이 일에 혼이 나 급히 맷돌을 동생에게 되돌려 주며 “맷돌은 필요 없으니 내 재산을 돌려줘”라고 말했다. 동생은 다시 이를 승낙하고 맷돌을 되돌려 받았다. 어느 날 동생의 집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이는 동생의 친구로 소금을 파는 사람이었다. 동생은 친구에게 술과 떡 등으로 환대를 했다. 이것은 물론 맷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자 친구는 내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어 나에게 이런 진수성찬을 내놓을 수가 있나.”라고 의심하며 열심히 그 이유를 물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솔직한 동생은 결국 맷돌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 놓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친구는 맷돌과 함께 모습을 감추었다.

맷돌을 훔쳐 온 소금장수 친구는 자신의 배에 가지고 와 “소금을 내놓아라”라고 말해 보았다. 과연 맷돌은 끊임없이 돌면서 소금을 내었고 그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항구에서 팔기 위해 급히 배를 출항시켰다. 배가 멀리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소금은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맷돌을 멈추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배는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해버렸다. 맷돌은 지금도 바다 밑에서 소금을 내고 있다. 이리하여 바닷물이 짜다고 한다.

- 1930년 12월, 경남 동래군 구포, 강소복 양 이야기

\* 강소복은 당연 십오의 딸인데 이 이야기를 구포 기독교회당에서 교회의 보조교사가 되는 부산의 어떤 사람에게 들었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43-1044쪽.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680-682쪽.

[북구 설화 48]

## 만덕고개와 빼빼영감

옛날 동래의 남문 밖에 살면서 동래장(場)과 구포장을 번갈아 다니면서 샷자리<sup>21)</sup>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홀아비가 있었습니다. 이 샷자리장사는 성도 이름도 없이 어떻게나 여위고 피골(皮骨)이 상접하였던지 주위 사람들에게 빼빼영감으로 통하였습니다. 이 빼빼영감이 하루는 구포장엘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러 장꾼들과 함께 험한 만덕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만덕고개는 동래에서 구포로 넘어가는 아주 험한 산길이었는데, 옛날부터 동래부

21)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관하(管下)에선 제일 무서운 도적들의 소굴이라고 사방에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 만덕고개를 사람들은 또 ‘만등고개’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사람 만 명이 무리를 지어 올라가야 도적을 피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뻘뻘영감이 여러 장꾼들과 구포장을 보고 나서 함께 동래로 돌아오는 길에 만덕고개에 있는 주막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별안간 십여 명의 도적떼가 주막으로 뛰어들면서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죽인다.”

사나운 얼굴을 한 도적들은 장꾼들을 한 사람씩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목인 듯한 자가 꼼짝 없이 묶여 있는 장꾼들을 욕박지르며 몸에 지닌 것을 모조리 내어 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뻘뻘영감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더니 도적을 향해 애걸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꾼들은 이 험한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옵니다.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고 물건을 털어야 될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도적들은 더욱 험한 얼굴이 되어 뻘뻘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묶인 녀석이 무슨 잔소리냐?”

그들은 뻘뻘영감을 발길로 차고 못매질을 하여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영감이 쓰러져 있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영감은 무슨 생각을 했던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느새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거렸습니다.

“이놈들! 이 끈을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도둑들의 시선이 일순 뻘뻘영감에게로 모아졌을 때는 벌써 몸뚱이에 묶인 밧줄이 모두 끊어진 뒤였습니다. 이놈을 때리고 저놈을 밀어 넘어뜨리는 그 솜씨는 비호같이 날쌔습니다. 이 비상한 완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도적들은 모두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뻘뻘영감은 묶인 장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힘을 얻은 장꾼들은 영감에게 얻어맞고 다쳐서 달아나지 못한 도적들을 잡아 동래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우리들에게 소득이 없는 일이라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소. 그 자들은 이젠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술이나 한 잔 합시다.”

하면서, 술과 안주를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늙은 주모(酒母)에게 청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장꾼들을 둘러보며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은 모두 제가 사겠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마을에 내려가거든 오늘 일어난 일은 이야기하지 말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술대접까지 잘 받은 장꾼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만덕고개를 내려와서 각기 자기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장꾼의 한 사람이 뻘뻘영감의 집을 찾았지만 그 집은 이미 텅텅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있었던 일이 밖으로 전해져 이 소문을 들은 나라에서 뻘뻘영감이 비상한 힘을 가진 장사인 것을 알고 찾았으나 끝내 그 행적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우리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78-81쪽.

[복구 설화 49]

### 화명 대천(大川) 애기소(沼)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산속 외딴집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강물에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아내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텃밭에 씨를 뿌려 가꾸며 추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큰 어려움 없이 금실 좋게 살아가는 부부였지만 오랫동안 태기가 없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차츰 수심이 쌓이게 되었고, 생각다 못해 부부가 의논하여 천지신명(天地神明)께 백일기도를 올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승낙을 받고 치성(致誠)을 드리기 위해 혼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계곡을 따라 두어 참 올라간 곳에 넓은 소(沼)가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이 곳이 기도드리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소의 가장자리 너럭바위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성껏 빌고 빌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지 어언 백 일째 되는 날 초저녁이었습니다. 한 선녀가 나타나 하늘의 법도에 의해 이 두 부부에게는 애기가 없으나, 아내의 정성에 감복해서 애기 하나를 점지해 주려고 하는데, 태어난 후 3년이 되면 도로 하늘나라로 데려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약속을 하겠느냐고 다짐을 받는데, 선뜻 약속을 할 수가 없었지만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아기를 얻지 못할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애기를 뺏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혼자가 된 아내는 꿈이 아닌가 하여 불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놀란 가슴으로 허겁지겁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선녀의 도움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두 사람은 한없이 기뻐하면서도 3년 후면 다시 자식을 잃게 된다는 데 대해 더 큰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럭저럭 해가 바뀌어 이듬해 여름 아내는 귀여운 옥동자를 분만하였습니다. 두 부부의 애지중지(愛之重之)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옥엽(金枝玉葉)으로 키우며 혹시 선녀가 와서 아기를 데려 갈세라, 사립문 밖에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게 애간장을 태우면서 아기의 재롱을 낙으로 삼고 키운 지 어언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부는 3년이 되는 오늘까지 무사했으나, 이제는 아기를 데려가지 않겠지 생각하고 선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아기를 업고 소(沼)로 올라갔습니다. 그 동안 아기를 위해서 발길을 뚝 끊었던 소(沼)에는 사방으로 경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된 아내는 아기를 너럭바위 위에 얹혀 두고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며 사방의 아름다운 경치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아기가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신발 한 짝 남기지 않고 사라진 아기를 찾아 물속으로, 숲 속으로 모두 다 뒤졌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부르며 찾아 헤매다 지쳐 쓰러져 흐느껴 우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자식 인연이 없었던 것이라고 위로하며 달래고 있을 때, 선녀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돌려 달라고 애걸했지만, 선녀는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가 없다면서 아기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몸이니 아기를 꼭 보고 싶다면 밤에 이곳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매일 밤 아기와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 선녀는 사라졌고, 정신을 잃은 아내는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슬프게 울면서 물위에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내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곳을 아기가 빠져 죽은 곳이라고 하여 '애기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화명동에서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말없는 너럭바위가 전설처럼 누워 있는 애기소가 있습니다.

그 옛날 한없이 넓기만 했던 애기소는 그 동안 몇 차례의 홍수와 산사태로 이제 여인의 치마폭 몇 장을 깔아 놓은 것만큼 좁아졌지만, 주위의 경치는 여전히 아름답기만 하여 달 뜨는 밤이면 요즈음도 선녀가 아기를 데리고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고 할 만큼 경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 경성대학교 출판부,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우리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2000, 172-175쪽.

[복구 설화 50]

### 장터곶(大川場) 이야기

1809년 순조(純祖) 9년에 구포 감동장(甘同場)을 동래부(東萊府)에서 산성(山城) 수어(守禦)에 지장이 있다 하여 대천촌(大川場)으로 옮겨 달라 하였다.

감동장(구포장)은 3일, 8일이 장날이며, 남창(南倉)이 있던 현 구포 나루터 쪽이었으며, 김해 서부 주민들과 강 하류 주민들은 나라의 세곡(稅穀)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감동창(甘同倉)이 강변에 있어 감동장(甘同場)이라고 불렀었다. 당시 구포 지역은 행정구역이 양산군(梁山郡)에서 볼 때 현 감동장이 세 고을의 요충지요 낙동강 연안의 물자 집산 교류상 가장 주요한 위치이니 만약 대천촌으로 옮기더라도 감동장은 없애 수 없고 부득이 다시 재개(再開)하게 되면 불과 10리 사이에 두 개의 장에 서게 되니 대천촌은 교통편으로 보나 한 쪽 편 벽지일 뿐 아니라 장이 서게 되어도 번성하지 못할 것이요, 이 곳 역시 산성수어지(山城守禦地)로 본다면 이 또한 장이 불가하지 않은가하여 결국 장을 옮기지 못하게 되고 그 때 마련하였던 장터인 용동골 앞을 지금까지 <장터곶>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 윤은호(윤희수),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강나루, 2007, 38쪽.

[복구 설화 51]

### 천상선동(天上仙童) 민담

지금으로부터 160여년(1830년대) 전 대천마을(화명동 381번지)에 윤기홍(尹淇洪)이라는 선비 한 분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그 부친의 꿈에 신인(神人)이 현몽하기를 천상 선동(天上仙童 혹은 장군이라고도 함)을 그대에게 점지할 것이니 이 꽃을 먹으라 하며 흰 꽃(白花) 한가지를 주거늘 그 꽃을 먹은 후 태기가 있어 십삭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날 밤에 풍우(風雨)가 크게 일고 뇌성(雷聲)이 진동하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부친 되는 선비는 출타하였고 시모(媼母)는 큰방에서 자는데 건넌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방문을 열렸는데 방안에 등불은 꺼져 있고,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별치 못하여서 다시 등불을 켜 들고 들어가 보니 산모는 기절하여 있고 흔적을 보니 아기를 낳았음은 분명한데 아기가 없는지라 산모가 깨어나기를 기다려 아기의 흔적을 물은즉, 흰옷을 입은 어떤 사람 셋이 와서 아기를 데려가며 이레(七日) 되는 날 자시(子時)에 오겠다 하여 문 안 벽 위에 종이 한 장을 붙여 놓고 갔다 하여 살펴보니 붉은 물감으로 일곱 자를 쓴 글 한 장이 붙여져 있으나 그 글자는 알아보지 못할 글이었다.

아기는 낳았으나 아기가 없으니 이웃과 친척들에게는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속였다. 그 후 이레(七日)날에 신인이 현몽하기를 삼년 후에 오마하며 사라지고, 그날 낮에 산모가 이(蠶)를 잡으려고 저고리를 벗으니 산모의 왼쪽 팔이 일곱 자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글자 역시 알아보지 못할 글이었다. 그 뒤 삼년 만에 밤 삼경(三更)에 선인 세명이 와서 아무 말 없이 문 위에 일곱 자를 쓴 알아보지 못할 글을 붙여 놓고 가며 팔년 후에 오겠다며 갔다. 그 뒤 팔년째 되던 해 정월달에 신인 세 사람이 전날과 꼭 같은 복장을 하고 와서 그 아이는 범촌 민이 기를 아이가 아니어서 우리가 기르니 이 말을 누설치 말라 만일 누설하면 집안에 화가 있으리라 하였다.

그 아이는 바다 섬 가운데서 기르니 안심하라. 때가 되면 알날이 있으리라 하며 그 아이가 썼다는 일곱 자 글 한 장을 두고 갔으나 그 역시 무슨 글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기고 알아보지 못할 녀 장 종이에 쓴 글 27자만이 지금까지 남았다고 하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일이다.

\* 윤은호(윤희수),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강나루, 2007, 39쪽.

[복구 설화 52]

### 박훈장(朴訓長) 등(嶝) 이야기

1636년 경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성균관 진사 윤 소(尹沼)란 선비가 청나라와 강화를 맺자는 국론에 끝끝내 반대하다가 마침내 추방되어 남주(南州)로 내려와서 이곳 대천(大川) 땅에 정착(定着)하여 냇가 언덕 위에 초정(草亭)을 지어 임천정(臨川亭)이라 하고 원근(遠近)의 유생(儒生)들과 강론(講論)을 하며 지낼 때, 어느 날 해질 무렵 한 나그네 선비가 임천정(臨川亭)을 찾아왔는데, 만나서 세상(世上)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어 나그네로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나와 같이 지내자고 권유(勸誘)하여 머물게 되면서 그 나그네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박훈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인가(人家)는 물 건너 ‘음달’(음지마을)에 많았던 모양인데, 내(川)를 건널 때는 “돌다리”를 밟고 건너다녀야 하므로 비가 올 때는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 후 건너편 지금의 大川(대천)마을 會館(회관)자리로 서당을 지어 옮기면서 이름을 임천재(臨川齋)라 바꾸었다.

박훈장(朴訓長)이 여기서 글을 가르치다가 타계(他界)하니 “중지산” 끝자락에 무덤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곳(중지산)을 “朴訓長 嶺(박훈장 등)”이라 부르게 되었다.

중지산 끝자락 박훈장 등 일대는 1940년경 구포면(龜浦面)의 장익원 면장(張翥遠 面長)이 재직시(在職時) 산성로(山城路)가 개통(開通)될 때 남북(南北)으로 갈라져 남(南)쪽 높은 곳은 옷소밭당, 북(北)쪽 낮은 곳은 아래소바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박훈장(朴訓長) 묘소(墓所)는 옷소밭당 남서편(南西便)에 위치(位置)했던 셈이다. 그리고 1930년말(末) 경에는 우리 마을에 진흥회(振興會)가 조직되고 그 산하(傘下)에 청년단(靑年團)과 부인회(婦人會)가 조직 되었는데, 이기숙 부인 회장(婦人會長)이 앞장서서 절미(節米) 운동도 하고, 박훈장 등 근방 황무지를 개간하여 “목화(木花)”를 심어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利用)하였다고 한다.

\* 윤은호(윤희수),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강나루, 2007, 39쪽.

[복구 설화 53]

### 효자 천승호의 행적

효자 천승호는 선비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시례(詩禮)의 풍(風)과 효도를 배우지 않고도 글을 알았으며, 그 어머니가 일찍이 풍담(風痰)으로 여러 달 병에 누웠는데, 입은 옷에 띠를 풀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리저리 약을 물었다. 의원의 말이 “능구렁이(花蛇)가 가장 좋은데, 때가 겨울이니, 어디서 얻겠는가!” 하여, 천승호가 하늘을 부르며 물어 끝내 얼음과 눈 쌓인 산에서 능구렁이를 얻어 어머니 병이 즉시 나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일화로, 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좋은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

받은 돈 10꺼미를 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산골에서 갑자기 산적(山賊) 두 세 명이 나타나 칼을 휘둘러 돈을 뺏으니, 승호가 병든 어머니 봉양할 돈이라고 지성으로 울며 간청한 말씨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적도들이,

“당신이 효자 천승호인가?”

“성명은 맞으나 효자는 아닙니다.”

“효자의 이름을 일찍이 귀 달갑게 들었소. 우리들이 비록 흉년으로 곤란하나 어찌 감히 효자의 돈을 뺏아 모친 봉양을 못하게 하오리까?” 하며 백배사죄하며 가버렸다고 한다.

이렇듯 성효(誠孝)가 동물을 감동시켜 능구렁이가 저절로 나왔고, 사람을 감동시켜 흉도(凶徒) 산적들이 저절로 교화(教化)된 것이다.

\* 이오용 외, 『공창마을』, 공창마을, 2012, 23쪽.

[북구 설화 54]

## 열녀 이씨의 행적

효자 천승호는 23세에 비로소 결혼하여 능히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또한 부부유별(夫婦有別)을 다하였다. 그 아내 경주 이씨는 본래 전통 있는 가문의 딸로 천성이 순수하여 바탕과 행실이 정숙하며, 어진 부모의 훈계를 듣고 또 남편의 법도를 따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물 길고 방아 찼고 길쌈하기 30여년에 혈기(血氣)가 이미 쇠약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하였고, 밤이나 낮이나 게으르지 않고 부모에게 문안을 여쭙었으니 이것이 50살에도 부모를 사모하는(五十而慕父母者) 사람인 것이다.

이웃 여자들이 감화되고, 촌 아낙네들이 사모하고 본받아 시모 섬기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씨(李氏)를 일컬었다.

정인년 4월에 그 남편 천승호가 문득 병에 걸려 점점 위독하게 되니, 이씨가 백방으로 구호하다가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재계하고 매일 밤하늘에 빌어 자기 몸을 대신하기를 원하였다. 그 남편이 운명하니 슬픔을 절제하여 곡성을 그치고 시어머니를 위안하여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이니, 애통해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며, 염습범절(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을 모두 남에게 맡기고 오직 시모 공양을 일로 삼으니, 그 시모가 음식을 권하면 마시지 않고도 “마셨습니다.” 먹지 않고서도 “먹었습니다.”고 하였다.

성복(成服 :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 입는다)하는 날, 노비들이 가서 그 시모에게 아뢰니 비로소 여러 날 동안 곡기(穀氣)를 끊은 줄 알고 음식을 억지로 권하여 물 한 숟가락을 마시고는 피를 몇 되나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정(情)은 감출

수 있으나 피는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이들을 불러 이별하는 말이 “너희들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는 날, 내가 어찌 즉시 따라 떠나지 않으려 했겠는가! 다만 할머니가 방에 계시기에 거듭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없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내 뜻은 이미 그때에 결정했었다. 지금은 네 아버지 상복을 입었고 할머니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졌으며, 또 봉양할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죽더라도 좋은 음식 대접은 그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의 남편이 있으니, 살아계신 할머니를 섬기고 죽은 남편을 따르는 것은 지금부터 길이 다르니라.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거라.” 하며, 또 양자로 간 아들 부부를 불러 말하기를, “내 죽은 뒤에 어린 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내가 거두어 길러 염려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람의 모든 행실이 어버이 으뜸이요, 가정 다스리기로 완성되니 너는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거라.” 또 말하기를, “부부는 무덤까지 같이 간다는 옛말이 있느니라. 이것이 내 지하의 소원이다.” 하며, 말을 마치고 입을 닫으며 떠나니 그 곡기를 끊은 처음과 끝 날을 계산하면 무릇 7일간이었다.

\* 이오용 외, 『공창마을』, 공창마을, 2012, 24쪽.

[복구 설화 55]

### 안등골에 나타나는 귀신

안등골에서 산을 따라 더 올라가다보면 안등과 불메등으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곳이 있었다. 산답이 많았던 이곳에는 여름철이 되어 물이 풍부할 때는 고루 물을 나눠줬지만 가뭄이 겹치면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자기 쪽으로 대기 위해 물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밤에 물을 대기 위해 물길을 지키고 있으면 난데없이 어디서 소리가 나면서 우장삿갓을 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가 몰래 물을 끌어가는가 싶어 다가가 보면 금세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우장 삿갓을 쓴 사람이 나타난 그 이튿날에는 신기하게도 꼭 비가 와서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아마 안등골에 살다가 저수지가 무너져 몰사했던 함안 조씨(咸安 趙氏) 집안의 귀신이 가뭄에 애를 태우는 동네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 믿게 되었다.

\* 이오용 외, 『공창마을』, 공창마을, 2012, 35쪽.

[복구 설화 56]

### 약물바위

큰 바위인데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 물이 고이게끔 생겼다고 한다. 옛날 의약품이 귀했던 시절, 부스럼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와서는 약물바위에서 몸을 씻으면 신기하게도 지금의 항생 연고로 치료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나았다고 전해진다. 비가 내려 고인 물이 어느 정도 증발되면 나무 수액 등이 더해져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약리 작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 패인 부분이 다 메워져 있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 찾기가 어렵다.

부스럼 치료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나면 된장을 발라서 소에게 내밀었다고 한다. 그러면 된장 냄새에 꼬인 소는 된장 맛을 알고는 아이의 머리를 혀로 핥았다고 한다.

\* 이오용 외, 『공창마을』, 공창마을, 2012, 55쪽.

[복구 설화 57]

### 구포 주지봉과 농바위

구포지역의 주산인 주지산(蛛蜘蛛山) 암봉에서 시랑골이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에는 옛날 신라의 화랑들이 군사훈련을 했다는 평평한 산 능선이 펼쳐진다.

이 산의 남쪽 봉우리에는 옛날부터 구포사람들이 경배하던 네모난 바위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천지개벽을 하여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금정산맥 남쪽 봉우리 중에서 상계봉은 닭 한 마리 앓을 만큼만 남기고 물에 잠겼고, 파리봉은 파리 한 마리 앓을 만큼 물에 잠겼는데 주지산 암봉 일대는 남쪽 능선의 봉우리에 있는 네모난 바위가 물에 떠있듯 잠기지 않아 상계봉, 파리봉보다 주지봉이 제일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장롱처럼 물에 떠 있었다고 농바위로 불렀는데 구포사람들이 기원을 올리던 바위로 전해진다. 예로부터 시랑골에는 골짜기마다 많은 물이 흘러내렸다.

주지산 암봉 아래 6부 능선에서 솟아나는 금샘(金泉)의 물은 대리천의 원류로서, 금수사 절 아래쪽에서 큰 계곡을 이루어 시랑골 폭포와 점생이, 참샘이 폭포까지 흘러내리고 또 하나의 큰 물줄기는 운수산에서 흘러내려 현재의 성도고교 좌측의 계곡으로 흘러 포천삼거리 즈음에서 금샘물과 합쳐지고 옛 공동묘지가 있던 곳에도 큰 샘물이 솟아 흘러내렸다.

이처럼 시랑골에서 세 갈래 큰 물길 등 12골짜기에서 물길이 흘러내려 골짜기의 산답(山畓)과 구명동, 대리, 현재 시장에 있던 눈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구포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어주었다.

이 많은 물이 폭우가 쏟아지면 소당 폭포로 흘러내려 대리마을의 전담과 가옥, 그리고 옛날 전담지대였던 현재의 구포시장이 물바다를 이루었기에, 200여년전 양산군 이유하(李游夏)

군수가 대리 제방을 쌓아 물길을 연등개나루로 돌려 흐르게 하여 마을과 전답을 홍수의 피해로부터 막아 주었다.

그런데 여름철 가뭄이 지면 시랑골 물에 의존하던 구포지역은 대리천 바닥이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때도 있었다. 그때 구포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금샘바위와 농바위였다. 먼저 농바위에 제례 음식을 차려놓고 큰절을 올리면서 천지신명께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이어서 대리천의 최상발원지인 금샘바위 앞에서도 제례를 올린 후 대리천 제방 위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기우제를 올리면 반드시 그날 밤에는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같은 비가 내렸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82-983쪽.

[북구 설화 58]

### 신선덤과 대밭골 호투장

우리 고장에서는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 세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그 중에서 ‘대밭골 호투장’이라는 지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예로부터 화명의 대천(大川)계곡을 중심으로 북쪽에 금정산(고당봉)이 있고 남쪽에 상학산(상계봉)이 있다고 하였다.

상학산은 학이 양 날개를 벌리고 낙동강으로 날아가는 형상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상학산의 남쪽 날개는 석불사가 있는 병풍덤을 말하며 북쪽 날개는 화명의 상징인 화산(華山)의 신선덤을 말한다. 이 봉우리는 신선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신선덤이라 불렀다.

이처럼 암봉으로 형성된 병풍덤과 신선덤은 학의 양쪽 날개를 뜻하고 있다. 그 중 화산은 가파르고 우람한 총적암이 산 전체를 이루고 있다. 화산 아래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대밭골이 있고 아래쪽 산골 도랑 옆의 평지에 빈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호투장(虎鬪場)이다. 호랑이가 싸우던 곳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어느 산골이든 주산신령(主山神靈)이 있다. 그러다가 다른 산에서 온 난달(떠돌이) 호랑이가 쳐들어오면 본산 신령이 크게 소리를 높여 울게 된다. 그 울음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난달이 들어 왔으니 호환(虎患)을 당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경고의 울음소리를 낸 후 자신은 난달과 일전을 벌인다. 이 싸움에서 다행히 본산 신령이 이기면 난달은 달아나지만 불행하게 지게 되면 3일 동안 산천을 떠돌며 슬피 울다가 타산으로 떠난다. 그리고 결투에서 이긴 난달이 이 산을 영유(領有)하여 새로운 주산신령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산 아래 주민들은 조심하는 가운데 입산을 삼가야 한다.

옛날 산골 주민들이 왕왕 호식(虎食)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것은 타산에서 침입한

난달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산 신령이 강하면 절대로 호환(虎患)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항상 본산 신령께 지내는 산신제(山神祭)를 정성껏 지냈던 것이다.

화명의 대밭골 아래 호투장은 본산 신령과 타산에서 온 난달이 싸웠던 곳으로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이러한 호랑이에게 대한 전설은 금정산 일대에서 유일하게 전해오는데 금정산의 주산 신령이 자리 잡고 살던 곳이 바로 화산 아래 대밭골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83-984쪽.

[북구 설화 59]

### 범방산 범바위

화명의 화산 아래 대밭골에 있던 금정산 호랑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전설이 있다. 구포를 상징하는 범방산(泛舫山)은 거북이가 엮드려 있는 산세를 보고 거북산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산의 원래 이름은 범바우산이었는데 <양산군지>에는 한자로 기록하면서 범바우가 범방으로 변하여 범방산이 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거북이와 범(호랑이)이 함께 연유하고 있는 이 산은 풍수지리상 거북이가 엮드려 알을 품은 구북포란형(龜伏抱卵形)이며 산 정상부위에 거북바위까지 있는데 범바위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호랑이가 살만한 깊은 산골도 아닌데 왜 범바우산으로 불렸을까?

이 산에서 동북쪽으로 쳐다보면 멀리 숲이 우뚝 솟아 있는 상학산이 있고 화명 쪽으로 번어내린 산이 화산이다. 화산 아래에는 대밭골이 있다. 대밭골에는 호랑이가 싸웠다는 호투장이 있는 것이다. 대밭골에 있던 금정산 호랑이가 외부에서 쳐들어 온 떠돌이 난달 호랑이와 이 호투장에서 싸움을 벌였을 때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상학산 등성이에서 사흘 밤낮을 슬피 울던 호랑이는 운수산을 거쳐 서쪽으로 길게 번어내린 이 산에 도착하여 화산을 쳐다보고 울부짖다가 산골짜기에 떨어져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범의 형상을 닮은 바위를 보고 범바우라 했고, 이 골짜기를 호암골[虎岩谷]로 불렀으며 산 이름도 범바우산으로 불렀다고 한다. 호암골이란 지명은 1910년 조사한 <조선지지자료>에도 등재되어 있다.

지난 날 바다와 강이 만나던 하구지역인 구포의 갯벌에는 거북이가 구멍을 뚫고 겨울잠을 자던 동혈(冬穴)이 있었다. 이처럼 겨울잠을 자려오던 거북이가 천년의 수명을 다하여 이 산으로 기어 올라와 정상에서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이 거북바위의 형상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거북산으로 부르게 되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산의 지형도 비바람을 맞으면서 변모되어 거북이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거북산이 된 것이다. 이 거북산의 원 이름은 범바우산이었지만, 범바위는 골짜기 소나무 숲 속에 묻혀 보이지 않고 거북바위만 범방산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84-985쪽.

[북구 설화 60]

### 학사대의 파평 윤씨 조상묘에 얽힌 전설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살아온 촌로 윤영달(71세) 씨에 의하면 원래 이곳은 용당(龍塘)마을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460여 년 전에 파평 윤씨(坡平 尹氏)가 터를 잡아 한 때는 100여호가 살아오던 집성촌(集成村)이었다.

용당은 그 옛날 청룡과 황룡이 싸웠다는 전설의 호수가 있어서 유래된 이름이다. 용당마을 뒤편에 학사대(學士臺)라는 곳이 있었다. 학사대 비석은 원래 용당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택지개발 때 현 부산북부경찰서 옆 용수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옮겨졌다.

학사대는 일명 학수대(鶴首臺)라고 하는데, 이는 풍수지리상 금정산의 한 봉우리인 상학산(上鶴山)에서 낙동강을 향해 날개를 편 학의 머리 부분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학산에서 내려다보면 용당마을은 학이 날개를 펴서 감싸 안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200여 년 전 용당 파평 윤씨 마을에 이웃 평택 임씨 가문에서 시집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다가 사랑방 어른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귀를 쫓긋거리며 들어보니 학사대에 조상의 묘를 쓰면 자손이 잘되고 신분이 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이 소문은 어느새 퍼져나가 이웃 임씨 마을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자기 친정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시집 편을 들 것인가. 하지만 ‘딸은 출가외인’이라 했던가. 고민하던 며느리는 드디어 자기의 후손이 태어날 시가를 편들기로 결심하고는 날마다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이 명당자리에 쥐도 새도 모르게 밤새도록 물을 붓기 시작했다. 이 명당자리는 결국 물이 고인 웅덩이로 변했고, 명당이 아닌 흉당으로 소문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이 명당자리를 탐내던 사람들은 이 소문에 이곳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데에 조상의 묘를 썼다.

그 이후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운명하자 며느리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에 시아버지를 묻었다. 그러자 자손들이 불같이 일어나 가문이 흥했다. 헌데 여기에 묘소를 쓴 이후 사람들이 구포에서 말을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 학사대 윤씨 조상 묘소 앞을 지날 때 타고 가던 말의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당기고 밀어도 말굽이 떨어지지 않자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윤씨들의 조상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게 된 부근 마을사람들은 이곳 윤씨 조상묘를 파서 한 자만 위로 높이 올리면 윤씨의 자손들이 더욱 더 잘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처음에 윤씨들은 조상의 묘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며 주저했다. 하지만 이 소문에 현혹되어 조상의 묘를 파기 시작했다.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묘의 마지막 흙을 파는 순간 땅 깊은 곳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하얀 기운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커다란 학이 한 마리가 하늘로 높이 날아가더니 지척에 있던 ‘울등덕’이라는 언덕(현재 부산어촌민속관이 위치한 언덕)의 대나무밭으로 사라졌다.

이 일이 일어난 후부터 윤씨 후손들의 상승세가 멈춰버렸다고 한다. 윤씨 가문의 상승세가 중단된 것은 묘 작업 때 명당의 땅 기운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풍수지리설이 우리 한국인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지를 말해준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85-987쪽.

[북구 설화 61]

## 구룡사 용왕샘터의 전설

구룡사가 천하의 명당자리에 앉았음을 이야기할 때 금정산과 상학산이 낙동강과 어우러지는 곳으로서 산수가 뛰어난 곳임을 첫 손으로 꼽는다.

그러나 도량(道揚)의 필수 조건인 약수터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찰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구룡사가 명승지 사찰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중생제도(衆生濟渡)의 생명수(生命水)가 이곳 용왕샘터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 용왕샘터에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사시사철 풍부한 약수가 철철 넘쳐흘렀던 샘터에는 위쪽으로 깊숙이 굴이 뚫려 있었고 그 굴속에서 물이 흘러내려 왔다. 옛날 이 샘터에는 용(龍)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용이 승천하면서 산 정상에 뚫고 솟아올랐는데 그때 뚫린 자리가 산꼭대기까지 동굴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의성을 점령한 왜군이 그들이 약탈한 보물들을 이 용왕샘 굴속의 안쪽에 숨겨 두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동굴의 폭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었다고 한다.

용왕샘터에는 의성마을 사람들의 당산나무가 있었다.

1970년대 구룡사 앞쪽으로 남해고속도로가 낙동강 다리로 연결되어 개통되면서 의성 큰 산과 작은 산이 절단된 후 샘터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당산나무도 차츰 생기를 잃어 갔고, 1990년대 덕천천 물길을 낙동강으로 분류해서 내보내는 지하수구가 구룡사 앞쪽 지하로

뚫린 후 완전히 고사하고 말았다.

이 용왕샘터는 구룡사와 이웃 마을사람들의 식수로 사용되었고 의성고갯길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 주는 약수로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생명수였으며, 당산나무는 발걸음을 멈추어 쉬어가는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구룡사 공양주 보살이 들려주는 용설(龍設)에 의하면 구룡사는 가락국시대 김수로왕의 회취 공원이었는데 지형이 풍수지리상 용(龍)이 둘러싼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용(龍)이 자리 잡은 이곳에 남해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용꼬리를 스쳐갔고 화명, 금곡으로 가는 금곡로가 확대 포장되면서 용의 아래턱을 스쳐가면서 용왕샘 약수도 줄어들고 당산목인 포구나무도 말라서 고사했다고 한다.

이처럼 구룡사는 용과 관련된 전설과 설화가 많이 전해져 온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87-988쪽.

[북구 설화 62]

### 구룡사 기도 성취의 전설

구룡사는 도량(道場)이 영험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했다고 한다.

《사적기(事蹟記)》에는 구룡사의 지세가 바다와 만나는 낙강(落江)을 굽어보고 있어 드넓은 시계(視界)가 활짝 열리면서 한눈에 들어오며, 멀고 가까운 산봉우리들이 좌우로 나지막하게 엮드려 읊(揖)하고 있는 모습이라 황혼이 질 때의 그 정경(情景)이 곁들여지면 가히 환상적이요, 여기에다 춘하추동 사시(四時)의 변화상을 가슴에 안고 밤낮으로 생각을 가라앉혀 마음을 모으면 적정(寂定)에 들게 되니, 이곳이 바로 기도(祈禱) 도량으로서 요건을 갖춘 명당 절터임이 틀림없으리라.

임진왜란을 겪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퇴락(頹落)한 명문가의 자제가 종과 함께 구룡사에 왔다가 마침 어우러져 있는 침녕쿨을 걷고 있었다는데, 그 때 종이 소변을 보느라 몇백년 된 고목(古木) 몸체에다 방뇨를 하다가 갑자기 비명소리를 내며 쓰러졌다고 한다. 주인이 돌아보니 방뇨한 자리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더라는 것이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영험한 도량인 구룡사는 돌림병 등 큰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병이 곧 치유되었고 생남(生男) 기도터여서 원근(遠近)에 사는 아낙네들의 발길이 잦았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이러한 내력을 뒷받침하듯 구룡사에는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이 약사불전 뒤편 암반 위에도 모셔져 있고 의성산 정상에는 약사여래대불이 조성되어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88쪽.

[복구 설화 63]

### 박훈장(朴訓長)의 등(嶝) 이야기

1636년경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성균관 진사 윤소(尹沼)란 선비가 청나라와 강화를 맺자는 국론에 끝끝내 반대하다가 마침내 추방되어 남주(南州)로 내려와서 이곳 대천(大川)땅에 정착하여 냇가 언덕 위에 초정(草亭)을 지어 임천정(臨川亭)이라 하고 원근(遠近)의 유생들과 강론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한 선비가 임천정(臨川亭)을 찾아왔기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서로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어, 나그네로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함께 지내자고 권유하여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 나그네는 마을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었으므로 마을사람들이 ‘박훈장’이라고 불렀다.

그때만 해도 인가는 물 건너 ‘음달(음지마을)’에 많았던 모양인데, 내[川]를 건널 때는 ‘돌다리’를 밟고 건너다녀야 하므로 비가 올 때는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 후 건너편 지금의 대천(大川)마을 회관 자리로 서당을 지어 옮기면서 이름을 임천재(臨川齋)라 바꾸었다.

박훈장(朴訓長)이 여기서 글을 가르치다가 타계 하니 ‘중지산(山)’ 끝자락에 무덤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곳(중지산)을 ‘박훈장 등(朴訓長嶝)’이라 부르게 되었다.

중지산 끝자락 박훈장 등 일대는 1940년경 구포면의 장익원 면장(張翌遠面長)이 재직 시, 산성로가 개통될 때 남북으로 갈라져 남쪽 높은 곳은 웃 소밭탕, 북쪽 낮은 곳은 아래 소밭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박훈장(朴訓長)의 묘소는 웃 소밭탕 남서편(南西便)에 위치했던 셈이다.

그리고 1930년 말경에는 대천마을에 진흥회(振興會)가 조직되고 그 산하(傘下)에 청년단(靑年團)과 부인회(婦人會)가 조직 되었는데, 부인회장이 앞장서서 절미(節米) 운동도 하고, 박훈장 등 근방 황무지를 개간하여 ‘목화(木花)’를 심어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하였다고 한다.

1960년말부터 부산시도시개발공사에 모두 수용되어 이곳은 “그린아파트 단지”가 되었으며 “고아원”은 양달 함적골(函積谷) 편(便)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88-989쪽.

[복구 설화 64]

### 시랑골 모분재(募盆齋)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낙동강을 경계로 동쪽에는 신라가, 서쪽에는 가야(가락)가

대치하다가 드디어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켰다.

가야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혹은 일본으로 건너가고 혹은 깊은 산골에 은신하기도 했는데, 이곳 대리천이 흘러내리는 언덕 위에도 가야시대 시랑(侍郎) 벼슬하던 사람이 피신해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람은 멀리 김해 땅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 정자를 짓고 나라를 잃은 허망함을 달래었고, 해마다 나라가 망했던 날에는 옛날 벼슬하던 사람들이 모여 망해버린 가야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모여 들었다고 한다.

바위에 새겨져 내려오던 모분재(募盆齋)라는 글자 속에는 가락의 중심 근거지인 김해 분산(盆山)을 잊지 못해 재(齋)를 올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 나라 잃은 슬픔을 나누던 정자를 벗들이 모였다가 떠나보낸다고 송우정(送友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시랑이 살았다고 붙여진 시랑골(侍郎谷)과 모분재(募盆齋), 그리고 송우정(送友亭)의 전설은 암벽에 새겨져 있었던 모분재(募盆齋) 각자(刻字)의 뜻을 해석하여 구전(口傳)되어 왔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0쪽.

[북구 설화 65]

### 대리당산 팽나무 전설

조선시대 구포대리마을에 김 초시의 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웃의 가난한 선비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그녀에게 청혼하였으나 그녀는 거절하였다.

그녀를 흠모하던 부잣집 도령은 무당을 찾아가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와 연분을 맺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무당은 돈에 눈이 멀어 갖은 사술을 부려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얼마 후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는 선비에게 김 초시의 딸은 자신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정표로 주었다.

선비는 팽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땅에 꽂고 지팡이가 자라나면 자신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선비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가다가 도령이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남자는 지팡이에 물을 주고 가꾸면서 수없이 기도와 절을 하면서 선비의 과거급제와 금의환향을 기원했다. 지팡이에는 어느덧 새순이 돋고 잎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년 뒤 한 장사꾼으로부터 김 남자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을 지닌 한 선비가 수년 전에 산길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비보를 접한 남자는 한시도 팽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 팽나무에 기대 채 죽었다. 그 후 남자는 그 나무의 영신이 되었으며, 그루로 된 짙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그 해부터 마을에는 3년을 계속해서 화재가 수없이 나고, 가뭄과 홍수와 병마가 온 동네를 휩쓰는 등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 살인을 사주한 이웃 도령도 미쳐서 앞 강물에 뛰어들어 죽게 되었다.

재앙이 거듭되자 마을 원로들은 남자의 노여움을 사서 고을에 재앙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길일을 받아 남자와 선비의 영혼 혼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그리고 정월 보름날 자정(0시)에 당산제를 정성껏 지내어 영신을 위로해 주니 그 후부터는 마을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0-991쪽.

[북구 설화 66]

## 애기소의 유래

애기소는 원래 이심(泥心)이소라고 불렸다. 옛날 이곳 폭포 물밑이 깊어 이곳에 들어가면 헤어 나오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폭포 밑 암벽에 이심이라는 전설의 물고기가 굴을 뚫어놓고 살았다고 하여 이심이소로 불렸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부터 냇가 아래위로 삼림이 울창하여 항상 우수기(雨水期)에는 개울가 바위나 나무들이 마를 날이 없이 습기가 차서 이끼가 많이 끼고 그것이 떠내려 와 냇가에 밀려오므로 이끼미소라고도 불렸다. 그런데,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는 이곳에 옛날 젊은 야남네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가 주위의 뛰어난 경관에 심취되어 정신을 팔다가 아기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몰랐다는 전설이 있는데, 애기가 빠진 웅덩이라 애기소(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애기소에 얽힌 실화가 또 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대천마을에 신화식이라는 소년이 살았는데 그림을 잘 그렸다. 특히 말(馬)을 잘 그렸는데 마을사람들로부터 천재라고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천재소년이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렸다고 한다. 소년의 부친은 외동아들이 이렇게 되어 나날이 술로써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이곳 애기소에서 자살하였다고 한다.

옛날 애기소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 온갖 전설이 생겨났다.

일설에는 계모 밑에 학대를 받던 처녀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애기소라고 불렸다고 하나, 이는 말뜻과 다르며 애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주위 경관에 감탄하여 정신을 팔다가 애기가 빠져죽는 줄도 몰랐다고 해서 애기소가 되었다는 전설이 가장 그럴 듯한 이야기이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1-992쪽.

[복구 설화 67]

### 애기소의 전설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산속 외딴집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은 강물에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아내는 주변의 텃밭에 씨를 뿌려 추수하는 행복한 삶을 누렸다.

나날이 큰 어려움없이 금실 좋게 살아가는 부부였지만 오랫동안 태기가 없어 걱정이 되었다. 이에 아내는 차츰 수심이 쌓이게 되어 생각다 못해 부부가 의논하여 천지신명께 백일기도를 올려 보기로 하였다. 남편의 승낙을 받아 계곡을 따라 두어 참 올라간 곳에 넓은 소(沼)가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이 기도드리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웅덩이의 가장자리 너럭바위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성껏 빌고 빌었다.

열심히 기도한 지 어언 백 일째 되는 날 초저녁, 한 선녀가 나타나 하늘의 법도에 의해 이 두 부부에게는 애기가 없으나 선녀의 노력으로 애기를 점지해주되 태어난 후 3년 만에 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약속할 것인가 하고 다짐을 받으려는데 선포 약속을 할 수만은 없었다. 그렇지만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애기를 얻지 못할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애기를 뺏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약속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선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이제 꿈이 아닌가 하고 불을 꼬집어 보았지만 꿈은 분명 아니었다. 놀란 가슴으로 허겁지겁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며 애기를 갖게 된 데 대해 기쁘면서도 다시 잃게 된다는 데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그렇저렇 해가 바뀌어 이듬해 여름 아내는 귀여운 옥동자를 분만하였다. 두 부부의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금지옥엽으로 키우며 혹시 선녀가 와서 애기를 데려 갈세라, 사립문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애간장을 태우며 아기의 재롱을 낙으로 삼고 키운 지 어언 3년이 되는 날이었다. 부부는 3년이 되는 오늘까지 무사했으니, 이제는 애기를 데려가지 않겠지 생각하고 선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애기를 업고 소(沼)로 올라갔다. 그 동안 애기를 위해 발길을 끊었던 소(沼)에는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하고 있었다.

거기에 도취된 아내는 애기를 너럭바위 위에 얹혀 두고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며 사방의 아름다운 경치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애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뒤늦게 신발 한 짝 남기지 않고 사라진 애기를 찾아 물 속 이건, 숲 속이건 모두 다 뒤졌지만 흔적도 없었다.

애기를 부르며 찾아 헤매다 지쳐 쓰러져 흐느껴 우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식 인연이 없었던 것.”이라고 위로하며 달래고 있을 때 선녀가 애기를 안고 나타났다. 애기를 돌려달라고 애걸했지만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 없는 일’이라며 아기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몸. 꼭 아이를 보고 싶다면 밤마다 이곳으로 나오면 매일 밤 아기와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사라졌는데 정신을 잃은 아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물위에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내려 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곳을 아기가 빠져 죽은 곳이라며 ‘애기소’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화명동에서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말없는 너럭바위가 전설처럼 누워 있는 애기소가 있다. 그러나 그 넓었던 우영이(웅덩이)는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호수로 붕괴되어 버리고 여인의 치마폭 몇 장을 깔아 놓은 것만큼 좁아졌지만 주위의 경치는 여전히 아름답기만 하다. 그래서 달 뜨는 밤이면 요즈음도 선녀는 아기를 데리고 목욕하러 내려온다고 할 만큼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2-993쪽.

[북구 설화 68]

### 만덕고개와 빼빼영감

동래 남문(南門) 밖에 동래와 구포장을 번갈아 다니면서 샷자리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 가던 홀아비가 살았다. 성도 이름도 없이 빼빼영감으로 통하는 이 샷자리장사는 어찌나 여위고 피골이 상접하였던지 성내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

이 영감이 하루는 구포장에 갔다가 여러 장꾼들과 함께 험한 만덕고개를 넘게 되었다.

이 고개는 구포에서 동래로 넘어가는 험한 산길이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부터 동래부(東萊府) 관아에선 최대의 도적들 소굴이었으니, 지금 양정동(楊亭洞)의 마비현(馬飛峴=모너머고개) 화적떼도 이 무리에 비하면 문제가 되질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만덕고개를 ‘만덕고개’로도 불렀는데, 만(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올라가야 도적을 피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 만덕고갯길을 빼빼영감과 장꾼들이 구포장을 보고 동래로 돌아가면서 고개마루에 있는 주막에 앉아 잠시 쉬게 되었다.

이때 별안간 10여명의 도적떼가 뛰어들면서 “꼼짝 마라! 움직이면 죽인다.” 라고 사나운 얼굴을 지으며 장꾼들을 한사람씩 묶어버렸다. 그리고 두목이 나서서 물건을 판 돈과 가진 것 들을 모조리 내어놓으라고 위협했다. 이때 빼빼영감이 감연히 앞으로 나서서 도적을 향하여,

“여기 있는 장꾼들은 이 험한 고개를 나돌아 다니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고 물건을 털어야 될 것이 아니옵니까?”라고 애걸(哀乞)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도적들은 이 빼빼영감에게 달려들면서,

“이놈! 묶인 녀석이 무슨 잔소리냐.” 하면서 못매를 때리고 발길로 차더니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영감은 봉변을 당하고도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이놈들! 이 끈을 풀어주지 못하겠느냐.”고 외치면서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였다.

도적들의 시선이 빼빼영감에게 쏠렸을 땐 벌써 몸뚱이에 묶인 밧줄은 모두 끊어진 뒤였다. 이놈을 때리고 저놈을 밀어 넘어뜨리는 그 솜씨는 비호같이 날쌔다. 이 비상한 완력에 감당

할 수 없었던 도적들은 모두 도망쳐 달아났다. 도적들이 도망가자 그는 묵인 장꾼들을 한 사람씩 모두 풀어주었다.

이때 힘을 얻은 장꾼들은 다쳐서 못 달아난 도적들을 잡아 동래로 가자고 했으나 그는 “우리들에게 소득이 없는 일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 자들은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술이나 한잔 합시다.”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를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주모에게 청했다.

“여러분! 이 술은 모두 제가 살테니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마을에 내려가거든 오늘 일어난 이야기만은 절대 하지 말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술대접까지 잘 받은 장꾼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내려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흘 후 장꾼 중 한 사람이 뻘뻘영감의 집을 찾아가니 집은 빈집이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나라에서는 뻘뻘영감이 비상한 힘을 가진 장사인 것을 알고 찾았으나 그 행적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3-994쪽.

[북구 설화 69]

### 만덕사와 용을천

만덕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큰 절로서 산수가 뛰어난 이곳에 승려들을 비롯한 많은 객인(客人)들이 찾아들었는데, 그래서 끼니때마다 쌀을 씻은 뜨물이 만덕천(萬德川)을 흘러내려 낙동강까지 하얗게 물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식객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던 주지스님이 어느 날 절을 찾아온 도사에게 푸념을 늘어놓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절에 식객이 적어지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도사가 대답하기를 “만덕사의 뒤쪽 산줄기인 용을산(龍乙山) 너머로 흐르는 계류(溪流)를 위에서 막아 절옆의 ‘대천내들’로 흐르게 하면 절에 식객(食客)이 끊어질 것이오.” 하더라. 대천내들이란 용호골 상류에 개간되어 있던 발지대를 말한다. 이곳에 단구(段丘)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만덕사 뒤 용을산 너머로 흐르던 물을 막아서 절 옆으로 흐르게 했던 흔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도사의 말대로 하였더니 절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결국 절이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도 만덕사 금당지(金堂址) 서쪽으로 소량의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용을천 개울이 있는데 그 물길 따라 농사를 짓는 논이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5쪽.

[복구 설화 70]

## 만덕사 창건과 폐사의 유래

만덕사는 고려시대 초기에 창건된 국찰(國刹)이다. 고려 개국공신이자 신라의 마지막 화랑 장군인 노강필(盧康弼)과 이엄(李嚴) 선사에 의해 태조 때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엄선사는 김해의 승광사(勝光寺)에서 4년 동안 주석하면서 법풍(法風)을 떨친 스님으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찰이 있었던 이곳 만덕사를 중창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덕사(大德寺)에 소장(收藏)되어 있는 《조선정벌기 -동래함락편-》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처럼 만덕사는 고려 초기에 건립되어 조선 선조시대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버린 것이다.

만덕사가 국찰인 것은 절터의 규모와 유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공민왕 때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를 원나라에서 왕으로 옹립코자 할 때 공민왕의 배원(排元) 정책에 따라 석기를 만덕사에 삭발연치(削髮軟置)시켰다는 기록은 만덕사의 비중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처럼 왕자가 유폐되었던 국찰인 만덕사는 그 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고려 왕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곳에서 왕족들은 왕(王)자가 들어가는 성씨(姓氏)로 변성을 하게 된다. 왕(王)씨, 옥(玉)씨, 금(琴)씨, 마(馬)씨, 전(田)씨, 전(全)씨, 김(金)씨 등으로 성을 바꾸어 거제도과 합천 등 영남 일대에 흩어져 잠적, 은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금정산성 남문 아래 만덕촌도 왕족들이 숨어 살던 마을이라고 한다.

조선 선조 때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8도의 의승병(義僧兵)을 모집하여 최초로 만덕사에 집결시키고 일본군의 조선 침략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세는 계속 불리해지고 만덕사는 일본군에 의해 소타(燒打)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그 당시 일본군을 따라 다니던 왜승(倭僧)의 종군(從軍)일기인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에 나와 있다고 한다.

만덕의 지명 유래에 임진왜란 때 만 명이던 사람이 피난을 왔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는 만덕사에 많은(萬) 승려[大德]가 집결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5-996쪽.

[복구 설화 71]

## 의성 옛성터

옛날 신라의 영토였던 구포지역은 김해 가야와 경계를 두고 있어 국경을 수비관찰(守備觀察)하는 성을 쌓았다고 한다.

신라시대 왜구의 침략은 대부분 소규모로 강가의 마을들을 습격하여 노략질을 해 갔는데, 더러는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낙동강하류 지역을 공격해 왔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부터 함락해야 내륙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성은 왜구들의 집중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신라의 조정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왜구들의 난동에 고구려에 원병(援兵)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때 성을 지키고 있던 군사는 500여 명, 성주는 황룡이란 장군이였다.

수천 명에 이르는 왜구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 성을 에워싸고 쳐들어오자 황룡장군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나라를 위하여 의(義)로운 죽음을 남기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 용기를 얻은 군사들이 성을 타고 올라오는 왜구들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또 싸웠던 것이다.

결국 왜구들이 성을 함락했을 때는 500여 명의 군사가 거의 죽거나 전상(戰傷)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 올라온 왜구의 대장은 이렇게 전멸할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싸운 군사들의 모습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침략을 해보아도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된 첫 싸움에서 기가 꺾여 바다를 건너 되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쑥대밭이 될 뻔 했던 낙동강유역의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와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의로운 죽음을 택한 황룡(黃龍) 장군과 500여명의 군사들의 넋을 추모하는 뜻으로 이곳을 의성(義城)이라고 명명(命名)했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6-997쪽.

[북구 설화 72]

### 음정골 참샘이

구포 동편 산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골짜기인 음정골(陰井谷)에는 구포와 인근촌에 널리 알려진 ‘참샘이’라는 약수터가 있었다.

과거에는 동민은 물론 먼 동리(洞里)에서까지 여름이면 목욕을 하러 왔던 곳이다. 지금은 인가가 들어서고 정주(定住)하는 사람이 있어서 옛날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참샘이 약수터에 얽힌 옛 사연들이 있다. 가장 오랜 사연으로는 어느 때인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저 신라 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처에 어떤 부녀가 보스럼게도 살고 있었는데 무단히 그 아버지가 몹쓸 피부병으로 오래 앓아 많은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그 외동딸은 지극한 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지만 별 차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실망치 않고 정성을 다하여 조용한 곳을 찾아서 신명께 빌었다.

하루는 꿈에 어떤 약수터를 계시 받아 그 물을 아버지께 드리니 오랜 병이 신통스럽게

나왔다고 한다. 그 약수터가 참샘이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즉 고려 말엽 즈음 참샘이의 물을 유일한 식수로하여 2만 석의 부호가 살았으며 그때 이곳에 많은 말을 사육했다고 하여 말등고개라는 지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였다는 것을 이 부근의 밭에 널려있던 썩어서 허영게 된 수많은 조개껍질들이 증명해 주었다. 더욱이 참샘이 주위에 인가가 있었던 것을 표시나 하듯이 대나무들이 죽 둘러서 있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7-998쪽.

[북구 설화 73]

### 금곡 안등골에 나타나는 귀신

금곡동 공창마을에는 산에서 다양하게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이용하여 산답을 형성,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몇 군데 남아있다.

가야시대 쇠를 녹이는 야철지(冶鐵址)였던 불메등에는 산답이 근래까지 4천평 정도 있었고 안등골에도 6천여 평의 산답이 남아 있었다.

이곳 안등골에는 옛날 자연적인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물로 농사를 풍요롭게 지으면서 4-500년 전 조선시대부터 함안 조씨(咸安 趙氏)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저수지가 무너져 내려 조씨 일가는 멸족의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듯 안등골이 있는 산에 나무가 우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사기, 옹기, 기와조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옛 무덤 자리에는 조씨(趙氏)의 각자(刻字)가 새겨진 비석들이 눈에 띄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부식된 기와 조각으로 동네 사람들이 낫그릇을 닦을 때 사용했다. 그리고 이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두 곳의 너덜경에 쌓여있던 돌들은 일제강점기 김해 쪽 낙동강제방을 쌓을 때 운반되어 갔다고 한다.

이곳 안등골에서 산을 따라 더 올라가면 안등과 불메등으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곳이 있었다. 여기에는 마을 정자나무로서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를 동네사람들은 방아송(반송)이라고 불렀다.

산답(山畝)이 많았던 이곳에서 여름철이 되면 물이 풍부할 때는 골고루 논물을 갈라 썼는데 가뭄이 겹치면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자신의 논으로 대느라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밤에 물을 대기 위해 물길을 지키고 있으면 어느 날 엔가 난데없이 어디서 소리가 나면서 우장 샷갓을 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가 몰래 물을 끌어가는가 싶어 다가가 보면 금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우장 샷갓을 쓴 사람이 나타난 그 이튿날에는 반드시 비가 와서 가뭄을 해소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아마 안등골에 살다가 저수지가 무너져 몰사했던 조씨 집안의 귀신이 가뭄에 애를 태우는 동네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 믿게 되었다.

안등골에 산사태가 나서 조씨 일가가 몰사했던 곳을 가리켜 동네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뜻으로 불쌍터라고 하였는데, 현재 이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리고 안등골 위쪽에는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이를 제공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공창사람들은 재난을 막아 달라는 치성을 드려왔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8-999쪽.

[북구 설화 74]

### 등대 역할을 한 동원 당산나무

부산의 제일 위쪽 마을인 금곡동 동원마을 앞 나루터에는 옛날부터 이 마을사람들이 할배 당산으로 섬기던 고목이 서 있었다.

동원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일본과 교역을 하던 나루터로서 강변에 주점(酒店)이 들어서 흥청 거렸고, 잉어, 장어 요리로 유명한 곳이어서 외지인의 발길이 잦은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마을도 강나루터에서 높은 지대로 옮겨가고 나무도 사라지고 없다.

차랑차랑한 강물이 닿을 듯 말 듯한 위치에 서있던 이 팽나무는 30m 이상 가지를 뻗어 나간 웅장한 모습이었는데, 1979년 태풍 때 가지 한쪽을 잃어버리고 9m 가량 되던 나머지 가지도 뒤이어 닥친 태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을주민들에게는 옛날 전기도 없어 벽지였던 이곳에서 수령 400년이 넘었을 당산나무가 어업을 주로 하던 동민들의 등대 역할을 했다. 고기잡이 나갔다가 강물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이 당산나무를 보고 뱃길을 잡았던 것이다. 또 어민들은 그 당시 매월 초 하루와 보름날이면 만선(滿船)을 비는 출어제(出漁祭)를 지냈다. 이처럼 당산나무를 마을사람들은 신주(神柱)로서 굳게 믿고 있었다.

한일합방 직후 나무 옆에 있던 나루터의 큰 바위를 깨뜨리려던 일본인 2명이 죽었는데 이 나무의 신령술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해방 직후 콜레라가 그렇게 많은 목숨을 앗아갔어도 이 마을 주민들은 당산나무의 보호 덕분에 한 사람도 불행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1979년 태풍으로 꺾어진 나뭇가지를 시내의 모 재벌이 가구용으로 쓰기 위해 몇 백만 원을 줄 테니 팔라고 해도 주민들은 응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마을에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던 것이다.

이처럼 받들어 모시던 당산나무가 자취를 감춘 뒤 강변 나루터의 나무등치가 있는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30여년이 흐른 지금도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찾아오곤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99-1000쪽.

[북구 설화 75]

###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 효열(孝烈) 이야기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의 효행은 1872년 나라에서 교지를 내려 금곡동에 정려비를 세운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서 양산군 유림들이 군수에게 올린 추천서에 잘 나타나 있다.

효자 천승호는 선비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시례(詩禮)의 풍(風)과 효도를 배우지 않고도 글을 알았으며, 그 어머니가 일찍이 풍담(風痰)으로 여러 달 병에 누웠는데, 입은 옷에 띠를 풀지않고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리저리 약에 대해 물었다. 의원이 “능구렁이(花蛇)가 가장 좋은데, 때가 겨울이니, 어디서 얻겠는가?” 하였다.

승호가 하늘을 부르며 물어 널리 구하니 끝내 얼음과 눈 쌓인 산에서 얻어 어머니 병이 즉시 나았다.

그 후에 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좋은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 받은 돈 10궤미를 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산골에서 갑자기 산적(山賊) 두세 명이 나타나 칼을 휘둘러 돈을 뺏으니, 승호가 병든 어머니 봉양할 돈이라고 지성으로 울며 간청하니 말씨가 사람을 감동시켰다. 적도들이,

“당신이 효자 천승호인가?”

“성명은 맞으나 효자는 아닙니다.”

“효자의 이름을 일찍이 귀 달갑게 들었소. 우리들이 비록 흉년으로 곤란하나 어찌 감히 효자의 돈을 빼앗아 모친 봉양을 못하게 하리까?” 하며 백배사죄하며 가버렸다.

지극한 효성이 동물을 감동시켜 능구렁이가 저절로 나왔고, 사람을 감동시켜 흉도(凶徒) 산적들이 저절로 교화(教化)된 것이다.

23세에 비로소 결혼하여 능히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또한 부부유별(夫婦有別)을 다하였다. 그 아내 경주 이씨는 본래 전통 있는 가문의 딸로 천성이 순수하여 바탕과 행실이 정숙하여 일찍이 어진 부모의 훈계를 듣고 또 남편의 법도를 따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물 길고 방아 짚고 길쌈하기 30여년에 혈기가 이미 쇠약해도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하였고 방이 차고 더운 문안까지 밤이나 낮이나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50살에도 부모를 사모하는(五十而慕父母者) 사람인 것이다.

이웃 여자들이 감화되고 촌 아낙네들이 사모하고 본받아 시모 섬기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 씨(李氏)를 일컬었으니, 출천지효(出天之孝)가 아니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깊이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정인년 4월에 남편 천승호가 병에 걸려 점점 위독하게 되니 이 씨가 백방으로 구호하다가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재계하고 매일 밤 하늘에 빌어 자기 몸을 대신하기 원하였다.

남편이 운명하자 슬픔을 절제하여 곡성을 그치고 시어머니를 위안하여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이니, 애통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며, 염습범절을 남에게 맡기고 오직 시모 공양을 일로 삼으니 그 시모가, 속병이 들었으나 겉으로는 편안한 체 하는 것을 알고 음식을 권하면 마시지 않고도 “마셨습니다.” 먹지 않고서도 “먹었습니다.” 하였다.

성복(成服)하는 날 노비들이 가서 그 시모에게 아뢰니, 비로소 여러 날 동안 곡기를 끊은 것을 알고 손수 음식을 억지로 권하니 물 한 숟가락을 마시고는 피를 몇 되나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정(情)은 감출 수 있으나 피는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이들을 불러 “너희들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는 날, 내가 어찌 즉시 따라 떠나지 않으려 했겠는가! 다만 할머니가 방에 계시기에 감히 거둬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없어 참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내 뜻은 이미 그때에 결정했었다. 지금은 네 아버지 상복을 입었고 할머니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졌으며 또 봉양할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죽더라도 좋은 음식 대접은 그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의 남편이 있으니 살아 계신 할머니를 섬기고 죽은 남편을 따르는 것은 지금부터 길이 다르니라.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거라.” 하시며, 또 양자로 간 아들 부부를 불러 말하기를, “내 죽은 뒤에 어린 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내가 거두어 길러 염려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람의 모든 행실이 어버이 섬김이 으뜸이요, 가정 다스리기에 완성되니 너는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거라.” 또 말하기를, “부부는 무덤까지 같이 간다는 옛말이 있느니라. 이것이 내 지하의 소원이다.” 하며, 말을 마치고 입을 닫으며 떠나니 그 곡기를 끊은 처음과 끝날을 계산하면 무릇 7일간이었다.

그 남편은 어질고도 효성스러우며 그 아내는 효도와 정렬을 겸비했으니 감영과 고을에서 미행을 포창하는 일이 거둬지지 않음이 아니나, 조정에서 효열(孝烈)을 드러내어 밝히는 혜택(정려각)은 아직 지금까지 받지 못했으므로, 도내(道內) 선비들의 의논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상감의 행차가 왕릉을 뵈오러 가시는 때에 사유를 갖추어 말씀을 올렸더니, “도(道)에 조사토록 하겠노라”는 하교(下敎)가 있었기에, 도 대표 유학자의 공의가 이미 이처럼 동의했고 본읍 사림이 침묵할 수 없었다.

이에 ‘연명하여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참고하고 즉시 실제대로 감영에 보고하여 천승호의 지극한 효도를 포창하고, 그 처 이씨(李氏)의 높은 열행을 정려(旌闈) 내려 조정에서 권장하는 높은 은택으로 처분해 달라는 글’을 올려 나라에서 효자 열녀 정려(旌闈) 교지(教旨)가 내려진 것이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0-1002쪽.

[복구 설화 76]

### 산성으로 가는 모래재 고갯길

산성마을에서 서쪽으로 대천을 따라 산성길로 내려가면 모래재가 나온다. 이 고개는 산성마을과 구포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구포장을 다녀오는 사람들로 왕래가 잦았다.

모래재는 모래로써 이루어졌으며 예전에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깊은 고개라 호랑이가 살았다. 사람들이 구포장에 갔다가 오면 호랑이가 꼬리로 모래를 훑훑 날려 이 모래재에서는 겁이 나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고 한다. 이 고개의 바로 동쪽 위에는 50여 호의 죽전마을이 있고 대천 옆에는 금정산성의 서문이 당당하게 낙동강을 지켜보고 있다.

죽전마을에는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영리한데다가 마음 씩씩이도 착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함이 지극하였다. 이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으며 장래가 촉망되어 17세가 되었을 즈음에 딸자식 가진 집에서는 누구나 돈은 별로 없지만 성실하고 착한 이 청년에게 시집보내기를 다투어 원할 정도로 덕망이 높았다.

모자가 돈은 없지만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생활을 엮어 나갔는데, 이 청년이 스무살이 되던 해 겨울, 어머님께서 노후하신 탓으로 그만 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가난해서 변변히 약 한첩 쓸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어머님의 병환은 차도가 없었다. 착하기만 한 이 청년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마당가에 떠 놓고 백일기도를 올렸다.

그 지독한 추위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근 1백여 일이 다 되어 눈이 펄펄 쏟아지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내리는 눈을 가까스로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중 눈과 추위에 떨던 그 자리에서 어느결엔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백발노인이 백호를 타고 나타나서 “나는 이 고을의 산신령이니라,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특별히 너에게 어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으니 똑똑히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 꿈결일망정 이 청년의 가슴은 뿔 듯이 기뻐다. 청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이 마을 밑의 모래재 산꼭대기엔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있을 것이니 그걸 캐서 네 어미에게 먹이면 병을 고칠 수 있을게다.” 하고는 홀연 사라지고 말았다. 이 청년이 눈을 번쩍 떠 보니 자기가 물을 엮어 놓은 소반에 엎드려 잠이 들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신기하여 날이 새자마자 곧장 그 눈 덮인 모래재의 산위로 단숨에 기어 올라갔다.

사방은 몇 치나 되는 깊은 눈으로 덮여있었고 웬만한 사람은 이 산을 올라 갈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이 청년의 효성은 자기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한나절이 넘어서야 중턱까지 겨우 올라갔을 때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꼬리를 들어 등을 두드리는 꼴이 마치 자기 등에 타라는 시늉 같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호랑

이가 어젯밤 꿈에서 산신령이 타고 있던 호랑이와 꼭 같았다. 그래서 산신령님이 보내주신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산신령께 깊이 감사드리며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커다란 바위 밑에까지 가서 그 약초를 캐어다 어머님께 달여 드렸더니 곧 병은 쾌차되었고 두 모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2-1003쪽.

[북구 설화 77]

### 용당 호수의 청룡과 황룡

자연 경관이 수려했던 용당마을이 신도시 조성으로 없어졌지만 옛날 이곳에 있던 호수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청룡과 황룡’ 전설이 있다.

조선시대 양산군의 아전(衙前) 한 사람이 구포의 남창(南倉)에 출장을 오게 되었다. 양산에서 구포까지 오고가고 하룻길이라 남창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꿈에 돌연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일 한나절 쯤 올라가면 용당의 정자에서 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정자 밑 큰 못에 청룡과 황룡이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 중 청룡은 첩용인데 서편의 초군들이 노전(갈밭)에서 쇠를 치고 있을 것이니 걸넛(큰 낫)을 달라 해서 죽여라. 만약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몇 발자국 못가서 너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기이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불일을 끝내고 행장을 차려 길을 떠나 용당의 정자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아래 큰 못을 내려다보니 꿈에서 말한 대로 청룡과 황룡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건너편에는 역시 초군들이 쇠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초군에게 소리를 쳐 걸넛을 가져오라 하여 큰 낫을 잡고 내려다보니 청룡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고 있어 쉽게 청룡을 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아전이 생각하기를 ‘아이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낫이라도 휘둘러보자.’ 하면서 걸넛으로 청룡을 내리쳤다. 그런데 황룡을 치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모이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어디선가 용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청룡을 죽여 달랬더니 황룡을 죽였느냐. 너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면서 아전을 물에 빠져죽게 만들었으니 결국 꿈 한 번 잘못 꾸고 그 아전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양산군에서는 아전이 돌아오지 않자 수소문한 결과 쇠를 치던 초군들의 말을 듣고 가보니 용당의 돌팍골에 아전의 신발만 남아 있고 시체는 큰 못에 빠졌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3-1004쪽.

[복구 설화 78]

## 대밭골 묘자리

대전마을 윤씨 문중에서 장사가 출생하였던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대전마을의 윤기홍 씨가 상(喪)을 입고 묘지를 구하기 위해 유명한 지관(地官)을 초빙하여 명당자리를 물색하던 중 대밭골(화명동 산70번지)에 묘자리를 정하였다. 이 때 지관이 이곳에 묘를 쓴 후에 집안에 장사 1명, 부자 1명, 풍병환자 1명씩 출생한다고 말을 했다 한다.

그로부터 아들 셋이 출생했는데 장사로 태어난 아들을 두고 부모가 밖에 나갔다 오면 방에서 먼지가 자욱한지라 이상히 여겨 다음에 엿보니 방안에서 나르는 연습을 한다고 먼지가 생긴 것이었다. 한번은 밖에서 들으니 방을 흔드는 소리가 나는지라 그 소리를 듣고 들여다보니 천장을 날라 붙고 천장 종이를 손으로 짚으니 천장 종이가 찢어지면서 그 길로 밖으로 날아가 버리더라. 그 후 15일이 경과한 날 한번 온 후로 다시 나가더니 영영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장사아들 다음에 태어난 아이는 뒤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출생한 후 부모는 다음 태어나는 아이가 풍병을 앓게 될까 겁이 나서 묘를 지늘골(비석골)로 이장(移葬)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뒤에 태어난 아이가 풍병환자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지관(地官)의 말이 들어맞게 되었는데 이 묘터는 구포-양산간 도로 확장 공사 때 철거되어 다시 이장해 갔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5쪽.

[복구 설화 79]

## 천국부와 장터걸

화명 와석 동네에 옛날 배를 가지고 소금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천국부(千國富)의 집이 있었다. 이곳에 장터걸이 있는데 천국부 한 사람의 재력으로 장(場)이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한 이 마을에 못이 있었는데 천국부의 돈(엽전)을 씻던 못이었다고 한다. 이만큼 와석동네는 천국부 집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할만큼 천(千)씨가 큰 부자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국부(國富)라는 이름이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이처럼 큰 부자가 된 것은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천국부가 소금배를 타고 낙동강 상류로 장사를 다니면서 그 당시 가짜 엽전을 싸게 사들여 그것을 배 밑에 깔아 가마니를 덮어놓고 소금물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내 엽전에 녹이 쏘여서 진짜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민간인이

가짜로 만든 엽전을 사전(私錢)이라고 했는데 뱃속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천국부는 원래 양산 화제 출신으로 나이 40이 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아무리 머슴살이를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버선을 하나 신으면 바닥은 다 닳아버리고 버선목만 달고 다녔다고 한다.

하루는 구포장으로 가기 위해 용당 앞 한질(큰 길)을 지나다가 세상 살 맛이 나지 않아 신계들에 벌렁 누워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과객이 지나가다 천 씨를 보고 하는 말이

“아이구 이놈 봐라! 아이구 이놈 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천 씨는,

“여보쇼. 아이구 이놈 봐라고 하니 날 보고 하는 소린데 도대체 왜 그러오?”

하고 물었더니,

“그래 널 보고 하는 이야기다. 너가 지금은 거지처럼 이렇게 맥이 빠져 길가에 누워 있지만 너는 꼭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천 씨는 하도 기가차서,

“왜 그런 소리를 하오?”

했더니 과객은 탄 말은 하지 않고

“너는 부자가 될 것이 틀림없으니 그리 알아라.”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 이후 천 씨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되게 살았는데 하루는 양산 화제 갯벌에 나가서 보니 강에 광선(廣船) 한 척이 정박해 있었고 그 배에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천 씨가 배에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인가. 뱃속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누라에게 급히 달려가 함께 배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엽전을 가져가자고 하여 천씨와 마누라는 밤새도록 이고지고 집으로 옮겼다. 그래서 천 씨는 논을 사고 밭을 사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엽전도 사전(私錢)인 것이다. 천 씨가 부자가 되어 소금배를 사고 화명 용동골에서 살게 되었다.

이처럼 큰돈을 벌었던 천국부가 갑자기 망했다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천국부가 새 집을 지으면서 욕심을 내어 너무 큰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전해 온다. 옛날 왕궁을 지을 때는 대문을 100간 짜리로 지을 수 있어도 백성은 아무리 부자라도 99간 밖에 짓지 못한다고 했는데 천국부는 집을 지을 때 아들이 100간 짜리를 짓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산성에서 굶은 나무들을 베어다가 켜고 불메를 차려 놓고 연장을 제작하여 큰일을 벌이자 천국부는 아들에게 집을 너무 크게 짓지 말라고 타일렀다.

하루는 천국부가 볼 일이 있어 마차를 타고 그 당시 관행로였던 용당 쪽으로 가다가 용당 말랑걸에 마차를 대놓고 바로 건너다보이는 와석의 자기 집 짓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 때 마부가 너무 거창하게 일을 시작하여 집을 미처 짓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집터에서 찌끼미(진대)가 나가더라고 일러 준다. 이처럼 큰 집을 누가 새로 뜯어 짓겠느냐는 아들을

말리지 못했는데, 천국부는 뒤에 역적으로 몰려 결국 패가망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천국부가 망한 이유로 대원군 때 궁궐을 지으면서 상놈이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돈을 뺏아 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국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상놈으로서 돈을 벌었지만 양반의 세도에 밀려 망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용동골 입구 마을에는 천국부의 집터가 있고 그 후손들은 이 동네에 살다가 뒤에 사상으로 이주해 갔다. 망해 버린 천국부 집의 기와는 동래 범어사로 가고 목재는 명호(명지) 소금밭의 땔감으로 가져가서 쓰였다고 한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5-1006쪽.

[북구 설화 80]

## 허 진사와 대장골 도적들

옛날 화명에서 동래로 가는 길인 대장골(大莊谷, 대적골·대정골로도 불렸음)의 뒷산은 산적의 본거지였다. 산적들은 해마다 대장골 아랫동네인 수정(水亭)마을에 나타나 집집마다 곡식을 약탈해갔다.

당시 수정마을에는 허씨 문중의 부자였던 허섭(許攝, 1862년 출생)이라는 진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사람들을 대표해 산적들에게 “앞으로 내가 충분한 곡식을 줄 테니 약탈하지 말라”고 말하며 협약을 맺었다. 해서, 산적들은 해마다 한 번씩 정례적으로 허진사댁에 와서 양식을 받아 갔다. 산적 두목의 연락책을 맡은 부하가 허 진사댁을 찾아 “며칠 후에 우리가 올 것이니 곡식을 짊어 놓고 준비해 달라.”고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지정한 날이 되면 산적들은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이때 마을사람들은 집집마다 대문을 잠그고 부녀자를 숨겨 놓고 바깥출입을 모두 하지 않았다.

산적들은 앞산에 와서 징과 팽과리를 치면서 법석을 떨었고, 허 진사댁에서는 마당에 멍석을 깔아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하인을 시켜 산적들을 인도했다. 산적 줄개들이 마당에서 대접을 받는 동안 두목과 허 진사는 사랑채에서 대작을 하며 갖고 갈 곡식 등을 흥정했다. 흥정이 끝나고 나면 산적들은 곡식 등을 받아 유유히 사라졌다. 산적의 본거지와 가까운 수정마을은 부자인 허 진사 한 사람의 공덕으로 피해를 줄여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수정마을에서 태어난 허 진사는 고향에서 마을을 지키며 살다 1894년(고종 31년) 진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문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선각자였다.

그는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 땐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적지 않은 기부를 하였다. 1914년 구포장터에 큰불이 나자 장터를 재건하기 위한 성금을 모을 때 당시 구포은행이 낸 150원보다 더 많은 160원을 선뜻 내어 애향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자금을 모으러 연락원이 수정마을을 찾았을 때도 허 진사는 엄청난 독립자금을 선뜻 내주었다고 한다.

큰 부자로 소문났던 허 진사 댁은 수정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궐만 했던 그 집은 다섯 대문을 지나야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한옥이었다. 구조 양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문 앞에선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리면 연자방아와 하인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다. 남쪽으로 허씨 집안의 독서당이 있었다. 위채는 3칸 집으로 서당 훈장댁이고 아래채는 3칸 접 집으로 서당이였다.

첫째 대문을 들어서면 양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왼쪽 큰 마당은 타작마당이 있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둘째 대문이 나온다. 안쪽은 사랑채로 5칸 접 집이 있었다.

오른쪽 셋째 대문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5칸짜리 창고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4칸짜리 디딜 방앗간과 쇠마구간이 있었다. 넷째 대문을 들어서면 본채 5칸 접집이 있었다. 지붕은 쇠나리(갈대)로 엮었으며 위채와 사랑채는 서향집이었다.

다섯째 대문 맞은편 남쪽으로는 5칸 안채가 있었다. 그 뒤편으로 북쪽과 동쪽이 대밭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였다. 현재 수정마을에는 허 진사 댁의 사랑채가 남아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6-1007쪽.

[북구 설화 81]

### 신선이 데려간 아이

지금으로부터 150여년 전 화명동 대천마을에 윤기홍(尹基洪)이라는 선비 한 분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부친의 꿈에 신선이 현몽하기를,

“천상선동(天上仙童)을 그대에게 점지할 것이니 이 꽃을 먹어라.”

하고 흰꽃 한 가지를 주거늘 그 꽃을 먹은 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십 삭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를 낳은 날 밤에 풍우(風雨)가 크게 일고 뇌성(雷聲)이 진동하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시아버지 되는 선비는 출타하였고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건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이 깨어 건너가 보았다. 가보니 방문은 열려 있고 등불은 꺼져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들고 들어가 보니 산모(產母)는 기절해 있고 흔적을 보니 아기를 낳았음은 분명한데 아기는 없는지라 산모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서 아기의 행방을 물었다.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흰옷을 입은 사람 셋이 와서 아기를 데려가면서 “이레(7일) 되는 날

자시(子時)에 오겠다.”면서 방문 안쪽 바위에 종이 한 장을 붙여 놓고 갔다고 하였다. 이에 벽을 살펴보니 붉은 물감으로 일곱 자를 쓴 글씨 한 장이 붙어 있으나 도무지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알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집안에서는 아기를 낳았으나 아기가 없어졌으니 이웃과 친척들에게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속이고 거짓으로 아기를 갖다 묻는 시늉까지 하였다.

그후 7일만에 신선이 현몽하기를 삼년 후에 올 것이라는 말을 하며 사라졌는데, 그 날 밤 산모가 이(蠶)를 잡으려고 저고리를 벗으니 왼쪽 팔에 일곱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 글자 역시 알아볼 수 없는 글이었다.

그 뒤 삼 년째 되는 날 밤 삼경에 신선 세 명이 와서 아무 말 없이 문 위에 알아보지 못할 일곱 자를 붙여놓고 이제는 8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며 가 버렸다. 그 뒤 8년째 되는 해 정월에 신선 세 명이 전과 꼭 같은 복장을 하고 와서, “그 아이는 범인(凡人)이 기를 아이가 아니어서 우리가 기르고 있으니 이 말을 누설치 말라. 만일 누설하면 집안에 화가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바다 섬 가운데서 기르고 있으니 안심하라. 때가 되면 알게 될 날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아이가 썼다는 일곱 자 글이 쓰인 종이 한 장을 주고 갔으나 그 역시 알아볼 수 없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겨 버렸는데 신선이 석장 종이에 썼던 글자 21자만이 윤씨 집안에 지금까지 남아서 보존해 오고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8쪽.

[북구 설화 82]

### 양산 구포복설비(龜浦復設碑)의 내력

양산군 용연리 내원사(內院寺) 입구 국도변에 비석 3개가 있는데 그 내력을 모르고서 이 비석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다. 비록 한학에 능한 분이 보더라도 영상대감 이유원(領相大監李裕元)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국도변에 세워진 연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 비석 이면에 <구포복설장두 우석규, 서상로, 이기수(龜浦復設狀頭 禹錫奎, 徐相魯, 李基洙)>라 써어 있을 뿐 아무런 설명도 붙어 있지 않으니, 비석 전면의 인물과 어떤 관계이며 구포복설(龜浦復設)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이 세 비석에 얽힌 전래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1869년(고종 6: 己巳)에 양산 소속이던 구포면(龜浦面)이 인부족 세부족으로 동래군에 탈속(奪屬)되게 되었다. 양산고을에서는 군민이 하나같이 분개하여 구포면이 다시 양산군에 환속되도록 요로에 여러 번 소진(疏陳)하였으나 시일만 지연될 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나머지 향증 공론을 조정(正)에 직소(直訴)하기로 정하였다. 사림(士林) 우석규(禹錫奎)를 필두로 서상로(徐相魯), 이기수(李基洙) 등을 장두(狀頭):

상소하는 글의 우두머리)로 하여 세 사람이 직접 한양까지 가서 성상을 배알하고 향론을 주달(奏達)토록 선정하였다.

이 세 사람은 향중의 공의(公議)로 추대된 바이니 그 사명의 지중함을 통감하면서 한양 천리길을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출발하였다. 때마침 늦은 봄이라, 산천경계는 녹음이 무르익어 미풍에 하늘거리며 바위 사이의 봄꽃은 지나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듯한데, 숲속에서 지저귀는 산새소리는 먼 길을 떠나는 세 용사를 반겨주는 듯도 했다. 이리하여 낮이면 산천 경관에 피로를 달래고 밤이면 여사(旅舍)의 한등(寒燈) 아래서 여독을 풀어가며 천신만고 끝에 한양에 당도하였다.

시골 선비가 한양에 지기(知己)가 있을 리가 없으니 백방으로 주선했던 본들 성상(聖上)을 배알하기란 아예 가망 밖이니 세 사람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대 결심을 하게 된다.

“우리는 향중 사람의 추대를 받은 몸이니, 그 책무의 중대함을 생각한다면 비록 죽음이 닥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물러설 수 있겠으며 이러한 심상한 방법으로만 시종하다가는 할 일 없이 헛걸음 할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범의 새끼를 얻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하고 큰일을 감행하려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땅히 대장부로서 감사심(敢死心)을 가지고 최후의 방법을 취하자.”

이렇게 의논한 끝에 남산 봉수대(烽燧臺)에 올라가서 밤 되기를 기다려 봉화를 올리면서 무슨 변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삽시간에 온 장안이 술렁이더니 즉각 군관들이 당도하여 성화같이 꾸짖어 말하되

“너희들은 무엄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구나, 봉화는 나라가 위급한 때에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였으니 중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호통이 떨어졌지만, 세 사람은 추호도 겁내는 기색이 없이

“저희 고을에 일대 신원사(伸冤事)가 있습니다만은 천청(天聽)에 주달(奏達)할 길이 없어야 이와 같은 무엄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비옵건데 저희들의 원사를 성상께 주달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간청도 주효하지 못하고 그날 밤으로 세 사람은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며칠 후 삼인은 의금부(義禁府)에 끌려 나가 추국(推鞠: 중죄인을 다스리는 것)을 받게 되었다. 국문(鞫問)하는 관원(官員)은 추상같이 호령하면서,

“너희들은 무슨 원사가 있어 이렇듯 무엄한 행동을 자행했느냐? 이실직고 하렸다.”

하거늘 삼인은 복지돈수(伏地頓首)하면서도 당당히 아뢰기를

“개국 이래로 군현(郡縣)은 서로 경계가 엄연하므로 이로써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수백 년 이래 한 번도 변함이 없었사운데 이번 양산(梁山)고을의 소속인 구포면이 불의에 동래군(東萊郡)으로 탈속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동래군 내의 세도가들의 농간이라 아니할 수 없사오며, 구포면민으로서도 일상생활에 관부출입이 생소하여 친화에 해(害)되는 바 적지 않사오며 향민들 상호간에도 여태껏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친족처럼 지내오던 사이가 이제는

남의 집 식구처럼 인식되므로 상부상조의 미품에 결여됨이 있을까 저어함이요, 또 경제적 유대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 군민이 억울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수차에 요로(要路)에 진정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되므로 마지막으로 우민(愚民) 등이 목숨을 걸고 성상께 주청(奏請)코자 하여 이렇게 엄청난 죄과를 저질렀사오니 우러러 바라옵건데 우민 등에게는 어떤 죄를 내리시더라도 이미 각오한 바가 있사오니 우민 등의 숙원인 구포 환속 문제만은 청허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비오며, 아울러 전 양산군민이 우러러 천은(天恩)에 감읍(感泣)케 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돈수백배(頓首百拜)하옵나이다.”

이렇게 답변하였던 바 이 추국(推鞠)한 내용이 당시의 영상대감 이유원(李裕元)에게 보고 되었다. 영상대감 이유원은 특별히 삼인의 의기(義氣)를 가상히 여겨 봉수대에 봉화한 사건은 면책 불문하고 또 구포면은 즉시 양산군에 환속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향민들이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비석 셋을 세웠으니, 첫째, 당시의 영상을 기리는 비석으로 앞면에는 <領相大監李閣裕元永世不忘碑> ‘閣은 합하(閣下)의 준말인데 정일품(正一品) 관원의 성(姓)밑에 붙이는 경칭’이라고 각자(刻字)되어 있으며, 뒷면에 <龜浦復設狀頭>라 두서하고 삼인의 성명만이 병기(并記)되어 있다.

삼인만의 비석을 마땅히 따로 건립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의 비석 뒷면에 붙인 것은 관직이 없는 사람은 비석을 세울 수 없는 당시의 법 때문에 영상의 비석 뒷면에 각자하여 그 공적을 더욱 빛나게 남기려는 의도에서이다. 둘째 비석은 복설 당시의 군수를 기린 비석이니 「行郡守魚公允中永世不忘碑(행군수어공윤중영세불망비)」라 써어 있고, 또 하나는 비석 건립 당시의 군수를 기린 것이니 「行郡守李公能華愛民善政碑(행군수이공능화애민선정비)」라 써어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9-1011쪽.

[북구 설화 83]

### 시절을 예언한 거목, 화명 용당 당산나무

부산시 북구 화명동 2072번지의 당산나무는 높은 가지부터 잎이 먼저 피면 늦비가 잘되고 아랫부분의 잎이 빨리 피면 올비가 잘된다고 전하며, 10여년전만해도 마을 사람들은 나뭇잎이 피는 상태를 보고 올비를 심을 것인가 늦비를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였다고 하며 농민들이 그 해의 법씨 선택의 기준으로 그 해의 시절을 예견하였을 것이다.

이 나무는 그리스신화의 보리수와 참나무가 한 밑동에 붙어 있는 오비디우스의 전신부(轉身腑)를 생각해한다. 소아시아 프리가 지방의 비튀냐라는 시골언덕 사당자리에 보리수와 참나무가 한 밑동에 붙어살고 있는 이상한 나무가 있다. 필레몬과 바우카스라는 가난한 부부

농부가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의 은혜로 여행을 마친 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나무가 되어 한 등지에서 뒤엎혀 살게 된 것을 말한다.

화명동 당산나무는 등치는 다르지만 3평 가까이 되는 커다란 마당바위가 벌어진 틈새를 비집고 솟아난 2그루의 나무이다. 팽나무는 수령을 3백년, 느티나무는 2백 년으로 추정하며, 몇발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마치 1그루의 나무처럼 보인다.

파평 윤씨가 대를 이어 3백 년 전부터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것을 보면 이 나무는 이 마을과 내력을 같이 하는 셈이다.

2그루의 나무아래엔 고당 할머니가 있는 서낭당이 있다. 이 나무와 서낭당의 위력은 대단한데가 있다고 마을 주민들은 말한다. 50여 년 전에 바위 윗부분이 울퉁불퉁해서 마을사람들이 모난 부분을 쪼아내어 평평하게 메웠다.

그러자 마을 여자들이 대수롭잖은 일을 갖고도 말싸움을 벌였다. 마을이 뒤숭숭해졌다. 서낭바위를 쪼아냈기 때문에 고당할머니가 노한 탓이라고들 말했다. 노인들이 주동이 돼 주위에 흩어진 돌조각을 주워 한데 모으고 고당할머니에게 용서를 비는 절을 올렸다. 그 후로는 마을이 잠잠해졌다고 한다.

이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휘늘어진 가지와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바위위를 마을 휴게소 및 집회소로 만들었다. 어른 아이를 가릴 것 없이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런데 나무와 바위 바로 옆에 밭을 갈고 있는 밭주인은 무성한 나뭇잎이 밭에까지 그늘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궁리 끝에 남들 몰래 느티나무를 등치부터 잘라버리기로 결정한 후 톱으로 등치를 절반 가까이 자르고 있을 때 느닷없이 나뭇가지가 튕겨 눈을 찔려 실명당한 채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한다.

느티나무는 절반이나 등치를 잘리고도 살아남았으며 잘린 자리에도 새순이 돋아나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자기 방어를 위한 표독하리만큼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 밑의 당산에 모셔진 고당할머니에게 음력 정월 보름에 부락제를 지낸다. 14일 밤 자정부터 시작하여 보름날 아침 5시까지 치성을 드린다. 북구에서는 구나무 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화명신시가지 조성으로 언덕 위에 옮겨져 보존하고 있다.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11-1012쪽.

[북구 설화 84]

### 내 배 사이소! 내 배! 내 딸 사소! 내 딸!

6·25전쟁이 일어난 후 구포다리 입구에는 헌병파견대가 설치되었고, 60년대에 접어들어 동편 버스정류소 쪽으로 상권을 형성하여 구포관광센터 콘크리트건물이 길게 세워져 있었다.

구포 다릿목에는 그 당시 부산에서 김해, 마산, 진해 쪽으로 가거나 부산으로 나오는 버스가

정차하였다. 이곳에 버스가 정차하면 진풍경이 벌어졌다. 아주머니, 아가씨 등 대부분 부녀자들이 광주리에 배를 담아 버스를 따라 붙으면서 “내 배 사이소! 내 배!” 외쳐대는 것이었다. 봄철이면 새빨갭게 익은 딸기를 광주리를 담아 “내 딸 사이소! 내 딸!” 소리쳤다.

이러한 풍경은 구포다리 입구뿐이 아니었다.

구포 안쪽으로 들어오면 기차가 달는 구포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차가 역에 들어오면 부녀자들이 우루루 몰려와 차창을 두드리면서 “내 배 사이소! 내 배!, 내 딸 사이소! 내 딸!” 외쳐 대었다.

그래서 구포 배와 구포 딸기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명산물이 되었다.

그런데 배와 딸기로 유명한 구포에는 정작 배 밭이나 딸기를 재배하는 밭이 단 한 평도 없었다. 구포에서 생산되지도 않았던 배와 딸기가 왜 구포의 명산물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낙동강 하류의 물목이었던 구포의 지역적 특성을 알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구포 배와 딸기 생산의 역사는 구한말(舊韓末)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08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설립했던 동양척식회사는 한일합방 후 김해 삼각주 일대에 수리(水利) 사업을 벌이면서 일본인들이 이주해 와서 대저 출두리와 대사리를 중심으로 배나무를 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강 동쪽의 기름진 땅인 삼락 유두리 일대에도 원예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딸기가 생산되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배와 딸기가 구포나루에 반출되어 구포역을 통해 전국으로 운송되어 갔다. 이처럼 구포는 생산지는 아니었지만 생산물이 반출되는 집산지(集散地)로서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자연히 붙여진 이름이 구포 배와 구포 딸기가 된 것이다.

‘내 배 사이소! 내 배!, 내 딸 사이소! 내 딸!’

봄철에는 딸기를, 가을과 겨울철에는 배를 사라고 외치던 소리가 구포에 대한 인상을 더욱 깊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딸기를 경상도 사투리로 ‘내 딸 사소.’ 하니까 딸[女息]을 사라는 말이 나고 웃어 주었고, ‘내 배 사이소.’ 하는 소리를 ‘내 배[腹]’ 라는 엉뚱한 뜻으로 해석하여 외지인들이 놀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봄철이 되면, 삼락동의 낙동강 강변 둔치에서 딸기가 익을 무렵 주말이 되면 부산시민들이 구포다리에서부터 낙동강 제방 일대에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구포다리를 건너거나 구포나루에서 다니던 김해 대동행 나룻배를 타고 대동면과 경계지점인 대저 출두리의 배 밭으로 바람을 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처럼 구포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배와 딸기가 구포를 통하여 반출됨으로써 구포 배와 구포 딸기로 이름을 날렸던 시절도 있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주들이 수익성이 높은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그 이름도 사라졌다.

\*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10012-1013쪽.

[복구 설화 85]

### 대리마을 당산나무에 얽힌 풋사랑

구포 대리마을에 가난한 선비를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다. 과거를 보러 떠난 선비를 기다리던 처녀는 선비가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선비가 주었던 팽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죽는다. 처녀는 죽어서 주산신이 되었고, 처녀가 기대어 죽은 자리에는 또 한 그루의 팽나무가 자라나 붙어, 두 나무는 쌍을 이루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대리(大里)마을은 구포1동 705-720번지 일대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대리’라는 지명은 ‘큰 마을’이란 뜻이 담겨 있는 구포지역의 모태인 본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구포의 주산인 주지산(蛛蜘蛛山)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말등고개에서 멈추었다가 낮은 영산(嶺山) 봉우리가 강을 내려다보면서 대리마을의 당산 당숲(당산나무, 구포1동 46번지)이 있는 쪽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대리마을은 구포의 본토박이들이 살아 온 마을이라 사람이 산지가 오래된다. 마을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살기 시작한 곳은 음정 골짜긴데, 지금의 경혜여고 바로 아래쪽의 밭에서는 조개껍질이 나오고, 이 마을의 당산나무인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이 600여 년이 된 팽나무가 마을이 오래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대리마을 당숲에 자리 잡고 있는 당산나무인 팽나무(천연기념물 제309호)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1400여 년 조선시대 대리마을에는 김초시의 딸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총각 선비가 살았는데, 둘은 부모 몰래 혼약을 한 사이였다.

젊은 선비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갈 때 처녀는 자기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정표(情表)로 주고, 선비는 팽나무 지팡이를 주면서

“남자, 이 팽나무를 땅에 꽂아서 살아나면 내가 급제해 돌아온다는 뜻으로 알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라고 말하고 한양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웃의 부잣집 아들이 이 처녀를 짝사랑하는 것을 안 마을 무당이 부잣집 도령과 이 처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자객을 시켜 젊은 선비를 고갯길에서 죽이고 말았다.

선비가 죽은 것도 모르고 처녀는 물을 주고 가꾸며 팽나무 지팡이가 살아나기만을 매일 기원하였다. 결국 처녀의 간절한 정성으로 지팡이는 살아나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기 시작했다. 처녀는 선비를 만날 기쁨으로 매일 팽나무를 보살피며 3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자기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지닌 선비가 2년 전에 피살되었다는 비보를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팽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 나무에 기댄 채 죽고 말았다.

처녀가 죽은 자리에 또 한 그루 팽나무가 자라나 붙어서 두 팽나무는 쌍을 이루게 되었다.

처녀의 사무친 원한은 무서운 재앙으로 불어 닥쳤다. 마을에 화재가 수없이 나고 가뭄과 홍수 그리고 전염병 등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처녀의 원한임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선비와 처녀의 명혼식(冥婚式: 죽은 뒤 부부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을 치러 주었다.

또, 팽나무를 당산나무로 정하여 매년 정월 14일 자정에 정성껏 당산제를 지냈다. 제삿날 아침에 제주(祭主 : 제사의 주장이 되는 상제)가 누룩을 비빈 고두밥을 단지에 넣어 팽나무 아래 움푹 파인 곳에 갖다 두면 저녁에는 술이 되었는데, 이 술을 사용하니 마을에 내리던 재앙이 사라졌다고 한다.

처녀는 사랑했던 선비를 잃은 천추의 한을 알아준 대리마을 주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마을의 수호신이자 마을의 안녕과 풍양(風陽)을 기원하는 당산제의 역기능을 해결하는 주산신이 되어 평화로운 마을로 대리마을을 지켰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97-200쪽.

[복구 설화 86]

### 시절을 예언한 용당 당산나무

화명동의 용당 당산나무에는 높은 가지부터 잎이 먼저 피면 늦벼가 잘되고, 아랫부분의 잎이 먼저 피면 올벼가 잘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나뭇잎이 피는 순서를 보고 늦벼, 올벼 심기의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 화명동 신시가지 조성 후 이 당산나무는 언덕 위로 옮겨졌으며, 구나무 제1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용당 당산나무(부산시 북구 화명동 2072)에는 높은 가지부터 잎이 먼저 피면 늦벼가 잘 되고, 아랫부분의 잎이 먼저 피면 올벼가 잘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나뭇잎이 피는 상태를 보고 올벼를 심을 것인가, 늦벼를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였다고 하며, 농민들이 그 해의 벼씨 선택을 기준으로 그 해의 시절을 예견했다고 전해진다.

당산나무는 동치(큰 나무의 밑둥)는 다르지만 3평 가까이 되는 커다란 마당바위가 벌어진 틈새를 비집고 솟아난 2그루의 나무이다. 팽나무의 수령은 300년, 느티나무는 200년으로 대략 추정된다. 몇 발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

파평 윤 씨가 대를 이어 300년 전부터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것을 보면 이 나무는 이 마을과 내력을 같이 하는 셈이다.

2그루의 나무 아래에는 고당 할머니가 있는 서낭당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와 서낭당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50여 년 전에 바위 윗부분이 울퉁불퉁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난 부분을 쪼아내어 평평하게 메웠다. 그러자 마을 여자들이 대수롭잖은 일을 갖고도 말싸움을 벌이며 결국 마을 전체가 뒤숭숭해졌다. 서낭바위를 쪼아냈기 때문에 고당 할머니가

노한 탓이라고들 말했다. 그러자 노인들이 주동이 돼 주위에 흩어진 돌조각을 주워 한데 모으고 고당 할머니에게 용서를 비는 절을 올렸다. 그 후로는 마을이 잠잠해졌다고 한다.

이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휘늘어진 가지와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바위 위를 마을 휴게소 및 집회소로 만들었다. 어른과 아이 가릴 것 없이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런데, 나무와 바위 바로 옆에 밭을 갈고 있는 밭주인은 무성한 나뭇잎이 밭에까지 그늘을 지게 한다고 생각하고는 궁리 끝에 남몰래 느티나무의 동치를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톱으로 동치를 절반 가까이 자를 때였다. 느닷없이 나뭇가지가 튕겨 눈을 찔렀고, 밭주인은 실명하게 된 후 얼마 못가 죽고 말았다.

느티나무는 절반이나 동치를 잘리고도 살아남았으며 잘린 자리에도 새순이 돋아나 완전히 회복되었다. 자기 방어를 위한 표독하리만큼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 밑의 당사네 모셔진 고당 할머니에게 음력 정월 보름에 마을제를 지낸다. 14일 밤 자정부터 시작하여 보름날 새벽 5시까지 치성을 드린다.

화명동 신시가지 조성으로 이 당산나무는 언덕 위에 옮겨져 보전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는 구나무 제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01-204쪽.

[북구 설화 87]

### 용당 학사대의 윤씨 묘

용당 학사대에 조상의 묘를 쓰면 자손이 잘 되고, 신분이 귀하게 된다고 했다. 파평 윤씨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학사대에 묻었고, 그 후부터 자손들이 잘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훗날 윤씨의 자손들이 묘를 이전하기 위해 조상의 묘를 파는데, 그 순간 하얀 기운과 학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윤씨 후손들의 상승세 또한 멈추고 말았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자연부락인 용당(龍塘: 옛날 청룡과 황룡이 싸웠다는 전설의 호수가 있어 유래됨)마을의 파평 윤씨 가문에 이웃 평택 임씨 가문의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던 며느리는 사랑방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용당의 학사대(學士臺: 학성산의 정상 바위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모여 시회(詩會)를 가졌던 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자손이 잘되고 신분이 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이 소문은 금세 이웃 임씨 마을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친정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시가 편을 들 것인가. 하지만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니 며느리는 자기의 후손이 태어날 시가 편을 들기로 마음먹고, 날마다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이 명당자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이 명당자리는 결국 물이 고인 웅덩이로 변해 어느새 명당이 아닌 흉당으로 소문이 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이 자리를 탐내던 사람들은 이 소문 탓에 이곳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곳에 조상의 묘를 썼다.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며느리는 모든 집안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에 시아버지를 묻었다. 그러자 자손들이 불꽃같이 일어나 가문이 흥했다.

그런데, 이곳에 묘를 쓴 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구포 쪽에서 말을 타고 학사대 윤씨 묘 앞을 지날 때마다 타고 가던 말의 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당기고 밀어도 말굽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씨 묘 앞을 걸어야만 말이 움직이는 거였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윤씨의 조상 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게 된 인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묘의 위치를 한 자만 위로 올리면 윤씨의 자손들이 더 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처음 윤씨 가족들은 조상의 묘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며 주저했다. 하지만 소문에 결국 현혹돼 조상의 묘를 파기 시작했다. 일순간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파는 순간 땅 깊은 곳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하얀 기운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커다란 학 한 마리가 땅속에서 나와 하늘로 높이 날아가더니 가까이 있는 ‘울등덕(지금의 부산어촌민속관 자리)이라는 언덕 대밭으로 사라졌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윤씨 후손들의 상승세는 멈춰버렸다고 한다. 묘 이전 때 명당의 기운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용당마을의 배산인 학성산 정상에 있던 학사대 바위는 화명 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2001년 1월 제3호 근린공원(북구 화명동 2304)에 원형대로 복원됐다. 자연석 가운데 ‘學士臺(학사대)’라 음각하고 왼편에 ‘일심추월(一心秋月: 한마음에 가을 달이 있고) 사면춘풍(四面春風: 사방에 봄바람이 불어온다)’ 이란 4언시가 새겨져 있다. ‘예조좌랑 김재진’이라는 직위와 이름이 함께 음각돼 있어 조선시대에 새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05-206쪽.

## 2. 사상구 설화

[사상구 설화 1]

### 운수사에 관한 전설

운수사 창건에 관한 전설에 의하면. 이 절 경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이 되는 것을 보고 이 곳에 절터를 잡아 운수사로 하였다고 한다. 전설처럼 운수사(雲水寺)에는 지금도 약수가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래 신수암이라고 했다는 말도 이 물과 관련되는 이름으로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운수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절 입구의 두꺼비 바위에 얽힌 전설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해 오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전설의 내용은 그 옛날 절이 한창 번창할 당시 운수사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짐이 없어 절의 경내는 사람들로 연일 붐볐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절에 신도가 많으면 좋아해야 할 승들이 오히려 귀찮아하고 또한 신도가 많은 것을 불평했다는 것이다.

하루는 초립동이 절에 들렀는데, 주지승을 찾아뵙고 며칠간 절에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지승이 역시 귀찮아하는 모습으로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초립동은 부아를 내며, “아니 도대체 절에 신도가 많으면 고마워하며 중생제도에 앞장서야 할 승이 신도가 오는 것을 귀찮아해서 되겠습니까?” 하니 승은 “신도가 많은 것도 어느 정도껏이지 너무 많으니까 귀찮다.”며 제발 신도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초립동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 하자, 승은 바짝 다가 왔으며, “우리를 살려주는 셈 치고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초립동은 못이기는 척하며 말하길 “이 능선을 따라 쪽 내려가면 모처에 두꺼비 형상을 한 바위가 있으니 그 바위의 턱을 쳐 버리면 될 것이오.” 라고 말하자 주지승은 반신반의하면서 속는 셈 치고 행자스님을 보낸즉, 과연 그 곳에 두꺼비 형상을 한 바위가 있더라는 것이다. 이에 스님들은 준비해 간 연장으로 턱을 떼어내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이상스럽게도 운수사에 일체 신도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승들은 편안히 지낼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하였다. 유유자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노라니 계속 신도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그때부터 승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옆질러진 물인데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절에서는 예전의 초립동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 번 나타난 초립동은 행방이 묘연하고, 절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당황한 전제 승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하였다. 그 결론은 그 두꺼비 바위가 바라보는 쪽은 김해군 상동면에 있는 감로사로서 두꺼비가 거기에서 모이를 주워 먹은 후

변은 운수사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동의 암자는 크지 못하고 운수사는 자꾸만 변창 했는데, 이제 두꺼비의 턱이 없어졌으므로 먹이를 먹지 못하게 되고, 자연 배설할 수가 없으므로 운수사는 쇠퇴 일로를 걷게 된 것이라는 연유였다.

여기서 말하는 두꺼비 바위는 운수사 입구 부도탑이 있는 곳의 큰길에서 운수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의 우측에 있는데 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바위를 말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3-975쪽.

[사상구 설화 2]

## 운수사와 우운대사

운수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지의 구전으로는 가락시대(가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니 이를 믿는다면, 상당히 오래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려오는 전설도 많다. 그 중 한 가지는 운수사가 변창할 때의 이야기로 절의 규모가 크므로 승려도 많이 있었다. 그 중 자기 성도 이름도 모르는 얼핏 보아 좀 모자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팔푼 승려는 항렬은 꽤나 높더라는 것이다. 세속의 족보에서 쓰는 항렬처럼 승가에서도 항렬이 있어 고승으로부터 계를 받으면 높은 항렬이요, 젊은 승려로부터 계를 받으면 낮은 항렬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승려도 계를 받았으나 한 번도 범명을 쓴 적이 없어 범명도 모르는지라 물어볼 수도 없고 또한 낮은 항렬의 승려들이 조행(祖行)쯤 되는 높은 승려의 범명을 거명할 필요도 없어 존칭인 대사님으로 불렀다 한다. 그러나 대사님은 듣는 데서 부르는 호칭이고 대부분의 승려들에게선 팔푼이로 통용되었다.

이는 평소 항상 모자라는 듯하여 말이 없고 앞에 나서질 못하고 하는 연유였다. 그래서 배분이 훨씬 낮은 승려들은 굶은일이라면 은근슬쩍 놀러가며 그 팔푼스님에게 미루곤 했다. 그래도 그 스님은 싫은 내색 한번 없이 일을 순식간에 처리하곤 했다.

한 번은 젊은 승려가 심심하던 차에 마침 팔푼스님이 오수에 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릴 셈으로 “대사님 오뉴월 대낮에 극락구경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대사왈 “세상 중생이 농사일로 바쁜데, 내가 어찌 한가하겠는가? 내 잠시 농부들 일손이 어떠한지 살피고 왔지.”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다시 젊은 승려가 “극락에도 농사를 짓는 모양이지요.” 하고 비아냥거리자 “그렇고 말고. 농사일이 즐거우면 바로 극락이 아닌가. 나는 다시 극락구경 가야겠으니 자네도 갈려면 이리 오게나” 하며 심각하게 눈을 감는 것이었다. 이렇게 승려들은 팔푼스님을 놀리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또 한 번은 행자승이 자다 말고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밤중에 밖을 나가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 밤중에 무슨 소린고 싶어 그곳으로 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법당 뒤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팔푼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바가지에 물을 퍼들고 솔잎에 문혀서 서쪽으로 향해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닌 밤중에 흥두개도 유분수지 자다 말고 하늘을 향해 물을 뿌리는 것이 웬일인가 하여 다른 승려들에게도 보여주려고 여러 승려들을 깨워 불러왔다.

승려들은 웬일인가 싶어 우루루 달려가 보니 과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을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한 승려가 비아냥거리면서 묻기를 “대사님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 대사는 “어 자네들 왔는가.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주게. 지금 해인사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세” 라고 하였다. 그러자 승려들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다는 표정으로 다시 잠을 청하러 돌아갔다.

그런데 팔푼대사의 그런 일이 있고 난 보름 뒤에 들리는 소문에 모월 모일 한밤중에 해인사에 원인 모를 큰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불은 워낙 불길기 거세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었는데, 갑자기 동쪽하늘에서 구름이 몰려들더니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부어 순식간에 불을 꺼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승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셈을 해보니 대사가 한밤중에 해인사의 불을 끈다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린 그 날이 아닌가. 이제야 대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리숙한 것 같아도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낮잠을 자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은 몸은 여기 있지만, 또 다른 육신이 속세에 나가서 일을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때부터 다른 승려들도 팔푼대사를 보면 감히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범명을 밝힌 적이 없어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팔푼대사라고 부를 수 없는지라 해인사에 비를 내린 것에 착안하여 비雨에 구름雲 하여 우운대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이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5-976쪽.

[사상구 설화 3]

### 감전2동 할매사당 석상의 영험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이다. 이곳 마을 이장(里長)의 부인이 하룻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얀 머리를 한 노파가 나타나서 “내가 산 개울가에 있으니까 날 찾아 가거라.”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인이 다음날 꿈에 지정한 계곡에 가니까 사람은 없고 부인의 상반신과 같은 모양의 석상(石像)이 있더라고 한다. 이장 부인은 장정들을 모아 개울에 있던 석상을 운반하여 와서 할매 사당을 짓고 모시게 되었다.

석상을 당산 할매로 모신 이후 동네사람들이 병이 나면 찾아와 기도를 올리면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 소문이 이웃마을까지 전해져 하루 저녁에는 당산에 모신 할매 석상이 없어

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이장의 꿈에 노파가 나타나서 “내가 주례 대밭 속에 있으니까 날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장정들이 그 대밭 속을 가보니 석상이 있어 바로 당산으로 모셔다 놓았다고 한다. 이처럼 현몽을 하여 모셨던 석상이 없어진 후에도 다시 현몽을 하여 찾아올 수 있었던 석상이라 더욱 동네 사람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석상을 보면 어깨 쪽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붙여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시대 진주정씨 집안에 정신이상자가 있어 엽총으로 석상의 어깨를 쏘아서 떨어져 나간 것을 동네사람들이 다시 붙여 놓았는데 그때 석상을 쏘았던 정신이상자는 곧 바로 죽었다고 한다. (구술: 조정래 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6-977쪽.

[사상구 설화 4]

### 향우뫓등(山嶺)과 변장사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변씨 성의 아들을 가진 할머니가 살았다. 그 아들 변씨 총각이 팔을 들면 온 몸에 털이 드러났는데 항상 향우뫓등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할머니는 장자인 아들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관에다 신고를 할까 늘 마음을 조리며 살았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관에다 신고를 해서 결국 아들이 잡혀갔다. 관에 잡혀 갔던 아들이 관졸들을 단숨에 뿌리치고 달려와 안창바위에 머리를 찡고 죽어 버렸다. 변씨 총각이 들었다 놓았던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연유로 이곳을 향우뫓등(山嶺)이라 했다고 한다. (구술 : 주례동 변성조 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7쪽.

[사상구 설화 5]

### 머슴살이가 장군이 된 이야기

구덕산에는 박씨네 산소가 있다. 그런데 이 박씨댁은 옛날 아들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한다. 한번은 지관인 성지(聖智)가 이곳을 지나게 되어 물어 보았다. “우리는 왜 이리도 못살아요. 우리는 참봉이나 면장을 할 길은 없는가요?” 하고 물었더니 성지도사는 “아! 그래! 그러면 당신들 산이 있느냐?” 물었다. “산은 여기 있지요.” 대답했더니 “내가 산을 한번 보고 지명(智明) 가는 대로 표시를 해 둘테니 다음에 어른이 돌아가

시면 거기에 물어라.”고 하면서 한 곳을 표시해 주었다. “그러면 뱀을 쓸 때 하관 시간은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 하관 시간은 구덕산고개 가내 쪽에서 쇠갓을 쓰고 넘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걸 보고 하관하라고 일러 주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머슴살이 하던 박씨의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어 지관이 시키는 대로 표시한 곳에 묘를 파 놓고 구덕고갯길 쪽만 눈을 집중시키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여자 한 분이 소두방(솔뚜껑)을 머리에 이고 넘어 오지 않는가. “아! 저것을 쇠갓이라 했구나!” 그걸 보고 열린 하관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 집안이 크게 번성하여 장군도 나오고 벼슬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구덕고개 왼쪽 산중턱에 박씨의 묘소가 있는데 이 집안이 바로 동래 미남 박씨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 구덕골에는 명당이 9곳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구덕(九德)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하며 이 중 현재까지 묘를 쓴 곳은 4곳인데 아직 5곳이 남아 있다고 한다. 4곳의 명당에 묘를 쓰고 크게 일어난 집안을 살펴보면 전설의 박씨 집안 선대 묘소가 그것이며, 연산 신씨 묘소와 파주 염씨 묘소라고 한다. (구술: 학장동 신덕용 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7-978쪽.

[사상구 설화 6]

### 길목의 이정표(里程標)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326번지에 위치하고 있던 팽나무는 수령이 약 350여년으로 전하며 높이는 20m에 등치의 둘레가 4.5m였는데 1990년도 주변 환경의 변화로 고사하고 말았다. 옛날(350여 년 전) 학성부락에 당시 심한 폭우로 인하여 원래 구덕산에 있던 나무가 학장천으로 떠내려 올 것을 당시 주막집을 경영하고 있던 전씨 노인이 국도변에다 심었다고 전하며, 그 당시에는 김해, 사상 등의 주민들이 구덕령을 넘어 서울로 가는 유일한 길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행 도중에 이 나무가 휴식처 및 이정표였다.

이 팽나무는 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 혹은 포구나무로 불렀으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마을의 상징이며 주민들의 단결의 표상인 이 팽나무를 없애기 위해 나무의 가지가 갈라지는 중심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을 질렀는데도 죽지 않고 조금 타고 들어가서는 곧 꺼지곤 하여 일본군은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나무는 더욱 더 마을 사람의 상징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팽나무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므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민족의 얼로서 고이 간직해 왔던 나무였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8쪽.

[사상구 설화 7]

### 기상을 예측하는 팽나무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307번지) 주택가 시범골목 안에 자리잡고 있는 보호수 팽나무는 3백여 년의 나이에 비해 너무나 싱싱하다. 둘레가 2.5m에 이르며 높이는 10m이다. 등치와 가지는 오랜 세월에 시커멓게 찌들어 볼품은 없지만 매년 푸른 잎은 풍성하게 피고 있다. 이 나무는 봄날 잎이 피는 상태를 보고 1년 기후를 예측할 만큼 신통력을 갖고 있다 한다. 잎이 듬성듬성 피는 해는 비가 많이(자주) 와서 마을 모심기를 제각기 행하지만 잎이 한꺼번에 피면 가뭄 뒤에 단비가 쏟아져 같은 날 모심기를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기 전만 해도 나무는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였고 동민들의 휴식처로서 이곳의 명물로 일컬어 왔으며 주민들은 이 나무를 할매당산나무로 생각하여 전혀 괴롭히지 않았단다.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밤에 흑 개똥을 밟고 모른 채 이곳을 지나면 꼭 그 신의 한쪽이 없어서 이튿날 아침이면 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하여 나무를 보호하는 지혜까지 짜냈다.

지금도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이면 정갈한 사람을 제주로 뽑아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있다. 나무는 엄궁천 지류가 약 5m 앞에 있어 충분한 수분을 흡수한 탓인지 잎과 가지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잎과 가지를 절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나무의 신통력을 믿고 있다.

나무에서 불과 3m 옆에 사는 주민 강모 씨는 어느 해 집을 지으면서 집 위로 뺀 가지를 잘라내서인지 실성한 사람이 됐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몇 년 전부터 나무 주위에 담을 쌓고 보호하지만 자꾸 뺏어나가는 가지가 이웃 민가를 덮기 때문에 가지의 보호를 위해 주민들은 지혜를 다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8-978쪽.

[사상구 설화 8]

### 강선대의 당산목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417-9번지)의 중심에 위치한 당산나무는 사상에서 구포로 약 1km쯤 가다보면 왼쪽으로 한 무더기의 거대한 바위 위에 수백년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고목들이 의연하게 자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 강선대의 당산나무라고 하며 그들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안식과 공허를 메워주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포구나무라고 말하는 이 나무의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수고 10m에 흉고둘레가 2.0m에 이른다. 그러나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민들은 이 나무 덕분에 이 마을엔 돌림병(전염병)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인간보다 성스러울 만큼 끈질기고 표표한 기상에 압도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겼다. 포구나무가 서 있는 이곳은 아득한 옛날 바닷물 속에 있던 암대가 솟아올라 육지가 된 곳이라고 이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1934년 낙동강 제방이 구축되기 전까지 이곳에는 물이 들어왔다고 전하며 굴, 홍합, 조개껍질들이 바위 밑에 수북히 쌓인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 대를 잇고 살아온 노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매년 음력 11월 초하룻날이면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쉬어 간다 하여 강선대라 불렸으며 우리의 토속신앙은 이곳의 고목을 당산나무로 정하고 바위 위에 당집을 세운 것은 3백여년 전의 일이라 한다.

부산시는 이 나무를 느티나무로 분류해서 구나무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은 팽나무 혹은 포구나무라고 주장한다.

이곳 당산에는 굴밤나무 5그루, 감나무 2그루, 소나무와 회나무가 각각 한그루씩, 그리고 각자 다른 뿌리의 팽나무가 6그루 뻗어 있는데 모두가 2백년 이상 된 것이다. 지금도 음력 설달 초하루 자정이 되면 일주일 동안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이 곳의 주민들은 약 800평에 달하는 면적을 소공원으로 지정하여 나무의 보호에 적극적이며 정성을 다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9-980쪽.

[사상구 설화 9]

### 모라동 고동바위골 이야기

모라동은 3개 처의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 북쪽의 골짜기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동바위골이라고 하며 보통 고동바위로 통칭된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곳에 왜병들이 한때 주둔하였던 곳인지, 행군 중 쉬던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동바위에 왜병들이 많았다는 구전과 함께 이들이 마실 물을 동민들이 길어다 주었다는데, 물론 강제적인 노역이었을 것이다.

이 때에 불리워졌다는 민요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왜놈아 잡놈아,

고동바위 물 간다

편지 한 장 전해주소

<1979년 6월 모라동 거주 향토사학자 김기환씨로부터 채집>

임진란 때에는 왜병의 일부가 배를 타거나 보행으로 모라동을 통과했으며, 그 뒤에도 난이 끝날 때까지 낙동강 하구 유역 일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니 모라동에 구전이 되어 오는 이 전설은 사실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임란 때의 얘기인지 다른 시기의 얘기인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울 것이다. 왜에 관한 얘기는 거의 모두가 임진란과 연결지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는 청일전쟁 때의 왜병이야기가 임란 때의 왜병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흔히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해지는 민요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민족의 대왜 감정과 모라동민의 기질을 짐작할 수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물을 날라다 주어야 하니까 하기는 하되 그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극도로 미워서 “왜놈아, 잡놈아” 하였고 그 다음에 “고동바위 물 간다.”고 하였으니 그 말의 뒤에는 저항의 뜻을 풍기고 있다. 「편지나 한 장 써 주소」의 「편지」에 대하여 지폐 한 장만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으나, 이 민요가 정말 임란 때의 것이라면 그 당시에 지폐가 없었을 것이니 물을 운반해 주었다는 어떤 증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글을 쓰는 것은 편지라고만 느끼던 서민사회에서 나온 말이 라면 하나의 풍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80-981쪽.

[사상구 설화 10]

### 강선대 전설

구전되어 오는 강선대에 대한 전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전략) 당산이 있는 곳을 강선대라고 하는데 도로의 동쪽에 있는 것은 하강선대, 서쪽에 있는 것을 상강선대라고 한다. 이들 두 강선대에는 매년 음력 11월 1일이면 신선이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쉬어갔다 하여 강선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 또한 물 속에 있던 암대(礮臺)가 육지가 되어 솟아올라서 이곳에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쉬어 갔다.
- 옛날 상대는 암구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마치 바위섬처럼 보였으며, 이곳에 신선이 하강하여 목욕하고 쉬어갔다고 하여 강선대라 하였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81쪽.

[사상구 설화 11]

### 주례 박씨 부인 설화

70여년 전 냉정 큰샘 근처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당산제 제주로 선임되었는데 제일(祭日)이 다가오자 밤마다 큰샘 물을 길어다 내외가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수를 진서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에 호랑이가 앉아 꼬리로 술잔에 술을 박씨에게 뿌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자 박씨가 놀라 박씨 부인 뒤로 숨으려 하니 부인이 남편을 밀치는데, 마치 남편이 실신한 사람모양으로 있어 부인이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제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왜 겁먹은 사람처럼 내 뒤로 숨으려 하였는가 물은즉 “당신은 제단에 호랑이를 보지 못하였는가? 내 눈에 제단에 호랑이가 앉아 꼬리로 술잔의 술에 감겨 나에게 뿌리니 내가 놀래서 당신 뒤로 숨으려 하였노라.” 하기에 부인도 이상히 생각하여 잠들었다. 박씨가 잠들어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오늘 제사 지내는데 수고하였다고 치하하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 가지 이루어 줄 것이니 말하라” 하기에 “슬하에 딸 하나 있고 아들이 없으니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소원입니다.” “재물은 필요 없느냐” “내 재물은 내 노력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아들 하나만 낳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반가워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후 박씨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건강히 자라서 박씨 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박씨는 나이 많아 냉정에서 서면 전포동으로 이거하였다는 설화(說話)가 전해지고 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80쪽.

[사상구 설화 12]

### 엄궁동과 평화촌

1953년 4월 따뜻한 봄날 낙동강 갈대 우거지고 갈대지붕에 토담집들이 평화롭게 자리 잡은 낙동강 강변마을인 엄궁동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찾아온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고 경상남도 도지사관사가 임시경무대가 되어 있었다. 전날 경무대 경호원이 찾아와 마을이장과 청년단 단장 박모를 만나서 내일 이곳에 평소 낚시를 좋아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러 올 것이니 깨끗한 어선과 신분이 확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공을 구해 대통령 낚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돌아갔다.

그 뒤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에 와서 어선을 타고 낚시대를 강물에 띄우고 낚시보다도 사색에 잠겨 갈대 속으로 왔다 갔다 거닐다가 임시경무대로 돌아갔다. 대통령은 십여 차례 이곳을 찾아와서 휴식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평화로운 마을이다. 이 마을을 평화촌이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후 엄궁동은 평화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

대통령께서 낚시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마침 이날은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날이 아니었기에 농가에서 아침 일찍 하단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배로 분뇨를 싣고 엄궁동 선창가 아래쪽에 정박하여 분뇨를 오줌통(똥장군)에 옮겨 담아 지게로 지고 화장실에 옮기는 작업 중이었다. 이 모습을 본 이승만 대통령은 농부에게 다가와서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야지 힘들게 분뇨로 농사를 짓느냐”고 하였다.

농부는 대통령인 줄 모르고 그저 한가한 도시의 노신사인줄 알고 “이 양반아, 비료는 무슨 비료. 비료구경도 못했소. 냄새 나는 분뇨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소!” 라고 투박스럽게 대꾸하고 가버렸다. 그 뒤 엄궁동 마을 사람들은 그 노신사가 바로 대통령인 것을 알고 배씨(裴氏) 성의 농부가 대통령에 대한 불순한 언행으로 혹여 어떤 처벌이 내릴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동래군청 산업과에서 비료 수십 포를 실은 화물자동차가 학장천 하천 독으로 오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엄궁동에 비료 60여 포가 특배되었던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처벌이 내릴 줄 알았는데 처벌 대신 비료를 받게 되자 기뻐서 대통령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이 비료로 엄궁동 주민들은 3년 동안 안심하고 비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는 일화가 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81쪽.

[사상구 설화 13]

### 재첩국 조개에 얽힌 전설 이야기

힘들었던 보리 고개 시절 먹을 것이 없어 얼굴이 부황 든 사람처럼 누렇게 변했으나 재첩국을 먹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시절 갯조개국, 재첩국 한 그릇에 5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첩조개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옛날 낙동강 하구언 부근에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어부가 있었다. 그런데 조강지처와 첩 사이가 얼마나 정분이 좋았던지 마치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가 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빗물에 강물이 불어나 배가 난파되어 실종되고 말았다. 졸지에 과부가 된 두 여인은 소복을 하고 서로를 의지한 채 3년여를 한방에서 같이 살다가 3년 탈상 후 어부가 실종된 그 강가에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강물에 투신하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은 두 여인의 시신을 찾느라 강바닥을 샅샅이 뒤졌으나 시신은 없고 재첩조개만 가득 잡혔는데, 여기에서 어부는 죽어서도 자신의 뒤를 따라온 두 여인과 한방에 사는 재첩조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

낙동강 하류지방, 사상과 동래 지방에서는 이때부터 가막조개를 재첩조개라 하였으며 이

조개로 끓인 국을 재첩국이라 불렀다고 한다. 요즘에는 하동 섬진강, 금강 등지에서까지도 갯조개국이라 부르지 않고 재첩국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전 섬진강 하동에 갈 일이 있었다. 재첩을 해금시켜 끓인 후 껍데기는 버리고 조갯살만 건져내 무친 재첩회무침을 안주 삼아 먹고, 재첩국물에 부추를 끓인 재첩국 한 그릇 마시고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재첩국 진국을 비닐봉지에 담아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술 마신 다음날 아침 한 그릇씩 마시기도 하였다.

요즘은 재첩국을 팔러 다니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끔 슈퍼에나 가면 재첩국을 팔고 있지만 왠지 그 옛날 재첩국의 개운하던 뒷맛이 없어 씹쓸하기만 하다. 우리 고된 삶에 친근함을 심어주던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어 안타깝다.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사이소-. (이봉재, 주례2동)

\* 『사상문화』, 통권 22호, 사상문화원, 2005, 25쪽.

[사상구 설화 14]

### 모라동 절골과 고동바위골 이야기

운수사 절로 올라가는 골짜기는 ‘절골’, 가장 큰 골이라 ‘큰골’이라 불리기도.

‘고동바위’라는 이름은 바위 밑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고 거기에 큰 산고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 산고동은 부락민들이 신성시하고 여기에 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큰 산고동이 신성시 되는 예는 특히 해변 가까운 지역에서 더러 볼 수 있는 일이다. 모라동에 처음 마을이 생긴 곳은 모라동패총이 있는 곳과 고동바위골, 그리고 운수천(雲水川) 하구일 것이다.

하구 위쪽은 옛날에 동리(東里)라고 불려진 일이 있는 듯 지금도 ‘동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동리’가 사상의 동쪽 동네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면, ‘모라(村)’와 같은 뜻이 된다. 현재 이곳의 당산을 모라동 당산이라고 기록한 문헌이 있으니 마을이 동리(東里)라고 호칭된 때가 있었을 것이다. 이 동리를 속칭 ‘윗각단’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철도 동쪽이 된다. 이에 대하여 철도의 서쪽을 ‘아랫각단’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각단’이라는 말의 펍 오래된 말이어서 흥미롭다. 모라동에는 이 외에 삼밭(蔘田)이 많았던 골짜기인 삼밭골과 쟁이처럼 생긴 골짜기인 기곡(箕谷) 등이 있었다.

\* 『사상문화』, 통권 24호, 사상문화원, 2006, 30쪽.

[사상구 설화 15]

### 주례 박씨 부인 설화

70여년 전 냉정 큰샘 근처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해 그는 당산제 제주(祭主)로 선임되었다. 제일(祭日)이 다가오자 밤마다 주례 박씨 내외는 큰샘 물을 길어다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해 제수를 진설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단에 호랑이가 앉아 꼬리로 술잔에 술을 박씨에게 뿌리는 것이 아닌가! 박씨는 깜짝 놀라 아무 일 없다는 듯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제사를 모두 지냈다. 집으로 돌아와 박씨는 부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제단에 호랑이를 보지 못하였는가? 내 눈에 제단에 호랑이가 앉아 꼬리로 술잔의 술을 나에게 뿌리니 내가 놀라서 당신 뒤로 숨으려 하였던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인은 이상히 생각하며 잠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오늘 제사 지내느라 수고하였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한 가지 이루어줄 것이니 말하라. 재물이 필요하느냐?”

“재물은 내 노력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슬하에 딸 하나 있고 아들이 없으니 아들 하나 점지해주시시오.”

그 후 박씨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건강히 자라서 박씨 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 『사상문화』, 통권 39호, 사상문화원, 2014, 29쪽.

### 3. 사하구 설화

[사하구 설화1]

#### 아내와 첩의 다툼에 남편의 머리카락이 뽑히다(妻妾爭摘夫髮)

옛날 어느 노인이 몰래 짧은 첩을 숨겨 두고 항상 그 첩으로 하여금 자기 흰머리를 뽑게 했다. 남편의 흰머리가 점차 줄어가는 것이 이상해서 그의 처는 “틀림없이 이것은 짧은 첩의 짓일 것이다.”고 생각하여 남편을 심하게 나무랐다. 그러자 남편은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처로 하여금 까만 머리카락을 뽑게 했다. 처는 남편이 첩을 곱게 여김을 질투해서 남편의 까만 머리카락을 닦치는 대로 뽑아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대머리처럼 되었다는 이야기다.

- 1920년 9월, 경남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 자씨부인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249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54-55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사하구 설화 2]

#### 김수로왕의 뿌리(金首露王の根)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성기는 굉장히 컸다.

어느 날, 왕이 그 음근(陰根)을 가지고 선암(仙岩)의 나무에 다리를 놓고 있으니 한 사람이 등에 짐을 내려놓고 그 다리 위에서 쉬면서 담뱃불을 툭툭 쳐 떨어뜨렸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도 김해 김씨의 자손들은 남근(男根)위에 까만 점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한다. 수로왕의 왕비였던 허수로(許首露)의 음부(陰部)도 굉장히 컸으므로 어느 날 연회 때 연회석 대신에 그것을 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손님이 뜨거운 국을 그 위에 쏟았으므로 그곳이 멍이 생겼다. 오늘날 김해 김씨의 후예들은 음문 위에 검은 점을 가지고 있다.

- 나의 기억<sup>22)</sup>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81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62-63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22) 이하 설화의 출처를 ‘나의 기억’이나 ‘나의 추억’, 또는 ‘손진태 기억’으로 표시한 설화는 『朝鮮民譚集』의 저자인 손진태 자신의 기억에 의한 설화로 보았다. 손진태가 현재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점을 고려하여 ‘사하구 설화’로 분류했다.

[사하구 설화 3]

### 고래 뱃속에서(鯨の腹の中で賭縛)

고래는 배를 통째 삼키는 수도 있다.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고래가 삼켜버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이미 먼저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곁에서는 한 사람의 항아리 장수가 그의 지계에 항아리를 지고 선 채 도박을 구경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겼다는 등 졌다는 등 실갱이를 하며 내라 내지 못하겠다 하며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항아리가 없힌 지계에 부딪혀 물독 된장독이 박살이 났다. 그 깨진 조각에 찢려 고래는 아프기 시작하여 여기저기 달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죽어버렸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아리 깨진 조각으로 배를 찢고 겨우 고래 뱃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한다.

- 손진태 기억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222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206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사하구 설화 4]

### 촌부불식경(村婦不識鏡)

옛날, 한 선비가 경성에 과거를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거울을 하나 사서 서랍에 넣어두고 조석으로 꺼내서 얼굴을 비추어 보곤 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서랍에서 거울을 꺼내 보았다. 그러자 한 젊은 여인이 있어서 크게 노하여 즉시 그의 시어머니에게 쫓아가 이 일을 일렸다. “남편이 경성에서 첩을 데려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자 “며느리야, 거짓말 하면 못써. 고개 넘어 할머니께서 놀러 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에 시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아버님, 무슨 일이 있어 현실세계에 나타나셨습니까?”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도저히 의심을 풀 수 없어 재차 거울을 보았지만 역시 그것은 남편의 첩이 틀림 없으므로 “그러한 추한 얼굴을 하고 잘도 속였구나.” 하고 욕을 하니 그녀는 말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실룩거리며 자기의 입을 흉내 내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점점 더 분해서 주먹을 날려 이것을 내려치니 깨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 나의 기억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247-248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230-231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사하구 설화 5]

### 삼형제(三兄弟)

옛날, 삼형제가 가난해서 서로 떠나기로 했다. 삼거리에 다다르자 셋은 서로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든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고.

형은 10년간 관상을 배웠다. 둘째는 물건의 냄새를 구분하는 기술을 배웠다. 막내는 새나 짐승의 소리를 알아듣는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삼형제는 10년 후의 약속한 그날 그 장소에서 만났다. 셋은 한 숲을 가로질러 가는 도중 많은 새들이 울고 있는 것을 들은 막내는 “사람이 죽었다고 까마귀 떼가 울고 있다. 우리 가보자.” 하고 말했다. 셋은 가서 보니 과연 한 사나이가 숲 속에서 죽었다. 노상강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셋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포도청에서 포졸들이 나타나 저들을 살인범으로 체포했다.

현감 앞에 나온 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각기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했다. 그리고 막내는 “사람이 죽었다고 까마귀가 울고 있기에 우리 셋은 현장에 갔을 뿐입니다.” 그러자 현감은 “새 소리를 알아낸다는 것이 너무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저 제비는 무어라고 울고 있느냐?”고 현청에서 시끄럽게 짓고 있는 제비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것은 ‘새끼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라고 막내는 대답했다. 하리에게 명해 조사해 보니 과연 한 마리의 뱀이 처마 밑에 있는 제비 둥지를 향해 있었다. 현감은 그날 몇 마리의 돼지를 샀다. 하리가 그것을 묶어 운반해 오는 것을 보고 둘째가 이렇게 말했다. “현감님, 이 돼지는 인간의 젖으로 키워진 것입니다. 제발 먹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이 돼지의 냄새로 그것을 알아냅니다.”라고. 돼지를 판 사람을 조사해 보니 그것은 과연 판 자의 아내가 젖으로 키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그 돼지의 어미돼지는 그들을 낳자마자 죽었으므로 여인은 할 수 없이 며칠 동안 돼지새끼에게 자기의 젖을 짜주었던 것이다. 현감이 감탄해서 저들을 석방해 주었다. 그러나 하리에게 명하여 몰래 미행시켰다. 그것도 모르고 큰 형은 현청의 문을 나왔을 때 그 동생들을 향해 “너희들은 알지 못했지, 저 현감은 중의 아들이다. 관상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했다. 셋은 재차 포박되어 현감에 의해 고문당했다. 양반을 중의 아들이라고 모욕했다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현감은 말했다. 청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현감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살짝 안마당을 올라서 너머로 바라보니 그렇게 된 것이므로 살짝 현감을 불러 “죄 없는 저들을 죽일 수는 없다. 실은 네 아버지는 중이었다. 나는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절에 불공 들이러 간 적이 있었다. 그 때 중의 간계에 빠져 관계를 했다. 그래서 네가 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 나쁜 중에게 걸려든 부인들이 몇 명 더 있을 거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어라.”고 간곡히 말했다. 이렇게 해서 삼형제는 용서되었다. 후에 저들은 각각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나의 기억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294-295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296-297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사하구 설화 6]

###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仙遊に斧の柄を腐らす)

속담에 재미있는 일이나 놀이 등에 너무 열중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먹는 것을 가리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 출처는 이렇다.

옛날 한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 산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을 때 한 동굴이 보였다.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동굴로 들어가 보았다. 동굴은 더 가면 들어갈수록 속이 넓고 안은 밝았다. 그곳에는 두 백발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나무꾼은 그 바둑에 정신을 팔고 그저 보고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녁 때가 된 것 같았다. 급히 집으로 돌아오려고 곁에 둔 도끼를 보니 자루가 썩어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마을로 내려와 보았지만 얼굴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어찌된 것일까 하고 어떤 노인에게 자기 이름을 대며 “아무개 집은 어디니까?”하고 물으니 그 노인은 “그는 저의 증조부입니다.”고 대답했다.

- 나의 기억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298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301-302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사하구 설화 7]

### 고래와 새우의 크기(鯨と蝦との大きさ)

세계에서 고래가 동물 중에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지. 어느 때, 한 마리의 제비가 바다를 가로질러 날고 있는 도중, 피곤한 다리를 쉬려고 하나의 큰 나무기둥처럼 생긴 것의 위에 쉬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날 저물 때까지 날다가 자려고 장소를 찾다가 전과 같은 나무기둥이 있어서 제비는 그곳에서 머물렀지. 제비가 나무기둥이라고 생각한 것은 실은 큰 새우의 뿔이었으며 제비는 하루 종일 그 새우의 한쪽 뿔에서 다른 쪽의 뿔 밖에 날지 못한 것이야. 바다 속의 큰 새우는 고래보다도 크다고 알려져 있는 성싶다.

- 나의 추억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299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302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사하구 설화 8]

### 처를 징벌하다(妻を懲らす)

한 방탕한 사나이가 있어 거의 매일 밤과 같이 집을 비우기 때문에 아내도 끝내 간부(姦夫)를 두게 되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나이는 깊은 밤 몰래 집으로 돌아와 보니 과연 간부가 취해 누워 있으므로 그는 아내에게 명해 기름을 데워 그것을 간부의 귀에 붓게 했다. 아내는 겁에 질리며 그렇게 하여 간부를 죽였다.

사나이는 또 아내에게 명해 간부의 시신을 업고 몰래 산에 가서 묻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는 지름길로 먼저 그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여자가 시신을 업고 왔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나오며 “누구냐?”고 외쳤다. 여자는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놀랐다. 이번에는 “너는 사람을 죽였다. 이 시신을 업고 관가에 가서 자수해라.”고 명했다. 그러자 여자는 손을 비비며 용서를 간청하므로 그는 다시 시신을 여자에게 지워 간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문전에서 사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 “문 열어라!”고 외쳤다. 그러자 사자의 아내는 “흥, 그렇게는 못해요. 좋아하시는 여자 집에 가서 머무시오.” 하고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재삼 “문열어라.”고 말했지만 같은 회답이므로 “그렇담 나는 목매달아 죽을 테다.”라고 하자 “맘대로 하구료.” 하고 여자는 대답했다. 그래서 가는 밧줄로 시신의 목을 두루두루 감아 문전에 매달아 늘어뜨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참이나 남편의 목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이상하여 사자의 아내는 살짝 나와 문을 살폈다. 그러자 과연 자기 남편이 목매달아 죽어있으므로 큰 소리를 내어 통곡을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방탕한 놈이었다.

- 나의 기억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301-302쪽. 이는 孫晉泰, 『朝鮮民譚集』, 東京: 郷土研究社, 1930, 313-314쪽에 일문으로 수록된 것을 최인학이 번역한 것임.

[사하구 설화 9]

### 고래 뱃속에서 노름질

고래는 배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일도 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이질을 하다가 삼켜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이미 먼저 들어간 여러 사람들이 노름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한 옹기장수가 옹기(사기) 집을 얹은 지게 옆에서 노름 구경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이겼다 졌다 내어라 못 내겠다 하여 마침내 노름 끈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옹기장수의 지게에 부딪혀서 물독 향아리 할 것 없이 모두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 조각에 창자를 찢려 고래는 앓기 시작하여

이리저리 뛰어 다니다가 마침내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속의 사람들은 옹기 조각으로 고래의 옆구리를 찢고 겨우 빠져나왔다고 한다.

- 나의 기억

- \*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574-575쪽. 이 설화는 손진태,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3: 우리나라의 문화』(고려대학교 박물관, 2007)에 수록된 원본 원고를 최광식이 현대 한국어에 맞게 고쳐 옮겨온 것임.

[사하구 설화 10]

### 팔정자 나무, 아픈 전설의 사연

괴정동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다. 팔정자 나무에 얽힌 사연이 그것이다. 민초들의 아픔과 설움이 짙게 베인 이 전설은 역사적 기록으로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야사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말을 길렀던 이곳 괴정동 목장리는 수백 마리의 말을 키우는 광경은 장관이었을지는 몰라도 말을 돌보는 부역을 맡아야 했던 민초들의 수고로움은 대단했을 것이다.

괴정동 목장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말이 달아나지 않게 목책(木柵)을 구축한다거나 석성을 쌓고 고치는 일 또한 여간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한번씩 목책을 넘어 달아나는 말들로 인해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주민들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목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인 다대첨사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나라에서 할당할 말을 잘 키워서 조정에 바쳐야 하지만, 목책을 넘어서 달아나는 말도 있었을 것이며, 병이 들어 죽어가는 말도 있었을 것이며, 간혹 춘궁기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 먹는 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목장리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고 다대첨사는 그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침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다대첨사의 심각한 폭정이 발생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몇몇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 당시 괴정동에는 회화나무(槐木: 괴목) 여덟 줄기가 땅속에서 하늘로 솟아올라 커다란 나무를 형성했는데, 이를 팔정자(八亭子)나무라고 불렀다. 대개 민간신앙에서는 마을의 큰 나무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守護木)의 역할을 하여 마을의 길흉을 관장한다고 믿어왔다. 그때 마침 다대첨사가 그곳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 여덟 명이 이 팔정자 나무 아래에 모여 국마장의 과도한 부역과 다대첨사의 폭정을 규탄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대첨사가 내놓은 대책은 주민들이 원하는 해답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대첨사가 잔혹한 성품을 지녔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항의 과정이 지나쳤는지 몰라도 다대첨사는 그들 여덟 명을 국법을 어긴다 하여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팔정자 나무마저도 베어버렸다. 이 팔정자 나무를 베어

버린 것은 동래부사였다는 설도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원래 목장관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쓰는 수군(오늘날의 해군)의 수장인 다대첨사가 맡았다. 당시의 다대첨사는 정3품 당상관이었다. 동래부사는 문관으로서 같은 정3품 벼슬이었으므로 다대첨사와 동래부사는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다. 대개 당시의 수군 수장은 선참후계(先斬喉啓) 즉 죄인을 먼저 참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지금으로 본다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권한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이러한 일이 통용되었다.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였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선참후계의 권한으로 무참히 베어버렸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과도한 형 집행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팔정자 나무까지 잘라버리는 ‘씨를 말리는 형 집행’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큰 한을 남겼을 것이다. 그 후 베어버린 팔정자 나무인 회화나무 밑동에서 다시 여섯 가지가 살아나왔다. 그 나무는 현재 괴정동 1247-24번지에 수령 600년의 거대한 회화나무로 남아있다. 동래부지에 목장리로 되어 있던 이 마을 이름이 1904년 발간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sup>23)</sup>에서 괴정동으로 개명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원래 회화나무는 한자어로 표기하면 괴목(槐木)인데, 그 팔정자 나무와 이름을 함께 따서 현재의 괴정동(괴목의 정자 동)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괴정동 회화나무 아래에는 지금도 양력 5월 7일이 되면 제(祭)를 올리는데, 마을의 무사 평안을 비는 제(祭)이다. 그때 참수당한 사람들의 원혼은 이미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다시 피어 오른 회화나무는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굽어보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나무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16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왔는데, 나무가 너무 오래 되고 쇠약하여 지금은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마을에서는 마을보호수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설의 회화나무는 그 푸르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23-26쪽.

[사하구 설화 11]

### 재첩고개(대티고개)

대티고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예부터 괴정, 하단 주민들은 괴정에서 대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재첩고개라 불렀는데, 바로 대티고개를 말하는 것이다.

또 소나무가 유난히 울창해서 솔티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고개는 본래 길이 험한데다가 산짐승과 도적이 자주 출몰해 악명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악명이 높다 해도 낙동강 하구에서 재첩을 캔 아낙네들은 부산장이 서는 날이 되면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23) 1896년 행정개편에 따라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할되면서 생겨난 경상남도의 19개군 중의 하나인 동래군의 도시계획도.

혼자서 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이 서는 날 아침이 되면 재첩을 이고 진 아낙네들은 괴정삼거리에 모두 모였다. 일정한 인원이 채워지면 모두 이 고개를 넘었다. 길게 줄을 지어 넘어가는 하얀 옷의 아낙네들의 모습이 가히 장관이었을 것이다. 재첩고개란 이름도 이렇게 해서 지어졌다고 전해지나 확실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짐작할 따름이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32-34쪽.

[사하구 설화 12]

### 신선암(神仙岩)의 전설

세상에 신선(神仙)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나라의 지명에는 신선이 들어가는 지명이 꽤 많다. 에덴공원의 강선대도 신선과 관련이 있고 이곳 신선암도 신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하단 동편의 산 모양이 범과 비슷하다 하여 “호복구(虎伏口)”라 부른다. 과거에 이 산기슭의 낙동강가에 신선암이라 불리는 큰 암석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바위에 신선이 와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어 신선암이라 불려졌다. 신선암의 바위 밑에는 작은 굴이 형성되어 있어서 선사시대의 주거지일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아무튼 이 신선암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1934년 낙동강 호안 공사를 맡은 일본인이 있었는데, 이 바위를 깨어서 돌을 이용하려고 한 석공을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석공이 일본인의 지시에 따라 돌을 깨뜨리려는 순간 그 석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고 한다. 그 뒤 이 원인불명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신선암에 감히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세월이 한 참 흘러, 그 신선암도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깨뜨려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그 공사를 맡았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전해지는 말은 없으나,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 신선이 이곳을 떠나면서 바위의 영험함도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말도 들린다. 이 전설의 진위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아직도 전설은 이어지고 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93-95쪽.

[사하구 설화 13]

### 부산포해전과 정운 장군

부산포해전(1592. 음9. 1)이 있던 그 날 아침, 이순신 장군이 정운 장군을 따로 불러 이번

해전에는 참여 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이유는 연일 이어지는 해전에 피로가 누적된 정운 장군의 손발이 퉁퉁 부어올랐고, 감기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운 장군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장수가 나라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전쟁을 회피하겠습니까. 제 한 몸이 부서져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이 전쟁의 끝을 꼭 보고 죽을 것입니다.”

정운 장군의 피 끓는 충의에 이순신 장군도 더 이상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몇몇 부장들도 정운 장군의 출병을 막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배에 올라탄 정운 장군은 평소보다 더욱 큰 소리로 수병들을 독려했다.

“우리의 부모형제를 유린한 원수 왜적들을 단 한 명도 남겨 놓지 마라. 조선땅에서 왜적의 씨를 말려라!!”

수군들의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전선을 출항하고, 이윽고 몰운대 앞바다를 지날 때였다. 경치가 좋기로는 최고로 알려진 몰운대를 바라보던 정운 장군이 문득 휘하 부관에게 물었다.

“여기의 지명이 어찌 되오?”

“몰운대(沒雲臺)라 하옵니다.”

“몰(沒) 운(雲) 대(臺)라...., 내 이름 정운(鄭運)의 운(雲)과 몰운대의 운(雲)이 같은 음인 것을 보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我沒此臺).”

이 말을 들은 휘하 부관들이 대경실색하였다.

“장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그 생각을 부디 거두어 주소서.”

정운 장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왜적의 씨를 말리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의 미소였을 것이다.

정운 장군은 그의 말처럼 몰운대 앞바다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왜적이 쏜 불화살을 맞고 눈을 감았다.

그는 조선 수군의 최고의 무장 중 하나였고,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이었으며 나라를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바친 위대한 장군이었다. 지금도 몰운대 앞바다엔 정운 장군의 영혼이 일본을 굽어보며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이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173-174쪽.

[사하구 설화 14]

## 다대 5지구 구렁이에 얽힌 사연

몰운대 5지구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일어난 일이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선 터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포크레인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포크레인 기사가 이곳 아파트의 터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큰 바위가 하나 나왔다. 그날 작업시간은 다 마쳐서 그는 다음날 바위를 제거할 생각을 품고 집으로 퇴근을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흰옷을 입은 잘 생긴 할아버지가 나타나 “제발 며칠만 참아 달라. 곧 이사할 것이다. 남편에게 꼭 이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는 것이다.

그 전부터 이 부인은 가족들 사이에서 영험한 꿈을 꾸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포크레인 기사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아내가 막무가내로 잡았다. “제발 부탁이니, 꼭 이번 한 번만 나의 이야기를 믿어 달라.”고 아내는 신신당부를 했다. 그 기사는 반신반의하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번 한 번만큼은 당신 뜻대로 하겠다.”며 출근하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다른 동료 기사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 하지만 작업 일정을 어길 수가 없었던 동료 기사들은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며 작업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 사람대신 일을 진행하게 된 기사는 큰 바윗돌 주변의 흙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주변의 흙을 다 치우고 마침내 그 바위를 끄집어내니, 그 바위 밑에 구렁이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는 그 구렁이들을 살려서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바로 구렁이를 걷어냈다. 그러자 그 구렁이 중에 가장 큰 구렁이가 몸이 찢어지면서 사방으로 피가 튀었다. 포크레인 기사의 몸에도 피가 묻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포크레인 기사는 그 피가 몸에 묻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뒤집으면서 기절한 뒤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즉사한 것이다.

예부터 큰 바위나 큰 나무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성대히 제사를 지낸 후 주변에 살아있는 짐승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조심해서 작업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큰 구렁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참혹한 화를 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포크레인 기사의 부인은 참으로 영험한 사람이라는 탄복과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의 생명도 구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진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186-187쪽.

[사하구 설화 15]

## 답고 답으면 꿈이 이뤄진다는 예언

옛날 오색영롱한 구름을 타고 내려온 한 도인이 범상치 않는 이곳의 지형을 훑어본 후 이곳이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엔 큰 인물이 될 학자가 수영하는 곳으로서 명당이 될 것으로 예언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한 구전이지만, 지금 이곳에 여러 학교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또 닭고 닭으면 꿈이 이뤄지는 지형이라고 해서 ‘딱딱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어 신비할 따름이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228쪽.

[사하구 설화 16]

### 다대포 처녀 윤백련(尹百蓮)을 아시나요

조선 선조 25년(1592년) 4월 14일, 부산성과 다대성을 차례로 점령하여 경상도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한 왜군은 이후 도둑떼로 변하여 먼저 김해에서 2일간의 분탕질을 하고, 5월 6일에는 거제도도 건너가 5월 7일 옥포에서 분탕질이 한창일 즈음 이 사태를 척후장 김완으로부터 연락받은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는 기습으로 옥포 해안에 들이닥쳐 선창에 정박해 있던 왜선을 향하여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왜군함대는 순식간의 아비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틈에 우리 장수들은 26척의 왜선을 단숨에 격파하여 첫 승전을 거두게 된다. (옥포해전)

전투가 끝나자 이순신 장군은 전장수습을 명령하는 한편,

“격파된 왜선에는 필시 우리 사람들이 잡혀 있을 것이니 배를 수색하여 찾아오라.”는 지시도 함께 하달 한다. 이에 각 장수들은 그들이 격파한 왜선을 수색하던 중 이 해전에서 우부장으로 참가했던 보성군수 김득광이 그가 격파한 왜선의 선창에서 일본 옷을 걸치고 머리를 단발하여 마치 일본 여자 같이 보이는 처녀 아이를 찾아내어 조사를 마친 후 이순신 장군에게 조사 보고서를 올린다.

이름은, 윤백련입니다.

나이는, 14살입니다.

주소는, 동래부 사천면 다대리입니다.

고향은, 동래부 동래읍 오장리입니다.

부모는, 아버지는 다대진 수군 윤곤절(尹昆節)이고, 어머니는 상민인 모론(毛論)입니다.

현재 부모 행방은, 아버지는 난리 통에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다대성에서 죽었습니다.

잡혀 온 경위는, 다대진에서 난리가 있기 전날 첩사로부터 피난 명령이 내려와 우리 윤씨 일가는 윤씨내(다대고유 지명)를 따라 앞산 안골샘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난리가 끝나고 밤이 되어 조용해지자 오빠 복룡이와 함께 성안 집으로 돌아 왔으나 군인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성에 남았던 엄마는 불탄 집 안에 죽어 있었고 출전한 아버지는 찾을 길이 없어 오빠와 함께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한 후 동래에 있는 할아버지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가 부산포 근처에서 왜군을 만나 오빠는 도망을 쳤고 나는 그들에게 잡혀 배에 끌려와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후 왜군에게 매일 같이 수도 없이 몹쓸 짓을 당하고, 성 노리개가 되어 있던 중 잡히어 온지 보름쯤 되는 어제(5월 7일)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소리와 함께 배 위에 포탄과 불벼락이 비오듯 하자 왜놈들은 철편에 맞아 피를 질질 흘리며 죽어갔고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산 쪽으로 헤엄쳐 도망갔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배 밑 바닥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구출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난 이순신 장군은 먼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한다.

“흉악한 놈들, 해독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러 백성들을 살육하고 재산 약탈 행위가 극심하니 앞으로 우리 사람이 몇이나 남을 고...”

그리고 지시를 내린다.

“이 아이를 순천이나 보성으로 보내어 관리들에게 특별히 보살피게 했다가 온전히 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끝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다대포 처녀 윤백련은 임진왜란 정신대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그곳 보성 땅에서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며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한다. (한건, 다대문화연구회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263-265쪽.

[사하구 설화 17]

### 괴정 샘터공원을 품은 회화나무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는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회화나무 두 그루가 있다. 팔정자(八定子)라고 불리는 회화나무는 8개의 가지가 자라 팔정자나무라 불렸으나, 태풍 피해로 7개의 가지만 자라고 있다. 또 하나는 괴정통샘을 품고 있는 회화나무로, 회화나무 아래의 괴정 통샘은 예부터 물맛이 좋아 단물샘이라 불려왔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회화나무는 높이 20m, 둘레 6.2m, 수령은 6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슴높이 부분의 등치에서 두 갈래로 갈려 있는 이 나무는 팔정자(八定子)라는 멋진 닉네임을 갖고 있다. 지금의 사하구 괴정동(槐亭洞)이란 이름도 이 팔정자나무가 회화나무 즉, 괴목(槐木)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위치는 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만나는 화목아이츄빌 앞(괴정1동 1247-24)으로, 이 회화나무는 오래된 만큼 거기에 얽힌 사연도 적지 않다.

옛날 다대포진에 포악한 첩사가 내려온 뒤로 주민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억지로 재물을 빼앗음)에 시달려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첩사의 학정을 견기가 못한 주민들은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첩사는 누각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여덟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이 정자나무를 밑동 째 싹둑 잘라버렸다. 그 뒤 정자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8개의 가지를 가진 회화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팔정자’라고 불렀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온다. 팔정자나무의 아비 뺨 되는 거대한 회화나무가 수난을 당했던 것은 조선 어느 임금 때로 추정할 뿐 확실하지 않다. 동래부사가 이곳을 지나가 우연히 이 나무를 발견하고 다대포진 첨사에게 동래부 동헌의 기둥으로 쓰게끔 베라는 지시를 내렸다.

동래부사의 벌목령이 내려졌지만 신주로 모시는 이 나무에 선뜻 도끼질을 하려는 목수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다대포진 첨사가 이 나무 앞에 사형수에게 내리는 고배상을 차리고 등치에는 ‘어명(御命)’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인 뒤 큰절을 하고 직접 도끼를 들어 왼쪽으로 세 번 도끼질을 했다.

그제서야 목수들이 달려들어 이 나무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 나무의 밑동치를 흙으로 덮어 마치 사람의 무덤처럼 만들어 주었다. 이후 신기하게도 이 무덤에서 새순이 돌아났는데, 그 중 여덟 가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성들여 키워 오늘의 팔정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팔정자 나무는 아쉽게도 이후 태풍 때 가지를 하나 잃어 현재 7개뿐이다. 지금도 팔정자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무사 평안을 비는 동제가 매년 5월 7일이면 열린다.

지금의 괴정은 선사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된 역사가 오랜 땅이다. 낙동강에서 내려온 곡물 등 농산물이 하단포에 도착하면 이것을 소달구지나 사람이 지고 괴정을 거쳐 대티고개를 넘어갔다. 괴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팔정자 나무 아래에서 담배 한 대쯤 피며 쉬어 갔다. 그래서 명지동 위쪽 사람들은 괴정이라고 하면 잘 몰라도 팔정자라고 하면 흔히 알았다고 한다.

괴정동에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또 한 그루의 회화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도시철도 괴정역 2번 출구로 나와 괴정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하면 만나는 가마솔순두부 식당 앞(괴정1동 1244-1)에 위치해 있다.

높이 20m, 둘레 6.5m, 수령이 650년인 이 회화나무 아래에는 괴정통샘이 있다. 마을주민 들은 회화나무, 그리고 우물과 빨래터 등의 공간에 괴정 회화나무샘터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옛날 어느 부부가 당산을 짓고 백일 동안 기도를 드려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나환자의 이야기도 들려온다. 나환자가 이 나무 밑에서 백 일간 기도를 드렸는데, 하루는 이 나환자의 꿈에 흰 도복을 입은 도사(목신)가 나타나

“그대의 정성이 하도 극진해 그대에게 샘물(약수)을 줄 것이니 그 물을 먹고 목욕을 해보 아라.”고 말한 후 사라져버렸다. 잠에서 깬 나환자는 과연 나무 밑의 뿌리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둘레를 파보니 샘물이 솟아올라 그 물을 먹고 목욕을 하니 나병이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샘물이 지금의 괴정통샘이다. 오래된 우물로 예부터 물맛이 좋아 주민 들이 단샘물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87-89쪽.

## 참고문헌

-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우리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 부산광역시(서부산권)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사하 이야기』, 사하구청, 2011.
- 부산 북구낙동문화원, 『부산광역시 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 사상문화원, 『사상문화』 통권 22호, 사상문화원, 2005.
- 사상문화원, 『사상문화』 통권 39호, 사상문화원, 2014.
- 孫晉泰, 『朝鮮民譚集』(日文), 東京: 郷土研究社, 1930.
- 손진태,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3: 우리나라의 문화』,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7.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민담집』, 민속원, 2009.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도서출판 강나루, 2007.
- 이시준 외, 『조선민담집』, 제이엔씨, 2013. \* 이 책은 손진태의 『조선민담집』 (일문, 향토연구사, 1930)을 영인 출판한 것임.
- 이오용 외, 『공창마을』, 공창마을, 2012.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 최광식,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 제보자 색인

### ㄱ

강계화 184, 185, 186  
 강봉임 111  
 강선대 618  
 강숙자 374, 375  
 강순남 400  
 강심분 270  
 강옥선 50, 51, 52, 53, 54, 55, 56, 57, 59, 60, 61, 62, 64, 65  
 강점순 141  
 강춘자 315, 317, 318, 319, 320  
 고순자 174  
 공춘덕 90  
 구말순 68  
 국학연 206  
 권영도 67  
 김갑수 445  
 김갑순 141, 142  
 김경이 273  
 김경자 209, 210  
 김광식 260  
 김귀남 448, 452  
 김귀선 69, 71  
 김금만 410, 411, 412, 413, 414, 416, 417, 418, 419  
 김금순 207  
 김기순 179  
 김기자 139, 140  
 김덕념 461  
 김두저 441, 442  
 김두중 221  
 김명인 202, 203  
 김무순 3, 4, 5  
 김변남 217  
 김복남 351, 352, 353  
 김복님 251  
 김복림 499  
 김봉희 117, 120

김분옥 260  
 김사덕 354  
 김사자 372, 373  
 김상순 251  
 김선자 192, 193  
 김성득 508  
 김수자 186, 187, 188  
 김순덕 210, 211  
 김순례 400  
 김순분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10  
 김영숙 6  
 김영순 489  
 김옥순 157, 429, 430, 431, 432, 433, 434  
 김옥자 92, 95  
 김용웅 253, 254  
 김우선 23, 24  
 김유선 96  
 김응자 297, 298, 299, 300, 302, 303, 305, 306, 307, 308  
 김자건 226  
 김점심 205, 206  
 김점희 27, 28  
 김정의 75, 76, 77, 78  
 김정자 157  
 김종순 29  
 김차선 354, 355  
 김홍문 462, 463  
 김화자 69

### ㄴ

남선조 273  
 남일옥 459, 460  
 노봉학 448, 449, 451, 457  
 노순이 261, 262, 263, 264  
 노영자 376

ㄷ

독거노인 요양사 450, 451, 452, 453

ㄹ

문순이 489, 490  
문호연 509, 510

ㅂ

박기남 255, 256  
박달순 71, 72  
박대선 477  
박덕희 321, 322, 323  
박명순 30  
박명화 79, 80, 81, 82  
박복남 271, 272  
박복선 511, 523  
박소임 203, 204  
박수경 221  
박순금 72, 73, 74  
박순자 238, 239  
박시화 82, 83, 85  
박영도 325, 326, 327  
박영순 512  
박옥금 222  
박옥련 490, 491  
박옥순 74  
박외선 112, 113, 114, 115  
박용순 435, 436, 437  
박정숙 257, 258  
박정순 285, 286, 290  
박종금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박종식 40, 41, 42, 43, 44, 46, 47  
박종이 13, 14, 15, 16  
박화자 218  
방옥순 477  
배분이 484, 485, 486  
배삼문 513, 525  
배소선 478, 479, 481

배연희 420, 421, 422, 423  
배종곤 86, 87  
백만녕 310

ㅅ

서경연 375, 376  
서희원 328, 329  
성락동 208, 209  
손명자 93, 94, 95  
손순자 500, 501, 503, 504, 505  
손여옥 463  
손증식 502, 506  
손차조 6  
송순덕 464, 465, 466, 467, 471, 472,  
473, 474, 475  
송월분 200, 201  
송윤수 329, 330, 331  
송은의 314  
송현자 226, 227, 228, 229

ㅇ

안명수 48, 49, 50  
안봉기 514  
안순자 214  
양곡제 259  
양이순 458  
염진순 264  
예종순 486, 487  
오순남 222  
오영자 274  
오학분 214, 215  
용금자 487, 488  
우옥술 239, 240, 241  
우재순 382, 387, 389, 390, 391, 392,  
393, 394, 395  
원삼선 201  
유막달 158  
유부순 242  
윤갑순 189  
윤고회 115, 116, 117

윤순분 444  
 윤옥자 159  
 윤용만 153, 154, 155  
 윤추자 243  
 윤희수 140  
 은수연 244, 245  
 이○○ 8, 89, 90, 91, 92  
 이경년 216  
 이귀선 246, 247, 248, 249  
 이두리 229  
 이망래 492  
 이복순 497, 498  
 이분선 142, 143, 144, 145  
 이분희 443  
 이숙자 438, 440, 441  
 이순덕 281, 282, 283, 284  
 이순선 395, 397, 398, 399  
 이순약 423, 424, 425, 426, 427, 428, 429  
 이순우 97  
 이어지 458  
 이연옥 218, 219, 220  
 이영자 190, 191  
 이오용 31, 32, 33, 34, 35, 36, 37  
 이원경 275, 276, 277, 278, 279  
 이유남 118, 119  
 이을순 476  
 이일화 401, 402  
 이정상 223, 224, 225  
 이진늬 482, 483, 484  
 이태임 273, 280  
 이판순 333  
 이필복 120, 121, 122,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임구자 38  
 임말순 233, 234, 235, 236  
 임모덕 448, 453, 456  
 임월분 212  
 임화순 38, 39  
 임화자 134, 135, 136, 137

ㄹ

장명민 356, 357  
 장월선 252  
 장필남 179, 180, 181, 182, 183  
 전경자 377  
 전옥분 145, 146, 147, 148, 149  
 전장덕 213, 214  
 정갑현 23  
 정덕순 526, 527  
 정두련 490  
 정득례 230, 231, 232, 233  
 정말수 334, 335, 337, 338, 339  
 정명식 265  
 정복수 443  
 정옥자 446, 447, 448  
 정우엽 175, 176  
 정윤선 340, 341, 342, 343  
 정재임 7  
 정정순 287, 288, 289, 290, 291, 292  
 정차점 159, 160, 162, 163, 164, 165, 166  
 정춘자 266, 267, 268, 269, 270  
 정혜영 356  
 조두리 403  
 조복지 458, 459  
 조봉자 9  
 조숙자 149, 150, 151, 152  
 조연순 403  
 조정렬 514, 516  
 조정열 404, 406, 407  
 주학수 17, 19, 20, 21  
 진석춘 518, 519, 528

ㅋ

최갑순 167, 168, 169, 170, 171, 172, 173  
 최두리 378, 379, 380, 381  
 최말분 155, 156  
 최무연 138  
 최미영 363, 365, 366, 368, 370, 371

최시점 217  
최연이 293, 294, 295  
최영자 225  
최평순 24, 25, 26  
최학연 461

ㅎ

하복순 236, 237  
하위년 445  
하위맹 357, 358, 359, 360, 362  
하형순 10, 11, 12  
한금심 343, 344, 345, 350  
허점조 250  
현인수 204  
현전미 374  
황경자 67, 68  
황남순 408, 520, 522  
황분희 253  
황연희 273  
황완용 310, 311, 312, 313, 314

## 설화 제목 색인

## 7

가덕도 406  
 가족 191  
 각시 95, 97, 331, 466  
 간부 566  
 갈갱이 402  
 감 장사 426  
 감전2동 613  
 감천1동 300  
 강피 13, 104, 112  
 개 473  
 개구리 68, 478  
 객귀 120, 136  
 거릿대 37  
 거북이 200  
 거위 220  
 거지 253  
 거짓말 559  
 계 356, 400  
 게으름뱅이 561  
 경상도 393  
 계모 113, 228, 345  
 고개 46  
 고기 449  
 고래 624, 626, 627  
 고려장 12, 20, 38, 50, 69, 74, 89, 92,  
 101, 119, 149, 223, 233, 252,  
 254, 261, 265, 271, 311, 321,  
 352, 358, 359, 372, 398, 403,  
 443, 458, 473, 477, 483, 488,  
 491  
 고려장이 27  
 고무신 425  
 고인돌 303  
 공동묘지 83  
 공알바위 39  
 꽃감 184, 207, 243, 375, 400, 490,  
 492, 556

과부 339  
 괘법마을 193  
 교육 413  
 구룡사 582  
 구룡사 기도 583  
 구멍 97, 106, 142, 145, 192  
 구식 241, 318  
 구포동신 532  
 귀신 449, 577  
 귀신 불 445  
 극락세계 126  
 금곡 592  
 금돼지 549  
 금정산 고단봉 36  
 금정산성 130, 134  
 기생 72  
 기타 540  
 까마귀 116  
 까치 11, 77, 218  
 꼬꾸랑 372, 459  
 꼬부랑 3, 49, 94, 250, 260, 272, 285,  
 287, 436, 478, 500  
 꿈 568

## L

나무꾼 77, 236  
 나발수 194  
 난쟁이 284  
 남자 40, 562  
 남편 4, 5, 85, 251, 257, 381, 389,  
 395, 398, 443, 499  
 내력 20, 27  
 냇 343  
 노부부 82, 187  
 논개 329  
 농바위 578  
 누나 110  
 눈 319

늑대 525

**ㄷ**

다대포 633  
 다행 425  
 달래고개 30, 127, 350  
 당산 132, 267, 452  
 당산나무 265, 593, 604, 608  
 당산목 616  
 당산신 463  
 당산할매 523  
 대나볼골 171  
 대리당산 585  
 대리마을 607  
 대밭골 598  
 대보름날 244  
 대장골 600  
 대화 64  
 도깨비 80, 163, 214, 264, 268, 295,  
 325, 353, 400, 430, 441, 497,  
 535  
 도깨비 방망이 421  
 도깨비감투 437  
 도깨비불 72, 81, 83, 84, 85, 87, 204,  
 267, 324, 374, 401  
 도깨비에게 269, 270  
 도끼자루 626  
 도둑 218, 423, 474, 475  
 도적 87, 553  
 독 49  
 독수리 543  
 돈 100  
 돌장승 452  
 동네 156  
 동방삭 42, 200  
 동생 110  
 두꺼비 52, 95, 206  
 뒤 392  
 딸 51, 71, 100, 137, 156, 210, 225,  
 245, 285, 363, 482, 568, 605

**ㄹ**

마누라 548  
 마루 423  
 마을 406  
 만덕사 590  
 말 238, 250  
 매구 57, 416  
 맹인 542  
 며느리 9, 16, 23, 26, 30, 61, 68, 88,  
 102, 111, 115, 116, 125, 131,  
 143, 167, 173, 182, 184, 190,  
 202, 211, 213, 214, 222, 224,  
 228, 231, 237, 238, 239, 241,  
 248, 252, 255, 258, 275, 281,  
 288, 290, 293, 308, 312, 327,  
 333, 351, 354, 355, 365, 392,  
 415, 417, 427, 444, 460, 481,  
 486, 489, 491, 508  
 명당 44, 134, 137, 156  
 명주실 463  
 모라동 506, 621  
 모라동 고동바위골 617  
 모래재 596  
 모자 260  
 목숨 387  
 무당 536  
 무덤 68, 186  
 문등병 434  
 문등이 147, 457  
 문상 279  
 민비 43

**ㅂ**

바리데기 512  
 바보 150, 246  
 박자 344  
 박훈장 574, 584  
 밤 440  
 밤똥 239  
 밥 446

- 방귀 23, 25, 76, 90, 91, 189, 230,  
 232, 291, 293, 356, 373, 376,  
 379, 458, 460, 485, 509, 511,  
 512  
 배 605  
 뱀 323, 467, 533, 557  
 범 210, 533  
 범 가죽 527  
 범바위 580  
 병어리 64, 129, 145, 173, 181, 193,  
 240, 278, 314, 340, 412, 483,  
 531  
 변장사 614  
 보리타작 208  
 복 54, 71, 122  
 복수 106  
 본처 208, 228  
 봉사 320, 329, 330  
 부모 29, 38, 60, 69, 117, 128, 149,  
 167, 187, 286, 380  
 부인 4, 5, 13, 39, 44, 55, 104, 112,  
 142, 152, 196, 228, 229, 242,  
 273, 289, 294, 344, 357, 368,  
 375, 381, 395, 434, 443  
 부자 368  
 불공 126  
 불쌍골 36  
 빛자루 78, 143, 158, 159, 294, 378  
 빨간 117  
 뻘뻘영감 570, 588  
 뿌리 623  
 뻘약 뻘약 230, 424
- 人
- 사금파리 162  
 사돈 말 395  
 사또 47, 120, 275, 421  
 사람 3, 15, 78, 79, 82, 86, 91, 121,  
 139, 140, 152, 164, 168, 170,  
 183, 188, 203, 209, 216, 217,  
 222, 227, 247, 256, 290, 295,  
 305, 307, 317, 322, 352, 373,  
 403, 404, 414, 418, 427, 431,  
 432, 442, 446, 447, 456, 464,  
 474, 475, 485, 486, 487, 492,  
 501, 503, 518, 527, 561  
 사람들 140, 264, 267  
 사랑 89, 90, 143, 181, 195, 224, 248,  
 249, 319, 341, 342, 377, 379,  
 424, 484  
 사연 196, 418, 440, 631  
 사위 270, 360, 362  
 사인(死因) 547  
 사촌형 175  
 산신령 234  
 삼 대째 226  
 삼년고개 338  
 삼십 년 426  
 삼형제 625  
 상객 51, 197  
 상사뱀 137, 172  
 새끼 131, 390, 417, 488  
 새색시 53  
 새우 626  
 색시 539  
 샘물 452  
 서울 505  
 석남사 450  
 선녀 165, 200, 263, 282, 292, 476  
 소금장수 563  
 소리 216  
 손님 185, 435  
 손자 397  
 송장 391  
 수난 276  
 수박 247  
 수수께끼 358  
 순경 408  
 스님 141, 149, 482  
 승천 546  
 시골 505  
 시랑골 584  
 시아버지 258, 279, 395

- 시어머니 138, 355, 359, 377, 381,  
 396, 479  
 시주승 55  
 시집 102  
 시집살이 104  
 시체 519  
 신랑 547  
 신부 244, 548  
 신선암 630  
 신식 241, 412  
 신평 448  
 실랑이 199  
 심청이 41  
 쌀 450  
 쪽 419
- 
- 아가씨 564  
 아기 5  
 아기소 135  
 아기장수 45  
 아낙 144, 341  
 아내 623  
 아들 21, 121, 368  
 아버지 6, 41, 83, 259, 283, 376, 457  
 아우 545  
 아이 31, 442, 601  
 아이들 420, 508  
 안골새 297  
 애기소 572, 586, 587  
 애원애기 14  
 애장 터 226  
 약물바위 577  
 양반 371  
 양산 602  
 어머니 59, 130, 151, 185, 262, 287,  
 391, 470, 489  
 업 133  
 업구렁이 174  
 에밀레종 38, 56, 67, 74, 105, 127,  
 152, 168, 198, 271, 310,
- 314, 343, 407, 472, 477, 482  
 여근 180  
 여우 81, 263, 265, 498, 519  
 여우고개 502  
 여자 120, 141, 146, 159, 179, 194,  
 201, 280, 317, 411, 421, 423,  
 428, 473  
 열녀 576, 594  
 염소 16  
 영감 148, 337  
 영동할미 266  
 영혼 61  
 예언 632  
 옛성터 590  
 오누이 10, 160, 234, 490  
 오빠 79, 274  
 옥녀봉 298  
 올케 79  
 옥심쟁이 219  
 용다움 298  
 용당 597, 609  
 용을천 589  
 우렁각시 53, 235, 310  
 우운대사 612  
 우포늪 191  
 운수사 611  
 운전기사 504  
 원령 567  
 원한 566  
 원혼 62, 114, 534, 546, 551  
 위력 243  
 유래 31, 32, 33, 34, 35, 36, 141, 155,  
 225, 297, 299, 374, 382, 394,  
 531  
 윤공단 410  
 은혜 11, 52, 77, 419  
 이무기 334  
 이야기 93, 614  
 이유 65, 315, 360, 516, 569  
 이정표 615  
 인간 71  
 잉어 335

**스**

자식 29, 38, 60, 69, 117, 167, 187,  
286, 313, 380, 398, 489  
자식들 205  
장가 545  
장림 462  
장림동 462  
장터걸 598  
장터걸 573  
재산 110  
재첩고개 629  
재첩국 620  
저승 3, 6, 164, 171, 175, 203, 232  
전라도 393  
전처 113  
절 560  
점쟁이 48  
정운 장군 630  
제삿밥 7, 62, 282  
제주 448  
조상 453  
주례 618, 622  
주인 321  
줄을 서시오 241  
쥐 563  
지네 24  
지령이 377, 444  
짐승 26  
집 465  
집안 157

**스**

참샘이 591  
처 627  
처녀 24  
천마산 302, 303  
천상선동 574  
첩 227, 623  
첫날밤 신랑 9  
초립동 555

촌부불식경 624  
총각 366  
최가와 강가 543  
충청도 6  
친구 17, 19  
친정아버지 80, 277

**ㅋ**

콩 81

**ㄷ**

택시기사 197, 221, 433, 445  
통장 370

**ㅌ**

파평 윤씨 581  
팔자 209  
팔자의 중 393  
팔자타령 392  
팔정자 628  
팔죽 565  
팔쥐 399  
팽나무 616  
평화촌 619  
풍수설 538, 539

**ㅎ**

학사대 155  
학산 154  
할머니 73, 76, 103, 166, 288, 465,  
514, 525  
할아버지 397  
함안 36  
해인사 404, 405  
해치 522  
행실 28  
헛것 215  
형상 357

호랑이 22, 24, 50, 75, 94, 96, 103,  
118, 131, 133, 135, 157, 159,  
169, 170, 179, 201, 204, 205,  
206, 212, 214, 217, 236, 250,  
280, 282, 287, 291, 328, 354,  
377, 378, 390, 417, 419, 429,  
436, 437, 441, 451, 459, 461,  
471, 484, 488, 508, 510, 514,  
556

호박 254

호식 85, 487

호투장 579

흑부리 영감 451

흔 144, 286, 537

흔령 7, 96

흔례 221

홍길동 272

화명 572

화장 306

화장터 153

황룡 597

황새 560

회화나무 634

효녀 115, 234

효부 381, 395, 398

효심 116

효자 29, 60, 99, 119, 128, 372, 575,  
594

힘 147, 151

## ■ **편저자(현장조사 책임·교열·주석 담당자)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삼지원, 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한국문화사, 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국학자료원, 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국학자료원, 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국학자료원, 2011) 등이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9(경상남도 함양군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9-21(부산광역시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3-25(경상남도 남해군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등 다수가 있다.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월인, 2000), 『부산의 민속문화』(세종출판사, 2003)가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산성마을 사람들』(부산발전연구원, 2014) 등 다수가 있다.

##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채록, 2014년-2016년)**

- 정혜란(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4-2016년 참가), 김남정(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2016년 참가), 김남희(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6 참가), 김지선(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5년 참가), 박소영(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4, 2016년 참가), 신혜림(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5년 참가), 이소현(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4, 2016년 참가), 최지은(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4-2015년 참가), 엄홍석(당시 부산대학교 국악과 재학, 2015년 악보 작성), 김지수(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7년 문헌 소재 설화 타이핑).



## ■ 편집위원

- 위원장: 이송희(신라대학교 교수)  
위 원: 박화진(부경대학교 교수)  
위 원: 백승총(부산대학교 교수)  
위 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HK교수)  
위 원: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위 원: 표용수(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구술문화총서⑥

###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발행인	강대민
편저	박경수·황경숙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발행일	2017년 7월 31일
인쇄	대훈기획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09-8 978-89-964675-9-5(세트)

---

(비매품)

#### 연락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051) 888-5056-5058 / FAX: 051) 888-5059

####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http://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http://www.bssisa.com))

※ 표지 사진제공: 북 구 문 화 체 육 과  
사상구 문화교육홍보과  
사하구 문 화 관 광 과

